

2016년 제7회 전국해양문화 학자대회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 일 자 | 2016. 7. 7(목) ~ 10(일)

| 장 소 | 당진시청, 세한대 당진캠퍼스,
당진 및 내포지역

자료집3
분과회의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 5분과 도서해양 민속과 공연예술
- 6분과 도서해양의 문학적 형상과 언어문화
- 7분과 어촌사회와 어로문화, 그리고 해양푸드
- 8분과 도서해양 콘텐츠와 관광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조직위원회

● 세부 프로그램

제1일차 <전체회의> 7월 7일(목) 13:30~18:20

- 대 주 제 :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 장 소 : 당진시청 대강장
- 주관/주최 :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개 회 식

사회 : 김형서 (세한대학교)

13:30~14:00

- 개회사 :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장 강봉룡
- 환영사 : 당진시장 김홍장, 세한대 총장 이승훈
- 축 사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충남도지사 안희정,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이귀영
당진시의회의장

기조발표

사회 : 김형서 (세한대학교)

14:00~14:30

- 환황해권의 해양역사상과 발전정책-백제모델
- 발표 : 윤명철(동국대)

주제발표

사회 : 홍선기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14:40~15:10

- [주제발표 1] 환황해, 도전과 창조의 바다
- 발표 : 최미순(세한대) ●토론 : 김승진(선장, 팀 아라파니)

15:10~15:40

- [주제발표 2] 환황해권 해양 신산업 발전 방안
- 발표 : 강길모(한국해양과학기술원) ●토론 : 임용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5:50~16:20

- [주제발표 3] 동아시아 역사 공간 '황해 지중해'
- 발표 : 권덕영(부산외대) ●토론 : 윤재운(대구대)

16:20~16:50

- [주제발표 4] 환황해권 민화에서 읽어보는 도서해양 관념
- 발표 : 이윤선(목포대) ●토론 : 정병모(경주대)

종합토론

17:00~18:20

- 좌장 :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참석 : 전체회의 발표자, 토론자

제2일차 <분과회의 및 융합토론> 7월 8일(금) 09:00~18:30

- 대 주 제 :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 장 소 : 세한대 당진캠퍼스 1관, 2관
- 주관/주최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오전 분과회의

장소 : 세한대 당진캠퍼스 근학관(2관)

09:00~12:00	[1분과] 고대 해상세력의 교류문화 ●좌장 : 박종기(국민대)	205호
	[3분과] 한일 간의 교역과 갈등 ●좌장 : 이근우(부경대)	206호
	[5분과] 도서해양 민속과 공연예술 ●좌장 : 송화섭(전주대)	207호
	[7분과] 어촌사회와 어로문화, 그리고 해양푸드 ●좌장 : 홍석준(목포대)	306호
	[9분과] 도서해양 생태자원 ●좌장 : 홍선기(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307호
	[11분과-특별] 해양문화유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좌장 : 광유석(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308호
	[13분과-특별] 대중국 교류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좌장 : 오석민(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406호
	[15분과-특별] 당진항 활성화 (한국해운물류학회) ●좌장 : 이철영(한국해양대)	407호

오후 분과회의

장소 : 세한대 당진캠퍼스 근학관(2관)

13:30~16:30	[2분과] 항로와 해역, 그리고 경계 ●좌장 : 김보한(단국대)	205호
	[4분과] 도서 연안지역의 사회사 ●좌장 : 김동전(제주대)	206호
	[6분과] 도서해양의 문학적 형상과 언어문화 ●좌장 : 배정희(한국해양대)	207호
	[8분과] 도서해양 콘텐츠와 관광 ●좌장 : 김동현(청암대)	306호

오후 분과회의

장소 : 세한대 당진캠퍼스 근학관(2관)

13:30~16:30	[10분과] 도서해양의 법과 정책 ●좌장 : 김민영 (군산대)	307호
	[12분과-특별] 해양레저스포츠 (세한대학교 해양레저학과) ●좌장 : 이영오 (세한대)	308호
	[14분과-특별] 내포문화권의 해양역사문화 (당진항토문화연구소) ●좌장 : 이인화 (한국도량형박물관)	406호
	[16분과-특별] 화성 당성과 향해 실크로드 (한양대 문화재연구소) ●좌장 : 권덕영 (부산외국어대)	407호

융합토론

장소 : 세한대 당진캠퍼스 본부관(1관) 5층 대공연장

16:40~18:30	●좌장 : 이귀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발표 : 분과별 좌장
-------------	--------------------------------	--------------

제3일차 <내포지역 해양문화 답사> 7월 9일(토) 09:00~

- 대 주 제 : 현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 장 소 : 태안·보령 일원
- 주관/주최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7월 9일(토)

09:00-10:00	세한대 당진캠퍼스 → 굴포운하유적
10:00-11:00	굴포운하 답사
11:00-12:00	굴포운하 → 태안 안흥정터
12:00-12:40	안흥정터
12:40-13:40	맛있는 점심식사
13:40-14:00	식당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4:40-15:3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보존센터
15:00-16:00	태안보존센터 → 안면운하
16:00-16:30	안면운하
16:30-17:30	안면운하→충청수영성
17:30-18:30	충청수영성, 계급장군청덕비
18:30-19:30	맛있는 저녁식사
19:30-20:45	충청수영성 → 세한대 당진캠퍼스

제4일차 <당진 및 난지도 해양문화 답사> 7월 10일(일) 09:00~

- 대 주 제 :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 장 소 : 당진 일원
- 주관/주최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7월 9일(일)

09:00-10:00	세한대 당진캠퍼스 → 도비도선착장
10:00-10:20	티케팅, 승선자 명단 작성
10:20-10:50	도비도선착장 → 소난지도
10:50-11:20	*항일의병총
11:20-11:50	소난지도→도비도선착장
11:50-13:00	맛있는 점심(도비도 선착장 근처)
13:00-13:50	도비도선착장→당진안국사지
13:50-14:40	당진안국사지 및 매항암각
14:40-15:10	당진안국사지→당진 무공사
15:10-15:40	당진 무공사(복지검장군 유적지)
15:40-16:20	당진 무공사→세한대 당진캠퍼스

2016년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2009년 목포에서 시작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삼척(2011년 2회), 여수(2012년 3회, 2013년 4회), 경주(2014년 5회), 목포(2015년 6회) 등지를 거쳐 이번에 충남 당진에서 7회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7월 7일에 개최되어 우연히도 행운의 숫자 7이 세 개 모였으니 행운이 넘쳐흐르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간 해양문화학자대회를 통해서 발표된 해양 관련 논문은 약 1,000여 편에 달합니다. 이번 당진 대회는 전체회의와 16개 분과를 통해서 200편이 넘는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역대 최대의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행운의 대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대회는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큰 주제를 내걸고 첫날 당진시청에서 전체 회의, 둘째 날 세한대에서 분과회의를 진행하고,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충남 내포지역의 해양 문화와 당진 난지도를 답사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꾸몄습니다. 일부 해양레저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이번 대회는 당진시의 전격적인 지원 약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여기에 충남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동참하고 충청남도도 후원에 가세하였습니다. 충청남도의 해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과 함께 대회를 이끌어온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이번 대회에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고, 현지 대학인 세한대학교가 대회장과 숙소를 제공하는 등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과 한국해양재단도 후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각 분야의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바다와 섬을 소재로 삼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열린 학술 난장입니다.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통해서 바다와 섬을 학문 연구에 끌어들이 욕지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학문 연구의 풍토를 서서히 개선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2017년 8회 대회는 군산시와 서귀포시에서 개최 논의가 있습니다만, 개최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큰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중요합니다. 예산 확보와 함께 차기 개최지가 정해지는 대로 바로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양문화의 연구와 해양사상의 고취 및 확산을 위해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2016년 7월 7일

공동 개최 및 후원 기관들을 대표하여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장 강 봉 룡 배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장 김홍장입니다.

산과 들, 그리고 바다와 하늘 모두 각기 푸른빛을 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당진에서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를 주제로 하는 제7회 전국해양학자문화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기까지 많은 준비를 해주신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전국 도서해양 전문 연구자 여러분을 17만 당진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009년 첫 개최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7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해양 연구자들이 각양각색의 해양 관련 주제를 총망라하며 그 범위와 깊이 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학술대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최고 수준의 학술대회로 발전하기까지에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발전하기를 염원하는 해양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함께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주지하시다시피 오늘날 바다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제 식량과 물류,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이르기까지 생존과 번영의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해양개척에 나서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욱이 삼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그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이 바닷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의 40%를 바다를 통해 얻고 있습니다. 바다에 얼마나 많은 천연자원이 있는지는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번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중국의 부상과 함께 대두한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맞아 서해안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일깨워 환황해 경제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신해양산업 육성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수도권을 잇는 사통발달의 교통망을 기반으로 당진항을 동북아의 물류거점항만으로 키워나가는 동시에 김승진 선장의 요트세계일주 모험인 왜목항을 중심으로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및 국제해양레저스포츠제전 유치로 대한민국의 해양레저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당진에서 개최되는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에서 풍성한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와 토론의 장이 되는 것은 물론 당진의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를 눈앞에서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거듭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자대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당진시장 김 홍 장

제7회 해양문화학자대회를 당진에서 개최하도록 도움을 주신 안희정 충남도지사님, 김홍장 당진시장님, 강봉룡 도서문화연구원장님, 강현수 충남연구원장님 그리고 학술토론의 장에 함께 참여하시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오신 학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주제로 4일간에 걸쳐 학술토론과 인근 지역 답사, 그리고 세한대학교 해양레저학과가 준비한 해양스포츠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양문화학자대회는 2009년 목포에서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서해안시대의 다른 중심인 당진에서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환황해권을 경제 번영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평화의 무대로 그 효용성을 넓혀가는 충청남도의 도정 방향과 어우러져 특별한 의의가 더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와 세한대가 공동으로 귀한 손님맞이 채비를 하였으니, 열띤 학술토론의 장을 만 들어주시고, 고귀한 학술적 결과를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대학 당진캠퍼스에 머무시는 동안 단 한 점의 불편함도 없이 편히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진에서 열리는 제7회 해양문화학자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세한대학교 총장 이 승 훈

축 사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환황해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충청남도에서 열리는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충남을 방문해 주신 해양 전문가 여러분과 학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충남도는 2012년 도 청사를 대전에서 내포(홍성·예산지역)로 이전하고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 건도(建道) 충남」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는 등 환황해시대의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까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많은 갈등과 전쟁, 침략이 있었습니다. 황해 역시 제국주의 시기, 그리고 불과 수십 년 전 큰 전쟁의 시기까지 폭력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환황해지역은 평화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중국의 문물은 황해를 건너 이곳 충남의 옛 나라인 백제에서 꽃을 피웠고, 다시 일본으로 전해져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황해는 한·중·일 고대 3국의 공동번영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제 황해는 평화와 번영의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세계시민으로서 하나로 이어진 우리가 이 바다를 통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광복절에 환황해지역을 돈과 사람, 상품이 자유롭게 오가는 하나의 시장으로, 그리고 집단안보 체제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EU수준의 공동체로 구성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는 고대의 황해를 넘어 새로운 아시아의 평화공동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풀어 나갈 것입니다.

충남은 환황해지역 ‘평화의 제도화’라는 목표 아래 이 지역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킬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해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 포럼과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첫걸음인 환황해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지역 내 지방의회와의 연합체 형성을 위한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충남에서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주제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저명한 해양문화학자 여러분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충남의 해안을 답사하는 것은 우리 충남이 그리는 ‘아시아의 지중해, 황해’라는 미래상 실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고 바다가 평화와 번영의 공간, 즐거움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대회 준비에 애써 주신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7월 7일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축 사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국회의원 어기구입니다.

더위가 한창입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뜨겁다고 하지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에 참석한 연구원들의 열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양은 전 세계의 인류가 공유하는 총유의 자원으로서 지구적 잠재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간입니다. 세계가 경쟁적으로 해양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해양자원의 이용과 해양문화에 대해 집약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도 7회째를 맞는 시점에서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대주제로 항만의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당진시에서 개최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진의 한자지명을 보면 당나라 唐, 나루 津으로 중국 산둥반도와 매우 가까워 일찍이 당나라와 교역이 활발했던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진시의 항만시설은 5천톤~20만톤 규모 35선석이 있으며 2015년 물동량 6931만7천톤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목마을에 중국 기업이 1150억규모의 마리나항만 사업제안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등 항만과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렇듯 당진시민들의 항만과 해양관광의 욕구가 팽배한 가운데 환황해권의 해양역사상과 발전정책을 발표하고 해양레저·스포츠·관광 거점 구축에 관한 방안, 해양신산업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한다니 참으로 기대됩니다.

해양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기관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해양문화를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6년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의 주관과 주최를 담당할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7월 7일
국회의원 어 기 구

축 사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이끌어주신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과 이번 대회가 당진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주시고 주관해주신 충청남도 당진시,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재단 등의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제3회 대회부터 도서관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본 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과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성장해가고 있는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볼 때마다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신 해양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양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해양학자들은 역사, 문화, 과학, 경제, 정치,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해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해양시대, 해양문화강국으로 나가는데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대회가 역사시대의 국제 항구이자 신해양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당진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해양 미래의 원동력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마지 않습니다. 여기 참석한 많은 연구자들께서는 해양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번 대회를 단편적인 학문의 연구를 뛰어 넘어 다양한 시각에서 학문적 해안을 만들어가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또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우리나라 해양문화연구의 마당으로 거듭나고 세계인의 해양문화학자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약하는 자리로 만들어 갑시다.

다시한번 이번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련기관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이 귀 영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7회 전국해양문화 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학술회의 준비에 애써주신 전국해양문화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제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6세기 영국의 탐험가인 월터 롤리가 남긴 말인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다는 세계 물류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해산물과 각종 자연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양관광과 레포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항만과 해양관광물류의 개발은 인천과 부산, 제주 등 일부 도시의 전유물처럼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중국을 비롯한 환황해권이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지역의 역할과 위상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학술대회가 충남도내 각 시군의 공동 관심사인 환황해권 해양신산업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전문가와 참석자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과 열정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충남 무역항, 특히 당진항 발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모두의 빛나는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당진시의회 의장

축 사

오늘 이곳 충청남도 당진에서 전국에서 모인 해양학자들과 함께 환황해권 역사와 문화를 논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충청남도는 백제로부터 시작해도 황해와 함께 천오백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일구워 왔고, 그에 앞서 선사시대를 아우르면 수 천년 동안 황해와 함께 생활 터전을 만들어왔습니다. 그 역사적 증거들이 곳곳에 남아 있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바다 속 세계조차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들을 속속 알려주고 있어 충청남도는 황해를 둘러싸고 진행된 역사의 보물창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환황해권’은 충청남도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포함하여 황해 연안의 여러 도시와 지역들이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있어서 바다를 매개로 한 교류와 소통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단지 지나간 역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거나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는 의미 있는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7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장 호 수

축 사

전국의 해양문화학자 분들이 다함께 모이는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주제로 이 곳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는 고대 동아시아 해양 강국 백제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당진(唐津)은 그 지명이 말해 주듯이 중국 당나라와 교류했던 해상 교역의 관문이었습니다. 당진에 있는 또 다른 항구 한진(漢津) 역시 그 지명에서 이곳이 중국 한나라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동안 냉전과 갈등의 바다였던 황해가 이제 다시 교류와 번영의 바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황해를 품고 있는 충청남도도 해양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해에 가까운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였고, 해양수산물 출범시켰으며, ‘해양건도, 환황해권의 새로운 중심지’ 라는 해양수산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진 또한 시대를 넘어서 대중국 교역의 중심지로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황해를 마주보고 있는 중국의 여러 지역과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왜목 마리나항에 중국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남과 당진이 환황해 시대에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철강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로 알려진 당진시가 해양도시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하여 충남과 당진의 미래를 밝히는 좋은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전국의 해양문화학자들께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님과 당진시 김홍장 시장님, 세한대학교 이승훈 총장님,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강봉룡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회 해양문화학자대회의 당진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전국에서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번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당진에서 행복한 3박 4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 자료집 1 목차

전체회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기조발표〉 환황해권의 해양역사상과 발전정책 -백제모델 윤명철 동국대학교	36
〈주제발표1〉 환황해, 도전과 창조의 바다 최미순 세한대학교	53
〈주제발표2〉 환황해권 해양신산업 발전방안 강길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0
〈주제발표3〉 동아시아 역사 공간 '황해 지중해' 권덕영 부산외국어대학교	93
〈주제발표4〉 환황해권 민화에서 읽어보는 도서해양 관념 이윤선 목포대학교	105
〈토론문1〉 요트 세계일주를 통한 국가홍보 사례와 해양레저문화 활성화 방안 김승진 팀 아라파니	121
〈토론문2〉 환황해권 해양신산업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임용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24
〈토론문3〉 동아시아 역사 공간 '황해지중해'를 읽고 윤재운 대구대학교	126
〈토론문4〉 이윤선교수의 “환황해권 민화에서 읽어보는 도서해양개념”에 대한 논평 정병모 경주대학교	128

● 자료집 2 목차

[Session 1] 고대 해상세력의 교류문화

장보고의 죽음과 (841년 11월의) 彗星 서영교 중원대학교	37
고대 탐라국 탄생 신화에 숨겨진 벽랑국 이해 채바다 고대항해탐험연구소	44
무령왕 탄생지 가카라시마에 대한 문헌적 탐색 니시미나오코 큐슈박물관	51
백제 무령왕이 태어난 일본의 섬은 어디인가? 우치다사유리·시바모토 타쿠미 큐슈박물관	58
금강 하구 나리포의 역사적 의미 곽장근 군산대학교	66
경북 동해안 감은사지 금당터 건축구조와 만파식적 설화 이병건 동원대학교	72
내포지역 백제부흥전쟁 연구 김학로 백제부흥전쟁기념사업회	78
왕건의 고려건국과 해양세력 강봉룡 목포대학교	84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충남지역 제해권 검토 김명진 경북대학교	92
고려시대 內浦地域의 佛教寺院 배상현 동서문물연구원	99
고려시기 해상교류의 성격-번성론과 소극론 박종기 국민대학교	105
선유도 고려시대 유적의 현황 조명일 군산대학교박물관	112
한국역사상 島嶼(섬) 관련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도서(섬) 인문지리학을 통한 해양권역 연구 활성화 - 홍영의 국민대학교	119

● 자료집 2 목차

[Session 2] 항로와 해역, 그리고 경계

잇혀진 使行路 黃海南路의 역사적 의의 박영철 군산대학교	129
1323년 신안선의 항로 윤용혁 공주대학교	135
13세기 서해안 해참 분석 이종수 중앙대학교	139
임진왜란 초기해전의 연구 제장명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146
16세기 조선 수군의 전술과 공수 한성일 부산대학교	152
조선시대 조운제 연구 동향과 전망 한정훈 목포대학교	159
프랑스 선교사의 서해안 입국로 모색 김수태 충남대학교	165
서해 최대의 험지 안흥량과 굴포운하 문경호 대전과학고등학교	170
백제 백강과 백촌강 서정석 공주대학교	176
제주도 해안의 환해장성과 규슈 해안의 石壘의 역사적 고찰 김보한 단국대학교	181
동해안 주상절리 분포 실태와 활용방안 최재영 경주대학교	186
문명 간 교류 유형 비교연구 김정하 부산외국어대학교	195
환황해권 교류 탐색을 위한 예비적 고찰 임용덕 제주대학교	203

● 자료집 2 목차

[Session 3] 한일 간의 교역과 갈등

조선초기 대마도의 向化倭人 平道全 한문종 전북대학교	211
선조대 경인통신사의 상반된 보고와 그 대응 김 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16
조선후기 왜관통제와 교간사건의 처리 장순순 전북대학교	223
조선후기 대일무역과 구무(求貿)의 전개 이승민 동국대학교	233
조선후기 대일공무역과 공목(公木) 김영록 부산대학교	240
풍계 현정(楓溪賢正)의 『일본표해록』 향로 탐사 궁인창 생활문화아카데미	246
『해동제국기』의 「琉球國之圖」의 원본에 대하여 이근우 부경대학교	253
개항 전 일본의 조선연안 정보 입수와 해도 제작 및 활용 한철호 동국대학교	259
개항기 일본의 조선어업 침략과 부산주재 일본영사의 어민관리 최보영 동국대학교	267
총독부 관리가 증언한 조선의 수산업 김수희 영남대학교	274
방계현상과 바닷길 이소라 민족음악연구소	276
1920년대 지식인이 본 서남해 탁현진 목포대학교	283

● 자료집 2 목차

[Session 4] 도서 연안지역의 사회사

삼국시대 고분 출토 상어와 고고환경 김재홍 국민대학교	291
가야와 왜의 주형토기 및 고대 선박 고찰 이효웅 이사부기념사업회	296
지형학적 관점에서 본 도서지역 선사시대 주거지 입지변화 박지훈 공주대학교	302
고려시대 어민의 생활과 어량소 이정신 한남대학교	308
고려~조선시대 하천 제방에 대하여 차순철 동국문화연구원	315
토정이지함의 섬과 바다에 대한 공간인식 장용기 목포 MBC	322
조선후기 '해도진인설' 의 의미 박상현 부산대학교	330
재일 제주인 '제주도 수산업개척 선각자' 박기만과 해녀들의 이주와 정착 김동전 제주대학교	336
근세 동아시아 어보의 역사 김문기 부경대학교	346
18~19세기 西海 島嶼住民의 거주 양태 임학성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355
일본인 염업기술자들이 전하는 식민지기 조선의 염업 류창호 인하대학교 박물관	361
천일염전 개발과정 분석을 통한 섬의 인문환경 연구 최성환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369
충남 당진군 삼화2리의 새마을운동의 전개와 성격 이창섭 부산대학교	374

● 자료집 3 목차

[Session 5] 도서해양 민속과 공연예술

황해해양문화와 임경업 킬리콘텐츠 이창식 세명대학교	36
서남해안 해안표착형 돌배설화 연구 송화섭·김경미 전주대학교	37
환황해권 天主教 敎案으로 본 補儒論의 西學의 意義와 한계 김치완 제주대학교	48
해신이 된 제주해녀항일운동 주역 강관순 선생의 딸 오문수 오마이뉴스	56
절걸궁으로서의 鳩聚와 바다 박흥주 곳연구소	62
남해군의 정월대보름 민속대축제 정의연 남해안역사문화연구소	64
해양왕국 고려시대 차문화 연구 정서경 목포대학교	72
카스피해 연안의 고대 민족과 문화 전통 김영술 전남대학교	77
환황해권에 부는 생명의 바람神, 영등 김승훈 제주대학교	83
개화기 인천의 일본 공연예술 고찰 신근영 고려대학교	89
개항장 원산에 설립된 지역극장과 운영에 관한 연구 김남석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95
한반도 해역의 구분과 문화권역의 전개 홍순일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99
해양 실크로드와 악기의 전파 전인평 중앙대학교	107
해양 실크로드를 통한 음악교류 김정예 서울시립대학교	113

● 자료집 3 목차

[Session 6] 도서해양의 문학적 형상과 언어문화

비네타, 발트해의 사라진 도시의 전설 배정희 한국해양대학교	120
『모비딕』에 나타난 포경선의 세계일주 항로로 본 19세기 태평양의 정치적 상황 김낙현 한국해양대학교	126
문무대왕릉에서 발견 했다는 ‘원효결서’ 의 정체 장정태 동국대학교	133
역사인물 홍가와라와 「홍길동전」 을 통해 본 해양문화의 세계 설성경 연세대학교	140
김상헌의 제주 체험과 제주에 대한 인식 김기림 조선대학교	147
〈최척전〉에 나타난 바다의 의미 이채경 성균관대학교	154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나는 ‘바다’ 이미지 및 인식 연구 김미령 조선대학교	163
최인훈 소설 〈颱風〉에 나타난 바다 이미지 연구 박해랑 성신여자대학교	170
한국 노래가사에 나타난 해양문학의 의미 정석원 부산대학교	177
완도군 금일의 해양 지명어 ‘모리’ 조미라 목포대학교	180
보길도(甫吉島) 격자봉(格紫峰, 430.3m) 천기철 한국사진작가협회	187
‘소래’ 포구의 어원에 대하여 손희하 전남대학교	193

● 자료집 3 목차

[Session 7] 어촌사회와 어로문화, 그리고 해양푸드

문서를 통해 본 염전과 염부이야기 김경옥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
어업민속의 지역성 권삼문 여헌기념관	208
기술변동에 따른 미역 인공양식의 확산과 어민들의 생업전략 박혜영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14
1990년대 초 보령 무창포의 어촌생활 신용희 금강뉴스	222
미륵도 풍화리 위당계(慰堂契)의 운영 이혜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29
여수해역 하계 수산물 보양식 4선 임여호 한국수산회	235
화성시 갯벌지역 어업민속과 전통지식 편성철 목포대학교	238
경기 아산만 하구의 정치 어구와 그 특징 오창현 국립민속박물관	251
마을어장 공유의 공식화와 전통적 운영방식의 지속 송기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57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서해의 어업 전진 기지 어청도 이재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65
오징어의 모든 것 : 오징어를 소재로 한 푸드아트테라피 이정연 목포대학교	271
동양 전통 氣味論에 기초한 해양식품의 食治활용 연구 박성혜 광주여자대학교	278
‘섬의 인문학’ 주창과 ‘도서해양문화학’ 정립을 위한 제언 홍석준 목포대학교	284
김 양식업의 기술발달이 어촌사회에 미친 영향 최홍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94
해녀 어업의 전승과 인식 변화 이유리 목포대학교	300

● 자료집 3 목차

[Session 8] 도서해양 콘텐츠와 관광

생 자크 조가비 콩포스텔라의 순레코드와 문화생산 코드 선미라 이화여자대학교	308
『하멜표류기』에 의한 관광문화산업의 허와 실 이영란 조선대학교	313
전남서남권 무인도서의 관광활성화 방안 김형서 세한대학교	322
제주 - 완도 연계 해상관광특구 조성 방안 황상석 장보고글로벌재단	330
도서해양과 관련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적 활용 곽수경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336
경남 사천 ‘지역문화로서의 해양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안영숙 경남문화예술교육연구소	342
신라방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박재완 남도 마실길	349
장보고의 티-세라믹로드에 대한 고찰 김대호 중국 광서사범대학교	355
한국근대해양선박여행의 정치적 심상지리 차혜영 한양대학교	359
전통소금 ‘자염(煮鹽)’의 복원과 활용사례 정지수 태안문화원	366
지오투어리즘을 적용한 여수시 낭도의 자연관찰로 개발 이정훈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371
남해안 다도해섬 개발과 마리나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동현 청암대학교	377

● 자료집 4 목차

[Session 9] 도서해양 생태자원

기후변화와 매립에 의한 경기만의 기초생태 변화	36
최중기 인하대학교	
기후변화에 따른 함평만 염생식물 생장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	40
이점숙 군산대학교	
해안사구에서 식물 생장 및 생리적 반응을 적용한 외래식물 관리방안	42
명현호 국립공원연구원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해안경관 변화	45
박정원 국립공원연구원	
태안해안국립공원 북부지역 해빈의 계절적 변화	53
장성건 국립공원연구원	
신안군 수개 도서의 염생식물 분포 특성	60
양효식 목포대학교	
해양쓰레기와 해양생물 피해 특성	64
한해광 서남해환경센터	
전남 신안군 지역의 교량 건설과 토지이용에 따른 경관구조	68
김재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S호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해안선 잔존유정의 변화	74
김진석 국립공원연구원	
해상 및 해안국립공원의 외래식물 관리	80
오장근 국립공원연구원	
해양보호지역에서의 생태계서비스	85
최종관 국립공원연구원	
연륙교 건설에 따른 어촌 공동체와 지역정체성의 변화	88
이경아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신안군 자은면 도서자생식물을 활용한 테마공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	95
홍선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자료집 4 목차

[Session 10] 도서해양의 법과 정책

세월호 사건으로 영향 받은 국내법제와 내용 연구	104
이동원 독도조사연구학회	
국내 해양사고의 특성 분석	111
이호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의 도서 관리 동향	115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특수 목적 무인도서 제도 도입에 대한 소고	120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보는 한국의 견해	126
김영주 독도조사연구학회	
독도교육,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	129
최홍길 선정고등학교	
전남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근무장소에 따른 특성의 차이	134
조유향 초당대학교	
『섬』 정의(定義)의 혼선과 정립에 관한 고찰	139
신순호 목포대학교	
군산항 관련 사진·통계자료의 현황과 연구방향	145
김민영 군산대학교	
연태항의 “일대일로” 건설에 따른 한중경제의 신기회	150
김덕수 중국절강해양대학	

● 자료집 4 목차

[Session 11] 특별-해양문화유산

국립어업박물관 건립 필요성과 전시 방향 곽유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57
조선통신사선 원형복원을 위한 추정설계 홍순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63
3D스캐닝을 활용한 고선박 선형복원 강원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69
수중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한 기본적 법률 및 관리체계 정용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75
수중 출수 금속문화재의 물리적 클리닝 적용 실험 연구 김서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79
『세계의 배』 역사 전시 구성의 사례 진호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84
고려 삼별초 유형 일고찰 윤형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88
신안선 유물 출수 양상의 고고학적 검토 조진욱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92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해양문화유산조사 수습 도자기의 현황과 성격 김애경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97
역사기록 속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신미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4

● 자료집 4 목차

[Session 12] 특별-해양레저스포츠

“원동컵” 국제범선경기 왕보기 청도범선협회	212
남한강 수변 레저스포츠 시설 활성화 방안 고재곤 여주대학교	213
해수변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 주성택 경희대학교	220
수변지역 선진사례 박창욱 여주대학교	221
수변지역 체육시설 활용방안 이용수 여주대학교	222
한국의 해양스포츠 연안산업발전의 대표적 저해요인 류효정 (주)라라마린아카데미	223
해양레저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 홍석호 성결대학교	228
수도권 주민 ‘생존수영’의 장으로서 한강 활용에 관하여 박진 서울여자대학교	232
해양 수상스키 쇼의 초대 박정수 한서대학교	235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방안 박종욱 세한대학교	245
스킨스쿠버시설과 장소개발을 통한 활성화 방안 유동균 세한대학교	242
마리나 시설의 범죄안전을 위한 셉테드(CPTED)적용방안 함주일 대구과학대학교	246
해양레포츠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영향 이규길 세한대학교	250
생활체육으로서 해양레저 활성화 방안모색 김영주 세한대학교	251
해양레저스포츠안전관리 이영오 세한대학교	264
스포츠권의 법리 심재영 세한대학교	268

● 자료집 5 목차

[Session 13] 특별-대중국 교류

한중FTA가 충남농림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강마야 충남연구원	36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박경철 충남연구원	43
서해안 어업분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종화 충남연구원	49
중국의 남색경제정책 추진동향 박인성 충남연구원	55
중국인 유치를 위한 충남차이나벨트 조성방향 송두범 충남연구원	65
‘한류’의 산업적 의미 홍원표 충남연구원	70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중해양실크로드 발전 방안 강희정 한밭대학교	75
전파론적 관점에서 본 중국관계 오석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76
백제의 관음신앙과 바다길 이경복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87
남송 학인 정신보의 고려 이거경위와 그 의미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94
조선 천주교의 서양 교류 김정환 교회사연구소	100

● 자료집 5 목차

[Session 14] 특별-내포문화권의 해양역사문화

내포-대중국 교류의 창(窓) 김추윤 신한대학교	108
백제 신라시대 서산지방의 해양문화사 이은우 충청문화연구소	118
천혜의 관광지 안면도의 발전과 미래 정우영 태안향토문화연구소	127
보령 외연도 동제의 변화과정 황의호 보령향토문화연구소	132
개신교 성경 최초 전래지 서천 마량진 갈곶(葛串)과 그 활용 방안 유승광 공주대학교	141
당진 해안의 어촌 민속 이인화 한국도량형박물관	147
내포(마한)지방의 문화와 서해 박태신 예산향토문화연구소	156
당진 동학농민혁명과 승전목 전투 김영곤 당진역사문화연구소	162
황해 근대 해양문학의 한 검토 김영미 공주대학교	169
白魚, 白小魚에 대한 고찰 정 일 목포대학교	176

● 자료집 5 목차

[Session 15] 특별-당진항 활성화

항만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	186
노홍승 한국교통연구원	
당진시와 당진항의 상생발전 전략	203
박창호 인천재능대학교	
당진항 배후단지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	214
김율성 한국해양대학교	
미래지향적인 당진항 활성화 과제	232
강상곤 영진공사 기획실	

● 자료집 5 목차

[Session 16] 특별-화성 당성과 항해 실�크로드

당성과 한반도의 실�크로드 배기동 한양대학교	262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실�크로드 길 팀 윌리엄 런던대학교	268
화성 당성 제3차 발굴조사의 성과와 전망 김기룡 한양대문화재연구소	270
성곽유적의 정비와 복원 이화중 고려문화재연구원	277
당성 출토 명문기와와 중국자기의 의미 이상현 한양대문화재연구소	285
한반도 중부지방의 신라성과 한강유역 복진로 서영일 한백문화재연구소	291
서안에서 산둥까지의 길과 문화흐름의 기록 정일교 수원여자대학교	299
당성의 고대문헌연구의 한계와 새로운 다학문적 연구 필요성 김성일·이병준 한양대문화재연구소	304
중국과 한반도의 해상 실�크로드 모이다 링보박물관	313
《管子》“发、朝鮮之文皮”의 고고학적 탐색 왕 청 산둥대학교	320
동아시아 해상 교역로상의 제사유적 임효재 서울대학교	341
청해진 발굴성과와 장보고의 해상활동 조유전 前국립문화재연구소	348
동아시아 결상이식 분포와 교류관계 마쓰우라 유리치로 동경국립박물관	354



5분과

도서해양 민속과 공연예술

황해해양문화와 임경업 킬러콘텐츠	이창식	세명대학교
서남해안 해안표착형 돌배설화 연구	송화섭·김경미	전주대학교
환황해권 天主教 敎案으로 본 補儒論的 西學의 意義와 한계	김치완	제주대학교
해신이 된 제주해녀항일운동 주역 강관순 선생의 딸	오문수	오마이뉴스
절절궁으로서의 鳩聚와 바다	박흥주	굿연구소
남해군의 정월대보름 민속대축제	정의연	남해안역사문화연구소
해양왕국 고려의 차문화 연구	정서경	목포대학교
카스피해 연안의 고대 민족과 문화 전통	김영술	전남대학교
환황해권에 부는 생명의 바람神, 영등	김승훈	제주대학교
개화기 인천의 일본 공연예술 고찰	신근영	고려대학교
개항장 원산에 설립된 지역극장과 운영에 관한 연구	김남석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한반도 해역의 구분과 문화권역의 전개	홍순일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해양 실�크로드와 악기의 전파	전인평	중앙대학교
해양 실�크로드를 통한 음악교류	김정예	서울시립대학교



황해해양문화와 임경업 킬러콘텐츠

이 창 식 ■ 세명대학교

임경업은 바다신의 대표성을 띤다. 임경업의 연구성과에 비해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별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발표를 통해 새로운 해양문화산업의 길을 전망한다. 황해 해양문화의 대표 마인드마크를 정립해야 한다. 장보고, 이순신, 이사부 등에 비하여 황해에 대한 상징성이 개발되지 않았다. 임경업을 통해 황해 킬러콘텐츠를 통해 랜드마크와 마인드마크를 제시하는 데 있다.

서남해안 해안표착형 돌배설화 연구

송 화 섭
김 경 미

전주대학교 교수

I. 서론

서남해안에서는 해안표착형 돌배설화가 채집되고 있다. 해안표착형은 배가 표류하거나 목적지를 향하여 해안에 당도하는 형식이다. 해안표착형 돌배설화는 『삼국유사』석탈해신화부터 현전하는 가장 역사성있는 불교연기설화이다. 해안에 당도하는 돌배에는 불상, 불경, 불탑 등 불교의 홍법과 창사와 관련된 보물들이 실려있는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불교의 보물들은 석선(石船), 석주(石舟)에 실려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돌배는 설화에 등장할 뿐 실재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해안표착형 설화는 대체로 관음상을 싣고 와서 인연의 땅이나 사찰에 옮겨놓는 불교전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서해안에서는 고창 선운산 해안의 대참사와 부안 변산의 내소사와 관련되는 해안표착형 설화가 전승되고 있으며, 남해안에서는 『삼국유사』석탈해왕조의 아진포, 해남 미황사의 금석문, 곡성 관음사 사적기 등 문헌과 금석문에서도 해안표착형 돌배설화가 등장한다¹⁾. 이러한 해안표착형 돌배설화는 돌배를 통해서 불교의 전파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만, 돌배의 형태와 실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 이 글에서는 석탈해신화, 성덕산 관음사사적기, 선운사, 내소사의 해안표착형 돌배설화를 소개하고, 그 문화적 상징성을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1) 송화섭, 「한반도 서남해안 석주설화의 역사적 고찰」 『동아시아고대학』25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

Ⅱ. 해안표착형 돌배설화의 분석

『삼국유사』기이편 석탈해신화는 해안표착형 돌배설화의 원초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석탈해신화의 해안표착형 (石)舩說話를 통해서 돌배설화의 원형질을 추적하고자 한다.

1. 석탈해신화의 해안표착형 설화

(A)남해왕 시절에 가락국 해중에 어떤 배가 와 닿았다. ①그 나라의 수로왕이 신민들과 함께 북을 치고 맞아들여 머물게 하려하니 배가 쏜살같이 달아나 계림 동쪽 하서지촌 아진포에 이르렀다. 마침 ②포구의 해변에 노파가 있었는데, 아진의선이라 이름하였다. 그녀는 혁거왕의 고기잡이 할머니였다. 바라보고 말하기를 이 바다가운데 본래 바위가 없었는데, 까치가 모여들어 우는 것을 무슨 일인가 하고 배를 끌고 가서 찾아보니 까치가 배위에 모여들고 그 배가운데 궤 하나가 있는데 길이가 20척, 넓이가 13척이었다. 그 배를 끌어다 수림밑에 두고 길흉을 알지 못하여 하늘을 향해 조금있다가 궤를 들여다보니 ③단정한 남자와 아슬아슬 칠보 노비가 그 가운데에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대접받는지 7일만에 말하되, ④「나는 본래 龍城國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일찌기 28용왕이 있었는데, 모두 사람이 태에서 나왔고 5.6세부터 왕위를 이어 만민을 가르쳐 성명을 올바르게 하였다. 팔품의 성골이 있으나 선택하는 일이 없이 모두 대왕에 올랐다. 이때에 우리의 부왕 함달파가 적녀국의 왕녀를 맞이하여 비를 삼았더니 오래도록 아들이 없으므로 기도하여 아들을 구할새, 칠년 뒤에 대난 하나를 낳았다. 이대 대왕이 군신에게 묻되 사람으로서 알을 낳음은 고금에 없는 일이니 이것이 불길한 징조라고 말하고 궤를 만들어 나를 ⑤그 속에 넣고 또 칠보와 노비를 배안에 가득실어 바다에 띄우면서 축원하되 마음대로 인연이 있는 곳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집을 이루라 하였다. 그러자 문득 붉은 용이 나타나 배를 호위하여 여기에 왔느라」라고 말을 차치자.

(A)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A)-①은 가야의 해변에 배가 와 닿자 수로왕이 신하와 백성들과 함께 바다에 나아가 맞이하려하자, 배가 쏜살같이 달아나 신라의 계림 하서지촌 아진포에 다다랐다. 가야가 인연의 땅이 아니라 신라가 ‘因緣의 땅’이라 왕이 나와 풍악을 울리며 맞이하려 해도 달아나 버리고 있다. 그런데 강이라는 배는 오나라의 배라고 알려져, 강의 출발지는 중국 양자강 하류역이라고 추정된다. 그리고 돌배설화는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맞이하려 하지만, 인연의 땅을 찾아가는 이야기의 구도가 해안표착형 돌배설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A)-②의 아진포구에 나와서 배를 맞이하는 주체는 아진의선이라는 할머니(老嫗)이다. 이 할머니는 해안에 상주하거나 해안에서 바다를 돌보는 해신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안 죽막동 수성당의 開洋할미와 같은 존재이다. 이러한 (A)-②의 해안의 할미는 중국 보타락가산의 자죽림에서 상주하면서 해안에 배가 당도하려면 부두를 만들어 배를 정박시켜주는 할머니(短姑)와 역할이 너무나 흡사하다. 신라에서는 이 할머니가 阿珍義先이라고 실제 이름을 밝혀놓고 있다.

(A)-③에는 배안에 동자와 칠보석이 노비와 함께 가득차 있었다. 동자는 관음의 화신일 수 있으며, 용성국의 왕자같은 존재일 수 있다. 문제는 동자가 인연의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라는 것과 인연의 땅에 사찰을 세우는 것과 다름없다. 칠보는 불교에서 용궁의 연지에 떠 있는 칠보(보석으로 장식된 7개의 배)와 같은 의미를 받아들여져 (A)-③의 배는 ‘불교 상징의 선성한 배’라고 해석된다.

(A)-④는 탈해는 龍城國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다. 용성국은 주에 正明國, 琬夏國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완하는 花廈國이라고 하니 그 위치는 왜의 동북 1천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용성국은 왜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해안 어느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해양국가 일 수 있다. 탈해는 용성국에서 난생설화를 가진 주인공으로 태어나고 있다. 난생신화가 남방계 설화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 남해안이나 그 아래에서 올라온 표류자일 수 있다.

(A)-⑤에서 인연이 있는 땅에 가서 집을 짓고 살라고 바다에 배를 띄워 보내고 있다. 이러한 불연의 땅에 찾아가서 불교전파를 성취하라는 의미가 있다. (A)-①에서 가야국의 해변에 이르렀을 때 가야가 불교전파의 목적지가 아니라서 배가 쏜살같이 달아나서 계림 동쪽 아진포에 당도하고 있다. 돌배는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하였다고 볼 있으며, 해안의 포구에 당도한다는 설화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석탈해신화가 후대에 어떠한 형태로 재생산되었는지 남해 미황사 사적기 자료와 성덕산 관음사 사적기에 등장하는 해안표착형 관음연기설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탈해왕은 동악에 올라가서 남의 집을 빼앗는 주체로 묘사되었고,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지만, 성덕산 관음사 사적기에는 관음도량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2. 성덕산 관음사 사적기의 해안표착형 돌배설화

성덕산 관음사 사적기에는 조선 영조 5년(1729)에 송광사의 碧梧門人 白梅子가 관음사에 들렀다가 그 절의 長老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後代의이다. 이 자료는 『조선사찰사료』에 실린 내용이며,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심청축제의 논리적 근거로 제공되는 문헌설화 내용이다.

(B) 대흥이라는 고을에 홍장이라는 장님의 딸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원량은 소년에 그만 눈이 멀었다. 비록 눈이 멀었으나 양반의 후예로써 행실이 청렴하고 강직하고 기개가 고상하여 언어범절이 조금도 경솔하지 아니하니 인근의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는 바였으나 불행은 겹치는 것이라고 한다더니 성품이 현숙하고 민첩하여 바느질과 품팔이로 앞 못보는 자신을 봉양하던 부인이 그만 산고 끝에 먼저 세상을 뜨니 앞도 못보는 장님의 처지로 어린 딸을 등에 업고 이집 저집 젖동냥으로 키운 딸이 홍장이었다.

홍장 또한 성장하면서 성품이 현숙하구 민첩하여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부축해드렸으며 그의 봉양이 극진하여 모든 범절에 있어 비범한 데가 있었다. 홍장의 효성이 이러하였으니 고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대효라 칭송해 마지 않았으며 나라 안에는 소문이 자자했고 멀리 중국에 까지 알려졌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장님 원량은 밖에 나갔다가 마침 흥법사 화주승 성공스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성공스님은 원봉사를 보더니 “당신과 함께 금강불사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부디 큰 시주가 되어주시오”라고 말하였다.

원봉사는 갑작스런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기 않을 수 없었으며 생각해보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으므로 조용히 대답하기를 “나는 보다시피 앞을 못보며 더구나 가난한 처지인데 어떻게 부처님을 위하는 시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화주승 성공대사는 다시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소승이 금강불사의 원을 세워 지성으로 백일기도를 봉행하여 마지막 회향하는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부처님께서 현몽하시기를 내일 기도를 마치고 길을 나서면 반드시 장님을 만날 것이다.

그는 이번 불사에 대단원이 될 것이니라 하셨으므로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원봉사는 말을 듣고 한참동안 생각에 잠겨있다가 겨우 입을 열어 “집에는 곡식 한줌 없고 밖에 나와와야 내 땅 한뼉없는 처지인데 무슨 수로 시주를 할 것입니다. 다만 나에게 딸린 것이 있다면 딸자식 하나가 있을 뿐인데 이 아이로써 금강같은 불법에 선근인연이 되고 혹시 대작불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데리고 가서 좋은 도리를 생각해보시오...”라고 하였다. 흥장의 나이 이때 불과 열 여섯이었다.

이리하여 화주승 성공대사는 무한 감사의 예를 올리고 원봉사를 따라 그의 오두막으로 갔으며 아버지 원량은 성공대사와 언약한 사연을 딸에게 말해주었다. 흥장은 일생 아버지를 봉양할 생각이었으나 아버지와 자신의 앞날이 걱정되어 애통하게 울었으며 원량 역시 기막힌 심정이 되었다. 실로 산천초목도 울고 일월도 빛을 잃은듯 하였으며 나는 새와 달리는 짐승 또한 슬피 울 부짖는듯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지극한 효심은 곧 불심으로 나타났음인지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급기야는 아버지를 하직하고 화주승을 따라 나섰다. 아버지인 장님과 딸 흥장의 작별을 가엾고 측은하게 여겨서 마을 사람들도 길을 메우며 옷깃을 적시었다.

흥장은 화주승과 길을 나서며 뒤돌아 보이는 고향마을과 평생 모시려하던 아버지도 이제는 영영 이별이라고 생각하니 아득하기만 하였다. 난생 처음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너무나 오래 걸은 탓으로 피로에 지쳐 바다가 보이는 소량포에 이르러 잠시 쉬어 가기로 하였다. ①흥장과 성공스님은 서쪽바다를 향하여 쉬고 있었는데 바다 저 멀리 수평선 위에서 붉은 배 두 척이 나타나는가 하더니 질풍같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나는 화살처럼 순식간에 나루에 다다른 배는 모두 뽀나라 배였고 배에는 금관옥패와 수의를 입은 사자들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언덕에 앉아 있는 흥장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배에서 내려 흥장이 쉬고 있는 곳으로 다가와서 흥장에게 공손히 예를 갖추어 절을 하며 “참으로 우리 황후마마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흥장은 물론 화주승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흥장은 얼굴빛을 고치고 “여러분께서는 어디서 오신 어른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하고 물었다. ②“저희는 뽀나라 사람입니다. 영강 정해년 오월 신유일에 황후께서 봉거하셨는데 이로부터 성상께서는 늘 슬픔을 가누지 못하시더니 하루는 꿈에 신인이 타나서 말하기를 ‘성상의 새 황후 되실 분이 이미 동국 백제에 탄생하여 장성하셨고 단정하기로는 전 황후보다 더 하시니 이미 가신 이를 생각하고 과히 슬퍼하지 마시오’하고 현몽하시매 성상께서는 꿈에서 깨어 날이 밝자 곧 폐백 4만단과 금은진보 등을 갖추어 이 두배에 싣게 한 다음 상을 잘 보는 상사를 선발하여 사자로 삼아 신칙을 내리시되, 동국으로 달려가서 황후를 맞이하라 하시었으므로 소신 등이 외람되이 상명을 받자

와 본국을 떠나온 이래 속야로 근심하옵더니 이제 다행히 성의를 여기서 뵈옵게 되었나이다. 사자의 긴 사연을 듣고난 홍장은 길게 한숨을 쉬며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내 한몸이야 가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오 그런데 갖고오신 폐백이 얼마나 되옵니까?” “예 저기 두 배에 가득 실은 것이 모두 값진 보물이옵니다.” 홍장이 미소를 띠며 말하였다. 내몸은 내 몸이 아니옵고 아버님을 위하여 선근종자를 심어 드리기 위하여 부처님께 바쳐진 몸입니다. 그러하오니 저 두 배에 싣고 오신 폐백을 소녀 대신 이 화주승께 드리시면 기꺼이 따라 가오리다.” 하였다. 예 분부대로 거행 하겠나이다.” 이 때 화주승 성공대사는 참으로 부처님의 가호라고 기뻐하면서 “홍장 아가씨! 아버님의 일은 염려마시고 가십시오. 소승이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싣고 온 보물을 모두 홍법사로 가져가게 하고 홍장은 중국 진나라 사신을 따라 진나라로 가게 되었다.

홍장이 진나라에 당도하여 궁안으로 들어가 진나라 황제를 배알하였으니 그녀는 동근 달 같은 얼굴 모습에 별빛같은 두 눈이 반짝였으며 덕과 지혜를 갖춘 모습이 진실로 황후의 기상이었다. 바다 한 모퉁이에 있는 동국 백제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더라 말인가. 진나라 황제는 찬탄해마지 않았다. 궁중에서는 새 황후를 모시는 큰 잔치가 베풀어지고 황후가 된 홍장은 품성이 단아하고 자애로운 위의를 갖추었으므로 황제의 총애가 날로 더해갔으며 홍장 황후는 항상 정업을 닦고 행하기에 힘쓰니 나라가 편안하며 가난한 자와 병든 자가 줄어들어 온 나라 백성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내 비록 타국의 보위에 오른 몸이지만 어찌 조국을 잊을 수가 있으리요.” ③ 그리하여 오십삼불과 오백성중 십육나한을 조성하도록 한 다음, 세척의 石船에 실어 본국에 보내니 그 배는 감로사 앞 포구에 닿았으며 이를 감로사에 봉안하였다. 이와 같이 불교에 대한 신심도 너무나 훌륭하였다. 그 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황태자로 하여금 탑을 조성하게 하여 금강사에 모셨으며, 또 풍덕현 경천사에도 모셨다.

이렇게 본국을 위하여 공덕을 쌓는 한편 ④ 황후 자신의 원불로서 관음성상을 조성하여 조석으로 발원하여 모시다가 고향 백제를 그리는 사무친 마음으로 石船을 실어 동국 백제로 띄워 보내면서 서원하기를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인연따라 제 고향 백제로 가셔서 그들에게 자비와 지혜를 주시고 정업을 닦아 소원을 성취케 하여 주소서...” 하는 원력을 세워 배를 띄웠다. ⑤ 그 배는 바다에 표류하기를 한달만에 홀연히 바람을 따라 낙안 땅 단교 곁에 정박하게 되었다. 얼마 안되어 이 땅을 지키던 수비병들이 수상한 배로 의심하여 추격하여 붙잡으려 하였으나 관음성상을 실은 석선이 스스로 움직여 바다 멀리 가버렸다.

⑥ 이 때 옥과에 사는 성덕이라는 아가씨가 우연히 집에서 나와 해변에 이르렀는데 저 멀리 해운중에서 한척의 石船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치 이쪽에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배를 바라보고 있던 성덕은 깜짝 놀랐다. ⑦ 그 돌배 안에는 관음금상이 번쩍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덕은 문득 공경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어디로든 좋은 자리를 찾아 모셔야 할 것 같아서 먼저 몸을 단정히 하여 예배를 드리고서 관음상을 등에 업으니 가볍기가 홍모와도 같았다. 성덕은 관음상을 업고 낙안을 출발하여 고향인 옥과 땅으로 향하는데 도중에 열두개의 정자를 만나 쉬어갔다.

위의 자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청과 심봉사에 비유되는 인물이 홍장과 원랑이다. 그러나 (B)는 석주설화이지 심청설화와 관련성이 적다. 홍장은 원홍장이라 할 수 있는데, 홍장 외에 성덕이라는 처녀도 등장한다. 홍장과 성덕의 관계는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성덕은 해안에 거주하는 아가씨로 묘

사되어 있고, 배로 실어온 관음상을 등에 지고서 고향인 옥과로 가는 여자로 묘사되어 있다. 성덕이 관음상을 업고 옥과로 향하여 곡성의 성덕산 관음사에 봉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덕은 관음의 화신으로서 아가씨일 수 있다.

둘째, 홍장은 중국 진나라의 사신들에 의하여 진나라 왕실의 왕비가 되었고, 고향을 사무치게 그리워한 나머지 석선에 관음상을 실어서 백제로 보내고 있다. 석선에 관음상을 실어 보내고 있다. 위 내용가운데 석선이 등장하는 내용은 (B)-③④⑤에 모두 등장한다. 석선에는 관음상 외에 53불, 오백성중, 육십나한상을 싣고서 바다에 띄워서 백제로 보내고 있다. 백제 불교는 동진의 마라난타가 전파의 주체인데, 동진위 수도가 建康(현 南京)이란 점에서 석탈해신화처럼 양자강에서 배를 띄워 항해남부 사단항로를 타고 한반도 서남해안으로 들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이 관음선 연기설화의 시대적 배경이 永康 丁亥年 이다. (B)-②에서 뱃사람들이 스스로 晉國人라고 밝히고 永康 丁亥年에 중국 왕실의 황후가 돌아가셨음을 밝히고, 신인의 가르침을 받아 백제에서 황후를 구하려고 왔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영강의 연호는 300-301년이다. 영강 연호에서 정해년은 없고, 丁亥年은 西晉 武帝 3년(267)과 東晉 成帝(327)의 시절이다. 327년은 백제 비류왕대로서 백제가 불교를 국가적으로 공인하기 이전이다. (B)의 내용은 진나라에서 53불과 오백성중과 16나한을 돌배에 실어서 백제에 보냈다고 한다면, 백제시대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300년대 추정의 백제시대 불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백제시대 관음연기설화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시 중국에서 불교의 초전시기가 마한시기였음을 무시할 수는 없는일이다.

셋째, 중국 진나라에서 보낸 돌배가 바다를 건너 백제의 땅에 당도하고, 사신선이 와서 백제의 홍장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 중국 진나라로 가고 있다. 이 바닷길은 중국 동해와 한반도 서해 사이에 열린 사단항로의 바닷길이 열려있음을 뜻한다. 이 바닷길을 통하여 중국의 남조문화가 들어와 백제문화를 꽃피우는 건 사실이다. 이 사단항로는 고려시대 송의 사신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등장하는데, 서긍이 직접 항로체험을 한 바닷길이다. 이 바닷길이 항해남부 사단항로이다. 중국 남경에서 출항한 배가 서해의 흑산도를 거쳐서 곧바로 죽도, 위도까지 가로질러 연결되는 항로이다²⁾.

넷째, 이 설화의 유형은 海岸漂着說話에 속한다.

이 설화에는 중국 진나라에서 보낸 돌배가 “바다에 표류하기를 한달만에 홀연히 바람을 따라 낙안 땅 단교 곁에 정박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낙안의 땅 단교에 배가 닿으려 하였으나 수비병들이 다가가자 다른 곳으로 달아났다. 돌배가 달아나서 당도한 곳은 어디인지

2) 윤명철, 2002,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학연문화사, 394쪽

알 수 없으나 성덕 처녀가 사는 해안마을에 표착하고 있다. 이 내용은 석선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수비병이 아니라 성덕 처녀라는 사실이다. 또한 성덕 처녀가 사는 해안마을이 정확하게 어디를 지칭하는지 명시되지는 않았다. 이 성덕산 사적기 돌배설화의 돌배는 관음선이다. 그리고 백제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청설화보다 불교전파의 돌배설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다섯째, 해안에 돌배(石船)가 등장하고 있다.

중국에서 백제로 관음상과 53불상과 오백성중, 16나한을 싣고오는 배가 석선이다. 석선은 관음상을 싣고 오는 觀音船이라 할 수 있고, ‘불교 전파의 상징적 배’로 인식할 수 있다. 관음선(觀音船)이 목선이 아니라 석선이라는 점에서 일반 어선, 상선이 아니라 불교를 상징하는 반야선(般若船)같은 배라고 본다. 위의 설화에서 무거운 돌배 내용이 3곳 나타나는데 공통점은 불교문화재를 싣고 바다에서 해안으로 당도한다는 점이다. 이 돌배설화는 돌배가 해안에 당도하는 불상을 옮겨놓는 곳에 사찰을 창건하는 創寺緣起說話라 할 수 있다. 성덕산 관음사 사적기는 시대적 배경이 심청설화와 너무나 간극이 크다.

3. 선운사의 해안표착형 창사연기설화

여기에서는 「선운사 참당사 사적기」와 「대참사 법당기」에 등장하는 두 내용을 인용하여 자료로 활용하겠다.

(C) ①「당시에 돌배(石舟) 한척이 산 밖의 죽도 포구로 들어왔는데 그 속에서 은은한 음악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속인들이 보고자 하면 돌배가 저절로 물러간다는 지라 의운스님이 그 소문을 듣고 제자를 이끌고 가니 배가 저절로 해안으로 다가왔다. 이에 ② 배에 올라보니 玉軸大藏經과 석가모니불, 가섭, 아난, 16나한 상이 배가운데 나란히 앉아계셨고 한 金人이 오른손으로는 옥으로 만든 노(玉櫓)를 저의며 수놓은 돛을 조정하고 왼손으로는 상아로 만든 주판과 금자보인을 쥐고 있었다. 이에 옥지에 내려놓았으나 편안히 모실곳을 정하지 못하였다. 그날 밤 의운스님의 꿈에 금인이 나타나 말하였다.

③ “나는 于闐國의 왕인데 불상을 모실 곳을 찾아 해동의 여러 산천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도솔산에 대참의 기이한 기운이 하늘에 서린 것을 보고 이곳으로 왔으니 청컨대 집을 짓고 편안히 모시도록 하시오.” 이에 스님은 절을 지었고 진흥왕이 시주를 하였으나 대참사가 바로 그 절이요, 이 절의 모든 불상들은 그 때에 모셔온 것이다.³⁾

(D) 신라의 스님 의운이 죽도 포구에서 돌배를 발견하고 그 속에 실려있는 석가, 나한 등 제불을 모시게 되었으며, 꿈에서 본 ① 우전국왕은 그 배 위에서 옥노를 흔들던 금인으로 대참의 서기를 바라보고 왔다는 말을 하였기에 절을 짓고 이름을 대참이라 하였으니 그 때가 당 태종 정관

3) 도솔산고적책 도솔산 대참사 고사

년(정관원년은 627, 진 선제 태건년간 : 569-582) /갑인년(1749)

(C)(D)는 선운산 대참사(현 참담암) 사적기에 실린 창사연기설화이다. (C)-①은 (A)(B)의 해안표착형과 같으며, 속인들이 배에 다가가자 저절로 물러갔다가 의운화상이 제자들을 데리고 해안에 나아가니 다가오는 방식은 탈해신화의 배의 표착방식과 흡사하다. 그리고 (A)에는 돌배 내용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B)의 돌배 내용이 (C)(D)에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돌배는 불교의 보물을 싣고온 신성한 배로서 (B)(C)(D)가 동일한 계통의 해안표착설화임을 알 수 있다. (C)(D)의 내용에도 (B)에 등장하는 대장경과 불상과 나한상 등을 싣고 오고 있다는 점은 불교 전래와 관련이 있는 연기설화라 할 수 있다. (A)에서 탈해왕이 스스로 자기가 용성국의 왕족이라고 밝히듯이, (C)(D)에서도 자기가 于闐國王임을 밝히고, 탈해왕이 집을 지을 터를 찾고 있듯이 우전국왕도 편안히 살 수 있는 집을 찾고 있다. 우전국은 지금의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위치하는 호탄(Hotan)의 중국식 표기이다. 호탄은 중국 처음으로 불교문화가 꽃핀 지역이다. 인도 티벳과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요충지로서 중국과 서방을 잇는 초원실크로드 상에 위치한다. 우전국왕은 선운산의 서기를 보고 불상을 봉안할 터를 잡았으며, 그곳에 옥축대장경, 석가모니불, 가섭, 아난, 16나한상을 봉안하여 대참사를 창건하는 것으로 보인다.

(A)(B)(C)(D)는 해안표착설화로서 왕과 왕비가 등장하고 불교전래와 관련된 불교의 보물이 실린 배가 해안에 당도하고 있으며, 인연이 있는 땅을 찾아서 해안에 표착하는 방식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이 돌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돌배는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중국 주산군도 보타산에는 돌배가 실제 기념물로 보존되고 있다. 따라서 돌배의 출항지도 고대에는 양자강 유역이었으나 후대에 주산군도 보타산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4. 내소사의 해안표착형 관음연기설화

(E) 석포에 사건이 일어났다. 돌배(石舟)를 탄 불상이 지금의 원암리 앞 시냇가에 머물러 있게 된 것이다. 마을사람들은 냇가로 물러가 이상한 배 모습을 보면서 얼마간을 구경하다가 한사람이 앞으로 나가서 불상을 모시고자 하였다. 그때마다 배는 물러났다. 배는 도저히 붙잡을 수 없을 만치 민첩하게 사람의 손을 피했다. 생각다 못한 마을사람들은 인근에 있었던 내소사로 달려가서 혜구두타 승에게 알리기로 했다.

마침내 혜구두타 승이 도착하여 배에 있는 불상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시겠나이까?” 불상은 묵묵부답이었다.

다시 혜구두타 승이 물었다.

“소승은 내소사로 모실까 합니단만.....”

여전히 불상은 부동이었다. 끔적도 아니하고 바위처럼 무겁게 앉아만 있었다.

혜구두타 승은 다시 물었다.

“그럼 실상사에 모시겠습니다.” 그때서야 그 무거운 석주가 움직였다.

해구두타승은 뜻에 실상사에 부처님을 모시게 되었다. 이 불상이 그 유명했던 관음상이다.⁴⁾

(E)의 석포리 관음연기설화를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해안표착형 관음연기설화이다. 내소사 아랫마을 원암리 석포에 관음상을 실은 돌배가 표착해온다는 관음연기설화이다. 이 관음상을 신고온 돌배는 觀音船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돌배는 관선불 마을과 성덕산 관음사연기설화의 석선과도 같은 관음선이다.

둘째, 이 관음선은 내소사의 창건주인 해구두타가 실상사로 인도하고 있다. 마을사람들이 해안에서 맞이하려하자 물러나기를 반복하고, 마을사람들은 내소사의 해구두타에서 돌배맞이를 요청하고, 해구두타 스님이 석포리에 나아가 내소사로 모시고자 해도 끄떡하지 않던 돌배가 실상사로 가겠다고 하니 움직였다. 그리고 내변사 실상사에 관음불상을 모시게 되었다. 실상사는 실존하는 사찰이다.

셋째, 이 관음연기설화는 실상사의 창건설화이다. 설화내용대로 한다면, 실상사는 내변산에 위치한 천년고찰의 관음도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상사는 내변산에서 내소사, 청림사, 선계사와 더불어 4대사찰이었으나, 6.25동안 당시에 소실되어 옛모습을 알 수 없지만, 옛 사진을 보면, 규모가 큰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내변산에는 내소사처럼 해양계 사찰이 있었고, 이러한 사찰은 관음연기설화와 관련성을 갖고 있다.

Ⅲ. 해안표착형 돌배설화와 불교전파

해안표착형 돌배설화의 핵심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불연의 땅을 찾아 해안의 포구에 당도하는 해안표착형이란 점과 다른하나는 불상, 불경, 불탑 등 불교 전파에 필요한 불구를 실고 항해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안표착형 돌배설화는 신라 3대왕인 탈해왕대에 탈해왕이 바다를 통해서 표착하는데서 시작하여, 통일신라 시기 해남 미황사 사적기, 곡성 성덕산 사적기에 등장하고, 구전자료는 고창 선운산 대참사와 부안 능가산 내소사와 관련해서도 등장하고 있다. 한반도 서남해안에 분포하는 해안표착형 돌배설화의 유형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음상을 실은 관음선은 돌로 만들어진 돌배이다.

부안 내소사 석포와 관선불에 표착해온 돌배는 石舟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성덕 처녀가 해안에서 맞이한 돌배도 石船이다. 국내에는 돌배가 설화상으로 등장할 뿐 궁극적으로 실상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 주산군도 보타산에는 석주와 석선이 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 해양계 관음연기설화에 등장하는 관음선은 모두가 돌로 만들어진 배로서, 불경, 불상, 불탑 등을 실고 불교문화를 전파하는 상징적이 배라고 할 수 있다. 왕연성(王蓮勝) 주편으로

4) 양규태, 1997, 「石舟를 타고온 實相寺의 觀音像」, 『변산에 가면 문화를 만난다』 부안문화원.

발간한 『普陀山大辭典』에, 一葉扁石舟가 등장하고⁵⁾, 石船을 서방선(西方船)⁶⁾으로 해석하고 있다.

둘째, 돌배의 해안표착방식이 동일하다.

『삼국유사』석탈해왕조의 강이 가야에 당도하였지만 쏜살같이 신라 아진포로 달려 들어간 것이나, 내소사에서 포구 주민들이 맞이하려하면 멀리 달아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이다. 성덕산 관음사 관음연기설화에 석선은 썰나라 사신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홍장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보낸 것이며, 변산반도의 석주를 받아들이는 주체도 해구두타이다. 이 두 석주설화는 백제시대 관음신앙의 전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석선·석주의 해안표착형 관음연기설화는 백제시대 관음신앙의 전래와 관련성이 보인다. 홍장이 석주를 바다에 띄운지 30일만에 백제의 땅에 당도하였다는 내용은 중국과 한반도 서해안 사이에 뱃길이 열려있음을 말해주고, 관음선의 해안표적은 불교 전래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셋째, 관음선과 함께 등장하는 승려와 아가씨는 관음보살의 응화신이다.

관음선은 사찰창건과 관련된 불구, 불상, 불경을 배에 싣고 오는 특징을 보여준다. 주로 돌배에는 관음상이 실려있고 배를 이끌고 오는 인물도 관음보살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호탄왕(우전국왕)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석주설화는 일반적으로 관음상을 싣고오는 관음연기설화가 주류를 이룬다. 성덕산 관음사 사적기의 성덕과 홍장은 관음보살의 화신이며, 변산반도 관선불의 관음연기설화에 등장하는 승려들도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보인다. 관음보살은 변신술에神通하여 다양한 모습(할머니, 아가씨 등)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⁷⁾.

궁극적으로 관음의 화신이 보여주는 다양한 여성의 해신을 관조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관음선을 인도하는 주체가 승려·성인이란 점이다.

성덕산 관음사연기설화에서 해안의 수비병들이 관음선을 수상한 배로 의심하여 추격하여 붙잡으려 하였으나 석선이 바다 멀리 떠나가버린 것과 (E)의 연기설화에서도 마을사람들이 관음선을 맞이하려 했으나 배가 물러나면서 민첩하게 피하는 것은 같은 방식이다. 바다에 나아가 관음선을 맞이하는 주체는 범인(주민, 수군)이 아니라 성인(聖人)이다. 성덕 처녀와 승려 해구두타가 관음상을 사찰로 인도하는 모습이 동일하다. 중국 절강성 장강 유역과 월주(명주, 보타산)지역에서 출항하는 선박들이 항해보호신인 관음상을 싣고 사단항로를 건너오기도 하지만, 돌배설화에 등장하는 관음선은 불교전파가 목적이란 점에서 다르다.

다섯째, 해양계 관음연기설화는 대체로 창사연기설화와 관련성이 있다. 성덕 아가씨가 해변가의 석선에서 관음상을 업고 12개 정자를 쉬고 갈 정도로 힘들게 옥과현에 이르러 관음사를 창건하는 것처럼, 내소사를 창건한 해구두타 스님이 관음상을 모시고 실상사로 향하고, 관선마을에서도 스님이 동자부처를 월명암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러한 관음연기설화는 관음도량의 조성과 관련된 창사연기설화라 할 수 있다. 석탈해신화에서 노구가 강(舡)을 끌

5) 普陀山佛教協會·普陀山風景名勝區管理委員會, 『普陀山大辭典』王連勝主編, 2015, 38쪽

6) 普陀山佛教協會·普陀山風景名勝區管理委員會, 『普陀山大辭典』王連勝主編, 2015, 52쪽

7) 송화섭, 「한국과 중국의 할미해신 비교연구」 『도서문화』 제41집, 목포대 도서관연구원, 2013

어다 수림 밑에 두고 껍을 열어보니, 단정한 동자와 칠보와 노비가 들어 있는 것도 금은보화를 실고 운항해오는 관음선도 큰 차이는 없다.

IV. 맺음말

삼국시대부터 장강 유역과 명주(영파), 보타산 근처에서 백제에 문물전파를 목적으로 황해남부 사단항로가 열려있었다. 이 황해남부 사단항로를 타고서 불교전파가 이뤄졌다고 본다. 호탄국왕의 등장은 불교 전파가 초원실크로드를 통해서 양자강 유역과 절강성 영파, 주산군도 보타산에서 한반도 서남해안으로 전파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백제시대 이후 황해남부 사단항로를 따라 해상 문물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동아시아 최대의 관음성지인 보타락가산의 불교문화와 관음신앙이 해안표착형 돌배설화로 꾸며져 한반도 서남해안에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 석주설화가 보타낙가산이었음은 보타산의 석주와 석선이 실재 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데 알 수 있다. 보타낙가산의 短姑할미는 관음보살의 화신인데, 석탈해신화의 해안가에 출현하는 老嫗(阿珍義先)와 부안 죽막동 수성당의 開洋할미도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은 백제시대로 추정된다.

환황해권 天主教 敎案으로 본 補儒論的 西學의 意義와 한계

김 치 완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1. 적응주의 선교와 천주교의 탄생

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1096~1270)의 여파로 자유상공업이 발달하면서 1158년 볼로냐 대학을 시작으로 대학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과 지성이 더 이상 교회의 몫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비뇽 유배(1309~1376), 대이교(代離敎, 1378~1417), 휴머니즘의 확산과 문예부흥 등은 유럽인들의 비판의식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대항해시대가 개막되면서 유럽 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던 내부적 문제들을 외부로 돌릴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교황청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주었다. 교황청에서는 대항해 시기를 거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세력과 교황청의 선교보호권(Padroado)으로 이미지가 실추된 남미나 아프리카 지역들보다는 새로운 대륙으로 떠오르던 동아시아에 주목하였다(김혜경, 2010: 5).

대항해 시대 이전에 아시아 선교에 나선 인물은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몬테코르비노(Giovanni da Montecorvino, 1246~1328) 수사였는데, 1294년 초에 칸발릭(Khanbalik, 北京)에 도달한 그는 교회와 라틴어학교를 세워 수천 명의 개종자를 내는 지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몽골왕조인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왕조가 들어서면 과정에서 중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던 중국 그리스도교 개종자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 후 중국 선교의 맥은 끊어졌지만, 대항해시대에 이르면서 선교 방법과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중국 선교는 ‘적응주의’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띠고 활성화되었다(김

해경, 2010: 12-25).

예수회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펼친 적응주의 선교 정책은 대화의 차원에서 진행된 근대적인 선교 방식으로, 특히 마태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의 적응주의 선교 방식에 따라 정착된 천주교를 “보유론적(補儒論的) 서학(西學)”이라고 한다. 보유론이란 중국에 들어온 예수회 선교사들이 채택한 호교론(護教論, apologia)으로 ‘불교를 물리치고 유교를 보충한다’는 것을 내세운 것이다.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는 문화이식적 선교방식인 ‘tabula rasa’와 적응주의적 선교방식인 호교론 등의 선교 방식을 동시에 허용했다. 적응주의적 선교방식은 선교 대상국이 유럽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 취해진 것으로, 기존 문화와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기독교 교리와 적절하게 가감하면서 접변해나가는 방식이다. 천주교는 예수회 선교사들이 유가 경전 상의 상제(上帝)나 천(天)을 로마 가톨릭교회의 ‘Deus’와 사실상 같은 존재로 설명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동아시아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김치완, 2005: 31-33).

로마 가톨릭교회의 동아시아 지역교회인 천주교는 환황해권 지식인들과 예수회 선교사들의 교류 결과물인 보유론적 서학에서 비롯되었다. 천주교의 탄생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었지만, 로마 가톨릭교회 측이나 아니냐에 따라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이 가운데서 특히 박해(迫害)와 척사(斥邪)로 엇갈리는 정부 대(對) 천주교 측면보다는 박해 대(對) 교안(敎案)으로 엇갈리는 환황해권 민중 대(對) 천주교인 또는 천주교세력에 초점을 맞추어 환황해권에서 이루어진 교류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보유론적 서학과 천주교 교안의 배경

‘유학을 보충하는 서양학문’이라는 뜻의 보유론적 서학은 중국 전통의 유교 개념을 원용하여 천주교 신학의 기본 개념과 이론을 천명하고, 이와 관련된 논의에서 불교와 도교는 물론, 정주학과 양명학도 활용하였다. 적응주의를 표방했지만, 보유론적 서학은 “당시 서양 과학 기술을 소개하는 한편, 유교와 도교, 불교를 분리시켜 한 쪽을 끌어당기고 다른 한쪽을 밀어내는 책략을 사용했다.” 이러한 적응주의적 선교가 중국 지식인 계층에 얼마나 수용되었는지는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으나, 교세가 확대되면서 반(反)천주교 운동인 구교운동(仇敎運動) 또는 교안(敎案)이 발생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1616년과 1622년 두 차례에 걸쳐 남경의 예부(禮部) 관리 심각이 주도한 남경교안(南京敎案)을 손꼽을 수 있다. 이 교안은 불교를 신봉하는 신사(紳士)들의 위기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후 불교와 천주교 사이에서 대대적인 종교논쟁이 일어났다(김병태, 2008: 172-175).

남경교안 이후 선교보호권을 둘러싼 교황청과 청 황실 사이의 제사논쟁은 선교사 추방과 금교조치라는 청나라 종교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청나라 종교 정책이 종교적 다양성을 인

정하는 방향을 설정했던 이유는 중화제국의 계승자였던 청나라가 사실은 만주족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곧 넓어진 영토와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소수 민족 출신으로서 중화 제국을 다스리려면 모든 민족들에게 차별보다는 대등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청나라는 마태오 리치의 적응주의적 선교 대해 관용적 태도를 취했지만, 교황청과의 갈등 때문에 선교금지라는 종교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19세기 초에 개방된 청나라에 다시 들어온 천주교와 개신교 선교사들은 자국의 권력을 앞세워 청나라 조정으로부터 포교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청조 아래서 합법적 지위를 누리던 불교와 도교, 회교 등과 경쟁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1860년대를 거치면서 선교사들은 사회 복지 시설, 학교, 병원의 운영에 관심을 쏟았고 결과적으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 권력보다 더 강한 새로운 권력이 된 선교사들에게 기댄 사회적 약자들에게 위협을 느낀 기존 세력과 배외주의자들에 의해 구교운동 또는 교안(敎案)이 발생하게 되었다(유장근, 2003: 99-109).

천주교 교안은 동아시아 지역 천주교회 내부 요인보다는 로마가톨릭교회 내부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로마가톨릭교회 내 선교정책의 충돌이다. 환황해권 지역 교회인 천주교 탄생의 주역인 예수회(Societas Jesu)는 북유럽에서 독일, 스위스, 영국 등을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개혁에 대한 교회 내부의 부흥 운동차원에서 출발하고 승인된 수도회였다. 예수회는 교황청으로부터 파문당한 개신교에 맞서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육과 쇄신을 담당하는 신학적·영적인 군대로서 트리엔트 공의회(Concilium Tridentinum, 1545~1563)를 이끌었다. 이들은 로마 가톨릭의 전통에 충실한 트리엔트 공의회 결과와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Ad maiorem Dei gloriam)”이라는 예수회 표어에 충실했지만, 오히려 선교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선교 방식을 취했다. 이에 비해서 반세기 늦게 중국에 들어와서 제사문제를 두고 청·조선 왕조와 갈등을 일으킨 도미니코회(1631)와 프란치스코회(1633)은 탁발수도회(Ordo)로서 프로테스탄티즘이 일어나기 전인 13세기의 교회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13세기 유럽에서는 봉건 제도가 쇠퇴하면서 제후나 영주들의 지배에서 벗어난 농노들이 민주적 성격의 사회조직(commune)을 만들었고 화폐 경제시대가 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와 수도원, 성직자들은 신자들로부터 부패나 결점을 공격당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이들을 이단적인 사상으로 단죄하면서 신자들의 신앙심을 회복시킬 새로운 조직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것이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 카르멜회, 아우구스티누스회 등의 탁발수도회(ordō mendicans)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출발 당시부터 이단적인 사상과 정반대되는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문화이식주의적 선교 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문화이식주의적 선교 태도는 청·조선 왕조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상당한 반발을 불러왔으므로, 교안이 발생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다음으로는 선교보호권 문제이다. 기독교 선교와 유럽 경제가 한계에 봉착한 시점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 1451~1506)의 신대륙 발견은 유럽국가들

과 로마 가톨릭교회에 탈출구를 제공했다. 해외무역과 모험에 적극적이었던 유럽 대서양 연안의 국가들이 주축이 된 대항해는 1492년 이래 약 30년간 지속되었다. 이 시기 지리상의 대발견은 유럽인들의 삶과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 충분했고, 전에는 예측할 수조차 없었던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대륙을 발견한 나라들은 배타적인 소유권을 인정받으려고 했고, 교회는 신대륙 발견이 활성화되어 선교가 더욱더 확산되기를 바랐다. 이러한 욕구들이 만나 이른바 ‘선교보호권(Padroado; patronage)’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선교보호권은 신대륙에서 선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의무의 당사국이 해당지역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했다(김혜경, 2010: 8-9). 선교보호권의 문제는 교황청이 문화적응주의적 선교방식과 문화이식주의적 선교방식에서 갈팡질팡하여 청정부의 관용주의적 종교정책을 연착륙시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청과 조선정부에 의해서 종교박해가 행해지도록 한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3. 선교 자유 이후 환황해권 천주교 교안

19세기 초 청나라와 영국 사이의 무역 붐을 타고 다시 청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한 세대 전인 마태오 리치의 적응주의적 선교 방식이나 그것에 반대하던 문화이식주의적 선교방식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개신교였던 이들은 여러 방면의 사회활동을 통해 선교하려고 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는 성서(聖書)의 한역(漢譯)이었다. 성서의 한역은 천주교 한문서학서(漢文西學書)들과 또 다른 차원에서 문화교류의 매개가 되었고, 그 결과는 태평천국과 그것에 따른 개신교의 세력화였다. 천주교가 명말청초의 지식인층과 중세 로마 가톨릭의 지식인 선교사인 예수회가 문화 교류하여 탄생한 것이라면, 태평천국은 청나라 민중과 개신교가 문화 교류하여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홍수전(洪秀全)은 중국인 개신교신자 양아발(梁亞發)이 성경을 발췌하여 해설을 붙인 『권세양언(勸世良言)』을 읽고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었다. 이 생각은 기독교적 구원관과 무교적 신내림이 결합한 것인데, 당시 태평천국의 주요지도자들은 광동과 광서의 민간 사회에서 널리 유행하고 있던 무교와 신흥 기독교의 결합을 경험한 이들이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가난한 민중의 대변자 역할을 하였는데, 그 덕분에 개신교 선교사들은 물론 청나라의 민중들도 태평천국이 개신교와 유사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유장근, 2003: 101-103)

태평천국의 난이 청나라 내부의 해체를 가속화하던 1860년 개신교 선교사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국가 권력을 앞세워 청나라로부터 포교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들은 합법적인 지위를 누리던 불교와 도교, 회교와 공개적으로 경쟁하면서, 태평천국과 같은 이른바 ‘기독교 신흥종교’와 경쟁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특히 이 시기 민중들은 ‘기독교 신흥종교’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절충주의적 선교 결과에 따른 교의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특히

빈민층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개신교 선교사들은 사회복지시설, 학교, 병원의 운영에 중점을 두었고, 유례없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것은 신의 뜻을 지상에서 실현하는 수단이었고, 사회적 약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유력한 선교 방식이었다. 의료 선교는 극빈자를 무료로 치료하면서 의과대학을 개설하여 중국인 의사를 배출하여 중국의 전통 의학을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을 지향했다. 사회복지 선교는 대도시에서 고아원이나 육영당과 같은 유아 중심의 자선기관을 운영하여 좋은 신도를 확보하는 방향을 지향했다(유장근, 2003: 103-104).

이러한 선교에 대해 청왕조와 지역사회 엘리트들은 중국의 국가 권력과 지역 사회가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공적 영역(Public Sphere)에서 의료와 복지라는 매우 유력한 무기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한 것으로 인식하고, 경계하였다. 때마침 이때를 전후하여 의화단 운동의 전야에 걸쳐서 중국 각지에서 그리스도교 배격 운동이 일어났다. 이때의 교안은 열강의 힘을 빌린 선교사와 그에 기대 사회적 약자들이 전통질서에 도전하는 것을 원인으로 발생하였다. 그런데 1870년 천진교안은 교회의 고아원 경영에 대한 의혹이 원인이었고, 프랑스 영사의 발포에 따른 인명상해사건이 발단이었지만, 서구 열강들은 이 교안을 침략의 기회로 활용했다. 그러다보니 중국인들은 외국 침략자의 구체적인 표상으로 교회와 선교사들을 증오했고, 1890년대에 이르러서는 신규 개항에 의해 열강의 정치적, 경제적 침략이 격화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유장근, 2003: 105-110).

조선도 중국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교안이 발생했다. 18세기 후반 한문서학서의 유입에 따라 양반 지식인 소장파들에 의해 수용된 천주교는 중국의 천주교에서 한 번 더 문화적응주의적 단계를 거쳤다. 조선 천주교회의 가성직제도가 그것으로, 평신도성직제도라고도 불리는 교회직제는 예수회선교사들의 직접 선교가 아닌 독자적 수용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물론 1790년 윤유일이 가성직제도가 교회법에 어긋난다는 북경주교의 서신을 들고 입국하면서 중단되기는 했지만, 중국에서 탄생한 천주교가 한국에서 다시 한 번 문화변용을 겪은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성직제도가 중단되면서 조선 천주교회 신자들은 성직자의 파견을 중국교회와 교황청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그 결과 1794년 중국인 신부 주문모(周文謨, 1752~1801)가 입국하여 교세가 왕성해지자 1801년 신유박해가 벌어졌다. 이후 세 번에 걸친 박해는 안동 김씨의 실각(기해박해, 1839), 프랑스함대의 무력시위(병오박해, 1846), 대원군의 쇄국정책(병인박해, 1866) 등 조선정부 내의 권력 지각 변동을 주요한 원인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그 연원에는 신해박해(1791)라고도 불리는 진산사건(珍山事件)이 있다. 가성직제도의 주역들인 양반 지식인층 가운데 윤지충과 권상현 두 사람이 폐제분주를 실천함으로써 발생한 진산사건은 이후 양반 지식인층의 대거 이탈과 상민과 노비계층으로 천주교가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1876년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의 체결과 그에 따른 원산과 인천 개항으로 한말 천

주교회가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한말 천주교회는 선교 자유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박해의 시대를 견뎌낸 한말 천주교회는 교세가 확장되어갔지만, 이 과정에서 지방관리는 물론, 민중들 사이에서 서교 배척의 움직임이 빈발했다. 1886년 이후 발생한 한말교안은 주로 (1)1890년대 전반기에 자주 발생하다가 1890년대 중반기에는 줄어들었다. 그리고 (2)189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가 (3)1904년 이후로는 거의 종식되었다. (1)의 시기에는 대체로 관(官).민(民)이 교회 측을 공격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을 거치면서 동학 농민군에 의한 교회 공격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다. (2)의 시기에 들어서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수세에 몰렸던 교회측이 오히려 향촌사회를 압도한 탓에 발생한 유형이 많다. (3)의 시기에는 교회의 교세에 비해 새로이 등장한 일진회 등의 친일 세력이나 개신교회 세력이 천주교를 압도함으로써 발생한 유형이 많다. 지역별로는 충청(32), 전라(29), 황해(23), 경기(17), 경상(16), 함경(11), 강원(10), 서울(3), 평안(1)의 순으로 발생했는데, 주로 교세가 강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안의 유형은 대립구도, 원인, 전개양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유형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박찬식, 2007: 54-61).

한편 황사영백서사건 이후 천주교는 서양침략세력의 앞잡이로 인식되어서 조선정부와 민중으로부터 배격당했지만, 1835년 이후 조선에 입국한 프랑스선교사들은 박해시대를 견뎌내기 위한 내세신앙을 강조했다. 그 결과로 조선 천주교민들은 현세에 대해 철저히 부정하면서 내세를 지행하는 경향이 강해져서, 현세의 질서에 대한 개혁 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박해를 오히려 부추겼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개혁을 염원하던 민중들이 서학이 아닌 종교 운동을 통해 상호 결속 강화를 시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동학은 이런 배경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최제우가 ‘동학과 서학은 도(道)와 운(運)이 같지만 이(理)는 다르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를 서양세력으로 인식하고 적대하였다. 동학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경향은 교안으로 이어졌고 농민전쟁시기에는 프랑스 선교사가 피살당하기도 했다.(조광, 2010: 459-486) 한편, 1897~1903년까지 교안이 집중되었던 시기에는 교회의 관.민 공격이 99건으로 이전 13건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다. 이전 시기에는 교회 측에서 지역주민에게 사형(私刑)을 가하는 사례가 전혀 없고, 관에서 오히려 교민을 체포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12건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교민이 체포되어 처벌되는 사례는 8건에 불과하였고, 오히려 교회측에서 지역주민에게 사형(私刑)을 가하는 사례가 10건에 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선교사의 치외법권 행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비해 선교사의 치외법권이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 1905년 이후로는 친일세력과 개신교로부터 천주교민과 사제관이 습격 받는 사례가 빈발하였다(박찬식, 2007: 66-78).

4. 교류와 단절로서 보유훈적 서학의 한계

서세동점시기에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선교방침을 가지고 있던 예수회와 개방적인 종교 정책을 취하고 있던 청나라 정부의 만남은 보유훈적 서학이라는 공통지대를 만들었다. 물론 보유훈적 서학은 문화적응주의적 선교 방침에 따라 중국 고전을 탐구한 예수회 선교사들과 일부 유학자들의 만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하지만 보유훈적 서학으로 만들어진 천주교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동아시아 지역교회 이상의 정체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조선에서는 한문서학서를 통한 보유훈적 서학과 천주교의 이해를 통해 가성직제도와 같은 적극적인 수용과 변용 태도를 보였으므로, 중국 천주교에서 한 단계 더 변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860년 이전에 충분히 정착할 수 있었던 보유훈적 서학은 로마 가톨릭 교회 내부의 선교 보호권과 그를 둘러싼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국과 한국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특히 조선 정부는 로마 가톨릭 교회 내부의 선교 보호권 문제보다는 18세기 권력 지형에 끼어든 진산사건과 관련된 남인 시파 문제가 양인들에 대한 문호개방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청나라 정부보다 좀 더 강한 박해정책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희생과 교류의 단절이 뒤따랐다.

추방과 박해정책이 종결된 1860년과 1886년 들어 중국과 한국에는 선교의 자유가 이루어져 새로운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시기에 중국과 한국에 들어온 그리스도교는 한 세기 전에 이루어진 보유훈적 서학과 천주교의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않은 채 새로운 방식으로 중국과 한국 사회에 접근했다. 우선 프로테스탄티즘, 곧 개신교는 보유훈적 서학과 천주교를 만들어낸 예수회가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직된 것인 만큼 예수회의 문화적응주의적 선교방침과는 다른 선교방침을 취하였다. 외교적 특권을 보장받아 한 세기 전의 선교사들과는 지위 면에서 차별화된 이들은 성서의 한역과 함께 의료·사회사업 등을 통한 빈민층 선교에 중점을 두어 교세를 확장시켜 나갔다. 이들은 선교의 후발주자로서 가시적이고 급속한 교세확장이 필요하였으므로, 적극적인 선교방법을 동원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빈민층 선교는 당시 청나라 정부와 지식인들에게는 전통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실제로 선교사들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전통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민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는 정부 관리가 아닌 지역민들에 의한 교안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이 되었던 공격적인 각종 사회사업과 관련된 의혹은 외국침략자들에 대한 적개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점은 오랜 박해 끝에 선교 자유를 얻은 천주교도 마찬가지였다. 천주교는 개신교의 공격적인 선교에 뒤지지 않기 위해 교육, 사회사업을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전통적인 신앙을 지켜온 교민들을 중심으로 하여 선교사의 달라진 위상을 배경으로 한 적극적인 선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런 선교태도는 양반 지식인층은 물론, 지역주민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켜 신축교안과 같은 대표적인 교안을 일으켰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유훈적 서학과 천주교는 환황해권에서 이루어진 유럽과 동

아시아, 로마가톨릭과 유교의 교류와 단절의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전개된 수준 높은 문화교류의 결과물이다. 적어도 여기에 참가한 유럽과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상호주의적 문화 태도를 표면적으로나마 표방했고, 그 결과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허용되었던 천주와 제사 문제에 대한 진보적인 이해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 내부의 선교 방침 혼란과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중국과 조선 정부의 배타적인 태도 때문에 이러한 교류는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그뿐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보유론적 서학, 그리고 중국과 조선의 천주교는 기층 민중에게 확산되면서 변질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선교 자유 이후의 개신교가 가세하면서 청나라의 태평천국, 조선의 동학 등 이른바 기독교계 신흥종교 또는 민족종교가 만들어지는 한편, 지역주민들에 의한 교안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환황해권에 이루어진 한 세기 전의 교류가 제국주의적 양상을 띠는 데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명희, 『종교간 대화의 모델로서 마태오 리치의 적응주의-『천주실의』에 나타난 그리스도교와 유불도(儒佛道)의 대화』, 『한국조직신학논총』 제39집, 2014, 141-197쪽.
- 김병태, 『명말청초 '전례논쟁'의 선교사적 이해』,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8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8, 163-190쪽.
- 김치완, 『주자학 전통에서 본 茶山의 인간관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 김혜경, 『16~17세기 동아시아 예수회의 선교 정책: 적응주의의 배경을 중심으로』, 『신학과 철학』 제17호,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2010, 35-68쪽.
- 박종구, 『유학신학(儒學神學)의 가능성에 대한 조직신학적 성찰: 『천주실의』(天主實義)의 재발견』, 『신학과 철학』 제17호,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2010, 1-32쪽.
- 박찬식, 『한국 근대 천주교회와 향촌사회』, 재단법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 배요한, 『『수신영약』에 관한 연구-제주지역의 천주교와 토착종교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장신논단』 46권 4호, 2014, 449-475쪽.
- 유장근, 『절충과 충돌: 근대 중국의 기독교』, 『대구사학』 제73집, 대구사학회, 2003, 95-127쪽.
- 조 광, 『조선후기 사회와 천주교』, 경인문화사, 2010.
- 崔基福, 『儒敎와 西學의 思想的 葛藤과 相和의 理解에 關한 研究-近世의 祭禮問題와 茶山의 宗教思想에 關聯하여』,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 허원, 『淸末의 敎案 終息論』, 『인문과학연구』 12, 서원대학교 미래창조연구원, 2003, 145-159쪽.

해신이 된 제주해녀항일운동 주역 강관순 선생의 딸

오 문 수 ■ 여수넷통 대표



우도 동천진동 도향선 로타리에는 우도해녀항일운동기념비가 서있다

“우리들은 제주도의 가없는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추운 날 무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 물결 위에 시달리는 몸

배움 없는 우리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의 착취기관 설치해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도다
가없는 우리 해녀 어디로 갈까?”

일제강점기 시절 제주도에서 불렀던 <해녀가>의 1절과 4절 가사이다. 우도를 방문했을 때 성산포에서 떠난 우도행배가 도착하는 동천진항 로터리 중심에는 ‘우도해녀항일운동기념비’가 서 있었다. 이 탑은 일본 관헌들의 가혹한 대우와 해녀 권익 옹호를 위해 분연히 일어난 해녀항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1995년 천진항에 건립됐다. 제주 해녀들은 예로부터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었다. 1930년대 어용조합장의 횡포가 심해지자 관제조합 반대, 수확물에 대한 가격 재평가 등을 요구했다. 제주도 해녀어업조합의 어용화 폐단은 1931년 여름 구좌면 하도리에서 거세게 폭발했다. 이어서 하도, 종달, 우도, 세화 해녀들이 가세했다. 이 같은 해녀들의 항일운동은 연인원 1만7130명이 참여해 238회의 집회와 시위를 펼쳤으며 우리나라 최대의 어민운동으로 평가받는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항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조천항일운동기념관 입구에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외치는 조각상이 있다. 조각상 뒤에 적힌 글과 사진에는 제주도 3대 항일운동으로 법정사 항일운동, 조천만세운동, 해녀항일운동을 선정했다.



해녀항일운동 주역 중 한 분인 강관순

일제강점기 시절 제주해녀항일운동의 주역이었던 강관순 선생 일행(아래), 강길녀씨 부친인 강관순(왼쪽 위)씨와 강길녀씨 어머니 모습(강길녀씨 제공)

어용조합과 일제의 가혹한 수탈에도 할 말을 못하던 이들을 일깨운 이들이 있었다. 우도 출신 강관순, 신재홍, 김성오 등은 항일비밀결사인 혁우동맹을 맺고 일제식민지 수탈정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해녀들의 항일의식을 고취시켰다. 이들은 야학을 통해 해녀들을 학습시키는 등 조직적인 항일운동이 이뤄지도록 배후역할을 했다. 일제에 검거된 강관순 일행은 2년 6개월의 징역을 살고 나왔지만 일제의 감시가 심해 정어리 배 선장을 하다 청진에서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필자를 안내한 우도 문화관광해설사 김철수씨가 “강관순씨의 딸이 현재 우도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며 강관순씨의 딸인 강길녀(74세)씨 집으로 안내했다. 집안일을 하다 필자를 반갑게 반겨준 강길녀씨가 독립운동유공자로 선정돼 건국훈장에 족장 훈장을 받은 증서를 보여줬다. 증서 아래에는 2005년 5월 1일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글씨가 선명히 적혀있었다.

어머니와 단둘이 남아 물질하다 죽을 뻔했던 강길녀... 해녀들에게도 계급이 있다

자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신도 12살부터 지금까지 62년 동안 해녀 일을 했다는 강길녀씨에게 “언제부터 물질을 시작했으며 누가 가르쳐줬고 해녀들의 애환은 무엇인가?”를 묻자 기다렸다는 듯 막힘없이 대답했다. 강길녀씨 아버지 강관순씨가 가장이었을 적에는 어머니와 오빠, 언니의 4가족이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청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강길녀씨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강씨는 유복자로 태어났다. 오빠는 6살 때 홍역으로 죽고 언니도 2살 때 홍역으로 죽었다. 가장인 강관순씨와 두 자녀가 죽자 오봉리 집에는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태어난 강길녀씨와 어머니만 남았다. 연이어 세 명의 가족을 잃은 어머니의 한 서린 삶을 달래주기 위해 강여사는 12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물질을 배웠다.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다”며 침을 꿀꺽 삼킨 강여사가 말을 계속 이어갔다.



제주해녀항일운동 주역인 강관순씨의 딸 강길녀(74세)씨가
노무현대통령시절 받은 건국훈장 애족장 상장과 훈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친구들은 오봉리 전흘동 바다에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레 물질을 배웠어요. 초등학교 3학년쯤이 되면 선생님한테 조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일찍 집에 돌아와 우뚝가사리, 미역, 톳 등의 해초를 따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한테 칭찬받고 싶어 구덕위로 해산물을 수북이 쌓아올려 집으로 가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주도에서는 남자들이 애기보고 여자들이 물질을 하면서 살았어요. 물질하고 돌아와 부엌에서 저녁을 지으며 한쪽에는 애기를 눕혀놓고 젖을 먹이고 한 손에는 부지깽이를 들고 밥을 지었어요”

‘구덕’이란 제주지역에서 주로 여자들이 물건을 넣어 등에 지고 다니던 운반용 바구니다. 당시 잠수복이 없어 속곳에 물적삼을 입고 물에 서너번씩 들어갔다. 추우면 나왔다가 불턱(해녀들이 바다에서 나와 옷을 갈아입거나 불을 쬔던 곳)에서 불을 쬔고 다시 서너번씩 물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며 시작한 해녀 경력은 62년이나 됐다. 보릿고개 때는 참 어려웠다. 당시 제주도사람들은 쌀 구경을 해본 적이 없었고 고구마로 살았다. 보리도 부족해 보리밥에 톳, 파래를 넣어 밥을 하기도 했다. 10여년 물질하며 장성한 그녀는 24살에 남편을 만나 부산에서 살았지만 남편사업이 실패해 우도로 돌아왔다. 강인한 해녀로 성장한 그녀는 물질을 하며 4남매를 훌륭하게 키웠다. 제주도 해녀들의 명성은 제주에만 그치지 않고 육지와 해외로 나가기도 했다. 그녀는 충청도, 전라도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3년간 성계를 잡았다. 당시 홍콩 성계잡이는 돈을 많이 줬다. 해녀들이 잘 걸리는 병은 심장병이다. “물속에 오래 있는 동안 호흡이 가빠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한 강여사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아프다. 식구들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그런지 관절염으로 고생한다는 강여사는 “지금도 남자들도 함께 일하며 옛날과는 180도 달라졌다”며 웃는다. 인터뷰가 있던 날도 물질하러 바다에 다녀왔다는 그녀는 해녀들이 잡는 해산물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해줬다. 봄에는 우뚝가사리, 여름에는 우뚝가사리, 가을에는 소라, 겨울에는 성계를 잡는다고 한다. “추운 겨울에도 상군들은 먼 바다까지 나가 소라를 잡는다”는 말에 ‘상군’이라는 용어가 무엇인지 묻자, 물질 잘하는 젊은 해녀들은 상군, 50~60대는 중군, 70대는 하군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해줬다. 4남매를 훌륭하게 키워낸 그녀에게 60년 넘게 해녀로 보낸 보람에 대해 묻자,

“남에게 구애 안 받고 제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벌어먹고 그래요. 수중에 돈 없어 남의 집에 가서 돈 빌려 달라면 눈치 보이잖아요”

우도의 해신이 된 강길녀

남편이 사망하고 없지만 지금은 어렵지 않다.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 때문이다.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해 돈도 벌어 아들 집사는 데 도와주기도 했다. 또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아버지 연금도 나온다. “아찔했던 때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녀가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바위틈에 소라가 있어 손을 넣었는데 빠지지 않아 죽을 뻔했다. 상군시절엔 먼 바다에 갔다가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다. 해녀들은 태풍만 아니면 바다에 들어간다. 하지만 62년간 바다를 지킨 강길녀씨는 우도의 해신이 되어 사시사철 바다에 산다.



하고수동 해수욕장에는 세계최대 해녀상이 있다. 바다속에 서있는 해녀상은 강길녀씨를 모델로 삼아 세워졌다.

하고수동 해수욕장에는 높이 3m, 무게 3.5톤 현무암으로 된 세계최대 해녀상이 있다. 바다가운데 있는 해녀상은 강길녀씨를 모델로 삼았다. 구덕을 짊어지고 육지를 바라보고 있는 해녀상은 험난한 세월을 이겨온 해녀의 상징이기도 하고 우도 주민들의 무사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기도 하다.

동아일보기자로 해녀항일운동을 주도했던 강관순 선생의 시가 해녀가로 탄생했다

일제 때 금지곡으로 묶였지만 해녀들 사이에는 비밀리에 불렸다가 해방 후에 공식적으로 불렸다는 “<해녀가>의 탄생 배경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요청하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항일해녀운동을 했던 주동자들이 검거돼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오문규씨 부인이 면회를 왔대요. 면회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오씨의 부인에게 아버지가 쓴 시를 담배꽂초처럼 말아서 주셨다고 해요. 그 시가 감옥 밖으로 나와 <해녀가>가 탄생한 겁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강관순씨는 “조금만 기다리면 앉아서 세계 각국을 볼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며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라고 말한 그녀는 “아버지가 일본 형사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정어리 배를 탔다가 폐결핵에 걸려 1942년에 돌아가셔서 힘들게 살았지만 복권되고 지금은 자랑스럽다”고 얘기했다. 19~20세기에 쓴 조선비망록에 의하면 고대중국과 일본지도상에 제주도가 여인의 섬(Island of woman)으로 나타나 있어 제주도가 고대 그리스의 여인국의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 능력을 인정받은 제주해녀들은 국내

및 해외까지 진출했다. 흑산도에는 제주도 출신 해녀들이 이룬 마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 중국까지 진출했었다. <해녀가> 3절 가사가 이를 입증해 준다.

“이른 봄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별하고
온 가족 생명줄을 등에다 지어
파도세고 무서운 저 바다를 건너서
기울산 대마도로 돈 벌러 간다“

절걸궁으로서의 鳩聚와 바다

박 흥 주 ■ 곳연구소

‘鳩聚’는 절걸궁의 일종이다. 풍물굿의 양태는 풍부했다. 풍물굿을 치는 이유와 목적에 따라 살펴보면, 당을 중심으로 하는 당산굿`지신밟기`마을굿, 이동을 중심으로 하는 길굿, 농사의 노동 능력을 올리기 위한 두레굿`풍장굿`진두레굿, 자원염출을 위한 걸립굿`걸궁 등이 있었다. 鳩聚는 걸궁의 성격을 확실하게 갖었다. 걸궁(굿)은 돈을 모으는 목적에 따라 서당걸립, 다리걸립, 배걸립, 절걸궁 등이 있었다. 걸립굿을 치는 목적은 대부분 공공사업을 위한 자원 마련에 있었다. 마을굿을 치르는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방법을 ‘걸립’이라 하였으며, 이 걸립문화의 확대·응용된 걸립 중의 하나가 걸궁이라 할 수 있다. 걸궁을 마을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비가 필요할 경우, 이웃마을까지 나서는 것이 통례였다. 그 걸궁을 이익집단이 적극 수용·활용하여 자신들을 위한 사업이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낸 걸궁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절걸궁과 사당패 등 전문예인집단들의 마을 방문이었다. 구취는 그 절걸궁 중의 하나이다. - ‘鳩聚’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1)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동쪽의 섬진강유역과 서쪽의 남강유역을 포괄하는 지역성이 드러난다. 동쪽은 송광사, 서쪽은 해인사가 중심 사찰로서 두 사찰을 중심으로 한 영향권에 집중 분포한다. 두 사찰의 직접적인 영향권은 대부분 섬진강과 남강을 따라 내려가는 남부 해안에 집중 분포한다. 풍물굿으로는 메구권과 거의 동일하다. 이 메구권을 중심으로 남해안을 따라 동쪽으로는 해남의 미항사, 서쪽으로는 부산의 범어사까지 확산되어 있다. 2) 鳩聚, 鳩財 2가지의 양태가 발견된다. 3)발생을 추정할 수 있는 시대는 고려 현종 때이며, 문헌에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17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이다. 특히, 영조`정조 시대에 구취의 흔적이 집중 발견된다. 4)시대적으로 19세기에 들어서면 鳩聚보다는 鳩財가 집중적으로 발견되며, 구재는 위의 분포권에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해안가와 내륙 공히 북상하는데,

서해안의 경우 부여까지 북상하며, 내륙으로는 주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및 금강산까지 북상한다. 5)조선후기 불교의 피폐시기에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구취·구재 분포권의 큰 사찰들의 존속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문화였다. 특히, 화재나 전란 등으로 사찰을 크게 중창·중수해야할 경우에 구취와 구재를 적극 활용하였다. 매달 정초에 주기적으로 사찰의 일년 살림살이 재원을 마련하려 걸궁을 나서기도 했다. 6)鳩聚·鳩財는 스님들이 직접 풍물굿을 치고 다니면서 걸궁을 하기도 하고(보림사, 흥국사, 미황사, 화방사 등), 사당패나 지역의 뜯쇠(패)들과 결합하여 흥행에 적극 나섰다는 특성을 보였다. 마을이나 지역의 공공사업이 아니라 사찰이나 사당패·뜯쇠(패)들은 자신들의 집단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라는 목적이 동질하고, 일시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흥행의 성격을 강화한 재주·기에 중심의 풍물패를 결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鳩聚·鳩財의 학술적인 가치 1)한국불교의 사원경제에 대한 묻혀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 - 이제까지 절걸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미흡한 상태 2)불교와 굿의 문화적 접변과 창출을 엿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3)풍물굿의 군고·금고·매구·구취(구재)·기명기 간의 상관관계와 각각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한반도의 해양문화의 내륙 진출과 자구책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5)鳩聚·鳩財의 존재와 가치를 처음 학계에 알리는 기회.

*** 주 제 어 : 걸궁, 절걸궁, 구취, 구재, 송광사, 해인사, 조선후기불교**

南海郡의 正月대보름 民俗大祝祭

—第7回 全國海洋學者大會 發表 原稿—

정 의 연 ■ 남해안역사문화연구소

1. 남해군 정월대보름 전통축제

1) 남해,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현황

1973년 6월 남해대교 개통으로 남해는 육지와 연결되었으며, 1980년 창선대교가 놓이면 서 남해도와 창선도가 연결되었고, 2003년 4월 창선과 사천시 대방동을 잇는 3.4km의 창선-삼천포대교의 개통으로 사천시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가까운 육지 문화와 교류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외부문화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지세는 망운산(786m) 금산(681m) 원산(627m) 등 산악이 많고 하천은 모두 짧고 평야 역시 협소하다. 해안은 굴곡이 심하고 302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이 있어,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연근해 어업의 전진기지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조도(鳥島), 호도(虎島), 노도(櫓島) 등 유인도(有人島) 3개, 무인도 76개가 있어 어촌에서는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남해군 정월대보름 축제는 어느 민속축제보다 마을마다 풍성하게 열리어 한해의 안녕, 풍농, 풍어, 가축번창 등을 축원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만약 거주하는 마을에 축제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마을이나 최소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축제에 참여하여 전 군민이 하나 같이 모든 축제에 참여하는 추세이다. 남해 역시 설은 개인적인 의례로 개인의 건강이나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속신들이 행해지는 게 대부분이라면 정월대보름은 마을 공동의 기원

인 풍년을 기원하는 속신의 형태가 많다.

2016년 정월대보름날 축제를 보면, 각 마을에서는 대부분 당제와 달집태우기 그리고 매구(지신밟기)를 치며, 대표적인 민속놀이는 선구줄긋기, 화계배선대, 덕신줄다리기 등으로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가 진행되었다.

2) 고현면 일대 민속축제

고현면은 남해군의 옛 치소(治所)로 조선 초기까지 관청이 소재했던 곳이다. 현재 면적은 29km²이며, 인구는 4,353명으로 2,019호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대국산성(도기념물 19호)과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사적 232호), 남해 산단나무자생지(천연기념물 152호), 정지석탑(문화재자료 42호), 화방사 채진루(문화재자료 152호) 등의 문화유산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고려대장경이 판각된 곳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고려말 해도도원수 정지장군의 관음포 대첩지와 임진왜란 노량해전이 있었던 곳이기에 유서깊은 유적지가 많아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

고현면은 반농·반어 촌으로 무형문화유산으로는 육상과 해상이나 해안에서 행하여지는 전통 무속행위와 민속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조선 중기부터 ‘화방사중매구패’는 전국을 순회하는 연희집단으로서 매구의 발상을 이룬 집단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어촌마을에서는 해난사고 방지와 풍어를 기원하는 행위로 심지어는 무속인을 불러 굿을 하기도 한다. 2012년도 남해군 해양수산과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고현면에 있는 어선은 199척으로 1톤 미만이 84척이고, 1톤에서 5톤 사이가 114척이며, 5톤 이상이 1척으로 대부분 1톤 전후에 속하는 어선들로서 영세어민들이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선들은 주로 해안과 가까운 곳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양식 또는 낚시 등으로 생계를 꾸려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선을 가진 어민들은 생계가 바다와 어선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월대보름이 되면 한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뱃고사와 용왕제 등을 지내기도 한다.

고현면의 어촌은 차면, 동갈화, 서갈화, 화전, 도마, 이어리가 해안을 끼고 있는 어촌으로 뱃고사 등을 지내며, 육지에서는 가신들에게 집돌이를 하면서 지신밟기와 가신제를 지낸다. 즉, 주택 내에 있는 성주 조왕굿을 비롯하여, 변소, 장독, 소 마굿간, 곡간 등에도 그 굿을 지키는 신들이 있다하여 굿을 하고 제물을 바치기도 한다. 고현면 전통민속은 ‘화전매구(화방사중매구패)’와 ‘오실집들이굿놀이’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으면서 전통의 맥을 잇고 있다.

그리고 면 소재지에서는 매구패들이 면사무소를 비롯하여 농협, 파출소, 우체국 등 기관에 들러 지신밟기를 하는데, 특히 면사무소는 설달그믐날에 매구패가 건물 안팎을 다니면서 제를 올려 한해의 액을 날려 보내는 매구굿을 한다. 그리고 정월대보름날 저녁에는 달집을 태워 한해의 나쁜 액을 날려 보내고 새해에 개인과 마을 또는 자기가 소속된 단체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망월 대동굿을 광장이나, 해안가 또는 마을 앞 큰 논배미 등에서 달집을 태우면서 벌기도 한다.

3) 주요민속축제

(1) 남면 선구줄끗기

가. 제1과장(당산제)

정월대보름이 되면 남변과 북변은 이미 제작해 놓은 줄을 메고 북변은 할배당산에서, 남변은 할매당산에서 당산제를 지낸다. 당산제는 유교의식으로 봉행하며, 이어서 풍물패가 당산굿을 한다. 의식이 끝나면 북변은 이웃마을인 모래치(사촌), 깻골(임포), 우남동(운암)으로 향하고, 남변은 버든(향촌), 가내(가천)마을로 가서 줄을 어르며 풍물을 치고 소리하면서 응원군을 모은다. 이 응원군들도 줄끗기가 시작되면, 모두 합세하여 줄끗기에 동참한다. 줄꾼들은 “어허술베야”라는 후렴으로 소리를 하면서 응원군들과 함께 줄끗기 장소인 마을 앞 해변 몽돌 밭으로 향한다.

솔밭에는 솔잎이 솔솔(어허술베야 2회) / 대밭에는 댓잎이 때때(어허술베야 2회)

들어보소 들어보소(") / 집집마다 벗짚모아(")

한날두날 모은정성(") / 서낭당에 메고가서(")

우리소원 빌어보세(") / 동네사람 들어보소(")

줄드리세 줄드리세(") / 새끼되고 줄이된다(")

서낭님께 축원하여(") / 바다풍년 되게하소(")

우리사돈 어디갔소(") / 가세가세 자네가세(")

우리편이 이기면은(") / 만선배에 가득부어(")

우리함께 지내보세(")

※ ‘어허 술베야’의 ‘술베야’는 ‘줄을 쏜다’ 또는 ‘고기를 쏜다’는 뜻이다.

나. 제2과장(고싸움)

줄이 몽돌 밭에 도착하면 필승고축을 하고, 암.수고를 정하기 위한 고싸움을 한다. 양편의 고를 서로 맞대고 밀어서 이긴 편이 숫고가 되고 진편이 암고가 되는데, 결정은 3판 2승으로 하거나 5판 3승으로 한다. 고싸움을 하기 전에도 풍물을 치고 소릴 하면서 흥과 사기를 북돋우는 동시에 줄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줄 어르기를 계속한다.

오늘해가 다졌는가(어허술베야 2회) / 오늘밤 달뜨거든(어허술베야 2회)

줄끗기를 할적에는(") / 달떠온다 달떠온다(")

우리사돈 어디갔소(") / 우리편이 이기면은(")

가세가세 자네가세(") / 골목골목 연기난다(")

바닷가에 모두모여(") / 우리편이 이겨보세(")

열두등에 달쏘았네(") / 우리말은 어디갔소(")

사돈동네 풍년드오(") / 우리편 응원하세(")

다. 제3과장(줄끗기)

고싸움에서 암고와 솟고가 결정되면, 암고에 솟고를 집어넣어 비너목으로 결합한다. 이때 부녀자들은 치마에 몽돌을 싸 담고, 줄에 매달려 줄끗기를 한다. 줄끗기는 3판 양승을 원칙으로 하는데, 합의에 따라 5판 3승으로 연장하여 승부를 결정짓기도 한다.

암고가 이겨야 풍년이 들고, 바다에서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속설이 있다. 그러나 일단 줄끗가 시작되면, 풍년과 풍어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이기기 위해 힘을 쓰지만 줄이 너무 커서 대개의 경우 승부가 나지 않고 서로 자기편이 이겼다고 우기기도 한다.

라. 제4과장(망월 대동놀이)

줄끗기가 끝나고 대보름 둥근달이 뜨면 한해의 액을 날려 보내기 위해 달집을 태우면서 망월 대동굿을 한다. 이때는 줄끗기 승부에 관계없이 인근마을 주민들까지 한 덩어리가 되어 달집을 태우면서 화합과 친목을 다지고 마을의 안녕과 개인의 소원을 비는 한마당 축제를 벌인다.

달집태우기가 끝나면, 줄을 메고 마을로 돌아와 줄을 해체하여 마을 사람들이 가져간다. 줄에 사용된 짚을 잘라 논밭에 뿌리면 풍년이 들고, 배 위에 두면 고기가 많이 잡히며, 태워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다.

(2) 화계배선대

가. 제1과장(솟대제작)

화계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대보름이 가까워 오면 10일전 쯤 어촌계 회의를 열고 배선대를 지낼 제반사항을 의논한다. 회의에서 제관의 선정과 솟대를 모셔 올 청·장년의 선정, 소요되는 경비의 각출방법, 무속인의 선정 등 행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일일이 정하고 나면 우선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솟대를 만들기 위해 선정된 제관과 청·장년 10여명이 약간의 재물을 준비하고 마을 뒷산인 남해의 진산 망운산의 중턱에 올라가 곧고 바른 참솔나무를 찾아 솟대나무로 선정하고 산신제를 지낸 다음, 길이 7~8m쯤 되게 자르고 삼각대, 까마귀형에 가까운 나무를 준비한 후 마을을 향하여 내려오는데 이때 노래를 부르면서 어깨에 메고 내려온다.

이 솟대나무가 마을에 도착하면 목수는 다듬고 나무의 상부에 삼각대를 붙이고 삼각대 위에 까마귀 3마리를 만들어 얹은 다음 예부터 세웠던 해안가 솟대자리에 세우게 되는데, 이때가 정월대보름날의 1주일 전쯤 된다. 이때부터 솟대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특히, 부녀자들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삼가도록 할 뿐 아니라, 길에 걸여 다니지 못하게 하였다.(솟대 제작은 매년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없어지거나 보기가 흉할 때에 교체를 하는데 대략 10년 정도에 한번씩 교체하였다고 한다.)

나. 제2과장(풍어제)

배선대 하루전날 자정 무렵에 무속인은 굿을 하고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메와 약간의 제물을 준비하여 자기 집에서 올해에도 풍어가 되길 바라며, 제를 올린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옷을 벗고 짚으로 만든 오쟁이를 짚어지고 춤을 추며 마을을 돌아다닌다. 날이 밝아오면 포구에 있는 각 배에는 선왕기를 달고 배선대를 지낼 솥대 앞으로 마을 어민과 남녀노소 전체 주민들이 모일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용소, 신전, 금전, 원천마을에 있는 선주들도 풍어를 빌기 위해 모이게 된다. 배를 가진 선주 집에서도 준비한 제상을 들고 나오고 어촌계에서 준비한 제물을 솥대 앞에 진설한다. 모두 모이고 제물이 진설되면 이미 선정된 제관들에 의해 풍어제를 지내게 되는데, 유교식으로 풍어제를 지낸다. 풍어제가 끝나면 매를 밥무덤에 도끼뿔로 파서 묻고 축문을 소지한다.

다. 제3과장(배선제)

제물을 포구에 있는 가장 큰 배에 옮겨 싣고 제관과 무속인은 선두 배와 같이 오르고 다른 선주들은 각기 자기 집에서 준비한 제상을 들고 자기 배에 오르면 제관과 무속인들이 탄 선두 배가 출항을 하는데, 이때 해안가에서는 짚이나 깻대를 태워서 보낸다.

출항을 하게 되면, 마을 앞 앵강만을 한 바퀴 도는데, 선두 배를 따라 선주들이 탄 배들도 원형을 그리면서 따라 돈다. 앵강만 중간쯤에 가서 무속인은 용왕굿을 하고 제관은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비는 축문을 외우며 3번 절을 한 다음 제물을 참 종이에 싸서 바다에 내리게 되는데, 이것은 용왕신이 배선장군에게 바친 후 짚단에 불을 붙여 바다에 던지면서 풍어가 들기를 빈다.

라. 제4과장(대동놀이)

배선제가 끝나고 출항했던 배들이 모두 포구로 귀항하게 되면 마을주민과 선주들은 풍물을 앞세우고 같이 어울려 한해의 액을 모두 날려 보내는 달집태우기를 하면서 깊은 밤까지 계속하여 풍물에 맞추어 춤을 추며 즐겁게 지낸다.

(3) 덕신줄다리기

가. 제1과장(사방신제)

동편에 있는 밥구덩이 2개소(용강마을 방향 길 옆, 남치마을 방향 길 옆)와 서편 밥구덩이 2개소(노랑마을 방향 길 옆, 감암마을 방향 길 옆)에 제관과 줄꾼은 줄을 메고 소반에 제물을 준비해서 풍물패를 선두로 지신밟기를 하면서 밥구덩이가 있는 곳에 도착하면, 제물을 진설하고 사방신제를 올린다.

<사방신을 모시러 가면서 부르는 소리>

동편 : (선창)어 동편 꼬신네야 / (후창)우여 우여 어 동편 꼬신네야

어 서편 문네야 / (후창)우여 우여 어 서편 문네야
 서편 : (선창)어 서편 꼬신네야 / (후창)우여 우여 어 서편 꼬신네야
 어 동편 문네야 / (후창)우여 우여 어 동편 문네야

나. 제2과장(당산제와 조산제[다물락제])

사방신제가 끝나면 마을 입구에 있는 당산나무로 와서 당산제를 모시게 되는데, 당산나무에는 사방천(청색, 적색, 황색, 녹색)이 둘러져 있고, 원새끼로 끈 금줄과 황토가 뿌려져 있으며, 제상이 차려져 있다. 제상 앞에 헌관, 제관, 줄꾼, 풍물패, 동네사람 등이 엄숙하게 당산제를 모신다. 진행은 마을 동제 홀기에 따라 진행하는데 참여자는 무릎을 꿇어 앉아 당산제가 끝날 때까지 머리 숙여 마을의 안녕과 가족 그리고 개인의 소원을 빈다. 당산제가 끝나면, 줄꾼은 풍물을 앞세우고 줄을 어르면서 당산나무를 3~4회 정도 돌고 마을 앞들에 있는 조산으로 향한다.

<조산으로 가면서 부르는 소리>

동편 : (선창)어 동편 꼬신네야 어 서편 문네야 / (후창)어 동편 꼬신네야 어 서편 문네야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치 남았구나 / 어 동편 꼬신네야 어 서편 문네야
 나물묵고 술마시고 팔을베고 누웠으니 / 어 동편 꼬신네야 어 서편 문네야
 대장부 살리살이 이만하면 넉넉하다 / 어 동편 꼬신네야 어 서편 문네야
 서편 : (선창)어 서편 꼬신네야 어 동편 문네야 / (후창)어 서편 꼬신네야 어 동편 문네야
 먼디사람 듣게 좋게 옆피사람 보게 좋게 / 어 서편 꼬신네야 어 동편 문네야
 우여소릴 맞차주소 / 어 서편 꼬신네야 어 동편 문네야
 당산제를 마치면 조산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조산에서는 초헌관만 제를 올린다.

다. 제3과장(줄어르기[용트림])

조산제를 끝으로 제의는 모두 마치고 줄 당기기를 한다. 먼저 줄 당기기 전에 양편은 일제히 풍물에 맞추어 함성을 지르면서 영기와 농기의 신호에 따라 조산을 중심에 두고 양편이 각각 엇갈리게 돌면서 노래를 부르며 상대방의 기세를 제압한다. 그러면서 자기편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줄을 메고 지그재그 식으로 전진하면서 용트림을 하는데 숫줄이 암줄에게 서서히 접근한다.

<용트림하면서 부르는 소리>

동편 : (선창)어 동편 꼬신네야 어 서편 문네야 / (후창)어 동편 꼬신네야 어 서편 문네야
 저건네가 초당인데 백년심아로 심었더니 / 어 동편 꼬신네야 어 서편 문네야
 백년 심아 간곳없고 이별화초 만발이라 / 어 동편 꼬신네야 어 서편 문네야
 서편 : (선창)어 서편 꼬신네야 어 동편 문네야 / (후창)어 서편 꼬신네야 어 동편 문네야
 오래비는 남자로여 논도 차지 밭도 차지 / 어 서편 꼬신네야 어 동편 문네야
 하늘같은 부모차지 이내 년은 여자로여 / 어 서편 꼬신네야 어 동편 문네야
 돈을 주나 밭을 주나 입고 벗고 옷 두벌에 / 어 서편 꼬신네야 어 동편 문네야
 연고 나도 해롭도다 / 어 서편 꼬신네야 어 동편 문네야

라. 제4과장(줄당기기)

줄어르기에서 양편의 사기가 오르면 심판관이 징을 치면 심판관 옆에 있던 기수는 기를 좌우로 흔들며 암줄과 솟줄이 심판 앞으로 오도록 유도한다. 양편은 심판관 앞으로 와서 서로 용두를 부딪치면서 고를 땅에 놓는다. 이때 심판관의 지시에 따라 암.솟고를 참나무 빗장으로 연결한다. 줄 당기기 준비가 완료되면 심판관은 징을 쳐 줄당기기를 하는데 3전 2승을 원칙으로 하되, 양편 합의에 따라 5전 3승까지 할 수 있다. 줄당기기를 하던 중 만약 줄이 끊어지면 끊어진 쪽이 패한다. 줄당기기를 하다가 힘이 약하여 끌려갈 경우 줄 위에 앉기도 한다.

마. 제5과장(대동놀이)

줄당기기가 끝나면 승부와 관계없이 풍물과 함께 밝은 보름달을 보면서 대동놀이를 즐기는데 덕신마을과 인근마을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올 한해에도 풍년이 들고 마을 번영과 개인 소원이 성취되길 빈다.

줄당기기가 모두 끝나면 줄을 메고 마을로 돌아온다. 마을로 돌아온 고는 많은 짚으로만 들어졌기 때문에 소를 사육하는 재력가가 돈을 주고 사서 소 여물로 사용된다.

<퇴장할 때 부르는 소리(동편과 서편은 같다)>

(선창)열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 (후창)선창을 따라 한다.

어 꼬신네야 제비란 놈은 목소리 좋아 /

양새란 놈은 다리가 길어 구렁뱀이 불피 주게 물계 밑에 송사리는

양새 오길 기다리네

참 고 문 헌

- 국립민속박물관『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 대보름편, 2004.
- 문화체육부『한국의 지역축제』도서출판 피아 1996.
-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보고서 2006년 8월)
- 이보형『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존정책의 시말과 성과』『무형유산연구』무형유산포럼 제1권 2015.
- 함한희『무형문화유산 담론의 형성과 발전 과정』『무형유산연구』무형유산포럼 제1권 2015.
- 김민수(대전시민대학)『목포지역 판소리의 전승양상』『2015년 제6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8분과 도시해양의 민속예술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5.
- 남해문화원『남해문화원50년사』도서출판 시움 2015.

- 도서문화연구원『2015년 제6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자료집 도서문화연구원/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5.
- 김용구『무형유산연구』제1권 무형유산포럼 2015.
- 국립무형유산원『2015 무형유산지기 활동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2015.
- 문화재청 http://www.cha.go.kr/cultural_info/culture Total ccrebasi korjsp
- <http://www.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문화광장>지역축제

해양왕국 고려시대 차문화 연구

정 서 경 ■ 목포대학교

1. 차문화 분석의 근간인 고려시대 茶詩 자료 분석

인류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음료라고 말하는 차는 종합예술로 표현될 만큼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며 발달한 음료이자 기호품이며, 건강한 육체와 깨달음의 경지인 정신세계까지 아우르는 문화생활을 투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를 마시는 음다 문화를 통하여 각 시대의 정치, 문화, 역사적 조건을 바탕으로 사회적 흐름을 읽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종합 문화 매개체인 것이다. 공통된 문화 사인으로서 나라마다 지역마다 격식있게 마시는 의식을 만들고 거기에 정신적 의미를 부여해서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를 茶道, 茶禮, 茶藝, 茶法이라는 이름으로 차를 내는 이의 철학적 태도의 반영 등 독특한 차 문화를 가꾸어 왔다. 이렇듯 차문화는 서양에서는 사교문화로 동양에서는 정신문화로 꽃피워 오면서 우리의 선대다인들은 차문화 공간 안에서 茶와 함께 한 삶을 차시로 표현했고 또 글로 써(기록해) 남기고 있다.

우리 차문화는 사원차라고 할 수 있는 불교의 음차풍속이나 불전에 헌다하는 습속이 상당히 널리 퍼진것이 음차문화 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면 17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茶詩에는 신라시대 김지장 스님의 <送童子下山>이라는 차시를 시작으로 각 시대별 차문화의 맥을 이을 수 있는 차사와 차정신 음다풍속까지를 아우르는 차문화사의 참 모습이 그대로 녹아나 있다. 차시는 우리 차문화의 정수이며 그 어떤 시대보다도 고려시대에는 많은 차시가 남아있고 차문화의 융성기이자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차문화는 동아시아의 코드라 할만큼 韓.中.日 세 나라가 동시대에서 시작해서 끊임없이

변천하면서 고유의 전통문화로 발전시켜왔다. 더욱이 이런 전통문화가 일반 대중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단일 계층의 향유물처럼 느껴진 것이 지금까지의 가장 큰 문제이다. 차를 마시는 인구를 늘리고 건강이 가장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현대시대에 웰빙 바람과 더불어 차문화를 대중문화로 오롯이 이끌어야 할 속제로 동아시아의 차문화를 비교 고찰 함으로써 이런 차문화의 가장 큰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하고 차문화가 가장 번성했던 고려시대의 茶詩를 통해 우리가 享有해야할 대중문화로서의 공통된 차문화는 무엇이고, 우리 차문화의 독자성을 밝히기 위해서 신라의 지장법사를 기두로 茶詩가 남아 있는 문헌을 통해 한국적인 차문화를 정립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茶詩는 당대의 사람들이나 후인들이 차를 사랑하고 음다풍속이 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내용들이 적지 않으며, 한, 두편을 남겼음에도 자신의 다도관이나 생활철학을 담은 것이 대부분이다. 차시란 좁은 의미로는 ‘茶’를 주제로 읊은 시를 말한다. 이 때의 茶는 차의 재배에서 시작해서 찻잎의 상태, 차의 採茶時期, 茶의 種類, 造茶, 차의 包裝, 차의 貯藏, 찻그릇(다구), 飲茶風俗, 茶情神, 飲茶할때의 品水, 茶道哲學, 차를 마시는데 필요한 도구까지를 아우른다. 불가의 스님들이나 사대부, 문인들 사이에서 주로 지어진 茶詩에는 이런 일련의 차문화와 찻자리의 정취 등 차 생활을 노래하고 차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이상을 담고 있어 차 문화사 연구에 큰 자료가 되고 있다.

茶가 주제 혹은 부제인 詩를 70편 이상 남긴 차인이 고려와 조선을 통틀어 7명이 넘고, 20편 이상 남긴 차인이 10명 정도로 조사되었다. 중국에는 陸游가 약 300편에 이르는 엄청난 분량의 茶詩를 지었고, 다음으로 蘇東坡가 70편, 白居易가 50여편, 梅堯臣이 25편을 남긴 정도이며, 권력층 武士중심의 다도가 발달한 일본은 근세 이전의 茶詩文이 거의 없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韓國은 여성이 쓴 茶詩가 20여수나 되어, 中國의 몇 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2. 王室茶 · 貴族茶 · 寺院茶 · 庶民茶로 분류

고려의 차문화는 선종은 생활차 중심으로, 교종은 의식차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왕실에서는 진다의식으로 삼국시대부터 내려와 사원차를 형성하였으며 사원에서는 헌다의식으로 차문화가 전승·발전된다. 장구한 차문화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왜색다례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 다도문화의 깊은 연구도, 기원에 대한 분석도 없이 우리 차문화가 일본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의 차정신이 여타 다른 나라의 차문화사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차시로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 재조명하면서 우리 차문화의 근간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차시이다. 우선 고려시대의 茶詩만을 선별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茶人 49분의 차시로 234首를 찾을 수 있었다.

고려시대는 AD918년에 시작하여 1392년 475년간 36代왕조를 거치면서 민족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이 발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차가 융성했던 시기였다. 고려는 신라와 백제의 차문화를 계승한 나라로, 신라의 전통과 문화가 고려에까지 이어지면서 신라에서는 왕실과 귀족·승려·문인들이 차를 음용하였는데 고려에서는 평민들까지도 차를 즐겨 마시는 풍습이 성해 왕실과 귀족·관리·백성들 모두가 일상 생활에서 차를 즐겨 마셨기 때문에 王室茶·貴族茶·寺院茶·庶民茶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국가의식은 물론 백성들의 제사의식에도 차가 빠지지 않았다.

고려의 전기는 둘로 나누어 발전기와 변환기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발전기는 초기 태조 1년(918)부터 정종(靖宗) 12년(1046)까지 128년간 10대왕조를 거친 건국 발전기로 차문화 정착기라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는 숭불정책으로 일찍이 다방제도가 완비되어 功德祭(진다의식)와 팔관회가 성행하였다. 예물과 賻儀品으로 80세이상 國老에게 차를 하사 하였을 정도로 차생활이 정착하였다. 對外的으로는 공물로 거란에 腦原茶가 보내졌고, 순청자 시대를 열어 다구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소식(1037~1101)이 茶詩를 지었고, 채양(1012~1067)이 茶錄을 저술하기도 했지만 이 시기에 아직 茶詩는 보이지 않는다.

고려 후기 원종 1년(1260)부터 공양왕 3년(1391)까지 131년간을 차문화의 성행기라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元의 간섭기로 무신 정치가 붕괴되고 문신 정치가 시작되었으며 차문화 은둔생활로 들어가고 척신의 특세 대중의 외면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다기가 발달하여 상감청자가 완성되고 분청사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충선왕(1308~1332)때 다방제도가 개선되었으며 차시, 풍류놀이 鬪茶會가 성행했다. 충렬왕(1247~1308)때는 元에 차향을 보내기도 했고 공민왕(1351~1374)은 辛旽과 차 마시기도 했다. 李齊賢(妙蓮寺石池竈記), 李穀, 李衍宗(茗戰), 李穡(茶詩 69수), 鄭夢周(石鼎煎茶), 天因大師, 野雲禪師, 白雲禪師, 太古禪師, 懶翁和尚, 洪奎, 洪侃, 朴忠佐, 權漢功, 安軸, 鄭思道, 李茂芳, 李崇仁, 元天錫, 安軸(安裕)에 의해 題寒松亭, 竹藏古寺 등의 茶詩가 전한다.

3. 해양왕국 고려시대 차문화의 特徵과 茶情神

고려시대의 차시를 통해 당시의 차문화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것은 차를 가까이한 이들이 대부분 지식인 곧, 사대부와 승려들인 것과 무관하지 않아서이며, 나아가 많은 이들이 차를 통한 많은 시를 남겼기 때문이다. 또한, 詩를 통하여 기호품의 하나로서 차를 가까이 하고 기리면서, 나아가, 그 情神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살펴본 것이다. 이상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茶詩는 주로 지식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벼슬아치를 중심으로 한 사대부와 승려들 중심이었다. 고려시대 차시를 남긴 신분으로는 왕과 왕족으로 의례용, 즉 진다의례의 예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유생 문인 귀족으로 생활차 안에서 풍류음다의 음다풍속을

남긴 주체들이다. 선승으로는 국사와 왕사, 선사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예는 헌다의식과 참선 때 주로 차를 마신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 종류는 덩어리를 맷돌에 갈아서 마시는 團茶였다.(덩어리차(研膏茶), 團茶, 덩이차 떡차, 乳團茶) 그밖에 잎차라고 할 수 있는 散茶(우림차, 葉茶, 잎차)와 點茶法으로 차를 마신 沫茶가 있었다. 團茶에는 龍鳳團茶, 승설차, 曾坑茶 등이 보이며 露芽茶, 靈芽茶 등의 國內茶도 있었으나 소량이었고, 그나마 승려들에 의해 사찰에서 만든 것이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토산차라 할 수 있는 腦原茶가 茶詩에서는 보이지 않아 앞으로 더 많은 문헌을 통해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찻잎으로는 金芽, 金粟, 新芽, 芽生, 爛石에서 찻잎을 따서 만들었고, 맷차(山茶), 曾坑茶, 雀舌茶, 露芽茶, 靈芽茶, 紫筍茶, 醞茶, 香茶, 大茶, 小茶, 竹露茶, 宋나라의 獻上茶가 있었고 密雲龍茶(누른 자루를 쓴다)가 있었고 만드는 시기에 따라 臘前茶, 火前茶, 騎火茶, 火後茶, 雨前茶, 雨後茶, 梅茶, 秋茶, 小春茶 등이 있다. 차의 包藏과 保管으로는 茶詩에서 알 수 있듯이 ‘맑은 향기 미리 새어날까 두려워서 옥색 비단으로 굳게 감싼 상자’를 자주빛 머루 덩굴로 엮어 매어 싸기도 하고 작설차는 ‘표제하여 봉하고 의조에 보내어 예를 갖추기도 하고 가는 풀끈에다 새로 봉해서’ 포장하고 보관하였다.

고려시대의 乳團茶는 상자에 보관하였고, 가루낸 말차는 다합에 담아 두었다가 點茶하였다. 떡차는 대개 발효차 였으므로 껌미에 껌어 마루, 방, 다락등의 높은 곳에 걸어 두었다.茶具로는 차맷돌을 비롯하여 石釜, 石鼎, 湯壺, 銀瓶, 石銚, 茶銚, 鎗, 鐵罐, 차부뚜막, 벽돌화로, 돌술, 노구술, 돌남비, 질화로, 탕관, 찻사발, 꽃사발, 오지사발, 봉황무늬 사발, 정주의 자기까지 다양한 다구들이 사용되었으며 찻사발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런茶具와 茶器로 湧泉連珠까지 三沸法으로 끓였다는 것을 차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밖에 金花鳥盞, 翡色小甌, 青磁茶碗, 銀爐湯鼎은 다 중국의 영향을받은 다구도 文獻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수요에 의해 주전자, 항로, 화병, 완 등의 茶器들이 많이 제작 되었으며 이러한 중국도자기를 모방하면서 우리 도자기도 발달하여 결국은 중국의 청자를 능가하는 세계적 고려청자로 발전 시켰다. 찻잔은 말차잔인 청자를 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 碧碗, 靑碗, 碧甌 등으로 주로 표현 하였다, 물(擇水)은 茶人들도 물가리기(辨水)에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詩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 고려시대의 茶人들에게도 지금의 茶人처럼 茶, 물,茶具들을 선사하는 경계운 풍습이 있었다. 차빌기(乞茶)란 차를 보내 달라고 청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의 乞茗疏와 같은 차빌기가 고려시대에도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를 마시는 곳으로는 고려와 조선의 院이 임금이나 귀족, 관원이 먼 길을 가다가 외딴 곳에서 쉬는 국영여관이었고 더러는 승려가 거처하기도 하였는데, 新羅의 원도 화랑과 승려가 머물렀다. 고려 다원으로는 茶房院, 茶見院, 茶井院, 茶亭院이 있었고, 차마시는 풍습은 실내와 야외가 있었으며, 실내는 궁중과 사찰, 야외는 주로 정자였으며 그것도, 물가 등의 풍경이 좋은, 계절은 여름, 가을, 특히 겨울에도 이규보의 詩, 여러장면에서 보듯 절묘한

아취가 있어 운치를 즐겼음을 알 수 있었다. 차정신은 고려가 불교국가이고, 종교적 사상이었으며, 고려의 정치 이념이자 불교는 정신적 지도이념이었기에 불교적인 정신, 특히 禪사상에 의하여 차와 차시를 통한 禪氣 곧, 깨달음과 속세를 떠난 초연한 경지를 읊은게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면, 이규보나 진감국사 등의 訪巖師나 陪先師丈室煮雪茶筵, 圓鑑國師의 산살이가 대표적이고 이것은 곧, 고려시대 차정신의 핵심이기도 한 다선일여를 나타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상적 기반이 유교였기에 유교적인 내용이나 예를 말하는 내용도 있었다. 예를 들면 李穡의 <茶後小詠>을 들 수 있다. 그밖에 사대부는 일상적인 음다내용을 읊은 것도 다수 있으며 승려들의 의해 차사는 전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이상으로 고려시대의 차문화를 정리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茶詩를 통해서는 차세레모니(예를 들면, 차내는 순서나 예절등)를 확연히 알 수 없었으며, 고려시대의 차문화사와 완벽한 茶事를 제현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더욱 더 기대하는 바이다.

카스피해 연안의 고대 민족과 문화 전통

김 영 술 ■ 전남대학교

I. 서론

이 연구는 카스피해 연안의 주요 고대 민족과 문화 전통, 그리고 동서 문명의 중간 지대인 카스피해의 역할에 대한 고찰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카스피해와 인접해 있는 5개의 국가들의 영토에 존재했던 민족들과 문화를 살펴본다.

카스피해는 러시아 남서부,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란 북부로 둘러싸여 있으며 호수인가 바다인가라는 지위문제로 주변 국가들은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분할에 대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¹⁾ 이는 카스피해에 매장된 엄청난 자원 관할권 때문인

1) 카스피해를 바다로 보는 시각과 호수로 보는 시각이 있다. 바다로 보는 시각은 역사적·지질구조학적 측면에서 이 지역이 5천-6천만 년 전에 대서양과 태평양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담수보다는 염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호수로 보는 시각은 육지로 둘러싸인 내해로 주변의 강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 자체가 호수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카스피해에 어떠한 법적 지위와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주장도 다양하다. 카스피해를 바다로 보고 UN해양법협약을 적용하자는 입장, 호수이므로 인접국이 협의하여 경계를 정하자는 입장, 바다와 호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맞는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입장 등이다. UN해양법협약을 적용하는 경우 연안국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에 대한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자원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까지도 카스피해의 성격에 관련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것이다.²⁾

2016년에 열릴 카스피해 연안 국가 정상회담에서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이 채택될 전망이다. 그리고 4차 카스피해 정상회담에서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카스피해 정상 회담국들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제안한 상태다. 또한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스피해에서 흑해를 있는 유라시아 운하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³⁾ 이렇게 되면 카스피해 원유를 전세계와 자유롭게 거래하는 해상 오일로드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Herodotus)도 카스피해는 닫혀있는 바다라고 기술했다. 끝없이 펼쳐지는 카스피해를 태평양과 이어져 있는 대양으로 생각해 왔다.⁴⁾ 알렉산더 왕조차도 카스피해가 닫힌 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하로 흑해와 연결되어 있는 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 자료에 따르면, 약 10만 년 전에 카스피해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고대 전설에는 지각 변동의 결과로 사르마트 해(Сарматское море)가 세계의 바다와 접촉을 잃고(폐쇄) 이후 아랄해, 카스피해, 흑해로 형성되었다고 한다.⁵⁾

카스피해는 유라시아 대륙의 두 부분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며 소금물로 이루어진 폐쇄된 곳이다. 카스피해 면적은 약 37만 1,000km²로 남북한 면적 22만 2,300 km² 보다 약 1.7배가 되는 큰 곳이다. 카스피해는 남북이 1,200km, 동서가 320k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어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문화권이라 할 수 있다. 최대 깊이 1,025m이며 라틴 문자 S모양이다.

카스피해는 매우 신비하고 흥미로운 곳이다. 이 비밀스런 바다의 역사적 이름은 카스피해 북서쪽 해안에서 기원전 1세기에 살았던 카스피해 유목민의 고대 부족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카스피해의 출현과 존재의 역사는 역사적인 문제이다. 카스피해가 형성 이후 약 50번의 이름이 바뀌곤 하였다. 기르칸 해(Гирканское море), 흐발린 해(Хвалынское море), 하자르 해(Хазарское море), 시하이 해(Сихайское море), 아베스쿤 해(Абескунское море), 사라이 해(Сарайское море), 데르벤트 해(Дербентское море) 등이다.⁶⁾

카스피해 연안에 사람들이 고대부터 살았다. 먼 옛날에 아시아에서 새로운 부족이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이동해 와서 살고 머물렀다. 이곳은 약육강식의 장소로 정착과 정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카스피해 연안은 새로운 부족에 의해 세대에

2) 카스피해 분할 문제의 해결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란은 연안국들이 각각 20퍼센트의 카스피해의 '균등분할' ('equal division')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다른 카스피해 연안국들은 카스피해가 '중간선 원칙' (median line principle)에 따라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간선 원칙에 따라 카스피해가 분할될 경우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이란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은 각각 19퍼센트, 18퍼센트, 27퍼센트, 23퍼센트 그리고 13퍼센트가 된다. 이밖에 연안국들 간의 협상이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1990년대 말 카자흐스탄은 '바닥 분할, 수역 공동 이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3) Kazakhstan Proposes Caspian-Black Sea Canal, AFP, Reuters, 2007.

4) 헤로도투스, 천병희(옮김)(2009), 역사, 도서출판 숲, 2009, pp. 150-151.

5) <http://sibved.livejournal.com/137313.html>

6) Рустамов Дж. Гобустан-Очаг древней культуры Азербайджана. Баку: Нурлан, 2008, 62 с.

서 세대로 전달되는 이름을 주었다. 고대의 다양한 종족과 민족들이 사용했던 카스피해 이름은 현재의 인종적 다양성을 입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지역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지닌 곳이다.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북부는 페르시아문명과 투르크 문명,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투르크 문명 지역, 그리고 남러시아는 슬라브 문명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이들 문명들이 함께 공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였다.

또한 카스피해는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연결고리로 육·해상 실크로드의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며 문화교류와 인적왕래의 역동적 현장의 위치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외부세계로부터의 접근의 어려움과 무관심 속에 카스피해는 오랫동안 자신들의 문화적 특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고대 사람들은 카스피해를 향해하여 건너기도 하였다. 헤로도토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시기에 바다 교통 이동 수단을 설명하는 몇 가지 기록을 찾을 수 있다.⁷⁾ 카스피 해에서 첫 번째 항해 증거 서류는 기원전 7천 년 전에 고브스탄(Gobustan) 바위에서 발견된 보트 도면이다. 암각화(바위 예술)에 따르면 형식과 전체 모양을 볼 수 있다. 원래 보트는 굽은 갈대와 대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가장 마지막 보트는 강한 나무에 동물 가죽으로 덮여 있었다. 이는 고대부터 작은 보트를 이용하여 카스피해 남서 해안을 다녔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암각화에는 23척의 심해 보트가 묘사되어 있기도 한다.⁸⁾ 이는 수천 년 전부터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카스피해를 가로 질러 항해하였던 함대로 보인다. 단순히 상업 수송 수단이나 남획과 보호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⁹⁾

카스피해는 항해는 기원전 2000년 청동기 시대에도 있었다. 이것은 산기-무간(Санги-Мугань) 섬에서 발견된 석인상에 의해서 입증되었다. 고고학자에 의해 사람의 머리를 묘사한 작은 크기 의인화 된 시베리아 청동기 시대의 고고학적 문화와 관련된 인물의 형태의 돌이 발견되었다. 크바치키드제(Квачкидзе В.А.)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부터 더 멀리 가서 보고 싶어 하는 순례자와 같은 이방인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보통 종교적이거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중 기능을 갖고 있었다. 인간의 머리의 석상은 분명히 먼 길을 극복하고 시베리아에 와서 불변성의 의미로 세운 것일 것이다. 인간 머리 모양의 석상은 자신들의 방문 흔적이다. 이들은 카스피해까지 도착하여 카스피해 노정을 극복하고 우랄과 시베리아 자카프카스와 연결되는 길이 되었다.

카스피해로 인한 길은 초원로와 오아시스로 갈라진다. 이 길에 위치한 카스피해 연안의 민족과 문명은 공존과 대립을 하면서 동질성과 이질성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7) Геродот. История в девяти книгах. Ленинград: Наука, 1972, 600с. ; Джафарзаде И.М. Гобустан. Наскальные изображения. Баку: Элм. 1973, 347 с.

8) Джафарзаде И.М. Гобустан. Наскальные изображения. Баку: Элм. 1973, 347 с. ; Меликов Р.С. Этническая картина Азербайджана в период ахеменидского владычества (6-4 вв. до н. э.). Баку: Нурлан, 2003, 198 с.

9) <http://sibac.info/shcoolconf/science/xii/40773>

Ⅱ. 카스피해 지역의 주요 민족과 문화

1. 고대 민족

카스피해 연안의 주요 고대 민족으로는 알란족(Alans)/알라니족(Alani), 훈족(Huns), 아바르족(Avars), 사비르족(Sabir), 하자르족(Khazars), 스키타이(Scythians) 등을 들 수 있다.

알란족은 기원전후 고대 로마의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들은 카스피해 연안의 카프카스에서 기원하여 서쪽으로 진출하였다. 3세기와 4세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시기에 알라니족도 다른 유목민족과 마찬가지로 훈족의 영향으로 로마 제국의 영토를 침범하기도 했다.

훈족은 서양사에 등장한 최초의 투르크계 민족이다. 이들은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촉발시켰으며 5세기 중엽에 가장 세력을 떨쳐 아틸라의 지휘 아래 서쪽은 라인강에서 동쪽은 카스피해에 이르는 대제국을 이루었다. 강력한 지도자인 아틸라가 죽자 아들인 덴기치크가 훈족의 지도자가 됐으나 많은 부족으로 구성된 훈제국은 곧바로 분열돼, 469년 훈제국은 동로마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졌다.

아바르족은 5-9세기에 중앙아시아 및 중앙 유럽, 동유럽에서 활약했던 유목 민족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 와서 중앙 및 동유럽에 이르는 넓은 제국을 건설했으며, 주변 국가를 위협했으나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해 쇠약해졌으며, 후에 카롤루스 대제의 프랑크 왕국에게 멸망하였다. 지금도 다게스탄과 잉구쉬공화국, 체첸 등지에 살고 있는 아바르족 사람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¹⁰⁾

사비르인들은 463년에 훈족을 공격했다. 이후 이들은 503년 불가르족 혹은 그 전신으로 보이는 오노구르족을 제압하고 515년에는 불가강과 쿠반강 사이의 지역을 평정했다. 하지만 545년 사산조 페르시아의 군대는 사비르 군대를 대파했다. 아바르족이 이들을 짓밟으면서 사비르는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였다.

하자르족은 5세기 이전부터 실크로드의 요충지인 카스피해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¹¹⁾ 하자르 왕국은 카스피해 교역로를 두고 사산조 페르시아와 협력과 격돌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하자르가 카스피해라는 동서로 향하는 천혜의 교역로와 비잔틴과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인 카프카스 지역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교역을 통한 경제력 확보와 우수한 기술문화를 받아들여 상당한 국가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다.

7~10세기 하자르 왕국의 수도는 카스피해 연안의 러시아 아스트라한 인근 지역의 이틸(Itil)로 추정되고 있다. 하자르는 아랍 이슬람 세력 간의 충돌과 갈등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르가 이처럼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산조의 멸망과 비잔틴의

10) <http://egloos.zum.com/rozanov/v/1091869>

11) Artamonov.M.I.(trs.Ahsen Batur),(2004), Hazar Tarihi(하자르 역사), Istanbul, 2004, p. 159; Golden, Peter.B.,(2006)(trs. Egemen Cagri Mizrak), Hazar Calismalari(하자르 연구), Istanbul, 2006, p. 61.

소약과 같은 역내 힘의 공백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었고 교역로의 요충지를 확보한 지정학적인 이점으로 엄청난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965년 키예프의 공격으로 하자르국은 완전 와해되었다.

스키타이족은 기원전 8~9세기경부터 동부 유럽에 와서 남부 러시아에 제국을 건설하였다. 이들은 서쪽으로 도나우 강, 동쪽으로 돈 강, 북쪽으로 드네프르 강과 부그 강의 상당한 지역까지 뻗쳐 있었다. 기원전 7세기경부터 남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드네프르 강에 이르기까지 퍼져 살았다. 이 기마 전사들은 훌륭한 궁술을 가지고 있었고, 바지를 입음으로써 기동력을 높였다. 용병으로 싸우기도 하였다. 스키타이인은 카스피해에서 출발해서 유라시아 초원지대를 지나 기원전 7~2 세기 경 알타이 산맥에 도착했다. 이들의 존재는 주로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의 저술을 통해 알려졌다.

2. 문화

카스피해 연안의 국가로는 페르시아 전통, 투르크 전통, 슬라브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아제르바이잔지역은 페르시아 전통과 투르크 전통(언어적·종족적 동질성), 페르시아 전통(역사적 동질성과 시아 이슬람), 이란북부의 페르시아 전통과 투르크 전통의 공존과 대립하고 있다. 또한 19세기 중반부터 러시아인들이 카프카스지역에 진출한 이후 아제르바이잔은 아라스(Aras)강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고 북부의 중심인 바쿠는 러시아적 분위기로, 남부의 중심인 타브리즈는 이란의 문화적 전통을 간직한 도시로 발전하게 된다. 북아제르바이잔은 제정러시아 100여 년, 소련 70년을 합하여 무려 170년 이상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러시아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

그리고 이곳은 투르크 전통도 있는 곳이다. 투르크족이 이슬람을 접하게 되는 것은 7세기 중엽으로 아랍-이슬람군의 동방정복과 중앙아시아 진출의 결과였다.

Ⅲ. 카스피해 지역의 동서 문명 교류

카스피해 연안 지역은 초원로와 실크로드-오아시스 루트가 지나간 곳으로 동서 문명이 교류하였다. 초원 실크로드는 유라시아대륙 사막 북쪽의 초원지대를 연결하는 교역로로 흑해 북안의 우크라이나에서 카스피해와 아랄해 북단, 몽골초원과 만주를 거쳐 한반도로 이어지는 교역로이다.

실크로드-오아시스 루트는 중앙아시아와 서쪽으로 더 나아가서 이란·이라크·시리아 등의 오아시스를 연결한 통로로서 고대에는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이 루트에서 비단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카스피해 연안이 활기를 띄며 번성하게 되는 시기는 8-13세기경이었다.

카스피해 연안지역은 몽골시대를 거치면서 유럽이 흑해를 경유해 중앙아시아와 인도, 중

국으로 향하는 실크로드 국제 교역의 중요한 거점으로 크게 번성하고 각광을 받았다. 이는 동시에 동서 문화의 접점에서 여러 다양한 문물과 정보의 집산을 의미하였다. 이것이 카스피해 문화의 독창적 배경이며 이슬람 이전 이란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카스피해가 갖는 중요성이다.

IV. 결론

카스피해 연안의 고대 민족은 사비르, 아바르, 훈족, 하자르, 스키타이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대립과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다. 카스피해 연안지역은 초원로와 오아시스로의 실크로드에서 국제 교역의 중요한 거점으로 크게 번성하고 각광을 받았다. 이곳이 동서 문화의 접점이어서 지역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카스피해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또한 카스피해 연안 지역은 다양한 문명을 지닌 곳이다. 이러한 다양한 민족들은 카스피해 연안의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북부는 페르시아문명과 투르크 문명,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투르크 문명 지역, 그리고 남러시아는 슬라브 문명을 통하여 서로 인적 교류, 상업 활동 및 위대한 문화교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역할을 했다. 카스피해 연안의 민족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들 문명들이 함께 공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립하면서도 동-서를 잇는 통로 역할을 해주었다는 점일 것이다.

환황해권에 부는 생명의 바람神, 영등

김 승 훈 ■ 제주대학교

1. 서언

바람은 인간 삶에 피해를 주기도하고 이를 이용하면 삶에 편리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저항해야하는 대상이면서 수용해야 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인적, 물적인 외부환경과 저항하거나 수용하면서 살아야 한다. 입춘이 지난 음력 2월, 황해에 겨울 내내 불어오던 북서계절풍의 차가운 바람을 보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려는 마음들을 비웃기 로라도 하듯이 차가운 바람이 다시 불어온다. 꽃샘추위이다. 꽃샘추위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오는 차가운 바람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삼가야할 것도 많다. 이 추위를 가지고 오는 바람을 신격화해서 ‘영등¹⁾’이라 부른다.²⁾ 그래서 영등신이 들어오는 음력 2월에는 바깥출입을 금하는 등 조심하는 일이 많아진다.

‘영등’의 호칭이 ‘영등’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이월’, ‘제석’, ‘손’ 등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영등’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³⁾ 그러나 ‘영등제’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라지고 제주에서 명맥을 잇고 있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마을제인 제주에서와 달리 우리나라 중남부에서는 가정

1) 남향의 "영등할머니 호칭의 의미와 성격"에서 '영등'에 대한 호칭은 '然燈'·'靈童'·'영등(迎燈, 靈登, 嶺登, 盈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용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영등'으로 적는다.

2) 앞으로 언급할 여러 논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영등을 꽃샘추위로 보고 있다.

3) 위 논문, p305

에서 제를 지내는 제의 방식의 차이가 아닌가하는 추정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영등신앙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민속학적 연구가 계속되어 축적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개별적인 지역사례를 넘어서 문화관련 행정기관에 의한 세시풍속 조사사업이 진행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적 민속학 연구를 넘어 철학적, 비교문화적, 기후생태학적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의 영등신앙과 제주의 영등신앙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고 이미 알려져 있는 영등신앙의 신화와 내력담을 중심으로 생명의 씨앗을 잉태한 영등신의 이야기를 확인함으로써 문화컨텐츠 가능성을 환기시키려한다.

2.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의 영등신앙

제주에서 ‘영등할망’으로 불리는 바람신, 영등은 제례의식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분포한다.⁴⁾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2월조에 “집집마다 신에게 제사하는 풍속이 있어 이를 ‘영등’이라 한다. 신이 무당에게 내려서 동네로 나 돌아다니면 사람들은 다투어 이를 맞아다가 즐긴다. 이 달 1일부터 사람을 꺼려 만나지 않는데, 이렇게 하기를 15일에서 또는 20일까지 간다.”고 전한다.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영등신화의 주된 내용은 대략 이렇다.

영등할머니는 음력 2월 초하루에 딸이나 며느리를 데리고 인간세계를 방문한다. 영등할머니가 딸을 데리고 오면 바람이 불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비가 온다고 한다. 딸을 데리고 오는 해에는 가뭄이 들어 농사를 망친다고 보고,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는 비가 오는데 그 해 풍년이 든다고 예측했다. 영등신은 성격이 까다롭고 시기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영등신이 방문 중인 2월에는 화려한 색깔의 옷도 입는 것을 금하며 동티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월할머니의 동티라고 한다.⁵⁾김재호 (2007:70)

이 기간 동안 영등할머니를 모시게 되는데 모시는 곳은 부엌과 장독대 등이다. 제를 지내기 전에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 앞에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친다. 그리고 부엌에 삼대나 대나무로 받침대를 만들어, 정화수를 담은 바가지를 올려놓는다. 가정에서 영등을 모시는 날짜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⁶⁾

남향은 「영등할머니 호칭의 의미와 성격」에서 영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 ‘영등할머니는 음력 2월 계절풍을 인격화한 가신이다. 영등할머니는 이월 초하루에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 가정에 머물다가 그달 15일이나 20일에 다시 올라가고, 절기는 경칩과 춘분 사이에

4) 남향, "영등할머니 호칭의 의미와 성격", 『역사민속학』 제33호, 2010.

김재호, "영등신앙의 제의적 특징과 생태학적 해석"『실천민속학 연구』 제10호, 2007.

5) 이해준·강성복, 『신약선 기술에 꽃피운 천년의 터전-비잔고을 유림의 고향 초현리』금산문화원, 2006

6) 국립문화재 연구소, 『세시풍속』, 금강인쇄사, 2006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환절기이며, 꽃샘추위가 간헐적으로 찾아와 기후가 불안정하다. 2월에 찾아오는 계절풍을 관장하는 바람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풍신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의 풍신이 아니라 ‘2월의 풍신으로 한정된다. 2월은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로 풍년을 기약하는 농업신으로도 여겨진다.’

또 김재호는「영등신앙의 제의적 특징과 생태학적 해석」에서 영등신앙의 유형을 제주도형, 해안형(남해, 동해, 서해), 내륙형(영남, 호남)으로 나누고 영등의 전국적 분포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는 송석하의 남해안 지역에서 영등신을 ‘생산에 관련된 농사와 어업을 관장하는 늙은 신(農漁荒神)’으로 보는 견해와 이남식의 경북내륙지방을 현지 조사한 결과 생업과 관련한 곡령신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상의 두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중남부의 영등에 대한 신격을 대체로 농업신의 신격을 갖는 듯하다. 그러나 일 년 내내 작물의 성장과 수확을 주관하기보다 농업의 시작되는 시기에 알맞은 기후적 요건을 제공하여 한해의 풍년을 기약하는 신으로 봐야하겠다.

3. 제주의 영등신앙

우리나라 중남부 ‘영등할머니’의 제주적 호칭인 ‘영등할망’은 일반적으로 음력 2월 초하루에 나타나서 2월 보름에 제주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제주 풍속조에 보면, “2월 초하루 귀덕(歸德)(지금의 한림), 김녕(金寧)(지금의 구좌읍) 등지에서 목간(木竿) 12개를 세우고 신을 맞아 제사했다. 애월리(涯月里) 사람들은 떼배에 말머리 모양을 만들고 채색된 비단으로 꾸민 약마희(躍馬戲)⁷⁾를 함으로써 신을 즐겁게 한다. 이 행사는 15일에야 끝나는데, 이것을 연등(燃燈)이라 했다.”라고 하였다.⁸⁾

담수계의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는 또 다른 영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중국 상인이 바다에서 배가 부서져서 빠져죽거나 표류하였는데, 사지가 나누어져 머리뺄는 제주의 동쪽 어등개(於等浦)(구좌읍 행원리 포구)로 들어오고, 손발은 제주의 서남쪽 고내(高內)(애월읍 고내리)와 애월(涯月)(애월읍 애월리), 명월(明月)(한림읍 명월리)의 포구로 들어왔다. 그러므로 그곳 마을 사람들은 정월 28일부터 마을에서 쌀을 동냥하여 2월 초 5일까지 연등신(燃燈神)(영등신)에 제를 올린다. 매년 정월 그믐 때 바람이 서쪽 바다에서 불어오면 이를 다른 지방에서 연등신이 온 것이라 말한다. 무리들을 모아 무당은 들에서 제사를 지낸다. 떼배에 말머

7) 躍馬戲는 모의적인 농경의례로서 육지의 <세경놀이>에 상응하는 ‘海田耕作儀禮였을 것이며, 이 굿놀이는 <요왕맞이>를 하여 요왕길을 닮은 다음, <씨드림>의 한 변형으로써 떼배 말을 타고 바다의 연안 어장인 여(磯)에다가 씨를 뿌리고, 테우를 노 저어가면서 테우를 놀려 발을 밟는 행위를 연출한 <놀이굿>으로 생각한다.

- 문무병, 칠머리당 보존회『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황금알, 2005 p32

8) 위 같은 책, p24

리 모양을 만들고 채색된 비단으로 꾸민 악마희(躍馬戲)를 함으로써 신을 즐겁게 한다. 2월 상순에 이르면 또 배 모양을 만들어 돛대까지 갖추어 포구에 띄우는데 이는 신을 보내는 것(送神)이라 말한다. 이 시기에는 배를 바다에 띄우지 않는다.”

제주의 영등신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하다.

우선 내륙의 영등할머니가 딸과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오는 구조는 제주에서도 공통적으로 있다. ‘영등할망’이 올 때 딸을 데리고 오면 딸과는 사이가 좋아서 날씨가 좋다. 그러나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해에는 궂은 날씨가 계속된다고 한다.⁹⁾ 궂은 날씨라고 표현했지만 비 내리고 흐린 날씨를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중남부의 신화와 같다. 이는 육지부의 영등신화가 제주에도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경면판포리 어부 영등하르방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가 하루는 고기를 잡다가 큰 풍랑이 일어 표류하다가 ‘외눈박이섬’에 표착하였다. 외눈박이는 눈이 하나만 달린 괴상한 인간들로 사람을 잡아먹는 종족인데, 그는 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 후 한림읍수원리 사람들이 고기잡이 하다가 이 섬에 표착하자, 외눈박이들은 좋은 반찬거리가 왔다고 수원사람들을 묶어 가두고 영등하르방에게 지키게 하였다. 영등하르방은 同鄉人을 동정하여 묶인 것을 풀어주고 “나를 대신 꿩꿩 묶어 피가 흐르도록 때리고 도망가라.”고 살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도착할 때까지 개남보살(관음보살)을 외어야 한다고 하였다. 고향 땅에 거의 다 닿게 되자 그들은 긴장이 풀려 개남보살 염불하는 것을 그만 잊어버렸다. 그러자 다시 큰 풍랑이 일어 그들은 다시 외눈박이 섬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것을 본 영등하르방은 크게 꾸짖으며, 이번에 문턱에 들어설 때까지 “개남보살(관음보살)” 외우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고 돌려보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냐고 하니, 영등하르방은 “너희들을 돌려보낸 죄로 외눈박이 섬에서 죽게 될 것이나, 매년 2월 초하룻날에 그들의 마을에 들를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가 도착하였다는 증거로 조개의 한 종류인 보말을 까먹으면서 갈 것이라고 하고, 만일 보말 속이 비었다면 자신이 도착한 것인 줄 알고 제사를 지내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후로 매년 2월에는 보말 속이 비게 되었으며, 영등하르방은 초하루에 와서 보름날에 간다고 하였다.”¹⁰⁾

영등하르방의 후일담은 진성기가 채록한 이야기로 전해지는데 영등하르방은 좋은 찬거리를 놓아 줬다고 외눈박이손에 세도막으로 찢려 죽었다. 그래서 머리는 소섬(지금의 우도)에, 팔다리는 한림읍한수리에, 몸체는 성산리에 각각 떠올랐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불교의 색체가 농후하다. 외눈박이 섬에서 탈출할 때 영등하르방은 ‘개남보살’ 부르라고 하는데 개남보살은 관음보살을 이르는 말이다. 관음보살을 관세음보살이 중생구제를 위하여 변화한 모습인데 주로 바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해난시 풍랑을 진정

9) 위 같은 책, p29

10) 현용준, “제주도의 영등굿” 『한국민속학』1. 1969, p120-121

시키고 해괴(海怪)를 없애주고 바다위에서 표류하는 자를 구원한다고 일컬어진다.¹¹⁾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외눈박이를 해괴(海怪)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관음보살을 남신의 이미지인 용왕에 대비하여 고난에서 구해주는 여신의 이미지를 갖는다.¹²⁾ 이렇게 본다면 위 이야기의 ‘영등하르방’은 ‘영등할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다른 영등내력담은 영등신이 강남천자국에서 들어오는 이야기이다. 영등신은 영등하르방, 영등할망, 영등대왕, 영등호장, 영등우장, 영등별감, 영등좌수 해서 모두 일곱 신위이다. 영등신은 음력 2월 영등달이 들면, 강남천자국에서 산구경, 물구경하러 제주에 오는데 맨 먼저 한림읍 귀덕리 ‘복덕개’라는 포구로 들어온다. 그리하여 한라산에 올라가 오백장군에게 문안드리고, 어승생 단골머리로, 소렴당으로, 산방굴은 경유하여 교래리까지 돌면서 복숭아꽃, 동백꽃 구경을 하고 다니며 경작지에는 모든 곡식의 씨를 뿌려주고, 해변에는 우무, 전각, 편포, 소라, 전복, 미역 등을 많이 자라게 하는 해초의 씨를 뿌려준다. 영등신은 마을마다 씨를 뿌려두고 산구경, 물구경을 마친 후에 우도 ‘질진깍’을 마지막으로 강남으로 돌아간다.¹³⁾

위 이야기에서 영등신은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는 신으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강남천자국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으나 제주의 내력담에서 영등신 비롯하여 구좌읍 송당의 본풀이 중에는 강남천자국에서 온 백족도와 한라산에서 솟아난 소천국은 부부가 되었다는 이야기 등 강남천자국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복숭아꽃은 개화시기가 봄꽃들에 비해 빠르고 동백꽃은 눈 내리는 겨울에도 피어있는 꽃으로 봄꽃들이 꽃샘추위 이후에 개화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영등신이 꽃구경할 수 있는 꽃들은 이들 뿐이었을 것이다. 영등신이 강남으로 돌아간 후에 바다의 해초들이 자라고 시작하고 밭에는 농작물이 자라고 산에는 봄꽃들을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주인들은 영등신이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어서 겨울동안 힘들었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다림의 존재였을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육지의 영등신은 ‘천상에서 하강하는 천신으로서의 수직적 위격’이 부각되는 것에 비해 제주의 영등신은 ‘제주를 들고 나는 농업신의 수평적 위격’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제주에서 영등신화가 문화적 배경을 통해 문화 변용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9월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은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11) 서영대, “한국 해양 신앙과 설화의 정체성 연구”- 세계의 해양신령과 분류 시론,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9 p91

12) 위 논문, p92

13) 문무병, 칠머리당 보존회『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황금알, 2005 p27

이를 계기로 제주에서는 영등신앙에 관한 관심이 앞에 내력담에서 언급한 마을 중심으로 과거보다 늘어나는 듯하다. 이러한 관심은 과거의 무속인을 중심으로한 제의의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마을공동체 축제의 성격에 중심이 더 있는 듯하다. 인간관계가 개인화, 파편화되어 가는 현대인들에게 공동체의 축제는 구성원 서로간의 유대감을 회복시키고 안정감을 줄 것이다. 필자가 영등신앙에 무지하고서도 영등신앙을 엿보고 환기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세시풍속이었던 영등신앙은 제주에서는 보존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에서는 사라진 곳도 많다. 생명의 씨앗을 잉태한 바람신, 영등이 다시 축제의 형식을 부활하기를 바라본다. 더 나아가 영등신앙이 동아시아 해양문화로 부각되어 환황해권 해양문화의 교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 조성윤, 이상철, 하순애,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백산서당, 2003
 곡금량, 『바다가 어떻게 문화가 되는가』김태만, 안승용, 최낙민 역, 산지니, 2008
 유동식, 『풍류도와 한국의 종교사상』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김현선, 『설화 연구 방법의 통일성과 다양성』도서출판보고사, 2009
 최인학 외, 『비교연구를 통한 한국민속과 동아시아』민속원, 2004
 고유봉, 『제주도 해양수산사』도서출판 각, 2011
 하순애, “바람, 바람신, 바람신(영등)신앙-제주도 민간신앙을 중심으로”, 제주학회,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9권 1호, 2009 pp.77-94
 김치완, “한국학 전통에서 본 제주바람 -“바람과 흐름에 대한 철학적 접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43권0호 (2013), pp.101-133

<본문에서 인용한 각주의 참고 문헌은 제외하였음>

개화기 인천의 일본 공연예술 고찰

신 근 영 ■ 고려대학교

1. 서론 - 근대 인천의 공연 연구

1883년 인천개항 이후 일본-한국-중국을 잇는 공식적인 항로가 개통되었는데, 이전 고베-나가사키-상하이로 연결하던 항로는 1886년 일본우선주식회사(日本郵船株式會社)에 의해 고베-부산-인천-엔타이(煙臺)-텐진(天津)을 기항하는 항로로 변경되었다. 몇 년 후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상하이 항로가 개설되면서 원산, 부산, 나가사키, 엔타이도 기항하는 등 러시아 기선도 중국과 조선의 항로에 참여하게 되었다.

근대가 만들어낸 항구도시의 부두에는 상점, 호텔, 은행 등의 건물이 들어섰고, 건물 형태도 빠르게 변화했다. 도시 구조와 규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인종이나 지역의 기능에 따라 지리적 구분이 일어나는 등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다양한 생산물이 산지에서 모이고 교역지로 운반하기 위한 바다 네트워크가 도서지역 간에 발달하는 양상과 상품을 운반해온 상인들의 임금이나 보수, 교환품으로서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되면서 근대 도시문화의 저변이 뚜렷뚜렷하게 자리잡아가는 과정이 발견된다. 특히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콘텐츠 유입과 그 수용양상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과제이다.

일본 연희단은 처음엔 부산, 인천, 원산, 상하이, 칭다오 등 개항장 항구도시에서 마련된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활동했다가 곧 내륙을 향해 순회공연을 시작했다. 연희단의 주요 관객은 일본인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현지 관객의 흥미를 끌며 공연 범위를 넓혀갔다. 해양루트를 통해 들어온 일본 연희문화가 철도를 타고 내륙 깊숙이 파고들어 전 지역에 확산

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근대 공연예술의 흥행과 확산 과정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과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당시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일본 연희단의 흥행을 통해 공연문화의 변천과 변모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근대 인천의 공연예술 수용양상에 대한 연구가 최근 인천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개항의 과정과 공연예술 수용의 배경을 다루거나,¹⁾ 인천을 중심으로 근대공연예술의 성립 과정을 면밀하게 논의하였다.²⁾ 더불어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인천의 근대연극사가 확고히 자리를 잡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³⁾ 근대 공연예술의 유입 통로로서 인천을 조망하고 그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개항을 했던 부산이나 원산, 군산에 대한 연구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연구성과에 힘입어 본고에서는 인천에서 유행한 일본 공연물들과 그 연희단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간의 연구성과에서 상세히 다루지 못했던 공연물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특히 근대 일본의 공연예술계에서 작지 않은 역할을 차지했던 요세(寄席)와 곡마단에 주목해 보았다. 요세와 곡마단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일본을 비롯 피식민국가였던 조선과 대만, 만주 등에서 크게 유행했던 공연물들이다. 아쉽게도 이 두가지 공연물은 매우 제한적인 자료와 정서적 무관심 때문에 우리 연희사에서 그다지 다루지 않았던 영역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공연물들의 공연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전통연희와 맥을 같이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일본이 가져온 ‘새로운 공연물’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아주 동떨어진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개화기 조선 관객들이 일본의 공연물에 큰 관심을 쏟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것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2. 요세(寄席)와 극장

인천의 개항과 함께 물밀듯이 들어온 것은 일본식 ‘근대’였다. 인천에 이주하기 시작한 일본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교육, 금융, 교통, 언론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하고, 연극 역시 근대적인 문물의 하나로서 유입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제도와 문물은 모두 일본인들을 위한 문화기제일 뿐이었다. ‘근대’, 그리고 ‘서구’의 탈을 쓰고 들어온 각종 문화들은 빠르게 조선의 전통적인 것과 경쟁하면서 근대적 기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일본인 거류지에는 그들을 위한 ‘극장’이란 것이 설립되었다.

첫 개항지인 인천과 부산 등은 거류민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여러 극장들이 생겨났다. 개항 초기 인천내 일본인 거류민들은 수도 서울보다 훨씬 많이 살고 있었고,⁴⁾ 이들을 위해 많은 시설들이 세워졌던 것이다. 특히 극장과 같은 문화시설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설립되었

1) 김양수, 「개항장과 공연예술」, 『인천학연구』창간호,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소, 2002.

2) 김호연, 「한국 근대공연예술 성립의 한 양상-인천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소, 2004.9.

3) 이희환, 「인천 근대연극사(1883-1990)」, 『인천학연구』5,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소, 2006.

4) 1883년 75호 348명에서 1905년 2853호 12711명으로 증가.

다.

기록을 보면 인천에 소위 극장이 설립된 것은 1897년 이전으로 보인다. 메이지 30년(1897) 이전에 부청 서쪽에 일본인 거류민을 위하여 100석 규모의 하나미치(火道)를 갖춘 극장이 이미 개설되었다고 한다.⁵⁾ 이후 이 극장은 1897년에 다른 곳으로 옮겨 극장 양식으로 신축하여 ‘인천좌(仁川座)’라고 불렀다. 따라서 일본인 거류민을 위한 공연물들은 1897년 훨씬 이전부터 이뤄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897년에 개설된 인천좌에서 연행된 공연물들의 내용이 무척 흥미롭다. 새로 세워진 인천좌에서는 ‘일본인들의 오락장으로서 만자이, 고오당, 우다 등을 상연하였다’는 회고가 눈길을 끈다. 자국민을 위안할 목적으로 연행된 이 공연물들은 일본의 요세에 해당하는 만자이(漫才), 고단(講談), 우타(歌曲) 등이다. 일본인 거류민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 극장인만큼 많은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본 거류민들을 위한 유흥 공연이 이루어진 것이다. 개항 초기에는 이런 요세 공연들이 주류를 이루다가 1910년 강제합병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일본식 전통연극 가부키(歌舞伎) 및 여기에서 파생된 신파극이 공연되었다.

개항 초기 조선에 와있던 일본인 거류민들은 대개 하층계급들이 많았고 상업에 종사하는 영세한 업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에 수준있는 연극, 즉 가부키나 노(能)와 같은 전통연극은 아직 발을 들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⁶⁾ 가부키와 노가 연행되기 시작한 것은 통감부 설치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인의 이주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그전까지는 사루시바이(猿芝居)와 같은 간단한 연희, 그리고 요세(寄席) 정도의 공연물들이 거류민의 유흥거리였던 셈이다. 사루시바이는 유랑기예의 일종인데, 원숭이에 옷을 입히거나 훈련을 시켜 가부키의 한 장면을 흉내내거나 개(犬)와 싸우는 흉내를 내게하는 연희이다.⁷⁾ 당시 조선관객들에게 이같은 동물재주는 신기한 구경거리였음에 틀림없다. 일본의 공연문화가 호기심의 대상이자 향유의 대상이 된 것이다.⁸⁾

을사조약과 통감부 설치 등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시작되면서 공연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큰 규모를 자랑하는 수준있는 공연물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러일전쟁 후 조선의 패권을 확보한 일본은 ‘오락기관의 불비한 것을 개탄’하면서 극장의 창설을 서둘렀다. 1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진 명실상부한 근대극장으로서 가부키좌가 인천에도 설립되었다. 가부키좌와 함께 일본인 거류지의 중심지역에는 죽원관(竹園館)과 표관(瓢館)과 같은 근대적 공연시설을 갖춘 극장들이 생겨났다. 이곳에서는 각종 유흥

5) 『仁川府史』, 仁川府廳, 1933. 그런데 김호연은 이 극장에 대한 더이상의 기록이 전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6) 거류민 중에는 ‘청년 무뢰한의 도항자’도 많았고, ‘거류지 안에서 여러 가지 위험하고 과격한 연행을 일삼아 어리석은 양민을 선동하고 거류지 밖으로 나아가서 조선의 지방 관민을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박찬승, 『서울의 일본인 거류지 형성 과정-1880년대~1903년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2, 한국사회학회, 2002)

7) 다이도계(大道藝)라고 하는 유랑기예는 에도시대에 이르러 크게 성행했다. 원래 원숭이재주부리는 말의 건강과 주인인 무사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비는 기도였다. 이것이 에도시대 중기 이후에는 초닌(町人, 에도의 시민)들의 즐거움 중 하나로 ‘예능’이 된 셈이다. 동물을 훈련시켜 재주를 부리게 하는 기예는 근대식 곡마단과 맞물려 더욱 유행하게 되었다.

8) 신근영, 「신문기사로 살펴본 개화기 조선의 공연예술양상」, 『남도민속연구』 24, 남도민속학회, 2012.8. .

공연은 물론 활동사진(영화), 신구연극 등을 제공했을 것이다. 이중 죽원관은 1915년 당시 유일한 요세극장으로서 소개되어 있다.

명치41년(1908) 2월에 건축한 것으로서 시내 가장 번영한 미야마치(宮町) 거리에 있는 2층 건물
의 大家. 1층을 관상장(觀商場)으로 했는데, 지금은 오직 2층을 요세(寄席)로 쓸 뿐이다. 현재의
경영자는 미야다 세이지로(宮田政次郎)로서 정원은 300명이다. 가와노 다케노스케(河野竹之
助) 소유.⁹⁾

가부키좌를 비롯해 일본인 극장들은 1900년대 전성기를 맞이한 신파극을 주요 레퍼토리
로 삼아 공연했다. 공연일수의 2/3을 신파극에 할애할 정도였다. 인천의 가부키좌와 표관에
서도 일본에서 들어온 유랑 신파극단들이 공연했음은 당연하다. 특히 인천의 가부키좌에서
는 신구연극은 물론 ‘기술’ ‘마술’ 과 같은 곡예단도 흥행을 했었고, 활동사진(영화)도 상영
했다고 한다.¹⁰⁾ 가부키좌에서 연행된 기술과 마술은 현재 일본 요세 예능의 일종으로 분류
되어 연예장(演芸ホール) 등에서 공연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요세는 라쿠고(落語) 류의 예능, 즉 고단(講談)과 로쿄쿠(浪曲) 외에 음악,
흥내내기, 다이가구라, 교쿠고마(팽이돌리기), 데지나(手品, 마술), 종이오리기(紙切) 등의
기예를 이로모노(色物)이라 부르며 구별하고 있다.

개항장 인천의 요세극장에서 연행되었던 공연물들은 미세모노(見世物)에서 유래한 기예
들이 대부분이다. 영세해져가는 미세모노들 중에서 극장식 무대공연에 어울릴만한 공연물
만이 요세의 형식을 빌려 살아남은 셈이다.

3. 곡마단의 등장

요세극장과 가부키좌가 인천내 일본인 거류민의 여흥이 되어 주던 그때 너무도 새로운
형태의 공연물이 인천에 등장했다. 1904년 연말 마츠무라 타로(松村太郎)가 이끄는 마츠무
라좌라는 곡마단이 인천과 부산을 돌고 돌아왔다는 기사가 일본 「고베우신일보(神戸又新
日報)」에 실린 것이다.

一月一日より一週間、神戸旧湊川にて、松村太郎一座の大曲馬。(「神戸又新日報」明治37
年12・30)

「此一座は永く釜山、仁川、芝罘、香港等を巡業して、到る処各国駐屯将校より賞賛せられ
たるが、来春元旦より向ふ一週間、旧湊川にて興行すと」

1월 1일부터 일주일간 고베 옛 주천에서 마츠무라 타로 일좌의 대곡마 (1904.12.30)

9) 『仁川郷土史料調査事項』, 仁川公立普通學校, 1915. 『인천향토자료조사사항』상권(인천학연구원, 2007)에도 실림.

10) 고일, 『仁川昔今』, 주간인천사, 1955.

이 일좌는 오랫동안 부산, 인천, 연태, 홍콩 등을 순업하고 가는 곳마다 주둔장교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오는 설날부터 앞으로 일주일간 옛 주천에서 흥행한다고. (번역-필자)

이 기사에 소개된 마츠무라좌는 자칭 곡마단이며, 일본 국내 흥행은 물론 외국(조선, 중국) 흥행을 성황리에 마치고 온 단체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 주둔중인 일본군대를 방문하여 곡마를 공연, 군인들을 위무하였고, 주둔장교로부터 격찬을 받았음을 드러내며 본인들의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

마츠무라좌가 일본군 위문공연을 다닌 것은 바로 러일전쟁이 한창인 1904년 무렵이다. 일본은 이미 1880년대에 서양의 곡마단을 수용하고 여기에 전통곡예를 더한 일본식 곡마단을 성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근대적 서구 연극의 돌풍에 위축되고 여기에 자국 시장만으로는 한계를 느낀 연희단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과 궤를 같이 하며 주변국으로 공연흥행을 시작했다. 앞장에서 살핀 요세 극장에 등장하는 연희자들(고단, 만자이)을 필두로 20세기 들어 곡마단 역시 주변국 순업에 동참한 것이다.

마츠무라좌의 인천 흥행이 1904년 혹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한국 곡마단의 역사에 중요한 획을 긋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조선의 곡마단은 1910년 러시아의 바로프스키 곡마단을 그 기원으로 보고 있다.¹¹⁾ 그런데 이보다 6년 이상 앞선 시기에 ‘곡마’를 내건 공연집단이 조선의 여러 곳을 방문하여 곡마 공연을 시행했다는 사실은 곡마단 연구사를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곡마단과 성격이 유사한 집단, 즉 곡예단이나 잡기단, 마술단 등이 조선에 유입되어 공연을 펼쳤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오늘날의 서커스에 가까운 ‘곡마단’이 등장한 것은 일제의 강제합병 이후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¹²⁾

그렇다면 마츠무라좌는 어떤 ‘곡마’를 행했는가. 마츠무라좌가 인천에서 연행한 공연내용은 어떠했을까. 이에 대한 정답은 아니겠지만, 마츠무라좌가 어떤 공연집단이었는지, 일본 내 활동양상은 어땠는지 유추할 수 있는 기사들이 있어 소개해 본다.

마츠무라좌의 단장 마츠무라 타로는 전직 군인이었고, 영국에도 파견된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귀국하면서 형제들(혹은 친인척) 구마지로, 고메지로 등과 함께 곡마단을 설립하고 순회 공연을 실시했다. 그의 곡마단은 여러 마리의 말이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최대 11마리까지 공연하기도 했다. 말 외에도 낙타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곡예단 내 악사

11) 曲馬開演

再昨日下午 四時에 萬千閣에서 二見菊太郎 小林秀專 兩氏가 露國馬術家 바로-후슈기氏를 聘請하야 曲馬開演을 行하고 披露宴을 開하였는디 盛大한 景況을 呈하였더라. (『매일신보』, 1910.10.02.)

曲馬技術의 奇妙

俄國人 바로후스기氏는 曲馬技術에 頗히 絶等한 者인디 每夜에 技藝를 換行하는 故로 觀覽人이 非常히 増加하야 盛況을 呈한다더라. (『매일신보』, 1910.10.20.)

12) 신근영, 『일제 강점기 곡마단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들도 보유한 대규모 공연집단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³⁾

참 고 문 헌

- 『인천시사』, 인천시, 1993.
 『인천향토자료조사사항』, 인천학연구원, 2007.
 고일, 「仁川昔今」, 『주간인천』창간1주년 기념출판, 주간인천사, 1955.
 김양수, 「개항장과 공연예술」, 『인천학연구』창간호,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소, 2002.
 김호연, 「한국 근대공연예술 성립의 한 양상-인천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소, 2004.9.
 박준형, 「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 ‘居留民團法’의 제정」, 『법사학연구』50, 한국법사학회, 2014.10.
 박찬승, 「서울의 일본인 거류지 형성 과정-1880년대~1903년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2, 한국사회사학회, 2002.
 신근영, 「신문기사로 살펴본 개화기 조선의 공연예술양상」, 『남도민속연구』24, 남도민속학회, 2012.6.
 신근영, 「일제 강점 초기 곡마단의 연행 양상」, 『남도민속연구』27, 남도민속학회, 2013.12.
 이마이 이노스케 외 편, 이동철 외 옮김, 『인천향토자료조사사항』상·하, 인천학연구원, 2008.
 이희환, 「인천 근대연극사(1883-1990)」, 『인천학연구』5,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소, 2006.

13) 1900년(명치33)

五月一日より、岩手県盛岡市の公園地にて、松村太郎一座の曲馬。(「巖手毎日新聞」5・1)

「予記の如く松村太郎一座の西洋曲馬は、愈々本日より公園地に於て興行する由にて、昨日、花々敷町廻りをなしたり」

1903년(명치36)

一月一日より、東京麹町区平河町平河天神境内にて、松村太郎一座の大曲馬。

(読売新聞・明治35年12・31/都新聞・明治35年12・31)

「明一日より麹町区平河町平河天神境内に松村社中新技芸の曲馬を興行し、従来の二頭三頭五頭乗りの外に新に面白き技芸を加へ昼夜二回興行する由」(読売)

「明元旦より麹町区平河町平河天神境内に於て日本人の大曲馬を興行する由にて、太夫は元近衛騎兵曹長たりし松村太郎にして、同人は斯道研究の爲め英国に赴き居たるが、今回帰朝したるを以て松村庄蔵、同熊次郎、同米次郎外数名と共に手見せをする由にて、本日は駱駝車の囃子に芸馬十一頭、会員五十余人にて市中を廻ると云ふ」(都)

개항장 원산에 설립된 지역 극장과 운영에 관한 연구

—일제 강점기 원산 도시 구조와 극장 원산관을 중심으로

김 남 석 ■ 부경대학교

원산의 극장 분포와 원산관의 운영 방안

원산은 개항장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일본에 의해 개발된 도시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 ‘원산진’ 아닌 곳(훗날 북촌)에 원산의 일본인 거주지를 마련했고, 일본은 이러한 거주지를 바탕으로 원산의 향후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본래부터 원산에 머물던 조선인들은 기존의 구역(훗날 남촌)에 살고 있었지만, 개항장에 유입된 일본인들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그들의 구역을 형성했다. 일제가 조선을 점령한 이후에는 더욱 강력하게 이러한 일본인 이주 정책을 폈기 때문에, 북촌과 남촌의 도시 형세는 크게 달라졌다.

원산의 극장들은 이러한 남북의 차이를 반영하여 설립되었다. 원산의 북촌을 대표하는 극장은 유락관과 수좌였다. 하지만 수좌는 설립부터 곤란을 겪어야 했고, 결국에는 화재로 전소되어 그 수명이 길지 못했다. 반면 일본인 극장으로 운영된 유락관은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존속하면서, 일본인들의 취향과 관심을 배려한 연극 공연 혹은 각종 대회장으로 활용되었다.

원산의 북촌에는 공회당(주로 일본인을 위한)도 마련되어 있어, 여차하면 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상업 공간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필요 공간으로 대여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물들은 조선인들에게는 불편하고 또 제한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조선인들이 일본인의 극장을 방문하곤 활용하려고 해도, 취향이 다른 극장을 편안하게 활용하기는 쉽지 않았다. 공회당의 사용에도 적지 않은 제약을 받곤 했다. 따라서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관심과 취향 그리고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극장이 필요했다.

이렇게 기획될 극장은 마침 이전한 시장 터에 세워질 수 있었고, 만일 극장이 건립된다면 공연 관람이나 회의 공간 확보라는 직접적이 이익 외에도 유동 인구의 증가나 상권과의 시너지 효과 같은 부수적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었다. 물론 조선인 거주 지역의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이익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조선인 상인들은 주식회사 형태의 원산관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건립하였고, 그 결과 원산관은 유락관에 대응하는 조선인 극장으로 신속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다.

사실 유락관과 원산관의 건립 시차는 최대 2년을 넘지 않는다. 그만큼 동시간대에 두 극장이 세워졌다고 할 수 있다. 유락관은 북촌에 있다가 사라진 가무기좌의 전통을 상당 부분 수용했고, 수좌와는 원칙적으로 통합을 심각하게 논의하는 관계였다. 반면 원산관 역시 상리에 위치했던 동락좌(同樂座)의 소임을 이어받은 극장이었다.

동락좌는 지금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극장이었지만, 이 연구를 통해 원산관의 전신, 그러니까 원산관을 잉태한 극장이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동락좌는 소규모 극장이었고, 극장 외에 다른 용도로도 활용된 다목적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복합 건물이었다. 또한 이러한 동락좌가 조선인 집중 지역에서 위안과 관람 그리고 문화와 예술의 향유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동락좌에서는 조선인을 위한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이 상연되었고, 내부(원산) 소인극 극단에서부터 외부 방문 순회 극단까지 성사되며 그 존재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다. 적어도 1927년까지 동락좌는 그 이후의 원산관이 수행해야 할 몫과 역할을 선취하고 있었다고 해야 한다. 그 결과 동락좌는 조선인들로부터 적지 않은 친밀감을 부여받은 공간이 될 수 있었는데, 그 후 원산관은 이러한 동락좌의 임무를 이어 받은 흔적이 농후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생성된 유락관은 일본인 극장이었고, 결국 원산관은 조선인을 위한 극장으로 운 영되었다. 두 극장은 위치도 달랐고, 목표도 상이했고, 무엇보다 경영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유락관이 일본인을 위한 공연에 치중했다면, 원산관은 조선인을 위한 공연에 열심이었다. 실제로 원산관을 경영하거나 그 무대 위에 공연을 올린 인사들은 상당수 조선인이었는데, 이러한 분류와 가름은 일제 강점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지역 도시의 상황과 그 해당 지역의 극장 풍경과 유사하다.

일례로 마산을 예로 들어보자. 마산 역시 남북 구획으로 분리된 일종의 개항장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조선인 거주지 구마산이 북쪽에, 투입한 일본인 거주지 신마산이 남쪽에 있어, 원산과는 남북 분포가 반대였다는 점이다. 물론 마산에서 구마산을 담당하고 조선인을 위한 공연을 주로 담당할 수좌는 조선인 자본으로 설립된 극장은 아니었다. 하지만 조선인 구역에서의 수좌는 사주의 인종 문제와 관련 없이 조선인을 위한 극장, 조선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극장으로 경영되었다. 그것은 남쪽의 환서좌나 도좌(마산좌)와의 차이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원산관 역시 그러했다. 원산관 역시 유락관의 규모나 목표 그리고 운영 방식에서 구마산의 수좌와 마찬가지로 조선인을 위한 극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차이는 불행하게도 지역을 넘어, 조선 전체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지역 구도의 불균형한 양태였다고 해야 한다.

원산관은 조선인 극장으로서 그 출범부터 해산까지의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된 경우이다. 원산의 극장들 가운데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소상하게 그 실체가 드러난 경우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원산관이 지닌 함의는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 그것은 앞에서 논구한 대로, 원산관의 운영 방안을 살피기 위해서는 주변 극장과 관련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락관과 그 이전 극장인 가무기좌의 내력, 그리고 조선인 거주 지역에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동락좌와의 관계, 내지는 뒤늦게 설립되었지만 원산 극장업의 판도를 알려주는 수좌와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교 연구를 위해 원산시의 도시 구조와 개항장의 역사를 참조하여, 이러한 극장들이 분포하고 건립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후대의 연구는 더욱 정심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이들 극장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원산관과 원산의 극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산관의 특징과 운영자 그리고 운영 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원산관이 지니는 극장으로서의 장점과 동시에 한계를 살피고, 이러한 운영을 이끌어 온 운영자의 면모와 특색에 대해 살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이 역시 본고에서 지금까지의 자료를 통해 수행하고자 했다. 노기만과 전용운은 사주와 흥행주의 관계를 최초로 맺은 경영자들이었고, 이후 김창준이 전속극단을 유지 조율하면서 원산관은 자체 공연 프로그램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김창준에 의해 운영되던 전속극단이 항상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전속극단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의 유산이 지역과 중앙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원산관은 이러한 중추 역할을 한 극장이었다. 태생적으로 일본인 극장이 될 수 없었고, 지역적으로 남촌 원산진에 소속될 수밖에 없었지만, 지역적/문화적/사회적 구조를 활용하여 극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간 덕분에, 전국의 저명 극단이 직접 찾는 원산의 대표적인 극장으로 발돋움했으며, 원산부 일본인 극장의 위세 속에서도 굳건하게 그 명맥을 유지하는 문화의 장으로 남을 수 있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본인 극장으로 도외시하고 폄하했던 당대의 극장

분포와 그 특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잊혀진 조선의 문화와 예술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원산관은 분명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극장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유락관이나 수좌 그리고 동락좌 등이 모두 불필요하거나 망각해야 할 대상은 될 수 없다. 어쩌면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원산의 극장으로 함께 논구되고 서로 비교되며 상호 영향 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때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향후 연구는 각 극장의 특색과 장점을 보다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때에도 이 연구는 원산의 극장들이 상호 영향 관계를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조선인 극장이 선택해야 했던 생존의 길을 측정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해역의 구분과 문화권역의 전개

홍 순 일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¹⁾

1. 머리말

한반도 도서·연안지역에서 해역과 지역을 구분하되, 이것이 문화권역적으로 전개되는 측면을 살필 필요가 있다(홍순일 2009.12:297-299). 문화권은 인간이 공간과 관계를 맺은 것이므로(나경수 2010:미게재), 인간(사회)이 생명문화, 적응문화, 다양문화, 의식문화 등의 삶(시간, 역사)을 영위하면서 생태·자연·개방·의식 등의 무대(공간, 지리)와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하겠다.¹⁾

문화권역을 설정하는 전제로서 구역(區域)은 섬의 시각에 따라 해역(海域)을 보는 경우, 서남해권, 서해권, 남해 및 제주권, 동해권 등의 4구분은 서남해역, 제주해역, 동남해역, 서해해역, 동해해역 등의 5구분이 사안에 따라 재구성된다.

현단계 해역(지역)은 강, 해산물, 해류 등을 가지고 구분하고 있다. 강의 경우 금강 하구는 서남해권과 서해권의 경계일 수 있고, 섬진강 하구는 서남해권과 동남해권의 경계일 수 있

1) *이 논문은 홍순일, 「민요공동체의 문화권역적 전개와 지역문화적 특성-산다이를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제19집, 남도민속학회, 2009.12, 281~325쪽인 2장 민요공동체의 문화권역적 전개(1절 권역의 구분과 지역문화, 2절 문화권역에 따른 민요공동체의 전개), 3장 민요공동체의 지역문화적 특성(1절 지역의 구분과 문화권역)을 부분 전재·요약하여 인용·재구성된 것임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으며, 형산강은 동남해권과 동해권의 경계일 수 있다(홍순일 조사.최영호 제보 2009.10.23. (금) 12:00). 그러나 필자는 “문화권역을 설정하는 것이 환경이나 대상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특질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방언권이나 민요권, 놀이권, 명절권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문화권역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시도는 있었으나 미흡하므로, 이것이 논의되어야 하겠다.

2. 한반도 해역의 구분과 두 가지 시각

여기서는 민요공동체, 특히 산다이를 중심으로 문화권역적 전개와 지역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민요공동체의 문화권역적 전개를, 권역을 구분해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시선의 방향에 따라 두 가지로 양분하고자 한다.

1) 반도의 시각에서 보는 경우

하나는 반도의 시각으로서 산.들[평야].강.연안.도서[섬].해양의 측면에서 보는 경우이고, 지역(地域)의 구분은 연구대상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²⁾

4구분의 경우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해외권 등이다.

6구분의 경우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해외권 등이다. 4구분의 중부권이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7구분의 경우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제주권, 경상권, 해외권 등이다. 6구분의 호남권이 전라권과 제주권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11구분의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 강원권[강원도], 충청권[충남, 충북], 전라권[전남, 전북], 제주권[제주도], 경상권[경남, 경북], 해외권[해외]이다. 수도권의 서울, 경기, 강원권의 강원도, 충청권의 충남, 충북, 전라권의 전남, 전북, 제주권의 제주도, 경상권의 경남, 경북, 해외권의 해외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2) 현단계 해역(지역)은 강, 해산물, 해류 등을 가지고 구분하고 있다. 강의 경우 금강 하구는 서남해권과 서해권의 경계일 수 있고, 섬진강 하구는 서남해권과 동남해권의 경계일 수 있으며, 형산강은 동남해권과 동해권의 경계일 수 있다. (홍순일 조사.최영호(남, 미상, 동아대 석당학술원) 제보, <권역구분의 기준>, 전남 목포시 신안비치호텔, 2009.10.23(금)12:00) 그러나 필자는 “문화권역을 설정하는 것이 환경이나 대상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특질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방언권이나 민요권, 놀이권, 명절권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문화권역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시도는 있었으나 미흡하므로, 추후에도 계속 논의되어야 하겠다. (홍순일, 「도서.연안지역 민요공동체의 성격과 민요의 연행양상」, 『한국민요학』제22집, 2008.04, 377-409쪽; 홍순일, 「민요공동체의 지역문화적 특성과 문화권역적 전개-산다이의 개별성과 일반성을 중심으로-」, 심포지엄 「공동체 지역문화와 문화권역-민요와 문화권역」, 역사문화학회, 충북 제천시 세명대학교 민송도서관 시청각실, 2009.08.21(금)15:30, 63-84쪽 중 66-68쪽; 목포대학교, 2009년도 인문학국지원 사업 인문분야 신청서 「섬의 인문학-문명사적 공간인식 패러다임의 전환-」(1), 목포대 도서관연구소, 2009.07)

17구분의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인천)], 강원권[강원도], 충청권[충남(대전), 충북], 전라권[전남(광주), 전북], 제주권[제주도], 경상권[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 해외권[해외] 등이다.³⁾이것은 7구분에서 11구분하고 11구분에서 17구분한 것이다. 수도권의 서울, 경기(인천)는 서울, 인천, 경기로, 강원권의 강원도는 강원도로, 충청권의 충남(대전), 충북은 대전, 충남, 충북으로, 전라권의 전남(광주), 전북은 광주, 전남, 전북으로, 제주권의 제주도는 제주도로, 경상권의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으로, 해외권의 해외는 국제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7구분은 4구분에서 6구분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11구분과 17구분되게 했다.

2) 섬의 시각에서 보는 경우

다른 하나는 섬의 시각으로서 해양.도서[섬].연안.강.들[평야].산의 측면에서 보는 경우이고, 해역(海域)의 구분은 연구대상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한국의 해양문화』⁴⁾에서 5구분한 경우이다. 여기에서 조사 대상 지역은 한국(남한)의 연안.도서지역이며,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5개 해역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했다. 서남해역, 제주해역, 동남해역, 서해해역, 동해해역 등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 4구분의 경우이다. 이것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서남해권, 서해권, 남해 및 제주권, 동해권 등이다.⁵⁾ 위의 『한국의 해양문화』 5구분의 제주 해역과 동남 해역이 남해.제주권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4구분은 5구분에서 사안에 따라 재구성된 것이다.

3) 이것은 2008년도 한국학기획연구사업 연구계획서의 경우인데, ‘중부권’은 서울.경기(인천 포함), 강원도, 충남(대전 포함).충북이고, ‘호남권’은 전남(광주 포함).전북, 제주도이며, ‘영남권’은 경남(부산.울산 포함), 경북(대구 포함) 등이다. (『2008년도 한국학기획연구사업 한국학자료센터 구축사업 신청요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획연구사업단, 2008.06)

4) 나승만 총괄책임연구원/강봉룡.강영봉.강상택.주강현.강등학 권역책임연구원/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주관기관, 『한국의 해양문화』(1-5), 해양수산부, 2002. 여기에서 제시한 조사지역은 서남해역(전남, 전북지역), 제주해역(제주도 해역), 동남해역(경남, 경북, 부산, 울산 해역), 서해해역(경기, 서울, 인천, 충청 해역), 동해해역(강원 해역)이다.

5)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신청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5.10.

3. 민요공동체의 문화권역적 전개

여기서는 제2장과 같이 민요공동체, 특히 산다이를 중심으로 문화권역적 전개와 지역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권역의 구분에 따라 문화권역적 전개를 민요공동체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민속은 민중의 전통문화이다. 민속학은 마을 단위의 삶의 현장에서 민간적인 성격의 신앙, 의례, 놀이, 노동과 그것의 변화를 중요하게 다루는 현재의 전승과학이다. 그런데 이 민속을 담당하는 주체는 민중이기도 하고, 이들이 속한 마을공동체이기도 하다. 이 민속공동체는 민중이 마을의 민속문화생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동체들이다. 노동공동체, 의례공동체, 연회공동체, 경제공동체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민속과 민속학(비교학, 미학, 운동 포함)을 자체.연구.방법론에 따라 사례 중심으로 다룰 수 있듯이, 공동체, 특히 민속공동체도 그 자체를 방법론에 입각하여 연구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마을사람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공동의 유대나 집합정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민속공동체연구(Studies in folk communities)는 한국의 민중사회를 이루는 공동체들, 특히 민속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동체연구방법론에 의해 문화의 양상과 의미 그리고 기능을 분석.종합할 수 있는 작업이다. 이 연구과정에서 민속공동체를 통해 한국인, 민족, 민중의 생각을 확인하고, 위의 행위주체자들이 창조한 민속공동체를 통해 한국문화, 예술, 문학, 희곡의 세계를 이해하며, ‘현장의 현재적 상황에서 민속공동체현상의 본질을 탐구하여 그 자체, 학, 비교학, 미학, 운동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민요공동체에 대한 접근도 이러한 정보의 방향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민요공동체는 권역별로 전개되고 있다. 서남해권의 경우 목포, 완도, 진도, 증도.임자도.지도.하의도 등에서, 서해권의 경우 법성포, 위도, 선유도.무녀도.장자도, 안면도(황도), 영흥도(선재도), 연평도에서, 남해 및 제주권에서 광양(진월), 추자도, 거문도, 남해도(창선도, 삼동면), 동해권에서 기장 등에서 민요공동체가 나타나고 있다. 문헌.현지조사 자료의 의하면 민요공동체(산다이)는 문화권역의 신앙, 의례, 놀이, 노동에서 장례 후 잘 노는가 아예 놀지 않는가의 정도에 따라 전개된다.

1) 장례 후 아예 놀지 않는 경우

장례 후 아예 놀지 않는 경우⁶⁾는 의례지향의 민요공동체의 전형이다. 민요공동체(산다이)는 ‘민요’, ‘마을’과 총화되어, 놀이를 중시할 때 노래판이 되는 것과는 달리, 의례를 중시할

6) 홍순일, 앞의 논문, 2008.04, 377-409쪽 중 387쪽.

때 교육의 장이 된다. 행위주체자가 구비전승물(민요, 판소리, 설화·고소설) 외에 마을[민속공동체]에서 민간적인 신앙·의례·놀이·노동 중 놀이의 도구[매체]를 가지고 놀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동과정에서 실천의 장이 확대되는 결절점이 된다. 이 점은 전남 신안군 증도,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장포마을, 같은 군 삼동면 물건리 등의 현지조사 자료를 보면 분명해진다.

2) 장례 후 잘 노는 경우

장례 후 잘 노는 경우⁷⁾는 놀이지향의 민요공동체의 전형이다. 민요공동체(산다이)는 ‘민요’, ‘마을’과 총화되어, 의례를 중시할 때 교육의 장이 되는 것과는 달리, 놀이를 중시할 때 노래판이 된다. 행위주체자가 구비전승물(민요, 판소리, 설화·고소설) 외에 마을[민속공동체]에서 민간적인 신앙·의례·놀이·노동 중 의례의 도구[매체]를 가지고 놀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동과정에서 실천의 장이 확대되는 결절점이 된다. 이 점은 여기서는 전남 신안군 지도, 완도군 보길도 등의 현지조사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4. 다른 해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문화의 과제

여기서는 필자가 제2장 두 가지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해역에 관심을 논의하겠다. 민요공동체, 특히 산다이를 중심으로 문화권역적 전개와 지역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요공동체의 지역문화적 특성을 지역의 구분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섬의 시각으로서 해양·도서[섬]·연안·강·들[평야]·산의 측면에서 볼 때, 해역(海域)의 구분은 일차적으로 4구분(서남해권, 서해권, 남해 및 제주권, 동해권)을 하되, 5구분(서남해역, 제주해역, 동남해역, 서해해역, 동해해역)에서 사안에 따라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지역문화의 장기지속과 단기변화에 따라 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해역간의 경계에 관한 것이다. 물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한국의 해양문화』에서 5구분하고,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신청서에서 4구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역간의 경계 문제는 아직도 과제⁸⁾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른 지면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7) 홍순일, 앞의 논문, 2008.04, 377-409쪽 중 391-395쪽.

8) 필자는 “여기서 지역별은 서남해권, 서해권, 남해 및 제주권, 동해권 등 권역별로, 주제별은 신앙, 의례, 놀이, 노동 등 갈래별로 이해하기로 한다.”고 했다. (홍순일, 앞의 논문, 한국민요학회, 2006.12, 275~313쪽 중 277쪽.) 그리고 “이때 편의상 전북은 서해권으로 넣어 다루기로 한다.”고 했다. (홍순일, 「서해 도서지역의 구비전승물과 해양정서·조기를 중심으로」, 『도서문화』제28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12, 519~567쪽 중 525쪽.)

첫째 서남해권의 지역구분이다. 이 지역과 관련된 [해양.도서.연안]과 [강.들.산]의 문화요소는 전남 목포 조기잡이, 전남 진도군 진도민요.진도씻김굿, 전남 신안군 증도.임자도.지도.하의민요, 전남 무안군 무안민요, 전북 남원시 운봉읍 민요.판소리 등이다. 민요공동체는 목포, 완도, 진도, 증도.임자도.지도.하의도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서해권의 지역구분이다. 이 지역과 관련된 [해양.도서.연안]과 [강.들.산]의 문화요소는 전남 영광군 법성포 굴비, 전북 부안군 위도면 조기잡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무녀도.장자도, 충남 태안군 안면도 조기(꽃게)잡이,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도(풍어제).선재도(바지락).연평도(조기, 꽃게) 등이다. 민요공동체는 법성포, 위도, 선유도.무녀도.장자도, 안면도(황도), 영흥도(선재도), 연평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남해 및 제주권의 지역구분이다. 이 지역과 관련된 [해양.도서.연안]과 [강.들.산]의 문화요소는 전남 광양시 진월면 민어잡이, 제주권의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 추자면 멸치잡이(조기잡이),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멸치잡이.술비소리.뱃노래, 경남 남해도(창선도, 삼동면) 등이다. 민요공동체는 광양(진월), 추자도, 거문도(고도, 서도), 남해도(창선도, 삼동면)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동해권의 지역구분이다. 이 지역과 관련된 [해양.도서.연안]과 [강.들.산]의 문화요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동해안 별신굿(오구굿)이다. 이것을 예로 들어 민요공동체를 서술할 수 있으나 적실한 사례가 아니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추후에 조사자료를 추가.논의하기로 하겠다.

이처럼 섬의 시각에 따라 해양.도서[섬].연안.강.들[평야].산의 측면에서 문화권역을 구분하면 4구분(서남해권, 서해권, 남해 및 제주권, 동해권)할 수 있되, 이것은 5구분(서남해역, 제주해역, 동남해역, 서해해역, 동해해역)에서 사안에 따라 재구성된다.

요컨대 권역내 지역이 섬의 시각을 씨로 하고, 지역문화의 장기지속과 단기변화를 날로 하여 구분될 때, ‘민요’와 ‘마을’이 총화된 민요공동체 산다이는 권역별로 전개된다. 서남해권의 경우 목포, 완도(보길도), 진도, 증도.임자도.지도.하의도 등에서, 서해권의 경우 법성포, 위도, 선유도.무녀도.장자도, 안면도(황도), 영흥도(선재도), 연평도에서, 남해 및 제주권의 경우 광양(진월), 추자도, 거문도, 남해도(창선도, 삼동면) 등에서, 동해권의 경우 기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5. 맺음말

문화권역을 설정하는 전제로서 구역(區域)은 반도의 시각에 따라 산.들[평야].강.연안.도서[섬].해양의 측면에서 지역(地域)을 보는 경우,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제주권, 경상권, 해외권 등 7구분이 중심이 된다. 이것은 4구분에서 6구분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11구분과 17구분이 되게 한 것이다. 섬의 시각에 따라 해양.도서[섬].연안.강.들[평야].산의 측면에서 해역(海域)을 보는 경우, 서남해권, 서해권, 남해 및 제주권, 동해권 등 4구분은 서남해역, 제주해역, 동남해역, 서해해역, 동해해역 등 5구분의 중심에서 사안에 따라 재구성된 것이다.

민요공동체(산다이)는 문화권역의 신앙, 의례, 놀이, 노동에서 장례 후 잘 노는가 아예 놀지 않는가의 정도에 따라 전개된다. 신안군 증도지역민, 거문도(서도)지역민, 남해도(창선도, 삼동면)지역민은 장례 후 아예 산다이하면서 놀지 않는다. 이에 비해 신안군 지도지역민은 상(喪) 중에 달애를 하고, 완도군 보길도지역민은 장례 뒤에 산다이를 하는 것을 보았다. 즉 민요공동체(산다이)는 ‘민요’와 ‘마을’이 총화되어, 의례를 중시할 때 교육의 장이 되고, 놀이를 중시할 때 노래판이 된다. 이것은 노동과정에서 실천의 장이 확대되는 결절점이 된다.

민요공동체(산다이)는 섬의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서남해권의 경우 완도(보길도), 증도.지도 등에서, 남해 및 제주권의 경우 거문도, 남해도(창선도, 삼동면) 등의 마을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공동의 유대나 집합정신을 지녔다.

참 고 문 헌

- 강봉룡.고석규.곽유석.김건수.김경옥.김재은.김준.박종오.이기훈.이윤선.홍선기.홍순일 지음, 도서해양학술총서 15 『바닷길과 섬-그 실제와 활용-』, 민속원, 2011.
- 나경수, 「호남의 Culture Image-의향, 예향, 미향의 개념 정립-」, 2010, 미계재.
- 나승만 총괄책임연구원/강봉룡.강영봉.강상택.주강현.강등학 권역책임연구원/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주관기관, 『한국의 해양문화』(1-5), 해양수산부, 2002.
- 홍순일, 「서해 도서지역의 구비전승물과 해양정서-조기를 중심으로-」, 『도서문화』제28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12, 519~567쪽.
- 홍순일, 「도서.연안지역 민요공동체의 성격과 민요의 연행양상」, 『한국민요학』제22집, 2008.04, 377-409쪽.
- 홍순일, 「민요공동체의 지역문화적 특성과 문화권역적 전개-산다이의 개별성과 일반성을 중심

으로-], 심포지엄 『공동체 지역문화와 문화권역』, 역사문화학회, 충북 제천 세명대학교 민
송도서관 시청각실(21일 오후)/제천시 명암리 산채건강마을(21일 저녁), 2009.08.21-22 중
2009.08.21(금) 15:30, 63-84쪽.

홍순일 조사.최영호(남, 52, 동아대 석당학술원) 제보, <권역구분의 기준>, 전남 목포시 신안비치
호텔, 2009.10.23.(금) 12:00.

홍순일, 「민요공동체의 문화권역적 전개와 지역문화적 특성-산다이를 중심으로-」, 『남도민속연
구』제19집, 남도민속학회, 2009.12, 281-325쪽.

해양 실크로드와 악기의 전파

— 장구 종류를 중심으로 —

전 인 평 ■ 중앙대학교

I. 머리말

필자는 인도 여행 중 인도 민속음악에서 한국의 장구 비슷한 악기를 흔히 사용하는 것을 보고 흥미를 갖게 되었다. 특히 인도의 후둑(hudook) 다이루(dairoo) 그리고 케랄라(kerala)의 에다카(Edakka) 등은 모양이 한국 장구를 닮았을 뿐 아니라 연주하는 리듬 중에는 자진모리 장단을 연주하고 있었다.

외국 문헌을 섭렵하던 중, 중국 송나라 진양(陳陽 Chenyang)이 쓴 『악서』(樂書)에서 장구가 인도에서 기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에 장구를 그려놓고 ‘인도에서 나왔다’(出於南蠻天竺之國也)라고 적어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인도의 기원 전 2-3세기 음악 문헌 Natya Sastra를 통하여 장구의 할아버지라 할 수 있는 다마루가 인도 기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Natya Sastra의 연구로 인하여 인도 장단과 한국 장단이 유사성을 갖게 된 연유를 알게 되었다.

이러한 장구 종류의 악기는 한국과 인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미얀마, 중국, 한국, 일본에도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나라에 존재하는 장구 종류의 악기는 불교의 전파와 더불어 여러 나라에 전래된 악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래 루트를 살펴보면 해양 실크로드를 통하여 인도의 음악 문화가 불교의 전파와 더불어 확산되었다고 사료된다.

이제 각국의 장구 종류 악기를 살펴 실크로드를 따라 전파된 장구 종류를 살펴 보겠다.

Ⅱ. 인도의 다마루

필자가 인도음악을 접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일은 한국의 장구가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점이였다. 이를 보고 고구려의 고선지 장군이 장구를 중앙아시아에 전하고 이것이 다시 인도에 전하였다는 가설을 가지고 문헌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인도에서 장구 종류의 악기로는 다마루(damaroo)와 다이루(dairoo)가 있다. 다마루는 사라쉬트라(Sarashtra)지방의 악기이고 다이루는 라자스탄(Rajasthan)지방의 악기이다. 다마루를 더 작게 만들면 후둑(huduk)이라 하고 마디야 파라데쉬(Madhya Pradesh) 사람들은 안트라(antra)라 한다. 이 악기는 아주 작아 주먹 안에 들어간다. 왼손 주먹 안에 이 악기를 쥐고 오른손으로 두드리는 악기이다. 왼손으로 잡을 때 꼭 잡으면 줄이 당겨져서 음이 올라가고, 놓으면 느슨해져서 음이 내려간다. 춤출 때 쓰고 유랑악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악기이다.¹⁾

Ⅲ. 중국의 장구 종류 악기

그러던 중 진양(陳暘)의 『악서』 권 125²⁾에 장구와 비슷한 악기 중동고(中銅鼓)를 그림으로 그리고 ‘남만의 천축에서 나왔다’(出於南蠻天竺)라는 기록을 찾게 되면서 이 가설은 깨지고 말았다.

『악서』에는 모두 13가지의 장구 종류를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동고(中銅鼓)는 권 125에 소개되어 있다. 중동고의 그림을 그리고 ‘남만의 천축(南蠻天竺)에서 나왔다’고 적고 있다. 이로 보면 이 악기가 인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³⁾

당의 십부기(十部伎)에 편성되어 있는 고려기(高麗伎)의 요고(腰鼓) 또한 관심을 가질만 하다. 요고란 북의 허리가 잘록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요고는 세요고(細腰鼓)라고도 하는데 장구와 같은 것이다.

장구는 양면이 가죽으로 메워져 있으며 양면을 잇는 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이를 조정함으로써 음정을 조절하는 타악기이다. 장구의 수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양(陳暘) 『악서』(樂書)에 나오는 장구 종류와 돈황 석굴의 장구와, 인도의 장구, 그리고 한국의 장구를 살펴보자.

갈고(羯鼓)는 구자(龜茲)기.고창(高昌)기.소록(疎勒)기.천축(天竺)기의 음악에 쓰는데, 대위에 놓고 두 개의 채를 쳐서 그 소리가 초쇄명렬(焦殺鳴烈)함에 더욱 적합하다고 하였다.⁴⁾

1) Vishnudass Shirali, Sargam, An Introduction to Indian Music(New-Delhi : Shakti malki abhinav publications, 1997)

2) 陳暘, 『樂書』(國立國樂院, 1982) 韓國音樂學資料叢書 8, p. 246.

3) 中銅鼓鑄銅爲之作…出於南蠻天竺之國也. 音馬授南征交得駱越 銅鼓鑄爲馬式 此其迹也. 陳暘『樂書』(國立國樂院, 1982) 卷 125, 韓國音樂學資料叢書 9, p. 246.

4) 羯鼓 龜茲高唱疎勒天竺部之樂也. 狀如漆桶下承以牙床用兩杖擊之其聲 殺鳴烈合. 陳暘, 『樂書』, 앞의 책, 卷 127, 251쪽.

이는 일본 갈고의 타법을 연상하게 한다. 일본의 갈고는 작으며 대(臺) 위에 놓고 두개의 채[兩杖]으로 빠르게(鳴烈) 친다.

『구당서』(舊唐書)에 “두 손으로 치며 갈중(羯中)에서 나온 까닭으로 갈고라 하였는데 양장고(兩杖鼓)라고 한다.”고 하였고 『태평어람』(太平御覽)에 “갈고는 외이(外夷)에서 나왔고 용갈(戎羯)의 북이라 해서 갈고라 한다”고 하였다.⁵⁾ 구자기, 고창기, 소륙기, 천축기 등에서 사용하였다.

갈고중(羯鼓中)은 양장고(兩杖鼓)라 하여 두 개의 채로 치고, 틀 위에 얹어 놓고 치도록 되어 있다. 장안(長安)에서 “밤에 갈고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기록을 보면 상당히 유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⁶⁾

도담고(都擔鼓)는 부남(扶南, 현재의 타이와 캄보디아), 천축의 악기이고, 그 모양은 요고를 작게 만든 것이고 작은 망치로 치는 악기였다.⁷⁾

요고는 목부의 악기로서 나무로 만든 것이다. 요고는 나무로 만들어야지 흙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⁸⁾

중동고(中銅鼓)가 천축 즉 인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진양(陳陽)의 『악서』(樂書) 권 125의 기록에 의거, 인도에 존재하는 장구 종류를 살피는 것은 진양 『악서』의 기록에 담긴 장구가 지금도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인도의 다마루와 연주 방법이 비슷한 악기로 일본의 쓰즈미(羯鼓)가 있다. 인도 다마루는 작아서 손에 들고 또는 어깨 쪽으로 올려 친다. 일본의 쓰즈미도 어깨 위에 올려 놓고 친다. 일본의 쓰즈미가 장구의 기원지인 인도와 흡사한 연주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류학에서 말하는 변방잔존(邊邦殘存)의 원칙(原則)(peripheralism)의 예⁹⁾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IV. 한국과 일본의 장구 종류 악기

우리 나라의 장구에 관한 자료 중 가장 오래 것은 석상자료이며, 그 중에서 다음의 계유명 아미타불 삼존사면석상(癸酉銘 阿彌陀佛 三尊四面石像)은 석상 자료 중 유일한 것이다.¹⁰⁾

이것은 1960년 9월에 충남 연기군 전동면 다방리의 비암사에 있는 석상이다. 이 석상의

5) 張師勛, 『增補韓國音樂史』(세광음악출판사, 1986), p. 44.

6) 長安夜間鼓聲 曲頗妙謂鼓工曰君以擊者豈非耶婆色溪乎. 陳暘, 『樂書』, 卷 127, 四b, (앞의 책), p. 252.

7) 都擔鼓 夫南 天竺之器也. 其狀似腰鼓 而小以小槌擊之. 陳暘, 『樂書』, 卷 127, 五a, (앞의 책), p. 253.

8) 腰鼓之制非特用土也. 亦有用木爲之者矣 土鼓瓦音也. 木鼓木音也. 其制雖同其音則異 禰衡衣擊鼓其妙八神 然亦進乎. 陳暘, 『樂書』 韓國音樂資料叢書10 (國立國樂院, 1982), 卷 132, 3a, p. 23.

9) 변방잔존(邊方殘存)의 원칙은 인류학의 peripheralism을 번역한 것이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져 나간다. 시간이 지나면 중앙 부위 파장은 없어졌지만 가장자리에 파문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문화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는 흐리게 남아 있지만 지역적으로 먼 지역에 남아 있는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10) 『李惠求博士頌壽紀念音樂學論叢』(韓國國樂學會, 1969), p. 172.

앞면에 삼존불이 조각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각행 4자로 12행의 명문이 새겨 있는데 여기에 계유년이 나온다. 이 석상은 뒷면에 4단을 이루어 각단에 5구식(五軀式)의 좌불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 왼쪽과 오른쪽에 아래 위 2단으로 각각 넷의 악기가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악기를 살펴보면 왼쪽으로 요고(腰鼓).쟁(箏).통소(洞簫)와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한 개와 오른쪽에는 소(簫).횡적(橫笛).笙(笙).비파가 있다. 여기에 나오는 장구는 무릎에 얹어 있고 작은 모양이어서 이대로는 장구가 흘러내려 연주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림에는 안 나타나지만 끈으로 어깨에 메고 연주하였을 것이다.

다음에는 범종비천(梵鍾飛天)의 주악도(奏樂圖)에 나오는 장구를 살펴보자. 범종 비천에 장구가 나오는 것 중,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자료는 7가지인데 모두 남북국시대의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오래된 것으로는 남북국시대인 서기 725년에 만들어진 상원사(上院寺) 동종(銅鍾)의 비천(飛天)이다. 이 종은 725년(성덕왕 24년)에 만들어진 종으로 한국식 종 특징의 하나인 음관(音管)이 원통형(圓筒形)인 것으로 국보로 지정한 종이다. 이 종은 신라 통일기에 우수한 문화를 알 수 있는 자료로 현재 남아 있는 종으로는 가장 오래된 종이다.¹¹⁾ 이 종의 중앙에는 공후와 생(笙)이 새겨 있고, 상대(上帶)에는 요고(腰鼓?).쟁(箏).횡적(橫笛) 그리고 종류를 알 수 없는 악기가 나오고, 하대(下帶)에는 요고.피리(?).횡적(橫笛?).곡경비파(曲頸琵琶)가 나온다.¹²⁾ 이 그림의 요고도 무릎에 얹어 있는 것으로 작게 표현되고 있는데 끈으로 어깨에 메고 연주한 악기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일본 운수사종(雲樹寺鍾, 상원사동종(A.D. 725)과 같은 시기) 종이다. 이것은 일본 鳥根縣 安來市 清井町 운수사(雲樹寺)에 보관 중이다. 이 종은 60cm 정도의 작은 것이지만 각 부분의 무늬가 아름다워 상원사종을 작게 만든 느낌이 드는 훌륭한 종이다. 그래서 시대도 상원사 종의 전후 시대인 8세기로 보고 있다. 즉 월정사의 상원사에 있는 종 이 서기 576년(성덕왕 24년, 당 개원 13년)에 조성된 종임을 알 수 있다. 이 종에는 횡적과 요고의 주악이 나온다.¹³⁾

V. 맺음말

『삼국유사』(三國遺事) 가락국기(駕洛國記)에 의하면, 김수로왕의 비 허황옥(許黃玉)은 AD 41년 한국에 도착하여 “저는 아유타국 공주입니다. 성은 허씨이고 이름은 황옥입니다.”(妾是阿踰陀國公主也 姓許名黃玉)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 글에 나오는 허황옥은 멀리 인도 아요디아(Ayodiya)국의 후예라고 한다.

『삼국사기』에는 당시 신라에서 유행하던 인도 악조 이름이 나온다. 『삼국사기』 악지(樂

11) 李弘植, 『國史大事典』(知文閣, 1962), p. 691.

12) 張師勛, 『增補韓國音樂史』(世光音樂出版社, 1986), p. 239.

13) 李弘植, “韓國樂器 圖象 過眼錄,” 『李惠求博士 頌壽紀念 音樂學論叢』(社團法人 韓國國樂學會, 1969), 169~202쪽.

志)에 평조(平調) 황종조(黃鐘調) 반섭조(般涉調) 등 7악조(musical modes)가 있다. 이 가운데 반섭조는 인도 판차마(panchama)의 한국식 표현이다. 이 판차마를 중국에서는 panshan(般瞻) 또는 panshe(般涉)로 표기하고 있다. 이 반섭, panshan panshe는 모두 인도 고대 비석 쿠디미야마라이(Kudimiyamalai) 악보 비석에 나오는 판차마를 번역한 말이다. 이러한 악조가 『삼국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미 신라 시대에 인도의 음악이 신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장구는 허리가 잘록하다하여 세요고(細腰鼓)라고도 한다. 장구 통의 재료로 현재는 나무만 쓰고 있으나, 『악학궤범』의 기록을 보면 사기.기와.나무 등을 썼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기와는 좋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⁴⁾ 오늘날 장구 종류의 악기는 인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장구는 인도의 다마루가 중국에 전해져 요고(腰鼓)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는 장구로 전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한국인의 놀라운 외래 문화 수용능력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¹⁵⁾

이렇게 인도에서 기원한 타악기 장구 종류는 아시아 여러 지역에 불교와 함께 전파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인도 - 중국 - 한국 - 일본 등으로 연결 된다. 이 논문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하였지만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에서도 장구 종류의 악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장구 종류의 분포를 통하여 해양 실크로드의 음악 문화 전파의 중요한 루트였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송방송. 『증보 한국음악통사』(서울: 민속원, 2007).
- 송방송. 『한국음악통사』(서울: 일조각, 1984), 45쪽. 필자가 인용한 책은 1988 중판.
- 송혜진. “이성산성(二聖山城) 출토 목제 요고(腰鼓)에 관한 연구: 동북아시아 요고류 도상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음악논집 10』(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06).
- 이진원. “壁畵를 통해서 본 高句麗 音樂과 樂器-고구려 음악 문화에 관한 재검토” 고구려 학회 발표 자료(2008년 9월 11일).
- 李惠求. “安岳 第三號墳 壁畵의 奏樂圖,” 『韓國音樂序說』(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장사훈, 『증보 한국음악사』(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6).
- 이혜구. 『한국음악서설』(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 전인평. “실크로드 음악의 전래와 변천,” 『한국전통음악연구』(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 전인평. “영산회상 장단과 인도의 딸라,” 『아시아음악연구』(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1).
- 전인평. 『실크로드 음악과 한국음악』(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6).

14) 按造杖鼓之制 其腰木及漆布爲鼓者最好 磁次之 瓦則不好. 成倪, 『樂學軌範』 卷7. 4a4-5.

15) 전인평, 『새로운 한국음악사』(현대악보출판사, 2000), 55쪽.

전인평. 『아시아음악 오디세이』(서울: 아시아음악학회, 2015).

陳暘. 『樂書』(서울: 國立國樂院, 1982년 영인), 卷 125, 韓國音樂學資料叢書 권9.

http://tc.wangchao.net.cn/baike/detail_2626102.html 2016. 3. 15. 접속.

2007년 3월 11일. KBS 역사기행, “고구려 음악 대탐사 1”. 필자가 참여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해양 실크로드를 통한 음악교류

— 인도 · 인도네시아 · 태국 · 중국 남부 · 한국 —

김 정 예 ■ 전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I. 머리말

해상 실크로드는 계절풍을 이용한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개척된 길로서 주로 중국인과 동남아시아 인도인들이 이용했다. 하지만 8세기 이후로는 이슬람 상인이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우리나라와 왕래를 할 정도로 폭넓고 활발하게 이용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기록상 드러나지 않았을 뿐 문화현상을 살펴보면 그 이전의 바닷길 역시 끊임없는 교류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문화현상 중 예술은 특정 집단의 정체성과 전통성의 상징인 동시에 표현과 전승수단이기도 하다. 예술에서 일어나는 문화변동은 쓸모없어 소멸해 버리기도 하고, 새로운 요소가 생성되어 낡은 것을 대체해 주기도 한다.¹⁾

이 글의 목적은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남부 그리고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리듬형태의 공통점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확대와 축소에 의한 변화와 속도와 관계있다는 점이다.

1) 조석연,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궁형공후(Arched harp)의 전파와 접변”, 공연문화연구, 제30집(서울: 한국공연문화학회, 2015), 530쪽.

Ⅱ. 인도의 딸라

인도의 고대 연극 문헌 『나티야 사스트라』(Natya Sastra)는 기원후 2세기에 쓰여진 연극에 관한 책이다. 이 책에서 인도의 고대 음악 형식을 살펴보면, 고대 인도의 연극에서 음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적고 있다.

필자는 1813년 편찬의 『동대금보』의 영산회산(영산회상과 같은 곡)과 『나티야 사스트라』(Natya Sastra)의 장단을 비교해 보겠다. 이 중에서 도드리장단은 차빠뿌따(capaputa)라는 2:1:1:2의 구조와 같아서 비교해 볼 만하다.

『동대금보』의 6박 장단, 10박 장단 그리고 20박 장단은 2:1:1:2(6박 도드리 장단)의 확대형이다. 이 세 가지 장구형의 공통점은 장단단장(長短短長)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같은 장구형을 각각 2:1:1:2, 3:2:2:3, 6:4:4:6으로 확대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인도 고대 음악 문헌 『나티야 사스트라』에는 속도와 관련한 만중삭 형식이 있다. 이 문헌은 기원전 2세기의 문헌이라는 점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만중삭 어느 문헌보다도 오랜 역사적 문헌이다.

Ⅲ. 인도네시아의 이라마

곤간(gongan)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단위로, 공(gong)으로 주기의 끝을 표시한다. 곤간은 한국의 장단(長短), 인도의 딸라(tala), 일본의 효오시(拍子)와 동일한 개념이다. 곤간(gongan)의 기본은 두 음으로 구성한다. 첫 음은 약박이고 둘째 박은 강박이다. 이렇게 약하고 강한 음은 항상 짝을 이루고, 약한 음은 딩(ding)으로, 강한 음은 동(dong)으로 구음(口音)한다. 그리고 동이 강박으로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음악은 2박자 음악이 될 수밖에 없어서 항상 박자는 2의 배수가 된다. 그리고 곤간의 단위 길이는 공이 표시한다. 곤간(gongan)은 두 박 단위 주기가 모여 구성된다. 이 두 박 단위는 각각 4박, 8박, 16박 등으로 분화한다.

곤간(gongan) 단위는 공(gong)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공으로 표시하는 단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의 고리에는 항상 공이 울린다. 이 공은 한 주기의 끝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주기의 시작을 알리기도 한다. 곤간의 확장은 각 박이 둘로 나누어질 때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약박이 나뉘어 약-강이 되고 다시 강박이 나뉘어 약-강이 된다. 이처럼 분화되더라도 약-강 악센트는 계속 유지된다.

가믈란 음악의 3단계 속도 변화를 살펴보면, 가믈란의 선율이 확장됨을 알 수 있다. 가운데 있는 것이 단순한 선율이고, 여기에 간음 넣으면 중간 선율이 되고, 여기에 간음을 더 넣으면 세 번째 원의 복잡한 선율이 된다. 가운데 있는 원의 선율(제1단계, irama 1)은 란짜란(lancaran)이라고 부르는데 장단의 단위 주기가 8박이고, 둘째 원의 선율(제2단계, irama

2)은 꺼타왕(Ketawang)이라고 부르는데 장단 주기가 16박이고, 셋째 원의 선율(제3단계, irama 3)은 라드랑(ladrang)이라고 부르는데 장단 주기가 32박이다.

인도네시아의 공은 낫쇠로 만들고 속도 표시의 기능과 함께 이라마(Irama)의 주기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이 속도는 3단계로 변화하며 그 3단계는 확장과 축소에 의한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V. 태국의 타오 형식

태국 장단은 타오(thao form) 형식이라고 한다. 태국의 타오 형식은 확장과 축소에 의한 3단계 변화를 보인다. 태국의 장단(thao) 연주는 툐(thon)과 람마나(rammana)가 담당한다. 기본적인 장단으로 느린 삼찬(samchan)과 중간 속도의 송찬(songchan) 그리고 빠른 찬디오(chan dio)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상호 축소와 확대의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태국 음악의 3단계 형식은 제3단계 느린 삼찬(samchan), 제2단계 중간 속도의 송찬(songchan), 제1단계 빠른 찬디오(chan dio)이다. 이것이 더 확장되면 나탐 프로카이(nathap prokai)는 64박-32박-16박의 구조가 된다. 나탐 송마이(nathap songmai)는 느린 것이 32박 한 주기이고, 중간 속도의 음악은 16박이 한 주기이고, 빠른 음악의 한 장단 주기는 8박 단위가 된다. 즉 32-16-8의 구조이다.

태국의 칭(ting)은 둥글게 낫쇠로 작게 만들고, 타오 형식에서 칭은 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타오(thao 장단)의 주기는 공(gong)으로 표시한다.

V. 중국 남부 강남사죽의 절주 형식

중국에서 한국의 장단과 흡사한 것은 절주(節奏) 또는 판식(板式)인데, 강남사죽의 만중삭 형식과 가장 관계가 깊다. 느린 것은 만판(慢板)이라고 하는데, 4/4박자이다. 이것을 일판삼안(一板三眼)이라고 하는데, 느린 음악이다. 일판삼안의 4/4박자는 항상 느리게 연주한다. 중간 것은 중판(中板)이라고 하는데, 2/4박자이다. 이것을 일판이안(一板二眼)이라고 하는데, 중간 속도의 음악이다. 일판삼안의 2/4박자는 항상 중용의 속도로 연주한다. 빠른 것은 원판(原板)이라고 하는데, 1/4박자이다. 이것을 일판일안(一板一眼)이라고 하는데, 빠른 음악이다. 이 중에서 빠른 것을 원판(原板)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악이 본곡이고, 나머지는 변주곡이기 때문이다.

Ⅵ. 한국의 장단

한국 음악에서 장단 표시는 장구, 징 그리고 박판이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장구 장단의 합장단으로, 농악은 징으로, 당악과 향악의 경우에는 박판으로 장단의 단락을 표시한다.

장구는 양쪽을 함께 치는 합장단으로 장단의 주기를 표시하고 농악 등에서는 징이 장단의 주기를 표시한다. 대체로 농악에서 장구와 징이 함께 연주하는 경우에는 장구의 합장단이 올리는 곳에 징이 울린다.

한국의 징은 둥글게 낮쇠로 만들고 속도 표시의 기능과 함께 장단의 주기를 표시한다. 이 속도는 대개 3단계로 변화하며 그 3단계는 확장과 축소에 의한 변화이다. 3단계란 15세기의 춤곡 『세종실록』 봉래의(鳳來儀)의 경우 64박-32박-16박의 구조이고²⁾, 영산회상의 경우 20박-10박-5박이다. 산조의 경우 24박 - 12박 - 4박의 구조이다. 다른 나라 음악의 경우 1/2로 박자수가 줄어들지만 한국 음악은 규칙성이 뒤에 깨진다. 그만큼 한국음악의 자유로움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Ⅶ. 맺음말

필자는 인도에서 기원한 형식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교와 함께 교류하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위하여 이 글을 작성하였다. 이 글은 속도와 관련한 리듬 형태를 논의한 것이다. 이 리듬 형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인도의 딸라, 인도네시아의 이라마, 태국의 타오 형식, 중국 남부 강남사죽의 절주 형식, 한국의 장단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인도의 고대 연극 문헌 『나티야 사스트라』(Natya Sastra)에 나오는 인도의 고대 음악 형식은 차빠뿌따(capaputa)라는 2:1:1:2의 딸라가 있다. 이것은 24박-12박- 6박으로 변화하여 확대와 축소 기법으로 변화한다.

인도네시아의 이라마는 제3단계, 제2단계, 제1단계의 삼단계가 있다. 3단계가 가장 느리고 1단계가 가장 빠르다.

태국의 타오(thao form) 형식 역시 확장과 축소에 의한 3단계 변화를 보인다. 느린 삼찬(samchan)과 중간 속도의 송찬(songchan) 그리고 빠른 찬디오(chan dio)가 있다.

중국 남부의 강남사죽 음악에는 판식(板式)이 있다. 느린 것은 만판(慢板)이라고 하는데, 4/4박자이다. 중간 것은 중판(中板)이라고 하는데, 2/4박자이다. 빠른 것은 원판(原板)이라고 하는데, 1/4박자이다.

2) 전인평, “봉래의(鳳來儀)의 장단과 속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9).

한국 음악의 장단 표시는 장구, 징 그리고 박판이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장구 장단의 합 장단으로, 농악은 징으로, 당악과 향악의 경우에는 박판으로 장단의 단락을 표시한다. 한국 음악 장단 역시 확장과 축소에 의한 변화를 보인다. 이것을 본인은 진양조(24박)-중모리(16박)-자진모리(4박)으로 논증하였다.

다른 나라 음악의 경우 1/2로 박자 수가 줄어들지만 한국 음악은 규칙이 뒤에 깨진다. 그만큼 한국음악의 자유로움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발표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발표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역사적인 문헌 연구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참 고 문 헌

- 이혜구, “장단의 개념,” 『한국음악연구』 제19집, 서울: 한국국악학회, 1991.
 조석연,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궁형공후(Arched harp)의 전파와 접변”, 공연문화연구 제30집, 서울: 한국공연문화학회, 2015.
 전인평, “봉래의(鳳來儀)의 장단과 속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9.

도서해양의 문학적 형상과 언어문화

비네타, 발트해의 사라진 도시의 전설	배정희	한국해양대학교
『모비딕』에 나타난 포경선의 세계일주 항로로 본 19세기 태평양의 정치적 상황	김낙현	한국해양대학교
문무대왕릉에서 발견 했다는 '원효결서'의 정체	장정태	동국대학교
역사인물 홍가와라와 「홍길동전」을 통해 본 해양문화의 세계	설성경	연세대학교
김상헌의 제주 체험과 제주에 대한 인식	김기림	조선대학교
최척전에 나타난 바다의 의미	이채경	성균관대학교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나는 '바다' 이미지 및 인식 연구	김미령	조선대학교
최인훈 소설 〈颱風〉에 나타난 바다 이미지 연구	박해랑	성신여자대학교
한국 노래가사에 나타난 해양문화의 의미	정석원	부산대학교
완도군 금일의 해양 지명어 '모리'	조미라	목포대학교
보길도(甫吉島) 격자봉(格紫峰, 430.3m)	천기철	한국사진작가협회
'소래' 포구의 어원에 대하여	손희하	전남대학교

비네타, 발트 해의 사라진 도시의 전설

— 독일 발트해안의 신화와 미래전망—

배 정 희 ■ 한국해양대학교

I. 들어가면서

육지중심주의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 지중해든 북해든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바다는 바다이며, 바다가 보여주는 그 특유의 다기다변성에서도 어느 바다든 마찬가지다. 그러나 바다에 대한 표상, 바다와의 관계가 각 문화와 공동체마다 다르게 드러나는 것은 왜일까. 오늘날 문화학 담론에서는 더 이상 문화와 자연이라는 단순이분법 대신에, 자연은 문화의 한 요소로서 파악하는 시각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각 문화는 이미 서로 다른 바다, 서로 다른 자연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각 문화는 제마다 다른 바다라는 자연을 이용하고 있고, 그것이 주는 한계와 위험을 극복한 경험을 기억하여 이를 전수하므로, 따라서 고유의 바다 관념과 표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본 발표는 독일문화에서 바다에 대한 관념과 표상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비교해양문화학적 관심에서 출발한다. 독일은 북쪽으로 바다를 두고 있는데, 이 북쪽 해안은 유틀란트반도로 인해 다시 양분되어, 유틀란트반도의 서쪽으로는 북해가, 동쪽으로는 발트 해, 동해가 펼쳐져 있다. 독일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바다 표상으로는 북해 북프리스란트 해안의 룬홀트Rungholdt섬과 발트 해의 해안도시 비네타Vineta 전설이 있는데, 둘 다 침몰한 황금도시에 대한 이야기다.

본 발표자는 다른 지면상에서 이미 룬홀트섬 전설의 역사적 고고학적 배경, 전설모티브

의 문학적 예술적 수용과 변용을 상세히 다룬 바 있다.¹⁾ 여기서는 비네타 전설에 집중하여 발트 해의 해양 문화적 특징을 분석해 보자.

II.

룽홀트 전설이나 비네타 전설에서 특징적인 것은 물 속 깊이 가라앉은 황금의 도시에 대한 동경이다. 그리고 이 동경은 위협적인 자연, 예상할 수 없고 제어하기 벅찬 바다의 위력에 대한 경외감, 공포스러운 자연재해의 기억과 결합되어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바다내러티브인 아틀란티스전설의 유형이 여기에서도 발견되는데, 룽홀트나 비네타의 전설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의 오만과 방탕함을 경고하고 징벌하는 신이라는 중세 기독교적 세계관에 굴절되어 있다.

‘북구의 아틀란티스’, ‘동해의 베니스’라는 별명을 가진 비네타의 역사적 배경을 이루는 것은 8세기부터 12세기 초에 발트 해 공간에서 전개되었던 다민족적, 다종교적, 다문화적 요소간의 교류 및 경쟁의 역동적인 세계였다.

III.

비네타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주변과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또 어느 정도의 규모와 지역적 위상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호기심과 추측이 난무했다. 지금까지, 비네타의 위치에 따라서 4개의 가설 및 이론이 등장했는데, 볼린섬이론, 우제돔섬이론, 불가지론, 그리고 바르티이론이 그것이다.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역사적 언급은 1075년 <함부르크 교회사Hamburger Kirchengeschichte>를 쓴 아담 폰 브레멘Adam von Bremen과 그 후 한 세기 뒤의 헬몰트 폰 보자우Helmold von Bosau의 기록이다.²⁾ 아담 폰 브레멘은 비네타를 두고 “광범위한 반경 속에 퍼져사는 비그리스인과 그리스인 사이의 만남의 교차점”인 욀네Jumne라는 도시명을 거론하면서, “사람들이 온갖 기이하고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이 매우 유명한 도시가 “유럽에 있는 모든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도시”라거나, “그 도시는 북구의 온갖 민족들이 만들어 낸 상품으로 가득 차 있으며, 탐나거나 기이한 것 중 없는 것이 없었다”고도 쓴다. 아담 폰 브레멘은 비네타가 슬라브인이 사는 나라에서 가장 큰 강인 오데르 강이 스키타이인의 바다

1) 졸고, 「‘북해바다는 살해바다’- 북해의 신화적 담론과 룽홀트-전설」, 카프카연구 제 29집, 2013, 167-186쪽.

2) 이 두 역사가들의 기록은 비네타의 시공간적 위치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시간적으로는, 그러니까 1158년 까지 만 해도 비네타가 언급된 문서가 다른 데서 발견되었으므로, 비네타 몰락은 1158년 이후 부터 1170년 이전으로 좁혀진다. 1170년 보자우의 기록을 끝으로, 어디에서건 이 도시가 거론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간적으로는 뤼겐 섬의 우편, 오데르강이 발트해로 유입되는 우제돔섬 북동부해안과 그 보다 더 아래의 볼린섬에 비네타가 있었다고 확고하게 전제하게 되었다.

Skythenmeer(=발트해)로 흘러들어가는 강하구에 있었다고 썼다.

100년 뒤인 1170년, 헬몰트 폰 보자우는 <슬라브족 연대기Chronica Slavorum>에서 아담 폰 브레멘이 쓴 비네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맨 마지막에 전혀 새로운 내용을 하나 첨가했다. “덴마크의 한 왕이 이 지극히 유복한 지역에 대규모로 배를 끌고 공격해 와서, 완전히 전멸시키고 말았다. 그 폐허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담 폰 브레멘의 1075년과 헬몰트 폰 보자우의 1170년 사이 100년 동안의 어느 시점에, 발트 해 최대의 다문화 도시 비네타가 바이킹의 공격을 받고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러다가 16세기에 비네타는 다시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다. 그것은 신대륙의 발견과 함께 유럽에서 바다가 열어주는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한껏 고조되었던 때문이다. 우제돔섬 앞 비네타-사주沙柱에는 내노라 하는 영주, 시장, 사제들이 물 속 깊이 가라앉은 미지의 나라의 흔적을 찾아 몰려왔다. 이름 없는 수많은 모험가와 보물사냥꾼들이 섬 앞의 여기저기 모래바닥을 파 뒤집기도 했고, 동판 화가들은 상상의 나라를 펼쳐며 비네타의 활기찬 저자거리 장면을 동판화에 새겨넣었다. 이렇게 해서 비네타 신화가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신화적으로 부각되었던 16세기 이후 몇 세기 동안, 대중적 관심은 널리 확산되었지만, 이전에 알려진 내용과 비교하여 별다른 보충이나 수정이라고 할 만 한 일은 없었다.

19세기 후반 독일제국 성립과 함께 루돌프 피로코브Rudolf Virchow에 의해 비네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민족주의적 관심 속에서 연구가들은 볼린섬에서 발견된 다수의 정주지유적을 두고 바이킹-게르만 비네타의 흔적으로 추정했지만, 번번이 슬라브족의 것으로 판명되었을 뿐이다. 우제돔섬 역시 20세기 초 카를 슈하르트Carl Schuchardt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미궁에 빠진 비네타 연구자들은 급기야 비네타에 대한 유일하고도 최초의 권위였던 두 연대기 사학자들이 지명을 잘못 옮겨 적었다고 믿고 싶어 했다. 고의적 지명 오기誤記라는 것이었다. 발트해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폭력적인 기독교화와 그에 대한 반작용이 낳은 중세초기의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IV.

아무런 진척 없이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비네타에 대한 이해가 지금까지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게 되는 것은 20세기 말이다. 때는, 독일통일(1989년)도 거의 10년에 접어들고 있었고, 동서유럽 사이의 장막도 오래 전에 걷혔으며, 연구가들에게 발트 해는 자유롭게 접근가능해진 곳이었다. 중세 한자동맹의 황금기를 기억하며 새로운 발트 해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꿈꾸는 ‘새시대의 한자 Hanse der Neuzeit’의 축제인 ‘국제 한자의 날 der Internationale Hansetag’이 1980년부터 개최되어 성공적으로 뿌리내려가고 있었다.

1997년 오테르 강에 대홍수 상태가 생겼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사태가 장기미제사건

비네타에 대하여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출구를 열어주게 되었다.³⁾ 위성촬영으로 오데르강이 발트 해로 흘러드는 물길과 강 하구의 지형에 대하여 이전과는 다른 이해의 시각이 가능해졌는데, 현재 오데르의 지류가 흐르는 방향은 아담 폰 브레멘의 시대의 그것과는 달랐다는 가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 고대사학자 클라우스 골드만(Klaus Goldmann)과 언어학자 귄터 베르부쉬(Günter Wermusch)는 이러한 지형학적 관찰에 힘입어, 지금은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발트해안의 오데르하구 바르트(Barth)가 뤼겐섬 서쪽에 존재해 있었으며 이 일대 전역이 비네타라고 불렸다는 이론을 내놓았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메클렌부르크 포메른 지역의 슬라브계 주민들이 강과 바다의 물을 잘 경영하는 치수테크닉에 정통해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생활터전은 - 로마의 역사가들이 퍼뜨린 소문처럼 - 야만의 질펀한 늪이 아니라, 제방으로 잘 둘러쳐지고, 수로로 잘 연결시킨 농토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덴마크 왕이 침략하여 이들의 방둑을 무너뜨렸고, 그리하여 이 지역은 발트 해 해수의 침범에 대책없이 노출되어, (아마도 언젠가의 해일과 함께) 결국 진흙 속으로, 물 속으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비네타의 운명은 외부침략과 자연재해의 합작 속에서 벌어진 것이라 하겠다.

위치도 위치거니와, 또한 문화적 특징도 당시의 다민족적 상황에 맞추어 재조명될 수 있다. 비네타에서 사람들은 4방으로 얼굴이 향하고 있는 슬라브부족의 전투의 신(神) 스반테빗(Swantewit)을 섬겼는데, 각 방향마다 고유의 색이 지정되어 있어, 예컨대 북은 흰색, 서는 붉은 색, 남은 검은 색, 그리고 동은 녹색을 의미했다.⁴⁾ 비네타와 마주한 뤼겐섬에서 스반테빗의 석상은 신탁수여 매개체로서 숭배되었는데, 뤼겐섬은 포메른 지역의 기독교화에 맞서서 근 200년 동안 슬라브족이 벌인 끈질긴 저항의 중심지였다.

V. 글을 맺으며

바다는 집어삼키고, 그리고 뜻하지 않은 시점에, 그리고 때로는 원래의 장소와는 전혀 무관한 곳에 삼킨 것을 토해놓는다. 파도에 실려 돌아온 것 속에서 우리는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 추측하지만, 이렇게 바닷가의 수동적인 채집자로 만족하지 않고, 직접 물속으로, 진흙 속으로 들어가 알아내기도 한다. 가라앉은 비네타의 비밀은 위성촬영을 통해 한층 더 높고 먼 하늘에서 강과 바다의 커다란 동선을 볼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이렇게 사라진 도시의 모습은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석과 추측의 과학기술과 함께 점점 드러난다. 그러나 사라진 문화는 그러한 도구적 지식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가지는

3) 그렇다고 해서 학자들 사이에 비네타 장소에 대한 이견이 현재 해소된 상태는 결코 아니다.

4) 예컨대 동유럽에서 백러시아, 흑해, 이런 식으로 지명과 컬러가 결합된 경우를 볼 수 있다.

미래의 전망과 욕망에 의해서도 재발견된다.

비네타에는 초기 중세의 중북부유럽에서 잔혹하게 진행된 기독교화과정과, 발트 바다를 공유하며 활동하던 여러 집단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억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 복합적인 세계의 메트로폴리스가 처했던 다문화적으로 얽히고설킨 운명은 오랫동안 중세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해 굴절, 단순화된 비네타전설로 전해져 내려 오다가, 오늘날 예컨대 바르트이론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과연 비네타는 새 천년의 다문화 세계를 위한 발트해의 상징이라는 새로운 미래전망의 위상을 얻게 될 것인가? 동서유럽의 통합으로 전에 없는 발전을 함께 꿈꾸지만, 현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실업률이 높고, 특별한 경제적 탈출구가 없는 듯 한 이 지역에 비네타국립공원이 새로운 계기를 가져다 줄 것인가.

Vineta (1825)

Wilhelm Müller (1794-1827)

Aus des Meeres tiefem tiefem Grunde
Klingen Abendglocken dumpf und matt,
Uns zu geben wunderbare Kunde.
Von der schönen alten Wunderstadt.

In der Fluthen Schooß hinabgesunken
Blieben unten ihre Trümmer stehn.
Ihre Zinnen lassen goldne Funken
Wiederscheinend auf dem Spiegel sehn.

Aus des Herzens tiefem, tiefem Grunde
Klingt es mir, wie Glocken, dumpft und matt:
Ach, sie geben wunderbare Kunde
Von der Liebe, die geliebt es hat.

Eine schöne Welt ist da versunken,
Ihre Trümmer blieben unten stehn,
Lassen sich als goldne Himmelsfunken
Oft im Spiegel meiner Träume sehn.

Und dann möcht ich tauchen in die Tiefen,
Mich versenken in den Wiederschein,
Und mir ist als ob mich Engel riefen

In die alte Wunderstadt herein.

깊고 깊은 저 바다 아래에서
저녁종소리가 아련하게 울려오네.
그 아름답고 오래된 경이로운 도시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네.

해일의 품 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그 도시의 잔해는 저 아래 서 있네.
도시의 동이 거울처럼
황금색 광휘로 되비치네.

환한 석양 속에 그 마법의 빛을
언젠가 보아버린 어부는
자꾸만 그 자리를 맴돌며 고기를 잡는구나,
암초가 빙글빙글 위험한데도.

가슴 속 저 깊고 깊은 데서
마치 종소리처럼 아련히 울려 퍼지네.
아아, 그 종소리는 가슴이 사랑했던
사랑에 대하여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주네.

한 아름다운 세계가 거기에 가라앉아 있네.
그 잔해가 저 아래 머물러 있어,
내 꿈의 거울 속에서 황금빛 창공의 광휘로서
나타나누나.

그럴 때면 나는 저 심연 속으로 잠수하여
환영 속으로 가라앉고 싶구나.
그런데 천사가 나를 저 오래된 기적의 도시로
불러들인 듯 하구나.

(Wilhelm Müller, Vineta, in: ders., Vermischte Schriften, herausgegeben von Gustav Schwab, Leipzig 1830, S. 282,283.)

『모비딕』에 나타난 포경선의 세계일주 항로로 본 19세기 태평양의 정치적 상황

김 낙 현 ■ 한국해양대학교

I.

인간이 언제부터 고래를 사냥하기 시작했는지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고고학에서는 석기 시대 사람들이 배와 작살을 사용하여 고래를 사냥하기 시작한 것이 BC 6,000년 부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울산의 반구대암각화는 선사시대 인간의 고래 사냥을 기록한 가장 오래된 유물이다. 새겨진 대형 고래만 하더라도 46마리가 넘는다는 분석이며, 암각화를 새긴 사람들은 그들의 사냥감을 위해서 작살, 배, 그리고 밧줄을 사용하여 향유고래(sperm whale), 참고래(right whale), 그리고 혹등고래(humpback whale)를 잡았다고 한다(Sfetcu 162).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포경 기술은 더욱 정교해 졌고, 연안 해역에 국한되었던 유럽의 포경업은 북대서양과 북극해 어장을 중심으로 참고래를 주로 포획하였다. 18세기와 19세기 미국의 포경업은 주로 향유고래의 이동 경로를 따라 수년간에 걸친 장거리 원양항해를 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허만 멜빌(Herman Melville, 1819-1891)의 『모비딕』(Moby-Dick; or, The Whale)은 19세기 전반을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미국의 포경선 피쿼드 호가 흰 향유고래 모비딕을 추적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¹⁾

본 논문은 당시 미국의 포경업 현황과 포경선들의 세계일주 항로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반구대 암각화를 통해 고래의 주요 서식처로 잘 알려진 태평양과 동해에서의 이들 포경선의 활동을 새로이 조명해보고자 한다. 『모비딕』은 에이헵 선장의 집요한 복수심으로 나타

1) 멜빌은 자신의 포경선 승선 경험(1841-1842)과 최근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던 낸터컷 선적의 포경선 에식스(Essex)호가 고래와 부딪혀 난파한 사건(1820) 등을 『모비딕』에 담아내었다.

난 인간의 야망과 그 파멸에 대한 알레고리로, 또는 이슈마엘의 인간에 대한 탐구로, 흰 고래로 상징되는 자연과 인간의 대결 구도 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작품이지만, 고래의 생태와 종류, 고래잡이의 방법과 포획한 고래의 해체, 선원들의 업무 등 포경업에 대해 백과사전과도 같이 상세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 작품에 기록된 포경선의 세계일주항로는 19세기의 동해와 주변국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II.

미국의 상업적 포경은 18세기와 19세기 동안 영국을 제치고 세계 포경산업의 중심국가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특히 태평양으로 진출한 포경선들은 엄청난 이익을 거두어들였고 1840년부터 1855년까지는 포경업의 황금기로 일컬어졌다(Burcin 8). 대서양 연안 뉴잉글랜드 지방의 뉴베드포드(New Bedford, Massachusetts)와 낸터컷섬(Nantucket Is.)은 그 중심지로서, 1857년 뉴베드포드에만 329척의 포경선이 등록되어 있었다(Sfetcu 164). 시에 등록된 선박의 숫자와 1항차 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여 단순계산하면, 포경선이 태평양으로 사나흘마다 한 척 꼴로 원양항해를 나선 셈이다. 미국에서 고래잡이의 주목적은 고래에 내장된 엄청난 양의 지방에서 추출한 등유(lamp oil)를 얻기 위한 것이었는데, 고래 기름은 등불용으로서 최상의 품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Sfetcu 164). 포경선들은, 갑판 위로 죽은 고래가 끌어올려지자마자 고래 사체에서 지방을 분리시키는 지방처리 가공설비(rendering equipment which rendered fat from the carcasses)를 갖추고 있었다. 선원들은 지방과 약간의 뼈를 제외하고, 사체의 나머지 대부분은 대개 바다 속으로 도로 집어던졌는데, 한국이나 일본처럼 고래 고기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다.²⁾ 그러나 19세기 말 펜실베이니아주(Pennsylvania)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미국에서의 상업적 포경은 종말을 고했다. 땅속의 원유를 증류시켜 만든 등유가 램프의 고래 기름을 대체하였고, 이후 전기가 점차적으로 등유를 대신하게 되면서 고래 기름에 대한 수요는 1920년대쯤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19세기 미국 경제는 육지의 골드러시(gold rush)와 바다의 웨일러시(whale rush)³⁾라고 할 만큼 경제의 두 축으로 양분된다고 할 수 있다. 땅속의 황금과 물속의 황금인 고래 기름이 근대 미국을 자본주의 강국으로 성장시킨 밑거름이 되었다. 멜빌의 『모비딕』은 19세기 미국의 포경산업과 바다를 향한 뱃사람들의 모험정신을 기록하였다.

이 벌거벗은 낸터컷 사람들, 이 바다의 은자들은 바다의 개미탑에서 기어나와, 해적 같은 세 열강이 폴란드를 분할했던 것처럼, 대서양과 태평양과 인도양을 나누어 가졌다. 미국은 텍사스에도 멕시코를 보태고, 캐나다 위에 쿠바를 얹어도 좋다. 영국은 인도를 몽땅 삼키고, 불타는

2) Sfetcu에 따르면 고래고기의 수요는 20세기 들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급증했다고 한다(162).

3) 포경산업의 황금기를 빚대어 필자가 본 글에서 편의상 붙인 말이다.

깃발을 태양에 매달아도 좋다. 하지만 이 육지와 물의 3분의 2는 낸터컷 사람들의 것이다. 바다는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황제가 제국을 다스리고 소유하듯 그들은 바다를 소유한다.(75)

멜빌은 선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는 1840년에 배를 타기 시작해서 이듬해 태평양을 항해하였다. 첫 번째 소설 『타이피』(Typee, 1846)는 남태평양의 마르키즈 제도(Marquesas Is.)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했던 이국적 경험을 소재로 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듬해 나온 『오무』(Omoo, 1847) 역시 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나다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 1801-1864)과 친교를 맺고 있었던 멜빌은 그의 천재성에 반해 『모비딕』을 헌정할 정도로 정신적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다. 1851년에 발표한 『모비딕』은 1841-1842년 포경선 아쿠쉬넷 호에 승선했던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지만, 정작 작품은 호평을 받지 못했다.

『모비딕』이 혹평을 받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소설인데다, 핵심적인 플롯이라 할 수 있는 흰 고래 모비딕에게 다리를 잃고 복수심에 불타는 에이헵 선장의 모비딕 추적기는 실제 분량면에서 얼마 되지 않는다. 멜빌은 끊임없이 결가지를 치고 중심 플롯에서 벗어나는 서술을 하고 있다. 소설의 화자인 이슈마엘을 통해서 피쿼드 호에 승선했던 다양한 인종의 동료선원들을 관찰하고 다른 포경선과 만나서 선원들끼리 주고받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각 인물들의 내면을 탐색해간다. 특히 고래에 관한 백과사전이라 할 만큼 『모비딕』은 당시에 알려진 바의 고래와 고래잡이에 대한 모든 지식을 망라하고 있다. 고래의 종류와 생태, 고래잡이의 방법, 포획된 고래의 해체와 저장, 포경선에서의 생활 등등이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는 논픽션에 가까운 서사로 인해 19세기 소설로서는 파격적인 면을 지니고 있었고,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는 어려웠다.

작품에는 고래를 쫓아 몇 년씩 세계의 대양을 항해하는 포경선의 항로에 관한 대목이 나온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포경선들은 대서양을 남하한 후 인도양을 거쳐 일본 연근해 어장을 지나 태평양까지의 포경항로를 따라 3년~5년의 장기항해 동안 열린 바다 위에서 선상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모비딕』에서 에이헵 선장은 포경선 선장들의 항해일지를 바탕으로 해도에 모비딕의 예상 이동경로를 정확하게 그려낸다. 이는 작가 멜빌이 포경모선 뿐만 아니라 포경용 소형 배까지 직접 탔던 경험과 포경선의 선장들을 포함한 당시 원양항해자들의 기록을 반영한 것으로, 멜빌은 미국 동부의 모항 낸터컷항을 출항한 피쿼드 호의 항해일정별·수역별·항로별 상황을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작품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태평양에 출몰하는 고래의 이야기와 포경선들의 태평양과 일본 연해까지 진출하는 대목은 대항해시대를 기점으로 아시아와 태평양으로 눈길을 돌린 서구 열강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미국 포경선의 목적지인 ‘남태평양 어장’까지는 뱃길로 1만 5천 해리가 넘는다. 당시 남양행 포경항해(Southern whaling voyage)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장거리 항해다. 미국을 떠나 대서양과 인도양을 항해한 다음에 일본 연안을 가로질러 태평양에 도착하는 항로

다. 난터컷항을 뒤로 한 피쿼드 호는 북대서양 중부에 있는 포르투갈령의 아조레스 제도(Azores Is.)에 기항한 후에는 아프리카 북서부 대서양에 있는 카나리아 제도(Canary Is.)를 끼고 남쪽으로 항진하여 남미 해안을 따라 적도를 통과한 다음 남극대륙 가까이까지 내려간다. 방향을 북동쪽으로 바꾸어 남대서양을 지나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통과하여 인도양에 진입한 포경선은 크로제 제도(Crozet Is.) 인근 해역에서 참고래를 포획한 다음, 수마트라와 자바 섬 사이의 순다해협을 지나 태평양으로 들어서게 된다.

동남아시아 길목인 자바 해 북쪽은 세계일주 항로에 나선 포경선들이 주로 포획하는 향유고래가 많은 수역으로 알려져 있다. 예정된 항로는 필리핀 근해인 태평양의 북서쪽 바다를 항해한 뒤, 키를 북동쪽으로 돌려 항진하며 동중국해(East China Sea)를 지나서는 ‘일본 앞 바다’(far coast of Japan)(442)에서 형성되는 포경 시즌에 맞춰 도착한다. 이렇게 피쿼드 호는 세상 바다의 유명 향유고래 어장을 대부분을 항해한 뒤, 태평양의 적도 선상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에이헵 선장은 고래를 잡아 기름을 얻는 대신에 모비딕을 추적하여 복수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는 적도 부근의 태평양이 모비딕이 자주 출몰하는 바다로 알려진 해역이고, 시기적으로도 모비딕이 출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피쿼드 호는 결국 태평양 한복판 키리바시(Kiribati) 근해에서 모비딕과 만나고 이슈마엘을 제외한 모든 선원들이 죽음을 맞는 것으로 소설은 끝나지만, 『모비딕』에 기록된 포경선의 세계일주항로는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포경선 선장들의 항해일지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몇 년에 걸친 장기 항해 동안 포경선은 계속 바다에 머물러 있었지만, 식수와 식량을 구하고 하급선원을 값싼 임금에 충원하기 위해 항로 부근에 위치한 섬에 잠시 기착할 필요가 있었다. 피쿼드 호에 탄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출신인 식인종 퀴퀘그(Queequeg)를 비롯한 다양한 인종의 선원들은 포경선들이 거쳐간 원양항해의 경로를 반영한다. 『모비딕』 이후 출간된 『엔칸타다스』(Encantadas, 1856)는 멜빌이 포경선의 선원이었을 때, 식수를 구하기 위해 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의 섬에 상륙했던 경험을 소재로 하여 쓴 작품이기도 하다.

태평양에 들어선 미국의 포경선들은 하와이에 들르기는 했지만, 고래가 많은 북태평양 해역에서 악천후를 피하거나 식량 공급을 위해 또 다른 기항지가 필요했다. 특히 일본 남쪽의 태평양 해역이 미국 포경선들의 주요 활동지역이 되면서 일본의 중요성 역시 커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모비딕』에서 이슈마일이 배를 타기 전에 들른 뉴베드포드에 있는 ‘고래잡이 예배당’(Whaleman’s Chapel)의 벽에는 대리석판에 포경선을 탔다가 사망한 이들의 비문이 적혀있다. 그가 읽어 내려가는 비문 중에는 “태평양 근해 어장에서 고래에게 끌려 실종,” “일본 연안에서 뱃머리에 서 있다가 향유고래의 공격으로 사망” 같은 문구가 보인다(42). 포경선이 태평양뿐만 아니라 일본 연안까지 왔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태평양이 포경선원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에이헵 선장은 일본 바다 근처에서 모비딕과 싸우다 다리를 잃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가까이 진출한 미국의 포경선들은 조난을 당하거나 배에서 도망을 쳐서 일본에 상륙해 감금 생활을 하기도 했고, 조난 당

한 일본의 어부들을 구해주기도 하면서 이미 비공식적인 교류를 시작하였다.⁴⁾

1853년 미국 동인도함대 사령관 매튜 페리(Matthew Calbraith Perry) 제독이 군함 네 척을 몰고 동경만으로 진입하여 일본의 개항을 요구하였고, 이듬해에 미·일 화친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미국과 일본 간에는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모비딕』이 출판되었던 1851년과 거의 같은 시기이다. 산업혁명의 결과로 대량생산된 자국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과 원자재 공급지를 확보하기 위한 서구의 식민지 개척과 맞물려 개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본의 개항에 미국 포경선들이 또 다른 이유가 되었음은 분명하다(Burcin ix). 항해에 필수적인 식량과 추가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III.

1852년 미국의 상원의원 시워드(William H. Seward)는 미국의 상업과 기독교의 전파를 내세워 태평양의 탐사와 정찰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포경업을 “인간의 필요에 맞추어 바다의 괴물을 정복”(the subjugation of the monster of the sea to the uses of man)해온 노력으로 언급하였다(Rangno 465 재인용). 멜빌의 『모비딕』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시워드는 일본을 모비딕과 같은 태평양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는 미국이 맞서야 할 괴물로 간주하고 개항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었다. 시워드나 페리와 마찬가지로 멜빌도 19세기 중반의 미국인으로서는 태평양과 일본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멜빌은 남태평양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의 식민주의와 이윤추구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멜빌은 『모비딕』에서 일본을 ‘이중의 빗장을 지른’(double-bolted) 불가해한(impenetrable) 나라로 묘사하며 모비딕과 비슷한 존재로 동일화한다. 하지만 모비딕에게 복수하려는 에이허프의 욕망이 좌절되면서 피쿼드 호로 상징되는 미국 포경선의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는 실패로 돌아간다.

『모비딕』은 반구대 암각화에 포착된 고래들의 서식처인 동해와 연결된 태평양을 둘러싼 19세기 중엽의 정치적 상황까지 그려보게 하는 작품이다. 실제 역사적으로 보자면, 비록 불평등조약이기는 했으나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이후 일본은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된다. 허구의 소설인 『모비딕』에서 찾은 포경선의 세계일주 항로는 근대 이후 축적된 지리상의 발견과 원양항해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서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동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멜빌은 에이허프로 상징되는 서구의 자본주의 추구가 모비딕을 만남으로써 좌절되는 것으로 그리지만, 그의 문학적 상상과는 달리 정치적 상황—미국에 의한 일본 개항—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4) 버신의 논문 24-39쪽 참조.

참 고 문 헌

- 멜빌, 허만. 『모비딕』. 김석희 역. 파주: 작가정신, 2014.
- Burcin, Terry. "Commodore Perry's 1853 Japanese Expedition: How Whaling Influenced the Event that Revolutionized Japan." MA Thesis.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ion and State University, 2005.
- Melville, Herman. Moby-Dick London: Penguin, 2012.
- Rangno, Erik. "Melville's Japan and the 'Marketplace Religion'." Nineteenth-Century Literature. 62.4 (2008) : 465-92.
- "Rock art hints at whaling origins." BBC News, 2004. 4. 20. <http://news.bbc.co.uk/2/hi/science/nature/3638853.stm>
- Sfetcu, Nicolae. Fish & Fishing. Online Publishing. 2015. <http://www.sfetcu.com/language/en/downloads/fish-fishing/>

문무대왕릉에서 발견 했다는 ‘원효결서’의 정체

장 정 태¹⁾ ■ 동국대학교

I. 서론

감은사와 대왕암, 그리고 이견대가 있는 경상북도 월성군 양북면의 동해안 지역은 옛부터 동해구로 불리었다. 신라의 호국이념이 깃들은 성지일 뿐 아니라 만파식적의 현장이다. 감은사에서 동쪽에 위치한 대본 해수욕장앞 동해바다에 떠있는 대왕암은 신라 30대 문무왕의 해중능 또는 산골처(유골을 뿌려놓은 곳)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감은사는 호국사찰이며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이 부왕(문무왕)의 위업을 잇기위해 세운 절이다. 그동안 전설과 삼국유사에 기록으로만 전해져오던 그 실체는 1967년 신라오악조사단(한국일보사 주관)이 동악인 토암산과 동해구 유적조사를 하던중 바닷속에 능침(능의 자리)를 발견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수증능의 주인공인 문무왕은 재위 21년(681년)에 당 고종32년에 봉어했다. 대왕은 평소 지의법사에게 사후를 당부했다. “나는 세간의 영화를 싫어한지 오래다. 죽은후에는 나라를 지키는 용이되어 불법을 받들고 나라를 지키겠다”지의법사가 물었다. “용이라면 축생의 과보(果報)인데 어찌하시렵니까?” 그러자 문무왕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내가 인간세상의 영화를 싫어해온지 오래되었! 소. 만약 좋잖은 과보로 축생이 된다면 그것은 나의

1) 동국대 강사, 비영리법인 삼국유사연구원 부원장, 논문:근대민족종교창고자들의 예언비결 고찰(한국사상과 문화 제51집), 불교계 일본 신종교 한국포교현황-입정교성회를 중심으로-(청소년과 효문화 제15집)의 다수

소망에 본디 합일되는 일시오.”²⁾이 능이 세간에 주목을 끌은 것은 「KBS 역사스페셜」팀에 의해서다.

Ⅱ. 본 론

신라5악조사단은 1967년 5월15일 경북 월성군 봉길리 앞 바다에서 전설로만 전해져 오던 신라 30대 문무왕 수증릉 발견하였다. 발견 8일만인 22일 문화재관리국은 대왕암과 이견대 사적 지정했다. 문무왕이 생전에 사후 용이되어 신라를 보호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이곳에 멀지 않은 곳에 감은사라는 절을 창건하면서 민속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궁기도처로 유명하다. 세계에서 흔치않은 수증릉에 대한 관심은 급기야 발굴조사 작업을 하게된다.

「KBS 역사스페셜」팀은 2001년 3월27일 오전 10시 대왕암에 대한 본격적인 탐사. 3월 28일, 물에 잠긴 부분의 수증탐사에 들어갔다.…… 3월31일. 경주문화재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대왕암의 물을 퍼내보기로 했다.³⁾

대왕암의 신비가 서서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 뜨거운 기대의 순간이 이렇게 기술되고 있다. 1300여 년간 바닷물속에 잠겨 있던 문무대왕릉은 세계 최초의 수증릉이라는 이 능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학계)는 많은 이설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원효결서 1. 2>>⁴⁾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원효성사⁵⁾께서 직접 지었다고 주장되는 이 책을 처음 번역한 미조

2) 『삼국유사』 제2권, 기이 제2 「문무왕 법민」조

3) 『KBS역사스페셜』3, 글 정종목, 효형출판사 2001.

4) 『원효결서』1,2 김중태, 화산문화, 1998.

5) 원효스님은 속성이 설씨, 그의 조부는 잉피공(仍皮公) 또는 적대공(赤大公)이라고 한다. 지금 적대연(赤大淵)곶에 그의 서당이 있다. 아버지는 내말담당이다. 원효는 압량둔 남쪽 불지촌의 북쪽에 있는 울곡의 사리수 아래에서 태어났다. 불지촌이란 마을 이름은 발지촌이라 쓰기도 한다. 원효사의 아명은 舊幢, 제명은 新幢이었다. 당초 그 어머니는 별뿔이 품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나서 원효를 잉태 했는데 해산하려고 할 때에는 오색구름이 땅을 뒤덮었다고 <삼국유사>는 전하고 있다.(『삼국유사』, 제4권, 의해 제5 「원효불기」조)

김중태⁶⁾씨는 자신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에 대해

“1989년 기사(己巳)년의 여름.... 예천에 사는 저자의 고등학교 친구인 동창생 황병호씨의 소개로 윤태첨(尹泰瞻)이란 노인을 만나 얻었다.”⁷⁾ 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윤태첨씨 손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 67년 5월경⁸⁾ 대통령 박정희 초도 순시라는 명목으로 공화당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지원도 할 겸 경주시를 방문할 당시 경북지사 김인(金仁) 경주시장 박수대(朴秀大) 등 지역 유력 인사와 만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경주를 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세계 유일의 수중릉 개봉과 그곳의 정체를 알고싶어 하던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과 조건반사적 충성심이 무모

- 6) 인수위 산하 특별위원회인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김중태 부위원장도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바탕을 둔 국수주의적 역사관을 드러낸 전력이 있다. 김 부위원장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군정 연장과 한일협정 체결 등에 반대하며 민주화 투쟁으로 여섯 차례 투옥된 뒤 1969년 미국으로 강제추방당했다. 박 전 대통령 서거 후인 1980년 귀국해 총선에 나섰다 낙선한 이후 1990년대 들어 전통사상 연구에 전념하며 특기할 만한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1997년 ‘원효결서’라는 비결서를 해석한 책 두 권을 내놓으며 다시 얼굴을 내비쳤다. 원효결서는 원효대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비결로 1967년 박 전 대통령이 경북 경주 앞바다의 문무대왕릉에서 꺼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설이 있다. 하지만 진서인지 위서인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꺼낸 것인지 등은 모두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소문은 김 부위원장의 책에서 처음 등장하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신의 책 <원효결서> 1권에서 “원효결서에 관계된 역사기록은 아무 데도 없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필자인 미조 김중태뿐”이라고 밝혔다. 출간 당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부위원장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 원효의 금강 삼매경론의 일부가 바로 ‘원효결서’이고 나머지는 문무대왕릉 석실에 남아 있다면서 “2000년 후천개벽이 일어나 한반도는 지금의 100배 크기로 변하고 한민족이 세계의 중심세력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주간경향, 2013.03.15, 1167호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1997년 2권짜리 해설서가 나온 <원효결서>가 대표적이다. 해설서를 쓴 김중태씨는 당시 언론과 인터뷰에서 “<원효결서>는 ‘문무대왕 수중릉인 대왕암’에서 1967년 발견된 것으로, 고등학교 동창의 소개로 1989년에 자신이 입수, 10년 동안 풀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책에서 밝힌 자세한 ‘내막’은 이렇다. 1967년, 당시 대통령 박정희는 초도순시 중 경주시 시장과 시 기획실장을 불러놓고 아무도 모르게 문무대왕릉을 열어볼 것을 명령한다. 그해 7월 초순 어느 야밤,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경주시 기획실장은 기중기가 설치된 배를 타고 문무대왕암에 접근, 바닷속으로 잠수해 석관 안으로 들어갔다. 석관 바위틈에 책상 서랍 모양의 손잡이가 5개가 보였는데, 그중 하나를 뽑아보니 반듯한 흰 돌판 위에 글씨가 새겨져 있더라는 것이다. 글씨를 사진 촬영한 뒤, 돌판을 원래의 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원효결서>는 사진 속 글씨 총 467자로 되어 있는데, 그중 16자는 대통령에 보고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지워버리고 현재는 451자만 남아 있다는 것. 1300여 년 전 원효대사가 썼다는 이 <원효결서>에는 1960년대와 61년 사이에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난을 일으키고(庚子辛酉南於亂朴), 박정희가 죽은 후(紫微極熙),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金冠三世) 세 사람이 차례로 대통령을 맡는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김씨는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역사고고학계에서는 울산 앞바다의 문무대왕암 가운데 석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또 “<원효결서>에 따르면 김영삼을 끝으로 대한민국 국호는 사라지고 새롭게 태어난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고 주장했지만 그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호는 계속되고 있다. 참고로 책의 발간연도는 1997년으로,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절이다. (주간경향 | 입력 2009.01.28. 11:23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 7) 『원효결서』1, 김중태, 화산문화, pp.19-20.

- 8) 1967년 5월 1일 박정희 대통령 5.3선거 관련 특별담화 발표, 국립광업연구소 설립
1967년 5월 2일 박정희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부정선거 엄단 및 대국토건설 계획 추진 등 언명
1967년 5월 3일 제6대 박정희 대통령 당선(투표율 83.6% 568만8,666표 획득)
1967년 5월 9일 대통령 국무위원 선거운동 관련 법률제정
1967년 5월12일 국무회의<주택금고법 시행령>통과
1967년 5월13일 공화당, 전국구 공천 후보 29명 발표
1967년 5월15일 신라5악조사단, 경북 월성군 봉길리 앞 바다에서 신라 30대 문무왕릉 발견
1967년 5월16일 박정희 대통령 유세계획 취소
1967년 5월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은 당 총재 자격으로 유세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번복
1967년 5월22일 문화재관리국 대왕암 이견대 사적 지정
1967년 5월26일 박정희 대통령 목포시 처음으로 공화당 총재 자격으로 김병삼 후보 지원연설

한 사업의 시작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추풍령 휴게소에서 두 사람(박수대 경주시장, 한달조 경주시 기획실장. 편집자 주)을 불러놓고 간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말이다. 문무대왕릉을 귀신도 모르게 한번 열어보도록 해요! 집 안 식구에게도, 친구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경주 김씨 문중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 정보부에게도 절대 눈치채게 해서는 안되오? 비밀이 새나가면 임자 등 목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오늘부터 은밀하게 계획을 세워 당장 실행하도록 하시오.”⁹⁾

추풍령 휴게소는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국도 개통과 동시에 상하행선 휴게소가 영업을 시작하였다.¹⁰⁾ 경북고속도로는 1968년 2월 1일 착공하여 1970년 7월 7일 전 구간이 완공 4차선도로로 준공되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설립도 되기전 추풍령 휴게소에서 두 사람에게 문무대왕릉 개봉을 지시한것이다.

이 지시를 받은 한달조는 67년 7월 초순 어느 깊은 밤, 기중기가 설치된 배를 문무대왕암으로 조심조심하며 조용히 접근하게 되었다.¹¹⁾

“대왕암 외곽으로 접근한 배가 기중기로 상석을 들어올리는 순간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잠수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한달조는 재빨리 석관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¹²⁾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KBS 역사스페셜 팀은 양수기를 이용 대왕암 안에 차있는 물을 퍼내는 방식을 통해 접근했다.

“능이 들어난 이후 전자탐사기를 이용 그 파형을 통해 대왕암 중앙의 거대한 바위 밑엔 아무 것도 묻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물을 수도 없는 구조였다. 일반적으로 능은 시신이나 유골을 지하에 묻은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들거나 더 고대에는 거대한 돌을 덮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 거대한 바위 아래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대왕암을 능이라고 할 수 없다” 지하 암반의 절리(節理)가 수직으로 발달되어 있는 반면 거북 등 바위의 절리는 수평이었다.¹³⁾ 또한 이곳은 “문무왕이 묻힌 곳이 아니라 문무왕릉비에 새겨진 ‘분골경진(粉骨鯨津)’이란 글귀는 화장한 뿔가루를 경진(鯨津), 즉 고래가 사는 깊은 바다에 뿌렸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화장한 다음 대왕암에서 그 유골을 뿌린 것이다.”¹⁴⁾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원효결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속에는 문무왕의 어체가 없는 것은 물론 아무런 부장품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석관 주변의 안팎으로 십자모양의 바닷물만 넘실거릴 뿐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다.”¹⁵⁾그러면서도 한달조는

9) 『원효결서』1, 김중태, 화산문화, 1998, pp.33-34.

10) 네이버 지식백과

11) 『원효결서』1, 김중태, 화산문화, 1998, p.36.

12) 『원효결서』1, 김중태, 화산문화, 1998, p.37.

13) 『KBS역사스페셜』3, 글 정종목, 효형출판사 2001, pp.19-23.

14) 『KBS역사스페셜』3, 글 정종목, 효형출판사 2001, p.22.

15) 『원효결서』1, 김중태, 화산문화, 1998, p.37.

잠수복을 입고 석관 속으로 들어갔다고 묘사하고 있다.

“석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바위틈에 책상서랍 모양의 손잡이 5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었다.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손으로 그중 1개의 손잡이를 당겨보니 거짓말처럼 힘 하나 안들이고 쭉 빠져 나오는데 반듯한 흰 돌판 위에 글씨가 새겨있는 것이 보여서 준비한 카메라로 그것을 촬영한 후 원위치에 꽂아 넣었다.”¹⁶⁾

성인남자가 들어가 볼 정도의 석실이라면 상당한 크기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전국 장의사회가 소개하는 관의 크기는

- * 향고급 길이 1960mm 폭 600mm 높이 440mm 두께 44mm
- * 향 평 길이 1960mm 폭 505mm 높이 38mm
- * 향 3단 길이 1960mm 폭 570mm 높이 440mm 두께 44mm이다.

이것이 역사적인 예언서 <<원효결서>>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된 이 책은

“67년 어느 날 한달조가 문무대왕암에서 촬영한 원효결서를 그대로 옮겨 적은 문서를 윤태침 노인에게 내어놓으며 그 해석을 부탁하였다고....필자(김중태 편집자 주)가 윤노인으로 부터 원효결서는 제목을 합쳐 총 467자 가운데 16자가 빠진 451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 16자가 빠지게 된 것은 한달조가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다가 자기 목이 달아난다며 고의로 16자를 지워버렸다.”¹⁷⁾

이 책의 발견이 인정되었는지 한달조는 1979년 9월15일 박정희 명으로 ‘녹조 근정훈장’을 받았다.고 사족을 달고있다.

원효학 연구원이 제공하는 인터넷 검색 결과 원효스님의 저술목록에도 <<원효결서>>라는 제목이 눈에 띄지 않았다. 그리고 <<불교사전>>¹⁸⁾ 원효편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원효 성사 저술유무에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이런 의문은 오래가지 않았다.

“원효결서에 관계된 역사기록은 아무 데도 없고 흥덕왕편에도 역시 없다. 또 있을래도 있을 수도 없다. 이 모두가 민족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때가 이르기까지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해온

16) 『원효결서』1, 김중태, 화산문화, 1998, p.37.

17) 『원효결서』1, 김중태, 화산문화, 1998, p.40.

18) 『금강반야경소』3권, 『금강삼매경론』3권, 『화엄경종요』, 『유마경소』3권, 『해심밀경소』3권, 『법망경소』2권, 『법망경보살계본사기』2권, 『발심수행장』1권, 『섭대승론소』4권, 『대승기신론종요』1권, 『초장관문』2권, 『반주삼매경소』1권, 『아미타경소』1권, 『무량수경소』1권, 『삼론종요』1권, 『대승기신론』2권, 『기신론별기』2권, 『열반경종요』2권, 『판비량론』1권 등 240여 권(『한국불교문화사전』, 불교문화연구원 편, 운주사, 2009, p.321)

원효대사와 문무대왕의 엄청난 권사(權辭)가 작용한 것이다.”¹⁹⁾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필자인 미조 김중태 뿐”²⁰⁾이라며 책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 자체를 막고 있다.

민족의 최대 예언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중태씨는 박정희가 단행한 유신체제 역시 이 책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효결서가 그(박정희 편집자 주)로 하여금 유신을 단행하게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남어난박(南於亂朴)’이라는 글자를 보고 박정희는 대단히 흥분하였고 자신을 신이 점지한 사람으로 확신하기에 이르렀으며 과대망상증이 지나쳐 자신을 몇 천년 전부터 이 땅, 이 백성들이 애타게 기다려오던 정도령으로 착각했다.”²¹⁾

고 밝히고 있다. 원효가 기술한 시기와 내용에 대해

“원효대사가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남기신 글로써 미래의 우리 민족과 세계의 운명을 기록한 예언서(豫言書)이며 결(訣)자는 말씀 언(言)변에 궤를 더한 합성어로서 이미 결정되어진 운명을 뜻하는 것이라고”²²⁾

이 책을 처음으로 김씨에게 전해주었다는 윤태첨 노인의 말을 빌려 기술하고 있다.

“神의 文幸인 원효결서를 받았다는 의미에서 神文王이라고 이름 붙여진 신라31대 신문왕으로부터 146년이 걸려 완성된 東海水口 앞바다 문무대왕암에서 우리 민족과 세계의 운명을 기록한 聖 元曉의 天書가 奉安되던 해인 흥덕왕 2년 서기 827년으로부터 19번째 丁未년이 되는 1967년 丁未년 7월 이 세상으로 나왔다(十九丁未始有世播), 우리나라(나는 土, 라는 水의 뜻)의 지형 모습은 天牛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신수(神獸)의 외뿔(孤角)인데 이 고각의 땅이 38선으로 잘라지면(孤角分土 三入中分) 1960년(庚子)과 1961년(辛酉) 사이에 남쪽에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亂을 일으키고(庚子辛酉南於亂朴) 박정희가 죽은 후(紫微極熙)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金冠三世)의 기구한 운명까지도 원효성사께서 1300년 전에 이미 다 헤아리고 계셨다니!.... 우리나라 예언서의 총결정판이다.”²³⁾

고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이 책의 최대모순은 해방 이후 남북이란 두 개의 이념이 다른 2국 체제 가운데 북한에 대한 기술이 빠졌다는 점이다. 다만

“산하(山河)가 황폐화되어 식량난으로 다 망해가고 있는 오늘날의 북한의 현실과 마지막 운수

19) 『원효결서』1, 김중태, 화산문화, 1998, p.189.

20) 『원효결서』1, 김중태, 화산문화, 1998, pp.41-42.

21) 『원효결서』1, 김중태, 화산문화, 1998, p.311.

22) 『원효결서』1, 김중태, 화산문화, 1998, p.27.

23) 『원효결서』1, 김중태, 화산문화, 1998, 책 후면 표지말

를 한인 하느님이 미리 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다같은 한인 하느님의 직계자손인 북한의 좋지 못한 상태와 앞으로 운명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²⁴⁾

북한 현실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도 문제지만 그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체제에 관한 언급이 없음도 문제점이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남한에 대한 기술부분도 이 책이 안고있는 또 하나의 모순이다.

“금관삼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글귀는 천기귀인(天氣歸人) 유재일월(有載日月) 진인어세(眞人御世)로서 진인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개벽까지는 현실적으로 3년 이상이나 남았고 1997년 12월 대통령선거는 다가오는데 다음 번에 과연 어떤 정부가 들어서며 어떤 인물이 집권하게 될까. 이 점에 관하여 하느님께서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²⁵⁾

“경상도 출신인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의 세 사람을 끝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사라지고 새롭게 태어난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²⁶⁾

“대한민국의 인물로는 이승만, 김일성(金木上昇), 박정희(南於亂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金冠三世) 밖에 없으므로 각 정당 및 무소속의 후보자들은 하느님의 각본에 없는 인물이다.”²⁷⁾

Ⅲ. 결 론

원효의 저술로 주장되는 『원효결서』는 그 진위유무는 윤태첨, 한달조, 김중태 3인 만 증명할 수 있다. 진위 유무와 상관없이 이런류 예언서들이 특정집단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악용된다면 자칫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단시일 내 치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언서>는 과거의 일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주어야 할 것이다. <<원효결서>>는 미래를 속 시원하게 풀어 주었다기 보다 미완으로 남겨놓고 있다. 이 점에 대해 김중태씨 말을 빌리면 문무왕 석실에 아직 해독하지 못한 꺼내보지 못한 4권의 책 속에 그 해답이 있다고 하지만 전자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석실은 존재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구조였으므로 이 점에 대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24) 『원효결서』1, 김중태, 화산문화, 1998, pp.305-306.

25) 『원효결서』2, 김중태, 화산문화, 1998, p.62.

26) 『원효결서』2, 김중태, 화산문화, 1998, p.23.

27) 『원효결서』2, 김중태, 화산문화, 1998, p.64.

“역사를 가르치는 목적은 어떠한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고, 어떠한 역경에도 좌절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시대를 개척해 나갔던 선인(先人)들의 곳곳한 기상을 배워 미래를 맡은 청소년들에게 무한한 희망과 자부심을 키워주는데 있다.”²⁸⁾

미조 김중태씨가 한 말이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의라 생각한다. 그러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원효결서1. 2>>로 인해 원효스님에 관련된 정확치 않은 예언서, 易書 정도를 펴낸 인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이다.

비결서의 저자들을 보면 대부분 역사 속 유명인물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그들은 저런 내용의 비결서를 썼을까 하는 의문에 백승종 교수는 “도선이나 남사고·서경덕 등은 풍수나 점복에 조예가 깊은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살았던 연대와 책이 나타나는 시기 등을 볼 때 직접 저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후대의 저술가들이 차명(借名)을 통해 권위를 빌린 것²⁹⁾이라는 설명이다.

참 고 문 헌

『삼국유사』

주간경향 | 입력 2009.01.28. 11:23 < 정용인 기자 >

『원효결서』1,2, 김중태, 화산문화, 1998.

『한국불교문화사전』, 불교문화연구원 편, 운주사, 2009,

『KBS역사스페셜』3, 글 정종목, 효형출판사 2001.

28) 『원효결서』2, 김중태, 화산문화, 1998, p.49.

29) 주간경향 | 입력 2009.01.28. 11:23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

역사인물 홍가와라와 『홍길동전』을 통해 본 해양문화의 세계

설 성 경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1. 해양문화를 한글소설로 담아낸 허균의 홍길동 이야기

허균은 명문인 양천 허씨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매우 비극적 일생을 살다간 시대의 반항 아요 탁월한 문인이었다. 임진왜란 직전 일본통신사의 서장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허성은 허균의 이복형이다.

허균이 창작한 「홍길동전」은 서출 영웅 홍길동의 일대기를 공간성을 축으로 가장, 사회 조정, 중국을 넘어 먼 남쪽의 천혜적 부국인 섬나라 울도국을 개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홍길동전」의 홍길동을 통하여, 국내에서의 병조판서를 넘어서서 남태평양의 이상국을 개척하는 이민형 강토 확장의 서사를 소설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병조판서 홍길동을 통하여 제시하는 외교 전략 혁신으로서, 홍길동이라는 영웅 전기 해양문화의 개척이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발상을 담은 주제라 할 수 있다.

허균의 유구국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한 남중국해에 진출한 민중영웅을 소재로 해양문화 소설의 창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중국 쪽의 정보가 많았던 허균은 남달리 유구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허균 형제의 스승인 윤희춘은 최부의 외손자로, 1488년에 제주도 범죄자 체포 책임자인 추쇄경차관으로 나갔던 최부가 부친상의 비보를 듣고 육지로 귀환하던 도중 폭풍을 만나 표류하였다 배의 돛대와 닻 등이 꺾이고 부서져 운선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 속에서 망망한 동중국해를 29일 동안이나 표류하였다. 그는 악전고투 끝에 유구국의 남단에 위치한 여나국도를 거쳐 중국 절강성 영파에 도착

한 그는 구사일생으로 생환하여 「표해록」이라는 표류기를 남겼다.

유희춘의 제자였던 허균은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스승으로부터 들은 이 견문에 호기심을 간직하였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3차에 걸쳐 중국 사신 경험, 특히 영빈관에서 유구에서 온 사신과의 대화 등을 근거로 「홍길동전」에서 해양 왕국 유구에 관한 소재를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홍길동전」의 핵심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인 홍길동은 성종 시대 인물이다. 그는 15세기 중반에 조선에서 떠나 남중국 해상에 다수의 섬으로 구성된 해양왕국 유구에 진출하였다. 17세기 초반에 이 작품의 작가 허균은 「홍길동전」 속에서 홍길동을 중국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울도국으로 홍길동이 진출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이처럼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은 소설을 통하여, 전반에서는 서출 허통과 민생 구제의 문제를 담고, 후반에서는 국방과 외교, 특히 해외 개척의 문제를 다루는 국내외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이야기로 제시하였다.

2. 광해군 시대의 유구와 표류인들의 유구에 대한 기록

『조선왕조실록』에는 1546년 2월에 유구에 표착한 제주인 박손 등 12인 동지사편에 북경을 우회하여 송환된 일, 1589년 8월에 진도에 표착한 유구상인 30인을 동지사편에 북경에 보낸 일, 1596년 8월에 동지사편에 1589년 표착유구상인 송환에 대한 감사 자문에 대한 회답자문내용, 1607년 2월에 유구국 중산왕의 세자 상령왕이 자문을 보내어 예물을 보내온 일, 1607년 3월에 유구국 중산왕에게 후의에 답하고 이웃사이에 영원히 우호를 맺을 것을 다짐한 일, 1607년 12월에 유구국왕이 조경사신을 통하여 자문을 보내온 일 등 6건이 「역대보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역대보안』에는 1597년부터 1638년까지 12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선에서 유구에 보낸 자문이 7건, 유구에서 조선에 보낸 자문이 5건이 수록되어 있다. 더구나 이 시기 왕래한 문서중 임란 후의 기록등은 양국이 모두 국난을 의식해서인지, 유난히 명의 책봉국임과 우호교린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다. 예를 들면, 1607년 12월 유구국왕이 사신을 통해 답한 자문의 내용 중에는 형제국으로서 우호교린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구에서는 조선의 광해군의 즉위와 책봉을 축하하고, 조선에서는 도진의 유구침입을 위로한 것에 대한 감사와 교린을 다짐하는 자문을 교환하였다. 즉, 양국 모두 임란이후 새로운 국난위기에 접하게 되면서 교린국으로서 일본에 대한 공동방어라는 입장이 강조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으로 본다면 유구왕과 광해군은 어느 왕 때보다 우의가 돈독한 상황이었다.

3. 홍길동의 유구행과 유구국에서 보여준 홍가와라의 영웅적 활약

1460년 경에 출국한 홍길동 일행은 겨울 북풍을 이용하여 유구에 이를 수 있었다. 그 가능성은 홍길동보다는 이후이지만, 1456년 양성, 1462년 초득성, 1477년 김비을개 등이 표류하여 유구국에 도착했다가 그들의 도움으로 귀환해온 사례가 있었고, 1488년 제주도에 추쇄경사관으로 나갔던 최부가 부친상의 슬픈 소식을 듣고 육지로 귀환하던 도중 폭풍을 만나 표류되어 배의 돛대. 돛. 닻등이 꺾이고 부서져서 운선의 기능이 마비되었는데도 망망한 대양을 29일간 표류한 끝에 살아난다. 그는 오키나와 남단에 위치한 여러 섬을 거쳐 중국 절강성 영파에 도착, 구사일생으로 생환하여『표해록』이라는 표류기를 남겼는데 이런 사건기록으로 보아 홍길동 집단의 어려운 항해이기는 해도 유구 열도에 닿을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려있었다고 보인다.

홍길동 일행은 신유구의 최남단 파조간도에 표착하였다. 홍길동은 흑조현상을 타고 갈 수 있었다. 즉, 호주 지역에서 발생한 바다 속의 거대한 강으로 변한 흑조는 표면에 떠있는 배, 사람, 표류물 등을 간단히 날라버린다. 이 흑조는 북태평양 전역을 회류하여, 그 영향을 받는 지역은 적도대의 호주, 포리네시아 전역, 남아시아, 중국강남, 유구 열도, 조선반도, 일본열도 등 광대한 지역에 걸쳐 있다.

홍길동 일행이 표착한 곳은 하페루마지마(波照間島)는 이시가키지마(石垣島)에서 남서쪽으로 63km, 북위 23°53′ 동경 123°46′에 위치한 이 섬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하지 때에 태양이 통과한다는 북회귀선이 위치하고 있는 일본 최남단의 아주 작은 섬이다.

섬의 둘레가 15km, 상주인구가 약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섬을 홍길동 집단의 제1차 정착지로 지목하는 까닭은 이 섬에 전해지는 전설과 유적, 그리고 이 섬 특유의 지형적 특색 때문이다. 유구 열도 대부분의 섬들이 해안선을 따라 산호초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다 수심이 얕아 선박의 정박이 쉽지 않은 반면에 이 섬은 수차례의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해안의 단애가 잘 발달되어 있어 해안의 수심이 깊고 멀리서도 육안으로 쉽게 상륙지점을 선정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는 팔중산의 영웅‘오야케 아카하찌 홍가와라 탄생지’라는 기념푼말이 세워져 있다.

이곳에서는 오야케 아카하치(赤蜂) 홍가와라의 출생지를 알리는 어악(御嶽)이라는 제사장소가 있다. 이런 자취는 오늘날까지 남은 아카마스타아, 쿠루마타아 제사, 마운가나시이 제사 등은 유구왕부 지배 이전의 팔중산 사회를 풍속이며, 이 신들은 모두가 마레비토, 즉 내방자였다. 이 내방자들은 바다로 통하는 유일한 풍혈(風穴)이기였기에, 백성들은 생명을 걸어 그들을 위한 제사 풍습을 지켜왔다는 사실에서도 이런 가정이 설득력을 지니게 해준다

오야케 아카하치는 일명 홍가와라라고도 한다. 홍가와라의 뜻은 홍씨 성의 큰 우두머리의 뜻으로 해석이 된다. 즉, 홍가와라는 홍과 가와라의 복합어이고, 홍은 홍씨를 뜻하고, 가와라(加和良)는 『팔중산유래기』 등에 보이듯이 두령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홍가와

라는 홍씨 성을 가진 지배자로서의 추장, 즉 홍두령 내지 홍씨 대장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이곳에서의 전설에 따르면, 홍가와라는 머리가 빨강고 귀자의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섬의 동편에 있는 고나의 벼랑에 이어지는 암장에 버려졌었다. 그러나 남쪽 부락에 사는 사람이 구조하여 키웠다. 그 장소는 아카하치, 즉 홍가와라의 출생지로서 죽부정의 사적 문화재로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홍가와라의 모습은 야성의 호협아로서, 용모가 괴이하고, 두발은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고 한다.

20세기에 와서 일본 오키나와인들이 내린 홍가와라에 대한 1935년의 평가는 “봉건시대 강압에 반항하여 자유민권을 주장하고 민중의 격분을 일신에 받아들여 유구 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장래의 신앙의 자유를 염원하였다”고 주장하게 하였다. 이러한 민중의식에 기초한 홍가와라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와 함께 그곳의 교육위원회에서는 1953년에 다음과 같은 추모비를 세웠다.

오야케 아카하치(赤蜂)는 별명을 홍가와라 아카하치라고도 칭하였다. 그는 군웅할거(群雄割據) 시대에 두각을 나타내어 당시 오오하마촌(大浜村)을 근거지로 집단생활을 하였으며 민중의 제왕으로 추앙받았다.

문명 18년(1486년) 오키나와 본도 중산(中山) 왕조의 상진왕은 사신을 야에야마(八重山) 지역으로 파견하여 이리키야아마리 축제를 음사(陰祀) 사교(邪敎)로 규정하여 금지하였는데 이 신앙 탄압에 대하여 섬주민들은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오야케아카하치는 선두에 서서 중산정부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다. 그는 중산에 대한 조공을 3년에 걸쳐 중단하여 중산정부의 반응을 기다렸으나 상진왕은 대리왕자를 대장으로 삼아 구미도(久米島) 신녀인 군남풍(君南風)과 함께 정예부대 3,000명과 병선 46척을 보내 반란 진압에 나섰다. 아카하치는 방전분투(防戰奮鬪)하였으나 역부족으로 패하고 저원(底原)에서 종적을 감추었다. 명종 9년(1500년) 지금부터 454년전의 일이었다. 아카하치는 봉건제도에 대해 반항하여 자유민권을 주장하고 섬주민들을 위해 용감히 싸운 것이다. 싸움에서는 지고 말았으나 그의 정신과 행동은 길이 후세에 전해질 것이다. 여기에 비석을 세움으로써 그의 위업을 기리는 바이다.

이는 상진왕이 이리키야아마리 축제를 음사(陰祀)로 규정하여 금지한 신앙 탄압에 격분하였고, 이에 오야케 아카하치 홍가와라가 선두에 서서 중산(中山)왕부에 대한 조공을 3년 동안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상진왕이 파송한 3,000명의 병사에 의해 오야케 아카하치 홍가와라는 분투하였으나 끝내 패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오야케 아카하치 홍가와라의 반항은 봉건제도에 대한 의로운 저항이었기에 그의 활동은 현대의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관한 기록에서 모반자라고 규정한 것과는 달리 정의를 앞세운 자유민권 운동이었다.

이런 사실들로 본다면, 오야케 아카하치 홍가와라의 유구왕부에 대한 반기는 1차적으로 과도한 세금 착취에 대한 것이었고, 이것은 공물을 바치지 않는 집단 행동이라는 저항운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4. 황윤석의 『보해동이적』에서 전하는 해중의 서생과 홍길동

18세기 후반의 실학자인 황윤석은『보해동이적』에서는「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내 듣자니, 국초에 홍길동이란 자가 있었으니 일동의 서얼 동생이었다. 제주와 호기를 자부했는데, 과거 시험과 청현직을 금지하는 나라 법 때문에 홀연 사라졌다. 뒤에 사신이 명나라로부터 돌아와서 전하여 말했다. “해외의 어떤 나라 사신이 그 왕의 표문을 북경으로 가져왔다. 왕의 성은 쵸인데, 공(共) 자에 수(水) 자가 붙쫘았으니 이는 어떤 글자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길동이 성을 바꾼 것으로 여긴다. 길동이 홀연 혼자 말을 타고 와서 일동을 뵈고, 장수를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고, 며칠을 머무르다 장차 떠나려 하며 울면서 말하기를, “앞으로는 다시 와서 뵈지 못하겠습니다.” 곧 떠나가니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 위엄있는 거동이 이미 다른 사람 아래에 있지 않을 자이니 반드시 길동은 해외에서 스스로 왕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호사자들이 전을 지었다. 정태화가 만난 서생 같은 경우도 또한 길동의 부류가 아니겠는가? 어떤이는 길동의 옛 집터가 장성 소곡리 아래에 남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해중서생」은 재상을 꿈꾸는 서생이 훗날 대재상이 될 정태화의 관상을 보고는 동해바다로 떠나가 한 섬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는 당시에 도학이 밝지 못하고 수습할 만한 인물들이 없기 때문에 용호 같은 호걸들이 이단이나 도적으로 전락함을 해중서생의 이야기로서 언급하면서, 그런 군도의 한 예로 홍길동이야기를 삽화로 제시하였다.

또, 목태림은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도 홍길동의 후손은 안남, 또는 유구일 것으로 서술했다.

북에는 후자국, 유추국, 몽고국, 가달국이 있고, 남쪽에는 유구국, 운남국, 안남국, 면전국이 있다. (원주: 후자국은 저팔계의 후손이고, 안남국은 홍길동의 후손이다)

이처럼, 허균 이후 황윤석, 목태림 등은 유구를 고유구인 대만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허균 또한 고유구인 대만으로 홍길동이 간 것으로 추측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허균은 신유구인 오끼나와 유구를 자기 당시의 외교사를 통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의의 유구개념을 사용했고, 역사적 사건에서는 신유구를 지칭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허균의 「홍길동전」 속의 유구 형상인 울도국은 신·구 유구의 복합적 소재로 활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홍길동전」의 울도국 건설에 나타난 무인도 개척과 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외지의 땅을 개간하여 행복한 생활 터전을 이룬다는 부모국 조보를 모아 소식을 들으면서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애국정신의 반영이며, 민족 특유의 고향생각, 나라 생각에 대한 정신의 반영

이다.

『홍길동전』에서 이상국으로 설정된 율도국은 중국 남경에서 바다로 나간 곳이다. 율도국 자체는 살기 좋은 곳이고 인물이 번성한 곳으로 나오며, 약간의 도적이 있었음은 암시가 되고 있으나 그것은 어느 사회에나 있을 법한 일이며, 불의가 지배하는 곳은 아니다. 그곳은 홍길동의 이상을 펼칠 전혀 새로운 무대로 제시된다. 특히, 작품의 활빈당 활동과 도둑을 훈련시켜 해외 이민 내지 해외 국가 건설은 진취적 사회 개혁의식으로서 작가가 제시한 시대를 뛰어넘은 혁신성의 반영이다.

5. 『홍길동전』은 최초의 해양정치 문화의 시야를 보여준 소설

『홍길동전』에는 율도국은 면적이 수천리나 되고 군사적으로는 사면이 막히어 방어하기에 적절한 천부의 나라이다. 그래서 홍길동이 평소 이 나라는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이상적인 이념을 펼치며 다스려볼만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뜻을 실현하고자 율도국을 공격하여 왕위를 빼앗고자 하던 중 운수가 열려 출격의 기운이 되는 시기를 타서 군사를 일으켜 스스로 선봉이 되고 후장군으로 마숙을 삼아 오만 병사로 출격한다.

또, 율도국을 정벌한 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길동이 성종의 드러가 빅성을 안무하고 우양을 잡아 제장 군졸을 호궤하고 길동이 왕위의 즉하니 을축 덩월 이십팔 일이라 제장을 다 각 " 봉작홀시 마숙으로 좌승상을 삼고 최철노 우승상을 삼고 그 남은 스름을 다 각각 벼슬을 도 " 고 김길노 슈문안찰스를 하여 율도국 삼빅옥십 쥬를 순히게 하니 만쥬빅관이 일시의 천세를 부르고 하례하며 원근 빅성드리 송덕 아니 리 업더라 왕이 인하여 부인 빅시와 도시로 왕비를 봉하고 부친을 추존하여 현덕왕을 봉하고 모친 춘낭으로 디비를 봉하고 빅용 도철노 부원군을 봉하여 궁실을 사급하고 부친 능호를 선능이라 하여 능상의 올라 제문 지어 제하고 모부인 유시로 현덕왕비를 봉하며 환자와 시신을 제도로 보니여 디비와 왕비를 영접하여 오니라 왕이 즉위 삼년의 일국이 티평하여 스방의 일이 업고 국티민안하니 왕의 덕택이 성탕의 비길너라

해양왕국을 장악하여 율도왕이 된 홍길동은 삼십년 동안 왕위에 있는 후 칠십의 나이로 지상의 삶을 마친다. 적송자와 같은 신선의 뒤를 따르고자하여 후원 영락전에 올라 풍악을 즐기고 산천경개를 완상한 후 '세상사를 생각하니 풀끝에 이슬같다. 백년을 산다고 하나 이 또한 부운이라. 귀천이 때 있음이여 다시 보기 어렵도다. 천지정수를 인력으로 못하리라.'라고 하였다. 또 홍길동이 덕치를 베푼 결과로, 율도국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 땅에 떨어져 있

어도 좁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울도국이 제 것만으로도 넉넉한 고른 풍요의 나라가 되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뺏고 빼앗기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세계로 빈부의 심한 격차와 탐관오리의 수탈이 없음 뜻한다. 이런 바른 정치 통하고 사회 윤리질서가 지켜지는 세계를 울도국을 선정한 것도 실은 실재인물 홍길동이 유구에서 펼쳤던 의로운 이웃, 나아가서는 민중의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실재적인 상황과도 상통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김상헌의 제주 체험과 제주에 대한 인식

김 기 림 ■ 조선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섬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주위가 완전히 물로 둘러싸인 땅’이라고 한다. 섬은 물로 인해 육지와 떨어져 있는 공간이다. 땅과 땅이 연달아 붙어 있는 육지와 비교할 때 섬은 떨어짐, 고립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이다. 물을 지나야만 교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공간으로 여겨져 왔다. 조선시대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유배지로서의 이미지가 강했고¹⁾ 조선 역사에서 왕위에서 밀려난 이들은 대체로 섬으로 보내졌다.²⁾ 섬은 육지와 물리적 거리만큼 심리적 거리도 멀었다.

제주도도 육지와 떨어진 고립된 공간으로 여겨졌다. 조선 정부는 목사를 파견하여 통치하였지만 여전히 ‘외파로 떨어진 곳’이라는 일반적 인식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선인들의 마음 속에 제주도에 가는 일은 설레면서도 두려움을 갖게 했다. 김상헌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30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그 체험을 『남사록(南槎錄)』으로 엮었다. 여기에는 제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주 체험의 느낌을 읊은 시가 실려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남사록』을 통해 나타난 김상헌의 제주에 대한 공간 인

1) 최강현, 『한국 기행문학 연구』, 일지사, 1982, 74쪽.

2) 단종은 동강으로 둘러싸인 청령포로 보내졌고, 연산군은 강화도로, 광해군은 제주도로 보내졌다. 인조는 소현세자의 세 아들을 모두 제주도로 보냈다.

식의 구체적인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³⁾

II. 『남사록』에 나타난 공간 인식

김상헌은⁴⁾ 1601년(선조34)년 8월에 제주도로 파견되었다. 길운절(吉雲節)이 소덕유(蘇德裕),혜수(惠修) 등과 함께 제주사람인 문충기(文忠基),홍경원(洪敬源) 등을 꺾어 제주목사와 다른 수령을 죽이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실패했다. 20여 명이 서울로 압송되어 처결 받았을 뿐 그 외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용서하기로 했는데 백성 가운데 혹 벌을 받을까 불안에 떠는 이들이 많았다. 조정에서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김상헌을 안무사(安撫使)로 파견했다. 이에 김상헌은 1601년 8월 10일 임금께 하직인사를 하고 서울을 떠나 9월 20일 해남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9월22일에 제주도 애월방호소쪽에 도착했다. 이후 안무사로서 제주 백성을 안심시키고 제주 섬 전체를 돌며 곳곳을 시찰하였다. 해를 넘겨 1602년 1월 25일 제주를 출발하여 2월 14일 서울에 도착하여 임금에게 보고했다. 약 4달간 제주에 머물면서 그 체험을 『남사록』으로 엮었다.⁵⁾

그가 제주에서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일도 있도 있었지만 그 외 한라산 정상에서 제사지내기, 전현직 수령들이 현명한지 조사하기, 산성의 형세와 민정 살피기, 국마(國馬) 수, 목자(牧子)의 호수, 삼읍(三邑)의 군인 및 호수 수 조사, 군기(軍器), 군량, 기계(器械), 전선(戰船) 등의 수를 조사하기 등이 있었다. 안무어사로 파견되기는 했지만 민정을 살피고 행정 및 군사적 정보를 파악하는 일도 포함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들은 제주도 전체를 직접 시찰하여야 문서 작성과 보고가 가능했다. 이에 김상헌은 제주도에 있는 군사적 요충지를 직접 가 보았고 그 과정에서 제주의 경치 및 민간을 가깝게 접할 수 있었다. 『남사록』에

3) 최두식(『남사록소재지의 해양소재연구』, 『석당논총』18집,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2.) 해양 소재 중심으로 연구했고, 임홍선(『김상헌의 남사록』, 『제주교육대학교논문집』23, 1994.)은 『남사록』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노정과 제주의 풍토에 대한 기록, 제주민들이 겪는 폐단 등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그리하여 제주 향토사 연구에 있어서 『남사록』이 차지하는 위상 및 성격을 밝혔다. 이상순(『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2005)은 『남사록』의 구성, 내용 등을 살피고 기행문학적 가치가 있는 자료임을 밝혔다. 부영근(『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고찰』, 『탐라문화』29호, 탐라문화연구소, 2006)은 제주의 자연, 풍속, 제주민의 실정 등을 서술한 것을 살피면서 『남사록』 기록의 정확성, 객관성을 규명했다. 왕소명은(『김상헌의 <남사록>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2007) 『남사록』이 쓰여진 배경을 조사, 그 기행문학적 성격과 한시에 나타난 서정의 양상을 고찰하면서 『남사록』의 문학사적 의미를 규명했다. 황만기(『남사록에 나타난 청음 김상헌의 작가의식』, 『동방한문학』36, 2008.)는 『남사록』을 통해 김상헌의 사회의식, 실록의식, 역사의식 등의 구체적 내용을 드러냈다.

4) 김상헌(1570~1652)의 호는 청음(淸陰), 석실산인(石室山人), 서간노인(西澗老人)이다. 자는 숙도(淑度) 아버지는 김대효(金大孝)이고 어머니는 정유길 딸이다. 1596년 임진왜란 중에 문과에 급제했다. 1611년 정인홍이 이연적·이항을 배척하자 이에 반대하였다. 인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과 사돈지간이었는데 인목대비가 서궁에 유폐되자 그 일로 인해 파직당하기도 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최명길이 청과 화친할 것을 주장하면서 항복문서를 작성했는데 이 때 김상헌은 척화정책을 주장하면서 항복문서를 찢기도 했다. 1639년 청이 조선에 출병(出兵)요구를 해오자 반대 상소를 올렸고 이 일이 청에 알려져 청의 수도였던 심양으로 끌려갔다. 1644년 소현세자가 돌아올 때 같이 왔다. 1652년에 83세로 사망하자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문정(文正)이란 시호를 받았다.

5) 『남사록』의 판본은 모두 3개이다. 김수증이 정리한 것으로 김수증의 책 『와유록』에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본은 4권2책으로 규정되어 있고 서문이나 발문을 없다. 또 다른 판본은 영인본으로서 1977년 김상헌의 14대손인 김창현이 『청음유집』을 엮으면서 남사록을 수록했다. 홍기표,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소재 기사 오류 및 쟁점』, 『한국사학보』40, 고려사학회, 2010.

는 이런 임무를 수행하면서 파악한 제주의 지리적, 행정적, 군사적 정보를 담았고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심회를 읊기도 했다. 그래서 남사록은 산문과 시가 함께 섞인 형태의 기행 기록이다.⁶⁾

대체로 산문 기록은 객관적이고 실제적 성향이 매우 강한 반면 시는 서정적 성향이 강하다. 그리하여 제주에 대한 김상헌의 공간 인식 양상을 살피는 데에는 시가 더 적절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남사록』에 실린 시를 중심으로 김상헌이 제주도라는 공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1. 삶의 고난과 가난한 땅

民知畏吏不知親 백성은 관리를 두려워할 줄만 알고 친할 줄 모르며
自視千金未敢珍 스스로 천금을 갖고도 보배로 여기지 않는구나
聞說向來多枉死 들으니 횡사하는 이들이 많다하니
可憐孤寡幾家人 가련한 고아와 과부는 대체 몇 집이란 말인가⁷⁾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고서 쓴 시이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라서 남자들은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는다. 또한 제주도는 생필품을 생산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어서 육지와와의 교역을 통해 얻어야 한다.⁸⁾ 이 일을 위해 바다를 왕래해야한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육지로 오는 바닷길은 위험하여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공간이며 실제 많은 제주도 남자들이 죽는 공간이다.⁹⁾ 이에 대해 김상헌은 ‘공물을 바치는 상선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어지는데 바닷길을 험하고 멀어 자주 표류하거나 침몰된다. 그 때문에 제주 사람을 딸을 낳는 것을 귀히 여긴다.’¹⁰⁾ 고 하면서 여자의 수가 남자보다 3배가 많다고 하였다. 딸의 출생수라기 보다는 죽는 남자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나온 숫자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제주도 여성은 과부로서 사는 시간이 많으며 자식들은 아버 잃은 고아로 살아가는 공간인 것이다.

더구나 제주도의 관리들의 횡포는 육지 관리들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하다. 또 다른 시에서 김상헌은 ‘조인후와 김응남은 맑고 깨끗한 관리였으나 그 후에 온 관리들의 탐욕이 백성의 삶을 피곤하게 한다.’고 비판하였고¹¹⁾ 제주도 백성들로부터 여러 가지 폐단을 경정한 후 ‘수령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포악한 행동을 하며 명분도 없이 강제로 빼앗는

6) 부영근,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고찰」, 『탐라문화』29호, 2006.

7) <補托羅歌散次占畢齊韻> 제1수, 『남사록』.

8) 이런 사정은 『남사록』에도 나타난다. 농기구가 너무 작아 그 이유를 물으니 바위와 돌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대정(大靜)에서 목화를 심는데 꽃 피운 것이 육지와 같지 않아 겨우 옷과 솜을 만들 뿐이고 삼과 모시는 비록 나기는 하지만 실을 뽑아 옷을 만들 정도는 아니니 모두 토질이 척박하기 때문이다. 또 지방민들이 양잠을 좋아하지 않아 입을 옷을 구하려면 이곳에서 나는 해물을 가지고 육지에서 교환해 들여옵니다.’라고 하였다. 『남사록』상 96쪽.

9) 황만기, 『남사록에 나타난 청음 김상헌의 작가의식』, 『동방한문학』36, 동방한문학회, 2008, 90쪽.

10) 『남사록』상 96쪽.

11) 通判趙侯金節制 共言清簡古今無 年來漸見苞苴重 憔悴民生困百須 <補托羅歌散次占畢齊韻> 제6수, 『남사록』.

일'등이 한심하다고 한탄하였다. 더구나 제주도의 산물-귤, 말, 각종 해산물-등은 풍요로울 뿐 아니라¹²⁾ 상당히 좋은 물건들인데 이것이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곤궁하게 한다고 하였다.¹³⁾ 그리하여 시에서 '스스로 좋은 물건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보배'로 인정하는 순간 관리들에게 빼앗기거나 토산물 공물로 바쳐야하므로 고난에 찬 삶으로 역전되기 때문이다.

제주도 백성들의 이런 삶에 대해 김상헌은 '신인은 가버리고 백성 살림 가난한데 척박한 땅'이라고 평가한다.¹⁴⁾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보호해줄 신인은 사라지고 가난한 백성, 척박한 땅만 남은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김상헌은 제주도가 척박한 땅과 풍부한 해산물로 인해 백성의 삶이 고난스러움을 가득 찬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신선의 땅, 자랑하고픈 공간

제주도 백성의 삶이 곤궁한 공간으로 인식하면서도 김상헌은 제주도가 자신에게는 일종의 선계(仙界)임을 드러낸다. 특히 한라산, 성산, 우도, 송악산 등을 돌아보면서 그 곳을 선계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런 공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곳에 실제로 와서 그 땅을 밟아본 데 대한 자랑심이 발동한다.

乃知仙藥百千般 백천 가지 선약 있는 줄 알건만
箇裏分明有煉丹 그 중에 분명 연단도 있으리라
收拾鐺中九轉後 솔 안에 모아 넣어 아홉 번 찼 후에는
定應白日可飛翰 응당 한낮에도 높이 날 수 있으리라.

我來得觀神仙宅 내 여기 와서 신선세계를 보게 되었으니
採了天台劉阮藥 천태산 유원의 약을 캐 수 있겠지
願學麻姑看海桑 마고선녀가 상전벽해 봤던 일을 배워서
應將此身壺中托 이 몸을 별천지에 의탁하고 싶구나¹⁵⁾

이 시들은 제주도에선 연작(連作)한 35수 가운데 제 32수, 제33수이다. 여기서 김상헌은 제주도를 신선의 공간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선약을 구해 단련하여 그것을 먹고 신선이 되는 상상을 한다. 유원(劉阮)은 유신(劉晨)과 원조(阮肇)인데 둘다 약을 캐러 천태산에 들어

12) 更誇物產荊揚府 珍寶精華那可數 玳瑁蟻珠貝與螺 靑皮白蠟石鐘乳.『남사록』

13) 此是弊之最鋸者 若其上供無益之難得者 海產尤物之禍民者 及守令誅求侵虐 無名抑奪之事種種 寒心不可彈說.『남사록』(11월)18일, 임자.

14) 神人已去留空穴 民產恒貧只薄田.<題館壁>,『남사록』정월11일 갑진(1602년 1월 11일 조)

15) 『남사록』

갔다가 여인을 만나 부부가 되어 반 년간 산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니 이미 7대가 지났다고 한다. 두 번째 시에서 김상헌은 ‘신선과 같이 불사(不死)’하고픈 욕망을 드러내며 그것을 성취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제주도라고 여긴다. 별천지는 신선들이 사는 공간으로 세속의 근심 걱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곧 제주도와 육지, 신선세계와 세속이라는 대립적인 공간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송악산에 가서는 ‘신선을 만나보며 가벼이 날아 올라 신선이 되어 봉래산으로 곧장 갈 수 있을 것만 같다.’고 토론한다.¹⁶⁾ 자신이 이런 신선세계를 직접 와서 노닐 수 있었음을 기뻐하며 ‘서울의 친구들에게 꿈에서나마 엿보게 해주겠다.’는 자랑을 늘어놓기도 하고¹⁷⁾ 이런 좋은 풍광을 경험했으므로 그것을 갖고 남은 평생 지내겠다는 다짐도 한다.¹⁸⁾ 육지에서 떨어진 그 격리감만큼 상상의 거리로 바뀌면서 속세의 공간에서 신선의 공간으로 옮겨간다. 즉 제주도는 이러한 상상이 가능한 공간이며 상상적 거리로 인해 신선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3. 고립의 공간, 떠나고 싶은 공간

제주도가 육지, 특히 세속 공간인 서울과 떨어진 만큼 상상적 공간이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한편으로 바로 그 격리된 거리만큼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공간이 되며 그래서 떠나고 싶은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豈獨瀛洲在此地 신선 사는 곳이 어찌 이곳뿐이라
求之人世不難致 인간 세상에서도 구하지 어렵지 않지
莫如還向華山陽 화산 남쪽으로 돌려보내는 것만 못하리니
保我平生伊尹志 평생 이윤과 같은 뜻을 지키리라¹⁹⁾

이 시는 제주도에 대해 읊은 35수의 마지막이다. 제주의 위치, 역사, 경승지 등에 관해 읊은 시인데 맨 마지막에서 ‘신선 사는 곳이 어찌 여기뿐이겠는가’라는 말로써 제주도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제주도가 육지와 떨어진 별세계임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른 공간으로 가 신선 사는 세계를 찾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다. 그가 지향하는 이는 이윤이다. 이윤은 은나라 탕왕을 도와 선정을 베풀어 백성의 삶을 편안케하였다. 평소 ‘임금을 요순처럼 만들지 못하면 부끄러울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살 곳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죄이다.’라고 했다.²⁰⁾ 김상헌이 이윤의 뜻을 지킴은 ‘신하

16) 由來此地號瀛洲 環海名山摠可遊 天嶺露臺臨萬刃 石盤雲骨老千秋 笙簫夜月逢仙侶 簾幙春風見蜃樓 便覺飄飄成羽化 凌虛直欲到蓬丘.<松岳山>『남사록』

17) 淸都舊侶如相念 應許他年夢裏窺.<牛島>『남사록』.

18) 風煙盡付奚囊去 更信吾窮坐愛詩.<大精道中>『남사록』

19) 『남사록』

20) 予弗克俾厥后惟堯舜 其心愧恥 若撻于市 一夫不獲 則曰時予之辜.<열명 하(說命下)>『서경(書經)』

로서 왕을 잘 보좌하여 훌륭한 왕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말이다. 신선 세계는 잠시 머물 수는 있지만 영원히 몸 담고 있을 만한 공간은 아니다. 이미 있는 신선 세계보다 오히려 근심 없는 신선 세계와 비슷한 세속 공간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떠나고 싶은 공간으로 다가온다.

이런 마음은 제주도가 고립되고, ‘떨어진’ 공간이라는 점을 자각할 때 더 강해진다.

東風正月兩番吹 정월에 동풍이 두 번이나 불었는데
 吹則相期猛雨隨 바람 불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사나운 비가 뒤따랐네
 病母倚門王事了 병든 모친이 날 기다리고 왕사도 다 마쳤는데
 天翁留我欲何爲 천옹은 날 잡아두어 무엇하려고 하시는지.²¹⁾

제주도의 삶에서 바람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 김상헌은 『남사록』에 북풍, 서풍 등 바람의 방향까지 기록하고 있다. 바람 방향에 따라 배를 띄우는 일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 만큼 제주도는 바다에 의해 육지와 단절된 절대고독의 공간이다.²²⁾ 집과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다. 부모도 기다리고 더구나 제주도에 왔던 목적을 다 완수한 때에 그 곳에 머무는 일은 의미가 없다. 그리하여 궂은 날씨가 계속되자 자신을 붙잡아두는 천옹을 원망하기까지 한다.

이처럼 제주도는 신선 세계로 잠시 머물다, 유람하다 가는 공간일 뿐 영원히 머물러 지내는 데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다. 이런 인식은 김상헌이 30대 초반의 나이였으므로 세상에서 자신의 포부를 펼치고자 하는 의욕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이윤처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고자 했으므로 고립된 공간은 떠날 수밖에 없는 곳이었던 것이다.

Ⅲ. 나가는 말

김상헌이 제주도에 파견되었을 때는 32세였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반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임시로 갔던 길이었다. 출발할 때부터 ‘돌아온다.’는 기약이 있었다. 따라서 그에게 제주도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유람하는 공간이었다. 제주도는 김상헌의 포부를 펼칠 수 있다가 펴질 만한 공간이 아니었던 것이다. 김상헌은 제주도를 신선의 세계,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가진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제주 체험을 자랑거리로 여긴다. 그것은 남들이 가기 어려운 공간에 들어가 그 신비함과 승경을 체험한 데에서 나오는 자부심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육지와 떨어져 있는 데다 험난한 바닷길로 ‘막혀’ 있기 때문에 고립된 공간으로 인식한다. 또 그 공간은 임금이 있는 곳도 고향-가족을 비롯하여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곳-도 아니다. 그리하여 김상헌은 제주도를 자신을 가둬두는 공간, 외로움과 향수

21) <阻風 戲成俳優體五絶> 중 제1수, 『남사록』

22) 김세미오, 「고독한 공간, 제주에 대한 제 인식」, 『한문학논집』 37집, 한국한문학회, 2013, 164쪽.

를 촉발하는 공간으로 그려내며 떠나야 할 공간으로 인식한다. 제주에 대한 이러한 양가적인 인식은 계도 대상으로서의 제주와 왕의 교화가 잘 이루어진 서울이라는 당시 통념 위에 있는 것이다. 즉 제주라는 공간은 잠시 ‘승경 유람을 위해 잠시 머무르는 공간’일 뿐 ‘영원히 살 곳’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따라서 『남사록』 속의 제주는 ‘해외 공간’으로서 취급했던 조선시대 제주도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참 고 문 헌

- 김상헌, 『남사록』, (홍기표 역주), 제주문화원, 2009.
 부영근,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고찰」, 『탐라문화』 29호, 탐라문화연구소, 2006, 99~124쪽.
 왕소명, 「김상헌의 <남사록>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2007.
 이상순,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2005.
 임홍선, 「김상헌의 남사록」, 『제주교육대학교논문집』 23, 1994, 43~58쪽.
 최두식, 「남사록 소재시의 해양소재연구」, 『석당논총』 18집,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2, 59~81쪽.
 황만기, 「남사록에 나타난 청음 김상헌의 작가의식」, 『동방한문학』 36, 동방한학회, 2008, 73~104쪽.
 홍기표,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소재 기사 오류 및 쟁점」, 『한국사학보』 40, 고려사학회, 2010, 147~182쪽.

〈최척전(崔陟傳)〉에 나타난 바다의 의미

옥영(玉英)의 귀향을 중심으로 -

이 채 경 ■ 성균관대학교

1. 서론

전기(傳奇)는 중국 당대(唐代)를 대표하는 문학 양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나말여초(羅末麗初)에 출현하여 17세기를 전후하여 성행하였다. 애초 신라 문인층에 속한 전기 작가들은 대부분 애정갈등을 주제로 하여 사회 모순을 반영하고, 아울러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불평한 심경을 담아냈다. 이후 17세기에 이르면 다양한 인물을 등장시켜 신비롭고 낭만적인 작품은 물론, 역사적 전란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근대 소설에 가까워진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이른바 애정전기 내지 전란소설로서 <최척전(崔陟傳)>¹⁾에 대해서는 풍성한 연구 성과가 이루어진 상태다. 즉, 동아시아적 사건과 서사에 대한 것,²⁾ 작품내 공간과 노정(路程)에 대

1) <최척전>은 <奇遇錄>이나 <흥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유사한 내용이 전하며, 서울대학교 소장본과 고려대학교 소장본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박희병 교수가 두 필사본을 교주하여 펴낸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소명출판, 2007)를 텍스트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2) 정환국, 「16~7세기 동아시아 전란과 애정전기」, 『민족문학사연구』15, 민족문학사연구소, 1999.; 진재교, 「越境과 敘事 - 동아시아의 서사 체험과 '이웃'의 기억」, 『한국한문학연구』46, 한국한문학회, 2010.; 강동엽, 「최척전에 나타난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어문론총』4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이채경, 「<최척전>에서의 동아시아 인식」, 『국제언어문학』18, 국제언어문학회, 2008.

한 것,³⁾ 전기소설과 야담의 관련성에 대한 것,⁴⁾ 가족의 이산과 재회를 담아낸 타 작품과의 비교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 다채로운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최척전>은 17세기는 물론 조선후기 한문소설 작품 중에서도 뛰어난 문학적 성가를 얻었다고 평가되었다.

2. <최척전>의 공간적 배경

조선은 중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과 일본 및 중국을 아우르는 동아시아적 전란은 각국의 문학에도 영향을 끼쳐 전란을 소재로 한 ‘전(傳)’, ‘전기(傳奇)’, ‘실기(實記)’, ‘몽유록(夢遊錄)’ 등 여러 한문학 장르에서 다기한 작품을 양산했다. 다시 말해 임병양란은 동아시아 각국을 혼란에 빠뜨린 동시에 각국의 변화를 주도한 일대 사건이었다. 따라서 임진왜란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동아시아라는 공간적 배경을 아우르는 <최척전>은 일가족의 드라마틱한 삶을 실감 있게 보여준다.

조위한(趙緯韓, 1567~1649)의 <최척전>은 임진왜란을 시작으로 조선과 일본 및 중국, 나아가 베트남 등지를 떠돌며 전란에서 겪는 백성의 고통과 가족의 이산을 그려낸 작품이다.⁶⁾ 이야기는 최척(崔陟)과 옥영(玉英)이 살던 조선의 남원(南原)에서 출발하여 지리산(智異山) 연곡(燕谷)과 섬진강(蟾津江)을 거쳐 일본의 나고야[狼姑射]와 중국의 요양(遼陽)으로 공간이 확장된다. 그리고 베트남(安南)의 항구를 지나 다시 중국의 항주(杭州) 등지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육지를 통해 조선으로 향하거나 해로를 이용해 조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서 각국의 대표 공간이 지닌 의미는, 일찍이 ‘중국이 최척의 유랑지(流浪地)’였다면, ‘일본은 옥영의 안착지(安着地)’였으며, ‘베트남은 부부의 재회지(再會地)’로 정리되었다.⁷⁾ 그런데 본고에서는 임진왜란 때문에 이들 부부가 이별했다가 재회한 뒤에 다시 헤어진 다음, 육로와 해로를 이용해 귀향하는 과정에 주목하려 한다. 예컨대 중국의 항주에서 다시 헤어진 부부가, 최척은 육지를 거쳐 조선으로 돌아오고, 옥영은 해로를 통해 귀국하는데, 특히 바다를 건너 귀향하는 옥영의 노정이 주목을 끈다.

어찌 보면 <최척전>은 사랑하는 남녀 주인공과 그들의 단란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동

3) 김현화, 「<최척전>의 노정 공간 연구」, 『어문연구』70, 어문연구학회, 2011.; 신태수, 「<최척전>에 나타난 공간의 형상」, 『한민족어문학』51, 한민족어문학회, 2007.

4)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5) 김경미,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다시 읽는 <최척전>」, 『고전문학연구』43, 한국고전문학회, 2013.

6) 실제로 작가 조위한도 임진왜란 때 남원으로 피난을 갔다가 딸과 어머니를 잃었으며, 정유재란 때는 부인과 사별하고, 제수 [조찬한의 처]의 순절을 목도한 처지였다(『玄谷集』3, <祭亡子倚文>과 『玄洲集』15, <玄洲趙公墓碣銘> 참조).

7) 졸고(2008) 참조.

아시아 4개국을 떠도는 배경에, 전란으로 인한 피난과 피로(被虜) 및 귀국과 귀향 과정에 육로와 해로를 모두 이용하는 방대한 스케일의 작품이다. 21세기에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해도 좋을 만치 흥미로운 등장인물의 굴곡진 인생 역정, 대담하고 변화무쌍한 사건 전개, 전란과 30년이라는 시간 및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공간적 배경 등을 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최척전>에 나타난 공간적 배경 가운데 바다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옥영의 귀향과 바다

임진왜란 때문에 지리산 연곡으로 피난을 갔던 최척 일가는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서 최척은 명나라 장수 여유문(余有文)을 따라 중국의 요양으로 떠나고, 옥영은 왜장 돈우(頓于)에게 끌려가 일본의 나고야에서 생활한다. 또 최척의 아버지와 옥영의 어머니는 지리산 연곡사(燕谷寺)에서 손자 몽석(夢釋)을 찾아 집으로 돌아간 처지였으니, 일가족이 생이별한 채 중국과 일본 그리고 조선 땅에서 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로 중국 상선과 일본 상선이 베트남 항구에 정박하면서 최척과 옥영은 재회하게 된다.

경자년(1600) 봄에 최척은 송우를 따라 한마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베트남으로 장사하러 갔다. 이때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포구에 정박해 있었다. 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이튿날이 되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고왔다.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간이 물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⁸⁾

여기서 바다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장소로 그려진다. 날씨가 좋아서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마저 그친 상태다. 게다가 밤이 되자 사방은 조용하고 사람의 그림자도 하나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바다에는 물결도 잔잔하고,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인용문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이후 최척의 통소소리와 옥영의 시 읊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에 울려 퍼지며 서로 존재를 확인하고 눈물로써 재회하는 순간이 펼쳐진다.

그런데 이는 최척과 옥영 부부가 이국(異國) 땅에서 재회하는 대목일 뿐, 본고에서 다루기로 한 옥영의 귀향길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베트남의 항구, 즉 바다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연관되기에 미리 살펴보았다.

당초 최척과 옥영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지낸 곳도 남원이고, 전란으로 인해 헤어지고 만나는 과정을 반복하며 마침내 되돌아가려는 곳도 남원이다. 그런데 남원은 최척에게는 고향이고, 한양에서 전란을 피해 내려온 옥영에게는 제2의 고향인 셈이다. 그러기에

8) <최척전>. “歲庚子春 陟隨佑 與同里商舶 往賈於安南 時有日本船十餘艘 亦泊于浦口 留十餘日 因值四月 旁死魄 天無寸雲 水光如練 風息波恬 聲沈影絕 舟人牢睡 渚禽時鳴.”

술한 역경을 이겨내며 가족과 재회하고 다시 행복한 여생(餘生)을 보내는 곳도 남원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항주에서 생활하던 최척과 옥영에게 남원은 너무나 먼 곳이었고, 사선(死線)을 넘나들 만치 되돌아가기 힘든 곳이었다.

옥영이 마음을 돌려 이렇게 말했다. “(전략) …… 너는 배를 빌리고 양식을 준비해라. 여기서 조선까지는 뱃길로 2천~3천 리밖에 안 되니. 하늘이 도와 순풍을 만난다면 열흘 남짓 만에 해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게다. 내 계획은 이미 섰다.”

그러자 몽선이 울며 호소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조선에 닿을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만 리 바닷길을 뚫단배 한 척으로 어찌 건넌답니까? 바람과 파도며 상어와 악어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있을 테고, 해적선이나 경비선이 도처에서 우리를 가로막을 거예요. …… (후략)”⁹⁾

중국의 항주에서 생활하던 옥영은 남편의 생사조차 모른 채 하루하루 타국에서의 삶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죽기로 결심하지만, 장육금불(丈六金佛)이 꿈에 나타나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만류하여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리고 어떻게든 최척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던 고향 남원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한다. 아직 신혼인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떠나기에는 너무나 멀고 험한 뱃길이었으나, 그녀는 둘째아들 몽선의 눈물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다. 드디어 옥영은 절강(浙江)에서 배를 띄워 서해(西海)로 나와 파란만장한 귀국길에 오른다.

여기서 몽선이 걱정하는 것은 먼저 바람과 파도, 상어와 악어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다. 험난한 뱃길이다 보니 제일 위험한 것이 거센 바람과 그로 인해 거칠어지는 파도였으리라. 순풍이 불어주면 더없이 순탄한 귀국길이 될 테지만, 바다란 천기(天氣)를 점치지 못하는 곳인지라 자칫하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그래서 바다에 빠지기라도 하면 상어나 악어에게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런 천재가 아니어도 해적선이나 적국의 경비선 등에 의해 인재를 당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옥영은 아들과 며느리를 독려하며 용감하게 항해를 떠난다.

옥영이 몽선에게 말했다. “조선은 동남쪽에 있으니 서북풍이 불기를 기다려야 한다. 너는 노를 잡고 앉아서 내가 지시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해라.” 옥영이 깃대 끝에 깃털을 매달고 뱃머리 쪽에 나침반을 두었다. 그런 다음에 배 안을 일일이 점검해 보니 갖추지 못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 이윽고 바다에는 복어가 뛰어올라 노닐고, 깃대에 매단 깃털은 계속 동남쪽을 가리켰다. 이에 세 사람이 힘을 모아 돛을 올리자, 배가 바다를 가로질러 쏜살같이 나아갔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벼락이 물결을 때리고 우레가 바다를 치듯 순식간에 등주와 내주를 지나고 다시 잠깐 사이

9) <최척전>. “玉英幡然曰 …… 汝其雇船舂糧 此去朝鮮 水路僅二千里 天地顧佑 倘得便風 未滿旬朔 當到彼岸 吾計決矣 夢仙泣訴曰 母親何爲出此言也 若能得達 則豈非大善 而萬里滄波 非一葦可航之地 風濤蛟鱷 爲禍不測 海寇邏船 到處生梗.”

에 청주와 제주를 지났다. 망망한 대해에 섬들이 떠 있다가 돌아보면 이내 보이지 않았다.¹⁰⁾

깃대에는 깃털을 매달아 바람의 방향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뱃머리에는 나침반을 두어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옥영은 혹시라도 빠트린 물건이 있나 꼼꼼히 점검한 뒤에 아들에게 방향기를 잡도록 했다. 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사히 조선 땅에 닿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순식간에 해안을 벗어나 쏜살같이 망망대해에 도착한다.

이 때 바다는 복어가 뛰어올라 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어쩌면 ‘복어’가 ‘복(福)’을 가져다주는 생선이라 여기며 무사항해를 기원하는 의도였으리라. 드디어 깃털이 가리키는 방향을 지켜보며 돛을 펼치자, 배가 바다를 향해 재빠르게 나아가면서 세 사람에게 부푼 희망을 안겨준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던가. 어렵게 귀향할 결심을 굳히고, 완벽하게 항해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이제 바다와 바람에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하루는 명나라의 경비선을 만났는데, 경비선의 군졸이 이렇게 물었다. “어느 곳에서 온 배이며, 어디로 가는 중인가?”

이에 옥영이 중국말로 대답했다. “저희는 항주 사람입니다. 산둥으로 차를 팔러 갑니다.” 그러자 경비선은 그냥 지나갔다.¹¹⁾

귀향하던 옥영 망망대해에서 첫 번째로 명나라 경비선을 만난다. 남편 최척은 명나라 군대에 소속된 적이 있었고, 이후 누르하치 군대에 포로가 되기 전까지는 새삼스레 중국에 대해 적대감을 갖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옥영은 최척과 항주에 살면서 둘째아들 몽선을 낳고, 그 아들이 장성하자 홍도(紅桃)라는 중국인 며느리까지 맞이한 처지였다. 따라서 옥영은 유창한 중국말로 자신을 중국 상인이라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군졸이 더 이상 묻지 않고, 경비선이 그냥 지나갔다는 기술은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음을 시사한다. 순풍을 맞아 망망대해에 나와 처음으로 맞이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셈이다.

다음 날에는 일본 배가 다가와 멈춰 섰다. 옥영은 재빨리 일본 옷으로 갈아입고 이들 앞에 나섰
다. 일본인이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옥영이 일본 말로 대답했다. “고기잡이하러 바다로 나왔으나 바람에 휘말려 표류하다가 배를 잃고 이제 항주 배를 빌려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일본인이 말했다. “고생이 많소. 이 항로는 일본 가는 길과 조금 다르니, 남쪽을 향해 가

10) <최척전>. “玉英謂夢仙曰 朝鮮當在東南 必待西北風 汝堅坐執櫓 聽吾指揮 遂懸羽於旗竿 置指南石於前頭 點檢舟中 無一不具 俄而河豚出戲 旗羽指巽果然 三人齊力舉帆 疾馳橫截 無分昏晝 劈箭入浪 飛雷攘海 一瞬登萊 半餉青齊 蒼茫島嶼 轉眄已失.”

11) <최척전>. “一日 遇天朝邏船 來問曰 何處船 向何方 玉英應聲曰 杭州人 將往山東賣茶耳 卽過去.”

도록 하오.”¹²⁾

두 번째로 옥영은 일본 경비선과 마주친다. 언뜻 살펴보고도 눈치를 챈 그녀가 재빨리 준비해둔 일본 옷으로 갈아입고 유창한 일본말로 대답한다. 앞서 그녀는 왜장에게 포로로 잡혀가 나고야에서 생활하다가 상선을 타고 베트남에 이르러 최척과 재회한 적이 있었다. 비록 포로 신분이지만 일본에서 지내며 일본인의 모습과 행동을 눈여겨보고 익혀둔 덕분에 일본인 어부로 행세하며 또 한 차례 위기를 넘긴 것이다.

일본인이 고생이 많다고 위로하며 올바른 길을 알려주기까지 하는 대목은 그녀가 두 번째 관문을 제대로 통과했음을 알려준다. 어찌 보면 지난날 그녀의 고된 삶의 경험이 생사를 가늠하는 시점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 셈이다. 요컨대 조선인으로서 중국과 일본의 경비선을 만났을 때, 그녀가 자국민인 척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고, 그들이 아무런 의심없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전란으로 인한 개인의 희생과 상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씩씩할 뿐이다.

이날 밤에 남풍이 매우 거세어 파도가 하늘에 닿았고,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 가득하여 지척도 분간할 수 없었다. 이윽고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져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몽선과 홍도는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 뱃멀미를 해댔다. 옥영 홀로 조용히 앉아 하늘에 빌며 염불하고 있었다.

한밤중에 풍랑이 조금 잦아들자, 작은 섬에 배를 대고 부서진 곳을 수리하였다. 섬에 머무르며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아득한 바다 멀리서 배 한 척이 차츰차츰 섬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옥영은 몽선에게 배 안에 있는 장비와 짐을 바위굴 안에 숨겨두라고 했다.

이윽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소리를 내지르며 배에서 내려왔다. 말소리와 옷차림이 조선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과 비슷해 보였다. 손에 다른 무기는 없었고, 다만 흰 몽둥이로 옥영 일행을 때리며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러자 옥영이 중국말로 말했다.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고기잡이를 하다가 이 섬으로 떠내려 왔기 때문에 본래 가진 재물이 없습니다.”

옥영이 울며 살려달라고 빌자, 그들은 옥영을 죽이지 않고, 옥영 일행이 타고 온 배만 빼앗아 자기들 배 뒤에 묶어서 끌고 갔다. 옥영이 몽선에게 말했다. “이는 필시 해적일 게다. 해적이 중국과 조선 사이에 출몰하며 노략질을 하는데, 사람은 잘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늘, 이들이 바로 그 해적일 것이다. …… (하락)” 옥영이 아들, 며느리와 부둥켜안고 큰 소리로 슬피 우니, 그 소리가 바위 벼랑에 진동하고, 그 한스러움은 파도에 층층이 맺혀 해신도 슬퍼서

12) <최척전>. “又過一日 有倭船來泊 玉英卽變着日本衣服而待之 倭人問 從何來 玉英作倭語曰 以漁採入海 爲風所飄 盡棄舟楫 雇得杭州船而來矣 倭曰 良苦 此路去日本差枉 向南方而去 亦別去.”

몸을 움츠리고 산도깨비도 찡그리며 신음 소리를 내는 듯했다.¹³⁾

그런데 세 번째 관문은 순조롭게 통과하기 어려웠다. 옥영 가족은 마침내 해적선을 만났으나, 지금껏 해적을 만나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정보는 불확실하고 미미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중국인과 일본인 행세를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한 옥영으로서도 해적선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으며, 단지 예감을 믿고 귀중품과 식량을 숨겨두었을 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떠들썩하게 배에서 내려온 무리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가진 물건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다가 욕심껏 약탈할 것이 없자 옥영 가족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 옥영이 가난한 중국 어부로 위장하여 가진 물건이 없다고 말하며 물면서 살라달라고 하자, 기어코 옥영이 타고 온 배를 묶어서 끌고 가버린다. 조선에 닿으려면 아직 더 멀리 가야하는데, 유일한 이동수단인 배마저 빼앗겨버린 처지가 되고 말았다. 억울하고 서글픈 마음이야 한 없지만 그래도 세 사람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으므로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순간이다.

여기서 바다는 해적만큼 난폭한 모습을 보인다. 밤바다는 높은 파도가 치면서 구름과 안개가 끼어 한 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공간이다. 게다가 배는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져 방향을 잡고 나아가기는커녕 금세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다. 그 와중에 아들과 며느리는 두려움에 떨며 뱃멀미를 하느라 정신이 없다. 한밤중에야 겨우 풍랑이 잦아들어 부서진 배를 수리하려는데, 느닷없이 해적떼가 나타나 물건과 목숨을 위협한다. 캄캄한 밤에 낯선 무리에 둘러싸인 옥영 가족의 공포와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겨우 살아남은 세 사람의 안도가 어지럽게 뒤섞여 바위 벼랑에 부딪치고 거센 파도에 부서진다. 한 마디로 바다는 난폭과 혼돈이 공존하는 곳이다.

이틀 뒤에 아득한 바다 멀리서 문득 돛단배 한 척이 나타났다. 몽선이 놀라 옥영에게 알리며 말했다. “처음 보는 모양의 배이니, 또 무슨 일을 당할지 걱정입니다.”

옥영은 배를 보고 기뻐하며 말했다. “우린 이제 살았다! 저건 조선 배란다.”

이에 옥영이 조선 옷을 입고 몽선에게 벼랑 위에 올라가서 옷을 흔들라고 했다. 뱃사람들이 돛을 내리더니 이렇게 물었다. “댁들은 뉘기에 이런 외진 섬에 사오?”

옥영이 조선말로 대답했다. “우리는 본래 서울의 사족이요, 나주로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만난 풍파로 배가 뒤집혀서 사람들이 모두 죽고, 우리 세 사람만 돛대에 매달린 채 이리로 떠 내려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소.”

뱃사람들이 옥영의 말을 듣고 불쌍히 여겨 닻을 내리고 옥영 일행을 배에 태운 뒤 이렇게 말했다. “이 배는 통제사의 무역선이요, 기한 내에 공무를 수행해야 해서 길을 돌아갈 수 없어요.”

13) <최척전>. “是夕 南風甚惡 波濤接天 雲霧四塞 咫尺不辨 檣摧帆裂 不知所屆 夢仙與紅桃 惶怖匍匐 困於水疾 玉英獨坐 祝天念佛而已 夜半 風浪少息 轉泊小島 修葺船 且留數日不發 渺茫洋中 有船看看漸近 令夢仙取船中裝 藏橐于巖竇 俄而其船人叫噪而下 語音衣服 俱非鮮倭 略與華人相似 手無兵器 惟以白梃毆打 索其貨物 玉英以華語對曰 我以天朝人 漁採于海 漂泊於此 本無貨物 涕泣求生 卽不殺 只取玉英所乘船 繫其船尾而去 玉英曰 此必是海浪賊也 吾聞海浪賊 在華鮮之間 出沒搶掠 不喜殺人 此必是也 …… 卽與子婦 相扶哀號 聲震巖崖 恨結層波 海若瑟縮 山鬼嘖呻.”

순천에 이르자, 해안에 배를 대고 옥영 일행을 내려주었다. 이때가 경신년(1620) 4월이었다.¹⁴⁾

조선으로 돌아갈 희망이 거의 사라졌을 무렵, 또 다른 배가 한 척 나타난다. 그러나 해적들에게 배를 빼앗기고 목숨마저 구걸하여 겨우 살아남은 세 사람이 낚선 배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옥영이 조선의 배임을 확신하고, 몽선이 조선 옷을 입고 벼랑 위에서 조난신호를 보내면서 세 사람의 항해는 마무리된다. 그럼에도 옥영은 중국에서 오는 길에 해적선을 만났다고 말하지 않고, 조선 내에서 이동하는 과정에 풍파로 배가 뒤집혀서 조난을 당했노라 말한다.

해적들에게 화를 당하고 조선의 통제사 배를 만날 때까지 꼬박 이틀이 걸렸다. 아득한 바다 멀리서 문득 보이는 돛단배.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걱정스럽다고 말하는 몽선의 심경을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세 사람은 정체가 분명치 않은 배를 바라보며 다시 한 번 생사의 경계를 넘나든다. 멀리 보이는 것이 희망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절망일 수도 있었기에 문득 나타난 배를 반길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여기서 바다는 다시 희망과 절망을 내포한 공간으로 그려지나, 잠시 후에 희망과 확신의 공간으로 변화한다.

4. 결론

지금껏 살펴본 인용문에 따르면, 최척과 옥영 부부가 베트남에서 재회한 때가 경자년(1600)이고, 이후 옥영이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귀국한 때는 경신년(1620)이었다. 거슬러 올라가서 최척 부부가 임진왜란으로 헤어진 때가 1592년이었으니, <최척전>은 거의 30년에 걸친 일가족의 이합집산을 다룬 셈이다. 특히 옥영은 몽선·홍도와 함께 항해에 나선 지 닷새 만에 중국에서 조선으로 귀국하는 데 성공했다. 최척이 몽석을 데리고 육지를 통해 귀국하는 길에 둘째 며느리 홍도의 아버지인 진위경(陳偉敬)을 우연히 만나서 함께 귀향하는 것도 흥미롭지만, 옥영이 해로를 이용해 귀국하는 과정이 훨씬 더 흥미롭다. 옥영은 아들과 며느리를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계속하며, 몽선과 홍도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옥영의 지휘에 따라 어머니를 잘 보좌한다.

세 사람이 떠 있는 바다는 중국과 조선의 가운데 위치하며, 그들이 믿고 의지할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다. 중국에서 항해를 시작하던 순간부터 마침내 조선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까지 옥영은 중국 배, 일본 배, 해적선, 조선 배를 차례로 만난다. 그럴 때마다 바다는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그로 인해 작품에서 바다가 지니는 의미는 점차 달라진다.

14) <최척전>. “過二日 忽見風帆自杳茫中出來 夢仙驚告曰 此船曾所未覩之船 甚可憂也 玉英見而喜曰 我生矣 此是朝鮮船也 乃着鮮服 使夢仙登崖 以衣揮之 船人即停帆而問曰 汝是何人 住此絕島 玉英以鮮語應曰 我本京城士族 將下羅州 猝遇風波 舟覆人死 獨吾三人 攀抱飄席 漂轉至此 姑延殘喘耳 船人聞而憐之 下碇載去曰 此乃統制使之貿販船也 官程有限 不可逋往 至順天 泊岸而下 時庚申四月也.”

중국 배와 일본 배가 등장하는 대목에서는 비교적 평탄한 모습을 보이지만, 해적선이 출몰하는 대목에서는 사나운 모습으로 일변한다. 옥영이 무사히 귀향할 때까지 바다는 불안과 우려, 공포와 안도, 난폭과 혼돈,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동엽, 「최척전에 나타난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어문론총』4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 김경미,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다시 읽는 <최척전>, <김영철전>」, 『고전문학연구』43, 한국고전문학회, 2013.
- 김현화, 「<최척전>의 노정 공간 연구」, 『어문연구』70, 어문연구학회, 2011.
- 박희병,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출판, 2007.
- 신태수, 「<최척전>에 나타난 공간의 형상」, 『한민족어문학』51, 한민족어문학회, 2007.
- 이채경, 「<최척전>에서의 동아시아 인식」, 『국제언어문학』18, 국제언어문학회, 2008.
- 정환국, 「16~7세기 동아시아 전란과 애정전기」, 『민족문학사연구』15, 민족문학사연구소, 1999.
- 진재교, 「월경과 서사 - 동아시아의 서사 체험과 '이웃'의 기억」, 『한국한문학연구』46, 한국한문학회, 2010.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나는 ‘바다’ 이미지 및 인식 연구

— 〈토끼전〉, 〈심청전〉을 중심으로 —

김 미 령 ■ 조선대학교

1. 들어가며

天, 地, 山, 水는 자연의 원천이다. 인간은 자연을 토대로 삶을 영위하고 문화를 형성한다. 동아시아적 의식구조에서 자연은 하나의 유기체적 질서를 갖추고 존재한다고 본다. 이때 유기체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¹⁾ 그만큼 자연은 인간의 삶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천, 지, 산, 수가 모두 그러하겠지만, 특히 ‘물’은 생명의 원천이자 생존의 요소다. 물이 없는 생명이 싹트지 못하고 인간 생활도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런 ‘물’에 대한 특별한 의미 부여는 비단 동양의 사유의식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서양에서도 만물의 근원은 4원소, 즉 물, 불, 바람, 흙으로 보았다. 이 4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끼쳐 우주 균형을 유지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가 ‘세상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주장하는 말 또한 동양의 사유체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물’은 생존과 생활의 터전을 넘어 문화를 이루고, 문화의 제영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문학에서 ‘물’은 다양한 인식과 이미지로 인간의 삶에 천착한 또 다른 문화의 한 양상이다.

이에 본고는 고전문학 중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나는 ‘물’의 이미지와 인식에 대해 살펴

1) 윤천근, 「물의 사상, 물의 문화」, 『동서철학연구』, 한국동서철학회논문집 59, 2011, 398쪽.

보고자 한다. 본고가 ‘판소리계소설’을 주요 텍스트로 삼은 것은 고전문학에서 ‘판소리계소설’이 차지하는 문학적 위상 때문이다. 판소리를 근간으로 형성된 판소리계소설은 당대 민중들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동시에, 향유층을 양반으로까지 확장시키면서 당대 최고의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한 가장 한국적인 문학이다. 또 현전하는 판소리계 소설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표면에 내세워 이데올로기의 모습을 투영하는가 하면, 현실에서 해결될 수 없는 요원한 문제들, 즉 불합리하면서도 모순적인 사회 문제들을 전면으로 내세워 당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현실과 문제점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지향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당대사회를 가장 현실적으로 비춰주는 문학 장르이기도 하다.

이에 본 논문은 가장 민중적이면서도 대중적인,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판소리계소설’을 중심으로 작품 속에 드러나는 ‘물’의 이미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가장 철학적인 소재가 될 수 있는 ‘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사유의식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표다.

2. ‘바다’ 이미지 및 인식 체계

현전하는 판소리계 소설은 <춘향전>, <심청전>, <홍보전>, <토끼전>, <배비장전>, <옹고집전>, <변강쇠전>, <장끼전>, <강릉매화전>, <숙영낭자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들에서 물은 우물, 강, 바다 등 다양한 양상과 소재로 녹아 들어 있다. 이 중에서 ‘물’이 주요한 소재로 사용되는 작품으로는 <심청전>, <토끼전>, <숙영낭자전> 등 3편을 들 수 있다. 이들 텍스트 중 ‘바다’를 중심 소재로 삼고 있는 <심청전>²⁾, <토끼전>³⁾ 두 작품을 대상으로 ‘물’이 어떻게 이미지화되었으며, 그 속에서 어떤 사유체계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상상의 공간-이상향

먼저 <토끼전>에 담긴 물의 이미지다. <토끼전>에서 ‘물’은 ‘수궁’으로 대변된다. ‘수궁’과 ‘육지’라는 이원적 공간이 대립, 병렬되면서 다양한 의미를 생성해 내는 작품이 바로 <토끼전>이다.

‘수궁’에서 바라보면 ‘육지’는 모순이 판을 치는 위태로운 세상이다.

2) 본고가 인용하는 텍스트는 <심청전> 목판본으로, 인용문은 현대어인 김기동, 전규태, <심청전>, 『한국고전문학』 13에 따르기로 하되, 인용 시 편이상, 작품명과 쪽수만 나타내기로 한다.

3) 본고가 인용하는 텍스트는 <토끼전> 완판본으로, 인용문은 유준필, <토끼전>, 『판소리 12마당』에 따르기로 하되, 인용 시 편이상, 작품명과 쪽수만 나타내기로 한다.

집으로 돌아와 처자를 이별할 새, 그 아내 눈물을 짓고 당부한다.

“인간세는 위태한 땅이라, 부디 조심하여 큰 공을 세워가지고 무사히 돌아와 기꺼이 상면하기를 천만축수하나이다.”⁴⁾

자라가 이르되,

“허허 우습도다. 우리 수궁 이야기 좀 들어보소. 오색 구름 같은 곳에 진주궁과 자개 대궐 반공에 솟았는데 일월이 명랑하다. 이 가운데 날마다 잔치요, 잔치마다 풍류로다. 연꽃 같은 용녀들은 쌍쌍이 춤을 추며 천일주와 포도주며 금강초 불사약을 유리병과 호박잔에 신선하게 담고 담아, 대모소반(거북의 등껍데기로 만든 작은 밥상) 받쳐다가 앞앞이 늘어놓고 잡수시오 권할 제 정신이 상할하고(상쾌하고), 심정이 황홀하니 헛장단이 절로 난다.”⁵⁾

그대 신세 생각하니 여덟가지 어려움을 면하기 어렵도다. 두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어 보라. 동지 설달 엄동절에 백설은 흩날리고 층암절벽 빙판되며 만학천봉 막혔으니 어디 가서 접족(接足)할까. 이것이 첫째로 어려움이요. 돌구멍 찬 자리에 먹을 것 전혀 없어 콧구멍을 활을 적에 냉한 땀이 질질 흘러 사지가 불평할 제 팔자 타령 절로 나니 이것이 둘째로 어려움이요. ... (중략) ...춘풍이 화청한 때 풀잎이나 뜯어 먹자 하고 산간으로 들어가니 무심 중에 독한 수리 두 쪽지를 옆에 끼고 살 쏘듯이 달려들 제 두 눈에 불이 나고 적은 몸이 솟구쳐 바위 틈으로 들어갈 제 혼비백산 가련하다. 이것이 넷째 어려움이요. 천방지축 달아나서 조용한 데 찾아가니 매 쫓는 사냥꾼은 높은 봉에 우뚝 서서 근력 좋은 물이꾼 시켜 냄새 잘 맡는 사냥개를 월이개 부르면 동에도 가며 서에도 가며 급히 쫓아올 제, 발톱이 몽그러지며 진땀이 바짝 나니 이것이 다섯째 어려움이요. ... (중략) ...죽을 것을 면한 후에 평원 광야로 달아드니 나무 베는 목동이며 소 먹이는 아이들은 창검과 몽치를 들고 달려들어 제잡담(除雜談)하고 치려할 제 목구멍에 침이 말라 지향 없이 도망하니 이것이 여덟째 어려움이라.⁶⁾

위 첫 번째 인용문은 자라가 육지로 떠나기 전 가족들과 이별하는 장면으로, 자라의 아내가 자라에게 하는 말이다. 그녀에 따르면 수부에서 바라보는 ‘육지’는 도처가 위험하고 험한 곳이라고 한다. 이는 수궁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란 인식 속에 형성된 사유의식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토끼가 ‘인간세상의 재미’를 언급하는 대목이다. ‘청풍명월’ 속 ‘안분지족’, ‘물아일체’의 즐거움을 거론한다. 이는 조선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성리학의 이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수궁의 즐거움은 진주궁과 자개 대궐의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매일매일 호의호식하며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한 곳이다. 이는 토끼가 사는 육지 세상이 청빈 낙도 속에 물아일체라는 관념론적 이념을 중시하는 공간적 인식을 드러내는 데 반해 수궁은 태평건곤 마음대로 노닐 수 있는 풍족한 세상이고, 관념이 아닌 현실적인 실질

4) <토끼전>, 38쪽.

5) <토끼전>, 41쪽.

6) <토끼전>, 42쪽

적인 삶의 모습, 그리고 삶에 대한 염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한 삶의 모순되고 차별화된 공간을 <토끼전>은 ‘수궁’의 이미지로 투영시키면서, 당대의 모순을 부각시킨다.

세 번째 인용문은 토끼가 사는 ‘육지’라는 세상의 모순을 표현하는 대목으로, 토끼로 표상되는 하층민들이 지배계층의 핍박을 받으면서 얼마나 끊임없이 수탈의 대상이 되는지,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지에 대한 어려움을 열거하는 장면이다.

자라는 이런 토끼에게 수궁은 능력있다면 벼슬할 수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곳이라며 유혹한다. 자라의 유혹에 빠진 토끼는 수궁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 자신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꿈의 공간이라고 믿고 수궁으로 들어간다.

이로 보아 ‘육지’라는 공간은 토끼로 표상되는 ‘인간’이 사는 곳으로 하층민들에게는 도처가 수탈과 핍박이 상존하는 곳이다. ‘반면’ 자라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수궁’이라는 공간은 ‘육지’에 사는 인간들의 세상과는 대척점에 선 공간으로, 인간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자 현실적인 만족이 중시되는 상상의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수궁’의 존재 여부를 의식하던 그렇지 않은 인간들은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과 모순에 대한 ‘이상향’을 꿈꾸었던 것이고, 막연하지만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던 ‘수궁’은 이처럼 인간의 대리만족의 공간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2) 신성의 공간-정화와 재생

<심청전>에서의 ‘물’의 이미지는 ‘인당수’로 표상된다. 왜냐하면 <심청전>의 핵심 대목은 심청이 빠지는 ‘인당수’라는 상상의 ‘바다’이고, 여기에 빠지면서 <심청전>의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상상의 바다 ‘인당수’는 어떻게 묘사되고, 어떤 의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한국인의 사유의식은 어떠한 것일까.

한 곳을 다다라 돛을 지우고 닻 내리니 여기가 바로 인당수라. 거센 바람 크게 일어 바다가 뒤누우며 어룡이 싸우는 듯, 벽력이 일어 난 듯, 너른 바다 한가운데 일천 석 실은 배, 노도 잃고 닻도 끊어지고 용총도 부러지며 키도 빠지고, 바람불고 물결쳐 안개 비 뒤섞여 찾아진데 갈 길은 천 리 만리 남아 있고...⁷⁾

“심청은 시각이 급하니 어서 바빠 물에 들라.” (중략)

수정궁으로 들어가니 인간세계와는 다른 별천지였다. 남해 광리 왕이 통천관을 쓰고 백옥홀을 손에 들고 호기 찬란하게 들어가니, 삼천팔백 수궁부 내외의 대신들은 왕을 위하여 영덕전 큰 문 밖에 차레로 늘어서서 환호성을 올렸다. 심낭자 뒤로 백로 탄 여동빈, 고래 탄 이적선과 청학 탄 장녀가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었다.⁸⁾

7) <심청전>, 53쪽.

8) <심청전>, 59쪽.

집 치레 보자 하면 능란하고 장하구나. 고래 뼈를 걸어서 대들보를 삼으니 신령스런 빛깔이 햇빛에 빛나고, 물고기 비늘을 모아서 기와를 삼으니 상서로운 기운이 공중에 어린다. 값진 보물로 치장 한 궁궐은 하늘의 빛과 어울리고, 입고 있는 의복은 인간의 온갖 복 과도 비길 수 없었다. 산호주렴 대모병풍 광채도 찬란한데 비단 휘 장을 구름같이 높이 치고, 동으로 바라보니 대붕이 하늘을 날으는 데 쪽빛보다 푸른 물은 가마에 둘러 있고, 서쪽으로 바라보니 푸른 물결 아득한데 한 쌍 꾀꼬리 날아들고, 북으로 바라보니 아득한 푸 른 산은 비취색을 띠어 있고, 위쪽을 바라보니 상서로운 구름이 붉 은데 위로는 하늘로 통하고 아래로는 세상에 뻗어 있다. 음식을 둘러보니 세상 음식 아니었다. 유리 소반 옥돌 상에 유리 술잔 호박 받침, 자하주 천일주에 기린 포로 안주하고, 호로병 거호탕에 감로수도 넣어 있고, 옥돌 소반에다 반도 복숭 담아 있고, 한가운데 삼천벽도 덩그렇게 고였는데 신선 음식 아닌 것이 없었다.⁹⁾

위 첫 인용문은 ‘인당수’의 위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당수’는 상인들이 오고 가며 물이 전파되는 바다 한 복판 어디쯤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곳은 강한 물살과 파도로 누구나 쉽사리 건너갈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에 상인들은 무서운 바다를 잠재우기 위해 제의를 올리는데, 처녀를 제물로 삼고 나서야 빠져 나갈 수 있다는 곳이다.¹⁰⁾

이 인당수에 제물이 된 사람이 바로 효녀 ‘심청’인 것이다. 그녀는 몸값으로 공양미 삼백석을 받고 인당수의 제물이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인용문은 ‘인당수’ 속 ‘수정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다. 인간의 세상과는 다른 별천지 수정궁은 용왕이라는 ‘신’적 존재가 살고 있는 곳으로 한마디로 상서롭고 풍요로운 ‘이상향’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심청전>에서의 ‘바다’에 대한 인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용왕이라는 ‘수신’이 사는 이곳은 ‘인간’을 ‘제물’로 받는다 하면, 제물로 바친 처녀 ‘심청’을 다시 재생시켜 육지로 돌려보내는 재생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효녀 심청을 재생시키기 위한 매개의 역할로서 ‘인당수’가 사용된 것이었고, 이 재생의 비용은 당시 심청의 가계 형편에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서 ‘공양미 삼백석’이었다. 이 ‘재생’의 공간은 보잘 것 없는 가난한 딸 ‘심청’이 기존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이자 ‘죽음’을 통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남으로서의 ‘정화’의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 평범한 여성 ‘심청’이 왕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탈바꿈이 필요했고, 이 신분의 탈바꿈이 가능한 것은 그녀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효심’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 전개는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심청’은 ‘인당수’를 통해 그녀의 육신은 정화되고 재생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인당수’는 인간의 생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정화와 재생이 가능한 ‘신성한 공간’이 되는 것이

9) <심청전>, 59쪽.

10) <심청전>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은 대다수가 ‘바다에 몸을 던진 심청’의 ‘행위’에 집중한 듯하다. 다시말해 ‘인당수’라는 공간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는 말이다. 인당수라는 공간이 어땠고, 왜 ‘인당수의 제물’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은 해결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다.

3) 삶의 연장선상의 공간-소통과 개방성

앞서 언급했듯 물은 인간의 생존 영역이자 문화의 시발점이다. 특히 농경생활이 중심이었던 우리나라 사람에게 ‘물’은 생존과 직결되는 삶의 요소였다는 점에서 ‘물’은 없으면 안 되는 생활의 한 부분이었다.

‘물’은 또 다양하게 모습을 드러난다. ‘개울’, ‘호수’, ‘계곡’, ‘강’, ‘바다’ 등 형태가 다양하고 존재하는 모습이 각기 다르다. 그러나 ‘물’은 언제나 인간의 삶 가까이, 그리고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면서, 인간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물’에 대한 인간이 갖는 친숙함은 인간의 다양한 사유의식을 발휘하게 했을 것이다.

또 하나, ‘물’은 생존의 필수이지만, 잘 못 만나는 물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이었고, 매서운 비바람과 폭풍우로 인한 강이나 바다의 범람은 인간의 목숨은 물론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쓸어 버리기도 한다. 그러한 점에서 ‘물’은 ‘신’과 같은 무서운 존재이자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¹¹⁾

그럼에도 물은 언제나 인간의 삶과 연계되어 소통하고 언제나 왕래가 가능한 개방의 공간이었다. 그러한 인식이 바로 소설 <토끼전>과 <심청전>에 표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자연의 일부로서 경이롭고도 친숙한 미지의 ‘바다’는 인간 삶의 지척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사유와 상상력을 불러내었던 것이다. 특히 인간 삶의 현실에 대한 불만, 이에 대한 비판과 조롱에 대한 공간, 새로운 이상향의 공간, 그리고 염원을 담고 풀어줄 ‘신성의 공간’이자 ‘생명의 공간’으로 이미지화되었던 것이 바로 미지의 ‘바다’였던 것이다.

판소리계 소설은 당대의 삶과 당대의 현실에 가장 밀착된 이야기이자, 당대를 살고 있는 민중들의 염원과 비판을 함께 담고 있다. 이러한 염원과 비판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났다. 그중 <토끼전>과 <심청전>은 ‘바다’라는 공간을 매개로 당대의 염원과 희망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모순과 불만으로 가득 찬 ‘육지’라는 ‘인간세상’에 대한 반감에서 불려낸 ‘상상의 공간’이 바로 용왕이 사는 ‘수궁’이었고, 인간을 표상하는 ‘토끼’를 유혹하기에는 ‘불만과 불신’이 가득하고 착취당하며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을 콕콕 짚어주며, 수궁은 이 모든 불만을 해소해주는 ‘풍요로운 공간’이라는 설명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수궁’이라는 공간이 인간계의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희망찬 공간이라는 점, 그리고 이 공간은 바로 인간의 삶과 연계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심청전>도 마찬가지다. 평범한 여성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그녀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했다. 우선 현실적 신분에서 탈피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위험요소가 필요할 정도로 고난이 뒤따르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녀를 탈바꿈 시켜낼 때

11) 우리나라 신화와 설화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신’, ‘용왕’ 등은 이러한 ‘물’에 대한 이러한 인식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개체도 필요했을 것이다. 이 역할이 바로 ‘인당수’로 불리는 ‘바다’인 것이다. 그만큼 인당수는 그녀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정화시켜주는 신성의 공간이 되었던 것이다. 또 한가지, 그녀가 ‘왕후’가 현실적 제약을 벗고 ‘정화’의 대상이 되기 위한 서사의 타당성이 필요했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심청, 그녀가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효’라는 심성이었다.

그러나 결국 <심청전>도 평범한 한 여성이 왕후가 되는 과정을 담아낸 이야기로, 전제 조건이 ‘효’를 가진다면 누구나 왕후가 될 수 있다는 ‘신분의 초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 역시 인간의 삶과 연장선상에서 재현된 ‘바다’에 대한 인식을 담은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다’가 인간계의 연장선상에서 소통이 가능한 개방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3. 나가며

본 논문은 판소리계소설 중 ‘바다’를 주요 소재로 삼고 있는 <심청전>과 <토끼전> 두 작품을 중심으로 ‘바다’에 대한 이미지 및 인식체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토끼전>은 인간계의 불만과 모순의 반대편에 있는 ‘이상향’의 공간으로 이미지화 되어 있었고, <심청전>은 ‘정화’와 ‘재생’의 공간으로서 신성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두 작품에서 공히 상상력의 산물로 이루어진 ‘수궁’이라는 공간은 인간의 삶의 연장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졌다는 점이다. 인간의 현실적 삶이 부조리하고 답답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뤄지기를 염원한다. 그 꿈과 염원이 가 닿은 곳이 바로 ‘바다’라는 인식의 공간이다. 걸어서 가면 닿을 수 있는 인간의 삶의 공간 어디에나 존재하는 ‘바다’가 갖는 개방성. 이 개방성은 인간의 다양한 상상력을 꽃피기 했고, 인간의 삶 복판에서 인간의 이야기를 소통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고전문학의 가치는 텍스트 속에 드러나는 ‘상상력’이 빚어내는 ‘환상성’, 그리고 그것이 ‘황당무계’로 그치지 않고 참다운 문학적 가치로 의미를 찾을 때 가능해 진다. 이러한 점에서 두 텍스트 속에 드러나는 ‘바다’라는 공간은 인간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 그래서 인간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이 소통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위력을 가졌다는 점이다.

바다도 인간 삶의 한 부분으로 사유되는 고전문학. 이것이 고전문학이 가지고 있는 ‘바다’에 대한 의미 있는 사유 의식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인훈 소설 <颱風>에 나타난 바다 이미지 연구

박 해 랑 ■ 성신여자대학교

1. <颱風>의 서사

최인훈은 1936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1945년 광복을 맞이하지만 공산정권과 6·25전쟁으로 그의 가족은 원산을 거쳐 남한으로 이주한다. 부산의 피난민 수용소를 거쳐 외가가 있는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1952년 피난 수도 부산에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다. 부친의 사업으로 가족은 모두 강원도에서 지내고, 그는 혼자 부산에서 지낸다. 그는 여기서 최초 작품 <두만강>을 집필하고, 1955년 『새벽』잡지에 시 <수정>이 추천된다. 그 후 군대에 입대하고, 1959년 <GREY 구락부 전말기>(『자유문학』 10월)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한다. 그 후 다수의 소설과 희곡을 창작하고, 1994년 소설 <화두>를 발표하며 자신의 소설 전반을 성찰하는 계기를 가졌다.¹⁾

최인훈은 식민지 시대를 거쳐 전쟁과 분단을 경험하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정치체제의 변화와 남한에서 험난한 20세기의 정치 상황을 고스란히 체험한 인물이다. 그의 작품은 그의 체험과 그 당시 가졌던 많은 지식인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문학은 현실비판이다.”라는 그의 말처럼 최인훈은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현실을 비판한

1) 최인훈은 1959년 <라울전>(『자유문학』12월)이 안수길에 의해 추천되어 공식적으로 소설가의 자격을 얻는다. 1960년 『廣場』(『새벽』10월)을 발표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고, 그 후 다수의 작품을 꾸준히 발표한다. 『灰色人』(『세대』1963년 6월-1964년 6월까지 연재), 『西遊記』(『문학』1966년 6월), 『小說家 丘甫氏의 一日』(『월간중앙』1969년 12월 발표, 후에 『갈대의 사계』로 연재), 『颱風』(『중앙일보』1973년 연재) 등을 발표하였다.

다.²⁾

그가 경험한 시련과 억압은 작품 속에서 주인공들이 겪는 혼란스러운 가치관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혼란을 주인공이 극복해야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颱風>은 1973년『중앙일보』에 연재한 소설이다.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현실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주인공 오토메나크의 체험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소설에서 전개되는 공간적 배경과 인물의 이름들은 아나그램(anagram) 조어라는 철자의 재배열로만 들어졌다.³⁾ 아나그램 조어를 사용함으로 소설 속의 국가와 지명을 낯설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동아시아 역사를 재조명하여 작품 내에서 긴장감을 이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인훈 소설 <颱風>에 나타난 바다 이미지를 연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작품 속에 쓰인 시와 내용을 중심으로 바다의 이미지를 고찰하여 최인훈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다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밝히는 단초가 되고자 한다.

13장으로 구성된 소설 <颱風>의 서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쟁	1941년 초, 나파유의 식민지 애로크 출신 오토메나크 중위는 사령부의 출두 지시를 받고 로파그니스에 있는 나파유군 사령부로 소환된다.
2. 명령	오토메나크는 소령으로부터 5명의 아이세노딘의 독립 운동자와 40명의 니브리타인 여성 포로를 인수하여 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적에게 넘겨주는 중대한 임무를 맡는다. 그날 저녁에 아이세노딘 독립 운동가이자 정신적 지도자인 카르노스와 아만다를 만난다.
3. 시종무관	오토메나크는 휴전 교섭이 이루어질 때까지 카르노스를 감시하며 함께 지내게 된다. 카르노스와의 대화에서 그의 인품에 매료된다. 시종을 드는 아만다에게서 늘 과일 냄새를 맡는다.(관심을 가지게 된다.)
4. 방문자	본국에서 마야카라는 부친의 친구가 찾아온다. 마야카는 오토메나크에게 나파유는 전쟁에서 패할 것이므로 부친이 그가 살아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한다. 애로크-나파유의 동조동근(同祖同根)설을 주장하던 마야카가 자신에게 그러한 말을 한 것에 오토메나크는 분노한다.
5.해협의 밀사	오토메나크는 사령부로부터 아이세노딘의 이타오바 전황제에게 세이나브 수상과 카르노스의 편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받는다. 그날 밤, 오토메나크는 그의 방에서 니브리타 총독부 시절 만들어진 비밀 창고를 발견하고, 총기류와 보석, 아편, 아이세노딘 독립운동 현황보고문서 등을 발견한다. 그는 밤마다 비밀창고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신이 애로크인임을 자각하고, 친나파유인으로 보낸 지난 세월을 괴로워한다.

2) 최인훈, 「문학은 현실 비판이다」, 『사상계』, 1965. 10.

3) 어구전철(語句轉綴) 또는 아나그램(anagram)은 단어나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문자의 순서를 바꾸어 다른 단어나 문장을 만드는 놀이이다. 어구전철을 잘 아는 사람들끼리 암호문으로 어구전철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다. 그 이유는 어구전철은 여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인훈은 철자 바꾸기(anagram)의 방식으로 고유 명사의 이름을 새롭게 조합한다. 나파유Napaj는 일본Japan, 애로크Aerok는 한국Korea, 아이세노딘Aisenodin은 인도네시아Indonesia, 아키레마Akirema는 미국America, 니브리타Nibrita는 영국Britain을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주인공인 오토메나크Otomenak는 일본식 이름인 가네모토Kanemoto(김본(金本))을 창씨 개명한 이름)를, 카르노스Karnos는 실존 인물인 수카르노Sukarno를 지칭한다. 이러한 아나그램은 소설 『灰色人』에서 우리의 가상 식민지를 나빠유NAPAJ라고 언급한 데서 비롯된다.(최인훈, 『灰色人』, 최인훈 전집2, 문학과지성사, 2007, 9쪽.)

6. 우기	로파그니스의 우기가 시작되고, 오토메나크는 포로수용소(120명)에 가서 카르노스가 석방될 때 함께 보내 게 될 포로들(40명)을 만난다. 니브리타인 여자 포로들의 저항적인 모습에 반감을 느끼며, 그들이 오토메 나크 자신보다 낫다는 생각을 한다.
7. 아만다	오토메나크는 비를 맞고 심한 감기에 걸리고, 꿈속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올라미를 씹으려 한다. 아만다가 밤새 간호하고, 그날 밤 그녀와 사랑을 나눈다. 오토메나크는 아카나트 소령과 함께 카르노스와 포로를 태워갈 배를 확인하고, 임무를 완성하고 돌아오 면 아만다와 결혼할 것을 결심한다.(오토메나크는 비밀 창고에서 겪는 갈등을 아만다에게서 찾으려고 한 다.)
8. 학살과 어둠과 사랑	오토메나크는 석방할 니브리타인 여자 포로들을 면담하고 확정한다. 돌아오는 중에 아니크게 아이세노딘 인들의 학살 장면을 목격한다. 다음 날, 소령을 만나 어제의 학살이 화평 교섭을 어렵게 할 것을 걱정하며, 포로 교환 교섭이 무사히 끝나 기를 바란다.
9. 등화관제	열두시 뉴스에서 식량문제에 대한 세이나브 수상의 담화가 있고, 전과발표에서 게르마니아가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아니크게 학살로 인해 ‘아이세노딘의 호랑이’로 불리는 토니크 나파유티가 민족을 지키 지 못한 책임감으로 자결한다. 토니크 나파유티의 삶과 그의 장례식을 보며 오토메나크는 자신이 애로크 인임을 자각하고, 애로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절망한 다. 오토메나크는 아이세노딘의 호랑이처럼 살 것을 결심한다.
10. 항해	오토메나크는 ‘바리마’ 호에 40명의 니브리타인 여자 포로들과 카르노스를 태우고 로파그니스 항구를 출발해서 고노란 해협과 아이세노딘 사이 바다 쪽을 항해한다. 배는 해군사령부의 명령에 의해 해안을 따 라 이동한다. 항해한 지 일주일 만에 로파그니스로 다시 돌아오라는 무전을 받는다. 협상이 순조롭지 않음을 감지하고 배를 돌리는 중에 니브리타인 여자 포로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반란을 진압하는 중에 태풍이 몰아쳐서 배 는 난파한다.
11. 섬에서	섬에 표류한 오토메나크는 섬을 둘러보고, 생존자를 확인한다. 카르노스와 무전병, 선장은 발견하지 못하 고, 배는 협곡에 끼어 밀바닥이 갈라졌으나 생활하기에 괜찮아 보인다. 군인들은 배에서 생활하고, 포로들 은 섬에 생활하기로 한다. 오토메나크는 밤에 혼자 ‘진실의 소리’라는 방송에서 나파유티군이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오토메나 크와 생존 장병들은 섬에서 적들이 나타나면 싸우다가 죽기로 결심한다.
12. 죽음의 방주	섬에 적들이 나타났을 때를 대비해서 군인들이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규칙적으로 행동한다. 오토메나크는 밤마다 혼자 ‘진실의 소리’라는 방송을 듣고 나파유티에 대해 분노한다. 오랜 세월을 나파유티인에게 속아 살아온 것을 분해하며, 병사들에게 나파유티가 패전했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는다.
13.로파그니스 -30년 후	그 후 20년 동안 카르노스는 약소국들의 힘을 뭉쳐 그들의 독립을 이루어낸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다. 그 는 죽고 로파그니스 구시가지에는 그의 동상이 남십자성을 바라보며 서 있다. 아이세노딘 주재 애로크 대사관 상무관인 코드네주는 바냐킴 씨에게 아이세노딘 총영사직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하지만, 바냐킴 씨는 정중히 사양한다. 바냐킴 씨는 30년 전의 오토메나크이다. 당시 그는 조국 애로크를 저버리고 친나파유티인으로 살아온 것을 후회하며 섬에서 죽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태풍 때 살아남은 카르노스의 설득으로 아이세노딘의 독립에 큰 공을 세우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 후 섬에서 함께 생활한 메어리나와 결혼하고, 카르노스와 아 만다의 딸을 양녀로 입양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조국 애로크의 독립에도 보이지 않는 힘이 된다.

2. <颱風>에 나타난 바다 이미지

바슐라르는 물의 이미지를 부드러운 물(l'eau douce)과 난폭한 물(l'eau violente)로 구분하고, 우리의 상상세계는 근본적으로 부드러운 물이 지배한다고 한다. 부드러운 물이 상상력에 있어 우월성을 갖는 것은 일상적(quotidien)이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물에 의해 탄생되는 물은 첫째, 물의 물질적 상상력(l'imagination matérielle de l'eau), 둘째, 문화의 콤플렉스(complexe de culture), 셋째, 역동적 상상력(l'imagination dynamique), 넷째, 모성적 상상력(l'imagination maternelle)이다.

‘물의 물질적 상상력’은 인간이 직접 물과 접촉(contact)을 함으로써 어떤 관능미(sensualiste)를 느끼며, 무의식의 세계가 근원적으로 물에 의해 물질화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것은 다시 봄의 물(l'eau printanière)과 깊은 물(l'eau profonde), 복합적인 물(les eaux composées)로 나눈다. 봄의 물은 맑은 물이고, 물의 속성은 반영과 신선함이다. 그것의 이미지는 거울의 이미지, 즉 나르시스의 이상화(理想化)작용을 말한다. 깊은 물은 잠자는 물이며, 존재의 깊고 어두운 심연, 즉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말한다. 복합적인 물은 다른 요소가 결합된 이미지를 말하고, 4원소론(물, 불, 흙, 공기)에 관련하여 물과 불의 결합은 알코올의 이미지, 물과 흙의 결합은 반죽(pâte)의 이미지, 물과 공기의 결합은 안개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문화의 콤플렉스’는 물리적인 물과의 접근에서 책이나 전설, 또는 신화(神話)에서 비롯된 이야기의 영향이 무의식의 세계에 뿌리박은 상태를 말한다. ‘역동적 상상력’은 물의 물질적 상상력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 상상력을 지배하는 물질에 머무르지 않고 더 능동적이 되어 인간의 의지력(volonté)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모성적 상상력’은 어머니 또는 다른 여성에 대한 추억이 무의식에 은밀하게 살아남아 있어 물에 대한 무의식적 갈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어머니의 모유에 의해 알게 된 액체, 또는 유동성(fluidité)의 이미지가 무의식에 스며들어 그 상상세계를 지배하게 된 결과이다. 이러한 상상력은 요람의 흔들림(bercement)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부드러운 물’의 우월성은 원초적이며 절대적이지만 ‘난폭한 물’은 인간의 의지력에 대한 적(敵), 또는 대립자로 나타난다. 난폭한 물은 공기와 결합하면 파도로 나타나고, 흙과 결합하며 지각 변동이나 지진으로 나타난다.⁴⁾

오토메나크는 아카나트 소령으로부터 포로교환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부아이세노딘의 지도자 카르노스를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그는 숙소에서 카르노스와 대면하고, 카르노스의 시중을 드는 아이세노딘 소녀를 처음 만난다. 아이세노딘 소녀의 이름은 ‘아만다’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첫눈에 반한다. 머리에 빨간 꽃을 단 아만다는 원시적인 팽팽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늘 열대 과일의 냄새를 풍긴다. 오토메나크는 그녀의 아름답

4) 가스통 바슐라르, 이가림 역,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85, 282-285면.

다움에 반하고, 그녀의 몸에서 나는 열대 과일의 냄새에 취한다. 그리고 그녀와 동행하는 차 안에서 그녀의 당돌한 눈길에 오토메나크는 그녀의 눈길을 피하는 순진한 청년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 이 소설을 접할 때 느끼는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을 감지할 수 있다.⁵⁾

남자가 여자를 끌어당겼다. 여자의 풍성한 머리가 남자의 얼굴 위에 구름처럼 덮였다.
 아만다는 바다처럼 미끈하고 따뜻했다.
 오토메나크는 카누를 타고 눈부신 바다를 저어갔다. 바다는 요람처럼 출렁거렸다.
 강한 과일 냄새가 풍기는 바람이 후끈하게 스쳐갔다. 바다는 흔들리고 있었다.
 카누를 앞으로 밀면서.
 바다의 고기처럼 카누는 흔들리면서 미끄러져갔다.
 바다는 푸르고 옥중한 몸서리를 쳤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치면서 바닷속의 풀처럼 물결을 따라 흩어졌다.
 카누는 숨찬 듯이 헐떡이면서도 바다에 지지 않았다.
 구름이 물속으로 피어올랐다.
 카누는 구름 위로 속으로 숨바꼭질했다.
 섬들이 시샘하듯이 낮을 돌리면서 빠르게 곁을 스쳐갔다.
 비늘이 찬란한 고기 떼들이 바다에 잠긴 구름의 그림자를 타고 지나가다가 카누와 부딪쳐서
 수없는 붉은 꽃잎처럼 흩어져 구름의 그림자를 물들였다.
 바다는 그래도 카누를 놓지 않았다.
 섬 그늘에 숨으려는 카누를 따라잡아 바다 가운데로 물고나왔다.
 지치면서도 카누는 파도에 몸을 맡겼다.
 꽃이 지면서 봉오리가 터지는 늘 여름의 나라의 꽃나무처럼 지침 속에서 또 다른 기쁨의
 파도가 머리를 들었다.
 바다는 끝이 없고 카누는 실증을 몰랐다.
 아주 옛날부터 바다와 카누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어느 항구에서 떠났는지를 카누는 잊어버렸다.
 어느 기슭에서 비 롯했든가 바다는 잊어버렸다.
 십자정보라도 더 오래전부터 카누는 바다 위에 있었다.
 잊어버린 것이 돌아온 것이었다.
 잊음의 고향에 들어온 바닷속의 카누는 이름을 모두 잊어버렸다.
 오토메나크라는 이름의 섬이 아득하게 지나갔다.
 아만다라는 이름의 섬도 멀리 지나가버렸다.
 카누가 남기는 물거품처럼.
 이름 없는 바다는 이름 없는 카누를 태우고 이름 없는 고향에 들어섰다.

5) 박해랑, 「최인훈 소설의 인물 심리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79면.

카누는 따뜻한 팔처럼 바다에 잠겼다. 카누는 두려움 없는 다리처럼 다리를 휘저었다.
바다에 사는 새들이 카누에 내려앉아서 날개를 쉬었다.
새들이 날아간 다음 바다와 카누는 깊은 잠에 빠졌다.⁶⁾

오토메나크는 아버지의 친구 마야카로부터 나파유가 전쟁에서 질 것이라는 말과 전쟁에서 살아남길 바란다는 말을 듣고, 정신적인 충격과 갈등으로 혼란을 겪는다. 그러던 중 자신의 방에서 니브리타 총독부 시절 만들어진 비밀 창고를 발견하고, 비밀문서를 읽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로파그니스의 우기가 시작되고, 오토메나크는 수용소를 다녀오면서 비를 맞아 심한 열 감기에 걸린다. 아만다는 밤새 간호하고, 그날 밤 그들은 사랑을 나눈다. 그들의 사랑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다.

최인훈은 오토메나크와 아만다의 사랑을 남자는 카누, 여자는 바다로 표현하였다. 바다는 요람처럼 강한 과일 냄새를 풍기며, 카누는 바다의 고기처럼 흔들리면 미끄러졌다. 바다는 푸르고 육중한 몸서리를 치며, 카누는 숨찬 듯이 험뎌이면서도 바다에 지지 않으려는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사랑 행위를 아름답고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쟁 중에 피어나는 그들의 사랑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 시에 드러난 그들의 사랑은 ‘역동적 상상력’과 ‘모성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시에서 카누와 바다는 서로를 놓아주지 않고 끊임없이 욕구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의 사랑은 인간의 의지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지배하는 능동적인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여자를 상징하는 바다는 시에서도 모성적 이미지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카누가 지치면 바다는 카누를 섬에 숨기지 않고 바다로 끌어내어 바다에서 카누를 쉬게 하고, 바다에서 잠자게 한다. 바다는 카누의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고 고향인 것이다. 이러한 바다의 역할은 그의 사랑이며 어머니와 같은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이다. 무의식에 자리잡은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여성에 대한 갈망이 바다라는 이미지를 상상력 속에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 행위를 표현한 것이다. 최인훈은 그의 소설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특히 전쟁 중에 이루어지는 사랑을 절망 속에 피어나는 희망으로 바꾸는 동력으로 표현한다. 또한 여성을 바다로 표현하여 <廣場>에서 주인공 이명준이 그가 사랑한 은혜와 그리운 딸이 있는 바다로 뛰어들게 한다. 바다는 최인훈 소설에서 주인공들이 현실에서 겪는 고통과 갈등과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등장한다. <颱風>에서도 바다는 아만다이며, 아만다가 있는 곳은 오토메나크가 현실에서 겪는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6) 최인훈, 『태풍』 최인훈 전집5, 문학과지성사, 2009, 178-181면.

3. 나오며

최인훈 소설 <颱風>에서 바다는 여성이며, 어머니이며, 소설 속 주인공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의 소설에서 바다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과제로 남긴다.

한국 노래가사에 나타난 해양문학의 의미

정 석 원 ■ 부산대학교

해양문학의 주 무대는 바다를 배경으로 또는 섬 포구 항구를 대상으로 삼는다. 인간의 삶이나 생활터전 환경 기타의 카테 고리 속에서 펼쳐지는 스토리의 전개라 할 수 있다

바다는 삶의 일부분이기에 희망과 미래이며 도전하고 극복해야할 영역에 속한다 해양문학이란 이러한 시공간을 담아내는 사건의 영역에 바다라는 소재 또는 배경을 가지고 이미지의 구체성을 표현하는 작업일 수 있다 여기에 역사성과 시대상이 반영된 해양문학이라면 그 사실 기초에 근거한 자료가 포함되기에 객관성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병주의 <관부연락선> 염상섭의 <만세전>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대표적 문학이라 하겠고 이후 시로써는 최남선 김기림 등의 해양시가 나오며 근래의 작품으로 해양시<청진항>을 남긴 김성식[1942~2002] 천금성의 <영해발 부근>이란 작품이 선을 보인다.

해양 문학에서의 소설 시가 체험에서든 허구에서든 비판성 포용성 의식을 갖고 있다면 해양에서의 노래 가사말은 보다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여 바다의 이미지를 인간의 내면적 진솔함에 더하여 그 속내를 드러내고자 함이 다분하다.

해양문학에서의 노래가사는 그 소재인 바다를 대상으로 철저히 자신의 개인의 소재로 삼아 투영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노래 시에서 나타난 섬 포구 항구 그리고 해변을 주변으로 한 애상을 노래함으로서 한국적 서정성을 엿볼 수 있다

박경중[1916~2006]<초록바다>발표.1958년>의 동요/초록빛 바닷물에 두손을 담그면, 파란 하늘빛 물이 들지요, 초록빛 어여쁜 손이 되지요/는 풀카형식의 노래로 초록이 갖는 색상의 이미지를 바다색에 넣고 동요<바다>/아침마다 갈매기는 금빛을 싣고 희망에찬 아침 바다 노 저어가요/는 금빛바다를 표현하여 바다에는 희망 행복 그리고 풍요를 노래한다.

가수 김정구의 <바다의 교향시>[1940년 취입]는 조명암 작사로 주로 낭만적이며 서정

적인 시를 그려냈다 이 노래는 경쾌한 폴카형식으로 첫 구절부터 강한 이끌림을 만들어 내어 /어서—가자—바다로—가자/로 시작하여 희망 찬 바다 사랑이 있는 바다를 노래 한다 이러한 바다의 이미지 혹은 영상은 인간의 진취적 의지와 심리적 상상이 더하여져 꿈과 희망 그리고 행복을 갈구하는 대상이 되어진다.

송창식의 <고래사냥>에서는 /자—떠나자— 동해바다로 고래잡으로/를 구호처럼 외치며 암울한 현실에 안주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삶을 버리고 일상을 깨워 고래가 사는 바다 인간의 욕망을 일깨우고 그 욕망의 꿈을 성취하는 바다가 있음을 확인하는 대상이 되어진다 바다는 청춘의 놀이터로써 보물창고로 바다에서 꿈을 이루는 무한한 열린 공간이 되는 것이다

한편 안다성의 <바닷가에서>는 슬로우락의 선율에 쓸쓸하고 추억만이 있는 전형적인 외로움의 바다를 그리고 있다 /파도소리 들리는 쓸쓸한 바닷가에서 나 홀로 외로이 추억을 더듬네 아— 새소리만 바람타고 처량하게 들려오는 백사장이 고요해/ 바다가 주는 이미지의 풍경화와 귓가에 들리는 듯한 음향적 소리까지도 구절에 삽입되어 바다는 한쪽의 그림이 되고 만다 <바다의 교향시>, <고래사냥>과는 전혀 다른 바다의 이미지로 완전히 다른 시적 심상을 본다

그러면서 조미미의 트로트 <바다가 육지라면>의 제목처럼 /파도가 길을 막아 가고파도 못 갑니다/란 구절에서 바다는 인간이 넘지 못하는 대자연의 대상이며 운명이지만 그래도 철새라도 되어 바다를 넘어 날아가고 싶은 희망의 끈만은 놓지 않는 애절함을 나타내 보인다

바다는 희망 이며 꿈인 동시에 이별과 추억 그리운 님을 떠나보낸 이별의 장소이기도 하다 여기서 등장하는 물새며 갈매기는 나 자신과의 비유로 만들어 바다라는 거부할 수 없는 장애물을 넘어 이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본능을 만들어 내고 있다

바다의 시적 공간은 한인현[1921~1969]의 동요<섬집아기>는 전형적인 정형시와 동시의 형식으로 바다가 주는 정적 이미지를 애절한 엄마의 마음 즉 바다가 주는 포근함과 넉넉함을 보이며 서정적이고 내면적인 심연의 근원을 표현한다

한편 시대를 가까이 해서는 바다의 노래말 가사는 점차 고백적 내용의 서술로 비껴가 가면서 음악의 선율도 다양해진다

바다노래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는 고고풍의 노래로 바다 '해변 백사장의 이미지를 빌어 젊은 연인들의 청춘을 발산하는 공간으로 행복을 만들어 내는 장소의 배경으로 펼쳐 놓는다.

사월과오월의<바다의 여인>역시 해변에서의 우연한 사랑과 부서지는 파도로 지나간 추억을 그리는 쓸쓸한 바다를 노래하고 있다

대학 가요제에서 출품된 높은 음자리의<바다에 누워.>는 펑키 노래에 바다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될까/로 나타나고 /설익은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 씻기워 간다/로 생채기난 상처를 어루만져 주길 바라는 따스함의 바다를 그리워하

고 있다

반면 발라드풍인 노래 <바다를 사랑한 소년>의 김성호작사는 <너는 너무나 차갑고 아름다웠었기에 중략 나의 생명의 시작은 너를 향했던 것을>에서 반전으로 <바다여 너의 사랑을 말해도 소리쳐도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니 바다여 내가 슬픔에 잠기어 방황해도 너는 왜 모르는 척 외면하니>로 바다는 일상사에 시달려 심란하거나 울적할 때 마음을 보듬어 주는 통 큰 바다에서 인간이 함부로 해적질해 온 상처 난 바다는 위안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현 시대의 바다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 드러나 있음을 본다작사가는 시대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이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바다는 강인함과 부드러움의 양면적 요소를 드러내고도 신비감 호기심을 주는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대상으로 일반적인 감성과 이미지를 주고 있다 그럼으로 바다노래의 전형적 단어의 어휘로 추억 사랑 이별 꿈 희망 슬픔 외로움 등으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는 <관념의 바다>로 지나치게 이미지에 치중해 바다가 주는 구체성은 약해지고 서정성이 먼저 시상을 자리잡는 시심의 한 형태일 수도 있다 여하튼 해양시나 노래가사가 전하는 바다의 목소리가 풍랑이든 잔물결이든 지친 삶을 위로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한국동요음악사 <한용희>세광음악출판사1987
2.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한국근대의 음악>

완도군 금일의 해양 지명어 ‘모리’

조 미 라 ■ 목포대학교

1. 머리말

‘모리’는 금일 토박이들이 바다 및 해안지역을 명명하는 토박이말로 지금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해양 지명어 중 하나이다. 이 ‘모리’처럼 지명어는 시대가 변하고 지형이 소멸되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보수적인 특징이 있다. 그것은 지명을 명명하는 지역의 방언에 옛 지명의 형태와 의미가 잔존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완도군 금일은 바다를 이용한 수산업과 해양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흥미롭고 독특한 해양 지명어가 발달해 있어 해양 언어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그 중 옛날부터 금일의 관문으로 알려진 해안지형에 형성된 하화전 마을의 옛 지명 ‘야금’을 들 수 있다.

‘야금’은 주로 외지인들이 들어와 술집과 상가들을 운영했는데 금일 토박이들은 ‘야금’에 와서 돈을 쓰고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허다했다고 한다. 별레가 나뭇잎을 ‘야금야금’ 갈아먹듯 외지인들이 마을에 정착해 토박이들의 주머니에서 ‘야금야금’ 돈을 빼먹었다고 하여 ‘야금’이라 명명했다는 민간어원설이 있다.

본고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내륙 산간지역에서 주로 쓰여 산 지명어로 화석화 된 ‘마루’의 변이형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완도군 금일의 해양 지명어 ‘모리’의 특징을 살피는데 그

목적이 있다.¹⁾ 지명어 연구는 어원, 음운, 형태소, 조어법 등의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다. 그러나 생성된 지명은 시대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변형되어 어원적 의미를 재구하기가 어렵다.

필자는 지명어의 명명요소를 기반으로 완도군 금일 해양 지명어 ‘모리’의 특성을 재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부요소에서는 지명어 생성 및 유래 등에 관한 특징을 찾고, 후부요소에서는 대상 지형의 특징을 살펴 ‘모리’의 어원적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2. 조사 과정 및 방법

금일 해안 지명어 ‘모리’에 대한 조사는 2016년 1월 5일~3월 11일까지 법정리 9개, 행정리 23개에 대한 현장조사와 인터뷰 조사로 각 마을의 복지회관에서 실시하였다. 제보자 선정은 노인회장 및 이장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지명 조사에 적합한 사람을 천거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면담방법은 이야기 질문법과 명명식 질문법을 사용하여 사물을 직접 가리키거나 그림, 지도, 사진 등을 보이면서 묻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것은 위성 지도와 약도, 사진자료를 준비하여 위치를 가리키면서 ‘이 해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또는 ‘어르신 어릴 적에는 이 해안을 어떻게 불렀습니까?’라는 방법으로 지명조사가 수행되었다.

3. 금일 해양 지명어 ‘모리’의 특성

금일지역 27개 자연마을 가운데 바다와 인접한 해안 지역에서만 두루 쓰이는 ‘모리’는 ‘마루’의 변이형이라 할 수 있다. 필자의 근거에 대하여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1) 산의 등성이를 이루는 지붕이나 산 따위의 꼭대기. 2) 파도가 일 때 치솟은 물결의 꼭대기. 3) 일이 한창인 고비. 4) 물리, 파구(波丘)의 이칭으로 물결이나 음파 따위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나타내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기록 되어있다.

1) 본 논문은 2016년 1월 5일~7월4일까지 ‘완도군 스토리텔링을 위한 섬 언어문화 관광자원화 조사’의 학술연구 용역으로 완도군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본 조사는 배가 다니지 않은 금일읍의 작은 섬에서 물과 전기의 지원도 없이 섬을 지키며 살아가는 섬부도의 주민, 박근범(섬부도 부도, 47세 남), 백행복(섬부도 섬도, 55세, 남)과 김형남(우도리, 54세, 남), 변득순(우도리, 65세, 남)님을 비롯하여 금일읍 노인회 임규성(화목리, 79세, 남)과 23개 행정리의 노인회장, 이장, 부녀회장, 어촌계장, 개발위원장님들과 협조해 주신 금일지역 60여명의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3.1 ‘모리’

자립명사 ‘모리’는 파도가 일 때 치솟은 물결의 꼭대기를 의미하는데 금일에서는 바다와 나루터 및 해안 마을을 의미하는 해양 지명어로 나타난다.

(1) ㄱ. 모리 <1459월인석보>

ㄴ. 외모리 진흔 곳<1770한청문감>

ㄷ. 건너편 산마루 우에 뿌영게 흐린 하늘갓에는<1992조선말대사전>

(1)과 같이 ‘모리’의 원형 ‘마루’는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모리’로 나타나다가 20세기 ‘마루’, 또는 ‘산마루’의 형태로 쓰였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산을 명명하여 강원도와 같은 산간 내륙지역에서 활발히 쓰이는 지명어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확인된바 ‘마루’가 바다 및 해안 지형의 특징을 반영한 해양 지명어라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였다.

3.2 물모리

‘물모리’의 ‘모리’는 바다가 명명 기반이 되는 지명어로 금일 궁항리 ‘알데미’ 마을의 바다를 명명하는 토박이말이다. 민간어원설은 궁항리 ‘알데미’ 마을에서부터 당모리(덩머리)의 ‘당너메’까지의 바다를 명명한다.

‘물모리’는 ‘물+모리’의 합성어로 전부요소 ‘물-’은 자연이 기반이 되는 명명요소 ‘바다’가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후부요소 ‘-모리’는 대상 유형인 ‘바다’를 의미한다. 즉 궁항리 마을에서 ‘물모리’는 ‘바다’의 어원적 의미가 있다. 바다를 명명하는 ‘모리’는 금일 궁항리 외에도 인근 울모리<금일 사동리>, 쇠모리<금일 동백리> 등에서도 토박이들이 사용하고 있다. 한편 바다지명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어원설에 의해 산 지명어로 명명되고 있는 금일 동백리의 ‘쇠모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쇠모리’는 금일 동백리에서 ‘새머리’의 토박이말로도 이칭 된다. 현재 마을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쇠모리끝’과 인접해 있는 산 지명어이다. 이 산은 동백리에서 ‘큰산’이라고 불리는 가장 남쪽 끝에 있으며 산의 지형이 소(牛)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하는 민간어원설이 전해진다. 이 민간어원설은 ‘쇠모리’의 ‘쇠’가 ‘소(牛)’를 뜻하는 ‘쇠’로 어원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칭 되는 ‘새머리’ 지명어에서는 ‘牛’의 어원을 찾을 수가 없다.

한편 ‘쇠모리끝’의 민간어원설은 ‘쇠모리’가 바다 지명어로 명명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쇠모리끝’은 금일 사람들이나 외지인들에게 진도 울돌목과 같이 ‘물살이 센 바다’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이 ‘쇠모리끝’은 지금도 거친 물살과 풍랑으로 난파사고가 일어나 이 지역의 주민들은 ‘풍어제’와 ‘헌식’을 올린다고 한다. ‘쇠모리끝’은 ‘쇠(매우, 심히)+모리+끝’의 합성어로 ‘물살이 센 바다 끝’의 어원적 의미가 있다.

이때 후부요소 ‘-끝’은 대개 해변에 접해 있는 낭떠러지나 절벽 근처의 지명에 나타나 어떤 지점을 기점으로 한 전부요소 ‘쇠모리-’에 결합하여 그 지점의 한계를 가름하는 형태소이다.(김형주, 1982). 이 ‘쇠모리끝’을 향해하는 경상도 사람들도 충청도로 고기잡이를 하러 갈 때 ‘쇠모리끝’에서 고사를 지낸 후에 ‘쇠모리’ 앞을 향해 했다는 설로 보아 ‘쇠모리’가 바다 지명어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쇠모리’는 소의 머리를 닮은 지형이라는 민간 어원설에서 전부요소 ‘쇠-’를 ‘牛’가 기반이 되어 생성된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쇠-’를 옛말 ‘매우, 심히’ 등의 뜻으로 쓰인 부사어로 추정한다.

(2) ㄱ. 뭇우희 대병물 한 소로 티시며 한쇼를 두 소내 자비 시며(1447용비어천가, 87장)

ㄴ. 쇠나기에 흐르는 지니 듣느 니(凍雨落流膠)<1481두시언해, 18, 19a>, 오후 쇠나기 오다<1636병자일기, 92>, 쇠나기(過路雨 凍雨)<1690역어유해, 상, 2a>, 쇠나기(驟雨)<1778방언유석, 신부방언, 5a>

(2)의 ㄱ)에서 15세기 ‘소(牛)’는 원래 ‘쇼’로 쓰였고, 그 속격형은 ‘쇠’로 쓰였으며 18세기 까지 나타나다가 ‘쇼’는 ‘소’로 속격형 ‘쇠(쇼+ㅣ)’는 ‘쇠’로 단모음화 되어 오늘날까지 ‘소’와 ‘쇠(쇼+ㅣ)’로 쓰이고 있다. 한편 ‘쇠모리’는 ‘쇼+ㅣ+모리’의 합성어로 ‘쇠모리’의 ‘쇠-’는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문헌에서는 ‘갑자기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의미하는 ‘쇠나기’의 ‘쇠’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²⁾

ㄴ)의 ‘쇠나기’는 ‘쇼+ㅣ+나--+기’로 합성어로, ‘쇠-’는 ‘매우, 심히’의 뜻을 가진 부사로, ‘심히 내리다’란 뜻을 가지는 옛말이다. 필자는 ‘쇠모리’가 ‘쇠나기’의 전부 지명소 ‘쇠’와 같이 ‘매우, 몹시, 심히’의 의미를 갖는 15세기부터 18세기에 사용되었던 부사로 추정한다. 그것은 ‘쇠모리끝’이 ‘물살이 센(심한) 바다 끝’이라는 민간어원설의 근거로 볼 때 바다 지명어가 산 지명어로 오인되어 명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3 울모리(울머리)

‘울모리’의 ‘모리’는 나루터가 명명 기반이 되는 지명어로 금일 사동리에서 나루터를 명명하는 토박이말이다. 사동리 마을에 배가 닿는 나루터를 의미하는 ‘울머리’ 또는 ‘울몰’로 명명되는 지명어가 함께 나타난다. 현재 ‘울모리’는 주변의 유인도 7개(소랑도·다랑도·충도·신도·우도·섭도·부도)와 여장권에 있는 무인도를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나루터이다. 지금은 사동리와 인근의 소랑리가 연륙이 되어있지만 연륙이 되기 전에는 나룻배를 타고 이동해야 했다.

‘울-’은 위치가 기반이 되는 명명요소로 ‘위(上)’의 근거에서 생성된 전부요소이고, ‘-모리’는 바다의 의미에서 나루터를 명명하는 요소로 확대된 후부요소이다. 그러나 사동리에서

2) 홍윤표(2010), 《살아있는 우리말의 역사》, P469-471에서 인용함.

이 ‘-모리’는 나루터를 비롯한 마을을 명명하는 후부요소로까지 확대되어 다의어적인 특징을 갖는다.

(3) 당(堂)모리(덩머리)<궁항리>, 선창머리, 울머리(울몰)<동백리 4반>

(3)의 ‘당모리’는 궁항리 동쪽에 위치하여 옛날부터 마을신을 모셨던 당(堂)이 있는 마을을 명명하는 토박이말이다. ‘당모리’는 ‘덩머리’라고도 이칭되며, 전부지명소 ‘당-’은 주민들의 생활문화에 근거해서 명명되는 요소로 이때 후부 지명소 ‘-모(머)리’는 마을을 명명하는 요소로 ‘당 마을’의 어원적 의미를 갖는다. 후부요소 ‘-머리’는 신라시대부터 촌락 군집 지역의 입구에 위치한 마을의 이름으로 나타나 ‘우두머리’, ‘으뜸’의 뜻으로 쓰여 왔다.(정경일, 1996)

앞서 살핀 ‘울모리’의 ‘-모리’는 ‘-머리’와 ‘몰’ 등의 명명 요소가 전부요소와 결합하여 ‘울머리, 울몰, 선창머리’로도 나타나 바다와 나루터가 있는 마을까지 명명하는 지명어로 나타난다.

3.4 곰몰

‘곰몰’의 ‘-몰’은 ‘-모리’의 준말로 마을의 명명 기반이 되는 지명어로 감목리 3반에 있는 해안 마을을 명명하는 토박이말이다.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골짜기 물이 마을로 내려와 물이 풍부했다는 민간어원설이 있다. 현재 금일에서 유일하게 목욕탕이 있는 지역으로 보아 민간어원설에 근거를 둔다. ‘곰몰’은 ‘골몰짜’의 토박이말로 이칭 되어 나타나며 ‘곰몰’의 변이형으로 ‘고을(洞)+몰(村)’이 합성어가 되어 ‘고을에 있는 마을’을 의미한다. 이 ‘곰몰’은 금일읍의 면사무소가 소재해 있는 중심 지역이다. 이때 마을이 명명 기반이 되는 전부요소 ‘고을-’은 ‘-몰’의 ‘ㅁ’ 앞에서 ‘고을-’의 ‘ㅇ’이 동화되어 ‘곰-’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발음 변이 현상은 동백리 7반의 마을 지명어에서도 나타난다.

(4) ㄱ. 곰몰<감목리 3반>, 새턴몰<동백리 8반, 하화전리>, 골몰(곰몰)<동백리 7반>, 건너몰<동백리 1반>, 골창몰<사동리 1반>, 울몰<사동리>, 웃몰, 아룻몰<월송리>골창몰샘<사동리>, 울몰(동백리 4반>

ㄴ. 뒷말<하화전리>, 장터말<하화전리>, 불등말<월송리>, 음산(음지말), 양지말<일리>

(4)와 같이 금일지역에서는 마을을 의미하는 명명요소로 ‘-모리’의 변이형 ‘몰’과 ‘말’ 등의 지명어와 함께 나타난다. 이것은 금일지역에서는 바다에 인접한 해안 마을 지명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그렇다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산의 지명어로 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 지역에서는 마을을 의미하는 또 다른 명명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골’과 ‘데미’ 등이다. 특히 ‘데미’는 주로 몇 가구씩 모여 사는 소규모의 촌락을 나타내는 마을을 의미하는 후부요소로 산 지형과 들 지형에 있는 마을을 명명한다.

(5) 우데미, 우데미샘<신평리 3반>, 간뎃뎃, 간뎃뎃샘<신평리 2반>, 아리데미, 알데미샘<신평 1반>, 우데미<상화전리>, 아렛데미<상화전리>, 우데미<동송리 4반>, 알데미<동송리 1반> 동미테<구동리 1반>, 알데미<구동리 2반>, 간데뎃<구동리 3,4반>, 우데미<구동리 5반>, 건네뎃<구동리 6반>

(5)의 후부요소 ‘-데미’는 ‘신평리, 구동리, 상화전리’와 ‘동송리’의 위에 있는 마을을 명명하는 마을 지명어이다. 이 마을들은 산과 들 지형에 위치하며, 언덕이나 평지부분에 위치한 곳으로 지형적 특징이 후부요소에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

정리하자면 금일 지역에서 바다 및 해안지형에 형성된 마을에서는 해양 지명어 ‘-모리’가 나타나며, 산과 들 지형에 형성된 마을에서 ‘-데미(뎃)’의 마을 지명어들이 나타난다. 이것으로 보아 금일지역에서는 이 두 후부요소가 지형에 따라 명명하는 그 요소에 차이가 있어 지형과 명명되어지는 지명어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4. 뎃음말

이상으로 필자는 소멸되어 가는 해양 지명어 ‘모리’에 대해 명명요소를 기반으로 그 특성을 살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산 지명어로 화석화 된 ‘마루’의 변이형 해양지명어 ‘모리’에 대한 정리는 다음과 같다.

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모리’가 ‘바다 지명어’의 사전적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견해로 추가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나) ‘모리’는 바다의 의미에서 점차 확대되어 나루터, 마을, 샘 등의 명명요소까지 확대되어 ‘후부요소’로 나타난다.

다) ‘모리’는 바다를 명명하는 기본요소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산과 들 지형의 마을에서는 바다를 명명할 때 ‘바닥’ 또는 ‘바다’로 나타난다. 또한 ‘모리’가 마을의 지명어로 명명될 때 해안 지형에 있는 마을을 나타내며, 산과 들 지형의 마을에서는 ‘데미’, 또는 ‘뎃’의 마을 지명어가 나타난다.

이처럼 완도군 금일지역은 산간 내륙지역에서 쓰이다가 소멸되어가는 우리말 ‘모리’외에도 독특한 해양 지명어들이 잔존하고 있으나 연구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해양

지명어에 대한 해양 언어연구가 전무후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섬 언어 연구자들에게 완도군의 해양언어 발굴 및 해양 지명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제안한다.

보길도(甫吉島) 격자봉 (格紫峰, 430.3m)

—전남 완도 보길도—

천 기 철 ■ 한국사진작가협회

보길도(甫吉島)는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에 속하는 섬으로 완도에서 남서쪽으로 18.3km, 해남군 땅끝에서 12km 떨어져 있고, 노화도 남서쪽 3.8km 지점에 있다.

면적 32.436km², 인구는 약 2,977명(2013, 12월 기준)이다. 지금은 보길대교로 인근의 노화도와 연결되어 있다.

섬의 남쪽에 격자봉(赤紫峰, 430.3m), 동쪽에 광대봉(廣大峰, 311m), 서쪽에 망월봉(望月峰, 364m) 등 전역에 산지가 발달하고 있다.

보길도(甫吉島)의 명칭은 옛날 영암(靈巖)의 한 부자가 선친의 묘자리를 잡기 위해 풍수 지리에 능한 지관을 불렀는데, 지관이 이 섬을 두루 살핀 뒤 ‘십용십일구(十用十一口, 甫吉)’라는 글을 남기고 떠났다.

이 글의 뜻을 풀기 위해 월출산 선암사의 스님에게 내용을 물으니 섬 내에 명당자리가 11개 있는데 10구는 이미 사용되었고 나머지 1구도 이미 쓸 사람이 정해졌다고 풀어 보길도(甫吉島)라 불렀다고 전한다.

보길도는 조선시대 시가문학의 대표자로 알려진 고산 윤선도(孤山 尹善道, 1587 ~ 1671)의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섬이어서 사시사철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섬이다. 고산은 섬의 남쪽 격자봉 아래 부용동(芙蓉洞)에 14년간 은거하며, 세연정(洗然亭), 낙서재(樂書齋), 곡수당(曲水堂), 동천석실(洞天石室) 등 많은 건물과 정자를 짓고 연못을 만들어 자신만의 낙원을 만들었다.

“충헌공(忠憲公, 고산 윤선도의 시호) 이 병자년(1636년)에 근왕병을 일으켜 물길로 이곳을 떠난 뒤 수일이 안 되어 강화도가 함락되었다. 공은 생각하기를, 호남으로 급히 돌아가면 영남으로 통할 수 있을 것이고 조정의 명령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었다. 그렇지 못

하면 백이(伯夷)처럼 서산(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고 서산지미(西山之薇), 기자처럼 은둔하여 거문고를 타며 기자지금(箕子之琴), 관녕처럼 목탑에 앉아 절조를 지키는 관녕지탑(管寧之榻)것이 나의 뜻이라 하고 급히 영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성하지맹(城下之盟, 남한산성 아래 삼전도에서 항복한 일)의 치욕이 있었다.

공은 충분(忠憤)에 복받치어 다시 육지에 오르지 않고 배를 띄워 남쪽을 향해 내려가서 탐라(耽羅, 제주도)로 들어가려 하였다. 가는 길에 배를 보길도에 대고 수려한 봉을 바라보고는 그대로 배에서 내려 격자봉(格紫峰)에 올랐다. 그 영숙(靈淑)한 산기(山氣)와 기절(奇絶)한 수석을 보고 탄식하기를, “하늘이 나를 기다린 것이니 이곳에 머무는 것이 족하다.” 하고 그대로 살 곳으로 잡았다.

그러나 수목이 울창하여 산맥이 보이지 않았다. 사람을 시켜 장대에 깃발을 달게 하고 격자봉을 오르 내리면서 그 고저와 향배(向背)를 헤아려 낙서재 터를 잡았다.”

고산의 5대 손인 윤위(1725~1756)가 24세 때 보길도를 답사하고 쓴 기행문인 보길도지(甫吉島識)에 고산 윤선도 선생의 입도 과정과 터를 잡은 기록이다.

격자봉(格紫峰)은 고산 윤선도가 명명한 산이름이다. 적자봉(赤紫峰)이라는 산이름은 일본인들이 만든 우리나라지도에 처음 표기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국립지리원 발행 5만분의 1 지형도에도 적자봉(赤紫峰)으로 표시되었다. 보길도의 남쪽의 산은 격자봉(格紫峰)이지 적자봉(赤紫峰)은 아니다.

청별항에서 부용동을 향해 약 20분 정도 걸으면 고산이 ‘어부사시사’를 창작했다는 세연정(洗然亭)이 나온다. 개울을 막아 만든 연못인 세연지에는 1992년 복원한 정자가 있다.

격자봉 아랫마을 부용동은, 마치 깊은 산중에 자리잡은 마을인 것처럼 보인다. 세연정의 봉화대에서 바라보는 부용동(芙蓉洞)은 바다가 보이지 않아 산골 마을과 다름없다.

부용동을 감싼 산들은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고산 윤선도가 부용동(芙蓉洞)이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부용동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다리를 건너 오솔길을 따라 20여분 가량 오르면, 동천석실(同天石室)이 나온다. 동천석실은 신선이 되고 싶었던 고산이 자주 오르며 부용동(芙蓉洞)의 아름다운 마을의 풍경을 즐겼던 곳이다. 고산이 살았던 부용동(芙蓉洞)과 낙서재(樂書齋)

),곡수당(曲水堂)이 그림처럼 조망된다.동천석실을 다시 내려와 부용동 동백숲길을 따라 약 15분 정도 오르면 곡수당과 낙서재가 있다.

부용리앞 사무소 옆에 있는 부용민박의 옆 길에서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된다. 곡수당 터의 돌담을 지나 난대상록수림이 우거진 칙칙한 숲길을 지나 약 30분 정도 오르면 큰길재에 도착한다.

나무의자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쉬기에 편안한 곳이다.등산로는 큰길재 오른쪽 울창한 상록수림의 숲속으로 나있다.

큰길재에서 광대봉을 뒤로하고 다소 가파른 등산로를 동아줄을 부여잡고 암릉에 오르면 장막이 걷히듯 숲이 벗겨지며 사방으로 트인다.바로 아래로 예송리해변과 소안도가 보인다.

전망이 좋은 바위 능선을 10여분 오르면 예송리해변으로 이어지는 삼거리가 있는 수리봉(406m)이다.수리가 많이 살았던 곳이라 하여 수리봉이라 한듯하다.작은 케른(돌탑)이 외롭게 서있다.

동쪽으로 소안도와 청산도가 ,북쪽으로 광대봉 너머로, 땅끝,노화도,완도의 상황봉이 보인다.서쪽으로 부용동도 보인다.남쪽으로는 당사도,복생도,제주도 까지 보인다.

수리봉에서 약 20여분 능선으로 걸으면 적자봉(430.3m) 정상이다.능선의 봉우리들의 높이는 고만고만하여 정상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정상 높이를 표시해놓은 이정표가 서있어서 정상으로 알아차릴 뿐이다. 바다를 조망하는 목재의자에 앉으면 남쪽으로 망망대해에 떠 있는 당사도,복생도,제주도만 보일 뿐이다.

우거진 상록활엽수림숲의 능선을 10여분 나아가면 마치 덩치 큰 바위 하나가 나타난다. 마치 누룩을 찧아 놓은 듯한 누룩바위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만들에 놓은 목재데크길을 따라 바위에 오르면 바로 아래로 큰 기미의 파도소리가 아련하게 들리고 . 동쪽의 당사도와 복생도, 서쪽의 넓도 군도, 남쪽으로는 제주도, 북쪽으로는 노화도와 횡간도,땅끝,완도의 상황봉 모두가 보이는 격자봉 최고의 조망바위다.

다시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의 초록빛 이끼가 미끄러운 바위 능선길을 따라 약 30여분 오

르고 내리면 무영봉(420m)이다. 내려가서 우뚝 솟은 전망 바위에 오르면 바로 아래로 뽕죽산(195m)과 불무섬이 보이고, 멀리 추자도가 아련하게 보인다.

약 20여분 쉬엄쉬엄 내려가면 뽕래기재다. 뽕래기 까지 도로가 없던 시절, 뽕래기에서 부용동마을로 오르 내리던 생활로인 뽕래기재 사거리다. 키 큰 불가시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는 군락지다. 섬터의 의자에서 30여분 왼쪽으로 내려가면 뽕래기마을이고, 정면으로 능선을 따라 올라가면 망월봉과 선창리재, 남은사로 가는 등산로다.

산행길잡이

부용동~곡수당 ~큰길재~수리봉~정상~누룩바위~삼거리~뽕래기재 사거리~보옥리(5시간 소요),
부용동~차낭골~삼거리~누룩바위~정상~삼거리~수리봉 삼거리~예송리해수욕장(4시간),

부용동~곡수당 ~큰길재~수리봉~정상~누룩바위~삼거리~뽕래기재 사거리~망월봉~망끝전망대(6시간 소요)코스가 좋다. 동천석실이나 낙서재는 주 등산로에서 벗어나, 시간이 넉넉하면 한가롭게 둘러도 좋다.

1박 2일동안 보길도 섬여행과 격자봉 산행을 함께 하게 되면 고산 윤선도의 자취어린 보길도의 섬을 어느 정도 섭렵할수 있을 것이다.

적자봉 주변 볼거리

예송리 해수욕장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상록수림과 어우러진 깎아지른 해수욕장이다.

한 여름에도 시원한 물은 해수욕객들의 여름을 맛보게 한다. 파도에 씻겨 내리는 깎아지른 연주는 은 음악소리다.

통리해수욕장

맑은 날씨에는 제주도 한라산이 어슴프레 보인다. 조용하게 바다풍경을 즐길수 있는 해수욕장이다. 솔숲과 어우러진 백사장도 일품이다. 하루에 두 번씩 연육되는 목섬을 건너며 싱싱한 해초와 석화를 채취하는 재미도 있다.

중리해수욕장

솔숲과 어우러진 천연 백사장이다. 200~300미터를 가도 사람키를 넘지 않는다.

수영에 미숙한 사람들이 애용하는 보길도 최고의 해수욕장이다. 앞에 떠 있는 섬들은 마치 한폭의 그림 같다.

세연정

우리나라 조경유적중 특이한 곳으로, 고산의 기발한 착상이 잘 나타난다. 개울에 보를(판석보, 일명 굴뚝다리)를 막아 논에 물을 대는 원리로 조성된 세연지는 산중에 은둔하는 선비의 원림으로서 화려하고 규모가 크다. 어부사시사는 주로 이곳에서 창작되었다. 세연정은 1992년 12월 복원되었다.

낙서재(樂書齋)

고산 윤선도가 살았던 집터이다.

무민당 옆에 연못을 파고 연꽃을 심었으며, 낙서재와 무민당 사이에 동窩(東窩)와 西窩의 각한 칸집을 지었다. 낙서재 뒷편에 소은병(小隱屏)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고산 윤선도는 엄동설한에도 사색에 잠겼다고 한다.

곡수당(曲水堂)

낙서재 건너 개울가에 지은 집이다. 고산 윤선도의 자제 학관이 기거했던 곳이다. 윤선도의 아들이 조성한 초당·석정(石亭)·석가산(石假山)·연못·화계(花階)·다리 등의 다채로운 조원(造苑)이 배풀어진 곳이다

동천석실(洞天石室)

1,000여평되는 공간에 석제(石梯)와 석문(石門), 석담(石潭), 석천(石泉), 석폭(石瀑), 석대(石臺) 및 희황교(羲皇橋)유적이 있다. 고산 윤선도는 부용동 제일의 절승이라 했다. 그리고 해 저물녘에 차를 끓이는 연기가 선경 처럼 보였다 하여 석실모연(石室募烟)이라하고, 부용동 8경이라 했다.

보옥리 공룡알 갯돌밭

보옥리 남쪽해변이다. 파도에 씻겨 내린 돌이 마치 공룡알처럼 생겼다.

망끝전망대

선창리에서 뽕족산 가는 길에 있다.

망끝전망대에 서면 망망대해를 볼수 있다.

날씨가 맑으면 제주도가 보이고, 추자도는 항상 보인다.

예송리전망대

예송리 갯돌밭을 조망하기에는 최고의 전망대다.

좌측으로 예작도,복생도 그섬에 가고 싶다로 유명한 당사도가 보인다.

송시열글써바위

조선 숙종(1639년 2월)때 왕세자의 상소를 올린 것이 화근이 되어 제주도로 유배
 귀향가던 중 풍랑을 만나 잠깐 피신하다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 시를 바위에 새겨 놓았다.보옥리
 공룡알 갯돌밭
 보옥리 남쪽해변이다.파도에 씻겨 내린 돌이 마치 공룡알처럼 생겼다.

부용동 8경(芙蓉洞八景)

연당곡수(蓮塘曲水) : 곡수당의 연못, 은병청풍(隱屏淸風) : 낙서재의 소은병에 부는 소슬바람
 ,연정고송(然亭孤松) : 세연정의 소나무, 수당노백(手當老柏) : 곡수당의 오래된 동백나무, ,석
 실모연(石室募烟) : 동천석실에 감도는 저녁연기, 자봉귀운(紫峰歸雲) : 격자봉을 휘 감는 구름,
 송현서하(松峴捷鴉) : 솔재에 등우리를 튼 갈가마귀 떼 , 미산유록(薇山儒鹿) : 미산에 뛰노는 사
 슴

‘소래’ 포구의 어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소래포구를 중심으로—

손 희 하 ■ 전남대학교

1. 머리말

* 연구 목적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소래’ 포구 지명의 어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연구 필요성 및 의의:

‘소래’ 포구 지명의 어원에 대하여서는 현재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 관련설을 비롯하여 갖가지 여러 이설이 난무하고 있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해당 지역의 지리 정보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200



[그림1] 소래 포구 일대

(네이버지도, <http://map.naver.com/?lng=126,7402128&lat=37,3984783&dlevel=7&mapmode=0&pinId=12935923&pinType=site&enc=b64, 20160622>)



[그림2] 동여도(東輿圖) 14책5열



[그림3] 청구도(靑邱圖) 제16층 제14판

3. 소래의 어원에 대한 제설¹⁾

-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 관련설.
 - 삼국 시대 말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와서 머물렀던 곳’ 유래 설.
 - 660년(무열왕 7) 나당 연합군을 결성한 당나라가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장수 소정방을 출격시켰는데, 그때 출발한 곳이 중국 산둥성의 내주(萊州)였고, 도착한 곳이 오늘날의 소래포구 지역이어서 소정방의 소(蘇)와 내주의 래(萊)를 취해 ‘소래’가 되었다는 설.
- ‘지형이 소라처럼 생겼다.’는 사실 유래 설.
- 냇가에 소나무 숲이 울창해 일대를 ‘솔내(松川)’로 부르다가 소래가 되었다는 설.
- 지형이 좁다는 뜻의 ‘솔다’ 유래 설.

4. 소래의 형태 분석, 변화, 어원

■ 변화 과정: ‘소래’는 ‘솔(松)[sol]-개(浦)[kay] > [solgay] > [solray] > 솔애[solhay] > 소래[soray] > [sorɛ]’의 어형 변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

■ 의미: ‘소래’는 ‘소나무가 있는 포구’라는 의미이다.

■ 관련 중세 국어 용례:

- 물애오개(< *물개-고개, 沙峴)(용비어천가 9.49)
- 멀위(< *멀귀, 葡)
- 알어늘(< *알거늘, 知), 알오(< *알고, 知).....

‘o’는 y, ‘ㄹ’, ‘ㄷ’과 모음 사이에서의 ‘*ㄱ’이 [g] > [ɾ] > [h] 변화를 입은 결과다.(이기문 (1998), 국어사개설, 수정판, 태학사, 143)

■ 관련 지명 용례:

▶ 솔래: ‘솔(松)[sol]-개(浦)[kay] > [solgay] > [solray] > 솔애[solhay] > 솔래[sollay] > [solle]’

- 솔래 [솔해, 설해, 솔개, 송포(松浦)] 【밭】 배염질 서북쪽, 갯가에 있는 밭.(제주도-북제

1) 소래의 어원을 기술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 ‘소래’라는 지명의 의미에 대해서는 삼국 시대 말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와서 머물렀던 곳’에서 유래했다는 설, ‘지형이 소라처럼 생겼다’는 사실에서 유래했다는 설, ‘냇가에 소나무 숲이 있어 이 일대가 솔 내로 불렸다’는 점에서 유래하였다는 설 등이 있다.(김기혁·옥한석·성효현·양보경·전종한·권선정·김용상·박경호·손승호·신종원·이기봉·이영희·정부매·조영국·김정인·박승규·손용택·심보경·정암(2008), 소래산 蘇萊山 Soraesan,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 국토지리정보원, 174쪽)

■ 소래(蘇萊)라는 지명에는 여러 가지 유래가 있다. 먼저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과의 관련설이다. 660년(무열왕 7) 나당 연합군을 결성한 당나라가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장수 소정방을 출격시켰는데, 그때 출발한 곳이 중국 산둥성의 내주(萊州)였고, 도착한 곳이 오늘날의 소래포구 지역이었다. 그래서 소정방의 소(蘇)와 내주의 래(萊)를 취해 ‘소래’가 되었다는 설이다. 그 밖에 과거 이 지역의 냇가에 소나무 숲이 울창해 ‘솔내(松川)’로 불리다가 소래가 되었다는 설, 이 지역의 지형이 소라처럼 생겨 소래가 되었다는 설, 그리고 지형이 좁다는 뜻의 ‘솔다’에서 비롯되었다는 설 등이 있다.(소래포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2016. 6.22.)

주군-한경면-신창리)

▶ 솔개:

- 솔-개2 [송포]【개】 진하 남쪽에 있는 개. 솔이 많았음. (경상남도-양산군-서생면-진하리)
- 솔-개【개】 넓개 서쪽에 있는 개. 옆에 큰 소나무가 있었음.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연구리)

방언에 따라 소래, 솔래, 솔개 형태가 나타난다.

4. 맺음말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소래’는 ‘솔(松)[sol]-개(浦)[kay] > [solgay] > [solray] > 솔애[solhay] > 소래[soray] > [sore]’의 어형 변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소나무가 있는 포구’라는 의미이다.

참 고 문 헌

가. 1차 자료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

동여도(東輿圖) 14책5열(奎章閣所藏 규장각 원문 서비스, http://kyudb.snu.ac.kr/pf01/renderImage.do?item_cd=GZD&book_cd=GK10340_00&vol_no=0014&page_no=1405&img-FileNm=KYDY001_0000_1405.jpg).

소래 포구 일대(네이버지도, <http://map.naver.com/?lng=126.7402128&lat=37.3984783&dlevel=7&mapmode=0&pinId=12935923&pinType=site&enc=b64,20160622>)

청구도(靑邱圖) 제16층 제14판(奎章閣所藏 규장각 원문 서비스, http://kyudb.snu.ac.kr/pf01/renderImage.do?item_cd=GZD&book_cd=GR33447_00&vol_no=0004&page_no=025b&img-FileNm=GR33447_00IH0004_025b.jpg).외

나. 논저

김기혁·옥한석·성효현·양보경·전종한·권선정·김용상·박경호·손승호·신종원·이기봉·이영희·정부매·조영국·김정인·박승규·손용택·심보경·정암(2008), 소래산 蘇萊山 Soraesan,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 국토지리정보원.
이기문(1998), 국어사개설, 수정판, 태학사.

한국학중앙연구원(2016. 6. 22.), 소래포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한글학회(1998), 『한국 땅이름 전자사전』.

※ 주제어 : 소래, 송포, 소래 포구, 지명 어원, 인천 남동구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mail: shh@jnu.ac.kr

어촌사회와 어로문화, 그리고 해양푸드

문서를 통해 본 염전과 염부이야기	김경옥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어업민속의 지역성	권삼문	여천기념관
기술변동에 따른 미역 인공양식의 확산과 어민들의 생업전략	박혜영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1990년대 초 보령 무창포의 어촌생활	신용희	금강뉴스
미륵도 풍화리 위당계(慰堂契)의 운영	이혜연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여수해역 하계 수산물 보양식 4선	임여호	한국수산회
화성시 갯벌지역 어업민속과 전통지식	편성철	목포대학교
경기 아산만 하구의 정치 어구와 그 특징	오창현	국립민속박물관
마을어장 공유의 공식화와 전통적 운영방식의 지속	송기태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서해의 어업 전진 기지 어청도	이재언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오징어의 모든 것: 오징어를 소재로 한 푸드아트테라피	이정연	목포대학교
동양 전통 氣味論에 기초한 해양식품의 食治활용 연구	박성혜	광주여자대학교
'섬의 인문학' 주창과 "도서해양문화학" 정립을 위한 제언	홍석준	목포대학교
김 양식업의 기술발달이 어촌사회에 미친 영향	최홍대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해녀 어업의 전승과 인식 변화	이유리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문서를 통해본 염전과 염부 이야기

– 신안 비금도 사례 –

김 경 옥 ■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1. 프롤로그

그동안 역사분야의 간척 연구는 대부분 내륙 연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섬을 대상으로 하여 간척지의 조성 과정과 이용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궁금하다. 필자는 최근 전남 신안군 ‘다이아몬드-제도’를 집중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이 글은 동일 해역에 입지하고 있는 비금도에 대한 사례이다. 비금도는 간척 이전에 무려 7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 비금도는 섬의 서쪽에 모래톱이 분포하고, 동쪽에 갯벌이 펼쳐져 있다. 이러한 비금도의 자연환경에서 간척으로 인한 섬의 변화상을 검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재 조선시대 비금도 전역에서 간척이 이루어졌고, 근현대 비금도 간척지에 남한 최초로 천일염전(일명 ‘시조염전’)이 개설되었으며, 한국전쟁이후 비금도 사람들은 신안군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천일염 제조법을 전수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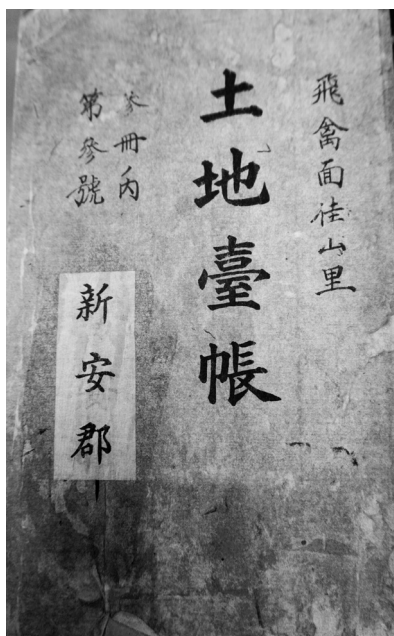
2. 비금도 간척 관련 자료

① 『全羅南道 務安郡 飛禽面 地籍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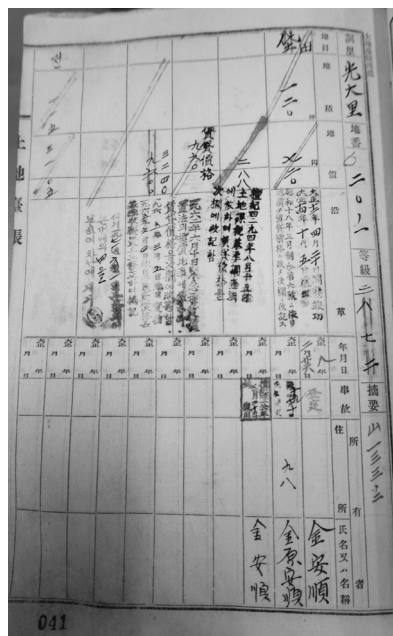
이 자료는 조선총독부에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전국의 모든 택지와 경작지에 대해 필지별로 측량하고, 소유자·지가·등급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 지적원도다. 이 기록물은 국가 기록원 지적아카이브에서 제공받았다. 신안군 비금면의 경우 1916년에 도서특별조사 감사원 技手 犬飼吉也와 부감사원 書記 千文基 등이 참여하였으며, 실재 측량 技手는 비금면 리별로 다수가 참여하였다. 예컨대 비금면 가산리의 경우 技手 李相琇가 측량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飛禽面 土地臺帳』

이 자료는 신안군 문서고에 소장되어 있다. 1916년에 조선총독부가 전국을 단위로 조사하여 작성한 토지대장이다. 표지에 「비금면 ○○리 토지대장」이라 기재되어 있고, 측면에 총 冊卷이 기재되어 있다. 비금면 가산리의 경우 3冊 3卷이며, 수록 내용은 洞里, 地番, 等級, 地目, 기준 수확량, 임대가격, 연혁(年代, 事故, 住所, 姓名) 등이다.



[그림1] 『비금면 토지대장』 (겉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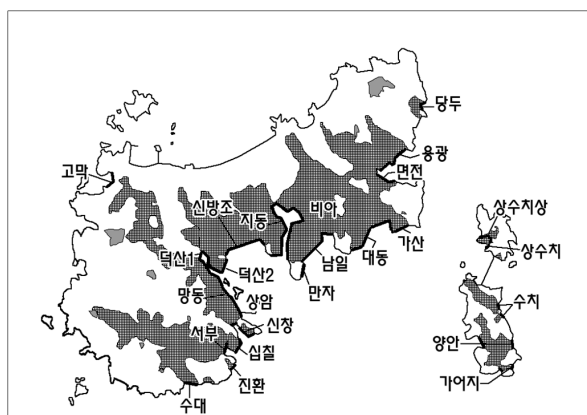


[그림2] 『토지대장』 (내표지)

洞里, 地番, 等級, 地目, 地價, 연혁(소유권)

③ 『飛禽面 防潮堤臺帳』

이 자료는 신안군 비금면사무소 문서고 소장본으로, 근현대 비금도에 설치된 방조제 25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문서 맨 앞에 현전하는 방조제 25건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고, 제방마다 개별 카드가 작성되어 있다. 수록 내용은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술을 채록하거나, 섬마을 간척 관련 문서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오차가 발견된다. 이 문서의 자료적 가치는 현존하는 비금도 방조제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전승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근대에 조성된 제방은 개인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재해를 당하면 복구가 불가하였다. 더욱이 오랜 세월 동안 보수와 개축을 통해 완공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축조 년대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도서 이주민들이 직접 축조한 제방과 근현대의 방조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명칭, 지도(도면), 행정구역, 관리자, 총면적(농경지, 염전, 양어장, 공장부지, 유지, 기타), 수해면적, 설치경위, 소유권 현황, 방조제, 배수갑문, 개보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1차 자료이다.



[그림3] 비금도 방조제 분포도

④ 『鹽田開發·鹽製造許可證』

이 자료는 천일염전 개발과 소금 제조 허가 관련 자료로, 신안군청 문서고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초창기 염전 개설 공사, 준공, 그리고 해당 염전에서 소금(함수) 제조 허가증을 발급받는 전 과정이 문서로 첨부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전통시대 자염터의 위치비정, 간척지 조성에 따른 염전 개발과 운영상, 근현대 염전 소유권 변경, 염전 부대시설 변경, 염전 양도증서, 공동관리 협정서, 소금 제조 허가 신청 조사서 등 염전과 염부 관련 상세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표1> 참조).

〈표1〉 염전문서 : 함수제조, 소금제조, 염전개발 허가증

번호	염전문서	소유자
1	염(함수)제조허가증(제1289호)-전라남도 무안군 비금면 가산 도고리 지선	이○○
2	염전개발허가증(제1266호)-전남 무안군 비금면 구림리 590	강○○
3	염(함수)제조허가증(제1266-1호)-신안군 비금면 덕산리 1-9	김○○
4	염제조업허가증(제1266-2호)-전남 신안군 비금면 구림리 590-5	유○○
5	염(함수)제조허가증(제1266-2호)-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구림리 590-5	노○○
6	염(함수)제조허가증(제1266-1호)-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구림리 590-3	김○○
7	염제조업허가증(제1235호)-전남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773-3, 773-4, 773-6, 773-7, 773-8	유○○
8	염전개발허가증(제1221호)-전라남도 무안군 비금면 수처리 47	박○○

3. 섬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정주공간과 간척지

비금도 사람들은 언제 섬으로 이주하였을까? 그들은 섬의 어느 곳에 정주공간을 마련하였을까? 비금도 사람들은 언제 입도하였을까? 다음 <표 2>는 비금도 주민들의 각 성씨별 입도조와 입도시기, 제방과 간척지(지목)을 정리한 것이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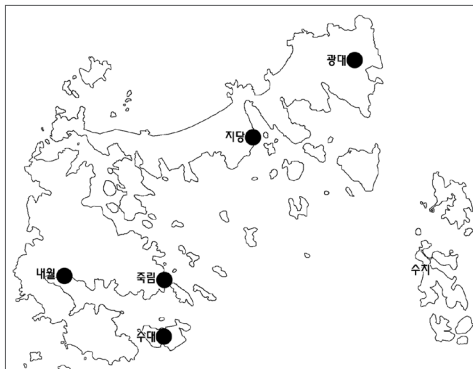
〈표 2〉 비금도의 입도조, 堤防, 간척지(地目)

里	村	入島姓氏	제방 명칭	제방 총면적 (ha)	간척지 이용(ha)			비 고
					농지	염전	기타	
광대리 광대리	당두	강릉유(16C후) 전주이(18C중)	용광	22.5	21.5		1.0	▶ 소멸섬: 동그리섬 ▶ 간척지: 성가래들·홍애불들·가남구지들·민못들·빨간네들·옥작골들·작은당머리들·첫구지들·독다리깨들·뒷골들·민못들·생애집깨논·지녹골들·진배미 등 ▶ 구술: 자염테(용광염전)
	용소	전주이(18C중)	당두	104.6	95.0	3.1	6.5	
가산리	나배	밀양박(미상)	가산	48.3	30.5	16.6	1.2	▶ 소멸섬: 잔갈치섬·가산도·석세미섬(삼도포)·동글섬·시랑도 ▶ 간척지: 개릿개들·떡맷개들·삼두포들·시랑맷개들·작은가칠매들·장가침들 ▶ 구술: 자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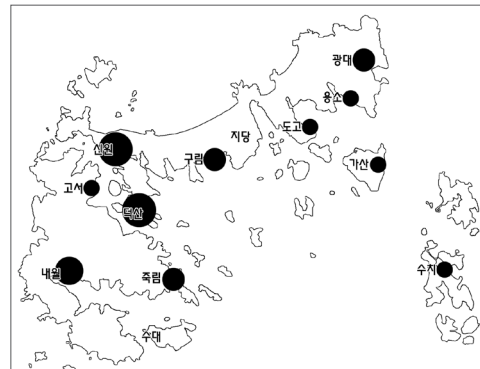
1) <표2>는 김경옥, 『조선후기 나주목 비금도 주민들의 토지운영 실태』(『도서문화』 19,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1, 55~58쪽)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신안군 간척사와 문화연구』(신안군 간척사와 문화연구 결과 보고서, 2015, 10~54쪽) 등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里	村	入島姓氏	제방 명칭	제방 총면적 (ha)	간척지 이용(ha)			비 고
					농지	염전	기타	
도고리	도고	양성이(170중)		124.7	119.6		5.1	▶ 소멸섬: 벗섬·목섬·비아섬 ▶ 간척지: 도장들·벗섬들·살꼬지들·수망 골들·작은골들 ▶ 구술: 자염터
지당리	당산	평강채(미상)	비아	139.0	120.3	7.7	11.0	▶ 소멸섬: 할미섬 ▶ 간척지: 벗섬들·지동들·개창들·구래신 들·냉건네들·당멧들·도독골들·뒗멧들·뒗 불들·본양갯들·서당너메들·안궁개들·주산 뒤들·진망개들·홍어평 ▶ 구술: 자염터(당산염전터)
구림리	수림	밀양손(160말)		53.6	50.1		3.5	▶ 간척지: 갯망들·날근탑들·노두목들·당 산들·판면들·봉사배미·소죽거리들·술대 배미·신질메들·웃솔망들·장구배미·전짓배 미·진배미
신원리	자항	강릉유(미상)		82.3	55.2	8.6	18.5	▶ 소멸섬: 동글섬 ▶ 간척지: 원장들·평림들·개창들·개웅장 들·금바우밀들·노두목들·뒗대배미·목우장 들·불근목들·사장들·선바웃개들·오릿들 ▶ 구술: 자염터(고막염전터)
	신촌	경주최(170중)						
고서리	고막	밀양박(180)	고막	81.7	74.9		6.8	▶ 간척지: 고막앞들·안들·벗매들·무지개 안들·사장갯들·예미들·원장들·이목들·이 미들·진동새들·한들 ▶ 구술: 자염터(벗매산, 벗섬) 원독(서산-고치산, 서산-동글섬)
덕산리	한산	강릉유(170중)	덕산	72.4	63.5	0.3	8.6	▶ 소멸섬: 조리섬·나무섬 ▶ 간척지: 방월들·한산들·갯모배미·개창 들·납작배미·보지담·선창구지들·장구배 미·저드리들·진배미 ▶ 구술: 자염터(선창구지아래, 금강염전터),
죽림리	상암	김해김(160중)	신창	173.0	122.8	29.8	20.4	▶ 소멸섬: 동글섬·신창도 소멸 ▶ 간척지 : 임리들·서부들·논골들·말배 미·보습배미·작은죽치들 ▶ 구술: 자염터(고흥염전터, 동글섬, 망원염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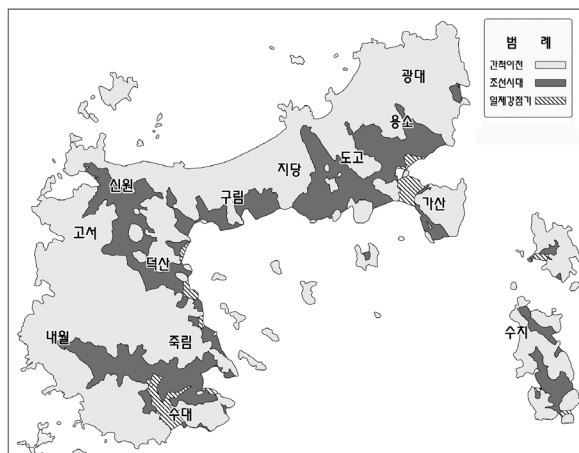
里	村	入島姓氏	제방 명칭	제방 총면적 (ha)	간척지 이용(ha)			비 고
					농지	염전	기타	
내월리	내촌	강릉유(18C) 진주강(18C말)		63.2	57.4		5.8	▶ 간척지: 개창들·안들·가룻목들·구래실 들·노돏목들·밭물모테들·방천께들·안개창 들·원돏박들·진강지들
	외촌	경주최(16C중)						
	월포	창원황(17C중) 강릉유(19C중)						
	내포	김해김(19C말)						
수대리	수도	미상	진환 수대	35.4	25.5	5.3	4.6	▶ 소멸섬: 동글섬·수도 ▶ 간척지: 대두앞들·수도들·서부들·수문 통들 ▶ 구술: 자염테(동글섬 주변, 서부들 아래)
수치리	수치	밀양박(미상)	상수치	8.4	7.3		1.1	▶ 소멸섬: 소섬 ▶ 간척지: 논간네들·머내논골들 ▶ 구술: 자염터
			수치	73.8	43.0	24.4	6.4	



[그림4] 16세기 비금도 입도조들이 정착한 마을



[그림5] 17~18세기 비금도 사람들의 세거지



[그림6] 근현대 비금도의 공간변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신안군 간척사와 문화연구』, 2015, 9쪽 참조)

4. 간척지의 지목 변경 : 염전 설치와 염부의 생업

- ① 공유수면 매립 추진,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 ② 사업계획서 : 입지환경, 토질, 교통, 기후, 潮位, 기상, 소금 생산 년차 계획, 공사비 명세서
- ③ 염(함수) 제조 허가증 발급 신청 : 자산증명원, 이력서, 부적농지 증명서
- ④ 조사확인서
- ⑤ 염전 공사비 준공 조서(방조제, 배수문, 취입수문, 염전, 저수지 제방, 염고, 건조물, 측량설계, 공사감독)
- ⑥ 염 제조 및 염전 개발 허가증 발급 : 비금도 수대리 박씨 사례

박씨는 1950년 4월 1일, 비금면 수대리에 방조제를 준공하였다. 방조제 축조 결과 조성된 간척지의 총면적은 40,122㎡였다. 그런데 박씨는 간척지를 곧바로 활용하지 않고 이후 7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1957년에 박씨는 이미 조성해 놓은 간척지에 천일염전을 개설할 목적으로 관청에 소금 제조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박씨가 제염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 전매청에 제출한 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1914년에 한문 私塾을 수료하고, 곧바로 농업과 염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된다.²⁾ 박씨가 1910년대에 소금을 생산한 경험이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煮鹽을 생산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가 1950년대에 준공된 방조제 축조 결과 약 12,000평(약 4정보)의 간척지가 조성되었다. 이 간척지를 지목별로 구

2) 「천일염전 제조허가 분할 신청서」, 1952. 2. 20.

분해보면 염전이 29,716㎡로 약 74%를 점유하고, 나머지는 염전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씨가 1950년대에 조성한 간척지는 오직 염전 개설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음이 엿보인다.³⁾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현전하는 염전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박씨의 재판 기록이다. 박씨는 1957년에 염전을 개설할 당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염전 분할 청구 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박씨는 1950년 4월, 수대리에 제방을 건설할 당시 단독으로 간척을 추진한 것이 아니었다. 즉 박씨를 비롯하여 조합원 공동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확인된다. 박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가 제염 조합장이고, 원고가 박씨를 비롯하여 총 4명이었다. 다시 말해서 1950년에 간척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조합원 공동 명의로 추진된 사례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한 것은 염전 분할이었다. 개인별 염전 분할 규모는 조합원 ①번의 경우 9,328㎡, 조합원 ②번은 9162㎡, 조합원 ③번은 8,010㎡, 그리고 조합원 ④번에 해당하는 박씨에게 8,989㎡ 등을 청구하였다. 이외에 염전 부대시설인 저수지가 13,439㎡를 점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박씨가 염전 분할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상세히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초창기 제방 건설 계획 당시 조합원 공동 명의로 추진되었고, 실제 간척지를 활용할 단계에 이르자, 각자 개인 목적에 적합하도록 분할 소송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참 고 문 헌

- 김경옥, 「조선후기 나주목 비금도 주민들의 토지운영 실태」, 『도서문화』 19,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1.
- 김경옥, 「족보를 통해서 본 도서 이주민 연구」, 『도서문화』 20,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2.
- 김경옥, 「19~20세기 안좌도 『前津堰修契記』를 통해 본 제언축조와 운영 실태」, 『장서각』 30,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 김경옥, 「19~20세기 암태도 주민들의 제언축조와 경제생활-益今里 廣頭堰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4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 문병채, 「비금도의 간척지 조성 그 영향」, 『도서문화』 19,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1.
- 신순호·조영태, 「비금지역의 사회·공간 구조」, 『도서문화』 19,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1.
- 송찬섭, 「17.18세기 新田개간의 확대와 경영형태」, 『한국사론』 12, 서울대 국사학과, 1985.
- 염정섭, 「조선후기 대동강 하류 河中島의 개간과 국방전의 성립 및 변천」, 『규장각』 37,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0.
- 최영준·홍금수, 「강화 교동도의 해안저습지 개간과 수리사업」, 『대한지리학회지』 38-4, 대한지리학회, 2003.

3) 「염전개발허가증」, 1950.4.1. 준공 ; 「염전개발허가증」, 1964.3.29. ; 「염제조허가증교부」, 1964.4.

어업민속의 지역성

— 어물 문화복합에 관한 시론

권 삼 문 ■ 여헌기념관

1.

우리는 어업의 지역적 특성을 다루는데 있어서 동해, 서해, 남해로 나누는데 익숙하였다. 조선시대 이래 동해는 명태의 산지로, 서해는 조기의 산지로, 남해는 대구(또 멸치)의 산지로 이름이 높았다. 그 거래의 중심지가 동해는 원산, 남해는 마산, 서해는 강경이다. 지리학, 수산학 등에서 널리 채용한 동, 서, 남해로 나누는 거시적인 영역 구분은 각 해역의 생태적 배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등의 외적 요소들을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문화적 의미를 구성하는 어민의 존재를 거의 고려하지 않게 된다.

회유하는 고기떼를 쫓아다니면서 잡는,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단일 어촌의 범위를 넘어서 활동한다. 어업연구자들은 집을 떠나서 한동안 바다에서 생활하는 어민의 생활주기 자체를 어민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꼽기도 한다. 마을 앞바다에서 가족노동력에 의해 영위되는 소어민의 망어업과 달리, 여러 명으로 구성된 선원들은 대체로 마을 주민이었겠지만, 마을의 범위를 벗어나는 인적 구성도 흔히 보여 준다. 어선과 어망의 규모 또한 외부의 자본이 필요할 정도이다. 소규모의 선단(船團)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어업민속의 조사연구는 대체로 지역적인 특성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동해안의 명태

어업, 서해안의 조기어업, 남해안의 멸치어업 또는 서해의 꽃게, 동해의 대게와 홍게 등 대표적인 어종에 대한 조사연구가 주로 거론되었다.

전국을 망라하는 조사연구는 100여 년 전의 <<한국수산지>>를 시작으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국립민속박물관의 <<어촌민속지(경기도 충청남도 편)>>, <<경남 어촌민속지>>, 해양수산부의 <<한국의 해양문화(1-5)>>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방대한 조사연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과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사정이 여의치 않으므로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2.

이 발표에서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학술서가 아닌 대중서인 <<고기잡이 여행>>이다.¹⁾ 이 책은 앞의 조사연구서들과 달리 한 사람이 3년 동안 현지를 찾아다니면서 수행한 작업으로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국을 망라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지역적인 명성을 쫓아서 취재를 한 점은 대중적인 지명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어업민속의 지역성이 잘 드러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제목은 ‘고기잡이 여행’이지만 어로 이외에 가공, 조리에 대한 소개와 해당 어업에 관한 역사문화적 맥락도 소개하고 있다.

<<고기잡이 여행>>은 다양한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민물고기를 제외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01 강원도 고성 명태
- 03 울산 장생포 고래
- 04 부산 고등어 - 바다의 보리, 망어업-선단, 간고등어[뱃자반], 염장방식[독간쟁이/얼간쟁이-안동]
- 05 경남 남해 - 죽방렴
- 06 광양 망덕 전어 - 망어업, 콩대숯불구이, 밤젓[전어 창자 젓갈], 보성-돔배젓
- 07 (여수) 거문도 갈치 - 채낚기, 절인 갈치, 갈치국, 갈치 속젓[깡다구젓]
- 08 여수 멸치 - 망어업-선단(어로장), 이리야[가공선]
- 09 고흥 갯장어 - 주낙 / 10 고흥 나로도 삼치 - 끝낚시→유자망, 삼치 파시
- 11 순천만 - 갯벌, 맛, 칠게, 고막, 갯지렁이
- 12 장흥 득량만 키조개 - 키조개, 석화, 우럭, 주꾸미

1) 정기태 글 / 위직량 사진 204 <<고기잡이 여행>> 바보새

- 15 강진만 장돱어 - 갯벌, 낚시와 맨손,
 16 완도 청산도 문어 - 초어 단지, 단지 어업 / 17 완도 보길도 농어 - 주낙, 쓸개[바다의 웅담]
 18 복어를 찾아서 - 제주 성산포-주낙, 보길도-어망
 19 제주도 옥돔 - 주낙, 옥돔 미역국,
 20 신안 흑산도 홍어 / 21 신안 압해도 낙지 - 목포 북항, 맨손, 햇(불)낙지, 주낙 / 22 신안 임자도 민어 - 파시, 망어업
 23 목포 실뱀장어 -집산지, 망어업
 24 무안 도리포 송어 - 개맥이(개막이 그물), 덩장, cf. 송어들이(남해), 흘치기낚시(동해)
 25 함평만 - 덩장, 삼마이, 후리질, 고데구리[기선저인망, 소형 트롤의 일종 : 불법]
 26 칠산바다 조기 - 위도 파시, 연평 파시, 염장
 27 영광 낙월도 젓새우 - 멍텅구리, 닻배 / 28 영광 법성포 꽃게 - 망어업, cf. 보령 꽃게축제
 29 전북 부안 - 줄포, 곰소
 30 충남 서천 비인만 -독살
 31 태안 안면도 대하 - 망어업
- 이외에도 제주의 자리돔잡이, 청어, 영덕 대게, 동해안의 오징어잡이, 부산 대항 송어들이, 강원 경북의 손꽂이잡이 등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3.

늘 익숙하게 여겼던 어물과 생소한 어물이 뒤섞여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민에게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혹은 지금 주요한 수산물로 취급되는 것들을 다루었다. 그 지역의 대표적인 어물이기 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어물이 주로 선정되었다.

이제까지 간단히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들이 소비하는 많은 어물 가운데 그 사회문화적 맥락을 모르며 소비하는 어물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물에는 물고기 이외의 산물이 뜻밖에도 많다. 갯벌에 기댄 삶이 많은 것이다. 최근 갯벌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갯벌의 어업에 관한 조사연구가 드물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갯벌 어민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어업민속은 잡거나 채취하는데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가공하고 조리하는데 까지 이어진 하나의 과정이다. 홍어의 예에서 보듯이 어업의 지역성은 잡는데서 보다는 조리해서

먹는데서 그 지역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민어는 조기, 명태, 멸치 등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전혀 떨어지지 않으나 민어에 관한 조사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멸치어업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멸치는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획한다. 즉 가장 고급 멸치를 생산하는 죽방렴어업, 사빈해안에서 가능한 후리어업, 멸치 떼를 쫓아서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망어업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어로는 생태적 적합성에 따른 결과이면서 한편으로는 어장의 관리, 어로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구별되는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전국의 모든 세발낙지는 목포로’, ‘대부도, 제주도에서 잡힌 세발낙지도 목포로’ 이런 말을 통해 우리는 어업의 생산지와 집산지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어업의 유명세는 꼭 산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안동 간고등어’의 예와 같이 중요한 소비시장이 거론되기도 하고, 원산과 같이 명태의 집산지가 거론되기도 한다.

안동의 간고등어문화복합, 나주의 흥어문화복합, 제주도의 돔문화복합 등의 조사연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가치가 높지 않은 해삼이 중요한 수산물목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구황식품에서 출발하였을까? 신에게 바치는 중요한 제수의 하나였을까? 어물이 제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른바 어류민속지는 전경수의 논문에서 제기되었다. 어류민속지란 용어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어류민속지는 어류의 분류에 관한 민속지로 오해 할 수도 있다.

전경수는 가츠오부시의 가공으로 이름이 높은 오키나와 이라부지마의 카츠오 민속지를 제시하였다. 10일경의 짧은 현지조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카츠오의 생산, 가공, 소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잘 전하고 있다.

어업민속에 관한 작업은 물에서 고기를 잡는 방식과 도구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 글은 생선을 어떻게 잡고, 그것을 어떻게 팔고, 또 어떻게 먹는가 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수집한 자료의 민속지이다. 환연하면, 생선을 포획하고 그 과정에 동원되는 도구며 어민들의 지식을 포괄하는 어업민속과 전업 어민들이 잡은 생선을 상품으로 팔고 가공하는 등의 유통과 관련된 특수한 관행 그리고 어민들이 생선을 음식으로 먹는 방식 등 생선에 관련된 어민들의 활동 전반에 관한 관심의 표현으로서 어류민속지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시도되고 있는 어류민속지라는 것은 고기들의 종류에 대한 관심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생선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표현하고 지식을 갖고 있고 행동을 하

는가 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 글은 생선에 관련된 어민들의 문화적 인식과 태도와 실천 등을 주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일종의 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수정을 거쳐서 정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가늠해보려고 한다. 이 글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민속과학의 성분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 작업은 민속어류학에 도달하기 위한 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²⁾

전경수는 결어 부분에서 ‘어민들의 생선에 대한 민속지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향에서 작동을 한다. 카츠오의 섬 이라부지마 주민들은 그들의 생활이 총체적으로 카츠오와 관련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며, 그 정도는 국제적인 연결망까지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카츠오 문화 복합’이라는 개념의 도출도 가능할 정도로 카츠오는 이라부지마 문화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이어서 바다와 관련된 어업의 지식체계가 붕괴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식체계의 붕괴는 결국 인간의 자연에 대한 바람직한 적응과정으로서의 문화를 상실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구제민속지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학계에서의 평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해삼에 관한 조사연구인 쓰루미 요시유키의 <<해삼의 눈>>에서³⁾ 새로운 방식의 어업민속 연구의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 쓰루미는 해삼의 생산과 교역에 주목하였다. 남태평양과 동아시아라는 방대한 시공간에 걸친 문헌과 현장을 아우르며 해삼의 역사와 문화를 말해준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암시를 주는 부분만 발췌하여 간략히 소개한다.

여기에서 다루는 해삼은 주로 건해삼의 문제이다. 일본인이 가장 좋아한다는 도미, 또는 마구로[참치]가 아니라 왜 해삼인가. 저자는 주류적인 관심을 벗어난 소재를 다룸으로써 또 다른 역사문화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최근에는 잊혀져가는 건어물에 대한 가공, 유통, 소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건해삼은 건조에 필요한 상당한 연료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건해삼의 가공과정 때문에 건해삼은 고급식품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안목에서 볼 때, 홍어의 발효 또한 주의가 필요한 세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것으로 추측되며 자세한 발효과정의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전경수 2011 <沖繩縣 伊良部落의 魚類民俗誌:가츠오(鰹)를 중심으로> <<일본 열도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132쪽

3) 쓰루미 요시유키(鶴見良行) 이경덕 역 2004 <<해삼의 눈(ナマコの眼)>> 뿌리와 이파리

참 고 문 헌

- 권삼문 2000 <명태와 조기잡이를 통해 본 어업체계의 지역성> 실천민속학회 편 <<민속문화의 지역성과 보편성>> 집문당
- 권삼문 2012 <어업민속 연구의 지형과 전망 : 어업민속지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민속연구-어촌의 민속과 문화>> 제25집 민속원
- 쓰루미 요시유키(鶴見良行) 이경덕 역 2004 <<해삼의 눈(ナマコの眼)>> 뿌리와 이파리
- 전경수 2011 <沖繩縣 伊良部落의 魚類民俗誌:가츠오(鰹)를 중심으로> <<일본 열도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132쪽

기술변동에 따른 미역 인공양식의 확산과 어민들의 생업전략

박 해 영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I. 서론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미역은 뚜렷한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어민들의 소득원이자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장미역’은 브랜드화에 성공하여 명성을 얻은 부산의 대표적인 지역특산물이다. 2009년 3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 지원사업을 통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하고,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를 육성하여 관련 축제를 활성화하면서, 지역특산품으로서 명성은 더욱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런데 미역 생산지가 동해안을 비롯하여 한반도 해안 지역에 고루 분포하는데도, 기장미역이 각별히 부각된 까닭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해결하고자 필자는 문헌검토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동해남부를 중심으로 미역 생산방식의 변화과정을 논하고자 한다.¹⁾

어민들에게 미역은 재화나 다름없었고, 채광의 경제적 이윤으로 인해 어촌 주민들 간에 미역 채취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미역을 둘러싼 지역민 간의 논쟁은 법적 분쟁을 불사하기도 한다. 최근의 사례로는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기장미역 원조 논쟁이 대표적이다. 송정 미역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송정돌미역이 기장 미역의 원조라고 주장하면서 원조 논란이 가열되었다. 이에 기장군 측에서는 “기장 미역은 1967년

1) 본고는 필자의 기존 논문을 요약한 것으로, 본문의 각주는 참고문헌으로 대신하며, 각주처리와 목차가 원논문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인용은 불허한다. 본문 인용이 필요한 경우 원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현장조사(2014.3.22., 2015.5.29.) 결과와 신문기사를 비롯한 관련 문헌을 수합하여 분석했다.

11월 국립수산물진흥원에서 배양에 성공한 미역종자를 분양받아 일광면 이동리와 학리에서 최초로 산업화에 성공한 양식 미역으로 해운대구 송정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돌미역과는 종이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조 논쟁은 기장미역의 상품 가치가 타 지역 생산물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미역 채취권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이면에는 미역 생산 기술과 소비 방식의 변화가 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기술변동에 중점을 두어 살필 것이다. 기술은 효율성을 가진 전통적 활동으로서, 도널드 맥켄지(Donald Mackenzie)는 기술이 사회적 영향을 받는 가운데 형성된다고 했으며, 로빈 윌리엄스(Robin Williams)는 기술변화의 과정을 조직적, 정체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와 관련지었다. 본고에서 필자는 동해안 일대 어민들의 돌미역 생산에서 해조류 양식업으로 전환하게 된 과정에 대해 살피고, 양식미역의 상품화가 갖는 문화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藷田의 경작과 미역양식의 태동

미역은 海帶의 방언으로, 藷이나 甘藷, 昆布, 花布로도 불렸으며, 海藷은 粉藷·早藷·藷耳·絲藷 등으로 구별되었다. 공물로 올리는 미역은 貢藷이라고 일컬었다. 최상품 미역은 왕실에 진공되었지만, 흉년이 들면 구휼책으로 나라에서 배급하던 서민들의 식재이기도 했다. 조선조에 미역을 채취하는 백성을 ‘海尺’이라고 불렀다. 동해의 미역은 맛이 좋아 시가가 높았는데, 미역을 土貢으로 올리는 지역은 경상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경북 울진 고포, 경남 통영, 울산 강동, 부산 기장 등이 대표적이다. 미역은 대외교역에 수반되는 조선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이었다. 광암은 藷田에 해당했는데, 미역은 물 속에서 캐기 때문에 어염에 속했으며, 藷稅는 魚鹽稅의 일환이었다. 조선시대 광전은 私占대상이 되었다. 어민들은 광전의 채광을 전담하고 광암을 공유했지만 광세 납부의 의무가 주어졌다. 광암은 의 소유권은 어촌의 총유 외에 왕실과 권문세가에서 사점하기도 했으며, 이 경우 광전의 관리자를 두어 어민들의 채광작업을 감독했다. 광전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왕의 사유재산으로 용동궁에 속하거나 共議寺社로 호족들이 하사받은 광전도 있었다. 왕의 사유재산으로 인정된 이 광전은 기장군 장안읍 고리마을의 광전이다. 구한말에 이르러 광암에 관한 개인소유권이 인정되는 등 소유형태가 급격히 변동되었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전까지 광암의 소유, 관리형태는 어민의 집단인 어업조합이 어업권을 취득하여 조합원들이 이를 행사케 하였다. 어업법이 제정되면서부터는 채조업 자체가 면허어업으로 전환되었다. 근대 이후 어업령의 공포와 어업조합의 어업권 행사는 어장을 국가 체제 하에 관리하려는 조치였다. 조선총독부령에 따라 어업령이 공포되면서 일제의 수산단체가 경남과 부산을 효시로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총독부수산과에서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동해안의 천해어업을 진흥시키고자 했으며, 미역양식 설비를 계획하기도 했다. 어업조합

의 운영과 해조류 증산을 장려하는 움직임은 미역 생산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나잠 전문인에게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 형식으로 입어행사권을 위임하는 빈度も 성행했다. 일제 강점기에 제주 해녀들의 복진으로 동해 남북부에서도 미역 채취에 해녀가 동원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지역에 정착하여 물질을 전수하고 토박이 해녀들을 양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심이 깊은 곳에 자라는 미역은 해녀들이 채취하더라도, 대개는 어민들이 도구를 활용해 채취했다.

해방이후 국가차원에서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독점당한 수산권을 되찾고자 어장을 재정비하였으며, 수산자원의 생산확충과 식량증산을 위해 어민들을 독려하였다.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부산 기장 지역 마을단위로 어촌계가 신설되었다. 그러면서 기존의 행정구역인 理 단위가 아닌 마을 단위로 미역채취구역이 재분배되었다. 이 과정에서 곽암의 소유와 미역채취권에 대한 분쟁이 빈번히 일어났다. 실제로 기장의 이천리에서 독점하던 미역채취권을 이동마을 어촌계가 분배받고, 이동마을 지선어장을 따라 4구역에서 8구역으로 미역 짬이 늘어났다. 기장지역 돌미역 채취 조직에서 某甲이와 같은 짬의 우두머리가 존재한다. 가재기계와 같이 조직을 호명하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여럿이 모여 채취작업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있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울진이나 평해 지역에 관에서 임명된 곽전지기의 역할을 연상케한다.

Ⅲ. 미역 인공양식의 본격화와 사회적 확산

1960년대 말 정부는 수산업 근대화를 위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기간에 수산업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 이에 자연마을 단위의 어촌계에 어촌건설을 위한 생산기반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시장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수협에서 양식장건설을 지원했다. 이에 부산시에서 시비를 보조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양식조건에 적합한 어촌계를 선별했으며, 이동어촌계의 양식장 조성도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수산진흥원의 실험이 성공하자 수산청에서는 1971년 어민소득증대 사업의 하나로 강원, 경북, 경남 등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 10여개의 미역 및 다시마 양식단지 신설에 박차를 가했다. 강원도 고성, 양양, 명주, 삼척, 경북 영덕, 여일, 월성, 경남 울산, 동래, 제주도 지역에 양식단지가 조성되었고, 어민들은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미역양식 기술을 개발하면서 미역증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970년대 전후로 정부는 해초 양식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어업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기도 했다.

1960년대 들어 미역 종묘배양 실험과 분양이 성공하면서 미역의 생산방식을 일대 전환기를 맞이했다. 국립수산진흥원은 1962년 미역 양식기술의 도입과 인공채묘시험 착수를 시작으로, 1967년에는 동해안과 남해안의 7개 어촌계지선(경남 동래구 일광면 이동리, 학리, 거제군 동부면 다대리, 울포리, 하동군 남면배도리, 부산시진구 용당동, 영도구 동삼동)에

동일조건, 동일시기에 인공배양한 미역종묘를 무상분양을 하였다. 같은 해 기장 이동 앞바다에서 종묘배양에 성공했으며,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방○호는 1968년 7월경 경남 어업면허 2567호(미역양식 1호)를 받아 10월경 미역인공양식어장 면허지에 미역양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역종묘배양을 시작하여, 어민들에게 종묘를 분양하면서 미역양식업은 기장 인근은 물론 동남해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미역의 수하식 양식은 설치비와 관리비용이 높은 만큼 위험부담도 컸으며 실패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자연산 돌미역 채취와 달리 인공양식미역 생산은 나잠어업을 하는 해녀의 채취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어민들 자력으로 얼마든지 채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동마을의 경우 미역양식기술이 보급되면서 어촌계 총유로 관리하던 곽암과 달리 양식어장의 개인사유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초기 미역 인공양식은 짚으로 새끼를 꼬아 줄을 만들어서 배양한 종묘를 가이식하고, 미역의 성장속도에 맞춰 다 자란 미역만 솟아내는 식이었다. 미역양식어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윤채나 솟음 방식 대신 낚으로 줄에 달린 미역을 모두 베어내는 방법으로 채취했다. 종자는 햇볕을 보지 않도록 하고, 종묘는 채모틀에 가이식을 한다. 초기 양식업을 시작할 때는 유리부조를 사용했으나 근래에는 모두 플라스틱 부조를 사용한다. 양식미역에 비료를 주기도 했다. 양식미역은 줄에 달린 미역다발을 끌어올리고 낚으로 미역을 끊어내는 작업 강도가 높아 주로 남자들이 채취한다. 채곽을 마치면 지게나 고무대야로 옮겼으나, 요즘은 포크레인으로 옮긴다. 초창기에는 양식미역을 채취해서 햇볕에 말렸으나 미역건조기가 개발되면서 짧은 시간 동안 대량 건조가 가능해졌다. 2016년 현재 이동마을 어민들은 더 이상 미역종묘를 생산하지 않고, 전라도 금일과 완도 등지에서 미역종묘를 구입해온다. 대부분의 양식장이 미역다시마 복합양식장으로 재정비 되었다. 또 기장 대변의 두호 어촌계에서 양식미역은 주로 남자들이 채취하고, 자연산 돌미역은 여자들이 맡아서 채취하는 등 작업방식도 분업화되었다. 해녀들은 기세작업(磯洗作業)을 도맡는다. 이 지역에서는 2011년부터는 수산과학원의 협력 아래 유○열이 자연산 포자 이식에 성공했다. 바위에 붙는 자연산 포자를 그대로 이식하여, 자연산 돌미역과 유사한 품질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처럼 기술 변동과 더불어 양식미역의 생산기술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IV. 기장 지역 양식미역의 문화상품화 전략

미역의 판로개척을 위해 양식업자 중에는 생산업자에 따라 생산해서 길러 낸 미역을 조미료 회사에 미역발썬으로 넘기거나, 가공업자에게 넘기기도 하고, 마른미역으로만 생산해서 소규모로 소매상으로 넘기는 영세업자들도 있었으며, 위탁판매를 하기도 했다. 경남산 건미역은 1967년 일본에 처녀수출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기장은 일본인이 선호하는 양질의 미역 생산지로 급부상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돌미역의 우월한 상품성으로 인해 양식미역의 소비량도 늘어났다. 양식미역의 판로도 일본까지 확장되었다. 미역의 인공양식

이 유행하면서 기장에는 삼기물산, 기장물산, 동백에도 동양수산 등 미역가공공장이 설립되었다. 채취한 미역을 삶아서 건조기에서 말리는 방식으로 미역의 대량가공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미역 양식업의 호조는 1970년대 미역수출 호황으로 이어졌다. 그러다가 1977년 일본 어민들이 항의로 일본 정부 측에서 연간 3만 톤 이하로 한국 미역 수입 쿼터제를 도입하였다. 1970년대 일본의 미역수입 규제와 미역생산 과잉은 미역 가격의 폭락을 야기했다. 그러나 부산 기장은 일본의 한국 미역 쿼터제에도 불구하고 염장미역을 일본으로 수출했다.

기장 지역민들의 구술에 따르면, 양식미역은 종묘배양에 성공하면 80%이상 승산이 있지만, 돌미역은 포자가 바위에 붙는 정도에 따라 좌우되기에 생산량의 차이가 많다고 한다. 돌미역의 경우 어촌마다 곽암의 갯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해에 한 번 밖에 포자 생성이 되지 않아 대량 생산이 어려웠다. 자연산미역 생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양식시설 설치비용 이상 이윤을 산출하지 못하는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미역양식업으로 전환하는 어민들이 늘어났다. 미역양식이 성공하자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자연산 돌미역의 단가가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수익성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를 지나면서 기장지역 자연산 돌미역의 생산량이 급감하였다. 기장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효암 일대의 자연산 돌미역은 그마저도 생산되지 못하였다. 돌미역의 생산량이 점차 줄어든 반면 양식미역은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방○호는 1973년 이동어장 고리원전 앞 임랑어장까지 미역양식장을 확장했다. 미역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자 어민들의 경제적 이윤도 상당해졌다. 반면에 양식미역으로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어민들의 경우에는 아예 주요 생산품목을 다른 수산물로 대체하게 되었다.

기장지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미역 인공양식이 꾸준히 성행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양식미역은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이끌어주었고, 언론매체의 홍보효과로 미역은 기장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기장미역의 유명세는 전국적인 유통망이 확보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기장농협에서는 일광 앞바다에서 채취한 미역을 ‘궁중기장미역’ 이라고 이름짓고, 임금의 수라상에 올랐던 명품 미역으로 홍보하였다. 실제로 기장 고리원전에서 생산되던 돌미역은 왕실에 진공되던 전통이 있었다. 이런 역사성을 부각시키면서, 기장군 차원에서 자연산 돌미역에 이어, 인공양식으로 생산한 미역의 명품화 전략을 꾀했다. 2009년에는 아예 특허청에 ‘기장미역’ 상표 등록을 했다. 미역 생산품목도 생미역과 건조미역, 염장미역 등으로 다양화되었는데, 대개는 유통과 보관이 수월한 건미역으로 가공된다. 2007년 미역-다시마 특구 지정과, 2010년 미역-다시마 축제의 활성화로 기장미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 관광객들에게 자연스레 기장미역을 맛보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료생산의 과정을 공개하여, 상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심리를 자극했다. 자연산 돌미역에서 인공양식미역으로 생산기술의 변동을 거듭했지만, 자연산 돌미역의 전통성과 상품가치는 인공양식미역의 유명세를 축적하는데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했다.

V. 결론

기술은 효율성을 가진 전통적 활동으로서 사회적 영향관계 속에 형성되며, 기술변화의 과정은 조직적, 경제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와 연관된다.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미역은 뚜렷한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어민들의 소득원이자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장미역은 광전에서 채취된 진공품으로서 전통을 지니고 있다. 해방 이후 자연산 건미역의 일본 수출을 효시로 삼아, 국가차원에서 미역 증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수산진흥원을 주축으로 한 신기술 도입과 어촌의 미역 인공양식 성공을 기반으로 양식 미역은 대량생산과 납품이 가능해졌다. 미역가공공장의 신설로 미역가공법의 다양화되었으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유통망의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대중매체와 언론홍보를 통한 기장미역의 명품 이미지를 구축했다. 왕실에 진공하던 전통을 활용하여 ‘궁중미역’으로 브랜드화하고, 지역 축제를 통해 기장미역의 맛과 특질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 과정들은 일종의 문화상품화 전략에 해당한다. 자연산 돌미역에서 인공양식미역으로 생산 방식과 기술 변동을 거듭하는 동안, 자연산 돌미역의 전통성과 상품가치는 양식미역의 명성확보를 촉진시켰다.

미역양식의 태동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 총독부수산과에서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동해안의 천해어업을 진흥시키고자 했으며, 미역양식 설비를 계획하기도 했다. 해방 이후 국가차원에서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독점당한 수산권을 되찾고자 어장을 재정비하였으며, 수산자원의 생산확충과 식량증산을 위해 어민들을 독려하였다.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부산 기장에도 지역 마을단위로 어촌계가 신설되면서, 마을 단위로 미역채취구역이 재분배되었다. 이동마을의 경우 미역양식기술이 보급되면서 어촌계 총유로 관리하던 광암과 달리 양식어장의 개인사유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 말 정부는 시장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수협에서 양식장건설을 지원했다. 이동어촌계에 신설한 양식장에서 종묘배양에 성공하였다. 수산진흥원의 실험이 성공하자 수산청에서는 ‘대한민국 어업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는가 하면, 1971년 어민소득증대 사업의 하나로 강원, 경북, 경남 등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 10여개의 미역 및 다시마 양식단지 신설에 박차를 가했으며, 그 결과 미역양식의 사회적 확산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미역생산 과잉과 일본의 미역수입 규제는 미역 가격의 폭락을 야기했지만, 부산 기장에서는 염장미역을 일본으로 꾸준히 수출했다. 기장에서는 2011년부터 바위에 붙는 자연산 포자를 그대로 이식하여, 자연산 돌미역과 유사한 품질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본고에서 기장 어민들이 자연산 미역생산에서 해조류 양식생산으로 전환하게 된 과정을 살피고, 양식미역의 상품화와 기술 변동의 유기적 상관성을 어민들의 생업전략으로 고찰하였다.

참 고 문 헌

- 『高宗實錄』
 『世宗實錄』
 『肅宗實錄』
 『英祖實錄』
 『純祖實錄』
 『世宗實錄地理志』
 『國役 承政院日記』
 이유원, 『林下筆記』제28권, 춘명일사(春明逸史)
 정문기 역, 정약용, 『茲山魚譜』, 지식산업사, 1977.
 정약용, 『經世遺表』, 제14권 均役事目追議제1藿稅, 1817.
 정약용, 『牧民心書』, 1818.
 권삼문, 『동해안 어촌의 민속학적 이해』, 민속원, 2001.
 김 준, 「어촌사회의 구조와 변동」, 전남대박사논문, 2000.
 김차용, 「기장미역의 원류를 찾아서」, 『어항』 통권 제78호, 한국어촌어항협회, 2007.
 박경용, 「한국 도서어촌경계의 구조적양상과 발전전략- 경남삼천포시-新島의사례」, 경북대학교인류학과석사논문, 1990.
 박정석, 「어촌마을의 공유재산과 어촌계」, 『농촌사회학회지』 제11집 제2호, 한국농촌사회학회, 2001.
 송경은, 「식민지기 어업권의 소유형태와 특질: 官報어업권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제59호, 경제사학회, 2015.
 송기태, 「동해안 마을어장의 변동과 별신굿의 사회적 기능」, 『도서문화』 제43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4.
 송영수 편역, 『우리에게 기술이란 무엇인가』, 녹두, 1995.
 안미정, 「해방 전후 제주잠수 해녀들의 부산 정착의 사회사적 고찰- 지역 간 경계를 넘은 이동과 갈등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37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0.
 오창현, 「19~20세기 동해안 떼배의 기술문화사적 함의와 이중기술구조 : 동해안의 미역 채취기술과 '복합생업」, 『한국문화인류학』 46-3, 한국문화인류학회, 2013.
 울산남구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성범중 역주, 『학성지』, 2010.
 이경아, 「채취기술의 변화에 따른 어촌사회의 적응 전략」,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40주년기념논집』, 영남대문화인류학과, 2012.
 이종길, 「경상도지방 어촌사회의 소유관습과 소유실태에 대한 법제사적 일연구」, 『역사민속학』 17, 역사민속학회, 2003.
 옥동석, 고광민, 이해연, 『한국 어촌사회와 공유자원 : 인천과 서해 남해 동해의 도서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원, 2011.
 정근식, 김준 공저, 『해조류 양식어촌의 구조와 변동』, 경인문화사, 2004.
 조경만, 「보길도의 자연환경과 문화에 관한 현지작업」, 『도서문화』 8, 1991.
 주경철 역, 『일상생활의 구조 하』, 까치, 1995.
 최정운, 「일제강점기 부산어업조합의 설립과 활동」, 『수산연구』제28호, 한국수산경영기술연구원, 2008.
 해양수산부, 『한국의 해양문화 3-동남해역下』, 경인문화사, 2002.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국제신문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www.koreanhistory.or.kr

기장 미역-다시마 축제 홈페이지 <http://www.gijang.go.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1990년대 초 보령 무창포의 어촌생활

신 용 희 ■ 다큐사진가, 금강 뉴스 대표

1. 개요

무창포는 충남 보령시 관당리에 위치한 곳으로 1928년 서해안에서 최초로 개장된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백사장 길이 1.5km 수심1~2m, 백사장 50m, 수온 섭씨 22도, 경사도 4도의 해수욕장으로 주변에는 송림이 울창하여 해수욕과 산림욕을 함께 즐길 수가 있다.

웅천해수욕장이라고도 하며 석대도(石臺島)를 비롯한 수많은 도서와 암초가 산재하고 물결이 잔잔하여 해수욕장으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진] 무창포 위치

2. 무창포의 유래와 인근 마을

조선시대의 군창지였던 곳으로 조선 때 세미(稅米) 창고가 있는 갯가에 포구라 해서 무창포(武昌浦)라 한다. 바닷길이 열리면 해변과 연결되는 석대도(石臺島)는 구전에 따르면 “아기장군이 죽었을 때 황새가 떼지어 나타나서 슬프게 울었다는 섬으로 돌로 좌대(座臺)가 놓인 것 같이 생겼다 해서 석대도(石臺島)라 부르는 섬”이라고 한다. 관당리의 포구마을과 해수욕장을 통칭하는 무창리는 매일 두차례 1.5km의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곳이다. 무창포항과 가까운 관당리는 관동리와 당현리의 이름을 따서 관당리라 하였다. 자연마을로는 간드리, 갯굴, 당재, 무창, 덕산골, 심교골, 양화 등이 있다.

3. 1990년대 초 무창포의 어촌 생활

무창포는 어항과 해수욕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90년대까지만해도 무창포는 인근 마을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업을 위한 작은 포구였으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주민들 생업(어업과 농업)에서 서서히 달라진 현상을 보인다. 그것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인근 관당리는 주민 40여호(관당리 2, 3구 포함)가 어업과 농업(논농사, 밭농사)을 겸하는 조용한 마을이었다.

1990년대 초 관당2구 가구수는 17-18호, 관당3구는 20여호 였으나 현재 관당2구는 20여호로 조금 늘었다. 특히 관당3구는 현재 70여호로 3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해수욕장의 관광지화로 인해 식당, 펜션 등 해수욕장과 관련한 관광산업에 종사하기 위한 외지인의 유입 현상 때문이다.

또 1990년대 초 무창포의 고기를 잡는 어선의 수는 50여척이었으나 현재는 100여척이 무창포항에 정박해 있다. 이는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어선의 절반은 외지 관광객에게 낚시 대여를 위한 선박이다.



[사진2] 갯벌에서 조개 캐는 할머니
(1991년)



[사진3] 배 위에서 낚시 꿰는 작업
(1991년)



[사진4] 갯 잡은 생선을 뜯쳐로 건네주는 어부
(1991년)



[사진5] 물때를 맞추는 어업은 때로
배 위에서 끼니를 때우기도 한다.



[사진 6] 그물을 손질하는 엄마 옆에서
노는 어린이들(1991년)

무창포에 ‘신비의 바닷길’이 알려지면서 관광객이 크게 늘기 시작하자 보령시에서는 이곳을 봄에는 주꾸미-도다리 축제, 가을에는 대하-전어 축제로 상징되는 풍부한 해산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지금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 특히 무창포의 대하는 인근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진상품으로 꼽힐만큼 유명하기도 했다.

1990년 대 초까지 김 양식 그물이 무창포 앞바다를 메우다시피할 정도로 생산량이 많아 성업을 이루었지만 현재는 김 양식은 하지 않는다. 이는 김 양식할 때 염산을 사용하여 바다가 오염되어 김 생산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또 현재 해수욕장의 모래 해안은 전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고 손질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사진7] ‘쪽반이’라는 그물인데 작은 새우를 잡는다.
이 새우로 담근 젓갈은 ‘자젓’이라고 한다.



[사진8] 무창포 앞 바다를 뒤덮다시피 한
김 양식 밭과 김을 채취하는 부부(1992년))



[사진9] 손으로 김을 뜯는 모습(1991년)



[사진10,11] 김발의 물을 짜내는 장면. 통에 넣고 돌린다.



[사진12] 김 말리는 모습



[사진13] 그물 작업(1991년)



[사진14] 그물 작업(1991년)



[사진15] 현재 모습(2016. 4. 9)

4. 어항과 어판장의 어제와 오늘

1990년대 초 무창포 어항은 무지개다리 안쪽에 배를 정박시키는 작은 포구에 불과했다. 무창포가 현대의 모습으로 바뀐 시기는 2007-2008년 무렵부터다. ‘신비의 바닷길’로 무창포가 유명해지자 보령시는 해수욕장과 관광지로서의 무창포 활성화 작업을 추진, 대대적인 어항 재건 사업에 들어갔다. 이때 방파제, 수산시장과 식당 건물, 기존 어항과 새 어항을 연결하는 무지개다리 건설 등이 이루어졌다. 또 해수욕장에는 호텔, 펜션과 식당, 민박 등이 들어서 예전 고즈넉한 무창포 어항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모습은 찾기 어렵고 슬레이트 지붕의 소박한 작은 식당은 화려한 만국기가 휘날리는 대형식당에 자리를 내주게 됐다.



[사진16/17] 1990년대 초 어판장의 모습



[사진18] 1990년대 초 무창포 어항 전경



[사진19] 망자의 한을 달래주는 천도제(1992년)



[사진20] 그물을 내리는 작업(1992년)

[사진21] 방파제를 쌓고 확장한 현재 어항.
무지개 다리 건너편이 옛날 어항(2016. 4. 14)

어판장은 경찰서 뒤 건물(현재 식당)로 고깃배가 들어오면 당시 웅천 어촌계에서나와 경매가 이루어졌다. 지금은 디지털시대에 맞게 현물입찰 대신 전화로 입찰을 보는데 아침 경찰서에 출항 신고를 하고 바다로 나가면 바로 입찰 대상이 된다. 고기를 잡아 어촌계로 전화로 입찰가격을 말해주면 바로 경매가 이루어져 수산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게 된다.

당시 어판장은 식당 용도로 바뀌었고 2008년에 건설된 수산시장 건물 1층에 활어를 담아두는 어항과 함께 어판장이 선다.

5. 무창포해수욕장

무창 서쪽으로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것이 무창포 해수욕장으로 웅천해수욕장이라고도 부르며 1928년 일제때부터 개발되었다.

무창포해수욕장이 전국의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신비의 바닷길’이라 부르는 바다갈라짐 현상 덕분이다. 해안에서 석대도까지 1.5km 구간에서 여름철 백중사리 때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었던 신비의 바닷길 현상이 사실은 매월 음력 사리 때 두 차례 모세의 기적이 나타난다. 일반인이 마음놓고 들어가도 안전하다고 판단,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인에 공개되면서 이 광경을 보려고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봄·가을·겨울에는 주로 낮

에, 여름에는 저녁에 바다 속살을 드러내는데 백중사리 때 밤중 수많은 인파가 햇불을 들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서는 장면은 장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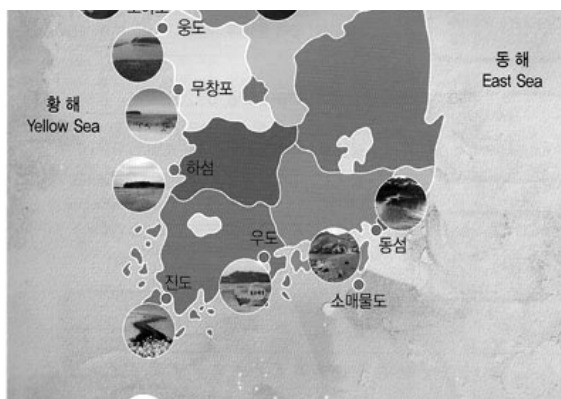
[사진22] 석대도까지 1.5km 갈라진 모습(1991년)



[사진23] 현재 무창포 전경(2016. 4. 9)

6. 바다는 왜 갈라지는가

정확히 말하면 이 현상은 주위보다 높은 해저 지형이 바닷물이 빠질 때 드러나는 것인데,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즉 조석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빠진 것이다. 이 현상을 한자로는 해할(海割)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남해안이나 서해안은 고조와 저조의 조차가 다른 나라보다 크고, 해안선이 복잡하고 길며, 연안의 바다 밑 모양이 울퉁불퉁해서 바닷길이 드러나는 지역이 많은 편이다.(지도 참조)



[사진 24] 바다 갈라짐 현상 위치도

일 년 중에서도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날이 있고, 가장 높이 드는 날이 있다. 특히 한 해 가운데 대략 음력 7월 보름인 백중(百中) 날에 조차가 가장 크다.

이른바 ‘백중사리’란 이때를 말하는 것이다.

백중사리에는 썰물 때 물이 대단히 낮아져서 남해안이나 서해안에서 평소에는 걸어서 건

너지 못하던 섬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남서해안처럼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복잡한 해저지형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전라남도의 진도는 가장 먼저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해지면서 축제를 개최하였다. 매년 음력 3월 대사리 기간에 열리는 이 축제(연등제)는 국가 지정 명승 제9호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향토 축제이다.

그 외에도 전남 영광군 안마군도의 각이리, 전남 여수시 화정면 사도리, 경기도 화성시의 제부도, 부안군 하섬, 경기 용진군 선재도-측도, 태안군 섬교챙이, 서천군 유부도, 서귀포시 서건도, 인천시 무의도 등 크고 작은 20여 곳에서 바닷길 갈라짐 현상이 나타난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전남의 진도, 충남 보령의 무창포, 전남 여수의 사도, 경기 화성의 제부도, 제주 서귀포의 서건도에 대한 바닷길 시각을 예보하고 있다.

7. 보령 독산리 독살

보령시는 해수욕장이 활성화되자 독살을 복원하여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살은 해안가 돌을 쌓은 돌담을 말하는데 밀물과 함께 들어온 고기들이 썰물에 미쳐 빠져 나가지 못하고 돌담에 갇힌 고기를 잡는 원초적인 어업 방식인데 유래는 조선시대로 보는 ‘보령 독산리 독살’은 2000년 9월 20일 충청남도 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독살 어업 방식은 해안을 끼고 있는 곳에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살 어업은 많이 훼손되어 지금은 원형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1990년대 초 필자가 촬영할 당시 무창포에도 독살은 보이지 않았으나 보령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독살을 복원하여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진25] 잡은 고기를 나르는 어부(1992년)



[사진26] 복원된 보령 독산리 독살

미륵도 풍화리 위당계(慰堂契)의 운영

이 헤 연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1. 머리말

풍화리는 미륵도에서 서쪽으로 돌출된 반도 지형과 그 남쪽에 있는 오비도를 포함한 법정리다. 풍화리 사람들은 오랫동안 ‘위당제(慰堂祭)’를 마을 공동제로 지내왔다. 풍화리 위당제는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마을제사다. 이러한 공동체의 제사는 마을에서 제비를 마련하여 지내게 된다. 풍화리에서는 제비 마련에 여러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사를 지내왔다.

풍화리 사람들은 오랜 세월 공동체를 위한 마을제사를 지내왔고, 이 마을제사를 모시기 위해 계를 결성하여 제비(祭費)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풍화리 마을문서에는 제비 마련을 위해 애써온 모습이 나타난다. 풍화리의 제비 마련 방법에는 도서지역의 특성이 나타난다.

풍화리의 위당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제비 운영은 어떻게 해왔을까?

전통시대의 공동체 사회에서는 마을회의에서 마을의 운영을 의논하고 그 기록을 남겼다. 이러한 마을문서는 전통시대의 생활사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기에 ‘생활사의 역사서’라고도 할 수 있다. 마을문서는 잘 보존되고 전승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이러한 마을문서를 지키지 못하여 하루하루 소실되고 있다. 지금은 현장에서 마을문서와 만나기가 극히 어려운 현실이다.

본 발표에서는 풍화리 위당제의 역사와 제비 운영에 대해서 ‘계문서(마을문서)’를 바탕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위당계(慰堂契)의 발족

풍화리 사람들은 위당제를 모시기 위한 ‘위당계(慰堂契)’를 결성한다. 그리고 계모임의 기록을 계문서에 남긴다. 풍화리 마을에서 지내온 위당제의 역사를 다음 계문서를 통해 살펴본다.

본 계문서에는 갑자(甲子, 1924)년 6월 16일부터 경신(庚申, 1980)년 7월 10일까지 계모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풍화리 위당계 설립 완의(豐和里 慰堂契 設立 完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도1).

豐和里 慰堂契 設立 完議
右完議事 惟我本里 僻在海隅流
來數百年 每年一月初十日 慰堂之例
別無生產等節 不可廢止
故別般決議後 特爲設契事.
禊會日字 每年 六臘月十六日

풍화리 위당계 설립 완의



(도1) 계문서

상기의 완의에 의하면, 풍화리의 마을제사인 ‘위당례’는 수백 년간 이어져왔고, 오랜 세월 이어져온 위당례(위당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계를 만들었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위당계의 발족은 계해(癸亥, 1923)년이지만, 위당제의 역사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위당계의 ‘절목(節目)’에는 ‘維持方針 資本金 十二村 現在戶數 戶當六圓式 定’한다고 유지방침이 기재되어 있다. 12마을에서 호당 6량씩을 모아서 자본금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계문서에는 12마을과 각 마을의 호수, 모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는 1923년 당시의 마을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호수와 모금액은 산용숫자와 한글로 적고 계산식으로 나타낸다.

毛 : 24호 × 6량 = 144량
上 : 37호 × 6량 = 222량
秀 : 25호 × 6량 = 150량

明 : 13호 × 6량 = 78량
 畝 : 26호 × 6량 = 156량
 蟹 : 20호 × 6량 = 120량
 項 : 22호 × 6량 = 132량
 鯨 : 16호 × 6량 = 96량
 楊 : 27호 × 6량 = 162량
 伐 : 17호 × 6량 = 102량
 下 : 27호 × 6량 = 162량
 烏 : 32호 × 6량 = 192량

먼저 12마을의 이름을 살펴본다. 毛은 모상(毛尙), 上은 상장(上長), 秀는 수월(秀月), 明은 명지(明地), 畝는 함박(畝朴), 蟹는 해란(蟹卵), 項은 항촌(項村), 鯨은 경포(鯨浦), 楊은 양화(楊華), 伐은 벌포(伐浦), 下는 하장(下長), 烏는 오비도(烏飛島)다. 위당제는 모상마을의 뒷산에서 제를 모신다. 그래서인지 모상마을을 제일 먼저 기재하고 있다. 1948년의 『산양면지(山陽面誌)』에는 모상마을을 ‘毛尙部落 一名 浦內 又名 法守 今稱 毛尙’라고 소개하고 있다. 모상마을은 일명 포내(浦內)라고 하고 또 법수(法守)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모상(毛尙)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모상마을이 ‘법수’라고 불렀던 것은, 이 마을에 ‘벽수(장승)’가 있기 때문이다. 법수는 벽수(장승)를 한자 차용(借用)한 것이다. 지금도 모상마을에는 장승이 있다(도2). 풍화리에서는 위당제 때에 ‘벽수제’를 올린다.



[도2] 모상마을 입구에 있는 벽수(2015년 5월 2일)

이상의 12마을의 총가호수는 286가호다. 위당계 발족 당시 286가호에서 모금된 금액은 1,716량이다. 이 자본금을 5명에게 대출하여 원금에 이자를 합한 원리금을 계의 자금으로 증산해 나갔다.

3. 위당제 제비(祭費)의 운영

위당제를 운영하기 위해 결성된 위당계의 관건은 제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갑자(甲子, 1924)년 12월 16일의 계 모임 이후 계의 자금을 대출하여 자금을 늘려나간다. 그러나 대출의 이자 수익만으로 계의 운영은 어렵다. 계원들의 성금을 운영자금으로 보탬다. 무진(戊辰, 1928)년에는 다음과 같이 두 번의 성금이 모금 되었다.

먼저 정월 10일의 수입 내역을 보면, ‘선생자제’ 34명이 1량씩 각출한 34량과 ‘타향자제’ 9명이 3량씩 각출한 27량을 도합한 ‘3,458량 8전 1푼’이 수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향자제’는 이 마을 출신으로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다.

다음은 이해의 12월 16일의 수입 내역에 ‘선생자제’ 14명이 1량씩 각출한 도합 14량과 ‘타향자제’ 3명이 3량씩 각출한 도합 9량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지출내역에는 계모임 때의 지출과 정월 10일 위당제의 비용 ‘86량’이 기재되어 있다.

임신(壬申, 1932)년 정월 10일의 수입 내역에는 타향자제 3명을 포함한 8명이 각출한 성금 14량을 합해서 도합 ‘863량 1전 3푼’이 수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계의 운영자금을 성금으로만 유지할 수는 없으니 위당계에서는 제비 마련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한다.

임진(壬辰, 1952)년 7월 10일 수입 내역에는 ‘구공동묘지 시초대’로 2만원, 무술(戊戌, 1958)년 정월 10일의 수입 내역에는 ‘세포 공동산 엽초대’로 2,000환이 수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시초(柴草)’와 ‘엽초(葉艸)’는 소나무의 가지를 쳐서 채취한 땔감을 한자로 나타낸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잎나무’라고 부른다. 이를 팔아서 수입금으로 한 것이다.

위당계에서는 계의 재정이 어려울 때는 성금을 모금했다. 해방 연도인 을유(乙酉, 1945)년 12월에 풍화리 위당제를 위한 자금을 요청하는 청조문을 작성한다. 청조문은 다음과 같다.

惟我本洞이 自先祖以來로 年年 慰山精誠은 一洞이 共知也라 至於今考하여 物價暴騰하고 資産이 不足한지라 故로 不得已 各部落內 有志에게 請助하오니 御深層하시길望

청조문은 물가가 폭등하고 자금이 부족하니 위당제를 위해 도움을 부탁한다는 내용이다.¹⁾ 문서에는 청조문에 이어서 기부자의 이름과 기부금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해 병술(丙戌, 1946)년 정월 10일의 수입 내역에는 ‘본리 유지 저대 청조금(本里有志 猪代請助金)’으로 ‘47,650량’이 기재되어 있다. 벼수제에 올리는 돼지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제비를 마을 유지들이 성금한 것이다.

어려운 시절이었으나 1945년에는 약 100명, 1952년에는 40명이 마을의 위당제를 위해 성금을 냈다.

1) 청조문에는 ‘위산정성(慰山精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1942년부터 해초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다. 이후 풍화리에서는 위당제의 제비 마련을 위해 매년 해초 공동채취장을 경매하여 수입금으로 삼는다. 이는 해초전을 제비를 마련하기 위한 제위전으로 활용한 것이다. 해초전의 수입은 위당계의 큰 수입원이 되었다. 오비도에 서쪽에 있는 월명도를 풍화리 사람들의 제위전으로 삼은 내용이 위당계 문서에 기재되어 있다.

계문서에서 월명도 해초전에 대한 수입 내역은 ‘월명도 채취장 방매대금’, ‘월명도 해초전 방매대’, ‘월명도 해초전 대금’, ‘월명도 대금’ 등으로 기재되었으나, 1967년부터 ‘오비 월명도 병오년 조’, ‘월명도 조로 오비에서 입금’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1967년부터 4년간 ‘6,000원’이 수입되다가 이후 신해(辛亥, 1971)년부터는 계문서에서 월명도 해초전에 대한 기록은 사라진다.

4. 맺음말

오랜 세월 마을 공동의 위당제를 지내온 풍화리 사람들은 계해(癸亥, 1923)년 위당제를 모시기 위한 위당계를 결성한다. 갑자(甲子, 1924)년 6월 16일에 정식으로 위당계의 첫모임을 가졌고, 계모임마다 위당계의 운영을 위한 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위당계 문서’에 기록한다.

위당계 발족 당시는 풍화리 12마을 286가호에서 6량씩 각출하여 도합 1,716량을 계의 운영 자금으로 삼는다. 무진(戊辰, 1928)년 6월 16일에 작성한 『위당계 명부장』에는 400명 정도의 계원이 기재되어 있다. 풍화리의 위당제는 정월 10일 모상마을 뒷산에서 ‘산신제’를 모시고 마을 입구의 벅수에서 ‘벅수제’를 지낸다. 벅수제에는 흑돼지 1마리를 제물로 올렸다. 『풍화리제관급헌관록』에는 무진(戊辰, 1928)년에서 을해(乙亥, 1935)년 위당제까지의 제관과 헌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뒷산의 산신제를 모시는 ‘위산제관’ 2명과 벅수제를 모시는 ‘법수장헌관’ 1명의 이름이 적혀있다. 계문서에서는 ‘위산제관’을 ‘상당제관’이라 하고, ‘법수장헌관’을 ‘하당제관’이라고 기재한다.

위당제는 풍화리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원하는 마을 공동의 제사다. 위당계의 계문서에는 계모임마다 자금의 원리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위당계에서는 제비 운영을 위해 계의 자금을 대출하여 이자를 수익금으로 자산을 늘려갔다. 그밖에도 해마다 위당제를 지내기 위한 제비 마련을 위해 여러모로 방안을 강구했다. 시세가 어려울 때에는 성금을 청조하여 계를 운영했다.

위당제 계문서에는 임오(壬午, 1942)년부터 해초전의 채취장 대금이 수입 내역에 나타난다. 해초전에서 들어온 수입을 위당제를 모시기 위한 제비로 충당한다. 병술(丙戌, 1946)년 계모임 기록에는, ‘월명도 해초전의 채취장 방매 대금’이 수입금으로 기재된다. 1946년 이후 매년 월명도의 해초전을 위당계에서 관리하고 방매한 대금을 제비로 활용한다. 오비도의 서쪽에 있는 월명도의 해초전을 위당계의 제위전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신해(辛亥,

1971)년 이후 계문서에서 월명도 해초전에 대한 기록은 사라진다. 풍화리 위당계에서는 월명도 해초전을 더 이상 제위전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풍화리 마을에서는 이렇게 위당계를 운영하여 제비를 마련하여 매년 위당제를 지내왔고, 풍화리의 위당제는 지금도 전승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 산양면, 『산양면지(山陽面誌)』, 1948.
 『위당계 계문서』, 1923
 『위당계 명부장(慰堂契 名簿帳)』, 1928
 『위산계 발문(慰山契發文)』, 1980
 『풍화리제관급헌관록』, 1928

여수해역 하계 수산물보양식 4선

임 여 호 ■ 한국수산물협회

매년 전국해양학자대회가 개최되는 하계는 불볕더위에 쉽게 입맛을 잃고 기운이 떨어지기 십상이다. 여름은 흘리는 땀방울 만큼이나 체력소모가 많기 때문에 연중 몸을 보하기 가장 어려운 계절로 꼽힌다. 예로부터 복날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민간에서는 복날 더위를 막고 보신을 하기 위해 삼계탕(蔘鷄湯)과 구탕(狗湯 : 보신탕)을 먹는다. 여름 보양식은 한번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몸이 좋아지는 명약은 아니지만 더위에 지쳐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 주는 데는 특효다. 현대인의 보양식 트렌드(trand)는 ‘고단백질 저칼로리’이다. 몸에 맞는 고단백 음식과 부담되는 음식을 가려먹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웰빙으로 대표되는 고단백질 저칼로리 보양식하면 대표적인 것이 수산물이다.

이러한 수산물의 최대 집산지인 여수해역은 지정학적으로 대마난류 영향에 의한 온난한 해양성기후와 연중 적당한 일조량, 동·서해안 해류 교차, 조류소통 원활 등 양호한 해양환경 조건과 365여개 섬들과 광활한 갯벌 산재로, 바다생태계인 수산생물이 다양하여,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여수해역 수산물은 예부터 맛과 멋을 자랑하는 토속적인 음식물이 존재하면서도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소개된 책자가 드물고 단편적인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해안 여수 관내에서 생산되는 신토불이 웰빙수산물 중에서 특히 여름철 웰빙 수산물 보양식인 갯장어, 전복, 농어, 문어 4종을 발굴 소개한다.

이들 수산물은 여름철 더위에 지친 입맛을 돋우고, 원기를 회복하여 활력 있는 생활에 도움을 주는 웰빙 수산물들이다.

갯장어는 고도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고혈압 등의 성인병 예방이나 허약 체질, 원기회복에 효력이 크고, 껍질에 콘드로이틴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노화를 방지하고 관절조직을 원활하게 한다. 여름철 별미 중의 별미이며, 데침회(샤브샤브)를 먹은 후 고영양의 육수에 불린 쌀을 넣고 끓여 먹는 죽은 한수저 한수저가 영양의 보고이고, 그 맛 또한 일품이라 여성과 어린이 모두가 즐기는 건강 수산 식품이다.

전복은 옛날 진시황제가 불로장생을 위해 먹는 식품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강장 역할을 하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타 식품에 비해 월등히 풍부하고, 글루탐산과 로이신, 알지닌 등의 아미노산도 풍부하여 독특한 단맛이 난다. 또한 예부터 고급 수산물로 취급된 전복은 단백질 체내 흡수율이 높아 산후조리, 허약체질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 식용뿐만 아니라, 약용을 목적으로도 많이 이용되었고, 피부미용, 자양강장, 간기능 회복, 내장 및 시력과 위장을 보호하는데도 좋다.

농어는 다른 어류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높아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사랑받는다. 비타민 A, B, D는 물론 칼슘과 인, 철분, 나트륨, 니아신 등이 풍부해 예로부터 몸이 허약한 아이나 산모들이 원기 회복에도 좋으며, 구내염, 구각염, 당뇨병, 동맥경화, 만성피로, 부종 및 피부병의 치료와 예방에도 탁월하다. 허준의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 농어는 “오장을 보(補)하고 위를 고르게 하며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회를 쳐서 먹으면 더 좋는데 많이 먹어야 좋다”하였다.

문어는 고단백, 저열량, 저지방식품으로 글리신, 베타인, 타우린이 많이 함유되어 강한 단맛과 감칠맛이 특징이다. 특히 기능성분인 타우린은 혈중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억제하여 성인병을 예방하고, 특히 아연과 구리가 많이 함유되어 미각장애를 예방하고 빈혈예방에 효과적으로, 수험생과 심신에 지친 현대인들의 여름보양 건강식과 입맛을 사로 잡는 데는 그만이다

문어 중 내장을 제거한 뒤 바닷바람과 햇볕에 껍질째 말린 “여수산 피문어”는 피를 맑게 해 미역국과 궁합이 맞아 산후조리나 혈액순환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수산물을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대부분 국민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웰빙식을 찾아다니고 있지만 어업인들은 수산물 판매가 되지 않아 울상이니 참 아이러니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매주 1회 “수(水)요일엔 수산물을 먹자”란 캠페인을 제안한다.

이는 저렴하고 질 좋은 수산물을 많이 섭취 하므로써, 국민건강과 어업인 소득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커가는 우리 자식들 체력향상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도 수요일에는 필히 수산물을 드시고, 다른 요일도 수시로 수산물을 섭취하여 올여름도 체력을 보강하고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란다.

화성시 갯벌지역 어업민속과 전통지식

편 성 철 ■ 목포대학교

1. 서언

언어의 구속력은 언어 자체가 문화의 일부이지만 인간의 행위 역시 언어의 틀에 맞추어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지역의 언어가 해당 지역민들의 사고방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겠으나 화성 어촌지역의 지역민들은 서해안이라는 환경에 맞추어 언어가 발전했으며 이렇게 생겨난 언어는 다시 지역민들의 사고틀을 제공한다. 이는 간척으로 인해서 바다에서 육지로 변화된 지역의 지역민들에게도 나타난다.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지역민들의 사고, 행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상적 활동과 연계된 어휘에 나타난다. 이는 음운학적, 통사론적 특징보다는 어휘, 담화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어촌은 농촌이나 도시와 달리 어촌에 맞는 어휘가 존재하며 같은 어촌이라도 동, 서, 남해안의 어촌과도 차이를 가진다.

경기도 화성시는 경기도 남부에 위치해있다. 남쪽으로 평택이 위치해 있으나 평택은 아산만쪽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반면 화성은 서해쪽으로 튀어나온 지형으로 충남 당진과 맞닿아있다. 때문에 국화도는 행정구역상 화성시 우정읍에 속하나 육지와와의 거리나 생활권역은 당진에 속한다.

서해안의 갯벌과 갯벌어업을 연구함에 있어 화성은 시공간의 여러 층위를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현재진행중인 간척사업은 농업과 어업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생업의 변화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간척지라는 새로운 공간은 새로운 언어의 탄생을 가져왔다. 특히 육답(陸沓)과 해답(海沓)으로 대변되는 농경지의 구분은 내륙이나 산간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새로운 공간에 항상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공간의 흔적 역시 언어에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한다. ‘벗’은 화염을 생산하는 장소인데 실제로 벗을 본 적 마을사람들은 여전히 ‘벗건너’와 같은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명 그 자체가 해당 장소의 역사의 편린인 것이다.

이러한 장소와 관련된 지명 외에도 생업과 관련된 용어들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화성에서는 굴을 까는 조새를 ‘죄’라고 부른다. 얼핏 화성이라는 권역으로 통합될 것 같으나 그 부분 명칭을 보면 화성에서도 권역을 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지역민들의 생활 속에 실제로 이용되는 어휘를 조사함으로써 그와 연관된 생활 자료를 찾을 수도 있으며 그동안 소외되고, 찾기 힘들었던 지역사 복원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기존조사보고서와 현지조사를 통해서 화성어촌지역의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실제 어휘를 정리하는 데에 있다.

어휘의 분류들은 『화성의 민속』에 실린 ‘화성민속 용어사전’을 기본으로 시작하였다. 『남양만의 역사와 문화』, 『시화호의 역사와 문화』의 어촌민속부분은 『화성의 민속』과 큰 차이가 없었다. 『어촌민속지』, 『경기민속지』의 경우는 화성에 대해 언급되고 있으나 개괄적이거나 학술어휘를 순화해 사용하고 있어 참고자료로 사용했다. 『어구』는 기존의 다른 보고서에 비해 갯벌어로도구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되고 있으나 도록에 가까우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화성지역에 대한 언급은 적은 편이다. 『한국지명총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으나 화성지역 어촌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보인다. 자연마을이나 큰 산에 대한 명칭은 자세하나 간척지와 관련된 지명, 곳, 만, 갯벌, 포구에 대한 지명은 전무하다. 섬과 관련된 지명이 31건 등장할 뿐이다. 현지조사에서는 마을 지명을 되도록 많이 수집하려 했으며 특히 어촌 생업과 관련된 바닷가지명 수집에 집중했다.

생활어휘는 지명과 생업을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지명은 다시 육지의 지명과 바다의 지명으로 세분했다. 생업은 농업과 어업으로 세분하였다. 지명은 명칭뿐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위치까지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생업에 관련된 도구는 도구의 명칭뿐만 아니라 각 부분의 명칭까지 정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2. 지명에 나타난 어휘

2. 1. 마을지명과 관련된 어휘

『한국지명총람』은 화성시의 고지도, 현대지도와 몇 장의 사진을 제시한 후 화성의 간략한 개요와 함께 산천, 특수지역, 행정구역으로 삼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산천에서는 제목처

럼 주요 산과 내를 정리하고, 특수지역은 화성의 옛행정구역인 남양부(南陽府), 쌍부현(雙阜縣), 재양현(載陽縣), 정송현(貞松縣)에 대한 기술을 했다. 행정구역은 조사당시의 법정리를 기준으로 자연마을 명칭, 섬, 우물, 고개, 염전, 바위, 터, 다리를 기록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간척지와 관련된 지명, 곳, 만, 갯벌, 포구와 같이 어촌과 관련된 지명은 전무하다. 섬을 제외한 바다지명은 제부리해수욕장이 유일할 정도이다. 염업에 대해 일부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천일염을 생산하던 곳으로 그 이전 자연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지명의 경우 해당 지명의 유래와 위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로-지(可老地)[마을] 고전 동쪽에 있는 마을”과 같이 간략한 정보만을 수록했기 때문에 실제 주민이 아닌 이상 지도만으로는 해당 지명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러한 점을 보충할 수 있었다. 또한 시각자료를 통해 제보자들 역시 더욱 자세한 설명이 가능했다. 다음은 제부도에서 조사한 지명과 관련된 정보이다.



[그림 1] 서신면 제부도 지명

제부도는 『한국지명총람』에 나오듯 젓부리, 젓비, 제부동 등으로 불리우며 그 이유는 섬의 지형이 젓꼭지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해동지도」나 「남양지도」등에는 유도(乳島)로 표시되어 있다. 제부도 지명에 대한 기존 조사는 대부분 이정도이다. 그러나 실제 제부도에서 조사를 한 결과 위의 지도처럼 다양한 지명이 등장했다. 산의 명칭도 당산이 있는 당제산, 마을 끝에 있는 동미산(洞未山)을 비롯해 봉화가 있었다는 탑재산, 최씨 무덤이 있다는 능안산, 개골산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낭떨어지란 의미의 낭도락, 왕이 물을 건넜다는 왕지물 등이 있다. 자연마을은 안동네가 있는데 현재 서신초등학교 제부분교가 있는 지역이다. 과거 제방이 있기 전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안동네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앞으로는 앞방죽이 있다. 각지역 들판의 명칭도 다양한다. ‘x’표시를 한 곳은 자연을 생산하던 염벚이 있던 곳인데 마을사람들도 염벚이 있었다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염벚을 본 사람들은 없다.

섬의 북쪽에는 현재 서신면 송교리와 연결된 도로가 있다. 물때에 따라 드러나기도 하

고 숨기도 하는 이 길을 제부도 사람들은 웃감 또는 감길이라고 부른다. 시멘트도로가 건설되기 전에도 이 길을 이용했다. 지명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해 준 김원홍의 경우는 ‘감’을 “뺨을 걸어가는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겨울에 뺨을 건너갈 때는 추운 날씨로 인해 동상에 걸리는데 이 때 짚을 부드럽게 뺨아서 발가락을 감싸고 짚신을 신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를 “감발을 한다”를 한다고 표현했다. 웃감은 제부도와 송교리를 연결하는데 제부도쪽은 뺨처럼 튀어나와 있어서 감뺨이라고 부르고 송교리쪽은 감뿌리라고 한다. 감뿌리라는 지명은 해당 지역에서 음식점의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송산면 형도의 서쪽에도 갈말뿌리라는 지명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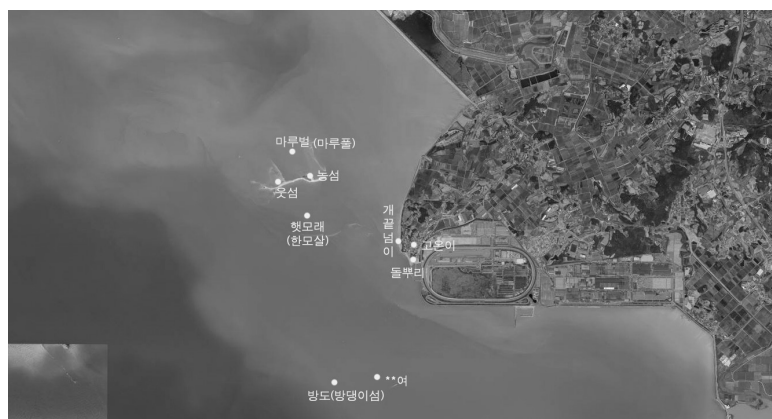
도로가 생기기전에도 웃감을 주로 이용했지만 남쪽에도 물이 빠지면 길이 드러나는 곳이 있었고 이를 아랫감이라고 불렀다. 『화성의 민속』에도 감과 관련된 어휘가 수집되어있다.

감꾼: 섬에서 바닷길을 걸어서 육지까지 다녀오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송산면 고정리 우음도)
 도감치기: 송산면 고정리 우음도에서 바닷물이 나간 사이 사강장까지 다녀오는 것을 가리킴.

우음도 일대에서 ‘감꾼’, ‘도감치기’라는 어휘가 수집되는 것을 보면 ‘감’은 “간조시 드러나는 갯벌을 걸어서 육지까지 이동하는 행위”정도를 의미하겠다.

2.2. 바다지명과 관련된 어휘

다음은 우정읍 매항리(고온이)일대의 바다지명을 표시한 지도이다.



[그림 2] 우정읍 매항리 지명

고온이마을 앞은 간척으로 인해 기아자동차공장이 들어서 있다. 돌뿌리는 바닷가쪽으로 돌출된 지형이었었는데 제부도에서 확인한 것처럼 육지에서 바닷가쪽으로 튀어나온 지형을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제는 내륙에 위치한 돌뿌리지만 그 지명은 이곳이 과거에 바다

와 육지가 만나는 지점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지형은 바뀌었지만 지명은 남아서 과거의 지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대도시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다. 대구지하철의 반월당역의 경우 대구지역의 최초의 백화점이었던 반월당에서 온 것인데 지금은 없어진 건물임에도 반월당역, 반월당교차로와 같이 해당 지역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개끝넘어쪽에는 현재 시멘트로 만든 길이 있어 간조시 햇모래를 지나 옷섬과 농섬까지 연결된다. 햇모래 지역은 자갈과 모래펄이 섞인 지형인데 이를 ‘작살’이라고 표현했다. 햇모래와 마루벌에서 굴, 바지락, 낙지 등을 채취한다. 갯벌도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고운 흙, 양금으로 이루어진 곳을 난들이라고 하고, 흙과 모래가 반반 섞여있는 곳을 보명흙이라고 부른다. 갯벌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해산물이 채취된다.¹⁾

방도²⁾와 흐여기여³⁾ 일대는 각종 정치어구를 설치하던 곳이다. 방도는 육안으로 보면 똑같은 모양의 바위 두 개가 튀어나와 있는데 동네사람들은 이를 방댕이같다하여 방댕이섬 또는 방도라고 부르고 있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바다 위 작은 바위에도 명칭이 있는 것은 그 바위 주변으로 정치어구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물결 밖에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방도나 검은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배를 움직였다. 바다는 기후에 따라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이 잔잔해서 방향을 구분하기가 힘들다. 이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독특한 모습의 바위와 같은 지형은 별자리만큼이나 중요한 기준이 되어 준다.

3. 생업과 관련된 어휘

3.1. 농업과 관련된 어휘

화성은 조선시대에도 간척작업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간척은 당연히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지역에도 많은 농경지가 존재하며 농업과 관련된 어휘도 많이 존재한다.

간척지가 많기 때문에 간척지와 간척지가 아닌 농경지를 구분하는 말이 발달하였다. 갯논, 방죽논, 원안, 해답(海畓), 짚은땅 등은 간척지 논을 의미하고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물논, 육답(陸畓), 늪은땅이 있다.⁴⁾

1) 이 갯벌지형에 따라 어구의 형태나 사용법에 차이를 보고 있으며, 어패류의 종류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것은 안승택, 『남양만 갯벌의 어업기술과 토양』, 『비교문화연구』 제11집 1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5에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2) 방도는 고온이에 속해 있으며 고온이와 석천리에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 정확한 위치는 37°00'43.4"N, 126°43'40.6"E이다.

3) 검은여는 고온이에 속해 있으며 고온이와 석천리에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으나 바다의 높이와 거의 같아 물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정확한 위치는 37°00'51.3"N, 126°44'25.5"E이다.

4) 각 어휘들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는 『갯논의 관리와 전통기술』 52-53쪽에 언급되어 있다.

또한 간척지는 밀물 때 바닷물이 역류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수문과 관련된 시설이 발달하였다. 염수와 담수의 경계에 해당하는 곳에 수문을 설치하였는데 이에 관련된 어휘는 ‘내깎이’, ‘너장수문’, ‘수문바라지’ 등이 있다. 너장수문의 경우 경첩이 달려 있어 논에 있는 물을 뺄 때는 문이 열리고,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자연스럽게 닫히는 형태를 가진다. 너장수문은 널빤지로 수문을 만들어서 너장수문이다.

수문바라지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수문의 형태가 창(窓)과 같아 한 경우와 물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경우이다. 그런데 이때 수문을 만드는 나무 하나하나를 ‘바라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후자의 경우에 무게를 두고 싶다.

이러한 수문을 관리하는 사람도 별도로 있었는데 이를 보주(洑主), 수감이라 했다. 또한 이러한 관리인은 일정한 댓가를 받았는데 일정한 양의 벼를 걷어주거나 일정한 땅을 제공하고 그 곳에서 나는 수확물을 모두 소유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보주에게 걷어주는 벼를 보주벼, 보주세라고 불렀다.

이렇게 같은 방죽 안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계를 조직했고 이를 수문계, 보주계라고 했다. 보주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방죽을 관리하는 것이다. 방죽의 관리는 독이 터지면 하는 것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독매기, 방죽막이라고 한다.

이렇게 간척지와 간척지 아닌 지형을 구분하는 것이 화성을 비롯한 서해안일대에서 사용되는 어휘라면 농수유무에 따라 구분하는 일반적인 어휘도 있다. 삭갈이논, 수령논, 고라시논, 고논은 농수의 공급이 용이해 농사짓기에 유리한 논이다. 반면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의 경우 천수바래기, 하늘받이로 표현한다.

천수답의 경우는 모내기 시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말뚝모, 부친다, 퇴마냥, 파마냥, 호미모와 같은 어휘는 이렇게 모내기시기가 지난 상태에서 모내기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모늬은이의 경우는 대체작물도 심지 못해 묵히는 논을 의미하며 방죽 논에서 많이 볼 수 있다.

3.2. 어업

화성 어촌의 주요 수입원은 어업이다. 그중에서도 어선어업의 비중이 가장 낮으며 정치어업과 채취어업의 비중이 더 크다. 마을에 따라서는 어선이 거의 없던 곳도 존재했다. 정치어업의 경우 건간망(建干網), 중방그물, 지왕그물, 안강망 등이 사용되었는데 지역 내에서도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간망 어업은 조석 간만의 차를 이용해 간조시 바닥이 드러나거나 수심이 아주 얇아지는 곳에 고정목을 설치하고 그물을 부선했다가 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대상물이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물에 갇힌 것들을 잡는 어업이다.

건간망이라는 어휘를 주로 사용하나 마을에 따라서 망자, 뽕그물, 걸그물, 살이라고도 부른다. 갯벌에 고정시키지 위해 사용하는 말뚝은 모두 ‘말짱’이라고 부른다. 우음도의 경우는

내상 부분에 해당하는 가장 가운데는 굵은 것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특별히 ‘내상말’이라고 지칭했다.

말짱은 갯벌에 세우고 앞뒤로 줄을 묶어서 고정시켰다. 화성일대에서는 이 말짱을 갯벌에 박지 않고 줄로 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요민속자료지정을 위한 보고서에는 화성지역 건간망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지방의 갯은 그물을 거의 원형으로 두르고 육지로부터의 입구쪽을 열어 놓아서 C자형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인 규모는 적은 편으로 그물의 전길이는 약 40미터이다. 말뚝은 길이 2~3미터이며 그 굵기는 7~10센티이고 말뚝과 말뚝 사이의 간격은 5미터이다. 이곳의 건간망의 특이한 점은 다른 지역의 것처럼 말뚝을 땅속 깊이 박은 것이 아니라 말뚝에 줄을 매고 그 줄 한 끝에 달아 놓은 짧은 말뚝을 땅에 박아서 말뚝과 그물을 고정시켜 놓은 점이다.⁵⁾

이러한 고정방식은 화성 전지역에 걸쳐서 수집되는 내용이다. 이때 고정시키는 줄을 ‘써개’라고 한다. 과거에는 새끼줄을 이용했지만 어느 순간 와이어(쇠줄)로 대체되었다.

그물에 배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멀리서도 그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짱에 표시를 해두었다. 열 개의 말짱마다 하나씩 말짱 위에 소나무 잎사귀를 달아놓았는데 이를 ‘잎송’이라고 했다. 또 갯벌에도 ‘잎송’을 했는데 이는 비오는 날이나 안개 낀 날 갯벌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다.

물이 빠지면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하루 2회에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이를 ‘물선 보러 간다’라고 표현한다.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그물주인이 아닌 사람들도 물고기를 가져갈 수 있었다. 주인이 고기를 담고도 남아 있는 물고기를 ‘뒷볼’이라고 했으며 이러한 행위를 ‘모시대’, 또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모시대꾼’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잡은 물고기를 전담으로 사가는 상인이 있었는데 이를 ‘독공’이라고 불렀다. 독공들은 그물이 있는 곳까지 직접 와서 물건을 구매했다.

규모가 큰 살의 경우 주인 혼자 작업을 하지 못하고 일꾼들을 고용했는데 이를 ‘동사’라고 했다. 동사들은 능력에 따라 월급의 차별이 있었는데 급여를 ‘용’, 월급날 전에 미리 돈을 받아가는 것을 ‘선용’이라고 했다. 동사들은 주인집에서 자거나 따로 숙소가 있었는데 동사들이 기거하는 별도의 숙소를 ‘살막’이라고 했다. 모든 집이 살막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일론으로 만든 그물이 나오기 전에는 면사로 그물을 만들었다. 그물을 오래사용하기 위해서 참나무를 삶은 물을 들이는 작업을 했는데 이를 ‘갈’이라고 한다. 갈은 일 년에 두 번씩 했다.

중방그물 역시 건간망처럼 갯벌에 설치를 해 놓으나 규모가 조금 작은 편이고 주요 포획

5) 김광언, 『韓國在來 漁業方法 및 道具』, 문화재관리국, 1971. 24쪽

어종은 새우이다. 고온이의 김규석은 이를 ‘반두’⁶⁾라고 표현했다.

사두질은 개인하는 그물어업이다. 화성시 일대에서 말하는 사두질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작업을 한다.



[사진 1] 고온이 황재용



[사진 2] 대부도해양생태관광마을-사두질

제부도, 백미리, 고온리 등에서 확인되는 이 어업은 사두질, 밀질 등으로 불리운다. 고온이의

황용제는 여전히 이 어업을 행하고 있다. <사진 2>는 대부도 해양생태관광마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1970년대 사진이다. 사두질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등에는 부게를 매고 있으며 왼쪽에는 바가지가 떠 있는데 이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물에 잡힌 새우는 퍼서 부게로 넣을 때 사용한다. 사두질그물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사진 3] 사두질그물의 명칭

6) ‘반두’의 의미는 기존 연구서에도 통일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어사전에서는 “양쪽 끝에 가늘고 긴 막대로 손잡이를 댄, 물고기를 잡는 그물. 주로 얇은 개울 같은 데서 물고기를 몰아 잡는 데 쓴다.”라고 정의하고 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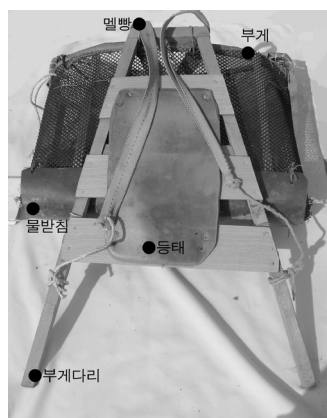
반면 문화콘텐츠닷컴의 전통고기잡이에서는 반두를 “그물 좌우 끝에 대나무 손잡이를 달아 두 사람이 끌 수 있도록 한 어로도구이다. 그물 길이는 약 2m 정도에서 50m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온이의 김규석, 국어사전, 문화콘텐츠닷컴에서 설명하는 반두는 모두 다른 종류의 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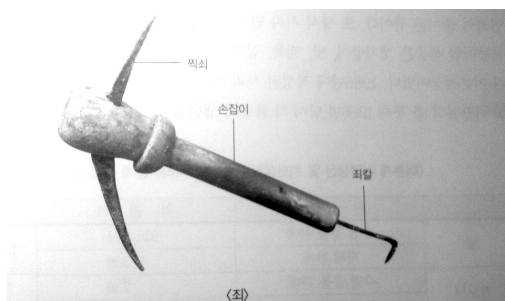
사두질그물은 두 개의 사두질가래와 그물, 개나리로 이루어져 있다. ‘사두질가래’는 ‘햇가래’라고도 부르는데 그물의 전체 모양을 잡는다. 또한 바깥쪽에는 ‘하니’라고 하여 고무로 둥글게처리를 했는데 이는 그물을 밀 때 그물이 갯벌에 박히지 않고 잘 밀리는 역할을 한다. 제부도에서 본 그물은 짚으로 둥글게 말아놓았다. 사두질가래의 안쪽은 30cm가량 교차되는데 이곳에 허벅지를 대고 그물을 들어올 때 축으로 사용한다.

‘개나리’는 손잡이인 동시에 그물이 벌어지는 각도를 조절하고 사두질가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부분이다. ‘발채’는 그물에서 움푹 들어간 부분으로 포획된 새우가 모이는 곳이다.

사두질을 할 때는 ‘부게’를 등에 지고 가는데 부게는 사두질그물을 운반하는 역할과 잡은 새우를 운반할 때 사용한다. 고온이에서 본 부게는 플라스틱, 고무판 등을 활용해 제작되었으나 그 명칭은 재래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사진 4] 부게의 명칭



[사진 5] 남양동 시동의 죄의 명칭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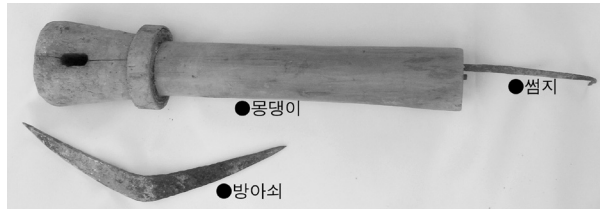
부게는 새우를 담아 운반하는 용구이다. 사람의 등에 달는 부분은 ‘등태’인데 고무판을 덧대어 피로감을 줄어들게 했다. ‘물받침’은 우레탄으로 만들었는데 부게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물받침을 따라서 좌우로 흘러 사용자의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부게를 메면 사용자의 머리쪽의 높이가 더 낮다. 바가지로 퍼서 새우를 뒤로 넘길 때 부게를 넘어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갯벌에서 현재도 가장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굴, 바지락, 낙지이다. 굴은 ‘죄’를 이용해 채취한다. 죄는 지역에 따라서 조새라고도 하는데 화성에서는 ‘죄’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어 있다. 죄는 굴의 껍질을 까는 부분과 알맹이를 집어내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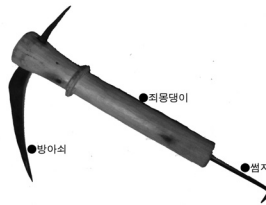
7) 『화성의 민속』, 239쪽



[사진 6] 매항리 고온이 죄의 명칭



[사진 7] 백미리 죄의 명칭



죄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손잡이’, ‘죄몽둥이’, ‘몽댕이’로 물리우는 몸통부분과 굴의 껍질을 까는 ‘찍쇠’, ‘방아쇠’ 그리고 굴을 꺼내는 ‘죄칼’, ‘썸지’, ‘썸지’이다. 방아쇠는 양쪽 모두 사용하는데 한쪽이 부러지면 꺼내어 날의 방향을 바꾸어 단다. <사진 6>의 좌측 죄의 방아쇠 아래쪽 부분이 깨져있는 것이 보인다. 죄는 직접 만들 때는 옹이가 있는 소나무를 구해와서 만든다. 방아쇠를 구멍 위로 옹이가 있으면 오래 사용해도 나무가 갈라지지 않는다. 장에서 사오는 죄는 나무를 옹이와 상관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방아쇠 위쪽으로 나무가 갈라진다. <사진 7>의 죄는 백미리에 거주하는 양광직이 직접 만든 죄로 방아쇠 위쪽이 소나무 옹이로 되어 있다. 명칭에 있어서는 매항리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굴은 껍질과 알맹이로 구분한다. 바위에 붙어 자라는 굴과 돌에 자라는 굴로 서식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5관(3.75kg)정도의 돌을 굴돌이라고 부른다. 굴돌이나 굴껍질에 붙어 자라는 굴은 호미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 껍질 채 딸 수 있다. 이런 굴을 ‘굴뽕’이라고 한다. 바위에 붙어 있는 굴은 그렇게 할 수 없어 죄를 이용해 그 자리에서 직접 채취한다. 굴을 양식하기 위해 갯벌에 돌을 던져넣기도 했는데 이러한 양식장을 굴판장이라고 부른다. 개인소유의 굴판장에서는 파도에 떨어진 굴뽕이 물살에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시설물이 있는데 이를 ‘굴막아지’라고 한다.

낙지를 잡을 때는 맨손으로 잡거나 낙지호미, 종가래를 이용해서 잡는다. 낙지를 맨손으로 잡는 것은 ‘받쳐잡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요령이 있어야 하면 손으로 바로 잡기 때문에 잡는 시간도 짧다. 이러한 요령이 없는 사람들은 도구를 이용한다.

궁평리, 고잔, 매항리에서는 낙지호미와 종가래를 모두 사용한다. 장덕리 매바위에서는 주로 낙지호미를 이용한다. 낙지호미를 사용하는 이유는 빨이 단단하지 않아서 종가래를 사

용하면 흙이 무너지기 때문이다.⁸⁾백미리에서는 낙지호미와 낙지쇠스랑⁹⁾을 사용한다. 실제 조사를 해 본 결과 종가래도 이용하고 있다. 청원리 장개에서는 손으로도 잡지 못하고 종가래만을 사용해서 잡는다. 매향리에서는 종가래와 호미를 이용한다.



[사진 8] 제부도의 바지락호미와 낙지호미

<사진 8>의 우측은 서신면 제부도에서 사용하는 낙지호미이다. 현재 제부도에서는 낙지호미와 종가래를 모두 이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낙지호미를 사용했으나 갯벌이 변하면서 지금은 종가래도 사용한다. 낙지호미는 일반적인 호미와 다르게 날부분이 무겁고 길다. 또한 무게중심도 앞쪽으로 심하게 쏠려 있어 갯벌에서 작업을 할 때 깊숙이 박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목부분의 각도도 더 많이 휘어져 있어서 갯벌에서 땅을 팔 때 지렛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종가래는 날과 자루로 이루어져있는데 자루를 장치라고 한다. 방죽을 보수할 때 가래의 자루를 잡고 흙을 퍼 올리는 사람을 ‘장치꾼’이라고 사용하는 것을 보면 ‘장치’는 길이가 긴 도구의 자루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루의 머리부분을 보면 ‘T’자형으로 된 것과 ‘▽’형으로 된 것이 있다. ‘T’자형은 직접 제작한 것이고 ‘▽’형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삽자루를 이용한 것이다.



[사진 9] 석천리 낙지잡이

8) 『화성의 민속』, 243쪽

9) 쇠스랑을 사용하는 것은 김용진이 인천에서 갯지렁이를 잡을 때 쇠스랑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적용한 것이다. 1998년부터 사용한 것이다.

석촌리에서 만난 인물을 보면 뒤에 보이는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안강망배가 그물을 옆에 차고 나가듯이 종가래는 오토바이의 옆으로 차고 왔으며 뒤에는 낙지통을 싣고 왔다. 장화를 신고 있으며 갯벌에서도 빠지지 않도록 끈이 연결되어 있다. 일부 인원들은 허벅지부분에 별도의 끈을 동여매기도 했다. 종가래를 어깨에 걸치고 뒤로는 낙지통을 걸어놓았다. 낙지통은 스티로폼 박스를 개조한 것으로 낙지를 넣을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으며 안에는 얼려온 물이 들어있다. 얼음은 낙지의 신선도를 유지할 때도 쓰이고 본인의 갈증을 해소할 때도 쓰인다. 낙지통과 별도로 파란색의 플라스틱통이 있는데 이것은 낙지통을 올려놓고 갯벌에서 끌 때 사용한다.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낙지통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이다. 옆마을인 고온이 황용재의 경우는 <사진 10>처럼 낙지통 바닥에 플라스틱을 덧대어 낙지통을 갯벌에서 바로 끌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다.



[사진 10] 고온이 낙지통

4. 결론

방조제, 간척지,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모습은 변했다. 그러나 화성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여전히 옛지명을 부르고, 생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지역민들의 기억 속에서는 땅의 관리방법이나 농사방법, 어업방법과 관련된 기술과 관행이 남아 있다. 전통지식이라 부를 수 있는 이것들은 간척지와 갯벌이라는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들이다. 환경의 변화와 함께 지식들 역시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식은 문헌을 통해서 자료의 의미를 해독하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화성을 비롯한 서해안 일대의 갯벌의 존재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으나 별개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그 이유는 바다속, 갯벌속의 작업과정이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과 언어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화성 어촌지역의 어휘를 정리하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화성 어촌에 접근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글에서 아쉬운 점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명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점과 어업에

있어 물고기의 명칭이나 바지락, 맛조개 등에 분류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더 많은 어로작업의 존재를 소개하지 못한 점이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의 조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 『화성의 민속』, 화성시, 2006
 『남양만의 역사와 민속』, 한신대학교박물관, 2005
 『시화호의 역사와 문화』, 한신대학교박물관, 2006
 『어촌민속지』, 국립민속박물관, 1996
 『경기민속지』, 경기도박물관
 『시화호 어업과 연안문화』, 연안보전네트워크, 2009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 경기도박물관,
 『한국지명총람』경기도편, 1996.
 『한국민속종합보고서』(어업용구편), 문화재관리국, 1992
 『알기쉬운 한국의 어업』, 국립수산물학원, 2010
 양선아, 「갯논의 관리와 전통 기술」, 『민속학연구』, 제29호, 국립민속박물관, 2011
 안승택, 「남양만 갯벌의 어업기술과 토양」, 『비교문화연구』 제11집 1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5
 김광언, 『韓國在來 漁業方法 및 道具』, 문화재관리국, 1971

경기 아산만 하구의 정치 어구와 그 특징

오 창 현 ■ 국립민속박물관

1. 들어가며

이 연구의 목적은 아산만 하구에 위치한 경기 화성시 남부 연해 간조대의 정치 어업을 검토하고 그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크게 정치 어구를 검토해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크고 만입의 굴곡이 많고 깊은 경기만 남부 간조대 정치 어업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한반도의 서안은 조수간만의 차를 크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정치 어업이 발달해 왔다는 점은 일찍부터 주목 받아 왔다. 그러나 조수간만을 이용하는 어업이라도 지형적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어구를 발전시켜왔다. 예를 들어, 서해안의 대표적인 정치어구인 ‘어살’이라도, 모양이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다. 이러한 정치어구의 지역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함으로써, 어구의 지역성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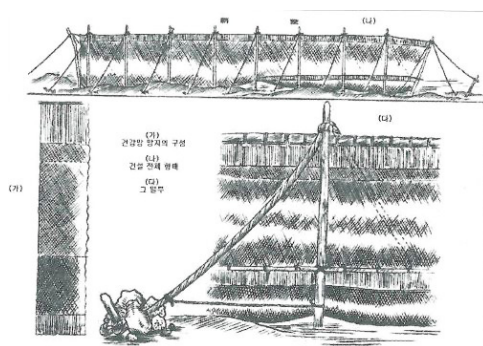
2. 화성의 정치 어구

화성 중 연안부인 남양반도는 과거 남양부의 소속이었다. 아산만의 큰 물줄기는 안양천과 삽교천을 이루고 있다. 아산만은 남양읍으로 이어지는 남양만과 발안장으로 이어지는 발안천 등 남양반도 여기저기에도 작은 만들을 만들어낸다. 조선후기 남양부는 충청도에서 한

강을 통해 내륙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과거 자연의 최대생산지였으며 운송업 역시 상당히 발달해 있었다. 『한국수산지』(1911)에 따르면, 남양반도는 어선 어업이 거의 발달해 있지 않았다.¹⁾

이 글이 다루는 궁평리와 고온리가 위치한 신리면(新里面)과 우정면(鴨汀面)은 남양 해구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신리면과 압정면 내 남양해구의 양쪽에 위치한 궁평리와 매항리에는 예로부터 어업이 상대적으로 발전해 있었다. 남양반도는 남양호(1973년 완공), 안산만방조제(1974년 완공), 삽교천방조제(1976년 완공), 시화방조제(1994년 완공), 화옹방조제(2003년 완공) 등을 비롯해, 조선시대부터 수많은 작은 언들이 형성되면서 지형과 갯벌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²⁾ 1910년대 중반 지도를 통해 1910년대 상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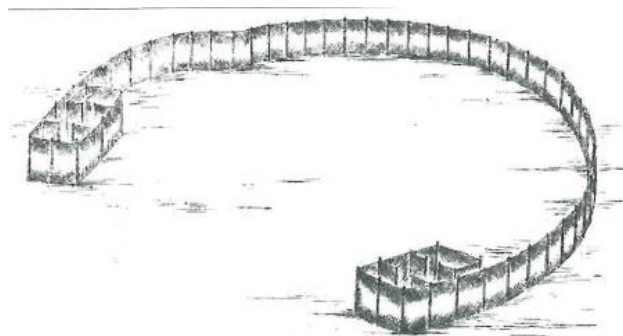
新里面에서 어촌이라고 언급된 곳은 사곶리와 궁평리이며, “전자에는 어선 1척, 捲網 6통, 어전 1좌, 후자에는 어선 1척, 권망 1통, 어전 1좌가 있다.” 이곳은 “평지가 협소하여 농산이 적지만, 풍도(豐島) 어장이나 아산만의 어장에 출어하기에 편리하다.” 또, 鴨汀面에는 남양군의 “유수의 해구이며 동시에 이 방면에서 유일한 어촌”인 고온포가 있었다. 고온포는 “육로는 수원군에 속하는 발안장을 경유하여 수원읍에 달하는 도로가 평탄하여 또 양호하여 해륙 모두 교통이 불편하지 않다. 호구는 80호 380여명이 살며, 많은 이가 농상에 종사한다. 그러나 20여 호가 어업을 영위하며, 어선 7척, 권망 15통, 어장 3좌를 가지고 있다.” “본포의 서방에 상도, 하도 노수풀(路水草) 등의 작은 도서가 산재하며, 이러한 작은 도서는 본포인의 漁帳, 漁場이 된다. …… 어장(漁帳)은 하계(夏季)에 설치하며, 주로 웅어(蘇魚)를 잡으며 어획이 다소 많다.” 그런데 『한국수산지』는 권망과 어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구를 지칭하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림1] 인천 부근의 설망(도해 8-1)

1) 오창현, 2012, 「남양 반도의 시장체제와 생업의 변화_화성시 송산면 어선과 우음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 45-2.

2) 양선아, 2010, 『조선후기 간척의 전개와 개간의 정치』, 서울대학위논문. 안승택, 2005, 「남양만 갯벌의 어업기술과 토양」, 『비교문화연구』 11-1,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그림2] 인천 부근의 설망(도해 8-2 건강망)

『한국수산지』(1908)는 정치어구를 크게 어장, 어살, 설망으로 구분한다. 이 책은 어살을 (1) 함경, 강원, 경상도에서 청어 또는 대구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방렴과, (2) 남부 연해에서 학꽁치.전어.새우.잡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방렴, 그리고 (3) 서해와 서남해 연안에서 조기.새우.갈치.오징어.달강어.방어.가자미.광어.서대.가오리 등을 어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살, 그리고 (4) 돌을 쌓아 만드는 돌살 모두 네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한국수산지』(1908)은 위의 네 가지 종류의 어살과 별도로 ‘설망(設網)’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민속종합조사: 어구편』에서는 설망을 “개막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한자어인 “建干網”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설망은 어살에 비해 늦게까지 사용된 정치어구임에도 학계의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다. 『한국수산지』(1908)에 따르면, 설망은 서부 일대의 연해 간석면에서 종래 다수 사용된 어구로 만조를 타고 들어오는 어류를 간조 때 바다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그물로 막거나 그물코에 박히도록 하거나 그물자락에 머물도록 하거나 그 일부에 설치한 통발 등에 빠지도록 하여 포획하는 어법이다. 설망은 살과 마찬가지로 조수를 이용한 정치어구이지만, 일반적으로 화살 형태를 취하는 어살과 달리 방사형이다. 『한국수산지』(1908)의 도해편에 실린 6-1~6-3까지의 어살을 보면, 모두 화살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국수산지』(1908)는 세 가지 설망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인천 근해의 두 사례와 평안북도의 한 가지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경기만 내 아산만의 사례는 전자인 인천 근해의 두 사례와 관련된다고 판단된다. 인천 근해의 어살은 웅어.송어.농어.준치.갈치.오징어.새우.게.기타 잡어를 어획하기 위한 것이었다. 졸참나무로 만든 통나무를 2칸 내지 2칸 반마다 세우고 그물로 조류를 차단하도록 활모양으로 건설한다. 길이는 50~100 길에 이르며 썰물시 어구가 노출되면 걸어 들어가 고기를 잡는다. 후자는 다시 송어.민어.농어.가오리 등을 잡는 대형 설망과 새우.잡어를 어획하는 소형 설망이 있다. 졸참나무 등의 말뚝으로 9척 간격으로 나란히 세우고 썰물때 물고기를 어획한다. 이제 현장조사에 수집한 사례들을 정리.분석해 보겠다.

가. 살과 버클

『화성의 민속』(2006)에 따르면, 남양반도의 북부 지역에서는 건강망을 “살”과 “버클”로 명확히 나누어 설명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살은 『한국수산지』에서 언급한 살과는 상이한 설망 중에 도해 8-2의 변형태로 보인다. 살은 ‘골’을 끼고 설치된다는 점에서 버클과는 상이하다. 또, 골을 끼고 설치하기 때문에 강한 물살에도 견딜 수 있게 크고 튼튼해야 했고, 정해진 구역을 의미한 “바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각각의 살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살의 모양이 여타 지역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살의 형태는 남한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크고, 육지부로 깊숙이 들어간 경기만의 지형적 조건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 서신면 백미리의 000씨는 갯벌에 생긴 물길을 고랑과 골로 나누었다. 골은 조수가 들어오고 빠지는 큰 물길로 간조시에도 물이 남아 있지만 건널 수 있는 지형을 말한다. 반면, 강은 간조시에도 건널 수 없는 물길을 의미한다. 또, 해안에 물이 닿는 곳을 해변이 아니라 “강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바다’보다는 ‘강’이 화성 지역에서는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용어로 생각된다.



경기만의 살은 일반적으로 골을 살의 중앙에 두고 설치하기 때문에, 자연히 중앙이 좌우 활가지에 비해 깊어 물이 늦게 빠진다. 따라서 여타지역의 살처럼 화살 모양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물고기는 수심의 차로 인해 자연히 가운데로 모이게 된다. 화살 모양보다 방사형이 입구가 넓기 때문에 물고기를 모으는 데 더 유리한 형태이다. 다만, 간조시 물고기가 살의 좌우로 빠져나가지 않게 좌우를 구부릴 필요가 있다. 여기에 평안도와 구분되는 경기도 연해 설망의 특징으로 살을 빠져나와서 도망가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불꼬리 바깥 둘레에 어살을 이중으로 세운다(『한국수산지』 1908).

나. 망자와 반두

화성 매항리에서는 “망자”와 “반두”라는 두 가지 상이한 정치어구에 대해 들을 수 있었

다. 화성의 다른 지역과 달리 건강망이 아니라 “망자”와 “반두”라고 부르는 것이 어구 자체의 구별되는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남양만을 끼고 구분되는 언어권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우정읍은 서신면과 상이한 시장권에 속하며, 조선시대에는 행정권도 달랐다.

망자는 살과 마찬가지로 바탕을 가지고 있지만, 골을 중심에 두고 설치하는 살과 달리 큰 강 옆의 지면이 드러나는 곳에 설치하는 정치어구이다. 따라서 아산만 하구의 무인도, 암초 주변에 설치한다. 우정면 매향4리 고온이 주민들은 1960년대까지 방댕이섬, 울섬 주변에 10여기의 망자를 운영했다. 현재 당진의 한보철강 앞에 방댕이섬(한자명 방도)이 있다. 과거 이 섬 옆으로 4~5개의 망자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 마을에서 가까운 울섬 앞에 망자 3개가 설치되었고, 울섬 옆의 작은 섬에도 망자가 3개 더 설치되어 있었다. 망자는 앞서 도해 8-1에 가까운 개막이 그물이다. “반두”는 망자와 마찬가지로 “바탕”을 가진 어구였지만, 망자에 높이가 낮고 주로 연안 주변에 설치했다.

3. 화성의 반정치어구

경기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송어가 의례품으로 사용되는 권역이다. 화성에서는 민어의 상품가치가 가장 높고, 송어의 상품가치도 민어와 함께 매우 높은 어류에 속한다. 송어 어업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왔고, 이는 송어를 지칭하는 용어가 분화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송어 어업은 강어업의 일부로 다루어진 적은 있으나, 남해안의 송어 들망 어업에 비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이 글에서 송어를 앞에 내세운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는 어구들이 송어 어업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송어를 지칭하는 용어는 화성 내에서도 다소 나뉘는 듯하다. 여기서는 매향리의 김규석(1939년생)씨를 참조하겠다. 참송어를 크기에 따라, 동어(하치, 새끼), 모치(25cm, 1년), 묵은모치(35cm, 2년), 사르비(3년), 송어(4년 이상) 등 다섯가지로 나누었다. 사르비 이후로는 간단히 송어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황용재(1934년생)씨는 모치(1년생), 묵은 모치(2년생, 30센치 내외), 상모치(40~50센치), 송어(1킬로그램 이상 킬로당 7,000원) 등 네 가지로 구분했다. 참송어 외에도 “능지” 혹은 “시령이”라고 부르는 “개송어”, 즉 가송어를 구분했다.

가. 조치질

송어는 봄에 알을 까는데, 음력 7~8월 중에 아이들이 방학했을 때 송어 중에서 1~2년생인 모치를 잡는다. 사리때에도 할 수는 있지만, 어획량이 많지 않아 조금 때 했다. 작업은 정해진 두 곳, 농섬 뒤편과 마을 앞편에서만 이루어졌다. 날씨는 덥고 서쪽에서 부는 하늬바람이 불어 물고기가 깊은 물에서 놀지를 않고 얇게 바짝 근처에 올 때 많이 잡을 수 있다. 날이 좋지 않고 바람이 불면, 송어가 깊이 들어가 잡기가 어려웠다. 사람이 깊이까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번 작업에 1~2시간은 걸렸다. 조치질은 한국전쟁까지 하고 이후로 폭격장

이 생기면서 사라졌다.

한 배에 25명이 타고 물이 썰 대 나가서 밀 때를 기다리다가 밀기 시작하면 작업을 시작하는데,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면 또 하기가 어려웠다. 대여섯 사람이 물이 허리춤까지 차는 곳에서 그물을 쭉 들고 드문드문 서서, 그물을 바닥에 넣어 끌고 물으로 들어온다. 끝에서 있는 사람, 소위 반장이 고기떼를 보다가 여기 말로는 “고깃머리를 보다”가 점차 그물을 끌어서 물쪽으로 몰아간다. 물고기가 10마리 정도면 기다리고 몇 십 마리씩 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반장이 신호를 내린다. 반장이 그물을 놓으라고 신호를 하면 사람들이 그물을 풀어 짹 편다. 다시 그물을 주라고 신호를 받으면 양쪽 사람들이 뛰어서 그물을 죄어 가다가 끄트머리를 잡고 양쪽에서 들으면 고기가 그물 안에 다 들어온다. 그러면 송어를 구렁에 담아가지고 온다.

나. 사두질

사두질은 봄부터 가을까지 조업하지만, 여름에는 송어잡이를 위해 조업하기도 했다. 여기서 백미리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3m가 넘는 장대를 ‘T’자로 엮어 그물을 달아서 물이 들어올 때 새우를 잡는다. 물발이 세야하기 때문에 하는 곳이 몇 군데 정해져 있다. 양희영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인 1960년대에는 7~8명이 사두질을 했다. 큰개와 작은개에서 주로 작업을 했다. 작업 시기는 밀물 때이다. 갯고랑 중 “큰개”는 고랑이 넓기 때문에 세 명 정도가 설수 있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데 도착하는 순서대로 작업 장소가 정해진다. 큰개에서 작업이 끝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는 어획량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제일 좋은 자리를 준다. “작은개”는 현재는 한 대 밖에 놓을 수 없지만 당시에는 두 명이 설 수 있었다. 밤사두질을 할 때는 부계에 석유등을 달고 나갔다. 남포보다 작은 호야라는 등을 달고 나갔는데 그리 밝지는 않지만 어두운 바다에서는 효과가 좋았다. 달이 밝은 날에는 물고기의 비늘이 하얗게 반짝거리기도 했다. 밤사두질은 혼자 다니면 안 되는데, 혼자 사두질을 하러 나갔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다. 이때 도깨비에 홀려서 죽었다는 말도 있었다.

마을어장 공유의 공식화와 전통적 운영방식의 지속

송 기 태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1. 서론

어촌마을은 인접한 해안가를 공유하고 있어서 바다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공동체적 질서가 체계적으로 발달한 곳이다. 마을마다 입호와 입어 관련 규약을 마련하여 어로활동에 참여하거나 어장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구성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어촌계 등의 어로조직을 통해 공동어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의 물적 기반을 파악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지표로 성원자격, 공동재산, 공동노동, 공동분배, 공동의례 등을 들 수 있는데¹⁾, 어촌의 경우 갯벌과 해수면을 공유하고 공동노동을 통해 수확한 어획물을 공동분배하기 때문에 어촌공동체의 질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공동체성이 강한 곳으로 논의된다.

어촌의 공동어장과 그에 따른 질서체계를 ‘오래된 고향’의 것으로 추정하곤 한다. 특히 마을어장에서 자연산 해조류 채취하는 어촌을 공동체의 원형적 형태로 논의하기도 하였다.²⁾ 그러나 어장의 총유적 개념과 공동어장의 운영체계는 20세기에 들어서 구체적으로 가다듬어진 부분이 많다.

어촌의 어장이라고 하면 ‘공유’와 ‘공동’을 강조하지만, 실제 공동어장의 공간은 그리 넓지 않고 공유와 사유가 공존했었다. 역사적으로 어장이 사유화되었던 지역이 많고, 지금도 관행적으로 사적 점유를 인정하고 있다. 동해남부 일대의 藪田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개인과 문중에 의해 사유화 되었고, 남해안의 통영, 고흥, 보성, 완도, 진도 등지에서도 사유화되었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들 지역은 1963년 수산업법의 개정으로 어장이 총유화 되면

1) 정근식·김준, 『해조류 양식 어촌의 구조와 변동』, 경인문화사, 2004, 69쪽.

2) 박광순, 『한국어업경제사연구』, 유평출판사, 1981.

서³⁾ 심각한 분쟁을 겪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도 관행적으로 개인의 점유권을 인정하는 곳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공유와 사유가 공존하던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마을 간 어장 경계가 획정되고 내부적으로도 경계가 세분화 되는 과정을 살핌으로써 어촌공동체가 20세기에 들어서서 현재의 틀을 갖추었음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1960년대 수산업법의 개정 후 어촌계라는 공식적 조직의 등장과 함께 마을어장이 공식적으로 공유화 되었음을 주목하고, 그 속에서 전통적인 마을어장의 이용방식이 지속되는 의미에 대해 살피려고 한다.

2. 공유와 사유가 공존하는 마을어장

조선시대부터 어장은 사유의 개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山林川澤 與民共知라는 왕토사상⁴⁾에 근거하여 법제도적으로 王有의 일환으로 여겨졌고, 조선후기에는 王室과 衙門의 절수지 대상이 되었다.⁵⁾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해안 곳곳이 사점되면서 역사속에서 소유권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겪었다.⁶⁾ 따라서 마을어장도 역사적으로 공유와 사유가 공존하였고, 1960년대 이후 수산업법 개정을 거치면서 총유적 어장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동해안 어장의 소유관계를 주목한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에 어장의 사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객전(藪田)이나 어장을 비롯한 어업 생산요소 등이 사점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 그리고 구한말의 어장 상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동체가 총유하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유와 공유, 자유접근 등 다양한 형태가 공존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⁸⁾ 그리고 1963년 수산업법의 개정을 계기로 사유화 되었던 객전들이 총유화되면서 동해안 남부일대가 극심한 분쟁을 겪게 되었음이 보고되었다.⁹⁾

동해안에는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이전부터 객암에 대한 사적 소유가 인정되고 있었다. 울산시 기념물 제38호로 지정되어 있는 ‘객암(藪巖)’은 고려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울 때 공을 세운 박윤웅에게 강동·농소 지방과 함께 유포의 객암 12구를 채지로 내렸다고 한다.¹⁰⁾ 이 바위는 울산박씨대종회에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유하는 객암은 동해안 남부 일대에서 전반적으로 확인된다.

1817년에 작성된 정약용의 『경세유표(經世遺表)』에 따르면 호남과 영남의 객전은 사가

3) 한규설, 『한국어업제도 변천의 100년』, 선학사, 2001, 299쪽. 1963년 4월 11일 개정된 <수산업법>에서 제10조 2항이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다. “②어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어업협동조합이 향유하는 공동어업권의 범위 안에서 각자 어업을 할 수 있다.”

4) 『태조실록』 권11, 1937년 4월 25일(태조 6년 정미).

5) 송경은, 『한국에서의 근대적 어업권 형성과 법제화』, 서울대 박사논문, 2013, 17쪽.

6) 이종길, 『조선후기 어촌사회의 소유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7.

7) 이종길, 『조선후기 어촌사회의 소유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7.

8) 송경은, 『한국에서의 근대적 어업권 형성과 법제화』, 서울대 박사논문, 2013.

9) 전재경·이종길, 『어촌사회의 법률관계』, 한국법제연구원, 1997.

10)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와 토호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고, 통천(通川) 이남과 삼척(三陟) 이북에서는 객전의 사주(私主)가 없고 관에서 지키는 일도 없으며, 울진(蔚珍)과 평해(平海)지역은 관이 지켜서(미역발 지기가 있었고 또 監考가 있었음) 미역세를 거두었다고 한다.¹¹⁾

울진을 기점으로 한 동해안 남부지역 어장의 개인소유는 근대를 거쳐 현재까지도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동해남부 지역의 객전 소유실태와 매매 관행이 광범위하게 확인된 바 있다.¹²⁾ 동해안의 객암 소유관계가 구분되는 기점을 명확하게 지목할 수는 없지만, 기존 연구와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울진 이북지역부터는 공동체적 소유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영덕지역부터 개인소유 형태가 발견된다.¹³⁾

서남해 진도의 조도군도 일부 섬은 조선후기 권문세도가와 왕실에 의해 사점되기도 했다. 조선후기에 들어서면 도서해안지역은 궁방, 아문, 세도가, 토호 등의 권력자들이 어전과 염분, 섬 등을 사점하고,¹⁴⁾ 비합법적으로 세금을 수취하여 그 폐해가 갈수록 심해졌다.¹⁵⁾ 갯바위의 미역발 또한 권문세도가와 왕실에 의해 사점되곤 했는데, 조도군도의 경우 1940년 대까지도 곳곳의 섬과 미역발(마을어장)이 사점되었다.

현재 조도군도에는 154개의 섬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유인도가 35개, 무인도가 119개이다. 대개의 섬은 마을주민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고, 일부 지역의 경우 관행적으로 개인이 사유하고 있다. 독거도와 청등도, 죽향도, 슬도는 개인의 소유처럼 사유되고 있고, 나머지 섬들은 마을 단위에서 공유하고 있다.

1953년에 제정된 수산업법이 1963년 개정되어 어촌계가 조직되면서 관습적으로 존재하던 객전이나 갯발 등이 모두 공유자원화 되었지만,¹⁶⁾ 공식적인 법제도와 달리 현재까지도 여전히 개인의 사유가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¹⁷⁾ 미역발을 포함한 해조류 채취구역을 갯번이라고 하고, 해조류 채취조직을 재건(또는 해안수)이라고 한다. 갯번의 소유형태에 따라 해조류 관리와 채취의 주체가 달라지지만, 공유와 사유 모두 일정한 섬공동체의 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어장의 마을단위 경계 구획과 운영

마을어장의 법적 권리는 일제강점기에 ‘근대적 어업권 제도’가 성립되면서부터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08년 제정된 「어업법」에서는 어업권을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세 부분으로 규정하였다. 면허어업은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었는데, 제2종 면허어업을

11) 『경세유표(經世遺表)』 제14권 균역사무추의(均役事目追議) 제1 <藿稅>.

12) 전재경·이종길, 『어촌사회의 법률관계』, 한국법제연구원, 1997.

13) 2013년 12월 6일 경북 울진 거일1리 권○○(남, 1941생), 오○○(남, 1936생) 면담. 2013년 12월 7일 경북 영덕군 대진3리 현지조사.

14) 김선경, 「17~18세기 양반층의 산림천택(山林川澤) 사점과 운영」, 『역사연구』 7호, 역사학연구소, 2000, 6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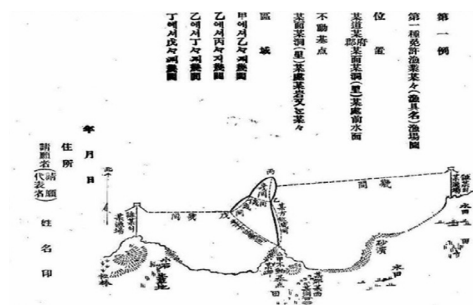
15) 정운섭, 「조선후기 海南尹氏家の 孟骨島획득과 經營」, 『도서문화』 31,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08, 242쪽.

16) 김준, 『한국 어촌사회학』, 민속원, 2010, 62~63쪽; 전재경, 『어촌사회의 법의식』, 한국법제연구원, 1998, 69~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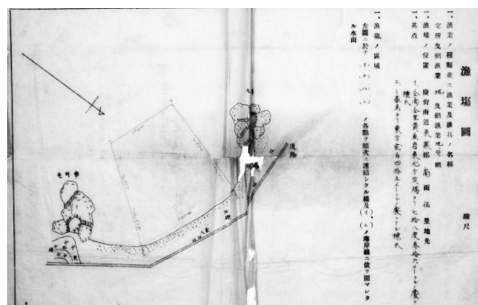
17) 김성배·이윤미, 「공유재 관리의 정부실패 : 객전의 경우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13, 2010.

“일정한 수면에 포채 채조 또는 양식을 하는 어업”으로 규정하였다.¹⁸⁾ 1910년 한일병합 이후 1911년 총독부에 의해 「어업령」이 제정되면서 「어업법」은 소멸된다. 이때 제2종 면허어업이었던 채취어업과 양식어업을 구분하여, 채취어업은 제6종 면허어업으로 따로 분리되었다. 제6종 면허어업은 ‘수면을 전용하여 행하는 어업’으로 신설되면서 어업권을 어업공동체에만 부여하고, 공동체만이 공유자원을 점유·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⁹⁾ 결과적으로 1911년 「어업령」의 제정 이후부터 현재의 마을어장은 공동체에서만 면허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08년 어업법 제정 이후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어장의 면허를 등록·관리하기 위해 漁場圖와 漁具圖를 작성하도록 관보를 통해 예시하였다. 면허를 등록하고 어장도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마을 간의 지선 경계가 명확해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강점기 때 마을간 지선구분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구술들을 곳곳에서 들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흑산도의 사례를 통해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909년 <관보>에 예시된 어장도



어업면허지령 및 어장도(1932년) - 부산

흑산군도에서는 마을어장을 뚝이라고 한다. 모든 마을마다 최소 1개 이상의 뚝이 존재하여 해조류 및 패류 채취와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관리한다. 뚝은 마을이 점유하고 있는 해안가 지선을 분할 관리하는 조직이면서, 각각의 지선 구간을 지시하는 명칭이기도 하다. 뚝의 형태는 이름을 달리하여 전국적으로 존재하는데, 진도에서는 재건, 완도에서는 주비, 동해안에서는 짚이라고 한다.

가거도의 경우 1구 대리마을은 서구뚝과 동구뚝이 있었고, 2구와 3구는 1개의 뚝이 있었다. 만재도의 경우 마을지선을 4개로 구분하여 갑뚝과 을뚝에서 각각 2개 구간을 담당하였다.²⁰⁾ 흑산도 진리마을은 상동·중동·양동·청동의 4개 뚝, 비리마을의 경우 상리·중리·하리 3개뚝, 사리마을은 동리·서리·남리·북리 4개 뚝이 있었다. 홍도의 경우 2개 마을 모두 3개의 뚝으로 구획되어 있고, 1구의 경우 남미·북미·중미뚝이 존재한다.

18) 한규설, 『한국어업제도 변천의 100년』, 선학사, 2001, 97쪽.

19) 송경은, 「한국에서의 근대적 어업권 형성과 법제화」, 서울대 박사논문, 2013, 135~1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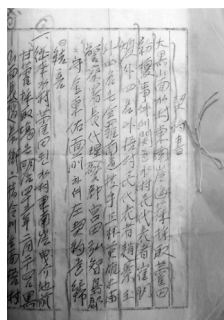
20) 이유리, 「가거도와 만재도의 갯벌공동체와 무례군 연구」, 『남도민속연구』 26, 남도민속학회, 2013.

가) 한일합방 이후에 흑산면에서 지정할 때는 다물도 것도 아니고 수리 것도 아니고 오리 것도 아니었어. 엄청 해먹었어. 진리사람이 수리 와서도 해먹고 수리 사람이 진리 가서도 해먹고. 해 먹고 싶으면 미역이면 미역 마음껏 해먹었지. 해양의 지기가 갈라지지 않았었어. 그때는 지선이 라는 것이 없으니 타지 사람이 마음대로 와서 뜯어먹었지. (지선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우리 아버지 때 갈라졌네. 일제압박 이후에 사동경쟁이 있었어.²¹⁾

나) 1930년대로 봐야 합니다. 저도 압니다마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깐. 그 할아버님이 이장을 했어요. 이장을 했는데 2구에 자기 (둘째)마누라가 계셨어. 거기서 “자, 경계를 가르자.” 2구 사람들이. 1구 사람들이 많이 한께 경계를 가르자 하니깐 “그라자.” 그래갖고는 (2구의 둘째 부인이) 술을 내갔고 보냈어. 몇 월 며칠날 인자 그 그렇게 했는데, 그 양반이 술이 많이 취했으니깐 그렇게 전하니깐 노를 젓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2구 사람들은 노를 저어갖고 갈림길이라고 슬픈여 있죠. 거기까지 그 먼 거리를 와버렸어 그 사람들은. 술을 취해갖고 거기까지 가갖고 앞 딱 닿은 데가 갈림. 그래서 갈림이 돼분 것이여.²²⁾

대둔도 수리에서는 1910년 한일병합 이전에는 섬의 지선이 구분되지 않아서 누구나 채취할 수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부터 마을의 지선이 구획되었다고 한다. 당시 대둔도와 다물도에 속해있는 수리, 오리, 다촌리, 도목리 4개 마을이 지선을 구분하면서 분쟁을 하는 ‘사동(四洞) 경쟁’을 하였고, 그 결과 지금의 지선이 확정된 것이라고 한다.

홍도에서는 1930년대 1구와 2구가 지선경계를 획정하였는데, 두 마을의 이장이 자기 마을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만나게 되면 그 지점에서 경계를 나누었다고 한다. 지선 경계의 결과에 대해 홍도 1구 사람들은 마을 규모에 비해 적다고 생각하고 있다.



1912년 대둔도 수리와 오리의 지선확정 관련 ‘계약서’

이들 자료를 통해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흑산군도 일대의 마을 공동어장 지선이 구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마을과 마을간의 지선 경계뿐만 아니라 마을 내의 뜰별 지선도 구획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마을어장의 해조류는 수익을 창출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마을간의 지선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은 쉽게 수

21) 전재경, 『어촌사회의 법의식』, 한국법제연구원, 1998, 131쪽.

22) 2014년 10월 홍도 1구 현지조사.

공되지 않지만, 각각의 섬마다 비슷한 언급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흑산면 대둔도 수리 김정옥 씨 문중에는 마을어장의 지선 구획 및 분쟁과 관련된 문서들이 전한다. 사진의 문서는 대둔도 수리마을 동남쪽 지선에 대한 경계확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종래 수리마을 지선이었던 곳을 1910년(명치 43년) 흑산면장의 지시로 오리마을로 이관시켰으나, 다시 1912년(명치 45년)에 수리마을로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흑산면장의 지령’에 의해 지선이 변경되었던 점이다. 이와 관련해 문서 소장자 김정옥 씨는 일제강점기 때의 사동경쟁이라고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한다. 물론 제보자가 부친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당시 대둔도의 수리, 오리, 도목리와 다물도 다촌리 4개 마을이 지선을 확정하면서 여러차례 논쟁과 분쟁이 있었다고 한다. 즉, 위의 문서는 「어업법」과 「어업령」이 제정된 후 마을 어장의 지선을 확정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흑산군도의 마을어장과 뚝은 「어업법」과 「어업령」의 제정 이후 확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근대적 어업권의 형성되면서 마을의 지선어장이 공동체에 의해 점유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을어장의 구역으로서 뚝의 존재가 기존부터 있었겠지만, 일제강점기 어업법의 적용 이후 그 경계가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뚝과 같은 형태가 존재하고, 지역마다 그 이름이 다른 것을 감안하면, 기존에 느슨하게나마 유지되던 뚝이 어업관련 법령의 제정과 함께 명확하게 구획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4. 마을어장 공유의 공식화와 전통적 운영의 지속

1) 어촌계의 등장과 마을어장의 공식적 공유

마을어장의 소유관계는 1953년 제정된 수산업법이 1963년 3차 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총유화 된다. 광암이 분포한 지선의 일정 어업구역은 수산업법상 제1종 공동어업구역(현재 마을어업구역, 마을어장)의 대상이 되면서 지선어민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간으로 확정된 것이다.²³⁾ 제1종 공동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정착성 수산물을 채포하는 어업”으로 규정된다. 이 규정을 통해 마을어장에 해당하는 모든 어로활동이 공동어업의 대상이 되었고, 당시 사유 관계에 있었던 광전이나 광암 등은 지선어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총유의 공간이 되었다. 이와 함께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고 어촌계가 법적 조직으로 설립되면서, 어촌계 중심의 마을어장 관리가 공식화 되었다.²⁴⁾

전국적으로 어촌계가 설립되어 마을어장을 관리하게 되면서 공유와 사유의 문제는 이중적인 소유구조를 인정하거나 어촌계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일단락되었다. 동해 남부의 경우

23) 제1종 공동어업은 1995년 수산업법 개정에 의해 마을어업으로 변경된다.

24) 1962년 제정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3항에 “③전항의 지구별어업협동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소를 둘 수 있고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다.

곽주(藋主)와 비곽주(非藋主) 간에 첨예한 대립을 발생시켰지만,²⁵⁾ 자연산 미역의 경제적 효용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레 이중적인 소유구조를 용인하게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어촌계가 관리하는 마을어장이지만, 미역에 한정하여 곽주의 채취권을 인정하고, 그 외의 전복·소라·성게 등등의 생산물은 어촌계에서 관할하는 것이다. 남해안의 갯벌지역에서도 사유화 된 갯밭을 대체로 용인하면서 마을이나 어촌계 단위의 갯밭을 개척하여 운영하고 있다. 남해안의 보성, 고흥, 여수, 통영 일대에서는 갯벌에 담을 쌓거나 나뭇가지 등으로 표식을 하여 여전히 개인밭을 용인하고 있다. 어촌계의 성립 이전부터 개인밭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이용형태를 용인하고, 어촌계는 기존에 활용하지 않던 지역을 어장으로 개척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1960년대 어촌계의 성립 이후 지선 마을어장은 어촌계를 통해 공식적인 면허를 취득하고 운영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소유형태를 용인하는 선에서 어촌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2) 전통적 채취조직의 지속

어촌의 공식조직으로 어촌계가 설립되었지만, 마을어장의 전통적 조직인 째, 뚝, 반, 주비 등등은 지속되고 있다. 대개 전통적 조직은 마을 앞 지선어장을 공유하고 관리해왔기 때문에 어촌계에 소속되기보다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몇몇 사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동해안 경북 울진 거일리의 경우 해안가 곽암을 째으로 구분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역철에 해녀들을 고용하여 째 단위로 미역을 채취하고, 째에 속한 집들은 각 호마다 1명씩 나와서 미역을 분배받는다. 마을에 어촌계가 있지만 째은 어촌계와 별도로 운영되고, 어촌계도 관할하지 않는다.²⁶⁾ 서남해 흑산군도 일대도 마찬가지다. 마을의 지선을 뚝으로 구분하여 미역과 톳을 채취하는데, 어촌계와 상관없이 뚝 조직 별로 채취하고 관리한다.²⁷⁾ 마을에 해녀들도 뚝의 구성원으로서 일반 주민들과 함께 미역·톳 채취에 함께하고 동일하게 분배받는다.

갯벌지역에서도 어촌계가 아닌 전통적 마을공동체에서 갯밭을 관리·운영하는 곳이 많다. 예를 들어 남해군 금송리에서는 해안가 갯벌의 굴양식장을 마을에서 공동관리한다. 어촌계는 정치망 어업 등을 관리하고, 갯벌의 굴밭은 마을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마을에서 굴 채취하는 날짜를 정하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채취하고, 수익의 1/3을 마을기금으로 적립한다.²⁸⁾ 전남 완도군 대야리의 경우 마을의 갯밭을 바지락양식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통적으로 공유하던 마을어장은 마을에서 운영하고, 어촌계와 부녀회 등에서는 새로운 갯벌 개척하여 바지락을 양식한다.

이렇듯 어촌계가 설립되었음에도 기존의 전통적 조직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

25) 전재경·이종길, 『어촌사회의 법률관계』, 한국법제연구원, 1997.

26) 2013년 12월 경북 울진 거일1일 현지조사.

27) 2014년 흑산도·홍도 현지조사.

28) 2015년 남해군 금송리 현지조사.

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어촌계는 전문적인 어민조직으로서 바다를 적극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점에서 어촌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와 어촌계는 구성원이 비슷한 점에서 유사하지만 동일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업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어촌계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어촌계의 소득이 마을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의 전통적인 소유공간을 굳이 어촌계로 이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3) 세분화된 어장의 통폐합

어로기술과 양식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마을어장은 어촌공동체를 유지하는 기초적인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20세기 중반까지 마을어장에서 채취하는 자연산 해산물이 가계소득의 한 몫을 차지했으나, 양식해산물이 등장하고 어촌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마을어장의 경제성이 하락한 것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마을 내 어장 운영이 통폐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해안의 울진 거일2리의 경우 마을어장을 쇠다치암, 마다치암, 흑암, 마개현, 함암, 가지바우, 사포암, 썩은바우 등 8개 째름으로 구획하여 운영하였으나, 20세기 후반에는 통합하여 다치암, 흑암, 함암, 사포함 등 4개의 째름으로 재편하였고, 현재는 다치암, 흑암 2개의 째름으로 통폐합하였다.²⁹⁾ 완도 생일도 서성리에서는 마을어장을 동주비·중주비·서주비 등 3개로 구획하여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주비를 운영하지 않고 자유롭게 채취하고 있다. 보성 벌교읍 대포리에서는 꼬막밭을 ‘개인양식 -> 44인조 -> 7개반 -> 마을 공동양식’으로 구획을 재편해 운영하고 있다.

대개 마을어장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마을어장의 구역을 촘촘하게 세분화하여 관리·운영하였으나, 점차 마을 전체에서 하나의 어장으로 통폐합하여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마을어장이 개인 가계의 소득창출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현재의 마을어장은 어촌공동체의 유대와 결속을 위한 장치로 의미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마을어장의 운영에서 노동 주체와 소득 주체의 분리, 어장의 빈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마을어장의 소득으로 별신굿이나 마을행사 비용을 충당하고, 마을과 어촌계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점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능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마을어장 성립과 운영에서 일제강점기 어업법·어업령의 시행과 1960년대 어촌계의 성립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어업법과 어업령의 시행 후 마을 간 어장의 경계가 확고해지고, 1960년대 어촌계가 성립되면서 지선어장인 마을어장은 공식적으로 공유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어촌의 전통적인 채취조직과 공유·분배 관념은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에 대해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9) 2013년 울진 거일마을 현지조사.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서해의 어업 전진 기지 어청도

이 재 언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섬의 개괄 및 유래

어청도는 내륙인 군산항에서 뱃길로 72km, 중국 산둥반도와는 300km 떨어진 섬으로 서해 중부 해역의 서쪽으로 가장 먼 거리에 있다. 섬 면적은 1.8km², 해안선 길이는 10.8km. 주봉인 당산(198m) 정상에는 왜구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봉수대가 있다. 어청도는 서해의 어업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인 등대와 해군기지가 있어 군사적 요충지로도 꼽힌다. 어청도는 서해 영해기선 기점에 위치한 섬으로, 영해기선은 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해가 시작되는 선을 말한다. 어청도 지명유래를 보면 어청도(於靑島). 어조사 ‘어(於)’ 감탄으로 시작되는 푸른 섬이 바로 어청도다. 직역하면 ‘아, 청도여!’ 쯤 될 듯싶다. ‘청도’라는 지명은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다. 물론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물이 거울과도 같이 맑다 하여 ‘어청도’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어청도는 ‘맑을 청’(淸)이 아니라 ‘푸를 청’(靑)이다. 중국인들이 어청도를 지나가다가 푸른 섬에 감탄하면서 붙였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이 전설의 주인공이 바로 전횡 장군이다. 120가구 4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한달에 2~3차례 정도 풍량이 심하게 불면 근해에서 조업하던 어선들이 모여들어 항구가 북적거린다.

일본인들의 전략적 요충지 어청도

풍선이 다니던 당시에 군산에서 뚝단배는 20시간이 정도 걸렸는데 어청도에 일본인들이 일찌기 눈독을 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어청도는 고기들의 밭으로 일본인들이 들어와 거문도나 나로도처럼 항구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곳은 100여 년 전 일본의 대륙 침략 교두보였던 것이다. 실제 어청도에는 19세기말부터 이미 일본인들이 살았다. 어청도는 1885년경에는 일본의 잠수부들이 고래를 잡기 위해 기항을 하였다. 또한 1898년에는 인천에 살던 일본인이 20호의 이주촌을 만들었다고 한다. 1907년, 어청도에만 40여 호 200여 명의 일본인들이 정착해 살았다. 현재도 일본식 가옥이 몇 채 남아 있어 일본인의 거주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일인들은 이곳에 1903년 일본우편 수취소가 설치 개설했고, 소학교가 된 심상소학교(1909년)는 일본인 어민 자녀들을 위하여 설립했다. 어업조합(1917년)이 서해안 전 지역에서 두세 번째로 건설됐다. 1912년 세워진 유인 등대도 인천 팔미도 등대에 이어 두 번째로 서해안에 불을 밝힐 정도로 일본인들이 공을 들인 섬이 어청도이다. 어청도에는 구한말에서 해방이 될 때까지 일본 청주를 제조하는 술도가와 일본식으로 만든 유곽까지 있었다고 한다. 어항 개발과 등대를 설치하며 이 멀고도 먼 어청도에 공을 드린 이유는 해산물 수탈과 아울러 일본이 한반도를 거쳐 대륙을 진출하고자 야욕 드러낸 곳이 곧 어청도라고 할 수 있다.

행정 구역 변경의 아픔

어청도는 조선왕조 말엽 충남 보령군 오천면에 속해 있었으나 1914년, 일제하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도, 개야도, 죽도와 함께 전북 군산에 편입된 섬이다.

이 섬들은 비록 군산시에 속해있으나 군산의 섬들보다는 충남 보령의 외연도, 호도, 녹도 등과 가깝다. 그 당시는 지식이 부족하고 뭐가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하면 보령시는 땅을 칠 일이었다. 어청도는 충남 보령시 외연도와 15km 떨어진 곳인데 이미 옛일이 되어 버린 일이지만 보령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그 유명한 황금 어장터가 고스란히 전북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1992년 당시만 해도 두 개의 낙도 보조항로선인 여객선 두 대 중 하나는 군산항을 출항하여 어청도를 거쳐 충남의 외연도, 녹도, 호도에 닿은 후 보령 대천항으로 갔고, 다른 하나는 대천항에서 출항하여 호도, 녹도, 외연도를 거쳐서 어청도에서 군산으로 들어가곤 했다. 낙도 보조항로선인 두 대의 여객선이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하게 전북과 충남을 오고 간 것은 아마도 어청도가 충남에 소속된 섬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군산보다 더 가까운 대천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금은 이 항로가 폐쇄되어 더 이상 다니지 않지만 어청도 사람들에게는 추

억의 향로일 것이다. 전북의 어청도와 충남의 외연도 등 이웃 섬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다. 행정구역이 충남에서 전북으로 바뀌면서 오랫동안 다니던 뱃길도 끊어졌다.

어청도의 최 전성기

예전에는 작고 먼 외딴 섬이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방과 식당. 다방은 간판만 다방이었지 술도 팔고 몸도 파는 유곽이었다고 한다. 아가씨들이 많을 때는 100여 명에 이른 적도 있었다. 1986년 고래잡이가 금지 될 때까지 고래를 해체하여 일본으로 수출했다. 1898년에는 인천에 살던 일본인이 20호의 이주촌을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도 일제시대에 지은 목조 건물이 눈에 띄고 골목길을 가다 보면 일본식 건물의 냄새가 많이 풍긴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섬 주변에서 넘쳐나는 고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쉬울 것이 없는 좋은 시절을 보냈다. 그때만 해도 경남의 장승포 포경선들이 10여 척씩 선단을 이루어 동지나 먼 바다로 나가서 고래를 잡았다고 한다. 일제 때부터 고래잡이의 메카였던 어청도는 동해의 고래가 봄이 되면 새끼를 낳기 위해 어청도 근해로 올라 왔다. 서해의 어청도는 동해의 장승포와 함께 오랫동안 포경선의 전진 기지로 활동했다. 어청도 포구에는 고래잡이배와 트롤선(저인망 어선), 기선 저인망(일명 고대구리) 어선들이 만선을 이루었다. 1960-1970년대 포경선의 집결지로 뜨면서 여느 섬보다 활기찼던 어청도는 1986년도에 포경사업이 금지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고래잡이가 법으로 금지된 뒤에도 포구는 한참 더 호황을 누리다가 10년 쯤 전부터 포구는 급격히 하락했다. 저인망 어선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고 얼마 뒤에는 완전히 금지시킨 뒤였다. 그래도 어청도는 서해 어업 전진기지로 국가 1급 대피항이다. 1달이면 2-3번 고기가 많이 잡았거나 배와 그물 수리 등 풍량이 거세지면 배들이 몰려왔다. 한동안 200여명 정도 되는 술집 아가씨들이 흥청거렸다. 작은 어선을 타고 풍량과 싸우면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어부들이 가장 그리워 한 것은 김치와 여자와 술이었다. 최고로 많을 때는 1,000명 정도의 어부가 5-10만원을 들고 하루 밤을 보내도 하루에 5천만원-1억을 소비한다. 그러던 중에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섬의 영화는 끝나고 술집과 아가씨들은 모두 섬을 떠났다. 아직도 내리지 간판들은 다방(실제로는 술집), 양품점 ‘핑크 하우스’에서는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들만을 상대로 해서 숙녀복과 란제리와 악세사리 상품들이 옛이야기를 말한다. 지금은 슈퍼와 식당은 몇 개만 남고 대부분 폐업했다. 한때 다방도 10여 개나 되었는데 모두 사라졌다.

마을 한 가운데 있는 치동묘

어청도의 지명과 사람이 살게 된 연유도 중국의 한 영웅의 전설적인 이야기로 채색되어 있다. 그 인물이 바로 ‘전횡 장군’이다. 해양경찰 바로 앞 ‘이일병’이라는 문패가 달린 집 옆

으로 골목길이 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사당이 나타난다. 바로 ‘치동묘(淄東廟)’다. 전횡 장군의 사당으로 한때 화려했던 영광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정문이 활짝 열려있고 정문 옆에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정문을 통과하면 박석을 깬 통로가 있다. 마당에는 잡풀이 어른 키를 넘었다. 문짝은 떨어지고 그림들은 훼손되었어도 팔각 기와지붕에 9개의 사각기둥이 떠받히고 있으며 처마에는 13개의 사각기둥이 세워져 있다. 내부에는 전횡 장군 영정이 있다. 그러나 사당은 폐가에 다름없었다. 사당의 내부는 신의 흔적도 사람의 흔적도 느낄 수 없다. 안내문에 의하면 이곳은 담양 전씨 문중에서는 방치하는 입장이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치동원’이라는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전횡 장군은 어청도 지명유래와 연관이 있는 인물이다. 어청도(於靑島). 어조사 ‘어(於)’ 감탄으로 시작되는 푸른 섬이 바로 어청도다. 직역하면 ‘아, 청도여!’ 쯤 될 듯싶다. ‘청도’라는 지명은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다. 물론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물이 거울과도 같이 맑다 하여 ‘어청도’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어청도는 ‘맑을 청’(淸)이 아니라 ‘푸를 청’(靑)이다. 중국인들이 어청도를 지나가다가 푸른 섬에 감탄하면서 붙였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이 전설의 주인공이 바로 전횡 장군이다. BC 202년경 고대 중국의 초한시대에 초나라 패왕 항우의 부하 장수인 전횡. 치열한 전쟁 끝에 패왕이 오강정에서 자결하자, 전횡은 부하 500여 명을 거느린 선단을 이끌고 우리나라의 서해를 향해 무작정 항해를 했다. 중국을 떠난 지 3개월이 될 즈음에 한 섬을 발견했다. 그날은 쾌청한 날씨였으나 바다 위에 안개가 끼어있었는데 갑자기 푸른 산 하나가 우뚝 나타났다고 한다. 섬을 발견한 전횡 일행은 모두 기뻐 함성을 질렀다. 석 달 동안이나 흔들리는 배위에서 땅을 밟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전횡은 이곳에 배를 멈추도록 명령하고 푸른 청(靑)자를 따서 ‘어청도(於靑島)’라 이름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섬에 내려 바다를 보는 순간 모두들 감탄하면서, 아! 푸르다, 라고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와 섬의 이름으로 감탄사 ‘어(於)’와 푸를 ‘청’(靑)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횡은 곧 죽고 말았지만 그 후부터 부하들이 살게 되었다고 전한다.

어청도와 봉수대

어청도(於靑島) 등대를 돌아보고 정자 전망대에서 능선을 오른다. 산길은 오르막 길로 자못 숨이 가쁘지만 198m 서방산(당산) 가는 길은 온통 풀이 덮여 만만치 않은 길이다. 어청도의 주봉인 서방산 꼭대기에 봉수대가 서 있다. 원추형으로 된 2층 석축이다. 일찌기 조선 시대 고려 의종 3년(1148년)에 처음 축조돼 왜구들의 침략을 감시했다. 그러나 17세기인 1677년 숙종3년 때에 봉수대는 폐지되어 그 흔적만이 남아있다. 어청도 봉수대와 함께 외연도와 녹도 봉수대와 함께 사라졌다. 어청도 봉수대는 우리나라 중부 서해안 지역에서 육지와 가장 멀리 떨어진 봉수대이다. 이 이 봉화 신호를 비교적 육지와 가까운 외연도 봉수대와 그 다음은 녹도봉수대로, 원산도 봉수대, 오천면 수영 망해정에서 충청수연에 보고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어청도 봉수대는 조선전기에는 왜적을 감시하고 조선 후기에는

자주 출몰했던 이양선에 대응과 함께 중국을 경계 역할을 한 충청수연의 권설봉수였다. 이런 중요한 봉수대가 1677년 폐지는 섬을 포기했다는 말인가,

섬을 떠나면서

어청도의 산과 바다와 봉수대는 자연 그대로만 있어도 아름답지만 오랜 역사와 문화가 함께 깃들여 어울려져 있을 때 더욱 향기가 나고 그 의미가 수 백 배의 값어치를 선사한다. 어청도는 다른 섬에 비교하면 좀 특별한 섬이며 역사적인 현장이 많은 곳이다. 어청도는 고기구덕이며 낚시 천국의 섬으로 새들의 낙원이다. 유인 등대와 해군부대, 어업전진기지, 영해깃점, 봉수대, 고래잡이, 전횡의 치동묘, 일본의 전략적 경유지, 행정구역의 아픔 등 다른 섬에서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된 원인은 서해 중부 해상의 맨 끝에 있는 섬으로 U자처럼 움푹 들어간 천연 양항이 있기 때문이다. 가거도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지 않고 개발하여 항만으로 쓰기에 최적이다. 어청도는 신의 축복을 많이 받은 섬중에 하나였다.

내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어청도가 고향처럼 친숙한 곳이다. 매일 듣던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일기예보에 단골로 등장하는 서해 먼 바다 지역이라서 잊지 못하는 섬이다. 어청도는 다른 섬에 비해 없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시설이 골고루 잘 갖추어져 있다. 짜장면집, 다방, 노래방, 철공소, 약국, 술집, 슈퍼 등등 다소 이질감이 들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아마도 이런 가게들은 수많은 뱃사람들과 200여 명의 해군들을 위해 생긴 것이다. 이제 이 섬이 살길은 다시 한번 한 번 과거와 똑같은 황금 어장의 시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갈수록 멀어만 간다. 아직 이곳은 문명의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한 자연과 역사의 현장, 먹거리와 낚시터가 있다. 섬의 내항의 해안에는 산책로가 설치되었다. 이어서 어청도 전체를 탐방할 수 있는 둘레길이 완성되면 멋진 관광지로 어청도의 품격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등대에 숙소와 마을에 숙박 인프라를 구축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청도를 찾을 것이다. 어청도는 아직도 역사와 문화와 자연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바다요 땅이었다. 아픈 역사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번 어청도 탐험을 계기로 오늘의 내가 있게 해 준 나라와 우리 조상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본받아 섬을 더욱 알리는 섬 전도사가 될 것을 약속하면서 어청도를 떠난다.

■ 어청도 개요

어청도는 전라북도 군산시 고군산군도에 딸린 섬으로 동경 126°17', 북위 26°21'에 위치하며 면적 2.07km², 해안선 길이 10.8km, 1970년대의 인구는 1,000명에 이르렀으나 2016년 말에는 120가구 400여명에 불과하다. 서해 최남단의 어업전진기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 지명유래

물이 거울과도 같이 맑다 하여 ‘어청도’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자의 맑을 청(淸)이 아닌 푸를 청(靑)자를 쓰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BC 202년경 중국의 한고조가 초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한 후 패왕 항우가 자결하자 재상 전횡이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망명길에 올라 돛단배를 이용하여 서해를 목적지 없이 떠다니던 중 중국을 떠난 지 3개월만에 이 섬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그날은 쾌청한 날씨였으나 바다 위에 안개가 끼어 있었는데 갑자기 푸른 산 하나가 우뚝 나타났다고 한다. 전횡은 이곳에 배를 멈추도록 명령하고 푸른 청(靑)자를 따서 어청도(於靑島)라 이름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 어청도 가는 길

군산 여객선터미널에서 어청도행 선편 이용한다. 평일 1회, 주말 2회
 평일 09:00 주말 07:30, 13:30

오징어의 모든 것: 오징어를 소재로 한 푸드아트테라피

이 정 연 ■ 목포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오징어는 한국인에게 영양학적으로도 효능이 많고 심리적으로도 친근한 식품이다. 오징어는 몸통의 색이 잘 변하고 성질이 급하며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고 한다. 오징어는 두뇌도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오징어는 식품으로는 인기가 있으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비하적인 표현으로 많이 인용된다. “오징어나 꼴뚜기나 그게 그거.”라는 표현도 그렇고, 흔히 못생긴 외모를 비하할 때도 “오징어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오징어를 친근하게 생각하지만, 오징어가 금기 음식으로 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 오징어에 관한 역사문화적인 자료들도 많이 발견되는 데,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고, 집단활동 아이템을 개발하고, 테라피에 이르는 힐링 코스로 개발한다면 더없이 좋은 문화콘텐츠가 구성되리라고 본다.

2. 오징어의 유래

옛 문헌에 따르면 오징어는 우리말로 오중어, 오증어, 오적어, 오적이, 오직어 등으로 불렸으며, 한자어로는 오적어(烏賊魚)가 표준이었다. <자산어보>에는 “남월지(南越志)에서 이르기를 그 성질이 까마귀를 즐겨 먹어서, 매일 물 위에 떠 있다가 날아가던 까마귀가 이것을 보고 죽은 줄 알고 쪼면 곧 그 까마귀를 감아 잡아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 먹으므로 오적이라 이름지었는데, 까마귀를 해치는 도적이라는 뜻이다 라고 하였다.”라는 글이 있어(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오징어의 유래를 알 수 있다.

《동의보감》의 탕액편에 “오징어뽕은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맛이 짜며 독이 없다. 부인이 하혈을 조금씩 하는 것(漏血), 귀머거리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것(熱淚)과 혈붕(血崩)을 치료하고, 충심통(蟲心痛)을 멎게 한다.”고 적혀있으며, “오징어 살은 성질이 평(平)하고 맛이 시다. 주로 기를 보하고(益氣), 의지를 강하게 하며(強志), 월경(月經)을 통하게 한다. 오랫동안 먹으면 정(精)을 많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한다.”고 한다.

3. 오징어의 효능

한국 사람이면 싫어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친근한 오징어는 반찬으로 식탁에 오르고, 쫄깃한 식감의 마른 오징어는 술안주나 간식거리로도 인기가 있다. 오징어에는 비타민E, 타우린, 아연, DHA, EPA 등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학습 및 기억능력을 향상시켜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고 치매를 예방해주며, 동맥경화 개선 및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심혈관질환 등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하여 성장기 아동이나 청소년에서부터 성인,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피로회복과 자양강장의 효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위점막을 보호하는 성분도 있어 위궤양, 위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또한 저칼로리, 저지방, 고단백질로 구성되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오징어에 있는 먹물은 핵산이 있어 항균,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노화방지에도 좋다고 알려져, 최근에는 먹물을 이용한 스파게티, 파스타, 리조또, 치아바타 등 다양한 레시피가 개발되고 있다.

오징어는 생물뿐 아니라, 건조, 반건조, 선동, 냉동 등 다양한 저장방법으로 제공되며, 오징어채로도 가공되어 활용도가 높다. 오징어는 특유의 풍미가 뛰어나, 오징어튀김이나 오징어볶음, 오징어초무침, 오징어회, 오징어불고기, 오징어뽕국 등으로 손쉽게 조리가능하면 서도 맛이 뛰어나다. 조선시대에도 오징어가 순대로 조리되는 기록이 보이기도 한다. 발효 음식인 오징어젓갈도 최근에는 저염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100g당 단백질 함량에 19.5g으로 소고기와 비교해 3배가 넘는 함유량을 가지고 있어 우수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오징어는 많이 섭취하는 경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데,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높은 편이므로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이 있거나 고혈압 환자의 경우는 과식

하지 않도록 하고, 마른 오징어는 100g당 350Kcal의 높은 열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만인 경우 주의하는 것이 좋다. 오징어는 강한 산성 식품이므로 알칼리성 채소와 곁들여 먹는 것이 좋고, 위산과다증이 있거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소화불량 등을 앓고 있으며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4. 오징어의 역사문화적인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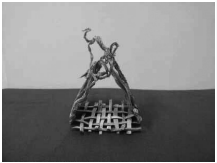




한국의 민속 신앙은 기복신앙으로서, 행운을 부르고 액을 물리치는 주술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오징어도 그러한 주술적 의미를 담고 혼인의례에 활용되고 있다. 흔히 함진아비가 얼굴에 숯검정을 하고 오징어가면을 쓰고 신부댁에 행차하게 된다. 오징어가면은 사악한 귀신을 쫓는 벽사(辟邪)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행운을 부르는 의미로 오징어가 등장하기도 한다. 결혼식에 사용하는 폐백닭은 닭의 다산성을 이어받아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미와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결혼이라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됨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전라도나 경상도의 해안지방에서는 지역 특산물인 오징어를 오려서 치장하는 오징어닭 폐백이 발달하였다고 한다.

오징어와 관련된 문헌을 찾아보면, <다산시문집>에는 다산 정약용이 자신을 백로로 비유하고, 먹물로 적을 속이는 오징어를 비하하는 표현이 나온다. 오징어 먹물을 오적묵(烏賊墨)이라 하는데, <자산어보>에서는 “말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오징어 먹물 글씨를 바닷물에 넣으면 다시 먹의 흔적이 되살아난다.”고 하였고, <지봉유설>에서는 “사람을 간사하게 속이는 자가 오징어 먹물을 쓴다.”고 하였다. <인조실록>에는 오징어가 임금에게 진상하는 품목으로 기록되어 있고, 1478년(성종 9년)에는 마른 전복, 마른 문어 등과 함께 중국 황제가 요구하는 진상품 명목에 들어있을 만큼 예전부터 하여 사랑을 받았던 먹거리였음을 알 수 있다(<http://leekihwan.khan.kr/618>).

5. FAT정서조절프로그램: 오징어로 만들어요

이정연(2015)은 해산물을 활용하여 FAT정서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다. 본 고에서는 오징어를 테마로 하여 보다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고자 한다. FAT정서조절 프로그램은 맞이하기, 마음결고르기, 감정표현하기, 재구성하기, 설치작품, 그리고 푸드코디 등으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프로그램 진행은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소요된다.

[표1] 오징어로 만들어요

맛이하기		마음결고르기	
			
오징어의 효능		오징어 넝기	
감정표현하기		재구성하기	
			
오징어찢기 / 오징어가면놀이 / 오징어구이패러디		오징어램프	
설치작품		푸드코디	
			
오징어텐트	오징어테이블	오징어미니리강회	오징어주먹밥
			
오징어꽃	소풍가는 날	오징어꾸러미	먹물치아바타

6. 푸드아트테라피를 적용한 개인상담 사례

본 사례의 내담자A는 56세의 기혼 여성으로서,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되어, 이제 자신의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와 내담자는 현재의 욕구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을 상담목표를 정하였다. 본 상담은 집단상담을 거친 다음에 진행된 것으로 2회기에 속한다.

내담자는 상담자가 차려놓은 맞이하기 테이블(<그림1>)을 보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면서, 아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외롭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며, 집단상담에서 사람들에게 시집가고 싶다는 속마음을 털어놓기만 해도 즐겁게 웃고 좋았다고 한다.

A: 남편이 죽은 후,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기도 했고, 내가 원래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 누구에게 잘 다가가지도 않아요. 나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 내가 도움받으려고는 하지 않은 거 같아요.

상: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생기셨네요.

A: 말할 상대라도 있으면 해요. 그런데 두려워요.

상: 두려우면서도 예전처럼 살 수는 없는 단계에 들어선 건가요.

A: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안전하게 공주처럼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겪었어요.

상: 인생의 굴곡을 거쳐왔는데 비교해본다면 지금 상태는 그 중 어느 정도인가요?

A: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남편과의 사별, 이런 일들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3자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정말 나로 인한 거라 힘들어요.

상: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신 거네요.

A: 예, 사랑을 받기만 해서 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는 내가 사랑을 해보고 싶어요.----그 전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정조를 지킨다고 할까. 아들에게 죄책감도 들고.

상담자는 내담자와 진솔하게 대화의 장을 풀어가면서, 현재의 상태를 작품으로 구성해보도록 하였다. 내담자는 천천히 차분하게 10분에 걸쳐 작품을 완성해갔다(<그림 2>).

A: 이건 뗏목이구요. 흔들리는 현재의 마음이에요.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 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이건 조각배입니다. 굳건하게 나를 지키는 조각배. 그리고 하늘엔 노을이 번지고 있어요.

상: 정말 선생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었네요. 흔들리는 마음과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 아까 말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작품에서는 다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싶은 의지가 보입니다.

A: 정말 그러네요.

상: 그러면서도 노을이 비친다고 표현한 건, 자신의 인생에서 해가 지는 걸 안타까워하는 심정

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복합적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었어요.

A: 내 마음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상: 작품의 포인트는 노을인 거 같아요. 자신을 다시 가두지 말고, 이러한 복합적인 상태를 다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게 지금의 나야.” 하고. 숨기거나 억누르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수용해가며 자신을 정리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림1] 맞이하기 테이블



[그림2] 나의 마음

A는 자신이 직접 만든 작품에 대해 매우 흡족해하고, 현재의 상태가 작품 속에 그대로 드러난 것에 대해 신기해하고, 마음이 정리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번 회기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막연한 생각을 하기 이전에, 자신의 감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 의미있는 작업으로 여겨지며, 맞이하기, 받아들이기 등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한 후, 찾아들어가기 과정에서 상호협력적인 의미찾기를 해내면서, 내담자의 내면 탐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A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깊은 이해를 하는 과정을 통해, 이번 회기에서 오징어를 활용한 푸드아트테라피가 개인상담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7. 맺음말

본 고에서는 해양자원 중 오징어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보급하기 위한 시도로서, 본 연구자는 푸드아트테라피의 한 영역으로서 정서조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인상담을 진행하였다. 한국의 경우, 오징어의 포획량이 줄어들어 풍어제를 지내기도 하고, 오징어축제를 열어 울릉도뿐 아니라 동해안 지역의 관광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선호하는 오징어가 힐링상품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오징어박물관(예:일본의 토야마현 불동 오징어 박물관), 오징어 체험관 등이 설립되고, 해양박물관, 섬박물관 등에서도 사계절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한국익생약술연구회 엮음(2014). 한 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허준 지음. 글로북스.
- 이정연(2015). 아이와 함께 하는 바다사랑이야기. 민속원.
- 이정연(2015). 푸드아트테라피를 활용한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개발.
푸드아트테라피, 제4권 제1호, 1-2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38557>
<http://cafe.daum.net/sansamtkdgh/FZAP/3192?q=%BF%C0%C2%A1%BE%EE%20%C1%D6%BC%FA%C0%FB%20%C0%C7%B9%CC>.
- <http://www.hotaruikamuseum.com>
- <http://leekihwan.khan.kr/618>

동양 전통 氣味論에 기초한 해양식품의 食治 활용 연구

박 성 혜 ■ 광주여자대학교

I. 서 론

서양에서 발달되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서양의학 기반의 식이요법이라는 학문은 영양소의 가감이나 음식의 형태를 조절하여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질병치료를 위해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약을 처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치료법에 덧붙여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식이요법은 어디까지나 약이나 수술 등의 치료를 보조해주는 것이지 치료의 중심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동양에서는 음식으로 먼저 몸의 상태를 살펴서 먹는다는 것을 조절하여 큰 질병을 예방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질병 치료에 대한 개념이 서양과는 큰 차이가 있었던 점이다.

반면, 동양에서는 그들 삶속의 사상과 이론을 기반으로 그 원리를 食材이나 藥材에 적용하고 조화시켜 음식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치료식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여 왔다. 따라서 ‘藥食同源’, ‘醫食同源’이라 하여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고 생각하여 식품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음식으로 병을 치유한다는 개념을 식료(食療) 또는 식치(食治)라 하는데, 음식으로 건강 및 영양상태를 향상시키고 노화를 늦추어 장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도 음식을 활용하였다.

각 식품의 효능을 판단하고 배합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적합한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 연구분야를 약선식료학이라 하는데, 동양철학 및 의학사상의 기초 원리로 재료들의 氣, 味 및 歸經 등에 따라 재료가 가지고 있는 섭취효능 및 체내

작용을 판단하는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현대에서 서구의 식품영양학 잣대로 동양의 약선식료학을 판단하는 경향으로 식품의 효능과 활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일부 해양식품의 氣味論적 분석을 통해 섭취효능과 식생활에서의 올바른 활용방안을 제언하면서 향후 식품관련 종사자들이 식품의 개발에 있어 현재의 식품영양학적 이론은 물론 동양의 氣味論을 기반으로 하는 섭취효능에 관한 융·복합적인 개념을 함께 하여 다양한 식품이나 음식의 개발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II. 본 론

1. 氣味論의 원리와 의미

1) 식품의 氣

氣(또는 性)는 하늘에서 주어진 기운, 味는 땅에서 만들어진 기운으로,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융합되어 생성되고 태어나게 된다. 전통적·동양적 세계관에서는 우리 몸에서 영혼은 하늘에서 부여한 性으로 구성되어 있고, 육체는 땅에서 준 味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태초에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여러 물질들이 계속 교류하고 순환·변화하면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으며, 모든 물체는 하늘과 땅의 기운을 가지고 탄생한다고 본다. 하늘과 땅, 즉, 이 두 가지 기운이 생명체내에는 모두 존재하고 이 기운이 그 생명체의 특성이 되는 것이다. 하늘의 기운인 性은 4가지, 땅의 기운인 味는 5가지로 분류하여 그 효능을 판단하는데 이를 四氣五味라 한다. 사기란 사성(四性)라고도 하며 식재나 약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며, 기능을 총체적 개괄한 것으로 寒·涼·溫·熱의 네 가지로 나눈다. 熱은 부드럽게 하는 특징(軟), 溫은 흩어지게 하는 특징(散), 寒은 단단하게 하는 특징(堅), 涼은 거두어들이는 특징(收)을 가지고 있다. 寒과 涼, 溫과 熱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같은 효능 범위로 이해한다. 四氣는 陰陽이론에 근거하여 작용 특성으로 나눌 때 寒涼의 기운은 陰에, 溫熱의 기운은 陽으로 분류한다. 4가지 성질 외에도 특성상 寒涼과 溫熱의 두 종류에 뚜렷하게 치우쳐 있지 않은 특성을 가진 재료들은 성질이 평(平)하다고 한다. 그러나 평하다 해도 실제로는 아주 약간씩 寒涼과 溫熱로 치우쳐 있어 四氣라 한다. 이런 평성(平性) 재료로 구성된 음식은 性이 강하지 않은 것들로 성질이 온화하여 치료를 위한 약선보다는 건강증진이나 補養의 목적으로 많이 쓰인다. 따라서 건강 약선에 폭넓게 사용한다. 어떤 재료든지 하나의 氣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그 재료의 효능을 나타내는 기준 중의 하나인 것이다.

2) 식품의 味

食材나 藥材는 모두 五味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酸, 苦, 甘, 辛 및 鹹의 다섯 가지 맛을 말하며 미각으로 느껴지는 맛 뿐 아니라 임상에서 반영되어지는 효능에 근거해서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미각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비슷하지만 어떤 재료는 미각으로 느낄 수 없거나 미각과는 다른 味를 갖는 경우도 있다. 각 재료의 性은 꼭 하나지만 味는 하나 이상이 되기도 한다.

신맛은 섭취하면 가장 먼저 肝으로 들어가서 肝의 작용을 조절해주는 작용이 있는 맛이다. 肝은 흠어지려는 성질을 가지는데 신맛의 수산(收散), 속완(束緩)작용이 肝의 흠어지려는 기능이 너무 항진되는 것을 조절하여 肝의 기능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만약 신맛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肝氣가 모두 흠어져서 소진되므로, 신맛이 가장 먼저 肝에 가서 그 조절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수렴·수축작용이 있어 염한(斂汗), 염기(斂氣), 지사(止瀉), 섭정(攝精), 지혈(止血) 및 축뇨(縮尿) 등의 효능을 가져서 氣, 血 및 津液 등 체내의 물질들이 과도하게 유실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활용한다. 또한生津, 開胃 및 消食 작용이 있어 위 음부족(胃陰不足)으로 인한 구갈(口渴), 식소(食小) 및 진액(津液) 손상으로 인한 근무력증 및 굴신불리(屈伸不利)등의 증상에 사용한다. 쓴맛은 心의 작용을 조절해주므로 섭취하면 가장 먼저 心으로 들어간다. 위로 뻗어 오르려는 심장의 특성을 조절해 주므로 心기능을 원활히 해준다. 설강하는 작용으로 통설(通泄), 강설(降泄), 청설(淸泄) 및 조습(燥濕)작용으로 건위(健胃) 및 견음(堅陰)작용으로 陰을 보존할 수 있다. 따라서 통설작용으로 열결변비(熱結便秘)를, 강설작용으로 기역천해(氣逆喘咳)를, 청설작용으로 심번(心煩)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조 습작용이 있어 다양한 습증(濕證)에 사용하나 일반적으로 음진부족(陰津不足)에는 주의한다. 단맛은 우리가 섭취하면 脾로 들어가서 脾의 작용이 원활히 되도록 脾의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맛이다. 脾는 주변을 아우르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므로 특별히 脾의 특성을 억제할 味가 필요없다. 보익(補益), 화중(和中), 완급지통(緩急止痛) 및 윤조(潤燥)의 효능을 가진다. 단맛을 느낄 때는 구강의 근육이 이완되고 허기와 피로를 신속히 회복하게 해준다. 때문에 補하는 재료는 대개 단맛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허증(虛證), 완복(脛腹), 사지(四肢)의 통증, 조화제약(調和諸藥) 및 독성완화를 위해 사용한다. 또한 단맛은 자윤윤조(滋潤潤燥) 작용이 있어 윤폐(潤肺) 및 윤장(潤腸)에도 활용된다. 감미는 조습(助濕)하기 쉬우므로 비허습 체(脾虛濕滯)의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한다. 매운맛은 우리가 섭취하면 肺로 가장 먼저 들어 가서 肺의 작용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조절해서 肺가 그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맛으로 매운맛은 발산(發散)의 작용이 있어 거두어 들어서 아래로 내려 보내려는 특성을 가진 肺의 기능이 너무 소진되지 않도록 조절해준다. 발산작용으로 사기(邪氣)를 내보내는 효 능이 있어 외감표증(外感表證)에 사용할 수 있고, 행기(行氣) 및 활혈(活血)하므로 기체혈어(氣滯血瘀)에 사용하고 동맥의 확장이나 관상동맥 혈류를 증가하는 효과를 가진다. 신윤(辛潤) 및 발한(發汗)하므로 津液의 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신산조열(辛散燥熱)한

특성으로 인해 기음(氣陰)의 손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기허(氣虛) 및 표허다한(表虛多汗)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짠맛은腎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맛으로 섭취하면 가장 먼저 腎으로 들어가서 작용한다. 腎은 단단하게 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하는 연건(軟堅)의 작용이 있는 짠맛은 腎의 기능을 조절하여 신기능을 유지해준다. 연건작용이 있어 대변조결(大便燥結), 나력(癰癤) 및 담핵(痰核)에 사용하고, 윤조, 양혈 및 자음효능이 있어 肝腎의 정혈부족(肝腎精血不足)에 활용한다.

3) 식품의 歸經

氣味를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재료들은 歸經이라는 臟腑를 가진다. “귀(歸)”는 약물이 작용 하는 부위, “경(經)”은 인체의 장부경락을 의미한다. 歸經은 약재나 식재의 장부경락(臟腑經絡)에 대한 선택적 특이적 반응을 계통화하여 총결한 것이다. 약선의 재료가 어느 부위, 어느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범위를 분명히 하는 개념이다. 또한 천연 동·식물을 섭취하면 각 재료마다 주로 작용하는 장기가 다르다는 이론이다. 즉, 약재나 식재인 천연 동·식물이 사람의 몸에서 선택적인 작용을 대표하는 학설로서 약선을 활용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 각 재료는 하나의 歸經을 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歸經을 가지는 것도 있다. 약선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하는 장부를 살펴 재료들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해양식품의 섭취효능

대부분의 강, 바다에 서식하는 동식물류를 모두 수산물류라고 한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 수록된 수산물류에는 어류 및 패류가 속한다. 자주 먹는 어류에는 각종 어류 및 새우, 해삼, 게, 조개, 바지락, 대합 등이 있다. 이외에 바닷말, 김, 미역 등도 수산물류에속한다.

어육의 화학조성과 인체근육의 화학조성은 매우 흡사하다. 어육의 지방은 일반적으로 액체로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람의 혈청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 또한 수산물 중에는 요오드, 구리, 칼슘 및 각종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서 각종의 료보건작용을 가질 수 있다.

재료명	오징어		재료명	조기	
본초명	烏賊魚		본초명	石首魚	
氣	평		氣	평	
味	함		味	감	
歸經	간, 신		歸經	위, 비	
효능	양혈자음 통경		효능	건비개위 보비익기	

재료명	해파리		재료명	뱀장어	
본초명	海蜇		본초명	만려어	
氣	평		氣	평	
味	함		味	감	
歸經	간, 신		歸經	간, 신	
효능	화담연건 평간해독		효능	보허리 거풍습	

재료명	김		재료명	해삼	
본초명	紫菜		본초명	海蔘	
氣	한		氣	온	
味	감, 함		味	함	
歸經	폐		歸經	심, 신	
효능	화담연건 청열이수		효능	보신익정 양혈윤조	

I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약선식료학의 원리에 입각하여 처방된 약선의 식품영양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향후 식품의 효능이나 섭취방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약선이 현대인들에게 좀 더 가까이 접근하는데 이용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식품영양관리의 체계는 동양철학의 기본원리에 기반을 두고 그 효능을 정리하는 방법과 함께 현대영양학적 성과가 조화되는 통합적인 식품효능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토대로 한 새로운 식이관리 모델이 제시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는 전통적 기미론에 기초한 식품효능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동양적 전통사유와 서구적 영양분석이 고려된 방향에서 식품산업이 형성되어질 경우 그 활용도가 매우 높고 시장이 크게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한방약선식의 올바른 이해와 보편화를 위해 식품의 종류와 효능을 陰陽五行에 입각한 氣味 및 歸經 등의 관점에서 분류하고 적용하는 새로운 시도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를 계기로 상대적으로 미진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새로운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오준호, 『16세기 의서 이석간경험방에 나타난 전통지시 분석-죽과 밥을 이용한 식치 처방을 중심으로』,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7(1), 2013, p127.
2. 안상영 외, 『식치의 개념 정립 및 적용 이론의 이해』, 한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14(2), 2008, p.27.
3. 중약대사전편찬위원회, 『중약대사전』, 2003.
4. 장기성, 『한의학의 원류를 찾다』, 청흥, 2008, pp.46-48.
5. 채우석, 『한의학개론』, 대성문화사, 1997, pp.1-8.
6. 박성혜 외, 『건강약선조리 이론 및 실습』, 지구문화사, 2012, pp.34-81.
7. 나창수 외, 『한의학 총강』, 도서출판 의성당, 2008, pp.73-75.
8. 복혜자 외, 『약선음식개발을 위한 전통 식품재료와 한의학 이론의 적용방향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15(3), 2005, p.347.
9. 박성혜, 박성진, 『건강과 치료를 위한 약선영양 2』, 도서출판 정담, 2007, pp.206-223.

‘섬의 인문학’ 주창과 ‘도서해양문화학’ 정립을 위한 제언

홍 석 준 ■ 목포대학교 문화인류학과

1. 머리말: ‘섬의 인문학’ 주창과 ‘도서해양문화학’ 정립을 위하여

‘섬의 인문학’ 3단계 ‘비교와 활용’ 연구의 주된 목표는 기본적으로 ‘섬의 인문학’을 주창하고 ‘도서해양문화학’을 정립하는 것이다. 현 3단계에서는 이를 주요 연구목표로 삼아 인류문명의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인간 삶의 공간’으로서 섬과 바다를 바라보고, 그 공간에서 발현된 다양한 문화현상을 주된 연구영역으로 삼아 ‘도서해양문화학’ 정립을 위한 ‘섬의 인문학’의 ‘비교와 활용’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표는 ‘섬의 인문학’의 ‘비교와 활용’이라는 주제 하에, 도서해양 공간인식 패러다임의 이론체계 구축을 통한 ‘도서해양문화학’의 비교와 활용 연구의 방향성과 방법론 정립을 최종 목표로 삼고 추진되고 있다.

‘섬의 인문학’은 ‘도서해양문화학’의 이론적, 방법론적 구축과 실천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과 이론 구축, 그리고 그것의 활용 방법에 대한 서술과 분석, 나아가 해석을 통해 ‘도서해양문화’에 대한 종합적, 총체적 이해를 추구한다. 이런 이유로, ‘도서해양문화학’의 이론과 방법론체계 구축에는 도서해양 관련 학문 분야가 탐구하고자 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현상에 대한 설명과 그것의 활용 방법에 대한 서술과 분석, 나아가 해석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 분야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것의 특정한 형식을 어떻게 획득하게 되었는지, 또한 그것이 다른 학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 획득된 의미는 어떠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지니는지에 대한 서술과 분석, 나아가 해석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5: 33-34).

이런 의미에서, ‘섬의 인문학’의 비교와 활용 작업은 결국 ‘섬의 인문학’의 ‘비교와 활용’

연구의 방향과 방법 정립을 위한 작업이며, 이는 섬과 바다의 문화, 또는 ‘도서해양문화’에 대한 단순한 텍스트 또는 담론 해석을 넘어, ‘도서해양문화’만의 고유하면서도 독창적인 이론적, 방법론적 체계를 세우는 학술적, 실천적 작업이기도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섬의 인문학’은 ‘도서해양문화’의 비교와 활용을 위해 섬과 바다를 생활 무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인간들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회복하는 데 보다 주력했으면 한다. 이 주문은 섬과 바다의 철학, 가치, 정체성, 정신을 회복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것들을 재창조하는 일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섬과 바다를 주요 대상으로 한, 섬과 바다사람들 또는 도서해양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인간들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란, 곧 섬과 바다의 인문정신을 회복하여 ‘섬의 인문학’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를 올바르게 구현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이것은 ‘섬의 인문학’의 ‘비교와 활용’ 연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섬의 인문학’ 또는 ‘도서해양문화학’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섬과 바다사람들의 ‘토착지식(체계)(IK: Indigenous Knowledge)’과 그 지적, 정신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합리성, 즉 이른바 ‘야생의 사고(원제는 불어로 La Pensee Sauvage, 영어로는 the Savage Mind로 번역)’(레비-스트로스 1996) 또는 ‘야생 정신(the Savage Mind)’(구디 2009)이라 불리는 ‘토착지식(체계)’의 특성과 의미와 관련시켜, ‘도서해양문화학’ 연구의 방향성과 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도서해양문화학’의 현장성 재고(再考): ‘야생의 사고’를 통해 바라본 ‘도서해양문화학’에 대한 또 다른 시선

내가 생각하는 ‘섬의 인문학’ 또는 ‘도서해양문화학’은 섬과 바다라는 현장, 곧 섬과 바다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문적, 실천적 활동에서 출발한다. 이 말은 ‘도서해양문화학’은 섬과 바다 또는 도서와 해양이라는 엄연한 현실의 무한한 개별적 특성과 독자성으로부터 일반적, 보편적 지식을 이론화하고 실천하는, 소위 ‘현장-지향적(field-oriented)’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에 지적, 정신적 사유의 긴장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개별성 속에서 어떻게 편견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며, 개념화와 범주화 작업 속에 어떻게 특수성을 담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섬과 바다사람들과 접촉하여, 낯설고 불편한 생활양식 속으로 들어가서, 종종 자기에게 적대적인 사람들과 함께 얹히면서 강도 높은 감정적 투입, 또는 감정이입에 자기 몸과 마음, 정신을 함께 던져 넣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도서해양문화학자들’이 ‘섬과 바다의 민족지(ethnography of island and maritime culture)’를 작성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 연후에야 만들어진다.

또한 전 지구화로 인한 급변하는 문화변동 속에서 문화 개념의 범위 설정과 그 의미 역시

매우 다양해졌으며, 그 개념화, 범주화 역시 보다 다양화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변모하였다. 현장(성)은 항상 변화한다.

그렇다면 섬과 바다사람들의 문화, 즉 ‘도서해양문화’가 만들어지는 ‘현장’은 과연 누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또 누가 ‘현장’을 조정, 조작, 변형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도서해양문화’의 주체의 전략과 그에 대한 대응의 메커니즘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는 ‘도서해양문화’에 대한 종전의 개념 정의와 이를 둘러싼 인식이나 시각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이를 통한 개념 해석의 새로운 재인식과 재해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소위 도서성(島嶼性) 또는 섬성(섬性) (insularity, islandness)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의미 해석을 둘러싼 논의와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우선, ‘도서해양’이라는 개념의 일체가 가능한 것이라면, 이러한 개념 일체 속에는 섬과 바다가 갖는 속성의 양면성, 즉 고립성(폐쇄성)과 소통성(개방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강봉룡 2015: 15). 흔히 도서성으로 번역되는 ‘인슐라리티(insularity)’는 원래 ‘고립’ 혹은 ‘단절’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섬은 고립되고 단절된 공간이라는 속성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섬을 주로 고립과 단절의 공간으로 여겼다는 것은, 즉 바다를 위험한 장애물로, 섬을 그러한 바다에 의해 단절된 고립 공간으로 인식해오던 경향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른바, 종래의 도서성(insularity, islandness)이라는 개념, 즉 열악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한정된 자원과 지리적 격리성, 제한성, 상대적 고립성 등의 조건 하에서 섬과 바다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적응양식과 반응의 특성 및 그 의미 등이 지리적 고립성과 격리성, 제한성 등과 관련되어 강조되기도 했는데(조경만 1995: 196), 이 역시 섬과 바다를 자연환경적, 지리적 격리성과 자원의 제한성 등의 환경적, 생태적, 경제적 조건에 의해 육지와 내륙과의 단절과 고립의 부정적 공간으로 인식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다는 인적, 물적 교류와 교역이 소통되는 길이 기능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섬과 바다의 자연적, 지리적 고립성(폐쇄성)과 문화적, 역사적 소통성(개방성)의 뜻 모두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아일랜드니스(inslandness)’라는 신조어를 통해 섬과 바다의 양면적 ‘섬성’의 의미를 동시에 담아내자는 제안이 유럽학계에서 출현한 것은 축하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강봉룡 2014: 15-16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성 또는 섬성에 대해 자연환경적, 지리적 단절성, 격리성, 고립성 등과 더불어 문화적 소통성, 개방성, 포용성 등의 생물문화다양성과 복합성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는 인식론적 지평이 열리게 된 것 또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는 도서성 또는 섬성을 보유한 섬과 바다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섬과 바다사람들의 공동체가 지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교육, 지식, 예술, 법, 오락, 의술, 영적 의례, 평화 유지, 사회복지 등과 같은 ‘무형의 가치’로 대변되는 ‘지식기반 경제’의 생산성이 대단히 높았다는 점이다(스베이비·스쿠소프 2009: 15-16). 이들은 섬과 바

다의 자연과 생태, 정치, 경제, 사회조직 등에 대한 친숙한 지식에 바탕을 둔 상태에서 삶을 영위해 왔다. 이들은 섬과 바다의 자연환경과 생태, 정치경제적 조건, 사회문화적 구조 등에 의지하고, 섬과 바다와 더불어 살아 왔으며, 또 살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 이주한 정착민들에 의해 ‘원시적이고 미개한’, ‘외진 곳에 분산되고 고립되어 유배된’ 사람들로 무시되고 오인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의 삶의 방식과 정체성이 현재 재평가되고 있는 것은 생태학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자연’과 ‘환경’, ‘생태’에 체계적으로 접근한 최초이자 최고의 사람들이다. 이들의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를, 이들의 ‘무형의 경제’를, 이들의 ‘무형의 교역’에 더 심도 있는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업은 이들의 토착지식의 세계와 생태 환경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에 꼭 짚어야 할 사항이다. 학술적으로나 실천적 차원에서도 섬과 바다사람들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는 자연-인간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근대적 세계관의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이를 재구성하는 인식론의 출발점으로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섬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현지인들의 삶과 문화를 자연, 환경, 생태의 가치와 연결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자연-인간의 통합적 인식체계는 이들의 토착지식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섬의 인문학’과 ‘도서해양문화학’의 ‘현장’을 문화적, 생태적 맥락에 따라 종합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 실천적 시도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의 시점에서 도서해양의 관점과 육지내륙의 관점, 야생의 사고와 근대적 사고, 토착지식과 근대지식, 자연과 인간 등의 이분법 사이의 상호연계성에 주목하면서, 야생의 사고와 토착지식으로서의 ‘도서해양문화’의 현대적 의미를 ‘도서해양문화학’ 정립을 위한 ‘섬의 인문학’의 비교와 활용 연구를 위해서는 도서해양과 육지내륙, 야생의 사고와 근대적 사고, 토착지식과 근대지식, 자연과 인간 등의 이분법의 철학적 근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에서 라투르의 기본 관점은 근대-야생, 자연-인간의 이분법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다(라투르 2009). 이런 점에서 근대와 야생, 인간과 자연에 대한 라투르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은 섬과 바다사람들의 토착지식을 야생의 사고와 관련시켜 이해하고, 근대 지식의 기반인 자연-인간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섬의 인문학’, ‘도서해양문화학’을 재구성하기 위한 이론적, 방법론적 시도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자연, 야만, 미개, 토착, 전(前)근대(premodern), 전(前)논리(pre-logic) 등과 관련된 현장에서 도출된 지식은 현대사회 속에서 다시 회귀되었다. 종래의 억압의 굴레에 속박되었던 사람들이 전 지구적 상황에서 다시 여기 이곳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본연의 모습을 회복한 채로 재출현하고 있다.

서구인들은 자신들이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능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서 삶의 지혜, 자연의 위대함, 자연과 인간의 분리, 정복의 대상으로서의 자연관 등

을 배워야 한다. 그들을 능가하거나 압도하면서 지배할 수 있는 존재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근대인들은 고뇌하며 질문을 제기했다. 이들 모두를 어떻게 근대화시킬 것인가? 이런 점에서 서구인들의 문화현상은 근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야생의 사고’ 또는 ‘야생 정신’은 스스로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는 인간관으로, 일종의 범신론에 속하는 사상체계 또는 가치체계를 그 특징으로 한다. 근대인에 대비되는 인간으로서 토착 종족 스스로 야만인이라 여기는 사고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일본이나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등과 같은 섬이나 도서 지역에 주로 나타나는데,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세계관을 동반한다. 모든 물건에 정령이 깃들여 있다는 믿음 때문에 오래된 물건이라도 잘 버리지 못한다. 이는 사물과 인간, 세계를 보는 독특하면서도 고유한 시각과 관점을 반영한다. 사실상 섬과 바다사람들에게 자연과 사회, 기호와 사물이란 사실상 동일한 공간상에 존재하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대륙이나 반도의 세계관은 사람을 중시한다. 사람과 자연의 이분법적 구분에 철저한 편이어서, 사람다움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람답다는 것은 곧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 나름대로의 고유하면서도 독특한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유교 등과 같은 대전통의 종교문화가 이를 대표한다. 이에 반해 범신론이라 할 수 있는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의 세계관에서는 사람과 자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물건과 사람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람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 속의 정령과 인간이 합일하는 경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3. 자연-인간 이분법의 극복을 통한 ‘섬의 인문학’의 ‘비교와 활용’ 연구: ‘도서해양문화학’의 탐구 주제와 대상, 방법에 대한 해석의 중요성

‘섬의 인문학’이나 ‘도서해양문화학’을 추구하는 연구자들과 학자들에게는 소위 ‘낯선 곳에서’, ‘중심에서 벗어나’ 연구 및 학술활동을 할 것이 요구된다. 그들은 이러한 특징과 의미를 지니는 ‘현장’에서 그곳에서 생산된 자료와 정보, 지식의 ‘공공성’을 확장하려는 목적 하에,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할 것이 긴요하게 요청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섬과 바다사람들의 토착지식의 현장성과 공공성에 주목하여 그들의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의 특징과 의미를 해석해냄으로써 비판적 지식을 구성 또는 재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 더욱 긴요할 것이다.

자연-인간, 근대-전근대, 도서해양-육지내륙 등의 이분법의 해체 또는 극복을 위한 ‘도서해양문화’ 관련 연구주제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섬의 인문학자들’ 또는 ‘도서해양문화학자들’은 이를 특징의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인간과 자연에 대한 지식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서로 결합시킬 수 있는 학적 자세와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여기에 현장성과 공공성과 함께,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자연계와 문화계에 동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지점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적 훈련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과정이 첨가될 것이다.

사실 현장성과 공공성, 그리고 생물문화다양성의 주제들은 자연과학의 엄밀성과 인문사회과학의 상상력 모두를 요구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특정 학문 분야의 현장성과 공공성, 윤리, 생물문화다양성 등의 개념은 시공간의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고자 하는 학자나 연구자들은 비인간적인 속성과 인간적 속성 모두를 탐구할 수 있는 ‘중간 지점’, 즉 ‘중심에서 벗어난 중간 자리’ 쪽에 자신의 존재를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Callon 1986 참조). 이런 점에서 그들은 특정의 사회와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외부의 실재를 동원하거나 외부적 실재를 형성하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권력게임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섬과 바다의 문화, 즉 ‘도서해양문화’ 역시 일종의 ‘타문화(other culture)’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타문화로서의 도서해양문화’라는 관점과 시각, 인식이 긴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타문화’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해방식에서는 ‘섬의 인문학’과 ‘도서해양문화학’ 관련 지식의 총합은 ‘섬과 바다의 민족지’가 제공하는 타문화와 사회들에 대한 매개되지 않은 ‘사실들’의 총체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섬의 인문학’ 또는 ‘도서해양문화학’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 즉 특정의 개념과 언어로써 다루기 힘든 부분이나 영역, 즉 개념과 언어의 틀 밖으로 새어나가 버리는 부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 출발할 것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학문 분야는 이러한 상황 또는 영역에 깊이 천착하여 인식과 존재, 가치 등의 주제를 이에 뿌리박은 상태에서 학문의 이론적, 방법론적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물론 ‘도서해양문화학’의 주제와 대상, 방법 등은 변화할 것이며, 또 변화해야 할 것이다. ‘도서해양문화’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기획과 수행 및 실천이 보다 더 명시적으로 윤리적/정치적인 것으로, 즉 예전에는 침묵을 강요당하고 권리를 억압당했던 문화적 소수자들로서의 섬과 바다사람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되돌려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게끔 주인의식이나 주체의식을 불러일으켜 주고, 식민주의와 전 지구화, 그리고 가부장제에 대한 그들의 ‘저항’과 ‘투쟁’을 지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칸 2002: 185)에도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감각을 통한 사유나 인식은 편견이나 선입관, 고정관념 등과 같은 기성의 가치에 매몰되거나 지배되기 쉬운 법이다. 하지만 ‘도서해양문화학’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도서해양문화학’의 사유는 이러한 편견이나 선입관,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데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이 학문 분야의 사유 방식은, 한 마디로 자문화(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의 편견을 해체하는 사유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섬과 바다사람들의 공동체는 정치적 독립을 핵심적 특징으로 하는 자율적 단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다도해’와 같이 방대하고 광활한 공간과 장소에 상호관계가 매우 부정적인, 다시 말해 섬과 바다를 대상으로 한 전쟁이 잦

은 다수의 조직이 병존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두 번째 중요한 점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섬과 바다 공동체에 대해 오직 정치적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도서성”의 징표인 분산성, 고립성, 개방성 등을 지닌 사회라는 부당한 평가가 내려지는 것 외에도, 섬과 바다의 문화자원이 섬과 바다사람들에 대해 ‘도서해양문화학’이 또 다른 하나의 추가적인 특징을 제시하기 때문이다(클라스트르 2004: 69).

따라서, ‘도서해양문화학’ 이론과 실천에 대한 이해는, 우선 포스트모더니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 서구의 계몽주의적 기획을 뒷받침해오던 모던적 사고, 즉 이성적 주체가 세계에 관한 투명하고 남김 없는 인식을 통해 그것을 실천해서 이성적인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사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시도이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은 그 비판의 강렬함과 세련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비판의 강렬함 때문에 기존의 이론적, 실천적 틀을 해체할 뿐,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거대한 총체적 이론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고 자체가 여전히 모더니즘의 형이상학적 덩어리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실패, 예컨대 나치즘과 스탈린주의를 낳는 억압적 이론과 실체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공박한다. 그래서 대안 없는 체계, 개념 없는 사고, 총체성과 과학을 대체하는 작은 이야기들의 공동체가 제시된다고 주장한다(리샤르 등 1998: 320).

‘도서해양문화학’ 구축을 위한 ‘섬의 인문학’의 비교와 활용 연구를 위해서는 섬과 바다 사람들의 토착지식(체계), ‘야생의 사고’, ‘슬픈 열대’(레비-스트로스 1998),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클라스트르 2009), ‘폭력의 고고학’(클라스트르 2005), ‘조미아’(스콧 2015) 등의 개념과 용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것의 재구성보다 깊은 관심과 실천이 요구된다.

섬과 바다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 전환을 위해선, 우선 근대 지식과 ‘야생의 사고’ 또는 ‘야생 정신’이 조우하는 방식과 그것이 전 지구화 과정에서 새롭게 변환되는 과정에 보다 광대하고 심도 있는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근대인의 지식과 토착지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식 생산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계는 은유의 방식과 직설적인 방식, 두 방식으로 연구되어왔는데, 전자는 토착지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야생의 사고 또는 야생 정신을 대변하는 반면, 후자는 근대 지식으로 대표되는 계몽적 사유를 대변한다(라투르 2009). ‘도서해양문화학’이 전자를 지향해야 함은 너무도 자명하다. 하지만 근대 지식을 대변하는 계몽된 사유와 토착지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야생의 사유는 때로 아름다운 화해에 도달하기도 하지만, 서로 반목의 날을 세우는 상호 배제와 간섭을 일으키기도 한다.

‘도서해양문화학’은 이러한 학술적, 실천적 작업을 통해 근대 지식의 근간 원리와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연-인간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인식론적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작업은 전 지구화 과정에서의 전통 종교, 신앙, 신화, 전설, 야생의 사고, 토착지식, 토착적 세계관의 변화와 그에 대한 토착 세계의 대응에 대한 학술적, 실

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 맺음말에 대신하여: ‘섬의 인문학’의 주창과 ‘도서해양문화학’의 정립을 위하여

섬과 바다는 지리적으로는 주변에 위치하지만 외부로 널리 열려 있고, 체제 이외의 권위나 가치에도 개방되어 있다. 왕조시대 이래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산이 그 중심이 정상에 있고 또 봉우리에 의해 보다 높은 다른 봉우리로 연결되어 구심적 위계적 구조와의 종합성이나 신성한 권위와 가치와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반해 바다는 외적 재앙이나 다른 문화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민족적 신앙에 있어서도 신성성이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 지리적으로 주변에 위치한 도서 지역에 있어서 그 사회적 주변성을 극복하기 위해 바다는 명백히 새로운 가치와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매개하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섬과 바다의 종교적 보편성, 바다를 사이에 둔 나라들 간의 국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해변의 스포츠나 음식 등의 건강 또는 건강성 지향 등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이토 2002: 88-89).

주변성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깨닫고, 이것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섬과 바다의 독자적인 문화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재창출하여 주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섬사람들 자신에 의한 주체적이고 새로운 인식에 입각하여 주변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치나 평가의 기준 자체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오히려 그 가치의 근원이 되는 것을 육지내륙으로부터 소외되고 주변화되어 온 상황 하에서 전승되어 온 독자적인 문화 전통이나 자기 주위의 생활 경험 속에서 찾아내어, 때로는 소외나 수난의 역사 그 자체도 살리게 된다. 이와 같은 생활 경험의 재인식이나 재해석을 통해, 육지내륙에서는 인식되지 않았던 가치를 보편적인 것 혹은 일반적인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높은 차원의 평가나 위신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토착의 문화 전통을 재인식하고 재구성하는 데에 생활자로서의 현지인들의 참여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현지인들의 현상 인식이나 전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실제로 개별적인 상황과의 관련성을 무시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생각해야 한다. 동일한 지역에서도 상황 인식이나 전망을 달리 하는 주체로 인해 선택하는 전략이 달라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행정과 현지인 간에 그러한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때로는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도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 행위자들에게 주목하면서도 항상 전체적인 관련성을 시야에 넣고, 여러 행위자들 사이의 권력관계의 불균등과 차이, 균열 등을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각각의 지위와 위치를 고려한 상태에서, 각각의 선택지의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토 2007: 155, 157-158). 이는 특히 섬과 바다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전략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 세계 도처에서 삶을 살아 왔고,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 갈 섬과 바다사람들은 단순

하고 부정형의 무질서한 상태로 삶을 영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니다. 그들은 점차 자기 문화에 대해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말하고 쓸 수 있는 저자가 되거나, 자기 문화의 공적 가치를 표출하는 해설과 설명을 할 줄 아는, 이른바 작가로 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섬과 바다사람들은 자연과 인간사회의 대칭성 또는 이분법이 중첩되는 지점을 차지해 왔다. 그 공간은 ‘야생의 사고’나 토착지식체계에 의해서만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다. 근대 지식에 따르면 이 지점은 자연과 인간 주체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대척점에 위치한다. 하지만 섬과 바다사람들에게 이 지점은 그들의 ‘구체성의 과학’(science of the concrete)과 토착지식이 매개되어 실현되는 곳으로, 자연-인간의 관계가 새롭게 생성, 확산, 소비되는 장소이자 현장이다. 그곳에서는 섬과 바다사람들과 육지내륙인들이 서로 조우하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도서해양문화학자들’은 자신들만이 온갖 문화적 표상들을 다룰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 자연과 인간,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토착지식과 근대 과학, 서구인의 인지체계와 원주민의 가치체계 등을 서로 연결시키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섬과 바다의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도서해양문화학자들’이 차지한 위치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관찰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상황에서의 위치가 중첩되는 지점에서 비로소 ‘도서해양문화학’의 비교연구와 ‘섬의 인문학’의 비교와 활용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 때 비로소 ‘섬의 인문학’은 더 이상 섬과 바다의 문화들을 비교하지 않으며 믿기 힘들 정도의 특권적 지위를 부여 받아 보편적 자연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자신이 속한 문화(민족)’, 즉 ‘자기문화(자기민족)’ 또는 ‘자문화(자민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래야만이, 소위 ‘자문화(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도서해양문화는 ‘결여’의 문화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고 답해야 한다. ‘도서해양문화’는 종래부터 국가권력이나 국민경제, 역사, 문화로부터 배제되어 역사와 문화가 ‘결여된’ 상태로 서술되거나 설명되어 왔다(스콧 2015; 클라스트르 2002, 2005 등 참조). 육지내륙인들의 시선으로 ‘도서해양문화’를 바라봐왔던 것이다. 육지내륙인들은 섬과 바다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그들의 안티테제로 설정하여 이해하는 데 익숙했고, 그러한 인식과 시각을 고착화하고 강화해 왔다. 섬과 바다사람들은 ‘갯것’, ‘섬것’ 등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도서해양의 사회와 문화는 진보 또는 개화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육지내륙사람들은 섬과 바다사람들의 동경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서술, 분석되어 왔다. 따라서 그들은 섬과 바다의 역사와 문화를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그 자체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했었고, 아직까지도 아예 그것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 볼 일이다.

참 고 문 헌

- 강봉룡. 2014. “‘섬의 인문학’ 담론: 섬과 바다의 일체성과 양면성의 문제”. 『도서문화』 44: 7-35.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15. “섬의 인문학 3단계 아젠다 워크숍” 섬의 인문학 3단계 아젠다 워크숍 자료집(2015. 11. 26.).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 미셸 리샤르 등 저. 이상률 등 역. 1998. 『오늘의 프랑스 사상가들』. 문예출판사.
- 브리노 라투르(홍철기 역). 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것이 없다』, 서울: 갈무리.
- 이토 아비토. 2002. “호남 도서지역의 지역활성화에 있어서의 바다”. 『호남문화연구』 30: 71-89.
- 이토 아비토 저. 임경택 역. 2007. “주변성의 극복: 한국 축제와 지역 활성화의 전략”. 『한일공동연구총서』, 2007.12. pp. 144-185.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잭 구디(김성균 역). 2009. 『야생 정신 길들이기: 인간 정신의 발달과정을 해명하다』, 서울: 푸른역사.
- 제임스 C. 스콧 저. 이상국 역. 2015. 『조미아,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 동남아시아 산악지대 아나키즘의 역사』, 삼천리.
- 조경만. 1995. “전남의 농어촌 연구 ; 도서생태계와 도서문화 - 서남해 도서문화 연구의 성과와 과제”. 『현대사회과학연구』 6: 193-219.
- 조엘 칸. 2002. “코스모폴리탄적 실천으로서의 인류학”, 『비교문화연구』 8(2): 171-191.
- 칼-에릭 스베이비-텍스 스쿠소프 지음(이한중 옮김). 2009.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라: 가장 오래된 인류, 호주 농가바라 원주민에게서 배우는 땅, 인간, 동물이 함께 사는 지혜』, 웅진출판.
-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저. 안정남 역. 1996. 『야생의 사고』, 서울: 한길사.
-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저. 박울줄 역. 1998. 『슬픈 열대』, 서울: 한길사.
- 피에르 클라스트르 저. 변지현·이종영 공역. 2002. 『폭력의 고고학: 정치인류학 연구』, 울력.
- 피에르 클라스트르 저. 홍성흡 역. 2005.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정치인류학 논고』, 이학사.
- Callon, Michel. 1986. “Some elements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domestication of the scallops and the fishermen of St Brieux Bay”, Power, Action and Belief: A new sociology of Knowledge? ed. John Law, pp. 196-229,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김 양식업의 기술발달이 어촌사회에 미친 영향

— 완도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최 흥 대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1. 머리말

김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잘 먹는 부식이라고 해도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김은 독특한 맛과 향을 갖고 있어 식욕을 북돋아 주고, 영양가가 풍부하여 쌀밥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가를 보충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김은 일본 과 우리나라에서 주로 식용으로 이용하였는데 최근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쇼핑하는 품목에 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중국인들도 김을 식용으로 선호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은 조선시대부터 중국 항실에 바치는 진상품 목록에 포함될 만큼 귀한 식품으로 대접을 받아왔다.¹⁾

우리나라의 김 양식은 1850년대에 오늘날과 같은 수평식 그물발의 원형인「떼발」이 개발되었고, 1928년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반부동식「떼발」원리를 이용한 수평식「뜯발」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온다.²⁾ 이후 1970년대에 무노출식 김발인「뜯흠발」이 보급되었으며, 뒤 이어 1980년대에 완도를 중심으로「그물발」에 스티로폼 뜬을 부착하여 상하를 뒤집는 방식의「그물발」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반자동식 마른 김 제조기가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최근 들어 마른 김 제조 과정이 단일 공정처리시스템으로 자동화가

1) 조선왕조실록 세종 45권, 11년(1429 기유 / 명 선덕(宣德) 4년) 7월 19일(계해) 2번째기사

2) 홍성걸·강종호·마임영, 1999, 『김 양식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해양수산개발원, 30쪽.

이루어졌다. 우량종묘의 보급, 양식방법의 개발 및 그물 발과 같은 재료의 대체, 마른 김 제조기의 보급 등이 상호 결부되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³⁾

완도지역은 이 땅에 김 양식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김 생산지로서 1980년대 초반까지 김 양식업을 통하여 어민들이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영위하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김 양식업이 서서히 쇠퇴하면서 어촌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 완도지역 김양식업의 성립

김 양식의 기원에 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으나 그 근거가 뚜렷하지는 않다. 조선어업요람(1942)의 완도군 해태조합연혁에는 “본 조합에서의 해태양식업의 기원은 금일로부터 약 130여년전 완도군 고금면 장룡리에 거주하는 한 노어민이 죽도포에 흥을 만들어 세운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⁴⁾

1910년을 전후하여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각지에 정착하여 일본식 김 양식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주로 일본 서부의 히로시마 현(廣島縣) 출신이며, 썰 양식법을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식 양식법은 전남 완도·장흥·광양 등의 각지에 전파되었고, 경남에서는 낙동강 하구·섬진강 하구를 중심으로 하여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김 양식이 남해안에서 주요 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함에 따라 조선 총독부에서도 그 진흥을 위해 ‘해태전습소(海苔 傳習所)’를 설치하고 한국인에게 일본식 양식 기술을 전습시켰다.(1911~1914, 광양군·助樂島·河東郡)⁵⁾ 또한 1929년 조선교육령 개정을 통하여 보통학교에 직업과 교과가 신설되었고, 남녀 필수교과로 4년제 보통학교의 4학년에서, 6년제 보통학교의 4,5,6학년에서 주당 1시간의 수업시수가 배당되었다.⁶⁾ 완도공립보통학교에서도 해태제조실습을 하는 사진이 완도읍60년사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학교교육과정에서도 해태전습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3. 김 양식업의 기술발달과 어촌사회의 활력

1) 김 제조 장비의 기계화

마른 김의 제조는 1970년대 말 어촌에 전기가 공급되면서 크게 변화되었다. 종래에는 김 뜨기 작업은 날이 밝아야만 가능했지만 전기가 공급되면서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었다.

3) 홍성걸 외, 위의 책, 30~40쪽.

4) 정근식·김준 공저, 「완도와 해조류 양식의 전개」, 2004, 『해조류 양식 어촌의 구조와 변동』 29-36쪽

5) 정근식·김준 공저, 2004, 「해조류 양식 어촌의 구조와 변동」, 경인문화사. 일본식 제법의 전습기록은 1912년 5월 7일자 매일신보 사설, 1913.6.3. 매일신보에서도 확인된다.

6) 강명숙, 2011.12, 「일제시대보통학교의 『직업』교과의 도입과 그 성격」, 『교육사학연구 제21집 제 2호』 1

1981년부터 반자동 김 건조기가 등장한다. 김 생산자가 물김을 채취하여 김 공장에 가지고 가면 열풍을 이용하여 건조를 하고 수수료⁷⁾를 받는 방식으로 김을 건조하기 시작했다. 일기가 좋으면 건조장에서 햇볕으로 김을 말리고, 눈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반자동 공장에서 김을 말렸다. 그 때부터 젊고 능력이 있는 집은 김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전기를 이용하면서 김 생산량이 증대되고, 따라서 소득도 늘어나게 된다. 자연스럽게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도입되고 다시 생산량이 증대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1978년 이후 김 제조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는 다음 표와 같다.⁸⁾

구 분	1977년이전(전기공급전)	1978년이후(전기공급후)
김뜨기	건조장(06:00~11:00)	집에서도 가능(시간제한 없음)
가구당생산량	20속 이내	50속 이상도 가능
건조방법	태양열(우천시 불가)	태양열+반자동 병행 → 전자동 공장
채취선	무동력(노, 돛) 목선	동력 FRP선 규모는 점차 대형화
운반구	지게, 수레	경운기, 화물자동차
김발	지주식	부류식
김채취	수작업	기계채취
어장	어촌계 주관, 내해	내해+외해 외해는 개척자 소유

2) 김 가공공장의 등장과 김 양식업의 분화

종래의 김 제조는 온 가족이 매달려서 양식한 김을 채취한 후 직접 가공하여 판매까지 해야 하는 가내 수공업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⁹⁾ 1989년에 제보자 이상민이 전자동 김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김 건조 사업에 뛰어 들었다고 한다.¹⁰⁾ 외해로 진출하여 물김 채취량은 급속히 증가하는데 수수료가 속당 700원이라 너무 부담이 커서 김 가공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 가공공장을 설립했다고 한다.¹¹⁾ 이상민이 김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보고 너도 나도 김 가공공장을 설립하면서 삼두리에만 김 가공공장

7) 서석주, 이상민의 구술에 의하면 당시 김 건조수수료는 속당 800원이었다고 한다. 김 값이 속당 2500원 하던 때인데 수수료 800원은 매우 비싼 가격이었다. 김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해서 한 때는 삼두리에만 14개소의 김 공장이 운영되었다고 한다. (2015. 5. 14 채록)

8) 서석주, 이상민 구술 (2015. 5. 14 채록)

9) 서석주, 이상민 구술(2015.5.14. 채록)

10) 이상민 구술(2015.5.14. 채록)

11) 이상민 구술(2015.5.14. 채록)

이 14개까지 늘어났다고 한다.¹²⁾ 김 가공공장 경영주 이상민은 1991년부터는 김 위탁가공 물량이 줄어들자 하는 수 없이 물김을 직접 사들여서 가공하여 판매까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¹³⁾ 이때부터 물김 중매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요즈음에는 물김 판매는 수협에서 경매 방식으로 수탁판매하고 있다고 한다.¹⁴⁾

이때부터 물김을 생산하는 김 양식업자와 물김을 사들여서 가공하여 판매까지 담당하는 김 가공공장으로 분업이 이루어지기 시작되었다고 보여 진다.

3) 새로운 어장의 개척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어장은 삼두리 젊은이들에게는 너무 좁았고, 노후화로 인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다.¹⁵⁾ 1983년에 삼두리 마을 주민 5명이 마을 어업권¹⁶⁾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먼 바다로 진출하여 김 양식장을 개척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완도에서는 부류 망홍식 김발이 보급되었고, 어가에서는 동력선과 김 채취기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한다.

4. 김 양식업의 쇠퇴와 어촌사회의 대응

통계포털을 보면 우리나라의 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여전히 전국 김 생산량의 77.5%를 점하고 있으나 완도군은 2009년 까지만 해도 전국 김 생산량의 15%를 점하고 있었으나, 2013년에는 5.4%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완도군의 김 양식업이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1) 어가인구의 변화

완도군 통계연보를 보면 해조류 양식이 전체 수산물 생산의 90%이상을 점하고 있으나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보여주고 있다. 1974년에 어가인구는 19,174세대에 116,672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1990년에는 34%에 해당하는 39,721명만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2013년에는 1974년의 1/4수준인 28,455명만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를 거주 인구와 대비시켜 보면 1974년에는 총 거주인구의 80%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2013년에는 52%만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12) 이상민 구술(2015.5.14. 채록)

13) 이상민 구술(2015.5.14. 채록)

14) 이상민 구술(2015년 11월 8일)

15) 서석주-이상민 구술 (2015. 5. 14 채록)

16) 수산업법 제9조(마을어업등의 면허) 제③ 제2호에 의거 “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미터 이내의 수면”

2) 양식 수산물의 교체

완도군 수산물 생산금액 기준으로 보면 대표적인 수산물인 전복, 다시마, 김, 미역의 총 생산금액은 2013년 기준으로 468,367백만원인데 김 생산금액은 36,430백만원이다. 주요 수산물 생산금액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수산물인 다시마, 김, 미역의 생산금액 총액은 2013년 기준으로 99,977백만원인데 비하여 김 생산금액은 36,430백만원이다. 주요 해조류 생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완도군에서 김 양식업은 쇠퇴의 길로 들어섰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어민들은 전복·다시마·미역양식으로 품목을 교체하여 적응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공동어장을 이용할 능력이 없는 어민들의 증가

삼두리에는 121세대 271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 16가구만 어촌계원이다. 먼 바다까지 나가야 하는 김 양식업은 이제는 비교적 젊고 자본을 갖춘 소수 사람만이 가능한 어업이 되었다. 요즈음 잘 나가는 전복 양식업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회수기간이 길어서 더욱 염두를 낼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¹⁷⁾

5. 마무리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김 양식업이 성립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라고 보여 진다. 조선총독부에서 해태전습소를 설치하여 일본식 해태제법을 전습시키고 학교교육과정에 까지 해태 제조실습과정을 도입하여 근대식해태제조기술을 성립시킨 후 1970년대 초반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져왔다. 모든 공정을 노동으로 해결해야 했으므로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영세한 규모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어촌에 전기가 공급되면서부터 기술적인 면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김 제조 기술의 변화는 김 양식업자의 소득을 증가시켰고 김 양식업에서 노동력을 대체하는 장비를 구입·이용하게 되었다.

전자동 김 가공공장이 등장하면서 김 양식업자는 물김을 채취하여 김 가공공장에 판매하고, 김 가공공장에서는 물김을 사서 마른 김을 제조·판매하는 분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김 제조가 산업화 되면서 고령자와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대다수 어민들은 김 양식업에서 소외되어 소규모 농업으로 어촌에서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중반이후 완도지역의 김 양식업이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일부 어민들은 미역, 다시마, 전복양식으로 양식품목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17) 서석주 제보(2015년 11월 8일)

참 고 문 헌

1. 자료

매일신보, 1912년~1943년 발행

완도군청, 1963년 ~ 2014, 각 년도 『완도군통계연보』

완도읍승격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03, 『완도의 예와 오늘』

『조선왕조실록 세종 45권』

2. 논저

강명숙, 2011, 「일제시대보통학교의 직업교과의 도입과 성격」 『교육사학연구 제 21집제2호』1

강제원·고남표, 1977, 『海藻養殖』, 태화출판사

손철현, 2009, 『신 해조양식』, 다인

정근식·김준, 2004, 『해조류 양식 어촌의 구조와 변동』 경인문화사.

최재성, 「1910~20년대 일제의 어업조합 방침과 운영」 『사림 제47호』

홍성걸·강종호·마임영, 1999, 『김 양식어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해양수산개발원

해녀 어업의 전승과 인식 변화 - 강원 속초 청호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유 리 ■ 목포대학교

1. 서론

해녀(海女)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 각종 어패류를 채취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여성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잠수를 할 수 있는 바다를 지닌 어촌마을이면 어느 곳이나 분포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많은 해녀가 분포하며 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바탕으로 경남, 강원, 전남 등 한반도는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에 출가한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제주 해녀 이외 각지의 생태적 환경에 적응하여 발달한 지역해녀(토착해녀)가 있다.

강원도 속초 청호동은 이북 출신의 피난민들이 모여 만든 마을이다. 초기 정착민들은 대부분 전쟁이 끝나면 고향인 이북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모여든 피난민들이었다. 고향과 가깝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쉬운 길목에 위치해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동향 출신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 임시 거처를 만들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또한 청호동은 월남인의 정착지일 뿐 아니라 제주 출신 해녀들의 정착지이기도 하다.¹⁾ 속초에 정착한 제주 해녀 중 3분의 2가 청호동에 몰려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²⁾ 속초를 포함한 강원 일대의 해안은 제주 해녀들이 바깥물질을 자주 나오던 곳이었다. 현재 청호동에 정착한 제주 해녀들도 젊었을 적 이 곳을 오가며 작업했던 경험이 있지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바다’

1) 해양수산부, 『한국의 해양문화』-4 동해해역, 2002, 260쪽.

2)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513쪽.

가 없기에 해녀 어업을 잇기에 적당한 곳은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사람이 살기에도 마땅치 않고 해녀의 작업에도 마땅치 않던 모래밭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난민들의 마을이 되었고 제주 해녀의 이주와 정착으로 해녀 어업이 전개되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 글은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녀들의 구술 자료를 중심으로 ‘해녀’의 분포를 보이지 않는 마을에 직업으로서 해녀가 스며드는 과정과 해녀 어업의 전승 및 변화양상을 살피는데 목적을 둔다. 지역의 생태적·사회적·문화적 요소와 해녀 어업의 전승과의 연관성을 살피는 한 사례가 되고자 한다.

2. 해녀 어업의 시작과 활동

1) 청호동의 형성과 생업

피난민들로 구성된 초기 청호동 사람들은 1950년대를 기점으로 모여들었다. 주로 함경도 출신이 많았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속초의 해안과 가깝다는 이유였다. 초기 정착민들을 중심으로 동향 출신들이 모여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이 외에도 고향에서 종사했던 어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점과 당시 군사적 거점지역으로 노동력의 수요가 많아 일감이 많았다는 점 등이 청호동 사람들의 정착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³⁾ 이러한 상황 속 형성된 마을에는 어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이 존재했다. 명태와 오징어 등 어종의 풍족한 어획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던 가정주부들도 여기에 따른 인력 수요에 부응하여 상품가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초기 정착민들에 의한 생업활동은 어선 어업 위주로 운영되었다. 청호동에서 해녀 어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마을 형성과 더불어 제주 출신의 해녀가 마을에 정착한 이후 다른 해녀들에게 소개를 하면서부터다.

2) 해녀 어업의 시작과 제주 해녀 김암전

매년 선주에 의해 모집된 제주 해녀들이 속초 일대의 바다를 오가며 작업을 하긴 했지만, 이들은 대부분 봄에 들어와 여름까지 작업을 한 후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다시 제주로 돌아갔다. 제주 해녀의 계절적 이주와 별개로 마을에 정착한 해녀 중 가장 초기 인물은 ‘김암전’으로 불리던 제주 출신의 해녀다. 제주에서 살다가 남편과 사별 후 딸 한명을 데리고 원산으로 가서 물질을 하다가 속초로 이주했다고 한다. 김암전은 동네의 2등 부자로 유명했다. 군부대로 납품되던 미역의 값이 당시 매우 좋았기에 가을이면 쌀을 백 석 이상 들이면서 살았다고 하며 그렇게 기반을 닦은 김암전이 제주 출신의 해녀 세 명을 더 불러들이며

3) 국립민속박물관, 『모래 위에 세운 터전 속초시 청호동』, 2014, 45쪽.

청호동에 해녀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김암전이 불린 재산을 보고 먹고 살만하다고 판단하여 속초로 흘러든 경우도 있었다.

3) 바다 위의 세 모습- 낚대, 틀개, 그리고 해녀

과거 가장 돈벌이가 되는 것은 미역이었다. 미역을 채취하여 말려놓으면 상인이 동네 해녀의 집을 돌아다니며 수거하듯 구입해갔다. 해녀들이 채취하는 미역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이를 각각 참미역과 소미역(쇠미역)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다시마의 일종인 소미역의 시세가 더 좋았다고 한다. 근방에서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반고등어와 소미역튀김을 점심 반찬으로 애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근에 위치한 군부대가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판매처가 되었기에 당시 말린 미역은 없어서 팔지 못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미역철이 되면 청호동 바다 위에는 각기 다른 세 종류의 채취활동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낚대로 미역을 따는 주민들의 모습이다. 이들은 가이선이라고 불리던 소형 어선을 타고 수경으로 바다 속을 보면서 미역을 잘라 배 위로 끌어올렸다. 둘째는 육지에서 틀개를 이용해 미역을 따는 주민들의 모습이다. 미역을 बे지 않고 쥐어 틀어 올리며 채취하기 때문에 채취한 물건의 상태가 깔끔하지 못하다. 낚대에 비해 부서지는 부분이 많아 상품성이 낮다. 돈을 벌기 위함이라기보다 본인들의 먹거리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는 잠수를 통해 미역을 채취하는 해녀들의 모습이다. 낚대나 틀개를 이용한 채취형태는 이제 더 이상 마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해녀들의 작업도 소수의 인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때 이색적인 공존 형태를 보였던 이러한 작업형태는 더 이상 청호동 바다에서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 되었다.

3. 청호동 해녀 어업의 전승과 현재

1) 해녀 어업을 전승하는 주체들

현재 청호동에서 작업하는 해녀들은 6명 내외다. 가장 많았을 때는 30명에 육박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나마 젊은 층에 속하는 해녀들이 마을에서 작업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활동을 그만두거나 현재 작업하는 인원 중에도 청호동 출신이 없다. 바깥물질을 나왔던 인연으로 청호동에 정착하거나 결혼이나 이사 등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면서 다시 물질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흔하다. 결혼 후 녹록치 않은 살림에 생활고를 겪다가 기존 해녀들의 활동과 벌이를 보고 배우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활동을 잇고 있다.

(2016년 현재)

	고향	나이	속초 정착 과정	과거 해녀 경험	기술 배운 곳
문순임	제주	81	바깥물질 이후	O	구룡포
김기백	제주	75	바깥물질 이후	O	제주
고길자	제주	74	혼인 후 정착	O	속초(청호동)
이정숙	삼척	59	혼인 후 정착	X	속초(청호동)
김금옥	강릉	59	혼인 후 정착	X	속초(청호동)
윤금월	제주	54	혼인 후 정착	X	속초(청호동)

속초는 물때가 의미 없는 곳이기에 해녀들의 작업시간이 고정적이다. 매일 아침 모여 그 날의 날씨를 보고 작업공간을 결정한 후 모여서 작업을 한다. 청호동 앞 유일한 무인도인 조도는 청호동 해녀들의 주 작업공간이다. 그러나 걸어서 이동이 힘들고 부근을 드나드는 배가 많아 충돌의 위험이 따른다. 이에 작업하는 해녀들이 많았던 과거에는 해녀들이 공동으로 ‘뽀르래기’라고 부르는 어선을 계약하여 그녀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했다. 봄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기 전 해녀들이 미리 1년 계약을 했다. 계약한 어선은 조도까지 해녀들을 배래다주고 해녀들이 작업을 마칠 때까지 주위를 지나는 큰 배들로부터 해녀들을 지켜주었다. 작업이 끝나면 해녀들과 채취물을 실어 물으로 돌아왔다. 이후 수협에서 배를 내놓아 선장에게 월급을 주면서 함께 작업을 다니다가 사람이 점차 줄어들면서 해녀들이 이용하는 전용선이 사라지게 되었다. 지금도 조도에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하는데 그 날의 채취율과 상관없이 무조건 뱃삿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나이든 해녀들의 경우 조도에 나가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또 다른 작업지로 방파제의 테트라포트 부근을 들 수 있다. 방파제 부근은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낚시꾼들과 트러블이 잦다. 근처에서 작업하다가 낚시 바늘이 잠수복에 걸리거나 해녀들의 움직임이 낚시에 방해되는 경우에는 해녀들이 고기를 다 쫓아낸다고 대놓고 화를 낸다. 바다에서의 작업을 생업으로 삼는 현지 해녀와 취미로 속초를 찾아 낚시를 하는 외지 관광객 사이에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다반사다.

2) 해녀에 대한 인식 변화

근래 가장 가격이 좋은 것은 자연산 성게다. 수확량도 많고 수요도 많아 해녀들에게 좋은 돈벌이가 되고 있다. 해초를 제외한 대부분의 패류가 연중채취가 가능하기에 평균적인 수익금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해녀들은 모두 자신의 직업을 ‘1인 기업’의 측면에서 바라본다. 바다에 나가서 일한 만큼 돈을 벌고 몸이 아플 때는 언제든지 쉬면 그만이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 현금을 매일 만질 수 있고 누군가에게 간섭을 받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해녀들은 젊은 사람은 1년만 배워도 충분히 해낼 수 있지만 고달프게 살면서도 이 일을 배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왕성한 활동을 보였던 제주 출신의 해녀들이 모두 나이가 들

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해녀의 수가 급감하였는데, 이후 생활이 곤궁했던 젊은 몇몇의 여성이 일을 배우겠다고 나서면서 청호동의 해녀 어업이 지속되고 있다.⁴⁾ 잠수를 배운 젊은 해녀들은 채취 작업 이외에도 배의 스크류에 걸린 줄을 풀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전문 스쿠버를 부르면 돈을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선주가 마을의 해녀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4. 맺음말

청호동은 이북 출신의 피난민들이 모여 임시로 거처하며 형성한 마을이다. 비슷한 시기에 제주 출신의 해녀가 청호동에 자리를 잡으며 본격적인 해녀 어업이 시작되었다. 피난민촌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배경 속에 해녀가 없던 기존의 사회에서 직업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했지만 현재까지 속초(마을) 출신의 해녀는 한 명도 없다. 현재 활동하는 젊은 해녀들도 외지에서 시집 와 살림이 곤궁해지며 물질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해녀는 자신의 채취 성과에 따라 매일 현금을 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을 출신의 해녀 없이 타지출신의 해녀들로만 형성된 활동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던 이유로 몇 가지를 추측해볼 수 있다.

우선 청호동 바다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대부분 모래사장으로 이루어진 마을에서 해녀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한정적이다. 작업공간(바다)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낮다. 청호동 해녀들은 속초 내 동명동이나 대포동 등에서 작업하는 동료들에 비해 여러모로 처지가 어려웠는데⁵⁾ 고향 중심의 결속력이 유독 강한 마을 공동체 특성의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명태잡이와 오징어잡이의 성행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업 철이 되면 그 뒤치다꺼리만으로도 일손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 버는 수입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생활이 반복되면서 잠수를 하는 일은 제주에서 온 일부 해녀의 특수한 어업으로 인식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그러한 생각들이 확고한 고정관념으

4) ... 그 사람들은 이거 하는 거를 우습게 알아. 지금 사람들은 자꾸 뭐 물건도 사나가고 그러니까 “아 돈이 많이 난다, 그걸 많이 난다.”라고 생각해서 특이하게 보는데 그 전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 그저 “저 사람들은 해녀다.” 그저 그거만 알지. 물건 나와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그 양이 얼마 나온다, 돈이 얼마 나온다 그건 몰라. 김영애 해녀(은퇴) 제주도출신 1926년생 2013.9.24. 조사자료. 마을 내 기타 어업이 성행했을 때는 이를 우습게 보았다가 근래 물건의 판매와 현금화 등을 보고 이를 새롭게 인식하였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5) ... 그거 해녀 아덜이라고. 이제는 여기 저녁 때 뉘며는, 지금 가며는 해녀덜 물건 팔 거여. 요 앞의 다라에 놓아서. 그러니 그 때 시절의 한 오 년 전의 저기 다라이 못 놓게 했어. 그러니 좋다. 우리는 여기 짚을 막 겹갓, 해녀는. 여기 짚을 막고, 느그들 해보자고. 우리 물건 못 팔게 허는 해보자. 우리 저것도 싸와가꼬 해녀덜 거기 앉게 하고. 해녀덜 또 그 우에다가 물 받아가꼬 물건 살리는 것도 해주고. 해녀도 권리를 좇아서 여기서도. 경헌디 저 청호동 해녀덜은 그런게 있어. 해도 시장 가 팔지 여기서 팔는 것도 있고. 그러니 청호동 해녀덜은 살기는 막 힘들어. 경헌디 여깁 해녀덜은 잘 벌어, 잘 벌고. 해녀 권리를 막 여기서 좇아서, ...이제 집 짓건 다가 십 년쯤 뉘실거여. 경헌디 ‘저 청호동은 재작년에, 삼 년 전의 지었다’ 허더라고. 청호동 해녀덜은 또 권리를 못 잡아. 이성훈,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송실어문』제19집, 송실어문학회, 2003.

로 자리 잡았을 경우다. 청호동에서 활동하는 해녀들은 식당 종업원으로 남의 눈치를 보며 일을 하는 것보다 개인 기술로 물질을 배워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능숙하지 않더라도 한 두 시간의 작업으로 사흘간의 인건비 이상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사례만을 두고 해녀 어업의 전승과 지속을 논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해녀 어업의 전승과 생태적·사회적·문화적 맥락을 고찰하는 작업을 보완해 갈 생각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민속박물관, 『모래 위에 지은 터전 청호동』, 2014.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이성훈,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송실어문』제19집, 송실어문학회, 2003.
 해양수산부, 『한국의 해양문화』 4-동해해역, 2002.

도서해양 콘텐츠와 관광

생 자크 조가비 콩포스텔라의 순례코드와 문화생산 코드	선미라 이화여자대학교
『하멜표류기』에 의한 관광문화산업의 허와 실	이영란 조선대학교
전남서남권 무인도서의 관광활성화 방안	김형서 세한대학교
제주- 완도 연계 해상관광특구 조성 방안	황상석 장보고글로벌재단
도서해양과 관련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적 활용	곽수경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경남 사천 ‘지역문화로서의 해양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안영숙 경남문화예술교육연구소
신라방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박재완 남도 마실길
장보고의 티-세라믹로드에 대한 고찰	김대호 중국 광서사범대학교
한국근대해양선박여행의 정치적 심상지리	차혜영 한양대학교
전통소금 ‘자염(煮鹽)’의 복원과 활용사례	정지수 태안문화원
지오투어리즘을 적용한 여수시 낭도의 자연관찰로 개발	이정훈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남해안 다도해섬 개발과 마리나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동현 청암대학교

썩 자크 콤포스텔라의 순레코드와 문화생산 코드

선 미 라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전 객원연구위원

이 논문은 썩 자크 조가비 콤포스텔라의 순레코드와 문화생산 코드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이다. 지중해 남부 해양도시와 해양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이 순레길에서 생산되는 역사성과 문화, 정치성과 철학, 사회변혁과 사상 그리고 문화와 그 생산자들의 경제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순레의 상징성은 문화와 정치와의 관계에서 어떤 형상으로 표시되며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생산자로서의 순레의 징표와 도상들이 각 지형에 따라 어떻게 변칙적으로 표출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 조가비 순레길에서 표출되는 징표와 징후들도 문화코드 관점에서 연구되며 이 문화코드는 문화생산자와 관련하여 그 상관성이 기호학적으로 어떤 생산성에서 코드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다시 말해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la), 갈리시아(Galicia), 성 제임스의 길(Way of St. James), 썩 자크 드 콤포스텔(Saint Jacques de Compostelle), 알베르게(albergue), 크리덴셜(Credencial), 썩 장 피에 드 포르(St Jean Pied de Port), 페이바스크(Pays Basque), 아틀레틱 빌바오(Athletic Bilbao) 포르 썩 자크(Porte St Jacques), 론세스바예스(Roncesvalles)등과 같은 동위원소들에 대한 연구이다.

1. 공시적 썬 자크 콩포스텔라 : 썬 자크의 길과 순례자의 여정

대서양과 태평양의 바람을 타고 인도양과 서해를 스치고 지나가는 남서풍의 계절에 우리는 썬 자크의 순례길을 만난다. 이 길은 공시적 관점에서 위도와 동경 그리고 서경의 좌표를 따라 배열되어 있으며 총 800Km의 여정을 담고 있는 순례길이다. 북위 50도에서 42도선을 따라 펼쳐진 공시적 썬 자크 길은 대서양과 태평양의 물줄기와 함께 동경 6도에서 서경 8도에 이르는 의미체를 형성하며 이는 대서양의 그물망구조로 프랑스와 스페인을 하나의 망으로 구조화하는 기호체이기도 하다.

도시별 기호체는 좌표형성과 함께 구성되며 그 좌표는 순례라는 마디마디의 의미망을 구축하여 썬 자크 콩포스텔라의 거대한 구조를 만들어낸다. 그 주요 좌표구조는 ST. Jacques compostelle N 42° 52' 40" W 8° 32' 40", Burgos N 42° 20' 27" W 3° 41' 59", Puente la Reina N 42° 40' 18" W 1° 48' 56", Bordeaux N 44° 50' 16" W 0° 35' 38", Saintes N 45° 44' 47" W 0° 38' 00", Poitiers N 46° 34' 55" E 0° 20' 10", Tours N 47° 23' 37" E 0° 41' 21", Orleans N 47° 54' 09" E 1° 54' 32", Paris N 48° 51' 24" E 2° 21' 03", Aix la chapelle N 50° 46' 00" E 6° 06' 00"으로 형성되어 있다. 위도차는 8도에 걸쳐있고 경도차는 14도에 걸쳐있는 썬 자크 콩포스텔라와 엑스 라 샤펬의 기호적 의미는 순례와 순례자 그리고 순례길과 순례망이라는 구조적 관계에서 그 의미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2. 통시적 썬 자크 콩포스텔라 : 대서양의 썬 자크 순례와 순례자의 하강효과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 순례길은 역사성과 문화성 그리고 가치성과 영혼성이 내포된 의미체를 각 구간마다 내포하고 있다. 대서양의 좌표와 태평양의 썬 자크 가리비만큼 이 통시적 관계에 의한 썬 자크 콩포스텔라는 도시와 도시간의 거리가 마치 의미와 의소의 관계처럼 연계되어 있다. 다시 말해 엑스 라 샤펬에서 파리까지의 거리는 112Km이고 파리에서 오를레앙까지는 106Km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관문인 엑스 라 샤펬은 순례길을 여는 첫 번째 문으로 썬 자크의 고행의 문을 암시하고 있다. 이 고행의 문을 따라 두 번째 관문인 파리에 이르면 썬 자크의 수난의 역사를 암시하는 징표를 만나게 된다.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길에 예시된 고난의 길을 우리는 이 두 번째 문에서 그 의미 창출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112Km의 흔적을 남기고 그 징후와 상징의 발자취를 의미화하는 이 두 번째 문은 106km의 오를레앙이라는 제 3의 문을 가능하게 한다. 역사의 성지로 알려진 이 오를레앙은 성녀 잔 다르크의 고향이기도 하다. 순례자는 이 길에서 성녀를 만나며 썩 자크의 머나먼 여정을 계속 걷게 된다. 112km와 106km의 통시적인 거리 수에 맞게 기호적 의미는 썩 자크의 순교상징과 그 징표들을 만남으로서 고통의 구조화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고통의 구조화를 따라 제 4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것은 56Km의 투르에 입성하면서 가능하게 된다. 순례길의 네 번째 문에서 우리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썩 자크의 물결의 의미를 회상해보는 통시적 구조에 대해 그 의미체를 생산하기 시작한다. 썩 자크의 가리비의 행적과 순례자의 행적은 대서양의 물줄기를 따라 북위 48도에서 47도로 따라서 동시에 내려간다. 소위 의미하강 효과로 썩 자크의 행위소와 순례자의 행위소가 일체성을 갖는 문이기도 하다. 대서양의 물줄기는 47도와 48도의 위도에서 새로운 의미체를 형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8Km를 따라 다시 하강하면 북위 46도 34분 55초 동경 0도 20분 10초의 프와티에를 만난다. 이는 다섯 번째 관문으로 썩 자크의 열정을 상징하는 문이기도 하다. 이 다섯 번째 순례 문에서는 썩 자크의 투지와 의지의 분노가 상징으로 그려져 있으며 대서양의 물결 마디마디에 썩 자크의 투혼의 그림자를 새겨 넣고 있다. 순례자 역시 이 썩 자크의 투혼의 힘을 빌어서 88km의 긴 여정을 소리 없이 행위자로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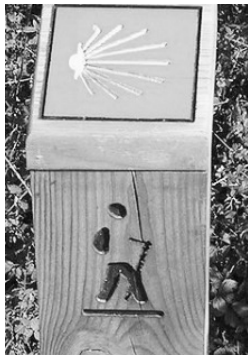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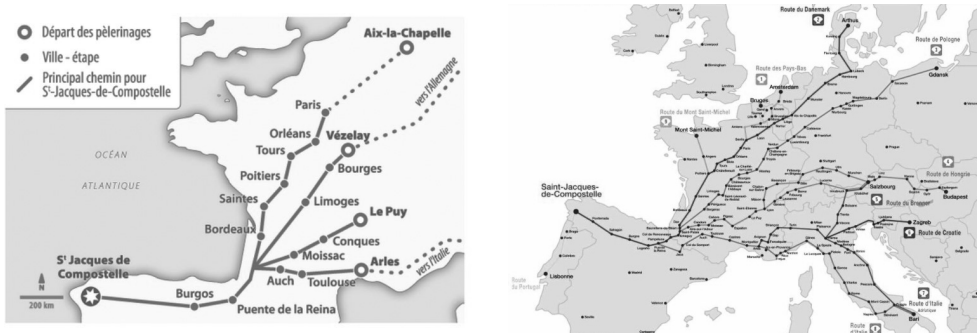
썩 자크의 역사성은 이 프와티에 항구에서 전시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썩 자크의 기호적 의미와 순례자의 기호적 행진이 만나는 곳이며 다음 제 6번째 관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92km의 순례 길은 여섯 번째 순례 문을 열어주며 썩트에 안내한다. 대서양의 썩 자크 가리비의 행진과 순례자의 행진이 동시에 이 여정에서 수평적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북위 45도 44분 47초, 서경 0도 38분 00초에서 구조화의 형태를 완성하고 있는 이곳은 썩 자크의 투혼의 불꽃을 만나게 한다. 성자들의 총 집합체인 이곳에서는 에너지의 재충전소와 같은 기운을 순례자들에게 부여한다. 그래서 다음의 93km의 여정을 가능하게 한다. 북위 44도50분 16초, 서경 0도35분 38초의 보르도는 풍요로움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제 7의 문으로 지쳐있는 썩 자크의 식량 보급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순례의 일곱 번째 문을 열어주고 있다. 대서양의 썩 자크가 잠시 쉬어가는 곳으로서 썩 자크의 순례의 안식을 위로하며 길고 먼 순례자의 길을 이 풍요로운 제 7의 문, 보르도에서 재 결집할 것을 요청하는 곳이기도 하다. 순례자의 내면은 이제 용기와 투혼 그리고 집중과 완성의 단계를 요구 한다. 240km의 행군을 따라 썩 자크는 대서양의 풍랑을 만나게 되며 그 거친 바다와의 투혼에서 새로운 의미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썩 자크의 대서양 횡단은 북위 42도 40분 18초, 서경 1도 48분 56초의 좌표를 형성하는 뫼렌트 드 레이나에 다다른다. 썩 자크

의 대서양길 순례와 썬 잭 순례길의 순례자는 이제 평지의 고요함을 얻게 된다. 풍랑의 외침의 과정을 통과하여 이제는 제 8의 관문에 이르렀으며 이는 순례자에게 여덟 번째 순례 문을 열어 준다.

스페인의 온화한 대서양 기운이 이제는 지친 썬 잭의 관을 바다의 고요함속에서 지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따라 36km의 행군을 하면 북위42도 20분 27초, 서경 3도 41분 59초의 좌표를 만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뷔르고스로 완성전의 격한 환희의 순간을 상징한다. 이는 제9의 관문으로 마치 베토벤의 심포니 9악장 환희의 순간과도 같은 썬 잭과 순례자의 깊은 내면의 승리를 울리는 코드이기도 하다. 이 상징 속에서 꽃피는 아홉 번째 순례문은 썬 잭의 완성의 문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마지막 59km의 여정을 따라 순례자의 발길이 머무르는 곳은 북위 42도 52분 40초, 서경 8도 32부 40초의 썬 잭 콩 포스텔라다. 제 10의 관문으로 이는 열 번째 순례 문을 열어준다. 순례의 완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대서양의 썬 잭 가리비의 상징과 썬 잭 순례자의 영혼성이 일치하는 이곳 이 좌표에서 썬 잭의 순례는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영혼과 투혼성 그리고 지속성과 그 계승성에 대한 의미도출이 이 제 10의 관문에서 열리게 된다. 다시 말해 열 번째 순례문에서 썬 잭의 사명은 완수되며 순례자의 성스런 행위는 그 징표를 갖게 된다.

이렇게 공시적 의미와 통시적 의미에서 썬 잭의 순례길을 통한 그 상징성과 역할은 좌표를 통한 공간 구성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대서양의 횡단이라는 가리비 썬 잭의 하강효과와 순례자의 썬 잭 순례길 간의 상호연계성과 그 평행성 그리고 그 수평성을 그린 이 논문에서 우리는 기호적 상징성과 그 가치에 대한 고찰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연출되고 있으며 이는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각 공간 이동을 통해 하나의 장면을 연출하는 영화 같은 느낌을 전달받는 것은 곧 기호학이 설명하는 지속성과 연계성의 묘비가 이루어 내는 극적 효과라고 볼 수 있다. 9세기에서 10세기라는 시간적 흐름이 대서양의 물결을 따라 당진이라는 해양학회의 발표 장소에 투영되어 그 시대적 상징을 빚추고 있으며 로마와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라는 공간적 배열이 좌표와 그 구간간의 거리이동을 통해 가리비 썬 잭과 성자 썬 잭의 동일성을 암시하고 있음은 매우 시사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쎄크 콩포스텔라 문화생산적 가치



『하멜표류기』에 의한 관광문화산업의 허와 실

이 영 란 ■ 조선대학교

머리말

『하멜표류기』는 핸드릭 하멜 등 36명이 제주도에 표류하고 하멜을 포함한 8명이 1666년 일본으로 탈출해 나가사키 네덜란드 상관에 도착하여 나가사키를 출발할 때까지의 기록이다.

이 『하멜표류기』는 하멜이 한국에서 겪은 표류, 난파, 억류, 유배, 탈출 과정들을 네덜란드에 귀환하여 총독 요한 마짜이케르와 17인 평의회에 보고한 보고서를 1668년 책으로 출간하였다. 이후 불어, 독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출판되었다. 하멜이 쓴 이 보고서는 한국을 유럽에 최초로 소개한 역사적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하멜표류기』의 저자인 하멜은 강진에서 7년 동안 억류생활을 하였다. 33인의 하멜 일행이 강진에서의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멜의 생활을 통해 단지 교류의 장을 넘어서 시대적 현실을 읽어 낼 필요가 있다. 17세기의 조선이 네덜란드와의 교류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고 그들은 네덜란드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그렸는가에 대해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나아가 하멜 일행이 강진에서 생활한 내용을 토대로 강진에서 관광문화산업으로 활용함에 있어 하멜보고서에 충실하여 하멜정보관에서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 하멜 일행이 강진에서 7년 동안의 삶이 하멜보고서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관광문화산업의 허점이라 생각된다. 그에 대한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는 입장에서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I. 17세기 조선의 정세

조선은 두 차례의 대전란을 경험했다. 1592년 임진왜란, 1627년 정묘호란 그리고 1636년 병자호란으로 조선은 전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또한 중국은 한족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되는 시기였다. 16세기 말 일본과의 왜란과 여진의 호란이다. 왜란으로 16세기 이래 명조를 위한 동아시아 각국의 상품화폐경제의 성장 및 유럽의 동아시아 진출의 결과로 만들어진 전례가 없는 교역의 활성화라는 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호란으로 대륙에서의 정치적 격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¹⁾

조선이 서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17세기 이후였다. 중국에 파견된 사신의 전문과 서양 문물 도입 그리고 표착인들을 통해 서양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북경에서 세계지도를 가져오고 서양학술서, 자연과학 기술 등이 조선에 전래되면서 조선인들의 태도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고 하는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서양을 알게 된 또 하나의 경로는 표착인들을 통해서였다. 조선에 가장 먼저 발을 들여놓은 서양인으로는 1582년(선조 15)에 표착한 마리아(馬里伊)였다. 그러나 그는 즉시 중국에 송치되었고, 그 후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종군 신부로 입국한 세스페데스(Cespedes)가 있었다. 그러나 그가 조선인들에게 서양에 관한 지식을 전했다던가 조선인을 만났다면 하는 기록은 전혀 없다. 또 이수광(李睟光)이 소개한 것과 같이 광해군 때 고흥연안에 표착한 영국 상선이 있었으나, 이들은 곧 격퇴되어 조선 땅을 밟을 수 없었다. 그 후 일본인을 통하여 그들이 서양의 한 나라인 영국인임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실제로 조선사회에 서양의 존재를 알려 준 표착인들은 1627년(인조 5) 네덜란드인 벨테브레(John Wettevree) 일행이었다. 그는 박연(朴淵)이란 이름으로 개명하고 조선 여자와 혼인한 뒤 훈련대장 구인후(具仁侯) 아래서 홍이포(紅夷砲)를 제작하는 등 군사면에서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1653년(효종 4)에 네덜란드 하멜(Hendrik Hamel) 일행이 제주도에 표착하여 조선에 13년을 머물면서 조선에 서양의 존재와 무기 기술을 전하였다.²⁾

17세기 조선은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이 즉위하여 청나라에 대한 선왕의 굴욕을 씻기 위해 북벌을 계획하였다. 이 때 1627년 조선에 벨테브레(박연)와 동료 2명은 훈련도감에 배속되어 조선의 서양의 신식무기 개발에 관여하고 조선의 무기 발달에도 기여하였다.³⁾

1653년 조선에 표착한 하멜 일행도 훈련도감에 배속되었다. 하멜 일행을 훈련도감에 배속시킨 이유가 박연일행과 같이 북벌을 위한 군사력 증강이라는 측면에 이용하려했던 것이

1) 홍성구,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비친 17세기 내륙아시아 정세와 "영고탑회귀설(寧古塔回歸說)"』, 『中國史研究』, Vol.69 No.-, 2010, 273-277쪽, 송미령, 『17-18세기 조선정부의 몽골 이해』, 『중국사연구』 62권, 2009, pp.137-141.

2) 권仁赫, 『17세기 조선의 대외인식과 하멜 표착』, 『濟州島史研究』, Vol.8 No.-, 1999, 15-18쪽.

3) 강주형, 『강진 병영성 네덜란드 문화촌 설계 : 하멜 체류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국내석사, 14-15쪽, 19-21쪽, 세계적으로 17세기는 해상무역권의 변화 가운데 스페인이 해상무역권을 영국에 넘겨주게 되므로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되고, 1602년 네덜란드는 동인도연합회사(VOC)를 설립하였다.

다.⁴⁾

당시 조선은 청국의 압박하에 있었기 때문에 서양의 병기 기술은 그 나름 평가를 받아 효종의 북벌정책 하에서는 훈련도감에도 배속하였다. 서양의 이국인이 35명씩이나 훈련도감에 배속되어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청국의 의심을 사게 되고 나아가 북벌정책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조선은 항상 신경써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조선은 하멜일행 중 2명이 탈출하여 청국 사신의 귀국 행렬에 뛰어 들어 네덜란드 본국으로 송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감추기 위해 청국 사신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해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시기의 조선은 청과 긴장관계가 조성되어 하멜일행이 서양무기기술을 전수하는 일에 대한 비밀 유지를 하고자 하였던 것 같다.

Ⅱ. 『하멜표류기』에 의한 관광문화산업의 실재

1. 하멜의 표류 과정

하멜(Hendrick Hamel)은 네덜란드 국적 동인도회사 무역선 스페르웨르(Soerw-er)호의 서기직을 맡고 있었다. 이 배는 대만 해협을 거쳐 일본 나가사키로 항해도중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1653년 8월 16일 새벽 사이 제주 남쪽 해안에 좌초하여 스페르웨르호는 산산조각 동강이 난 후 침몰하였다. 이 배에 승선하였던 사람들은 하멜을 포함해서 모두 64명이며, 이 사고로 인하여 28명이 사망하고 36명만이 살아남았다.

하멜 일행은 그 후 10개월가량 제주에서 억류생활을 보낸 후 1654년 5월 그믐께 강진 해남을 거쳐 육로를 통하여 서울로 압송되어 서울에서 2년여의 억류생활에 이어 1656년 3월에 전라도로 유배된 후 1663년 2월 여수 좌수영에 12명, 순천 5명, 남원 5명 세 곳으로 분리 이송되었다. 이들은 어려운 유배생활에 못 견뎌 166년 9월 여수 좌수영에 유배된 일행 가운데 하멜을 포함해서 8명이 야간을 이용하여 미리 구입해 놓은 소형 어선을 타고 일본으로 탈출하였다.

주로 하멜과 관련한 연구는 하멜이 표류하는 과정이나 표착지에 관한 연구⁵⁾가 있고, 관광지 형성이나 관광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아쉽게도 하멜과 일행들이 생각하는 17세기의 조선 사회 모습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제주와 서울 생활과 관련한 연구와 함께 7년이나 억류생활을 했던 강진에서의 생활을 살펴, 그들을 통한 17세기 조선의 사회적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4) 강진군 하멜캡슐시스템 http://www.hamel.go.kr/code/menu3/menu01_2.html

하멜정보관 <http://www.hamel.go.kr/code/menu1/menu00.html>

5) 채바다, 『하멜(Hendrick Hamel)표류기의 역사적 재조명과 표착지에 관한 연구』, 『제주도사연구』, 1988.

《표 1》하멜이 탈출 이후 한국에 잔류한 일행과 사망자 인적 사항⁶⁾

이름	출신지	직위	나이	잔류지명
요하네니스 람펜	암스텔담	조수	36세	남원
핸드릭코르넬리스센	브릴랜드	갑판원	37세	남원
안클라 센	노르웨이	요리사	49세	남원
아콥안스	프레켈렌	조타수	47세	여수
안토닉 울데릭	엠텐	포수	32세	여수
클레스 아렌첸	오스트 보렌	급사	27세	여수
산데르트 바스켓	스크트란드	포수	41세	순천
안 안스 스펠트	우트레히트	하급수부장	35세	순천

압송 도중 사망자는

폴안세콜 : 프프메렌드 출신(포수(砲手)), 압송 도중 영암에서 사망(심한 부상 후 유증으로)

옥사(獄死)자 명단은

핸드릭 안센 : 암스테르담 출신, 1등 항해사

핸드릭 안센 보르 : 하를렘 출신, 포수

이들은 1655년 9월, 청나라 사신 행렬에 끼어들어 소란을 피운 죄로 수감 중 사망.

이로써 1656년 3월 전라도로 유배오고 나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운 고통으로 11명이 사망하였다. 그 이후 1663년 3월까지 생존자는 22명만 남았다.

1654년 월 말경 국왕의 압송 명령을 받고서 그들이 제주에서 전라도 해남-영암-나주-장성-정읍-태인-금구-전주-여산을 거쳐서 충청도 은진-공주-서울에 이르는 여정을 담고 있다.

일본으로 향하던 중 태풍을 만나게 된 하멜 일행들은 거친 파도와 심한 풍랑을 만나서 배가바위에 부딪쳐 배전체가 산산조각이 났다. 제주 해안가를 헤매던 하멜일행들은 같은 네덜란드출신으로서 박연이란 이름으로 개명한 벨테브레의 도움으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었다.

하멜일행들은 자신들을 일본으로 보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다. 그러나 왕은 그들의 간청을 거절하고 왕의 친위대로 삼았다. 1655년 3월경 집에서 나

6) 채바다, 위의 글, 125쪽.

오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청나라 칙사가 지나가는 길에 암스테르담출신의 일등항해사 헨드릭 안센과 할렘출신의 포수 헨드릭 안센 보르가 땀감 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숲 속에서 청나라 칙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킨다. 이 장면은 강대국인 청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조선에 표류한 서양인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숨겨야 하는 당시의 조선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1663년 이상의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하멜 일행들의 쌀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은 월말에 여수에 2명, 순천에 5명, 남원에 5명씩 분산이 되어져서 이별의 아픔을 경험해야 했다. 하멜 의제주도 표착 이후의 여정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⁷⁾

《표 2》 하멜의제주도 표착 이후의 여정과 인원

년대	여 정	생존인원(명)
1653년 6월 18일	스페르베르(Sperwer)호를 타고 대만에서 ⁸⁾ 일본나가사키로 출발	64
1653년 8월 16일	· 제주 남해안표착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해안추정 (24명 사망) · 하멜일행은 광해군 유배지였던 곳에 수용되고 이전에 조선에 표류해 귀화한 네덜란드인 박연(벨테브레)이 심문을 위해 제주도에 온다.	36
1654년 5월	· 제주에서 전라도 해남-영암-나주-장성-정읍-태인-금구-전주-여산을 거쳐서 충청도 은진-공주-서울 도착 · 호송 중에 영암지역에서 1명 병으로 사망	35
1655년 3월	· 하멜 일행 중 2명이 청나라사신과 접촉 탈출을 도와달라고 소동을 일으킴 · 소동을 일으킨 2명은 감옥에서 병사했다고 알려짐	33
1656년 3월	· 청나라와의 문제로 하멜일행 전라도로 귀향	33
1656년~1662년	· 전라도 강진에 수용됨 · 11명이 전염병 등에 의해 사망함.	22
1663년 2월	· 하멜일행 3곳에 분산되어 수용됨. 여수 남원 순천. (여수좌수영 12명, 순천 5명, 남원 5명)	22
1666년 9월 5일	· 여수좌수영에서 하멜포함 8명 탈출	16
1666년 9월 12일	· 교토를 거쳐서 나가사키도착	16-8=8

7) 강준수, 송영민, 「해양문학의 관광스토리텔링 : 하멜 표류기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Vol.29 No.12, 2015, 151쪽, 강주형, 위의 글. 23쪽.

8) 네덜란드는 동인도회사를 설립해 동아시아 진출을 개척하고 있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포르투갈과의 향료무역 전쟁에서도 점유권을 쟁취하게 되어 많은 무역 이익을 창출하였다.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자카르타)에 무역상관의 거점을 두고, 타이완, 일본 등지까지 진출하여 동아시아 무역권을 장악했다. 하멜이 조선에 체류한 17세기는 네덜란드의 전성기였던 것이다. 하멜은 인도네시아 바타비아를 출발해 포르모사(Formosa, 현재의 타이완)로 향했는데, 그 배에는 코르넬리스 세사르(Cornelis Caesar) 신임 타이완 총독도 승선하고 있었다. 7월 16일에 타이완에 무사히 도착하였는데, 세사르 타이완 총독으로부터 다시 일본으로 향해하라음 명령을 받고 총독에게 작별을 고하고 7월 30일 타이완으로 출발하였다.

년대	여 정	생존인원(명)
1667년 10월 22일	· 1년간 데지마에서 거주 후 · 하멜일행 나가사키에서 바타비아로 항함	8
1668년 3~4월	· 일본사신이 조선에 남아있는 잔류 네덜란드인의 송환요구 서신 전달	8
1668년	· 조선에 남아있던 잔류자 7명 이쓰시마섬에 도착해서 나가사키로 이송됨 (요리사 1명 사망)	8+7=15
1669년	· 조선에 남아있던 잔류자 7명은 바타비아에서 하멜과 합류	15
1670년	· 전원 네덜란드 귀국함	15

2. 강진에서의 생활

한양 억류 중 탈출 시도로 전라병영으로 추방되었다. 전라병영은 1417년부터 1895년까지 조선 왕조 500년간 전라도와 제주도를 포함한 53주 6진을 총괄한 육군의 총지휘부였다. 전라병영은 태종이 왜구의 침략이 심해지자 광산현에서 강진현으로 옮겼다.

전라병영은 을묘왜변 때 왜구들의 침입으로 병마절도사가 숨졌고 병영성은 폐허가 되기도 했다. 임진왜란 때 다시 피해를 입었고 갑오개혁으로 폐영됐고 사적 제397호로 지정됐다. 병영은 종2품 병마절도사가 근무하는 주진(主鎭)을 말하며 강진에 병영(兵營), 여수에 좌수영(左水營), 해남에 우수영(右水營)이 있었다.

하멜 등 네덜란드 선원 33명은 1656년부터 1663년까지 7년 동안 전라병영에 유배되어 강제 노역을 하였다. 하멜이 돌을 지그재그 방향으로 쌓은 네덜란드 식의 담장은 등록문화재 제264호로 등록됐다. 또한 하멜표류기에 기록되어 있는 수령 800년이 넘는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제385호로 지정됐다.

하멜일행은 1656년부터 1662년에 전라도 강진에 수용되었다. 1663년 3월 초에 하멜 일행은 전라병영으로 옮겨져 본격적인 억류생활이 시작되었다. 즉 조정에서는 하멜 일행이 청나라 사신 앞에서 행해진 일련의 사태가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라병영으로 하멜 일행의 거처를 옮긴 것이다.⁹⁾

당시의 생활에 대해 하멜정보관에서 게재한 내용을 살펴보면,¹⁰⁾

1657년 그들이 도착했을 당시의 전라 병사는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파직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많은 백성들로부터 흠모를 받았고, 명문가 출신에다 조정 대신들의 변호가 있어 왕의 특별 사면을 받았다고 『하멜보고서』는 기록하고 있다. 이때 병사는 유정익(柳廷益)으로 하멜은 이때의 전라병사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1657년 2월 그런데 전임자와는 완전히 달리 하멜일행에게 강압적인 대우를 취했다. 그

9) 김동전, 「하멜의 제주표착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현재성」, 『東아시아研究論叢』, 제14집, 2003, 227쪽.

10) 강진군 하멜캡슐시스템 http://www.hamel.go.kr/code/menu3/menu01_2.html
하멜정보관 <http://www.hamel.go.kr/code/menu1/menu00.html>

전에는 땀감도 무료였으나, 그와 같은 특혜들을 전부 무효로 하였고, 오히려 여러 가지의 잡일로 일행을 괴롭혔다. 그러나 9월에 그가 심장마비로 급사는 바람에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더군다나 병영의 백성들조차도 그 악정을 규탄하며 그가 죽은 것을 다행으로 여길 정도였다고 하멜은 기록하고 있다.

1657년 11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병사는 하멜 일행에 대해 전혀 무감각적인 존재였다.

옷이라든가 여타의 사정을 부탁해도 효종이 그들에게 지급을 약속한 50근의 쌀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지시받은 것이 없다며 거절했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일행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들에게 의복이라고 나무를 하러 다니다가 다해진 옷들뿐이었다.

한편 강진 병영의 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하멜 일행에게 자유로움 그 자체였다. 제주에서나, 서울에서의 생활은 감시와 통제 속에서의 생활이었으나, 이곳에서는 그들이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지 병사의 허락만 있으면 가능했다.

『하멜보고서』에는 그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조선에서는 동냥이 흉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들의 모험담을 들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구걸 등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월동 준비에 필요한 이런 저런 물건을 구입했던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행이 모험담을 대가로 수입을 올렸다는 것인데, 1653년에 표착한 그들은 약 4년이 지난 1657년에 이미 조선어에 능통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선 사람에게 조선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모험담을 파는 이야기꾼으로서의 수입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조선 속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658년 연초에 신임 병사는 또 다시 일행에게 외출을 금지했고, 1년에 4발 정도의 피륙을 주는 조건을 내걸어 사역에 동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그 대가가 너무나 적었고, 가뭄에 물가가 폭등하여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였다.

대신에 하멜 일행은 일행이 교대로 15일 내지는 20일간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하여는데, 이내 승낙이 떨어졌다. 그 승낙은 일행들 사이에 열병이 퍼져있어 집에 남은 자들이 병자들을 간호하겠다는 것과 절대로 서울과 일본인들이 거류하는 근처에는 가지 말 것 등의 조건이 있었다.

Ⅲ. 조선입장의 기록을 통한 보완

1659년 4월에 효종이 붕어하였다.『하멜보고서』에는 세자 현종이 그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하멜은 기록하고 있으며, 1660년부터 1662년까지의 강진 생활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아주 자유로운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강진 부근의 절에 대한 하멜의 평가는 대단히 우호적이다. 그들은 스님들에게 많은 덕을 받았으며, 또 스님들은 외국에 대한 풍물에 깊은 관심을 보여 다른 나라의 풍습을 들려

줄 때면 더욱 후한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만약에 하멜 일행만 괜찮다고 한다면, 꼬박 밤을 새워 들어도 직성이 풀리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멜은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그 또한 일행에 매우 동정적인 입장의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면 하멜 일행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겠노라고 누차에 걸쳐 언급할 정도였다.

1660년 초에 새로운 병사가 부임해 왔다. 이 해부터 예기치 않은 불행이 하멜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즉, 매우 혹독한 가뭄이 조선 전역에 퍼진 것이다. 『하멜보고서』에 의하면 1662년은 추수철이 되기 전까지 천여 명이 기근으로 죽어갔고, 노상강도가 횡행하여 길을 나서기조차 두려웠다고 한다. 이때에는 경비가 철통 같이 실시되었는데, 이것은 강도와 살인 행각을 방지하고 길거리에 널려있는 죽은 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였다. 때로는 국가의 창고를 습격해 비축해 둔 군량미를 탈취하는 등 여러 고을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러한 기근은 1662년 초반까지 약 3년이 계속되었는데, 백성들은 수확이 없었기 때문에 모종조차도 못할 지경이었다.

때문에 당시의 전라병사는 하멜 일행에게 지급되어 오던 양곡을 더 이상 배급해 줄 수 없다는 뜻을 전라도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비변사등록』현종 3년 정월 20일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뢰기를, “연전에 제주도에 표류해 온 만인(蠻人)을 서울에 머물러 두는 것이 불편하므로 모두 전남 병영으로 옮겨 보내어 관가에서 식량을 주도록 했는데 이미 사고로 죽은 이를 제외하고 현재 남은 인수가 23명이나 됩니다. 지금 전남감사 이태연(李泰淵)의 보고를 접하니, ‘병영은 바로 강진 지방이므로 강진에 회부한 곡식으로 만인(蠻人)의 식료(食料)를 지급해야 하는데 본 고을은 기항(飢荒)이 더욱 심한 지역이라 받아들일 환곡이 겨우 66석 남짓합니다. 앞으로 구제할 자본이 여전히 부족할까 염려되므로 만인(蠻人)의 식량을 이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다른 고을의 조금 나은 곳으로 옮겨야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사제가 실로 보고한 바와 같다면 본도 감사로 하여금 그 다소를 참작하여 좌수영과 좌도 큰 고을에 옮겨두고 착실히 단속하여 마을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오니 이러한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즉, 전라 병사 이태연은 병영은 강진이고, 강진에 부친 쌀을 남만인(=하멜 일행)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기근이 심해 만인에게 지급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고한 것이다. 때문에 비변사에서는 정세가 보고한 대로라면, 전라감사에게 명하여 좌수영 및 전라도 내의 큰 고을에 이주시킬 것을 진언해 현종의 윤허를 받아내고 있다.

한편, 이 기록은 정월 20일조이므로 양력으로는 1662년 3월9일에 하멜 일행에 대한 전라도 내 분산 거주가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분산 거주 결정에 대해서 하멜은 그의 보고서에 “2월말에 상부로부터 그에 대

한 답장을 받았다. 그 당시 살아있던 22명의 우리 일행을 여수좌수영(Saijsingh)에 12명, 순천(Suintchien)에 5명, 남원(Namman)에 5명으로 각각 분산 수용하라는 지시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의문이 남는다. 즉, 『비변사등록』현종 3년 정월 20일조의 기사에는 잔류 인원이 23명이었는데, 『하멜보고서』에는 22명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라감사가 비변사에 하멜 일행에 대한 조치를 문의한 직후 일행 중 한 명이 사망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¹¹⁾

이와 같이 하멜정보관의 기록은 모두 『하멜보고서』에 의존하고 있는 관광문화산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에 사용된 『비변사등록』등과 같은 기록을 더욱 보완하여 문화산업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쪽의 입장이 아닌 조선의 기록도 대조하여 관광산업의 실체를 보완한다면 더욱 신뢰성있는 문화산업을 각광받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맺음말

하멜이 조선에 머무른 것을 ‘억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는 손님으로써의 대접이 아니라 외국인 하멜을 적대하고 멸시했다는 것이다. 하멜표류기에는 조선에 억류되어 군역, 감금, 구걸 등의 생활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강진군과 네덜란드 호르콤시와 교역을 맺을 때 네덜란드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처음에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최초로 조선을 알렸던 하멜표류기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표류기에 담긴 이곳의 생활 역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멜기념관에 있는 전시품들은 하멜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의미 있는 소장품들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하멜과 강진 병영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고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멜기념관 바로 앞에는 전라병영성(사적 397호)가 있으며, 인근에 성동리 은행나무(천연 기념물 385호)가 있다. 전라병영성은 터만 남아있던 것을 현재는 대부분 복원한 상태이다. 강진군에서는 하멜촌 조성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연계성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 차라리 조선왕조 500년간 제주도를 포함한 53주 6주를 총괄한 육군의 총지휘부였던 전라병영성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 개발하고 연계 콘텐츠로써 하멜기념관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11) 강진군 하멜캡슐시스템 http://www.hamel.go.kr/code/menu3/menu01_2.html
하멜정보관 <http://www.hamel.go.kr/code/menu1/menu00.html>

전남서남권 무인도서의 관광활성화 방안¹⁾

김 형 서 ■ 세한대학교²⁾

I.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무인도서의 활용가치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무인도서의 관광체험은 최근 들어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

주변 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며 무차별적으로 체험관광을 하기보다는 잘 가꾸어진 주변경관을 조용히 감상하고 사색하며 여유를 만끽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친환경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진보적 관광의 형태라 판단된다.

현재 국내의 무인도서는 해양관광 시대 여가공간으로서의 이용 가능성으로 인하여 개발과 보존이라는 개념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인도서에 대한 정확한 가치 이해와 향후 적합한 활용 가능성들을 점검해보는 일련의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도서문화 논문의 재수정

2) 세한대학교 해양레저학과 교수

II.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1. 선행연구

1) 무인도서와 자연친화형 관광

생태관광은 생태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잠재시장의 확대는 휴식과 가치가 있는 자연공간이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재방문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휴식과 삶의 여유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을 즐기고 생태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자연공간이라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³⁾

특히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국제적,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어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체험하는 자연친화적 관광행태 중심의 새로운 관광이 각광받고 있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오지, 생존, 극한 상황 체험 등을 소재로 한 미디어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인해 관광객의 무인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전남 서남권 무인도서의 개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대중매체와 관광의사 결정

현대 생활에서 매스미디어라는 범주는 기성세대에게 매우 친숙한 TV, 라디오, 영화, 신문, 잡지 등 전통적인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로 대표되는 웹 미디어라 일컫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스미디어 서비스가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Xiang (2008)은 여행자, 검색엔진 환경, 온라인 관광도메인이라는 3가지 주요 구성요소를 포함한 관광 의사 결정단계에서 검색엔진을 사용한 인터넷 정보탐색에 대해 연구하였다.⁴⁾ 지역의 장소마케팅과 이미지 형성, 관광객 유인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대중매체의 역할과 기능은 무인도서 관광 활성화에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3) 조상희(2006), 생태관광지 방문 동기 및 방문기대가 관광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21권, P. 71-72.

4) 서정호·김철원(2012), 국내관광 의사결정과 미디어의 관계성 규명 :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36권 10호, P. 129-130

2. 가설 및 조사항목 구성평가

이와 같이 다양한 선행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도출한 결과로서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을 추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무인도서 관광마케팅 및 활성화와 영상대중매체의 연관성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로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H 1 : 무인도 체험의 선택요인과 다양한 욕구는 대중매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H 2 : 영상매체는 무인도의 연상 이미지와 기대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3 : 영상매체 프로그램은 무인도의 체험 형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4 : 영상매체는 무인도 체험 형태별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5 : 영상매체는 무인도 체험관광의 정보 획득 내지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자료 수집 및 측정도구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SPSS 21을 사용하여 명목형 변수와 척도형 변수, 문자열 응답을 코드 변경하여 기초통계자료를 확보하고 기술적 통계분석 가운데,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 Analysis), 선택문항의 속성상 이변량 상관관계수에 의한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KMO MSA)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을 통한 유의확률을 검토하고 추출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카이제곱 검정과 Ch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등을 실행하였다.⁵⁾

조사 분석 자료의 최종적 타당성 검증을 위해 Amos 21을 이용,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설문조사 방법

구 분	조 사 방 법
모집단	전국 일반 성인 남녀
표본	도서지역을 방문한 해양관광객
조사기간	2013년 7월 2주간 전화설문 조사 실시
표본추출방법	할당표본추출방법
설문조사방법	전화응답, 설문조사원 기입방식
설문지 배포 및 회수	총 통화수 1,500여건 중 할당 표본에 의한 500명 응답, 전화응답 즉석 회수

5) 김형서(2011), 무인도서의 인식과 관광행태에 관한 연구, 도서문화 제38권, P. 370-371.

4. 분석 결과

1)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무인도 체험 여행객이 무인도 체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체험 만족도, 재방문 의사는 무인도의 실제 체험과 현실적인 경험에 의한 것보다는 영상매체에서 접하게 되는 추상적 이미지와 기대감, 생존체험 욕구 등 심리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분석결과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 = 2.624 + 0.612F_1 + 0.246F_2$$

Y=무인도 생존체험 선택, F_1 =요인1(관광지 선택의 실제요인), F_2 =요인2(영상매체의 영향력)

〈표 2〉 요인분석 및 주성분 분석에 의한 선형회귀분석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2,624	.024		86,247	.000
	REGR factor score 1 for analysis 1		.612	.024	.587	25,337	.000
	REGR factor score 2 for analysis 1		.246	.024	.256	12,584	.000
모형	R	R_1	수정된 R_2			추정값의 표준오차	
1	.763(a)	.658	.634			.325	

a 예측값:(상수), REGR factor score 2 for analysis 1, REGR factor score 1 for analysis 1

b 종속변수: 무인도 체험만족 및 재방문 여부

〈표 3〉 내·외생 변수에 대한 주성분 분석 및 신뢰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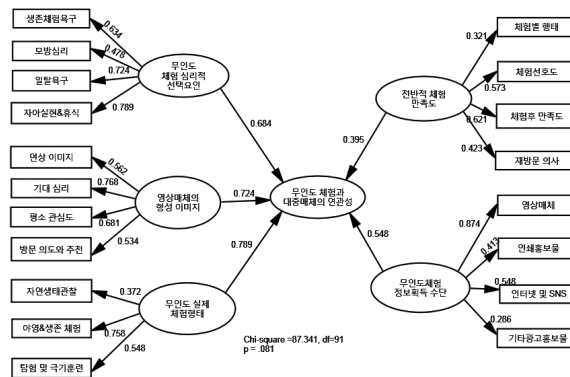
Factor	Initial parameter	Final parameter	KMO	Eigen Value	Factor loading	Chronbach's α
무인도체험 심리적 선택 요인	5	4	.713	2.14	.72 이상	.69
영상매체의 형성 이미지	4	4	.823	1.98	.82 이상	.74
무인도 실제 체험 형태	4	3	.789	2.41	.86 이상	.87
전반적 체험 만족도	5	4	.695	1.96	.83 이상	.79
무인도체험 정보획득 수단	4	4	.824	1.87	.84 이상	.91

2)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요인 분석을 통해 채택한 5개의 최종가설은 무인도 체험관광객의 심리적, 행태적 속성 요인이 영상매체의 유사 프로그램 노출 빈도와 기대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연구모형에 대한 절대적합지수와 증분 적합도 지수에 의한 분석 결과, $X^2=87.341$, $d.f=91$, $p\text{-value}=0.081$, $Q값=0.08$, $GFI=0.924$, $AGFI=0.921$, $CFI=0.941$, $RMR=0.034$, $RMSEA=0.085$ 를 갖는 <그림 1>과 같은 모형이 도출되었다.

〈그림 1 연구모형 분석 경로도〉



〈표 4〉 연구 단위들 간의 경로 관계 및 분석 결과

가설	경로 유형	경로계수	t값
H1	무인도체험 관광 선택 결정 요인 ⇒ 무인도 체험과 대중영상매체 관련성	0.684	1.153**
H2	영상매체의 형성 이미지 ⇒ 무인도 체험과 대중영상매체 관련성	0.724	0.857
H3	무인도 실제 체험 형태 ⇒ 무인도 체험과 대중영상매체 관련성	0.789	3.167***
H4	무인도 전반적 체험 만족도 ⇒ 무인도 체험과 대중영상매체 관련성	0.395	0.452
H5	무인도체험 정보 획득 수단 ⇒ 무인도 체험과 대중영상매체 관련성	0.548	0.024*

*p<0.1, **p<0.05, ***p<0.01

다음은 본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표 5〉 연구 가설 분석 결과

구분	연구 가설	결과
H ₁	영상매체는 무인도 체험 관광 선택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채택
H ₂	영상매체 속 이미지와 무인도 실제 모습의 상관관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기각
H ₃	영상 속에서 접한 무인도의 모습은 실제 체험 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H ₄	영상매체는 무인도 체험과정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 ₅	영상매체는 무인도 체험관광의 정보획득 또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III. 무인도서의 명소화 방안

무인도서의 관광활성화 내지는 명소화 방안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무인도서는 사유지로서, 섬의 소유자가 실제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이를 제지할 방법은 전무한 상황이다.

섬의 생태경관적 가치, 지질·지형학적 가치, 해양수산 자원적 가치, 관광개발 가치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와 같은 규정과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만한 우수한 경관과 접근성이 확보된 섬들은 경제적 가치에 따라 대단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실제 현장답사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아래 열거한 전남 서남권의 무인도서는 우수한 환경과 경관적 가치를 지닌 섬으로서, 본 연구자가 직접 답사하여 최소한의 개발과 이용을 통한 명소화 가능성이 높은 무인도서이며, 향후 지속가능한 무인도서 관광명소화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1) 대단도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앞바다에 위치한 대단도는 본섬과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은 매우 용이하며 2개의 섬을 산책하며 체험하는 가족단위의 관광객에게 적합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신안선 발굴지역과 인접하여 배 모양의 카페와 소규모 유적 공원 등의 관광시설이 형성되어 있다. 증도 본섬에서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 소단도와 육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뛰어난 경관을 바탕으로 관광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소단도가 이미 배 모양의 카페와 소규모 전시시설을 갖추고 있어 관광명소화가 이루어져 있고, 대단도의 리조트 건설에는 무리가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 육타리도

도서의 남서쪽으로 임자도 대광해수욕장이 있다. 하루에 2번 간조 시에 노두로 연결되어 신안 청소년수련원의 사도(沙道) 체험과 머드팩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어 관광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식생자원이 풍부하며, 3면은 암석사면의 경사가 심해 접근은 용이하지 못하나 대광해수욕장 쪽의 사면은 경사가 매우 완만하고 간조 시에 갯등이 드러난다. 섬의 북동쪽에 작은 사변이 발달하였고, 규모가 크고 지형이 험난한 도서이다.

임자도의 관광인프라를 활용한 개발이 용이하며, 친환경적인 체험형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이다. 신안군 무인도의 관광명소화 방안은 인접한 유인도 본섬의 개발 여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로서, 관광객이 집중되는 축제 기간과 하계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명소화 방안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상장고도

전남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산583에 위치한 섬으로, 북서쪽에 해안 암석 지형이 발달하였으며, 섬 전체에 식생자원이 풍부하다. 하장고도와 500M 내외에 인접하며 문장고도와 방파제로 연결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은 용이한 편이다.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지형을 보이며 동쪽 소규모 해변에 염생식물이 많이 분포한다.

또한 문장고도와 연결된 방파제 뒤편에 민가와 폐 양식장 시설이 위치한다. 문장고도의 폐 양식장을 활용한 해수풀장 내지는 머드팩 체험 개발과 상장고도의 식생자원을 활용한 해양산림욕장, 해안산책로 조성을 통한 연계개발이 가능하다. 대중매체를 활용한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험, 전통산업 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다.

(4) 대비치도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산357에 위치한 섬으로, 인접한 부속도서 소비치도 남서쪽 30M 내외의 거리에 인접해 있다. 도서 전체의 전경이 우수하나, 암벽으로 이루어진 사면은 접근이 쉽지 않다. 해조류와 어패류 번식이 왕성하며 정상부에 식생자원이 풍부하여 접근로와 등반시설을 갖춘다면, 해양산림욕장이나 주변해역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목재 데크 전망대 설치도 가능하다. 해식애와 암석의 절리 등이 발달해 있고 웅장한 경관을 보이는 도서이다. 도서 둘레의 지형에 비해 마치 정원 조경을 해 놓은 듯한 정상부의 정돈된 식생이 대조적이며 경관적 가치가 높다. 해양산림욕장의 개발 이용, 또는 경관감상 형태의 관광이 가능하다. 영상대중매체를 이용한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해초류 생존체험 등이 가능하다.

IV. 결론

본 연구는 전남 서남권의 무인도서를 찾는 해양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상대중매체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에 의해 체험 관광을 하게 된다는 가정 하에 관광객들의 인식과 관광행태 및 체험 후 만족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지역적 배경에 해당하는 전남 서남권의 무인도서는 향후 관광개발 추세에 의하면 일대 변혁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치유와 명상의 힐링(healing)에서 극복과 성취의 챌린지(challenge)로 전환되어가는 레저 트렌드를 기성세대들이 발 빠르게 쫓아가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확산일로에 접어든 이와 같은 레저 동향과 사회전반에 걸친 추세와 유행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대중매체의 속성상 자연과의 교감과 도전과 극복으로 대표되는 오지탐험과 생존체험 프로그램은 영상매체의 예능·오락 방송물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있다.

앞서 선행연구자들도 주장한 바와 같이 관광은 감성에 호소하는 이미지 산업이다. 현재 전남 서남권에 산재한 무인도가 해양 쓰레기와 폐어구 등 환경이 오염되어 친환경적인 관광목적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하나, 영상매체를 통해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여행객에게 친밀한 이미지를 전달한다면 관광명소화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향후 무인도 체험관광의 활성화라는 가정 하에 그들의 인식과 행태적 속성을 파악하여 무인도 체험 관광의 만족도 제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여 문제점을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 특히 미디어 프로그램이 관광객의 생존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검증된 절차를 통해 무인도 체험 관광객의 속성과 관광행동에 대한 보다 세밀한 상관관계 분석과 효율적인 무인도 체험 여행객의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재시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제주-완도 연계 해상관광특구 조성 방안

황 상 석 ■ 장보고글로벌재단 사무총장

1. 점-선-면 공유 패러다임 확장이론

1) 왜 점-선-면 공유 패러다임인가?

-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저성장, 높은 실업률 등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
- ICT 발달로 공유문화 확산
- SNS 등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고 협치가 강조됨
- 소비패턴이 소유를 위한 과소비에서 유희자원을 공유하는 합리적 소비

2) 공유 개발 패러다임: 점(허브)- 선(네트워크)- 면(벨트) 연결

- 지역을 발전하려면 읍(邑) 등을 점 조직화하되 지역의 허브로 육성
- 지역의 허브인 점을 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네트워크화
- 점과 선으로 연결된 것을 면(벨트)으로 입체 개발

3) 점-선-면 패러다임 적용 사례

- (1) 점포 개발의 원칙: 점-선-면 법칙

* 매장 수가 적을 때 전국 주요 지역에 매장을 개설한 뒤 각 지역의 점포를 선 으로, 면(입체)로 확장하는 전략

*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이 전략을 활용해 전국 상권 확장하고 있음

(2) 중국경제의 성장모델: 점-선-별 확대전략

단계	기간	대상지역	비고
1단계	1978~1984	농촌지역 경제체제개혁	농작물 안정적 수급(토지개혁)
2단계	1984~1987	도시지역 경제체제개혁	특구 지정(기업의 자율성 효율성 추진)
3단계	1987~	대외개방정책	연해지역중심 등 확대전략

(2-1) 중국의 점 선 면 대외개방정책

- 특구지정(点): 심천, 상해 포동특구 등
- 연해도시(線) 확대: 주강삼각주 지역협력기본협정서 체결
- 입체지역(面) 확대: 동북3성 진흥계획, 서부 대개발 추진
- * bottom -up + top down 전략 병행

(3) 한국 지역균형발전정책: 혁신도시 건설

-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이전하고 전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点)
- 혁신도시를 연결하면 전국혁신도시 네트워크 구축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발전하는 것
- (나주: 에너지 밸리 조성)

2. 제주와 다도해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현황

- 1) 제주도 1960년대부터 6차례 종합건설계획을 수립, 실천
- 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자치도)

(1) 제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01~2010년)

- ① 목표: 복합적인 국제기능의 동북아 중심도지 건설
 - 관광·휴양의 중심지
 - 첨단 산업 및 교육·의료

※ 사람,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중심도시 건설

② 제1차 국제자유도시 주요 사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시 영평동 1,098,878㎡(5800억)
- 제주헬스케어 타운
- 영어교육도시
- 신화역사공원
- 제주항공우주박물관
- 서귀포 관광미항

③ 제주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국제기구 등재

- 생물권보호지역(2002)
- 세계자연유산 등재(2007)
- 세계지질공원(2010)

※ 유네스코 3관왕

- 세계 7대 자연경관 지정

(2)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 계획(2011~2021)

① 쇼핑아울렛, 생태공원, 중문관광단지 확충, 공항자유무역지역

② 2030년 carbon free island 건설(탄소제로): 풍력, 전기차 충전,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자립.

※ 제주지역 해수온도의 연평균 상승폭: 전세계 평균의 1.5배

(3) 한국의 도서종합개발계획

① 도서개발촉진법(1986년)제정으로 다양한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② 매력적인 국토개발의 측면에서 해양자원인 바다와 섬에 대한 관심 증대

③ 유엔해양법협약(1982)제정으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관심 고조

④ 해양관광과 해양산업, 미래식량자원, 생물종다양성 등으로 바다와 섬, 개별의 가치가 증대가 증대

(4) 제주도의 가치를 증대하는 방안

① 자유국제도시인 '섬' 제주도의 정체성 확립

② 대한민국의 섬 제주도의 역할

3. 제주~완도 연계 해상관광특구 조성

1)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목표와 방향

- 2001~2011년까지 1차 종합개발계획이 끝나고 2012년부터 2차 개발계획 추진
- 경쟁력있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무비자와 무관세 등 규제완화를 통해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
- 12대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계획대비 투자실적(2012~2014: 12.9%)

2) 문제점

-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한민국 남해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에 기여하지 못함.
-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영토와 연계성이 없이 국제적인 섬으로 남아짐
- 단순히 제주는 섬의 허브로 남아지면서 투자효과가 반감됨

3) 보완

- 제주와 제일 가까운 완도를 선으로 연결하여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제주는 섬이 아닌 육지인 완도와 연결되면서 국제자유도시의 활성화 모색
- 홍콩에서 중국 본토 마카오 연계함으로써 9(남부 9개 省)+2 광역개발전략

4) 완도를 국제해양관광특구로 조성하여 線의 허브 구축

- 완도군과 전라남도가 한국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국제해양관광특구방안모색
- 제주도와 같은 연장선에서 무비자와 무관세지역으로 지정
- * 해조류박람회 참가 등 완도지역을 무비자로 여행
- 완도에 국제관광객이 관심을 끌만한 관광아이템 개발
- * 웃음 바이러스인 해학을 주제로 하는 테마파크 조성
- * 돈벌이를 주제로 하는 세계 商團 테마파크 조성
- 제주~완도를 잇는 쾌속선 1시간 운항시간 단축

4. 서울~제주(해저터널) 고속철도 망 조성

1)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건설추진위원회 구성, 세미나 개최

- 서울~제주(JTX) 프로젝트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반영 추진
-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주제발표 “타당성 갖춰”

2)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면 할수록 해저터널의 수요는 증가

- 완도군의 입장에서 해저터널 건설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역발전방안 모색
- 노화 소안 보길도가 해저터널의 중심지역으로 개발 가능

3) 완도-해남-진도를 연계하는 국제해양관광벨트 조성

- 제주와 완도를 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국제해양관광특구 지정
- 제주와 남해안 연계 관광권을 육성해야만 윈-윈 효과를 달성
- 서울~제주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해남에서 목포 연결(완도 배제)
- 해남을 포함하여 완도를 국제해양관광벨트로 묶어 부산 연계

참 고 문 헌

- ① DJ정부- 노무현, 남해안국제관광벨트 추진
- ② 이명박 정부, 남해안 선벨트 프로젝트 추진

도서해양과 관련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적 활용*

— 중국 적산(赤山) 법화원(法華院)의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

곽 수 경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1. 역사문화자원과 관광

최근의 관광트렌드는 대중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단순 유람에서 학습, 체험관광 등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향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3년 역사문화유적지를 방문한 관광객은 55.2%로서 2012년 대비 9.9%가 증가하였고 연평균 방문횟수는 2.3회였다. 그리고 76.5%가 향후 1년 내에 역사문화유적지를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2012년 보다 증가하였다.¹⁾ 또한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여행 시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물은 결과 총 7개 항목 중에서 역사문화(15%)가 3위를 차지하여 여행을 통해 관련지식을 습득하고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문화자원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과 같이 형태로 나타나는 물리적 환경요소 뿐만 아니라, 시와 소설, 음악 등과 같이 형태가 없는 비(非)물리적 환경요소로도 존재한다.”²⁾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개발우선정책 하에서 적지 않은 역사문화자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했으나 점차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현재는 발굴, 보존, 복원의 방법을 모

* 이 논문은 『동북아문화연구』47집(2016.6.30)에 수록된 논문을 요약한 것으로, 원 논문은 중국해양대학교 문학과 뉴스미디어대학의 가오려화 교수와 공동 집필하였다.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107pp.

2) 박선명·이정호(2015),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가로 정비사업의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대한민국 경관대상 수상작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제13권 제1호, 한국주거환경학회, 82pp.

색하고 있다. 역사문화자원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역사문화관광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인류의 경험과 변천 및 발전과정을 포함하는 인류문화에서 후대에 계승, 상속될 만한 가치가 있는 역사적 유적이나 유물을 관광하는 것”⁵⁾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해양과 관련된 역사문화자원은 육지와 차별성을 가지는 한편 해외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요소들이 많아 독특하고 이국적인 관광활동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중국 산둥성 위해시 석도(石島)에는 적산 법화원(이하 법화원)이라는 역사문화자원이 있는데, 이는 통일신라시기 바다를 평정했던 장보고가 세우고 일본의 엔닌대사가 머물렀던 사찰로서, 현재 중국에서 한·중·일 3국이 연계되어 있는 유일한 사찰이다. 이런 역사적 연결고리가 3국의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법화원은 2005년 본격적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관광객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개발은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법화원의 관광개발 잠재력을 평가하고 그 가능성을 고찰, 개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적 활용의 사례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법화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정량적 방법을 병행하였으며, 총 3회에 걸쳐 중국 해양문화와 해양관광학계 전문가 15명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2. 법화원 관광개발 현황

법화원은 장보고가 당나라 조정의 허락을 받아 적산포(赤山浦, 지금의 石島)에 세운 사찰이다. 적산포는 당나라 때 중요한 무역항의 하나였고 장보고가 중국에 있을 때 해상무역을 하던 근거지였다. 장보고는 해상무역의 번영을 위해 당시 신도들이 많았던 천태종, 즉 법화종으로 적산지구에 살던 신라인들의 민심을 응집시켰다. 그러나 당 무종(武宗)이 집정하면서 불교를 배척하고 도교를 권장하게 되자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845년 회창법난 때 불지가 훼손되었다. 현재 적산에 있는 법화원은 1987년 일본 학술계와 중국 위해시 영성현 정부가 합작하여 그 유적지를 확인한 후 1988년에 복원한 것으로, 1990년 5월 1일에 정식으로 대외에 개방되었다. 2002년에는 산둥적산수산그룹(山東斥山水產集團)이 총 3.2억 위안을 투자해서 면적과 시설물을 확충하여 적산관광지구를 조성했다. 그것은 법화원을 중심으로 주변에 적산 명신(明神), 장보고기념관, 적산선원(赤山禪院), 극락보살광장, 법화탑, 천문담(天門潭), 천후궁(天侯宮), 선거산장(仙居山莊) 등 10대 풍경구와 36곳의 명소를 가지고 있는 4A급관광구로, 2005년 4월 28일 개장한 후로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위해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적산관광지구가 개발된 후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위해시는 적산을 비롯한 A급 관광지구의 선전에 힘입어 관광산업이 크게 성장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위해시를 다녀간 관광객 연인원의 평균증가율은 14.08%로, 2006년 1,150.49만 명에서 2014년에는 3,288.65만 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 중에서 중국 국내 관광객은 14.14%의 증가

을을 보이며 2006년 1,130만 명에서 2014년 3,243.86만 명으로 증가하여 3배가량 늘었다. 이는 매년 위해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연인원의 98%를 넘는 수치이다. 하지만 외국관광객은 2006년 20.49만 명에서 2014년에는 44.79만 명으로 2배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아 위해시 관광객 연인원의 2%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2014년 위해시의 관광수입은 383.86억 위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13.28%가 증가하였다. 2006년에서 2014년까지 총관광수입 연평균증가율은 18.17%로, 관광객 수 증가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1인당 평균소비 또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 중국 국내 관광객으로 인한 관광수입은 2006년 94.4억 위안에서 2014년에는 368.98억 위안으로 상승하여 3배가 넘게 증가했으며 연평균 18.66%의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외국관광객에 의한 관광수입은 2006년 0.89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2.42억 달러로 상승하여 2배가 조금 넘게 증가하는데 그쳐 9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3.94%에 불과했다.

이처럼 적산관광지구가 외국관광객의 경우 수적으로나 관광수입면에서 부진함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법화원은 한국, 일본과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양국의 많은 관광객이 매년 성지순례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3. 법화원 관광개발 잠재력 평가

현지조사 결과, 관광객들의 소비지출은 대부분 입장료와 식사, 숙박, 교통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항목에서 이루어졌을 뿐 쇼핑, 레저 오락, 불법(佛法) 탐구와 같은 다른 항목에서는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법화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소비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법화원의 관광상품이 아직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교통을 비롯한 관광인프라가 미흡하며 서비스 관념과 상품의 창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풍부한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관광객들의 활동은 단순한 구경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중국의 해양문화와 해양관광전문가 15명에게 의뢰하여 법화원 관광개발 잠재력 평가지표의 항목별 점수를 측정한 결과, 아래의 <표 1>과 같이 도출되었다.

<표 1> 법화원 관광개발 잠재력 평가 결과

종합층	자원조건	시장조건	개발조건	효용잠재력	최종점수
평점	3.84	3.52	3.74	3.51	3.71

법화원은 역사적 가치가 크고 인위적 왜곡이 적으며 지명도가 있어 자원조건에서 비교적 높은 3.84점을 얻었다. 법화원은 국내외, 특히 한국과 일본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어 잠재 시장의 범위가 큰데다가 인근 지역민의 1인당 연평균 소비지출과 고정자산 투자액이 높아 시장조건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주변지역, 특히 연대(煙臺)와 청도(靑島)에 유사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위협요소이다. 가령 청도의 담산사(湛山寺), 노산도교사원(嶗山道觀), 연대의 봉래각(蓬萊閣), 남산(南山) 등은 법화원과 경쟁관계로서 관광객이 이들 지역으로 분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조건은 3.52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다. 현재 적산관광지구는 레저오락시설, 관광환대서비스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짓기 시작했다. 또한 그것의 소재지인 위해시는 경제수준과 시민의 자질이 높고 사회 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이 주된 약점이며, 관광개발기구와 인력의 부족 또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개발조건은 3.74점을 얻는 데 그쳤으므로, 좀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 관광개발 효용잠재력으로 볼 때 법화원은 보다 높은 수준의 관광개발이 가져다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인근 지역민들의 자질 향상, 해양문화자원과 불교지식의 보존과 전승 효과 등이 모두 높은 편이지만, 산업 대동 효과 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법화원의 관광개발 잠재력은 3.71점을 얻어 부분적으로는 확신해도 좋을만한 조건을 갖추었지만 동시에 문제점과 위험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4. 법화원 관광개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법화원 관광개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자원개발의 심도가 부족하다. 법화원을 포함한 적산관광지구는 대규모 역사박물관이자 생생한 동아시아 해양문화교류사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문화와 불교문화의 의미는 대단히 크지만 법화원 관광프로젝트는 아직 저급한 단계에 머물러 있고 문화적 의미를 발굴함에 있어서도 깊이가 부족하다. 현재 법화원 관광상품은 정적인 유람이 주를 이룬다. 정해진 노선을 따라 둘러보고 나면 더 이상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의 흥미를 끌기가 힘들고 재방문율이 낮으며 체류시간도 짧다. 그렇다면 관광수입, 특히 외국인들로부터 얻는 관광수입의 증가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둘째, 홍보가 부족하다. 법화원은 주산군도(舟山群島)의 보타산(普陀山)과 같은 명승지에 비해 출발이 다소 늦었고 지명도와 영향력 또한 작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네트워크 기술을 마케팅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관광시장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상업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관광종사자들의 자질이 부족하고 서비스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으며 직업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이들에 의한 강매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법화원의 이미지와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

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심도 있게 발굴한다.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관광상품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해양문화와 불교의 특색을 결합하여 문화적 내용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 가령 해양문화와 불교문화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축제, 시합, 불경학습반과 같은 다양한 체험, 당나라 사람들의 코스프레와 공연, 당나라시기를 재현한 상점 등의 관광상품 출시; 적산에서의 장보고의 활동기록과 문화유산, 관련 자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양역사문화와 불교문화 체험관을 건설, 당나라시기 적산지역의 도시모습 재현; 당나라 때 이룩했던 주변지역민들의 해상무역과 해양수배활동, 절에서의 참배와 같은 역사적 상황을 재현하여 관광객들이 해양과 불교문화를 인지하고 체득하는 공간을 확대.

둘째, 다양한 마케팅 방식을 활용한다. 법화원이 국내외 관광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청도시의 “요트의 도시”브랜드, 상하이시 난징루(南京路)관광지구의 “모던도시”브랜드, 하이난섬 썬야(三亚)의 “태양의 해변”브랜드 등과 같이 지역브랜드를 수립하고 지역문화의 특색을 구현한 명품 관광상품을 만든 다음 그것을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하고 관광기업들과 연계하여 홍보하며 대외 교류협력 과정에서 관련 홍보자료와 기념품 등을 사용한다. 국내외 주류매체와의 합작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영화, 텔레비전, 홍보대사, 미니블로그, 위챗 등 전방위적인 홍보수단을 결합하여 법화원의 관광이미지와 브랜드를 널리 보급한다. 셋째, 인적 자원을 강화한다. 관광종사자 교육과 관광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관광시장의 종합적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한다.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서비스환경 평가제도를 완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5. 나가며

이상으로 적산 법화원을 대상으로 그것의 건립배경과 관광개발 현황, 개발잠재력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이는 도서해양과 관련된 역사문화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정량적 방법과 현지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 실증적 방법을 토대로 한 사례연구로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일 관련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문제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앞 다투어 외국관광객, 특히 중국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법화원이 장보고와 엔닌, 그리고 관련 역사를 활용해서 한국과 일본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과 같은 노력을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과거에는 주로 바닷길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들과 왕래를 했기 때문에 중국, 일본과 관련이 있는 도서해양 역사문화

자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들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가령 제주도는 진시황의 책사였던 서복(徐福)과 관련이 깊은 곳이다. 그는 진시황으로부터 불로초를 구해오라는 명을 받고 제주도에 갔다가 나중에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사회 경제 발전에 큰 힘을 발휘했다고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서복은 한라산에서 불로초를 구한 뒤 정방폭포 바위에 ‘서불이 이곳을 지나갔다(西市過之)’라는 글자를 새겨두었는데, 여기에서 서귀포의 지명, 즉 ‘서복이 돌아간 포구’,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는 지명이 유래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런 까닭에 정방폭포 가까이에 서복기념관과 서복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5년 당시 중국 당서기였던 시진핑이 방문하기도 했고 그곳을 다녀가면 승진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곳이지만 한·중·일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들의 주요한 관광목적지도 아니다. 또 다른 예로 신안군 도덕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신안선 역시 한·중·일 3국이 연관된 도서해양 역사문화유적이다. 신안선 발견지점이 바라보이는 증도에 신안해저유물발굴기념비와 전시관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매력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신안해저유물과 복원된 신안선이 전시되어 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결코 단순히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관광수입을 올린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문화자원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와 의미를 알고 향유함으로써 더욱 빛을 발하고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의 관광적 활용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보존이 되어야하며, 인류의 귀중한 자산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

경남 사천 ‘지역문화로서의 해양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안 영 숙 ■ 경남문화예술교육연구소

1. 서론

본고는 서울이나 경주, 안동, 강릉, 담양 등 역사·문화적 가치를 오래 전부터 개발하고 연구하여 각 지역이 지닌 가치를 충분히 살려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함으로써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한 지역문화사 연구를 지양한다. 특히 해양문화사 연구가 지역문화사의 한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시점에서, 역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해양지역이나 해양문화의 우수성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해 개발에서 다소 소외된 지역 중심의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조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로서 해양문화의 정신적 가치 발견과 해양문화도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해양문화 연구 활성화를 기대함과 동시에 해양문화사 연구지평을 확장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며, 해양문화의 다양한 특징을 지닌 경남 사천의 지역문화사 연구에 필요한 논의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사천은 해양문화와 농경문화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한 지역이다. 지역문화로서 사천의 이러한 문화발전은 조화와 상생을 통해 화합을 추구하는 사천정신과 맞물려 있다. 특히 사천의 해양문화는 사천이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발전시키고 있는 항공도시로서의 기능 강조에 이은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해양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해양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개발하는 시점에서 사천지역 해양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은 지역이나 대상, 계층 등 향유층에 대한 차별이나 구별없는 조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지역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

로 해야 하며 유대감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천이라는 지역적 특징은 바다를 중심으로 발전한 삼천포 지역과 내륙을 끼고 발전한 사천지역이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다는 점이다.¹⁾ 이러한 특징은 도·농 통합 정책에 의해 삼천포와 사천지역이 통합되면서 자연스럽게 갖추어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공감과 유대감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앞으로 사천지역의 해양문화콘텐츠는 이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해양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개발 및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천을 만들어 온 문화적 특징을 조명하고 매향과 그 의식 중 하나였던 수륙무차대회에서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한다.

핵심어: 지역문화, 해양문화콘텐츠, 사천정신, 수륙무차대회, 구암 이정, 매향, 경남사천

2. 사천의 문화적 특징

사천시는 해양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구)삼천포시와 농경문화가 함께 발전했던 사천군이 1995년 통합되면서 단일 문화권이 되었다. 삼천포의 경우 어업을 중심으로 한 해양 산업이 발전하였으며 일제강점기 때는 서부경남 지역 생산 물자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한편 사천지역의 경우 항공 산업 전문 공단이 조성되면서 첨단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문화 역시 양 지역 산업 발전과 함께 다양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보니 삼천포 지역과 사천지역이 각기 다른 형태의 문화가 발전해 왔으며 다양한 민속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듯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지역 고유의 인문정신과 해양문화유산이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 지역이 서로 독자적인 문화가 발전하면서 지역의 전통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선시대 영남학의 한 맥을 형성해 온 퇴계 이황의 제자이면서 남명 조식과의 학문적 교류로 하였던 구암 이정의 선비정신이다. 특히 사천지역은 구암 이정의 선비정신을 이어가는 전통문화가 계승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암 이정의 사상적 전통을 유지 계승하는 구계서원 중심의 선비정신 계승과 사천향교와 곤양향교 중심의 유교문화 계승이다. 사상적 전통 계승과 달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는 농경문화와 해양문화의 특징을 지니면서 전승되었다.

남강 지류를 중심으로 발전한 농경문화는 농민 중심으로 유지·전승되었는데 곤명 조장 모심기 노래와 가산오광대에 그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해양문화는 어업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역의 어민 중심으로 유지·전승되었으며, 삼천포 마도 지역 갈방아어요와 서동일대에서 행해지는 풍어제 등의 민속을 통해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민속은 수륙무차대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매향의식 행위 과정을 복원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수륙무차대회와 매향의식은 신라말기부터 이 지역에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1) 류종목에 의하면 사천은 내륙성과 해양성, 역사적으로 왜와 맞선 최전선지역이었다. 류종목(2007), 「동제의 전승 양상과 전승의식-경남 사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6』, 한국민속학회, p.169.

것과 무관하지 않다.²⁾ 남방 불교가 이 지역에 유입되고 다솔사 등을 중심으로 불교문화가 융성했기 때문에 불교를 통해 국난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지역이었다. 그래서 매향의식과 함께 수륙무차대회는 특정 종교적 신념과 호국이라는 국가적 이념이 합쳐진 전통문화유산이고, 농경문화의 집단성과 해양문화의 염원성이 응축된 문화가 함축되어 있다.

사천의 매향비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고 삼천포와 사천 지역에 각각 1개씩 양분되어 있어서 양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기 쉽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는 경남의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문화유산으로 양 지역이 하나의 문화권이었으며 동일한 신념하에 의식이 행해졌음을 의미 한다. 매향은 침향 즉, 향을 강이나 바다에 묻어 두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불교적 세계관으로 내세에 미륵의 세계에 태어날 것을 기원하는 종교적 신념에 연원한다. 매향비는 이것을 염원하면서 세운 비석으로 삼천포 향촌동의 경우 바위에 새겨져 암각화 형태로 남일대 해변에 위치해 있다. 반면에 사천 흥사리 매향비는 비석형태로 전남 신안 암태도 매향비와 달리 돌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³⁾ 특이한 것은 삼천포 지역의 매향비에는 수륙무차대회를 언제 열었으며 참여 계층이 누구이며 몇 명 정도가 참석하였는지 정확한 날짜 기록과 참가 인원이 새겨져 있다는 점이다. 이 기록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됨은 물론 해양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지금은 매향 행위를 할 때 함께 진행되었던 의식이 이 지역에서 온전히 복원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수륙무차⁴⁾대회와 함께 성스럽게 행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수륙무차대회는 이후 이 지역 어민들의 공동체 의식이었던 풍어제와 동제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 지역에서만큼은 미륵세계에 가고자 하는 모두에게 길이 열려 있는 평등 정신을 보여 주고 있다. 결국 사천정신의 핵심은 구암 이정의 애민정신과 매향 의식 과정 중 하나였던 수륙무차대회 등에 나타난 평등정신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천지역의 해양문화콘텐츠 개발에는 이러한 의식을 살리는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2) 사천 사람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최송량의 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천인의 품성은 신라말기부터 조선조 초기까지 왜구의 한반도 침입은 인재, 문화, 예술, 도자기 기술, 식량 등의 약탈에 주안점을 두고 수백 년간 만행을 이기는 지혜를 기루어 나갔으며, 고려 말의 70년 동안 왜구의 침입이 경상도에만 97회에 달했으니 당시 사천사람들은 왜구의 시달림”에 고생이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따르자면 자연스럽게 저항의식이 생겼으며 자신의 고장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지닐 수밖에 없었다. 최송량(2005), 「사천의 역사와 문화의 특성을 찾아서」, 경남향토사연구협의회(2005), 『경남향토사논총 15』p. 154.

3) 우리나라 매향비는 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발견되었으며 주된 분포지는 충남과 전남이다. 그 대표적인 것은 강원도 고성 삼일포 매향비(1309), 평안도 정주 매향비(1335), 강원도 삼척 맹방 매향비, 충남 당진 해미 매향비(1427)·당진 안국사 매향비·덕산 매향비, 전남 영광 법성포 매향비(1371)·해남 장군바위 매향비·신안 암태도 매향비(1405)·장흥 매향비(1434)·영암 암각 매향비(1344), 인천 십리포 매향비, 사천매향비(1387) 등이 다.

4) 무차는 차별이 없다 뜻으로 불교 경구로 주로 사용되었다. 수륙무차대회는 수륙제와 같은 의식으로 조선 전기에 외부로부터의 우환없이 무탈하기를 바라며 동시에 민심을 달래기 위해 치러진 중요한 의식이었다. 수륙제 의식인 수륙무차대회는 ‘우주 공간에 널리 퍼돌고 있는 有主, 無主 혹은 有住, 無住 孤魂을 극락왕생 하도록 천도한다는 데 목적을 둔 불교의례’였다. 고상현(2011), 「고려시대 수륙제 연구」, 『선문화연구』10권 0호, 한국불교선리연구원, pp.2-3

3. 해양문화 정신으로서의 애민사상

사천지역의 해양문화 정신은 구암 이정의 애민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구암 이정은 조선 시대 유학자로 관포 어득강⁵⁾에게 처음으로 수학(修學)했을 것이라 유추를 하고 있다.⁶⁾ 구암 이정의 학문적 경지를 높이는데 영향을 준 인물은 대체로 관포 어득강, 규암 송인수, 퇴계 이황, 남명 조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정의 연구에서는 이들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⁷⁾ 지금까지 구암 이정⁸⁾의 사상적 연구는 대체로 퇴계와 남명의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사천정신의 핵심사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의 영향에 대한 연구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조명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1994년 이전에는 그의 연구가 전무한 상태였으며 사천문화원 주관으로 그의 연보를 발행하면서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문학, 역사, 철학 영역에서 학계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⁹⁾ 본고는 이정의 애민정신이 해양도시인 사천 해양문화정신의 핵심임을 파악하고자 한다.

영천군수 시절 퇴계의 제자가 된 이정에 대한 평가는 청주목사 시절 선정을 베풀어 명종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는 기록, 순천부사 시절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순천지방 제지사족들이 선정비를 세웠다는 기록, 경주부윤 시절 흠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지방사족들의 자녀 교육을 권장하고 무열왕릉과 김유신 장군의 묘를 수리하고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 등에서 알 수 있다. 그의 행적이 단순히 선정을 베풀었다는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옛사람이 이른바 곧 하늘에 하소연하고자 하여도 할 곳이 없다’하여 역사적 사실 보존에 노력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는데 역사에 대한 가치와 의미, 후대에 대한 교육과 그 필요성, 유적지의 소중함에 대한 철저한 인식은¹⁰⁾ 그의 애민사상의 핵심이다. 특히 사천 구암으로 돌아와 후학을 양성함으로써 인재양성을 게을리 하지 않는 목민관의 태도를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것들에서도 그의 애민사상을 엿볼 수 있다.¹¹⁾ 그렇기 때문에 사천정신의 모태는 이러한 구암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의 사상적 연구를 통한 철학적 조명이거나 문학적 가치 구명이 아니라 구암이 지닌 정신적 사상이 지역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여 그것이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문화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양문화콘텐츠로 개발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자 한다.

5) 경남 진주출신으로 대사간을 지낸 조선 중기 명사이다.

6) 이세동(2009), 「퇴계학과 유교문화」44권,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p. 269.

7) 이세동(2009), p. 266.

8) 이정은 1512년인 중종 7년에 사천에서 태어나 1571년인 선조 4년에 사망한 조선시대 유학자이며 목민관이었다. 특히 규암 이 사천으로 귀양 와 있을 당시 이정은 학문적 영향을 받았다. 강구율(2006), 「龜巖 李楨의生涯와 詩世界의 몇 局面」, 『우리문학연구』20, 우리문학회, pp. 7-8. 목민관으로서는 영주군수, 선산군수, 청주목사, 경주부윤, 순천부사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병호(2008), 「龜巖 李楨의 愛民詩에 대하여」, 『동양예학』18권, 동양예학회, p.227-243

9) 姜玫求(2002), 「龜巖 李楨과 四川 晉州地域의 退溪學派」, 鄭羽洛(2003), 「『中庸』이 龜巖 李楨의 文學에 미친 影響」, 崔英成(2003), 「龜巖 李楨의 學問과 朝鮮儒學 史上的 貢獻」 등, 강구율(2006), pp.5-6.

10) 강구율(2006), p. 16.

11) 구암의 애민사상 조명은 강구율(2006)에서도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4. 민속문화 속의 해양정신

사천의 민속문화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 근본적인 바탕에는 해양의 특성을 살린 공동체 의식이 내재해 있다. 특히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피하고 만선의 풍어를 기원하는 의식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특정 시기에 용왕제를 지내고 별신굿을 지내기도 하였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에 절대적으로 자연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신앙에 의지하여 극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매항과 수륙무차대회는 이러한 산물로 이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문화에 속한다. 특히 사천만은 남강에서 유입되는 강물이 바닷물과 합쳐지는 지역으로 농경문화와 해양문화가 공존하며 두 문화 사이에는 이 지역 정신의 근간이 되는 민간신앙이 있다. 여태껏 학계의 사천 문화 조명은 주로 지질 조사와 지역의 주된 산업 중심이었고 문화와 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조명은 초기 단계이다.

사천만에 위치한 곤명지역은 남강과 합류하는 지역으로 조장모심기가 전해지는데 이 모심기 노래는 두레와 품앗이 등으로 모심기 때 불려온 농요이다. 지금은 기계화로 모심기노래도 민속문화의 한 영역으로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콘텐츠이다. 해양문화의 특징이 오롯이 바다만을 터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농경문화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조장모심기는 기존의 해양문화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사천지역의 문화는 농경문화의 집단정신과 해양문화의 실용정신이 함께 어우러져 발전하면서 해양문화사의 핵심인 ‘사천정신’을 형성하였다.

5. 사천 해양문화콘텐츠 전승과 개발

사천은 남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이미 오래 전부터 해양문화가 발전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해양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이다. 그 대표적인 곳이 늑도인데 남한에서 최초로 낙랑토기가 발견된 것은 물론 패총에서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어 청동기시대부터 삼한시대 이행기까지의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주거지도 발굴되는 등 그 사료적 가치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섬 전체가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었다.¹²⁾ 특히 중국은 물론 일본과도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다양한 토기를 비롯한 유물들이 대량 출토되어 이 지역이 서부경남 해양문화의 대표적인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¹³⁾ 또한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해안선을 역지로 가공하거나 개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해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다. 사천의 이러한 해양 문화 자원은 그 자체로 가치를

12) 2003년 국가지정 사적 제 450호

13) 2000년 7월 동아대 박물관 유적 발굴팀에 의해 발굴된 것들은 중국계 경질토기, 일본계 야요이토기, 점토대 토기 및 반랑전, 오주전과 같은 중국 동전 및 한(漢)나라거울 등 1만3000여 점에 달하는 유물들이다.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던 매항이나 수륙무차대회 역시 해양문화를 대표하는 콘텐츠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어서 향후 해양문화사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사천지역이 이러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였지만, 문화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하려는 의도에 그다지 부합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문화상품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 등의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 문화콘텐츠’인데¹⁴⁾ 아쉽게도 해안선을 따라 둘레길 형태의 조성은 전국 대부분의 도시들이 지리적 특성과 역사성을 살려 조성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은 발견하기 어렵고 창의적이지도 않다. 그렇다면 해안문화콘텐츠 개발 역시 제한적이거나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천해전은 주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조명되거나 정보를 얻는 실정이다 보니 사천해전 당시 모습을 재현하거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체험 위주가 아니라 걷기 열풍에 힘입어 해안을 중심으로 둘레길을 조성해 둔 정도이다. 최초 거북선길이라고 이름만 명명했을 뿐 막상 현장에는 이순신의 가치 조명도 없으며 최초 거북선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요원한 상황이고 단지 팻말 하나 뿐이다. 즉 스토리텔링이 빠져 있어서 효용성이나 예술성, 대중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문화콘텐츠는 역사인물 고려 현종 부자상봉길과 구암 이정을 중심으로 한 선비정신의 계승일환으로 마련된 과거시험의 재현이다.

향후 사천지역이 해양문화가 지닌 가치를 재맥락화하고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이미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문화상품을 따라 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원형으로 남아있는 해양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스토리텔링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천만이라는 바다에서 행해졌던 수륙무차대회와 매항의식이다. 수륙무차대회와 매항이라는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하여 지역민에게는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고 관광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성대한 의식의 복원이 가능하다. 향후 일반 대중들이 침향에 참여할 수 있는 매항행위를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참여형 축제로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때 따르는 의식행위로 수륙무차대회를 함께 한다면 한다면 예술성은 물론 창의성과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까지 확보할 수 있어서 사천이 해양문화콘텐츠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전략적 접근을 통해 개발하기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6. 결론

현재 사천시의 문화콘텐츠 개발은 해양 관광자원을 활용한 축제와 항공산업 자원을 활용한 축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최근 들어 이 지역의 인문자산을 활용한 지역 이미

1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조 2호.

지 재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려 현종이 이 지역을 사주라는 명칭을 부여했다는 점과 왕이 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부자상봉길 코스를 개발하였으며, 사주 천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 하나는 항공산업이 발전한 지역으로서 문화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항공우주박물관과 항공우주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민속을 주제로 한 콘텐츠는 다른 축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향후 사천의 해양문화사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사천의 문화적 특수성은 해양문화콘텐츠 개발에서도 중요한 사료이면서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지역 문화산업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기존의 해양문화콘텐츠 개발은 주로 관광산업 중심의 육성이었으며 생산되는 수산물의 판로 연계 중심의 축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접목할 수 없었다. 반면에 다변화와 다양화를 겪는 현대는 지역의 문화유산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을 시대에 맞는 상징성을 부여함으로써 이질적인 민속이나 고답한 과거 사상에 머물지 않게 할 수 있다. 사천의 해양문화가 지닌 가치는 해양 자원이 지닌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을 주도하는 문화산업 영역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참 고 문 헌

- 강구울(2006), 「龜巖 李楨의生涯와 詩世界の 몇 局面」, 『우리문학연구』20, 우리문학회.
 고상현(2011), 「고려시대 수록재 연구」, 『선문화연구』10권 0호, 한국불교선리연구원, pp.1-49.
 류종목(2007), 「동제의 전승 양상과 전승의식-경남 사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6』, 한국민속학회, pp. 169-205.
 이세동(2009), 「퇴계학과 유교문화」44권,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정병호(2008), 「龜巖 李楨의 愛民詩에 대하여」, 『동양예학』18권, 동양예학회, p. 228.
 최송량(2005), 「사천의 역사와 문화의 특성을 찾아서」, 『경남향토사논총』15, 경남향토사연구협의회.

신라방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박 재 완 ■ 남도 마실길 대표

나는 우연한 기회에 2003년에 발간 된 황석영의 “심청”을 본다. “소설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석에 몸을 판 심청전의 심청을 모티프로 삼고 있긴 하지만 정작 소설 속의 심청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효녀 심청과는 전혀 다르다. 같은 점이 있다면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중국 상인에게 팔렸다는 것 정도. 소설 속의 심청은 인당수에 빠지는 시늉만 한 후 중국의 부호 첸 노인의 회춘을 돕기 위한 첩실로 팔려간다. 그 후 청은 몸을 팔며 살아야 하는 운명에 순응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 다양한 터전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 렌화, 로터스, 렌카. 그녀가 가지게 되는 이름만큼이나 파란만장한 그녀의 삶은 혼란하고 어려웠던 시기, 억척스럽게 살아야했던 우리네 여인들을 떠올리게도 하지만, 그래도 그 뿐이다.”

그리고 엉뚱한 환상에 빠져 든다. 심청을 배에다 싣고 항해를 했던 사람들이 장보고의 846년 암살이후 851년 청해진이 해산되자 김제로 강제 이주 되고 많은 유민은 신라방으로 간다. 신라방 사람들의 후손들이 아닐까, 그리고 554년 후 정화가 이끄는 첫 원정대에 참여했던 후손이지 않을까 하는 상상으로 들어간다.



1405년 영락제 3년에 현재 상하이 부근의 류지아항(劉家港)에서 1차 원정대의 규모는 대함선 62척의 범선이 웅장함을 자랑하며 병사를 싣고 전투 기능을 지닌 마선(馬船), 식량운반을 담당하는 양선(糧船), 물을 실은 수선(水船) 등으로 병사 2만 7800여 명의 병사들이 웅장한 보선(寶船)을 바라보며 사기가 충천하여 함성을 지른다, 선박의 길이가 44장(丈; 약 137미터), 폭 18장(약 56미터)에 대함선이기 때문이다.

소주(蘇州)거쳐 함대는 지금의 베트남 중부 다낭근교 참파와 수마트라를 거쳐 팔렘방, 말라카, 실론 등의 항로를 거쳐 1407년 초췌 인도 캘리컷(Calicut)에 도달했다. 함대의 목적은 항해하여 도착하는 나라에 대하여 명나라에게 조공을 요구하는 일과 남방 지역의 문물 등을 가지고 돌아오는 일이었다. 말라카 해협을 해적 진조의(陳祖義)라는 중국인을 붙잡아 일시 귀국하였다. 이 항해를 통해 명나라와 교류가 없던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차례로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1407년 9월 귀국한 정화는 얼마 뒤 재출발 명령을 받아 연말에 제2차 원정을 떠나게 되었다. 항로는 전과 같았지만 이번에는 시암(타이)과 자바 섬 등을 거쳐 캘리컷에 도착했다. 귀환 중 스리랑카 섬 갈(도시)이란 곳에중국어, 타밀어(현지어), 페르시아어(당시 국제어) 등 3개 국어로 쓰여진 비석을 세웠다.



1409년 여름에 돌아온 정화는 다시 출발 명령을 받고 연말에 제3차 원정을 떠났다. 이번에도 캘리컷에 도달하고 돌아오던 중 스리랑카 섬의 현지 왕이 정화의 배에 실려 있던 보물을 강탈하기 위해 공격했다. 정화가 반격하여 그 왕과 그 가족을 포로로 잡아 1411년 7월에 귀국했다.

3차례 대원정은 거의 같은 항로를 유지했지만, 4번째 원정은 약간 시간을 두어 1413년 겨울에 출발했다. 이번에는 좀 더 서쪽으로 나아갈 생각으로 준비가 더 필요했던 것이다. 캘리컷에 도달한 후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해 페르시아 만의 호르무즈와 아라비아 반도 남쪽의 아덴에 도달했다. 귀환 중 수마트라 현지 국왕의 요청을 받아 병사를 움직여 반역자를 토벌하고 1415년 7월에 귀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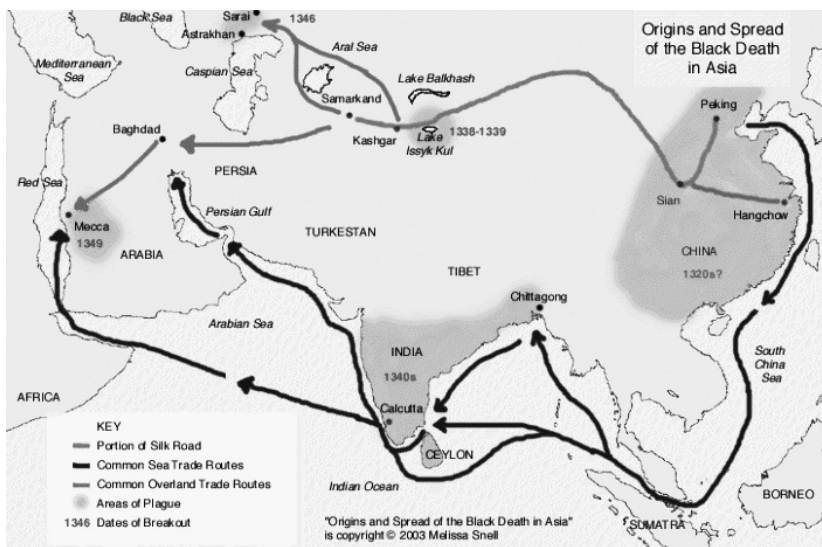
5번째 원정은 1417년 겨울에 출발해 본대는 4번째 원정처럼 아덴까지 도달했으나, 도중에 나뉜 본대는 아프리카 대륙 동쪽 해안의 말린디에까지 도달했다고 전해진다. 1419년 8월에 귀국할 때 사자, 표범, 얼룩말, 코뿔소 등 진귀한 동물을 데리고 돌아왔다.

6번째 원정은 2년후 1421년 2월에 있었으나,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조공을 바쳤던 각국의 사절을 돌려보내기 위한 것이 임무였다. 항로는 동일했고, 1422년 8월에 귀국하였다.

정화의 해외원정은 영락제 시기에 6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영락제가 죽은 후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그의 손자인 선덕제(宣德帝) 시대에 다시 부활해서 1433년 7번째 원정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 대항해에 대한 기록은 제4차 원정과 제7차 원정 때 동행했던 마환(馬歡)의 《영애승람》(瀛涯勝覽)과 비신(費信)의 《성차승람》(星槎勝覽), 공진(鞏珍)의 《서양번국지》(西洋番國志) 등의 견문지가 현재까지 남아 있으며, 1930년 푸젠성(福建省) 창러현(長樂縣) 남산사(南山寺)에서 발견된 석비 「천비영응지기(天妃靈應之記)」가 알려지게 되면서다, 「천비영응지기」

의 천비란 바다의 여신인 마조(媽祖)를 뜻한다. 바다를 생계로 삼는 어부나 배를 띄워야 하는 선원들은 바다에 나아가기 전에 마조의 가호를 빌었다. 이 비석에도 정화가 마조가 보내준 신병(神兵) 덕분에 해적을 소탕하고 항해를 무사히 마쳤다고 하며 여신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비석은 마지막 원정을 앞둔 1431년에 세워진 것으로 이전의 6차례에 걸친 원정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정화는 총 7차례에 걸쳐 현재의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인도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총 30여개국을 방문하였다. 매번 항해할 때마다 말라카를 거쳤는데, 말라카는 태평양과 인도양의 교통 요충지로 정화는 이곳에 정박해 물품을 보충하고 선박을 수리하였다.



장보고는 당나라에는 대당 매물사(大唐賣物使)라는 물건 구입자, 즉 수입상인들을 ‘교관선’이라고 부르는 무역선에 실어 파견하였다. 그리고 당 제품뿐만 아니라 구수(絨; 페르시아산 담요)·자단(紫檀; 자바 등의 향목)·침향(沉香; 수마트라산 향료) 등 동남아시아와 아라비아산의 고가 사치품을 수입하여 신라 귀족들에게 팔았다. 물론 신라의 여러 가지 물품들도 당에 수출했다. 그런가 하면 선단을 거느린 채 일본을 직접 방문하였고, 현재 규슈의 후쿠오카시에 지점을 설치하고 회역사(廻易使)라는 무역선을 보내어 사무역도 하고, 심지어는 공무역까지도 시도하였다. 『속일본후기』에는 ‘번외의 신라국 신하인 장보고(張寶高)가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올렸다’라고 한 대재부가 중앙정부에 올린 글이 있다. 물론 ‘인신(人臣)은 국가간의 교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장보고 선단을 홍려관(鴻臚館) 인근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러는 한편 일본 정부는 장보고가 파견한 회역사(廻易使)들이 교역하러 온 ‘당국화물(唐國貨物)’을 민간인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매매하도록 대재부에 지시하고 있다. 장보고는 현

실적으로 신라 정부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자기가 운영하는 무역선을 보내어 축전(筑前)의 국수(國守)와 직접 교역했다. 신라 상인과 교역이 이루어진 것은 일본 조정의 필요도 작용한 것이었다. 이렇게 장보고는 청해진을 일종의 자유무역항으로 만들어 재당 신라인과 본국 신라인을 동시에 관리하고, 역할분담을 조정할 수 있었다.

장보고 선단 등 신라 상인들의 활발한 무역활동 때문에 일본에서는 무역역조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났다. 그럼에도 이들이 아니면 일본은 당 등 국제사회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연결을 가질 수가 없었다. 견당사를 파견하는 일도 사실상 정지되었으므로 신라 상인들이야말로 고립된 섬나라를 국제사회에 연결시키는 데 중요한 존재였다.

뛰어난 조선기술을 바탕으로 주변국과 교류한 백제 한반도 남서부의 넓은 평지를 차지할 만큼 국토가 가장 넓었다. 내륙의 수상교통 발달은 백제가 서해와 남해를 통해 탐라국(제주도)·일본·중국과 해상 교역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백제는 한강, 임진강, 금강 등 넓고 긴 강이 고구려, 신라보다 많아 화물을 내륙이나 해안으로 운반하는데 수상교통을 이용했다. 이러한 내륙 수상교통의 발달은 백제가 서해와 남해를 통해 탐라국·일본·중국과 활발하게 교역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백제인들은 노와 키, 돛이 달린 해양선을 타고 황해와 남해를 건너 중국과 일본으로 건너갔다. 당시 백제의 조선술은 중국, 일본보다 훨씬 앞섰다

백제인들은 해외 바닷길도 발 빠르게 개척했다. 백제 사람들은 신라보다 훨씬 먼저 배를 타고 황해와 남해를 건너 중국과 일본으로 진출했다. 백제는 육지를 통해서 중국과 문화, 경제를 교류하려 했으나 고구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따라서 일찍부터 서해안과 내륙의 큰 강에서 익힌 수상교통기술을 바탕으로 삼아 1세기경에 백제의 상인들과 유민들이 서해를 건너 상해 앞바다에 있는 주산군도로 진출해 중국으로 드나들었고, 제11대 비류왕(304~343) 때는 본격적으로 노·키·돛이 달린 해양선을 타고 주산군도로 대거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백제인들은 이렇게 주산군도를 거점으로 정하고 백제와 중국 사이를 왕래하는 황해 교통로를 개척했다.

제21대 개로왕 18년(472)에는 고구려의 침공을 막기 위해 원군을 청하려 북위(北魏)로 사신을 보낼 때도 고구려가 막아 육로로 가지 못하고 서해를 건너갔다는 기록도 있다. 더불어 백제가 일찍부터 바닷길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항해술과 해양선을 만드는 조선기술이 아울러 발달했기 때문이다.

백제가 일찍부터 바다교통을 개척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항해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는 왕인 박사가 3세기말에 떼배를 이용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엔닌 일기에는 ‘백제의 해민(海民)들은 방향과 거리를 계산해 항해하는 지리항법, 밤에는 별을 보고 방향을 잡는 관측성항해법, 흐린 날 지남부침(指南浮針)이라는 나침반을 이용하는 항해법으로 바다를 건넜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아시아 티-세라믹로드에 대한 고찰

김 대 호 ■ 중국 광서사범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8세기는 신라의 대당무역이 새로이 활기를 띠던 시기였다.

대당교류에 적극적이었던 성덕왕(702~737)의 정책과 신라의 항해술과 조선술의 발달이 근간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장악하고자 했던 장보고의 야심과 안정적인 통치자금의 확보가 필요했던 성덕왕이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이에 따라 외교사절과 상인, 유학승과 학자 등의 왕래가 잦아지고 당 문화가 적극적으로 수입되었는데 두드러진 것은 차와 도자기, 서책 등이었다.

차와 도자기는 선불교 전래와 차 문화의 향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으며 서책은 당시 승려와 학자들이 불법(佛法)과 선진 학문을 학습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있다.

차를 주로 음용한 집단이 선승들이었지만 그 문화를 가능케 한 것은 장보고로 대표되는 해상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유계층을 동반한 차 문화 형성을 비롯해 청자로 대표되는 다도구의 수입과 활용, 차의 유통과 판매 등은 장보고 시대가 낳은 역사적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

Ⅱ. 티-세라믹로드의 형성과 발전

성덕왕은 신문왕의 정책(식읍제한, 관료전지급, 녹읍폐지)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일반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고, 왕비를 교체하는 등 귀족세력에 대항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는 중앙정부와 정치적 관계형성이 필요했던 장보고에게는 절호의 기회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합은 중계무역 거점이었던 청해진의 역할에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 즉 수입을 통한 중계무역과 자립생산을 통한 직무역을 병행 하는 형태로 기능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자립생산을 통한 직무역 체제를 갖춘다는 것은 중국에 의존해 왔던 상품 공급망이 이원화 되는 것을 의미하며 소송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비용절감의 효과까지 더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세력화를 위한 안정적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거니와 차와 도자기, 서책은 당시 주요한 교역 품이었으며 소비유발 효과가 컸다. 서책은 그 특성상 수입에 의존해야 했지만 도자기는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설비를 갖추면 되었으며 차는 우수한 종자의 수입해 재배하면 될 일이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던 청자의 직접 생산이 시작되었다. 장보고는 5~6세기경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청자를 신라말기인 8~9세기경 강진군 대구면 일대에서 자립생산하기 시작했다. 당나라 청자산지에 노예로 끌려가 도자기 제작기술을 배운 신라인들이 자립생산의 주역이 되었다. 이렇게 생산된 도자기는 중국도자기를 대신해 일본에 수출되거나 중국으로 역수출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 사학자인 요시오카 간스케의 “후쿠오카 일대에서 출토된 해무리굽 청자 파편들에 사용된 흙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강진군 대구면 일대에서 생산된 것”이라며 “9세기 이 일대에서 생산된 청자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¹⁾는 분석했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도자기뿐만 아니라 차의 재배와 생산에 있어서도 일대 변화를 일으킨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흥덕왕 3년(828년)조에는 “당나라에서 돌아온 사신 대렴(大廉)이 차 종자를 가져오자 왕이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 이미 차는 선덕왕(632~647) 때부터 있었으나 이때에 이르러 성행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는 한반도로의 중국차의 전래에 대한 시배의 관점에서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중국의 우수한 차나무를 국내에서 재배하기 위한 경제학적 관점과 원예육종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삼국사기 외에도 한반도에 차가 자생하고 생산되었다는 유추가 가능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본서기에는 ‘긴메이 천황 13년에 백제 성왕(523~554)이 담해화상 등 16명의 승려에게 불구(佛具)와 차를 일본에 보내 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동대사 요

1) 한·중·일 ‘해무리굽 청자’의 비밀 장보고 무역활동 보면 풀린다. 중앙일보 2009. 10월6일자

록(東大寺要錄)에는 ‘백제 귀화승인 행기(行基 668~749)가 차나무를 심었다.’ 라는 기록돼 있다.

따라서 대림이 중국차의 종자를 심고 재배하였다는 것은 신라정부가 기존의 한반도 자생 종과 차별성이 있는 우수한 차엽의 생산을 통한 차의 자립생산체제 구축을 도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한반도의 주요 차산지와 차 문화의 형성지가 영산강, 만경강, 탐진강, 섬진강 등 해상교역로와 이어진 나주·무안, 부안·정읍, 강진·장흥, 구례·하동 등 신라의 육상루트와 상당 부분 일치하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교역로를 중심으로 차와 관련된 도자기산업이 형성되고 발전해 왔다는 특징도 간과할 수 없다. 더불어 장흥군 보림사의 보조선사창성탑비(普照禪師彰聖塔碑)와 하동 쌍계사의 진감국사대공탑비(眞鑑國師大功塔碑) 등에 나타난 다양한 기록물과 사찰문화, 구전문화, 후대로 이어진 백성들의 제도와 음용문화 등도 있다.

장보고는 대당 중계무역과 청자의 자립생산을 통한 직무역의 병행으로 청해진을 거점으로 한 육·해상 티-세라믹로드를 구축해 막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확보했으며 838년(희강왕 3) 중앙정부의 왕위쟁탈전에 개입해 서라벌에 군대를 파견할 정도로 막강한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당과 신라, 왜 등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육·해상루트를 실크로드의 연장선으로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독자성을 확보한 동아시아 티-세라믹로드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Ⅲ. 나오는 말

동아시아 육·해상교역로를 동아시아 티-세라믹로드로 명명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신라 말 문화형성과 소비시장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차 문화와 산업의 태동과 발전을 대중국 교류의 산물로 볼 것인가 토착성에 기반 한 주체적 수용으로 볼 것인가의 성격규명과 관련이 있다. 이는 차 문화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진세력의 등장과도 연결되어 있다.

동아시아 티-세라믹로드를 새로운 연구과제로 제시하는 것은 8세기 해상교역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사회적 변화와 문화의 형성이 나름의 독자성과 자주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고자 함이다. 당의 비단길, 명의 바닷길은 중국 중원에서 서쪽으로 진출을 꾀한 것이었으며 한반도와 일본 등 동아시아를 향한 해양교역로와는 그 역사적 배경과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중일 해상교역로에 대한 연구는 방대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육상루트를 통한 토착화 과정과 산업화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 지지 못했다.

티-세라믹로드의 키워드로 해상교역로와 이어진 육상교역 루트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주변 지역 환경의 변화와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 것은 인문학의 새로운 과제일 것이다. 특징적인 인문학적 자산, 문화예술의 차별성, 산업의 성장과 쇠퇴 등도 주요한 연구 과제 일 것이다.

동아시아 티-세라믹로드가 향후 한반도의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근대해양선박여행의 정치적 심상지리

—인도양횡단과 경유지 체류를 중심으로—

차 혜 영 ■ 한양대학교

1. 문제제기—식민지시대 유럽항로 인도양과 여행기

2. 출발전—식민지 조선인 서구로 가는 행정적 물리적 절차

1) 이동의 네트워크와 조건— 1919년 이후—

통신, 세계체제, 소식의 세계적 동시성—

이 시기는 동아일보, 개벽, 조선일보 등 1920년 문화통치의 시작과 함께 열린 언론매체에 외신뉴스가 항시적으로 다양 게재된 상황. 이 외신 뉴스는 국제통신사를 통한 뉴스배급. 해외 각지에서 동경으로, 동경의 전통(덴츠. 電通- 현 광고회사, 통신사로 출발)을 통해 당시 경성의 언론사로 송신된 뉴스기사. “~~발”이라는 표시는 이런 경로를 통해 들어온 소식들이 세계, 일본이 거의 동시적으로 공유된 상태임을 표시한다.

-본고에서 취급하는 여행기들 즉 식민지 시대 공론 매체에 연재된 여행기들이라는 조건에서 본다면, 여행기가 씌어지는 조건, 언론 매체에 게재된 조건, 여행이루어지는 조건 자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인가 친일인가로 획일될 수 없는 일본이라는 국민국가 시스템, 언론미디어(공론장)이라는 형식적 조건, 그리고 일본 외무성 발부 여권

을 소지하고 세계로 나간 조선인이란 행정, 물질, 정체성의 조건에서 식민지, 국민국가(제국), 세계(서구-1차대전 이후 독립한 신흥국들의 증가 및 세계열강 시스템 - 베르사이유 체제-위싱턴 체제)가 복합적이고 횡단적으로 만나는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19년 이후 서구 여행자의 여행기들은 일본 여권사용자들의 여행기가 절대다수를 이룬다.(예외적으로 30년대 중반 상업적 대중잡지들에서 회고기가 언급될 경우-) 실시간 현재로 여행하는 상태를 전보통신(무선통신)을 이용해 경유지와 선박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등으로 “~형에게”라는 서간문 형식으로 보내는 발신한 기행문들은 당대 현재, 공식 언론매체, 일본 여권을 통해, 검역소, 세관, 출국신고 등을 거치고, 경유지마다 역시 여권, 세관, 검역소를 거치고 이동하는 상태였다.

-여권

식민지 시대 한국인의 해외로 나간 경우, 식민지 초기 해외무장투쟁을 위한 국외 탈출, 간도와 상해, 미국 등지에서 독립운동, 그리고 1차대전 종전후 피리강화회의 참여 등을 위한 서구행 등의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구한국시대의 여권을 사용하거나 혹은 상해에서 유법장학회 등을 통한 중국여권 사용, 또는 무국적으로 미국입국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회고담과 독립운동사 속에서 간헐적으로 언급될 뿐이다. 그러나 1919년이후 서구여행은 철저한 일본여권(총독부 여권) 시대로 확고해진다. 1차대전 강화된 국가간 여권 절차 속에서, 그리고 1920년대 초반 이후 미국의 배일이민법안 발효와 함께 일본의 서구로의 여행은 제도적 절차가 구체화되어 적용된다.

-즉 1차대전 후 이루어진 국가간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세계체제내에서 일본 국가, 혹은 일본령 소속국으로서의 국적성을 갖는 개인이, 여권, 통신, 환전, 선박 및 해상경찰서를 통과하는 것이 이시기 국제여행의 기본적 물질적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여행이 개인적 여행에 국한되지 않고, 이 시기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성립된 식민지 공론장 내에서 이 국제적 이동(사실, 의미, 이미지, 공통의 환상과 의미감각)이 실시간적으로 통신 네트워크와 미디어공론장을 통해 공유되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여행자들의 여행기는 이 두축 즉 1-1)“세계자본주의 국가간질서 및 1-2)이 체제 내 국민국가 일본이라는 물질 기반”과, 2)“식민지 한글 공론장에 보내는 여행기”라는 다른 축 사이에서 길항했다. 특히 유럽항로가 필수적으로 경유하는 경유지들-상해, 영국령 식민지들,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둘러싼 ‘바다 소유권의 역사’를 통과하는 여행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심상지리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2) 여권의 수급의 구체적 절차

- A 국내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1937년 미국행 여권신청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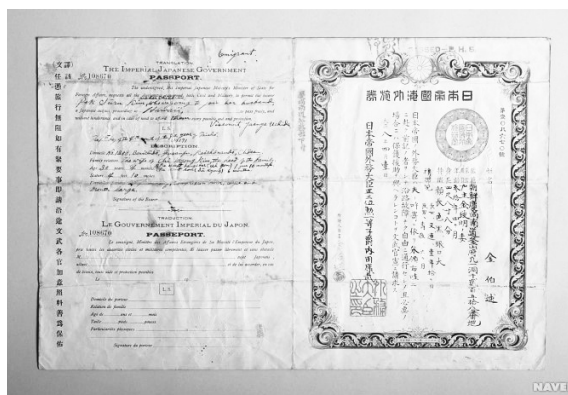
外國旅券下附願書(외국여권하부원서)에 重要書類(중요서류)를 紹介(소개)하면 外國旅券下附願書一通(외국여권하부원서일통), 學資保證書一通(학자보증서일통), 米國大學入學許可書一通(미국대학입학허가서일통), 本文(본문), 譯文一通(역문일통), 民籍藤本一通(민

적등본일통), 身元保證書一通(신원보증서일통), 健康診斷書一通(건강진단서일통), 寫眞二通等(사진이통등)에 書類(서류)가 必要(필요)하다. 數日內(수일내)로 모든 書類(서류)를 作成(작성)하여 外事課(외사과)에 申請(신청)했다 그러나 때가바로 北支事變(북지사변)으로 困(인)하여 旅券(여권)이나오기前(전)까지는 누구에게라도 알리지 안기로하였다.

--정보나-太平洋橫斷記(태평양횡단기)(동아일보 1937. 10. 22)

B.일본유학생- 제국대학 졸업직후, 독일유학을 위해 여권을 신청한 경우-1921. 김준연
경도서 동경으로 돌아오자마자 길야(吉野)박사에게 그 의향을 말하였더니 동박사는 대찬성이었습니다. 그리해서 여행권은 자기가 극력 주선하겠다고 외무성 통상국장에게 소개장지를 하여 주었습니다. 외무성에 가서 통상국장을 방문하고 독일유학하겠다는 희망을 말하고 미국행여권으로 말하면 소위 신사협약이라는 것이 있어서 미국서 일본인을 잘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여권주기가 대단히 어려우나, 歐洲諸邦으로 말하면생활비보장만 있으면 용이히 내주겠고 물론 조선사람이라는 이유로서 차별적 대우는 하지 않겠고 또는 다소간 요시찰인이라던가 무엇이라던가 해서 주의하는 인물이라도 상관없이 여권을 하부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함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동경부 외국 여권계에 여권 하부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일정한 형식 소정원서에 민적등본 한 장과 자기의 최근 사진 두장을 첨부하는 것이올시다. 만일 학비를 자기 집 외에서 지출하다면 학비보증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경성서 제출하려면 경성부에 제출하고 각 지방에서 제출하려면 도 경찰이나 혹은 경찰서에 제출할 줄로 생각합니다. 원서를 제출하고 이틀만에 여행권을 얻었습니다. 여권에는 목적국 급 경과 제지방 소속국 영사의 이서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데 불란서 영사의 이서를 받으려면 민적등본 한 장과 여권에 첨부한 것과 동일한 사진 두장이 필요합니다.1921.12.15.-독일가는길에(1)

C. 여권의 예시



*1919년 식민지시대 김백술(金伯述)이 사용한 여권.한문, 영어, 일어 작성. 일본제국외무대신의 관인이 찍혀있다. 출처-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유물번호-해사02(해사02) 980023-000

3. 출발지- 출발지로 도착하기까지-(경성)-(부산)-(동경/오사카)-코오베

여권을 손에 쥐고 대망의 유럽행이 시작된다. 그럼 어디로 갈까? 국제선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식민지 조선은 국제항구는 없었다. 부산 인천 어디에서도 조선에서 곧장 서구로 가는 항로는 없었다.(각- 부산항 국제항 논의 사례) 먼저 관부연락선을 이용해 일본으로 가서 국제선 선박에 탑승해야 한다.

1) 화려한 송별회-조선에서/동경에서-계정식

2) 관부연락선 -부산항

-(일본행)도항증명서 여부- 필요한 조선인 노동자, 필요없는 지식인(학생증 대체)

김선기- 遊區途中記(유구도중기)印度洋(인도양)에서동아일보 1934. 08. 02

.... 釜山(부산)에 맞습니다..... 埠頭(부두)에 가니 수없이 모이는 同胞(동포)들이 水上警察署(수상경찰서)의 앞에 渡航證明書(도항증명서)를 얻으라고 長蛇陣(장사진)을 치고 있더라. 그들은 情(정)든 故土(고토)를 버리고 玄海灘(현해탄)을 건느라하는지 兄(형)이여 우리는 잘아지 안습니까.... 民籍藤本(민적등본)이 없어 渡航證明書(도항증명서)를 얻지못하여 얼굴이 흙빛이 되어 해매는 光景(광경)도 보았습니다.

3) 일본 내 경유지 관광

관부 연락선은 부산과 하관(하관) 즉 시모노세끼를 연결하는 연락선이다. 부산을 출발한 관부연락선은 시모노세끼(하관)에 도착하고, 대부분 동경행 기차를 타고 가게된다.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동경까지 가서 횡빈(요코하마)에서 태평양횡단 선박을 이용하고, 유럽으로 가는 경우 코오베(신호)항에서 출발하는 프랑스 마르세이유항 도착 선박을 이용하기 위해 일단 오사카(대판)으로 가게된다. 유럽으로 가는 사람들도 일본 내 유학생동료, 지인들이 있는 동경을 거쳐 다시 신호(시모노세끼)로 가서 유럽행 배를 타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에서 출발해서 파리 소르본느 대학으로 유학가는 김선기의 경우는 동경을 거치지 않는 일본내 경유 노선을 보여준다. 경성과 부산을 거쳐 관부연락선으로 신호(시모노세끼)를 거치고, 코베에서 출발하는 유럽행 선박의 선표 구입이후 선박의 출발일까지 남은 몇일은 주로 오사카에 머물게 된다. (태평양의 경우 요코하마 출발의 경우 동경에 머문다). 이 경우 오사카는 일종의 경유지 관광에 해당된다. 김선기의 경우, 3일간의 오사카 경유기간 그는 大阪城(대판성)을 구경하고, 坂急百貨店(판급백화점), 익일 유락장에서 다카라즈카공연寶塚少女歌劇(보총소녀가극)과 레뷰공연을 본다.

“天龍寺船(천룡사선)”이라 歌劇(가극)과 “사랑의 왈츠”란 오페렛과 “小鍛冶(소단야)”란 舞踊劇(무용극)과 “칼바날”이란 레뷰이었습시다. 레뷰 “칼바날”을 보고는 나는 좀 앓듯한 생각이 납습시다. 大體(대체) 저러케 어여쁜 아가씨들이 무엇이 할 일이 그리 없기로 별거벗고 춤추는 것을 일삼을고 하고 홀로 대답을 구하지 못하여 애를 찻습시다...조선의 靑年男女(청년남녀)들 중에도 저것을 조아 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겟지 하는 생각을 하니 더욱 근심스러웠습시다.

-1934.10.1.

- 경유지로서의 일본: 관서, 관동/ 유럽행(인도양)과 미국행(태평양)의 차이

4) 고베항의 출발

--神戸(신호)에 갑니다. 먼저 阜頭(부두) 가까이 있는 郵船會社(우선회사)에 가서 京城柳韓洋行(경성유한양행)에서 假船票(가선표)와 船票(선표)를 바꾸는 同時(동시)에 船室寢床番號(선실침상번호)를 알아드립니다. 다음에는 或路中(혹로중)에서 英領地(영령지)에 상륙하려면 英領事館(영영사관)의 査證(사증)이 必要(필요)하다하는 말을 들었으므로 郵船會社(우선회사)에서 얼마 아니되는 英國領事館(영국영사관)에 가서 査證(사증)을 一圓(일원) 주고 맡아드립니다...

--이 글은 김선기가 출발전날 오사카에서 코베항으로 와서 출발을 위한 절차를 밟는 이야기이다. 코베항 부두의 우선회사에 가서 가선표와 선표를 바꾸는, 즉 예약티켓을 실제 탑승권으로 바꾸고 배의 좌석을 배정 받는 것이다. 그리고 중간 경유지 상륙하기 위한 상륙허가 비자를 발급받는다. 여기서 영국영사관에 간 이유는 중간 경유지가 홍콩, 싱가포르 등 영국령이기 때문이다.

4. 선상 체험

이렇게 장대한 이별을 마치고 배가 출발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상생활, 바다위의 삶이 시작된다. 유럽 마르세유항까지 40일의 항해기간을 살게 될 배는 하나의 작은 나라, 작은 도시, 세계경제체의 축소판이다. 그 선박위의 삶을 보자.

1) 3등실로 여행한 언어학자 김선기

--兄(형)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배야말로 徹底(철저)한 階級制度(계급제도)의 權化(권화)가 아나오니까. 모든 것이 金錢(금전)에 依(의)하야 規定(규정)됩니다....船室(선실)의 크기와 裝備(장비)한 器具(기구)와 노는 噐(기)와 食堂(식당)과 食事(식사)와 食事時間(식사시간)과 스모킹룸(노는방)과 이밖에 모든 것이 하나도 等級(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또 第一(제일) 밑으로 이밖에도 噐(기)는 大概(대개) 印度(인도)사람들인데 三等(삼등)噐에서 食事起居(식사거거)를 하고 배에서 주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지어먹어야 되지요. 大概(대개) 찜가풀이나 피낭에서 타가지고 콜롬보에가서 나립니다.

2) 2등실로 여행한 음악가 계정식- 1926.7.20.

船中生活(선중생활)은...내가탄二等船客(이등선객)을表準(표준)한것이요一等客(일등객)은더사치할줄안다)

船室(선실)은約四疊半假量(약사첩반가량)이요壁(벽)에依(의)하야上下二段(상하이단)에”벳드”... 鏡臺(경대)달닌洗面臺(세면대)가二個(이개)..... 此船室外(차선실외)에는食堂(식당) 喫煙室(깍연실) 浴室(욕실) 便所(변소)가附設(부설)....散步(산보)하는甲板(갑판)... 此室(차실)은喫煙室(깍연실)이라고하나 或(혹)은談話室(담화실)도되고 或(혹)은 書齋(서재)도되고 餘興場(여

흥장)도 되는 고로늘분주... 早朝七時(조조칠시)에는"뽀이"가 도스트빵과 珈琲(가배)를가져오는데 ...洗手(세수)를마추고 寢衣(침의)를洋服(양복)으로바꾸아납고喫煙室(깍연실)에서小憩(소계)하면 八時銅鑼(팔시동라)를 울니게되는故(고)로 全部食堂(전부식당)에會合(회합)하야 早飯(조반)을먹게된다...喫煙室(깍연실)에모혀各其娛樂(각기오락)으로碁(기) 將棋等(장기등)을하는이도있고甲板(갑판)에서散步(산보)하는이도있다 每日曜日(매일요일)에는午前十時(오전십시)부터 ㄸ | 트操練(조련)이라하는 避難練習(피난연습).... 早食後(조식후)어물어물하면 點心(점심)이되고 三時(삼시)에는 紅茶(홍차)와菓子(과자)...

3) 선박의 다양한 문화행사

4) 선상에서의 교류- 다국적 교류의 이모저모

5. 해양 여행, 국제선 선박, 통신네트워, 경유지 환전- 독일행 유학생 김준연의 경우

1) --통신-1922.2.4

李兄(이형)!“카이로”에서“포트싸의드”로 오는 汽車(기차)안에서日本總理大臣原敬氏(일본총리대신원경씨)가暗殺當(암살당)하였다는 電報(전보)를 當日埃及新聞紙上(당일애급신문지상)에서發見(발견)하였습니다. 또 배에 도라와서 우리와갓치 愉快(유쾌)히 埃及旅行(애급여행)을 맞치고도라온吹田教授의 慈堂(자당)이 別世(별세)하셨다는電報(전보)를보았습니다. 何如間日本은그 自己의最愛(최애)하는慈母(자모)를 일했습니다

2) --경유지 관광위한 통신- 1922.1.31. 수에즈운하 통과시 이집트 경유관광 준비와 통신네트워크

고륄모(석란도의 고륄모: 스리랑카의 콜롬보)를 떠나서 여러날 지난뒤에 비로소 애급 가보자는 의론이 모모한 유지자 간에 시작되야 서 20여명의 찬동자를 얻었습니다. 그러함으로 즉시 무선전신으로 소사항 일본우선회사대리부에 교섭해서 애급입국의 절차와 가차의 형편이며 여행의 난이 등 제반사를 물었습니다. 하였더니 여행권만 있으면 애급 들어갈 수 있다는 간단한 답신이 왔습니다. 하였으므로 다시 전보하기를 도합 30명이 갈 터이니 기차며 여관이며 자동차며 제반사를 주선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소사항에는 원래 무선전신의 설비가 없고로 배에서 발하는 무선전신은 알렉산드리아항을 경유해서 소사항에 전달되고 소사항에서 발하는 전보는 역시 알렉산드리아항을 경유해서 본선에 감응됩니다.

3) --환전

李兄(이형)!.... 우리가 旅行(여행)하는데 第一不便(제일불편)한생각이나서 못견대는 것은 各國貨幣制度(각국화폐제도)가 달은것이 올시다

...貨幣制度(화폐제도)가달은데말아서時勢(시세)에變□이잇는故(고)로잘못하면크게損害(손해)를當(당)하는일이만히잇습니다 門司港(문사항)을척떠나면貨幣(화폐)가발서달으니

다 上海(상해)의 大洋(대양), 小洋(소양), 香港(항양)의 佛(뽕), 新嘉坡(신가파)의 佛(불), 古倫母(고윤모)의 留(유)(루피), 埃及(애급)의 “리라”等(등)모도달읍니다.... 英貨(영화)와 日本貨(일본화)를 現金(현금)으로가지고오는것이 第一便利(제일편리)합니다 萬一日本(만일일본)서 英貨(영화)를사지못하겠거든 그것을걱정할것업시 日本貨(일본화)를 그대로 가지고오면 各港(각항)에서 英貨(영화)로박굴수가잇습니다어데서박구던지 最終은 英貨(영화)로박구는것이 第一便利(제일편리)합니다.

<이하의 논의>

6. 경유지

- 1) 공통 경유지 -일본선박과 프랑스선박
- 2) 프랑스 선박-베트남 경유지
7. 경유지 체험의 다양한 실제들
8. 결론

전통소금 ‘자염(煮鹽)’의 복원과 활용사례

정 지 수 ■ 태안문화원 사무국장

자염(煮鹽)이란 한자로 끓일 ‘자’(煮), 소금 ‘염’(鹽)자를 써서 바닷물을 끓여 만드는 우리나라의 전통 방식의 소금을 말한다. 흔히 지역에서는 화염(火鹽)이라고 불렀는데, 일제강점기인 1907년 인천의 주안 염전을 시작으로 들어온 천일염에 밀려 195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소금이다.

그렇게 잊혀가던 자염을 태안지역에서 50여 년 만에 되살리게 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이미지로 정착시킬 뿐 아니라 ‘자염’이라는 상품이 다시 시중에 유통되면서 잊힌 전통의 맛을 되살리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자염은 단순히 바닷물을 끓이는 것이 아니라 잘 말린 갯벌 흙에 바닷물을 투과시켜 엉겨 있는 소금알갱이를 녹인 염도가 높은 물인 함수(鹹水)를 끓이는 방식이다

바닷물을 끓이면 소금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옛 사람들에게는 더욱 많은 소금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바닷물을 직접 끓이는 방법은 땀값이 많이 소비되는 반면 생산되는 소금의 양도 매우 적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나무는 중요한 연료의 수단이였기 때문에 많은 나무를 소비하면서 적은 양의 소금을 채취하는 것은 당시로써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고안된 방식이 ‘통조금’과 ‘갈개조금’ 방식으로 함수의 염도를 높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갈개조금’ 방식은 단순한 방법으로 조금때 수일간 갯벌을 갈아 말린 흙을 육지로 옮겨온 다음 바닷물을 강제적으로 투과시켜 염도 높은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다.

태안에서 주로 재현한 것은 ‘통조금’ 방식인데, 갯벌 가운데 함수(鹹水)¹⁾를 모으는 웅덩이를 파고 조금²⁾ 때를 이용하여 중앙에 통³⁾을 설치한 다음 웅덩이의 흙을 통 주변에 펼쳐놓고 물이 닿지 않는 기간 동안 갯벌이 잘 마르도록 소(牛)를 이용해 써레질하여 말린다.

이렇게 수일간 갯벌 흙을 잘 말린 다음 다시 흙을 웅덩이에 밀어 넣으면 사리 때 바닷물이 그곳에 스며들어 염도가 높은 물이 중앙에 묻혀 있는 통속에 모이게 되는데, 다시 조금 때가 돌아오면 통속에 고인 물을 퍼서 가마솥에서 솔가지 불로 8시간 정도 끓여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러한 통조금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다. 자염 제조에 적합한 장소는 모래가 약간 섞인 갯벌 흙과 조금(조수간만의 차이가 적은 기간) 때 약 7~8일간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갯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7~8일 이상 바닷물이 닿지 않는 갯벌은 거의 사라졌다. 대부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에 모두 간척사업으로 천일염전이나 농토로 변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경제 원리를 떠나서 문화적으로 자염을 재현하려 해도 크고 작은 간척사업으로 인해 자염을 재현할 수 있는 갯벌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과거 태안군에도 200여 군데의 자염 생산 터가 있었으나 50여 년 전에 모두 사라졌다. 그래서 태안문화원은 사라진 자염을 되살리기 위해 수년간 갯벌을 찾기 시작했고 2000년 태안군에 남아 있는 유일한 자염 터인 근흥면 마금리 낭금 갯벌을 발견하고 당시 자염 생산 과정을 경험한 몇몇 노인들을 참여시켜 2001년도에 자염을 다시 살려낸 것이다.

애초 ‘자염’의 복원은 순수한 우리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증하고 재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올바른 소금역사를 찾아내고, 자염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갯벌을 보존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자염을 만들 수 있는 ‘낭금갯벌’을 문화원에서 ‘공유수면 점용허가(9,000㎡)’를 받아 공개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사실 자염이 만들어지는 갯벌은 해발 고도가 여느 갯벌보다 높아서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바지락’, ‘낙지’, ‘굴’ 등의 서식조건으로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그리 중요한 자원이 아니므로 비교적 수월하게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염 재현을 통해서 이곳 ‘낭금갯벌’은 자염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갯벌인 동시에 중요한 생태계 자원으로 꼭 보존해야 할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태안문화원은 2001년도부터 2015년까지 ‘자염’ 재현사업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자염 축제를 포함한 다양한 2~3차 연계 문화사업과 상품이 파생되었다.

태안의 자염 축제는 오지 작은 갯벌에서 재현된 작은 행사로 태안지역의 특별한 문화관광자원으로 상품화되었고 ‘자염축제’와 ‘자염도구’, ‘자염이미지’를 활용한 지역마케팅의 수

1) 염도가 높아진 바닷물

2) 바닷물이 적게 들어오고 적게 나가 조수 간만의 차이가 적은 시기(음력 보름과 그믐의 사이 기간)




3) 말뚝을 동그렇게 박아 중앙에 함수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단으로 활용되어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염 재현행사 등으로 방송 매체, 도서 및 어린이 교재 등을 통해 넓게는 한국의 소금역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파하고 ‘태안자염’이라는 상품으로도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또한, 자염의 복원에 따른 문화적 이미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지역사회의 가치로 주목받고 새로운 문화상품을 계속해서 파생시키고 있다.

표1. 태안자염의 복원에 따른 활용사례

활용사례	이미지	내용
‘자염’ 재현 축제개발		2000년 옛자염터 ‘낭금갯벌’ 발견 2001년 전국 최초로 자염재현 2001~2014 자염축제개최 2001년 자염재현축제 개최 태안의 새로운 축제개발 전통소금문화의 올바른 교육 독창적인 축제로 인기 프로그램
		소금고사, 길놀이, 갯벌공연, 통자락만들기, 갯벌 말리기, 간수나르기, 뚝연기, 소금굽기, 소금수확, 수차체험, 갯벌체험, 갯벌놀이터, 수차돌리기, 갯벌 소달구지타기 등 2015 갯벌휴식을 위한 축제중지
지역 특산물 개발 (상품개발)		영농조합법인 설립 ‘소금굽는 사람들’ 상품개발 - 태안지역의 소금산업 활성화에 기여 태안의 대표 특산물 - 310g, 500g, 10kg 포장상품 슬로우푸드 ‘맛의 방주’ 등재

활용사례	이미지	내용
반도의 역사 '소금마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원 연합회 공모사업 '2003년도 역사 마을 만들기 사업 - 마금리 재현지역에 소금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 자연을 재현할 수 있는 갯벌 3,000평을 '공유수 면점용허가'를 받아 보존 및 관리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교육도서·아동도서·잡지등 을 통한 브랜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에게 쉽고 친근하게 자연과 국내 유일하게 자염갯벌이 보존된 태안을 홍보 - 상업용 어린이 교육도서에 태안문화원 제공 이미지 사용 (사진 및 감수 태안문화원) - 지역의 문화적 가치 향상 - 자연을 소재로한 만화책제작
박물관·전시회 를 통한 활용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2011. 태안문화원 소장자료)  국립중앙과학관특별전 (2008. 태안문화원 소장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올바른 소금문화에 대해 전국에 홍보 및 교육 - 태안의 문화적 가치 상승 - 태안문화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 태안과 타 지역의 문화교류 증가 - 자연관련 도구와 유물 활용 - 국립해양박물관이미지제공 - 인천시립박물관 도구대여 - 전남문화의 해 특별전 -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 등의 각종 전시회에서 태안의 자연이미지와 도구 전시

활용사례	이미지	내용
영화·방송을 통한 이미지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염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보급 - 영화 식객 2 '김치전쟁' 배우 '김정은' 자염제조 전과정재현- KBS 다큐멘터리 '잊혀진 맛의 신비 자염' 다큐멘터리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시사 교양프로그램, 소금과 관련된 방송물 등 2013년도 '자염축제' 방송내용 EBS 역사채널e '잃어버린 소금' TJB 8시뉴스 8월4일 촬영 TJB 생방송 투데이 대전 KBS 다정다감 MBC 공감특별한 세상 대전 MBC 생방송 아침이 좋다 테마뉴스기행탐사 총칭 대전 KBS 라디오주사위 대전 MBC 라디오특급작전
		
'태안소금명품화사업' 활용		타부서의 지원사업인 '소금명품화사업'의 전통성 강화를 위한 연계사업 실시 (농협중앙회, 농협연합사업단, 태안군청 농정과, 서해안우리소금영어조합법인) 자염 이미지를 활용한 태안소금 이미지 개선사업 자염축제를 통해서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소금 홍보 축제를 통한 태안관광홍보 방송을 통한 언론매체 홍보 마을주민참여를 통한 재현기술확보 자염관련 필요도구 확충
남금 갯벌보호 계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 점용을 통한 개발방지 자염의 재현과 휴식을 병행 자염을 재현할 수 있는 유일한 갯벌 향후 '자염'의 무형문화재 지정검토 남금갯벌의 기념물 지정도 필요

지오투어리즘을 적용한 여수시 낭도의 자연관찰로 개발

이 정 훈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서론

전라남도는 2015년부터 도서지역 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전라남도, 2015; 전남일보, 2015년 2월 27일). 여수시 낭도는 본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개발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여수시, 2015). 이러한 배경에는 낭도와 주변 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이 일대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 화석 등 자연사 유적이 있기 때문이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시행 과정에서 협력이 중요하다. 본 연구 목적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지오투어리즘을 적용한 낭도 자연관찰로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6월과 2016년 5월에 걸친 현지답사와 주민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자연관찰로 코스를 설정해 보았다.

낭도의 자연환경과 지역개발에 관한 선행 연구로서 전남대학교.전라남도(1999)의 전남 도서 해안지역 지질환경연구와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여수시(2002)의 여수 공룡화석지 종합학술조사 그리고 In Sung Paik et al.(2006)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전남 도서와 여수지역 인근 도서들의 지질·지형 경관 및 공룡화석지에 대한 기초 연구로 그 활용가치가 높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이정훈(2011, 2012a, 2012b, 2014)의 여수 도서지역 생태관광 개발 및 지오투어리즘에 관한 연구는 도서지역 지질·지형 경관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으로서 대안관광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낭도 관광마을 조성과 관련한

이정훈(2016)의 연구는 ‘가고 싶은 섬’ 사업과 관련한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향후 본 사업 추진에 관한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개발 사업의 구체적 프로그램으로서 지연관찰로 개발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낭도의 특성

1) 일반현황

낭도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남쪽으로 약 26.2km 떨어져 있는 섬으로서(그림 1) 그 모습이 이리와 흡사하여 이리 낭(狼)자를 써서 낭도(狼島)라 한다(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1982). 섬 동쪽에 낭도산(상산)이 있고 대부분 낮은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다. 낭도산은 해발 고도 280.2m의 육산으로 중생대 백악기 화성암인 산성 화산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해안은 소규모의 만과 곶으로 이뤄져 있다. 만입부는 대부분 사빈해안이고, 남쪽 돌출부에 암석해안이 발달해 있다(디지털여수문화대전).



[그림1] 연구지역

자료: 이정훈(2016)

낭도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2008~2017)으로 적금도 및 조발도와 연도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낭도

주민들의 일반적 특성은 총세대수 181세대로서 총주민은 302명(2015년 5월)으로 남자 134명, 여자 168명으로 여자가 많으며, 이중 70대 이상의 인구는 139명으로 전체 인구의 46%를 차지하는 초고령 마을이다(표 1). 행정구역으로 1개의 법정리(낭도리)가 있으며, 행정리로서 낭도의 여산리와 규포리, 사도의 사도리가 있다.

표 . 낭도 현황(2014년)

가구수(호)*				인구(명)			경지면적(m²)*			어업면적(ha)	
농가	어가	비농어가	계	남	여	계	논	밭	계	어장	양식장
129	44	81	254	134	168	302	1,443,180	155,524	1,598,704	80	70

자료: 여수시 화정면사무소(*) 표시는 사도리 포함 수치임), 이정훈(2016)

2) 지역 관광자원

(1) 자연경관 자원

낭도의 관광자원은 천연기념물 제434호로 지정(2003년)된 공룡 화석지(전남대학교 한국 공룡연구센터.여수시, 2002) 및 해안지형 경관과 당제 등 무형문화자원이 주를 이룬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자원으로 자연경관 자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정훈, 2016).

낭도에서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연경관은 해식애와 사빈·역빈 같은 해안지형과 공룡발자국 화석, 그리고 퇴적암 층리 등이 있다(이정훈, 2012a).

(2) 민속문화 자원

낭도의 민속문화로서 당제는 여산과 규포 마을에서 전승되어 왔는데, 현재 규포 당제는 10여 전에 중단되고, 여산 마을 당제만 계승되고 있다.

여산 당제는 당산 할아버지와 당산 할머니를 모시는데, 예전에 윗당 1곳과 아랫당 2곳이 있었지만 현재는 윗당만 지낸다(여수시, 2007).

3. 낭도의 자연관찰로 개발

일반적으로 농어촌지역은 일반관광지와 달리 여가와 휴양의 영역이 관광의 영역과 잘 어

우리지는 곳이다(Williams, 1998). 낭도의 자연관찰로는 넓은 의미의 지오투어리즘¹⁾을 적용하여(박민영, 2012; Hose, 2007), 환경부(2012)의 기준에 근거한 4개 코스를 설정하였다. 선착장을 기점으로 공룡화석지와 지층노두 및 사빈을 관찰할 수 있는 남부해안 코스와 중생대 지층노두와 해식지형을 관찰할 수 있는 서부해안 코스, 간석지와 어촌체험을 할 수 있는 북부해안 코스 그리고 낭도 일대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상산 코스 등이다. 각 코스의 특징과 탐방 기대효과 및 보존상태, 개선점을 고찰하면 <표 2>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각 코스에서 실시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부해안 코스는 선착장에서 여산마을 노거수까지 이동하여 마을 관계자로부터 여산 당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을이 입지한 산세와 주변 지형에 대해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낭도 사빈이 있는 폐교지까지 이동하여 사빈지형의 변화와 폐교 활용 현황에 대해 주민 대표로부터 청취한다. 낭도 등대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주변 공룡화석지와 지층 노두에 대해 관찰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듣는다. 이 코스는 전문해설사에 의한 지오투어리즘 안내가 필요한 곳이다.

둘째, 서부해안 코스는 선상투어를 통해 낭도 선착장에서 ‘탑고지’까지 왕복하는 코스다. 이를 위해 관광객의 수요가 있을 시 항시 운항할 수 있는 선박 운항체계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곳은 서쪽 일대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해식애를 따라 나타나는 노두에서 층리가 발달한 사암, 실트스톤, 셰일 등을 관찰할 수 있다(전남대학교, 전라남도, 1999).

셋째, 북부해안 코스는 규포 마을을 중심으로 어촌 체험관광²⁾과 갯벌 체험이 주를 이루며, 어촌의 문화와 지역민의 삶을 이해하는 활동이 중심이 된다.

마지막으로, 상산(낭도산) 코스는 탐방로를 따라 중생대 백악기의 응회암류를 관찰할 수 있으며, 탐방로 주변의 야생화 관찰 및 주변 도서 조망, 정상까지 트레킹 활동이 핵심이 된다.

표 2. 낭도의 자연관찰로 구성

자연관찰로	지오사이트	탐방 기대 효과	보존상태 및 개선점	탐방 시간
남부해안 코스	여산 당산나무	여산 당제 이해와 민속문화 보존	당제와 관련한 해설판 설치 요망	30분
	낭도 사빈	인위적 요인에 의한 해안지형의 변화 이해	사빈 모래 유실 발생, 해안 쓰레기 청소	30분
	장사금 사빈	사빈의 형성과정 이해	해안 쓰레기 청소	30분
	공룡발자국 화석지	중생대 지층노두 이해	화석지 보존 방안 및 탐방로 개설 필요, 해설판설치 요망	40분

1) 지형·지질자원을 바탕으로 생태학적·역사적·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지오투어리즘을 의미한다.

2) 어촌체험 프로그램으로 후리그물치기, 개매기, 바지락 채취 등이 있다.

자연관찰로	지오싸이트	탐방 기대 효과	보존상태 및 개선점	탐방 시간
서부해안 코스	중생대 지층 노두	지층의 기반암과 암석조성의 이해	선상투어 필요	20분
	암사 역빈	역의 원마도와 입경 특징 관찰	해안 쓰레기 청소	40분
북부해안 코스	간석지	간석지의 특징과 이용	보존 상태 양호	30분
	규포 마을	마을의 유래와 역사, 어촌체험	해설판 설치 필요	30분
상산 코스	상산 정상	낭도의 산지 특성 이해	정상 봉화대 정비 요망	2시간
	조망 포인트	주변 도서 분포 관찰	쉼터 정비 요망	

4. 결 론

본 연구는 지역주민 참여 사업으로서 지오투어리즘을 적용한 자연관찰로 개발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지오투어리즘을 적용한 낭도의 자연관찰로는 환경부 기준에 의해 4개 코스로 설정할 수 있었다. 공룡화석지와 지층노두 및 사빈을 관찰할 수 있는 남부해안 코스와 중생대 지층노두와 해식지형을 관찰할 수 있는 서부해안 코스, 간석지와 어촌체험을 할 수 있는 북부해안 코스 그리고 낭도 일대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상산코스 등이다. 지역의 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한 개발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의 문화와 전통, 자연경관을 이해할 수 있는 자연관찰로 개설은 매우 중요하다. 낭도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인프라 건설이 미약하여 많은 관광객을 방문케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각 자연관찰로 코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가고 싶은 섬’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해설(전남일보, 2015년 6월 10일)이나 관광안내 등이 수반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 역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민영, 2012,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여수시, 2007, 여수의 향기 아름다움이 여기에(여수시 관광자원 해설서), 이레기획, 51-54.
 여수시, 2015,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여수 낭도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주민설명회 자료), 1-31.
 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1982, 여수.여천향토지, 동광인쇄공사.
 이정훈, 2011, 지형 특성에 기반한 여수시 사도일원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구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6), 738-752.
 이정훈, 2012a, 지형 특성에 기반한 여수시 도서지역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훈, 2012b, 여수시 금오도의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3), 336-350.

이정훈, 2014,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백도코스의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3), 282-299.

이정훈, 2016, 도서지역 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여수시 낭도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1), 86-101.

전남대학교·전라남도, 1999, 전남 도서 해안지역 지질환경연구, 127-128.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여수시, 2002, 여수 공룡화석지 종합학술조사, 전남대학교출판부.

전라남도, 2015,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 1-26.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지침.

Hose, T.A., 2007, Geotourism in Almeria Province, southeast Spain, Tourism 55(2), 259-276.

In Sung Paik.Min Huh.Kye Hun Park.Koo Geun Hwang.Kyung Sik Kim.Hyun Joo Kim, 2006, Yeosu dinosaur track sites of Korea: The youngest dinosaur track records in Asia, Journal of Asian Earth Sciences 28, 457-468.

Stephen Williams, 1998, Tourism geography,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2-5.

전남일보, 2015년 2월 27일, "전남도 '가고 싶은 섬' 6곳 선정... 관광자원화".

전남일보, 2015년 6월 10일, "나주시민들 우리지역 관광, 우리가 해설사죠".

디지털여수문화대전 / <http://yeosu.grandculture.net/>

남해안 다도해섬 개발과 마리나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 동 현 ■ 청암대학교

1. 서론

마리나항만은 요트,보트,카약,카누 등의 마리나선박이 입출항및계류,보관,유지관리등의 기초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배후부지에 이용자편의를 위해 호텔,리조트,클럽하우스등의 다 기능 복합시설을 갖추고 있는 항만을 말한다.

마리나시설은 해안이라는 특성 을 고려 지역생태계와의 관계, 어촌주민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스포츠관광과 해양스포츠인프라 구축으로 생활체육 공간으로서의 편의성등 다양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재미와 힐링을 제공할수 있어야한다 . 그리고 국가에서는 수변(강변,호반,해변)등 도시지역친수공간과 하천을 연계하여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마리나항이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요트의 활성화와 해양레저스포츠, 해양레저 문화와 관련이 많다.

유럽이나 미국, 호주 등에서는 해양을 즐기는 일상화된 해양레저 문화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서 다양함 레저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다.

정성적, 정량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국내외 해양레저산업 산업/기술 동향보고서 및 중앙정부 및 지자체 해양레저산업 정책보고서와 각종 마리나 관련 통계자료등의 기존문헌연구 조사와 해외 마리나탐방과 연관 프로젝트 분석을 하였다. 본연구의 목적은 마리나 산업과 해양레포츠 에 대한 관련 연구고찰과 현장 탐방을 통해 마리나산업 및 해양레

포츠 현황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마리나항 구축과 남해안 다도해 섬개발 통한 해양관광 및 마리나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한다.

2. 이론적 고찰

연안의 복잡화는 지역특성에 맞게 고소득 품목을 육성해야 하며 새로운 치어 생산의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의 일률적인 바다 목장 사업은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바다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지향적 국토개발은 환경보존과 조화되는 상태에서 전개되어 환경 기초 시설 확충으로 오염물질의 연안 유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등의 시설이 확충되고 해저가스전개발 등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 특성상 수심 100m 이하 해저광물자원 탐사 개발과 지속적 관리와 연근해의 블루벨트(그린벨트와 유사)를 지정하여 개발사업규제 및 청정해역의 보존도 요구되어진다.

차후 부동산의 가치에 환경이 많은 부분 포함 될것이며, 후손에게도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생각으로 보존에도 많은 노력과 주의를 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해양 개발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이 필요하다. 해양 관광 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해안지역특성에 따라 비치형, 마리너형, 종합 휴양형으로 구분하여 개발 한다.

국토해양부가 출범하면서 2011년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해양레저 스포츠 부문의 추진과제로는 ‘선진형 해양레저스포츠의 진흥’이 제시되었다.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레저교육,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레저스포츠 센터 건립, 거점형 마리나 항만 조성 지원, 마리나시설 조성, 마리나산업 발전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 등이 포함되었다.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정책은 지자체의 바다낚시공원 조성이나 산책로, 계류시설 정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마리나산업육성 대책(2011. 12) 이후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방안이나 해양레저 체험인구 확산을 위한 체험행사 이벤트 등도 추진되었다.(홍장원 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해양레저는 연안에서의 활동공간 영역 구분에 따라 해상과 해중, 해변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레저활동에 필요한 장비 사용 유무에 따라 장비 의존형과 장비 비의존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비의존형 활동은 레저보트 이용을 바탕으로 노, 바람, 엔진의 사용 유무에 3가지로 구분된다(홍장원 외, 2013)

선진국들은 마리나를 기반으로 하는 연관 산업들을 총칭하여 마리나산업이나 해양산업, 해양레저산업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에 레저보트의 제조,수리, 각종 해양레저 장비의 제작, 마리나시설 개발(폰툰, 방

파제, 슬립웨이 등), 마리나 시설 조성, 마리나 서비스, 인력양성, 환경인증 등이 포함된다.(홍장원 외, 『마리나 서비스산업의 국부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해안의 친수공간이 그동안은 물류를 위한 항만과 어민을 위한 어항으로 항만물류나 어업 전진기지로만 이용되었다면, 2010년 이후 ‘마리나항 법’에 의해 모든 시민들에게 그 이용이 증대됨으로써 바다에 대한 시민 관심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되었다.

마리나가 가져야 하는 기능은 방파제 및 보트의 계류, 보관, 수리, 점검, 청소 및 보급을 비롯하여 해양스포츠 또는 여가활동의 기능과 해양스포츠 이용자들에게 정보제공, 식사, 숙박·휴식, 연수·교육, 안전관리, 용품판매, 기타서비스 등 다양하다(송병화, 2010).

요트산업과 관련된 소비자의 성향은 두 가지 상반된 소비자 성향이 존재(김진근, 2008). 스포츠를 좋아하는 경우, 무동력 요트를 좋아하고,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동력요트(모터보트)를 구입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판매·공급 전략이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요트는 사용·안전·수리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데, 이는 바다에서의 마리나선박 고장은 곧바로 생명,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통상 유럽에서는 부모로부터 20년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3. 마리나산업 및 해양레포츠 현황 분석

요트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제작이 가능하다. 요트마켓이 먼저 육성되어야 하며, 시장 형성없이 제조만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학교 교육 등의 수요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요트 산업의 활성화는 요트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잡는 것이 선결요건이다.

현재 세계의 요트시장은 북미와 EU 지역으로 양분되어 있으나, 러시아,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향후 인도, 일본, 한국에서의 요트문화가 확산되면서 아시아-오세아니아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30~40년 전부터 대만이 요트제작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재는 침체기이며 일본이 엔진 등의 기술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슈퍼요트 마리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아시아권 시장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슈퍼요트 마리나 현황과 한국의 가능성을 살펴보면 모나코, 칸느, 산토페 등 지중해 지역의 슈퍼요트 마리나는 포화 상태이며, 현재 제작중인 60미터 이상 크기의 슈퍼요트가 정박할 마니라가 없다. 싱가포르에 1곳이 유일함. 슈퍼요트 마리나는 호텔, 각종 편의시설 및 좋

은 자연환경 등 최고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한국은 인접한 러시아, 중국, 호주 부호들의 슈퍼요트 정박장을 운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김진근, 2008)

해양레저산업이란, “인간이 해양에서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 레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제조, 시설, 서비스”을 말한다.(중소조선연구원 2010.)

〈표 3-1〉 해양레저산업의 3대 구성요소

해양레저 SOC	해양레저 장비생산	해양레저 관광서비스
마리나 방파제 항만/어항 피서리나 해양레저산업단지 해양레저컴플렉스 리조트/실버타운	보트/요트 엔진/추진기 각종 의장품 전자장비 자동화설비 설계/디자인 생산기법 신소재	해양관광/이벤트 보트쇼 운용/AS/관리 교육/면허시험 랜탈/차터링 레이싱 팩토링 금융/보험

출처: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육성전략 연구(2010)

벤치마킹할 해외 마리나항 으로 미국 플로리다주의 3번째 큰도시인 템파는 여러개의 다리와 수로로 연결되어있는 세인트피터즈버그와 클리어워터등이 있으며 템파베이 대도시권이 형성되었으며 자연재해를 막을수 있으며 마리나항으로서 천혜의 입지를 지니고 있다.

포트 로더데일은 100여곳의 마리나와 5만개의 요트가 있는곳으로 뱃놀이와 제트스키를 비롯해서 심해낚시,스노쿨링,해안선을 따라 난파선 다이빙에 이르기까지다양한 스포츠를 즐길수있는 명소로 수마일의 운하와 수로로 보트여행을 할 수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팜비취시는 내해와 외해로 나누어진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해에 마리나클럽과 관련시설을 구축하고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즐길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마리나 항만구축을 통한 해양레포츠 활성화 방안

마리나시설이 잘활용되기 위해선 해상안전을 확보할수 있어야하고 IT기술과 연계하여 마리나주변숙소및 볼거리,먹거리등을 쉽게 알수있는 IT정보도 원활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마리나항 관련교육프로그램과 해양산업관련 인재육성이 시급하며
마리나항의 입지와, 적정수의 인구, 원활한교통연결이 중요할것으로 사려 된다.

해양레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통해 구축 중인 산업과 서비스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위해 해양레저서비스 분야의 요트스쿨, 요보트 유지보수 및 관리, 요·보트 차터링, 방문자용 공용 계류서비스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며 체험학습운영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코리아요트스쿨, 카약 무료강습(여수시)과 같은 해양레저프로그램을 주말과 주중반으로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요트스쿨 및 해양레저(카약, 카누)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아마추어급 요트대회와 카약대회의 개최 지원도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으며, 내수면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남도내 하천, 댐, 호수, 저수지 등 내수면을 활용한 레저 및 스포츠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

민간단체(요트클럽, 요트협회 등)가 보유한 요트 및 보트를 이용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 또는 임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해양레저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하며 일본 나가사키의 사례와 같은 해안과 운하 및 하천이 연결되는 뱃길을 개발하여 자연재해 예방과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면 좋을것으로 사려 된다.

순천만의생태공원, 금오도의 비렁길, 백도, 거문도, 여자도, 운두도, 사도의 공룡유적지 등 주변 환경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카약 및 카누스쿨, 요트 스쿨 등과 같이 해양레저 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한 저렴한 수준의 레슨을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해양레저기업 협의체 운영지원, 해양산업창업보육센터 유치도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하지만, 지자체의 자체 예산만으로 해양레저산업 및 서비스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한계에 도달하는 실정 이어서 국토해양부 시절인 2011년 12월 ‘마리나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동서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확정(2010.12.28)하였다.

바닷가 체험및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알고자 하는데 이들에 대한 종합정보 부재로 남해안 섬관광 및 지역명소에 대한 정보를 one-stop service로 제공하는 통합관광시스템 구축 이 요구 된다.그리고, 남해안 일대 기초지자체의 해양레저 관광 및 관련 서비스 상품 현황을 파악하여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양레저 종합 관광지도도 제작하여 홍보한다.

인근 유무인도서(여수의 365개의섬, 고흥)와 섬진강에서의 카약 및 카누, 낚시, 순천인근의 습지관광, 쇼핑 등 자연경관과 문화체험을 할수있는 프로그램을 연계

하여 내.외국인이 알수 있도록 전라남도 홈페이지와 기초지자체 홈페이지 연동하여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바람직하며 향후,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에 명시되어 있는 ‘해양레저육성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정기적인 의견 수렴 및 정책에 반영 하고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제주, 부산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남해안 남중권의 거점형 마리나항만 구축으로 인해서 2012 여수 Expo와 순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공단중심의 산업 클러스터와 함께 농어촌을 남겨두면서 농어촌과 도시의 벽을 허물고 기존 도시의 틀을 유지하면서 어반 클러스터(Urban Cluster)라는 새로운 도시구역창출로 균형 잡힌 도시 성장을 가질수 있는 또다른,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는 수도권외 과밀화와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큰의미가 있다고 사려된다.

현재, 낙후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난 해소 및 해양 관광 자원화로 활용 될 수 있는 다도해 연결 연륙, 연도교 사업의 연계 개발 타당성 및 시너지 효과 제고로 남해안 여수, 고흥 지역 도서지역(다도해 섬)의 가족의 섬, 생태의 섬, 꽃의 섬, 무인도 체험 섬, 바다낚시 섬, 은하의 바다 등과 같은 해양관광 부동산개발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대표적 해양 관광 거점 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해양관광 활성화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미국의 팜비취시,템파시에 마리나항을 벤치마킹하여 보면 모두다 자연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요트, 보트, 카약,카누와 같은 해양 스포츠를 쉽게 접근할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카약 및 카누와 해양 레포츠를 즐길수 있는 해양레저 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한 방안으로 마리나 항을 중심으로 인근 섬과 하천, 댐, 호수, 저수지 등 내수면을 활용한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해양레저문화가 빠른 시간 정착할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자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해양 스포츠(카약 카누,요트등)의 강습이나 스쿨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진행 시켜야 하며 지역생태계와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자연친화적인 해양스포츠인프라 구축으로 생활체육 공간으로서의 편의성등 다양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재미와 힐링을 제공할수 있어야한다.

섬개발은 미래를 위한 자원보존과 더불어 현지주민생활권 보장이 전제된 상태에서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진해야한다.

마리나항이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요트 및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와 함께, 해양레저 문화가 정착 될수 있도록 초중고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해양체험 교육도 중요시 된다. 이

에 따라 남해안 마리나산업과 관련된 인재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산업체 맞춤형 대학의 해당학과가 필요하다고 사려 되며 향후 기 개최한 여수 EXPO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말하는 Vendee Globe 요트 대회나 America's Cup 요트대회 유치로 마리나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이룰수 있는 기폭제가 될수 있다.

참 고 문 헌

- 경상남도 남 해안시대요트산업종합발전계획 2007.12.
 국토해양부, 2012, 제2차 연안정비수정계획(2010-2019)
 김영준, 「섬관광의 현재와 미래 발전 전략」, 『경남발전』, 2012.
 김 준, 「섬관광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도서문화』32,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8.
 남정호.최지연.육근형.최의정, 「연안.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체제 구축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
 원 보고서, 2004
 도서문화연구원, 『섬관련 정책, 계획 및 사업의 추진현황 분석과 설문조사 보고서』, 2012
 김영돈, 마리나 인문학, 문화디자인, 2016.5
 EU지역의요트산업현황과경남의정책방향 경남발전연구원이슈페이퍼 2008.7.
 지식경제부 해양레저장비산업활성화방안 2009.6.
 홍장원 외,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해양레저산업 육성전략연구(2011).
 홍장원 외, 해양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홍장원 외, 마리나 서비스산업의 국부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BMF et al, Watersports Participation Survey 2012 Executive Summary, 2013.
 BMF, UK Leisure, Superyacht and Small Commercial Marine Industry Key Performance Indicators 2012/13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 위원장

강봉룡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장)
이귀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최미순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장호수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상임위원

송기태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곽유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이기중 (당진시청)
조이현, 김형서 (세한대학교)
송두범 (충남연구원)
오석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학술 및 분과위원

최성환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김애경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심재영 (세한대학교)
김경옥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홍선기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김재은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곽수경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이혜연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답사위원

민정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홍순일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사무국

임은옥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황일남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2016년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자료집 3 분과회의 [5분과 / 6분과 / 7분과 / 8분과]

찍 은 날 _ 2016년 7월 2일

퍼 낸 날 _ 2016년 7월 6일

주최 · 주관 _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후 원 _ 충청남도, 당진시,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재단

